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평가를 받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광복직후인 1945년 9월부터 1946년 9월까지의 시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새 조국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자로서의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광복직후 새 조국 건설에서는 허다한 난관이 제기된다. 인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식량난, 철도운수의 혼란 …등 많은 난관중에서도 가장 큰 난관이 인재문제이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광복당시 지식인이 얼마 없는데다 있는 지식인들마저 건국열의는 있으나 계급적처지에 대한 불안, 일제에 복무한 과거경력에 대한 가책과 죄의식, 잡다한 정치사조에 대한 회의와 혐오로 번민속에 모대기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운명의 곡절을 겪어온 경상도출신 야금기사 강병철, 강선제강소 기사 양춘만, 경성제국대학 교원 안동권 등 지식인들의 불미한 과거를 백지화하시고 뜨거운 애국의 손길로 그들을 이끌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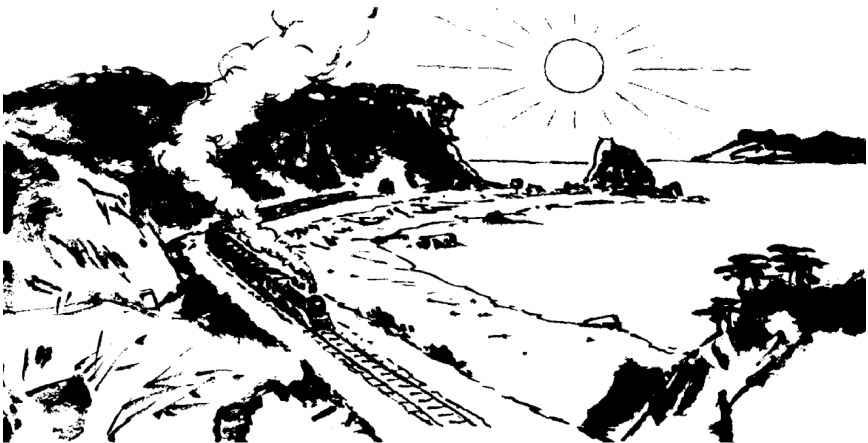
이 과정에 양춘만을 데리러 서울로 나갔던 항일투사 박원식을 잃는 가슴아픈 일을 당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애국, 애족, 애민의 크나큰 도량과 아량, 뜨거운 인간애로 그들의 넋을 깨우치시고 운명을 책임지시여 끝내 철도도 운영하고 **김일성**종합대학도 창설하시며 우리의 첫 강철도 뽑아내시여 새 조국 건설의 첫 진군을 힘차게 떼게 하신다.

소설은 당기에 마치와 낫과 함께 붓을 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지식인정책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서 품위있게 형상하고있다.

편집부

주요 인물

김 책	항일혁명투사
박원식	항일혁명투사, 평양철도국 파견원
강병철	성진제강소 기사
양춘만	강선제강소 기사
안동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전 경성제국대학 교원
한명구	평양철도국 국장
박창술	신창탄광 로동자
민기환	미제의 고용간첩

제 1 장

1

가을이다.

해빛이 정원을 밝게 비치고있었다. 고요가 깃든 마당안에는 한껏 무르익은 가을정취가 소슬바람을 타고 흘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금 점심식사를 끝내시고 마당을 거닐고계시였다. 아직 군복차림인 그이께서는 괴석이 몇개 놓이고 그옆에 향나무가 한그루 소담하게 자라고있는 정원을 거니시면서 이제부터 밤까지 해야 할 사업을 구상하고계시였다.

걸음을 옮겨짚을 때마다 구두발소리가 울리면서 짙게 가라앉은 마당의 고요를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남쪽으로 트인 널대문앞까지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서서 마당 한가운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뇌리에는 아침 첫시간에 김책에게 불쑥 하게 된 자신의 한마디 대답이 떠올랐다. 오늘아침 김책이와 사업토의를 하실 때 그로부터 조국개선이후 지방들에 파견하신 정치공작원들의 그간 사업정형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으시였다. 김책은 파견원들의 사업에서 례외없이 성과가 크다고 하면서 정치공작원을 한개 도에 몇명씩이 아니라 매개 군에까지 파견했더라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라고 하시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 되뇌임이 하도 많은 사연과 뜻을 담고있어 그랬던지 오전해껏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 되새겨지시였다. 하기는 이때 당을 창건하는 문제, 정권을 세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문제, 각계각층 군중을 통일전선에 결속하는 문제, 일제가 파괴한 경제를 복구하고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문제 등 사업을 론의할 때마다 매번 그 종착점은 그

것을 누가 책임지고 담당수행하는가 하는데 이르군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멈추었던 걸음을 다시 떼시면서 당면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업에로 사색을 돌리시였다.

며칠동안 보고를 받아보신데 의하면 시장의 물가가 하루건너 파동치고있으며 시민들 특히 로동자들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8.15를 전후하여 례년에 없었던 큰물피해로 해서 생겨난 리재민들은 아직 한지에 나앉은채로 있다고 한다. 물에 잠겼던 보통벌 토성랑에서는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였다. 비단 평양뿐만아니라 함흥,청진,원산,신의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사위는 깜박 조을듯이 고요하였다. 집무실로 쓰는 2층도 경위대원이 거처하는 아래층방들도 조용하였다. 식사때가 퍽 지난뒤라 사람들이 드나들던 식당칸도 조용하여 산속의 밀영처럼 고요하였다. 오직 다른것이 있다면 이깔나무우듬지를 흔드는 바람소리 대신에 한껏 약해진 거리의 소음이 뒤골목 추녀밑에 알릴듯말듯 감돌고있을뿐이다.

마당을 거니시던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허리를 짚으시고 유자덩굴이 받침대를 타고 담장에 기여오른것을 보시며 걸음을 멈추시였다. 이미 황이 든 넌출에는 끝으로 가면서 크기가 작아진 유자들이 귀엽게 매달려있었다. 유자열매는 한껏 무르익어 빛갈이 곱고 그 향기 또한 여간만 그윽하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손끝으로 서리가 내돋은 몽글몽글한 열매를 다쳐보시였다. 만경대의 사립문 량쪽 울바자에도 가을이면 이렇게 유자가 달려있었다는 기억이 떠오르시였다.

부엌문이 덜컥 열리더니 작식을 담당한 녀대원 안명숙이 바께쯔를 들고 나왔다. 집무실로 올라가신줄 알았던 장군님께서 마당에 계신것을 띠여본 안명숙은 바께쯔를 놓지 못하고 주춤거리였다. 사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산에 있을 때도 그러했지만 이렇게 생활환경이 달라진 오늘에도 그이께서 혼자 거니실 때면 사업을 두고 깊은 사색에 잠겨계신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안동무! 이걸 좀 보오.》 그이께서 안명숙이쪽으로 돌아서시며 말씀하시였다. 《유자가 이렇게 익은걸 보니 우리가 산에 심은 호박도 지금쯤 딸 때가 되지 않았을가.》

그제서야 그는 마음을 놓으며 손뼘프옆에 바께쯔를 놓고 한낮의 해빛에 유난히 드러난 유자덩굴쪽으로 고개를 돌리였다.

《아이, 정말 흠뻑 익었군요.》

안명숙은 물묻은 손을 이마로 가져가며 웃었다. 그는 이 마당에서 살다싶이 하면서도 여직 그것을 띠여보지 못했던것이다.

안명숙은 즐거운 목소리로 산에 심은 호박도 잘되였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올해는 그 호박맛을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됐군.》

불과 한두달차이건만 벌써 밀영생활은 아득한 옛일처럼 추억의 저쪽 언덕에 서있었다. 그이께서는 밀영주변에 심은 호박이며 감자를 두고 잠시 그윽한 감회에 잠기시였다. 광대한 지역, 끝없는 밀림속의 임의의 장소들에 씨앗을 박아넣은 감자나 호박 포기들은 매우 허망한것 같지만 유격대생활을 체험한 사람치고 누구나 이 우연의 고마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안동무도 밀영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심은 호박맛을 더러 보았던가?》

장군님께서 다가오시며 물으시였다.

《예, 재봉대에 있을 때 호박을 삶아먹었는데 맛이 꿀처럼 달았습니다.》

《그래 꿀처럼 달았지…》

그이께서는 먼 하늘가에 시선을 돌리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물바께쯔를 가시고있는 안명숙에게 《명숙동무, 한가지 물읍시다.》라고 하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동안 잡곡밥을 해서 구수한게 입맛이 좋았는데 요 며칠은 왜 하얀 흰쌀밥만 하는지 모르겠소.》

너무 뜻밖의 말씀이여서 안명숙은 인차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공연히 걷어올린 팔소매만 어루만지였다.

《맨 흰쌀밥보다 조나 콩 같은것을 섞으면 구수한게 참 맛이 좋습니다. 보리나 수수를 섞는것도 좋고… 먹기도 좋지만 원래 오곡밥은 약밥이라고 하지 않소.》

안명숙은 장군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오히려 그래서 인차 대답이 나가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산에 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작식대원이 만든 음식을 나무라신적이 한번도 없었다. 콩밥이면 콩밥, 통강냉이면 통강냉이, 지어는 낟알이 한알도 보이지 않는 산나물범벅을 받으시고도 매번 그 음식에 대한 좋은 점을 지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군하였다. 어느 한때도 대원들과 구별되는 음식을 받으신적이 없었다. 특히 조국에 개선하시여서는 우리 혁명군은 예나 지금이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해야 한다, 지금 우리 인민의 생활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 인민들이 조밥을 먹으면 우리도 조밥을 먹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시군하였다.

《사령관동지!》 하고 안명숙은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쳐들었다. 《사령관동지의 뜻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일을 잘못해서 그렇게 되였습니다. 꼭 잡곡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녀대원의 맑고 빛나던 눈에는 금시 물기가 어리였고 목소리가 약간 떨리기까지 하였다.

《아니요, 아니요.》 하고 그이께서는 손을 가로저으시면서 송구한 자세를 취하고있는 녀대원의 대답을 부정하시였다. 《그런게 아니요. 동무들이 일을 잘못하고있다고 책망하자는것이 아니요. 동무들이 언제한번 우리의 생활규범을 함부로 어긴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소. 그저 이 며칠동안 흰쌀밥만 끓인데는 꼭 무슨 사연이 있을것 같아 묻는거요. 그 사정을 알자는거요.》

얼마동안 사이를 두었다가 안명숙은 나지막하게 그러나 또박또박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까지는 박원식동무가 장을 보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잡곡을 구하려고 사동장에도 가고 서성리도 갔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대평에나 원장에까지 나갔는데도 잡곡을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도 요새 김좌현동무와 같이 장에 나가보았는데 갖추갖추 사낼수가 없었습니다. 잡곡이 혹간 있기는 하지만 흰쌀과 별로 값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같은값이면 하고…》

《그렇소? 알만합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

였다. 그러시고나서 그이께서는 다시 의문스러운 어조로 친근하게 물으시였다. 《그런데 어째서 이 마가을에 그렇게 되는지 알아본것은 없소?》

안명숙은 입술을 방싯 열기는 하였으나 종시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다시 마당을 거닐기 시작하시였다. 생각깊은 걸음으로 저쯤 쪽대문이 달린 담장끝까지 나갔다가 다시 이쪽 물뽐프가 있는데까지 오가기를 몇번이나 거듭 하시는것을 녀대원은 말없이 지켜보고있었다. 산에 계실 때는 오직 조국광복의 위업을 달성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걱정없는 날이 하루도 없더니 광복이 된후에도 역시 그대로 만가지시름을 안고계시는 것이다. 지금은 누구나 광복이 된것으로 해서 온갖 시름을 잊고 기뻐서 춤추고있는데 오직 장군님께서만은 광복의 기쁨 그 리면에 겹놓인 온 겨레의 크고작은 모든 시름을 한몸에 지니고계시는것이다.

잡곡을 구하기가 왜 힘든가, 안명숙은 그 까닭을 알수가 없고 또 어떤 리유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로 될것 같지는 않았다. 인적기가 있어 고개를 드니 대문안으로 김책이 급히 들어오고있었다. 함남도에 파견되여있는 김책이 최근에 얼마간 평양에 올라와 장군님 사업을 보좌하고있었다. 안명숙은 얼른 바께쯔에 물을 채워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김책이 마당에 들어서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기다리고계시였다는듯이 반갑게 맞이하며 점심을 어데서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책은 돌아오는길에 사동국수집에 들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안동무가 기다리고있는데 빨리 점심을 하라고 권하시였다.

《정말입니다. 오늘은 사실입니다. 저 방동무가 보증할수 있습니다.》

김책은 웃으며 뒤따라온 운전사에게 손짓을 하였다.

《정 그렇다면 또 한번 속는셈치고 믿어봅시다.》 하시며 그이께서는 활달한 걸음으로 승용차가 서있는 대문쪽으로 나가시였다. 《김책동무! 예정했던대로 토성랑으로 나가봅시다. 이제 인차 날이 추워지겠는데 집을 잃은 사람들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구식이긴 하지만 류선형으로 생긴 승용차는 경쾌하게 본정거리를 빠져 보통강쪽으로 달리였다. 김책을 옆에 앉힌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창을 통해서 거리풍경을 보시다가는 고개를 돌리군하시였다. 밤이고 낮이고 분주히 뛰고있는 김책의 건강이 념려되시였던것이다. 오늘도 그는 신새벽에 석탄을 풀어볼가 해서 사동탄광에 나갔었다. 강기가 있어서 웬간한 피로는 좀체로 나타내지 않는 그였건만 요새는 그것도 정도가 지나쳐 눈확이 푹 꺼져들어가고 입술에 덕지까지 앉았다. 그러나 언제나 정기를 잃어본적이 없는 크지 않은 그 눈만은 변함없이 예리한 빛을 뿜고있다. 그이의 걱정어린 시선과 마주치자 김책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한가지 제기할것이 있습니다.》 하고 조용한 기회를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말을 떼였다.

《어서 이야기하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띠우시며 다시한번 김책을 쳐다보시였다. 요새 어느 하루 번진적이 없이 사업토의를 하여왔건만 김책은 매번 긴요하고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그것은 대체로 정책작성에서나 방침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로 되군했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그이께서는 성근히 응할 용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재촉하시였다.

《평양철도국장으로 배치할 한명구기사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배치문제를 다시 고려한단말입니까?》

그것은 실로 뜻밖의 제기였다. 미소를 띠였던 그이의 얼굴이 금시 긴장되였다. 일제때 전기기사였던 아끼다공대출신 한명구를 평양철도국장으로 배치하자는데 대해서는 김책이 먼저 제기하였고 호상 신중히 토의한후 락착지은 문제였다.

《일부 사람들은 한명구기사를 철도국장으로 사업하게 하는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벌써 몇번이나 저에게 제기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명구가 일제때 복무한 지식인이라는것과 또 그것때문에 로동자들속에서 상당한 정도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는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김책은 고개를 돌려 **김일성**동지를 쳐다보았다.

그이의 얼굴에는 의혹의 그늘이 질어가고있었다.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사전에 론의했던것이 아닙니까? 하긴 동무가 말한 그 사람들은 그때 없었으니까 혹시 리해가 미치지 못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선행한 고전가들의 모모한 로작들을 죄다 외워대면서 오히려 저를 설복하려 하고있습니다. 지식인을 혁명력량편성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부류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리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도국장 한명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지식인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립장에 서야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잠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였다.

《알만합니다. 시간을 내서 그 동무들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합시다.》

《다른 문제는…》 하고 김책은 운전사의 등을 두드려 차를 좀 천천히 몰라고 주의를 주고나서 뒤를 이었다. 《지방에 보낸 정치공작원 동무들이 급히 모임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제기하고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쪽으로 상체를 돌리시며 물으시였다.

《떠나간지 이제 한달도 못되는데 왜 올라오자고 합니까. 그 동무들을 내려보내면서 년말경에 가서 총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무들도 그걸 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보니 생각던것보다 지방실정이 매우 복잡한 모양입니다. 저도 역시 함흥에서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시급히 결론을 받을것도 많고 자체로 해결하기 바쁜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안길동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길동무는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곳 실정도 여전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김일동무도 소식이 있습니까?》

《서면보고가 올라왔는데 매일반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신중히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말씀하

시였다.

《그러면 한번 모이도록 합시다. 이제 곧 당창건을 위한 회의도 있는것만큼 거기에 참가할겸 올라오는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인차 련락하겠습니다.》

《그런데 김책동무! 인차 알아보아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김책을 쳐다보시였다.

김책은 정색해져서 귀를 기울이였다.

《이미 우리가 생각한바도 있었지만 오늘 안명숙동무와 잠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곧 시장형편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장마당형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식량이 들어오는 형편과 물가시세 그리고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동향과 정서도 알아보아야겠다고 하시였다.

《알았습니다.》

어느덧 자동차는 큰물이 지나간 흔적이 력력한 토성랑감탕길에 들어섰다.

2

이튿날 한낮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마당으로 나서시는데 김책이와 박원식이 손달구지를 끌고 대문쪽으로 들어왔다.

《이게 뭡니까?》

달구지에 얹힌 마대자루를 가리키면서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사창장마당에서 책을 사오는중입니다.》

아구리가 열린 마대에는 호화장정을 한 책들이 하나가득 담겨있었다.

맨우에 놓인 책 한권을 집어드신 그이께서는 의문이 실린 눈길로 김책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였다.

《그런데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장군님,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책은 웃으며 이마에 맺힌 땀을 씻었다. 《참말 사창장마당이 굉장합니다. 정작 나가보니 왜 진작 나와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머리를 뗀 김책은 반나절이나 걸쳐 돌아본 장마당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보고들은것을 죄다 그대로 형상하려고 애썼다.

…사창장마당은 붐비였다. 광복이 돼서 한달이 좀 넘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몇곱으로 더 번창해진것이였다.

김책은 장마당어구 포목전에서부터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오른쪽으로 나가 한길과 잇닿은 대목에 지짐, 탁배기, 비지 등속을 파는데가 있고 그어간에 쇠대, 접철 같은 간단한 철제품을 내다놓고 앉은장을 보는데도 있었다.

《이 쇠대 하나에 얼마입니까?》

김책은 석유상자우에 각종 자물쇠와 열쇠들을 주런이 펼쳐놓은 쇠대장사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시겠습니까?》

중절모채양을 도려서 마치 학생들 운동모처럼 만들어쓴 나이 사십가량 된 사나이가 아래우 푸른 군복을 입은 김책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살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다는투로 반문하고있다.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건 결쇠질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나사로 틀게 만든건 천상 열지 못하지요. 여러개 사신다면 눅게 해드릴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연히 물건을 이쪽저쪽으로 옮겨놓으면서 눈부시게 비쳐드는 석양을 피해 이쪽의 거동을 살피고있다.

《요새 성안에는 **김일성**장군부대가 쭉 펴졌다는 소문이 돌던데 군대어른도 그 부대가 옳겠지요? 정 필요하시다면 몇개 거저 드릴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골라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책은 마디가 굵고 기름때가 묻은 장사군의 커다란 손과 마음을 진정 못하는 거동을 살피며 물었다. 《이건 공장에서 만든겁니까?》

《웬걸요. 제가 자작 만든거지요. 그렇지만 고장도 없고 오래 갑니다. 골라잡으라니까요.》 또다시 사오십개되는 각종 쇠대를 이쪽저쪽 자리바꿈을 해놓으며 혼자소리처럼 중얼중얼하고있다. 《하는수 있습니까. 광복은 되였다지만 코아래구멍은 사정이 없습니다. 아이 셋을 무엇으로 먹여살립니까. 그래 배운 재간이 쇠붙이 다루는거다보니 이 놀음을 하고있습니다.》

사나이는 차츰 못할짓을 하다가 들키기라도 한것처럼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있다.

《어느 공장에라도 다녔던것이 아닙니까?》

《예. 강선제강소 공무에서 선반을 했습니다. 기계도 마사지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사이에 동행하였던 박원식이와 경위대원 최동무는 빵굽는데 가서 쟁철들과 콕스풍로를 신기하게 들여다보고있었다. 곡산공장이 서다보니 개인장사군들이 번성하였다. 최동무는 빵을 사들고 쇠대장사앞으로 다가왔다.

《최동무, 하나 고르시오. 쇠대가 좋아보입니다.》 김책은 쇠대를 가리키였다. 그러며 《그래 공장에서는 언제쯤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고 장사군에게 물었다.

《정해놓은 날자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쇠대장사는 서슴없이 마음을 털어놓는다.

《거저 광복이다 하니까 우야 하고 헤여졌지요. 징용이나 보국대로 끌려왔던 사람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밑천이 좀 있는 사람은 장사하러 남조선으로도 가고 나처럼 빈주먹밖에 없는 사람은 밥벌이를 떠나고 그게 다지요. 돌아가는 말을 들으니까 공장은 다 뜯어가서 파철이 됐다고도 하고 통 알수 없지요. 모두 제나름으로 떠들어대는 소리니까요.》

김책이 신중한 어조로 타이르듯 말했다.

《돌아가서 공장을 복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곤난하면 당장은 공장을 지키기라도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 같기는 한데 누가 밥을 먹여주나요.》

최동무는 염낭에서 돈을 꺼내여 값을 치렀다.

《아！ 괜찮습니다. 몇시간 뚝딱거리면 하나 또 만들수 있습니다. 군대가 어데서 돈이 나겠습니까.》

《남의걸 거저 가질수야 없지요.》

50전을 내놓으니 군이 사양을 하다가 20전만 받고 거스름을 돌려주면서 고맙다고 한다.

김책은 쇠대장사와 인사를 나누고 이어 싸전을 찾아 장마당가운데를 걸어갔다. 사람들은 별의별것들을 다 들고나왔다. 한쪽에서는 달구지에 실은 마대에서 일본군대 군화를 꺼내 팔고있다. 와야—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저마끔 한두컬레씩 집어들고 신어보기도 하고 두루 만져보기도 한다. 또 저쪽에는 누런 군대모포, 각반, 늄물통, 또 이쪽에는 일본사람들의 옷가지인 잠옷, 나고야명주천의 허리띠, 교또날염직, 일본인들이 쓰던 가구들도 보이였다. 나왕재로 만든 네모식탁, 두리반, 책장, 놋화병, 밥공기, 나무밥통, 박죽 어쨌든 부엌과 방안에 놓을수 있는 온갖것이 다 나왔다.

입가에 미소를 지은 김책은 이 광경을 보면서 왜색을 가시기 위한 인민들의 성급한 감정을 느끼였다. 그는 가마니로, 자루로, 되박으로 주런이 내다놓은 싸전을 한쪽에서부터 톺아나갔다. 값도 묻고 어데 쌀인가 알아도 보았다. 쌀은 대체로 평양근방의것이였으나 개중에는 룡강쌀, 한천쌀, 기양쌀도 있었으며 숙천이나 강서것도 있었다. 잡곡의 태반은 강동, 곡산것들이고 일부 벌방것도 있었다.

《지금 곡식은 값을 묻지 말구 사두시라요. 손해없시요.》

허리에 커다란 돈주머니를 데룽데룽 드리운 뚱뚱한 아낙네가 자신있게 권고하고있다.

《이제 햇곡식이 밀려들지 않겠습니까？》

김책이 웃음을 지으며 묻자 저편에서는 그럴수가 없다면서 제법 조리있게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밀릴라면 벌써 밀렸디요. 햇곡식이 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꼴을 보시라요. 그전엔 기차루 자동차루 실어들였지만 올핸 사정이 달라요. 고작해서 소달구지가 아니문 녀편네들이 머리에 이고 오지요. 두고보디요. 이꼴루 있다간 다 굶어죽습넨다. 그렇게두 살기 좋아 병아리두 펴양펴양 하구 운다구 했디만 이젠 펴

양에서 큰일나요.》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김책은 말박이 놓인 오른쪽궤짝우에 스스럼없이 앉았다.

《헌데 이 쌀을 어데서 가져오시우?》

《증산서 달구지루 실어오디요.》

《재령이나 신천같은데는 못갑니까?》

《못갑네다. 차가 있나요. 철도를 낀 사람들은 혹시 황해도쪽에서 기관차나 우편칸에 싣고오기두 한답데다. 그런데두 그건 새발의 피야요.》

김책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웃었다.

《안주나 양덕쪽에서 오는 쌀은 없습니까?》

흥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김책이 또 물었다.

《말두 말라요.》 하고나서 쌀장사군녀인은 건너편 길가에 앉아서 녹두지짐을 지지고있는 늙은이에게 손짓을 해보이였다. 《오마니,두장만 가져다주. 내 지금 귀한 손님이 와서 건너가서 먹을새없어 그래.》 녀인은 다시 김책을 향해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군대어른,미안하우다. 내 오늘 서포역에 짐을 받으러 나갔다가 생 죽다가 겨와 살아났수다. 이틀만에 신의주쪽에서 기차 하나가 오긴 했다는데 사람우에 사람이 덮이고. 아유,세상에 그런 란리가 어데 있소. 쌀자루 세개가운데서 두개를 잃어버리고 겨와 목숨을 건져가지구 왔수다. 말을 들으니 양덕쪽에서는 한동안 기차가 올 가망이 없대요. 굴이 무너졌다는 말두 있구요. 아유 참!》

노죽이 이만저만이 아닌 녀인의 푸념으로 해서 결국 김책이 알고싶던 문제가 스스로 해명된셈이다.

김책은 말박에 담겨있는 수수쌀을 한웅큼 쥐여 손바닥에 펴면서 《이건 어데서 가져왔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건 숙천서 온거얘요. 수수도 귀하다보니 흰쌀값과 같구 국수 한그릇값만치밖에 떨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었다. 안명숙이 흰쌀밥만 하게 되였다는 까닭을 알수 있었다. 쌀장사녀인의 말을 절반만 믿는 경우에도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것이 명백하였다.

김책은 녀인곁을 떠나 다른쪽으로 가면서 박원식에게 조용히 말하였다.

《사태는 예상외로 엄중하오. 혼란된 철도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장군님 말씀이 얼마나 지당하오.》

일행이 싸전을 돌아보고있는 사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잡화전에서는 옥신각신이 벌어지고있었다.

《아니, 젊은이, 내 물건 내가 파는데 자네는 뭐이 돼서 남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 야단이요. 사겠으면 빨리 사고 안사겠으면 일어나 가시오.》

낭자를 틀어올린 50대의 녀인이 안경을 낀 양복쟁이사나이를 입심좋게 몰아주고있다.

《아니 글쎄 생각해보시오. 이걸 파지루 팔면 됩니까? 그것도 떡이나 지짐을 싸는 종이루…》

대모테안경을 낀 30대의 젊은이는 량손에 하나씩 집어든 책을 녀인앞에 흔들어보이면서 애타게 부르짖고있다. 그러거나말거나 녀인은 5전이나 십전짜리 짤락돈을 받아들고는 아무거나 골라가라고 손짓을 하며 청년에게 건성 대꾸를 하고있다.

《젊은이,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몽땅 사가라고 하잖소.》

《참 기가 막혀서.》

젊은이는 달구지우에 놓인 마대를 줄줄 끌어다 쏟아본다. 거기서도 책들이 나온다. 모두다 기술서적들이다. 일어판도 있고 프랑스어판, 도이취어판도 있다. 대개가 제철과 관련된 기술서적이고 어떤것은 전기공학, 수리학, 생물학도 있으며 세계문학선집도 보이고 라크의 광택이 요란한 세계미술사전도 있다. 녀인의 푸념을 들어보면 강선에 있는 조카네 집에 가서 실어왔다는것이다. 왜정때 대학공부를 한 조카는 광복이 되면서 어데론가 몸을 피했는데 그의 처와 아이가 병들어 목숨이 오락가락한다, 목숨을 건져야 하는판에 책은 둬서 뭘하는가, 그래 다문 얼마라도 약값을 보태자고 한다는것이다.

《야. 아주머니, 이걸 팔지 말고 둬두시오. 이건 금덩이와 같이 귀중한 책들이요. 이걸로 도배를 하거나 휴지로 써서는 안돼요. 이제 우리한테도 나라가 서면 이걸 보고 강철도 만들고 금도 제

련해야 합니다.》

젊은이는 너무 안타까와 몸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한다. 그러나 녀인은 막무가내였다.

《사람을 살려야 하겠수다. 사람이 죽는판에 책이 다 뭐요.》

하는수없이 젊은이는 염낭을 들추더니 10원짜리를 하나 꺼내 녀인에게 던져준다.

《아주머니,나한테는 이것밖에 없소. 제발 이 책들을 팔지 말고 도로 가져다 보관하시오. 부탁이요. 이제 주인이 나타날거요. 꼭 나타나오.》

《어서 돈값만치 골라가기나 하라요.》

녀인은 모여선 사람들을 향해 손짓을 한다.

《자！ 파지를 사라요. 종이가 좋수다. 도배나 장판을 하는데 밑판에 써도 좋아요. 한책에 막밀어 10전이요,10전！》

젊은이는 하는수없이 책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대수간 몇권 골라안더니 일어난다.

《아！ 참말 비참한 현실이군！》

그는 하늘을 향해 장탄식을 하더니 사람들속으로 사라진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웃음을 터친다.

《아주머니,횡재를 했수다. 책 대여섯권에 10원이 어데요.》

그때 김책이 여기에 와닿았다. 군대들이 나타나자 녀인은 홀연 주눅이 들어 묵묵히 앉아있고 구경군들이 전후사연을 대강 설명하였다. 그렇게 되자 김책은 경위대원 최동무를 시켜 책을 사간 그 젊은이를 빨리 찾아보라고 하였다. 김책은 산더미처럼 쌓인 책을 하나하나 들쳐보기 시작하였다. 기술도서와 문예도서를 따로 가르고 잡지와 신문을 또 다른쪽에 내놓았다. 달구지에 아직 헤치지 않은것도 다 쏟아놓게 하였다. 표지나 속지가 뜯어졌거나 째진것을 하나하나 바로잡는다.

《아주머니,이 책을 어데서 가져왔습니까？》

김책은 꾸겨진 책을 쓸어만지며 물었다. 너스레가 대단하던 녀인은 금시 입이 얼어붙은듯 말을 하지 못한다.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이 책을 다 사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글쎄요.》 녀인은 기가 질려서 어름어름하였다. 그러다가 녀인은 무슨 후환이 있을것을 념려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강선에 가니 거기도 장마당이 있더군요. 거기 나온걸 여기 가져다 되넘기면 비싸게 팔겠기에 실어왔습니다. 이런걸 팔문 안되나요. 이자 안경낀 젊은이두 팔지 말라구 야단하다가 10원어치 사가지고 갔습니다.》
《강선이 틀림없겠습니다, 아주머니.》
《그래요. 강선이 틀림없어요. 내가 그걸 속여 뭘하겠습니까.》
경위대원 최동무가 돌아왔다. 안경쟁이 젊은이는 어디 갔는지 알수없다고 하였다. 최동무가 전차정류소까지 나가 물어보니 안경을 낀 젊은이가 책을 들고 방금까지 서있었는데 어데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본평양쪽으로 갔다고도 했다는것이다.
김책은 최동무에게 어디가서 마대와 손달구지를 빌려오라고 하였다.
최동무가 얻어가지고오자 그들은 곧 손달구지에 책마대 다섯개를 올려놓았다. 박원식이와 최동무는 앞에서 끌고 김책은 뒤에서 부축하였다. …
시장이야기를 다 들으신 그이께서는 김책을 향하여 손에 드신 책을 흔들며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입니다. 공장은 멎고 로동자는 흩어졌습니다. 강철공장 로동자가 쇠대장사를 하고있습니다. 기술자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귀중한 기술도서들이 파지로 팔리고있습니다. 그것을 분하게 여기고 주머니를 털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책동무！ 그 사람을 꼭 찾아내야 하겠습니다.》
이윽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높은 어조로 계속하시였다.
《그래 어떻습니까？ 우리가 맨먼저 철도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것이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오늘 장마당을 돌아보니 우선 철도를 풀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시간을 내서 철도에 나가봅시다. 한명구기사도 직접 만나보아야겠습니다. 그 동무는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며칠전에 만났는데 힘에 부쳐 국장사업을 못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럴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의 팔을 붙잡으며 말씀하시였다.

《이런 형편에서 이제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우리 인민을 하루빨리 새로운 건설을 위한 로력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것입니다. 들떠서 만세만 부르고있으면 그사이에 우리는 많은것을 잃을수 있습니다. 쇠대장사를 하는 로동자는 우리 공장의 현실태를 말해주고있습니다. 또 쌀장사아주머니의 말을 생각해보시오. 이제 모두다 굶게 될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섭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흔드시면서 결연히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하루빨리 당도 창건하고 정권도 내오고 군대도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아와 역병의 바다우에 떠있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것입니다. 인민은 자기네들을 굶기는 당이나 정권은 쳐다보지도 않을것입니다.》

그이께서는 무엇인가 더 말씀하려고 하시다가 그만두고 김책이쪽으로 나서시였다.

《최준걸이라는 선광기사에게 무슨 일을 맡겼습니까?》

최준걸이란 황해북도에 있는 백년광산에서 일하던 기술자인데 며칠전에 찾아와 건국사업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것도 좋으니 일을 시켜달라고 했던것이다.

《우선 기간공업의 실태를 료해하라고 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3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강병철이 책을 한아름 안고 층계를 텅텅 구르며 2층으로 올라가고있었다. 대우가 나서 반질반질한 널마루복도를 지나 침실미닫이를 발끝으로 밀어제끼였다. 문이 열

리자 낯선 청년 셋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어줍은 웃음을 짓고 서서 실례한다고 인사를 하더니 려관주인이 한방에 같이 들도록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거나말거나 강병철은 장마당에서 만난 그 녀인에 대해 화가 한껏 동했던지라 들고온 책을 다다미방 한쪽구석에 와르르 쏟아놓았다.

《무식한것들을 치료하는 약은 왜 없는지 모르겠거든. 에익 참.》

한쪽구석에 아무렇게나 앉고난 그는 기분을 눅잦히려고 담배만 게걸스럽게 빨고있다. 먼저 든 손님이 한껏 기분이 상했다는것을 알게 된 세 청년은 어색해서 절절매였다. 감각이 예민한 강병철은 널려진 책들을 한데 모으고나서 손님들과는 전혀 무관계하다고 하면서 책을 사오게 된 사연을 대충 말하였다. 그렇게 되자 얼굴색이 검고 몸이 다부진 청년이 그렇다면 마음이 놓인다면서 먼저 인사를 청하였다.

《뵈온적 없습니다.》

《피차일반입니다.》

강병철이 팔을 앞으로 내짚으며 맞인사를 하였다.

《저희들은 여기 평안남도에 있는 신창탄광에서 왔습니다. 석탄을 캐는 탄군들이지요. 제 이름은 박창술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밀양박씨라고 하는데 저는 밀양이 어데 붙어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서울서 왔습니다. 사실은 고향이 경상도 대구입니다만 여기 오기전에 서울서 떠났습니다. 저는 제비강자쓰는 강병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낮춰주십시오. 나이로 봐서두 10년은 이상 같은데요. 저는 지금 스물한살입니다. 여기 우리 동무들이 모두 한두살차이 동갑입니다.》

청년은 매우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주눅이 대판이라는것이 알리였다. 역시 세명이 모두 어슷비슷하였다. 강병철이 담배 《마꼬》를 한갑 내놓자 박창술은 트렁크에서 양덕초라고 하면서 노랗고 납작하게 잠을 재운 잎담배 한춤을 내놓았다.

《아,이런,연초공장을 통채로 넣고다니는셈이군요. 하하하. 한대 맛을 봅시다.》

손바닥에 놓고 와삭와삭 잎을 부스러뜨려 신문지에 말아 입에

꼬나물었다. 고추가루를 들이키는것처럼 입안이 싸하였고 재채기가 올라왔다.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좀 어색한데 동무로 불러주시오.》

강병철이 재채기를 간신히 참으며 한마디 했다. 박창술은 까까머리가 아직 채 자라지 않아 총이 꽷꽷이 일어선것을 연방 쓸어넘기면서 웃는다.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존대하는거야 나쁠것이 없잖습니까. 혹시 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괴여올린다면 비행기를 태운다고 하겠지만 강선생님은 첫눈에 지식이 대단하다는것이 알립니다. 우선 이 책을 봐도 알수 있잖습니까.》

박창술은 책을 집어다가 벌꺽벌꺽 뒤지며 입심을 부린다.

《전부 꼬부랑글이군요. 선생님은 이걸 다 읽을수 있겠지요? 도대체 여기엔 뭐가 씌여있습니까. 죽으라고 했는지 살라고 했는지 모르는 까마귀눈이다보니.》

《강철도 만들고 금도 녹여내고 하는 기술이 적혀있소.》

강병철은 그러쯤 알면 된다는투로 말한다.

《아! 그래요. 하하… 그거 참 안성맞춤입니다. 우린 지금 강철정대가 없어서 큰일인데요.》

《그렇소. 그런데 이런 책을 장마당에서 파지로 팔고있었소.》

《그래요? 그건 너무한데요. 어쨌든 무식이 죄로 되는 법이 없기 다행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시작해서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강병철은 탄광실태와 로동자들의 생활형편 그리고 그들의 정서상태를 많이 알게 되였다. 탄광 역시 자기가 돌아본 북조선의 금속, 제련, 화학 등 공장들과 다를바가 없었다. 갱도에 물이 찼다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형편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한편 강병철은 묻고 듣기만 할수가 없었으며 또 지꿎게 달라붙는 박창술의 수에 걸려 자기자신을 적지 않게 드러내놓지 않을수 없었다. 대학을 나온 금속전문가이며 일본 야하다제철소에 복무한 일이 있다는것, 북조선으로 오게 된것은 광복된 이 땅에 강철공업을 일궈세워볼데가 어디인가 알아보

자고 왔다는것을 이야기하게 되였다. 이야기는 정해진 방향이 없이 적당히 아지를 치고 줄기를 뻗어 나라를 세우는 문제로부터 평양랭면값이 얼마라는것까지 그리고 공산주의요, 자본주의요 하는 리념문제로부터 《월성표》지하족을 어데서 만드는가 하는데로까지 번져갔다.

그러다가 문득 박창술은 《선생은 미군이 들어온 남조선에서 여기로 넘어온걸 보면 공산주의와 용케 통하게 됐는걸요. 선생은 자본가의 자식일건 뻔한데 무슨 사상가나 주의자가 아닙니까.》 하고 능청스럽게 물었다.

《여보 친구, 북조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공산주의자는 아니란말이요. 그래 당신네는 공산주의가 좋소?》

《좋지요. 로동자, 농민을 잘살게 하고 우리같은 탄군도 사람치부를 한다는데 왜 찬성하지 않겠나요.》

《하하하. 단순해서 좋긴 하오.》

강병철은 이때 자기가 가지고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깊숙이 묻어두고 로출시키지 않았다. 야하다시절에 소문을 듣거나 책에 쓴것을 읽은적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말할수 없는 폭정이며 비인도적이였다. 강병철은 1944년말 제딴에는 조선로동자를 위한다고 하다가 뜻하지 않게 로가 폭파되여 부상자를 낸적이 있었다. 로폭파사건을 계기로 지하에 있는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로동자들을 부추겨서 강병철을 공격하게 하였다. 그들이 일제에게 복무하고있는 조선인자본가의 아들과 가차없이 싸워야 한다고 선동하는바람에 강병철은 큰 시련을 겪었었다.

《두고보오만 북조선에서 공산주의는 하지 않을거요.》 강병철은 근엄한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누가 정치를 하든 모두다 싫어하는걸 할택이 있소. 아이를 낳아서 국가에 바친다든가 녀편네도 네것내것없이 공동소유한다는것은 악선전이겠지만 그것의 백분의 하나만 사실이라고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요.》

《이제 다 잘되겠지요. **김일성**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면 의례히 다 헤아려 하시지 않을라구요.》

《하긴 그 말이 옳소. 자! 그럼 난 좀 가볼데가 있어서 나갔

다오겠소.》
강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거리로 나왔다. 모란봉쪽으로 곧추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꺾어들어가면 기와집이 빽빽이 들어선 종로거리 뒤골목이 나진다. 여기에 경성제국대학 교수 안동권의 본집이 있다. 강병철은 며칠 벼르던 차에 오늘에야 그와 만날 기회를 얻었다. 한 보름전에 그의 집을 찾아간적이 있어서 길을 묻지 않아도 되였다. 그는 안경을 번뜩이면서 좌우를 살피였다. 대동교쪽으로 갈라지는 전차분기점을 지날 때 그는 문득 복잡다단한 자기의 행로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면 한달 되나마나한 사이에 참으로 변화가 많았다. 서울에서 8.15광복을 맞고 인차 대구 고향집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되돌아서서 서울을 거쳐 38선을 넘어 평양,평양에서 또 흥남 그 다음에는 성진 또다시 평양으로 이렇게 전전한것이다. 그러나 이 복잡다단한 로정도 이제는 끌장을 볼 때가 왔다. 바로 그 마지막지점이 혹시 지금 찾아가고있는 안동권의 집으로 될는지도 모른다. 학교때부터 강병철의 성격적 특징을 찍어서 동료들은 《말뚝》이라고 불렀다. 누가 뽑아서 옮겨박기전에는 자리를 뜨는 일이 없다는것이다. 생활이나 학업에서도 그렇고 행동의 지향이나 견해 같은데서도 언제나 외통배기였고 일변도였던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여 광복이 되자마자 《말뚝》이 홀연 《배》가 되여 닻을 걷어안고 38선을 넘게 되였던가. 이것을 놓고 그의 딱친구인 원시범은 8.15광복이 말뚝을 톱으로 켜서 배를 뭇게 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배는 어데로 가야 할지 몰랐다. 강병철은 일본 야하다에서 중병에 걸려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 도중에 광복을 맞았다. 그는 건강이 채 회복되지 못한채로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 내려가 한동안 정세를 관망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인차 교또대학 공과출신인 끈덕진 원시범이 찾아와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였다. 그리유인즉은 이름있는 과학자,기술자들이 서울에 몰려들어 앞으로 조선의 지성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론의하고있다는 것이다. 때가 때니만치 강병철은 정세를 외면할수도 없고 또 일

본에 있다보니 조선의 실정을 전혀 알수도 없었다. 그래 원시범을 따라 서울에 되돌아왔는데 행동방향을 알게 되기는커녕 반대로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어가고말았다. 3층짜리 《반도호텔》에 수십명의 지식인들이 모여 중구난방으로 웨쳐대는데 시간이 갈수록 론리는 더욱더 삼검불 엉키듯하였다. 정권이 설 때까지 기다리자는 패도 있고 각자 자기 분야의 연구소나 기업소에 돌아가 묵묵히 연구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미군정청에 찾아가 고문을 초청해오자는 사람들도 있고 급선무는 과학자, 기술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사회단체를 하나 내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패도 있었다. 며칠동안 론의를 거듭하다나니 점차 몇개의 파로 갈라지게 되였다. 물리, 화학, 생물 등 전공부문끼리 모인 패가 있는가 하면 일본, 만주, 이북 출신 등 지방별 패들도 나타났다. 강병철은 전기와 야금이 전문이였으므로 자연히 물리패에 끼우게 되였는데 거기에는 경성제국대학 학자들이 태반을 차지하고있었다. 론의를 거듭하던끝에 평양에 가있는 물리학교수 안동권을 불러다가 그를 조선지식인의 대표인물로 내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합의하였다. 조선학계에서 나이로 보나 실력과 권위로 보나 안동권의 존재는 절대로 무시할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때마침 강병철과 원시범은 각각 이북에 다녀와야 할 사사용무가 하나씩 있었다. 강병철은 야하다 제철소에 같이 있던 오천식이라는 친구네 집에 갔다와야 할 일이 있었고 원시범은 평양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 혼인에 대한 말미를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사정에 겹쳐서 강병철은 안동권에게 서울의 초청을 전달할 임무를 띠고 원시범이와 짝이 되여 출범의 닻을 올리였던것이다.

평양에 도착하는 즉시로 그는 안동권을 만났다. 그때 안동권은 모모인사들의 서울초청이요 뭐요 하는데는 관심이 없노라고 명확히 못을 박고 그것외 자신의 개체용무로 인해서 곧 서울로 가기는 하겠노라고 대답했던것이다. 그러나 강병철은 기왕 다시 평양에 돌아온바에는 안동권에게 그동안 다른 변화가 없는가 알아보고싶어 이 걸음을 걷게 된것이였다.

강병철은 붉은 벽돌담장이 한길이나 되는 기와집대문앞에 이

르자 안경을 벗어들고 대리석문패를 다시금 확인한 다음 신문과 우유배달함옆에 붙은 초인종단추를 눌렀다. 잠시후 안마당에서 찰딱찰딱 신발 끄는 소리가 나더니 삐익 하고 대문이 열리였다.

《누구세요?》 하는 애어린 목소리가 울리는것과 함께 대문짬으로 함박꽃같이 얼굴이 환한 열대여섯 났을가한 단발머리처녀가 나타났다.

《안동권선생님 계시지?》

《아침에 나가시면서 저녁 6시쯤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다시 오지.》

《누가 오셨댔다고 전하면 될가요?》

처녀는 방글방글 웃는다.

《음, 내 이제 다시 오니까 얼마전에 서울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 알아.》

그가 거리구경을 하고나서 다시 찾았을 때는 초인종소리가 울리자 인차 인적기가 나더니 안에서 안동권이 《강병철군이 오지 않았소?》라고 하였다. 안동권은 그새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강병철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면서 그간 건강하였는가고 물었다.

《내 건강이야 매일 일진일퇴니까. 아무튼 수고했소. 그래 갔던 일들은 어찌되였소. 흥남제련소 사택마을에 있다던 홀어멈은 무고하시던가?》

먼저번에 흥남에 갔다올 용무를 대강 말했던것인데 그것을 기억해두고 하는 말이다. 강병철은 친구인 오천식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는 만나보았노라고 하였다.

역시 안동권은 지성인답게 말로 또는 행동으로 유감없이 례의를 갖추었다. 침침한 방안보다 따뜻하고 신선한 마루가 좋다면서 방석을 내오고 담배를 권한다. 자리를 잡게 되자 부엌에 대고 커피를 끓이라고 이르고 외출하노라고 입었던 양복을 벗고 품위있게 지은 명주바지저고리를 갈아입었다.

《선생님, 이 책이 기억나십니까?》 하며 강병철은 들고온 책 한권을 안동권이앞에 내놓았다.

한 300페지되는 일문판인데 자주색양장을 해서 부피에 비해서

는 볼품이 있었다. 표지에는 《물리학개요》라고 쓰고 그 밑에 저자 《안동권》, 발행년도 《대정11년》으로 밝혔다.

《오, 그런것이 있었지. 그런데 이런걸 강군은 어데서 구해가지고 다니오. 내 기억에서마저 삭막해진걸.》

깜짝 놀라 환성을 지를줄 알았는데 집어보지도 않고 낯부터 찡그린다.

《날이 선선해오드라니 장마당에 나가 내의를 하나 사입을가 하고 기웃거렸는데 고서점에 이것이 있더군요.》

이미 생각했던바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강병철은 낯을 붉히며 슬쩍 거짓말을 해버렸다.

《철부지때 만들어낸 하나의 기형아요.》

안동권은 가슴이 꺼지게 한숨을 쉬면서 담배갑을 가지고 군손질을 한다.

강병철은 장마당에서 기술서적이나 문학도서들이 파지로 팔리고있다는것을 죄다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다. 하지만 안동권은 끝내 별로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반세기 가까이 노예로 있던 조선민족의 의식상태가 아니겠소. 인간은 사물의 가치를 자기가 의식한 정도밖에 리해하지 못하니까.》

담배갑을 굴리는 안동권의 손이 알릴듯말듯 떨리는것으로 보아 그는 벌써 자기 저서가 지금에 와서 휴지로밖에 인정되지 않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것 같았다.

이렇게 되자 강병철은 화제가 다른데로 돌기전에 용무부터 볼 차비를 하였다.

《선생님, 숨가쁘게 물어 안됐습니다만 언제쯤 서울로 떠나실 작정입니까?》

《언제쯤 떠나겠는가?》 하고 안동권은 받아외우더니 고개를 뒤로 젖히며 크게 웃음을 터치였다.

그통에 성글성글하고 고르롭지 못한 이새가 드러났다. 강병철은 그의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내심을 넉넉히 엿볼수 있었다.

《달래 그런것이 아니라》 하고 그는 의아쩍어하는 강병철이 앞

으로 커피잔을 밀어놓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오늘 나는 똑같은 그런 질문을 세번이나 연거퍼 받게 되니 너무 공교로와 그러오. 하긴 그것이 우연한것이기는 하겠지만 그 어떤 징조를 말해주는것 같단말이요. 아침에는 조만식선생이 보내서 왔노라고 하면서 당신 나이쯤 된 점잖은 사람이 와서 물었네. 왜 그러느냐고 하니 인민정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해볼 의향이 없는가 해서 그런다고 하데. 그런데 아까는 민기환이라는 사람이 서울서 왔다면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더란말일세. 그 사람도 자네처럼 내가 가야 조선지식인의 앞길을 론의하는데 도움이 된다나. 결국 이런 견해가 다 무엇에 기초해서 나온것들인가. 북에 있으면 공산주의를 위한것으로 되고 남에 나가면 그와 다른 어떤 주의, 가령 자본주의를 위한것으로 된다고 하는 해석에 근거한것이네. 이것은 자연과학의 특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 나의 생각으로서는 북이다 남이다 하는 지역개념에도 관계가 없고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는 주의개념에도 관계없는것이 자연과학이라고 보아지네. 세상에는 주의와 관계없는 사물과 현상이 얼마든지 있고 주의와 관계 안하고 사는 사람도 부지기수라는것을 알 필요가 있지. 문제는 우리가 하는 과학이 누구를 위한것인가 하는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나. 난 결단코 주장하네. 우리의 모든것은 조선민족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고말일세. 그리고 또 내가 서울에 가야 할 리유를 조선지식인들이 나갈 향방을 토론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들거든. 지식인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가 다 대상과 방법과 수단과 목적이 다른데 그것을 한본새로 만들자니 될말인가. 그런즉 나를 서울로 끌어당기는것은 나를 누구의 리용물로 만들자는것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이 명백하거든. 물론 나는 가기는 가겠소, 그런데 날자는 정하지 못하겠소 하고 대답했네. 방금 강군이 한 질문에도 그렇게 답변할수밖에 없네. 왜 그런고 하니 그 리유는 단순하고 보잘것없는것이네. 교통형편과 내 건강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거니까…》

잠시동안 차를 마시노라고 이야기가 중단되였다. 강병철이 얼굴이 벌겋게 되고 안동권이도 차의 자극이 있어 그런지 음성이 한결 높아졌다.

《민기환이란 사람은 자신이 그 어떤 전공이 있는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조선의 과학계를 환히 꿰뚫고있더군그래. 강군이 여기 왔을거라고도 하더란말일세. 이따금 〈당국에서는〉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하고 표현하는것을 보면 미주둔군과 어떤 련계가 있는것 같기도 하데. 어쨌든 나로서는 관심을 가져주어 매우 고맙노라고 하였네.》

《체통이 크고 얼굴이 희멀쑥한 사람이 아닙니까?》 하고 강병철이 앞질러 물었다. 반도호텔에 드나드는것을 본적이 있고 언젠가는 원시범이 군정청과 련계된 요원같다고 하던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옳거니, 옳거니.》 안동권은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계속하였다.

《인생이란 어느 정도 불공평한데가 있는것 같아.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사람들은 갈길이 없어 자살참극을 빚어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갈길이 너무 여러갈래가 돼서 야단이거든. 벌써 몇해 되였소만 도이췰란드에서 제노라 하는 리론물리학자 와인 켐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적어도 자기앞에는 세개이상의 인생의 길이 열려있다고 하였네. 하나는 히틀러를 따르는 길이요 하나는 동족인 유태인들이 가는 길이요 또 하나는 자멸하는 길이라고 했네. 그이듬해에 일본 와세다대학에 있는 사까이교수한테서도 그와 신통히 비슷한 편지를 보내온적이 있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고 하니 민기환이란 사람도 결국은 우리 지식인을 어느 한 갈래길로 끌어들일 심보가 아닌지 몰라 그러네. 어쨌거나 관심을 가져주는것은 방임하는것보다 나으니까. 그건 그렇고, 그래 흥남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첫번째가는 공업지구인데 형편이 어떻던가? 여기 강선이나 송림 제철형편은 대강 들었소만…》

강병철은 들어올리던 담배갑을 도로 놓고 머리를 흔들며 대답하였다.

《완전히 페허올시다. 수라장이구요. 왜놈들이 요진통은 무자비하게 다 파괴했습니다. 흥남지구에 있는 제련소, 화학공장, 비료공장 다 다녀봤는데 어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선의 공업은 현재 령입니다. 너무 한심해서 성진고주파공장은 어떤가 하고 가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청진에는 가기를 단념하고 돌아

셨습니다.》

《음! 그렇군. 그럴거요. 다른놈이 아니고 바로 일본놈이니까 잔인성에서는 그 누구보다 못지 않은 야만이요.》

무릎에 놓인 자그마한 손이 갑자기 후두두 떨리였다. 마주앉은 그들은 처량한 낯을 짓고 각각 긴 한숨을 내쉬였다. 이윽해서 안동권이 피발이 선 눈을 들고 강병철을 쳐다보다가 약간 갈린 목소리를 내였다.

《강군! 이번에는 내가 하나 묻겠네.》 하고 그는 잠간 중단하였다가 다시 뒤를 이었다. 《강군은 언제 떠나겠나,서울로 가든 대구로 가든간에.》

《저말입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을 만나는것으로 여기 온 용무가 끝납니다. 경상골에 있는 친구를 만나 별일없으면 인차 떠날가 합니다.》

《인차 떠난다.》

안동권은 침울해진 기분을 좀처럼 돌리지 못하면서 마당 한켠에 놓인 화분대를 처량하게 바라보고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어느덧 강병철이도 기분이 몹시 흐려졌다. 흥남비료공장에서,제련소에서,성진에서 본 광경들이 일시에 떠올랐다. 연기에 끄슬린 비료공장 압축기들,짝짝이 얼어붙은 제련소의 합금로들,박쥐가 푸덕이던 성진고주파로의 검은 형체들이 그가 시선을 던지고있는 마당 한복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있다.

《인차 떠난단말이지?》

안동권은 명상에 잠겨있는 강병철에게 따지듯이 묻는다.

《네! 곧 가자고 합니다.》

《여기 온 용무가 다 끝났다고 했지요?》

《네!》

저쪽에서는 번연한것을 거듭 묻고있고 이쪽에서는 별로 생각없이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있다. 그러나 완연히 달라진것은 반말투를 존경투로 계칭을 바꾸어버린 안동권의 내심이였다. 강병철은 순간 온몸에 긴장이 쭉 흘렀다. 이윽해서 안동권이 담배불을 사기

재털이에 던져넣더니 뜨직뜨직 말하였다.

《안동권이를 초청한다는것은 안동권 본인이 정확하게 전해들었으니 그것은 됐습니다. 흥남제련소에 있다는 친구의 어머니를 만났다니 그 용무도 끝난셈입니다. 사람이 친구간의 의리를 지키는것은 응당한 도리구 인간다운 선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군! 강군은 전기기사이구 또 겸해 야금기사라고 했습니다. 나는 강군이 처음 내앞에 나타나 개인용무도 볼겸 전기공업이나 야금공업의 실태를 알아보자고 왔다고 했던것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 강군이 그때 무심결에 말한것 같지만 조선의 강철을 만들어보는것이 소원이라고 했을 때 나는 대단히 놀랍기도 하고 대단히 기쁘기도 해서 진심으로 손을 잡아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에 전력공업이라고 하면 여기 북부조선입니다. 야금공업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파괴되였다고 했습니다. 아! 이것은 한 민족의 또하나의 수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누가? 어떻게?… 아!》 장탄식을 하면서 추녀끝에 드리운 보라색하늘을 쳐다본다. 그러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다시 말하였다.

《너무 야박하게 말해서 안됐소만 량해하시오. 나는 강군이 내나라의 강철을 한차지만 녹여보아도 원이 없겠다고 말했을 때 눈물이 날만큼 고마웠댔소. 나는 강군의 이번 걸음이 이러저러한 몇가지 개인용무가 있었다고 한가운데 이북의 전기와 강철 형편을 알아본다고 한것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보았었소. 이건 개인의 취미나 용무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과 관련되여있는 군의 량심이나 어떤 리념의 계시에 의한것으로 보고싶었소. 그런데 지금 군이 말하는것을 보면 다 파괴되였기때문에 절망이다, 스위치를 넣어 기술을 시험할만한데가 없다, 누구든 다 복구한 다음에 보자. 아! 량해하시오.》 안동권은 붉어진 얼굴을 또다시 흔들며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그저 내가 공연한 소리를 하고있습니다. 량해하시오. 본의아니게 환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허허허.》

이때 안동권은 분명히 웃고있었다. 그렇지만 안동권의 말마디들은 누구에 대한 저주같기도 하고 자신에 대한 원망같기도 한 미

묘한 색갈을 띠고 강병철의 가슴을 사정없이 찌르고 휘저어놓았다. 강병철은 가슴을 움켜잡고 컬럭컬럭 기침을 하였다. 온몸이 화끈 달아오르고 손발이 떨리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때문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도 알수 없었다. 한편 손으로 턱을 고이고 전혀 움직일것 같지 않게 앉아있던 안동권은 훌쩍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한쪽벽에 걸어놓은 족자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서서 책으로 한켠벽을 완전히 메워버린 서가쪽으로 나와서 서성거리였다. 강병철은 그가 정신적 안정과 균형을 잃고있다는것을 확연히 알수 있었다.

이윽하여 강병철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대화를 나눈 몇시간 사이에 어느덧 흠뻑 늙어버리는것 같은 안동권의 주글주글한 얼굴을 쳐다보면서 부디 건강에 류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인사를 하였다. 안동권은 골목길어름까지 따라나와 잘 가라고 손을 흔들며 한동안 서있었다.

4

안동권이와 헤여진 강병철은 려관에 돌아와 인차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잠들지 못하였다. 벌써 한시간이상 자리를 뒤채건만 정신은 더욱 또릿또릿해진다. 그는 이불을 머리우까지 뒤집어쓰고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그러나 눈앞에는 주름이 덮이고 하관이 빠른 안동권의 얼굴이 삼삼히 나타나보인다. 무릎에 놓였던 자그마한 손, 얇은 입술을 헤치고 조리있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던 그 싸늘한 음성, 《조선의 강철을 만들어보는것이 소원이라고 할 때 나는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안동권의 말소리가 동굴안에서처럼 공명을 일으키며 귀를 울린다. 강병철은 이불을 훌쩍 제끼고 일어나앉아 머리말에 놓았던 담배갑을 집어들었다. 한대 피우고나서 또 다시 누웠다. 무슨 차가 또 오기라도 한것인지 아래층 한쪽구석에 자리잡은 주인방에서는 왁짝 떠들어댄다. 그러거나말거

나 옆에서는 시샘이 날만치 태평스럽게 코를 골고있다. 패기만만한 신창탄광 탄부 박창술이다. 며칠사이에 꽤 지친 모양이다.

어제 《서로 알고 지냅시다.》 하고 통성을 한후로 불과 한시간도 되나마나한 사이에 그를 리해할수가 있었다. 그럴만치 그는 투명하고 단순하였다. 체구는 주물에 부어 쭉 뽑아낸것 같이 미끈하고 탐탁하였으며 팔, 다리, 어깨, 가슴에 불끈불끈 힘살이 솟아오르고 여기저기에 푸른 상처자욱이 나있다. 징병 제1기에 걸려 목단강까지 끌려갔다가 광복되기 두달전에 탈주해서 산중을 헤매다가 8.15와 함께 고향 신창탄광에 돌아왔다고 한다. 《만세!》, 《광복 만세!》를 부르는동안 어느새 열흘, 보름, 한달이 지나갔다. 탄광에 자치위원회가 조직되여 1,000여명 종업원과 그 가족을 먹여살릴 방도를 탐구했으나 아무 대책도 나서지 않았다. 평양이나 서울에 가면 무슨 수가 나질것이라고 하였다. 그래 대표를 3명 뽑아 길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탄광골안에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개선하셨다는것이다. 박창술은 한길이나 뛰였다 떨어지며 좋아하였다.

《이제는 살길이 나졌다. 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면 우리의 살길이 나진다.》

그때로부터 옹근 사흘동안 평양거리를 싸다니였다고 한다. 거리구경도 하고 푸른 군복을 입었다는 조선군대를 만나려는것이였다. 그들을 만나기만 하면 정확한 소식을 알수 있을것 같았다. 바로 그때문에 하루에 백리는 실히 걷게 된다는 거리행각이 매일 계속되여 지금 저렇게 묶어가도 모르게 자고있는것이다.

강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에서 수면제 두알을 꺼내 입에 넣었다. 그의 불면증은 벌써 오래전에 시작되였었다. 려순공대를 나온 이듬해 야하다제철소에 들어간 그해부터니까 대동아전쟁을 겪은 전기간을 합치면 어언 칠팔년이 된다. 원래 과격한 성미였는데 《류언비어》요, 《불경언사》요 하는것에 질려 노상 벙어리처럼 살아야 했었다. 그러다보니 속에서는 불이 일고 재가 앉았다. 누구만 못지 않게 불평이 있었고 누구만 못지 않게 사태를 주시하는 안목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냥 묻어두어야만 했다. 지성인다운 예리한

관찰, 정연한 론리, 과학적 타산, 그런것은 오히려 그의 리성을 옴짝 못하게 묶어놓은 또하나의 자아를 만드는데 이르렀던것이다. 지금 그가 잠 못드는것만 해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의 기쁨에 들떠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올리는 이 시대적 분위기를 타고 평범하게 살아나가면 별일 없을것인데도 그는 몸소 자기앞에 장벽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기여넘어보려고 모대기고있다.

그가 이번에 38선을 넘어 이북에 온것만 해도 그렇다. 안동권을 데려올데 대한 사람들의 청을 구태여 자기가 맡아나서지 않아도 무방한것이며 흥남에 있는 오천식의 어머니는 차츰 기회를 보아가다가 만날수도 있는것이다. 더더구나 흥남이나 성진의 공장들을 직접 찾아가보지 않아도 별일 없는것인데 어떻게 된일인지 자기로서도 감당키 어려운 그 어떤 힘에 끌리여 실로 형용키 어려운 간고한 로정을 걸었던것이다. 일제가 전패한 수라장, 삼천리강토의 삼천만동포는 마치 탕수가 소용도는데 떠오른 나무잎처럼 흘렀다. 그 탕수는 광복이 가져다준 기쁨이고 환희인 동시에 모든것의 청산으로 되지만 그밑에는 지금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있는 대난관이라는 괴물이 엎디여있다. 이제 탕수가 찌기만 하면 천천히 머리를 쳐들고 모든것을 압도해버릴 먹고 입는 문제, 그 무엇으로써도 대치할수 없는 경제, 특히 공업은 지금 완전히 령인것이다. 한 기술자의 눈에 비친 광복된 조국의 일단이 이럴진대 온 나라를 통털어 들어올려볼수 있다면 과연 그 운명의 무게가 얼마나 될것인가. 이것을 누가 해결하는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결국 안동권의 론리로 돌아온것이다. 뜨거운 입김을 내불면서 빈 하늘을 쳐다보던 안동권의 구슬픈 모습이 뚜렷이 떠올랐다.

(그런데…) 하고 강병철은 자신에게 따지고들었다. (안동권이가 말한것처럼 몇가지 용무가운데 북조선의 공업형편을 알아본다는것이 부질없는 한갖 개인의 취미였단말인가? 량심이나 어떤 리념의 속삭임이 아니였단말인가?) 이에 대해서 그는 단호하게 부정해나섰다. 그러고보면 강병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깊이에 자리잡았던 속심이 안동권에 의해서 드러났던것이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는것을 느끼였다.

밖에서 떠드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벌써 창문에 해가 들었다. 팔과 다리가 부서지는것 같고 머리가 휘휘 돌았다. 그는 가까스로 우물가에 나가 세면을 한 다음 수건을 적셔서 줄무늬가 간 여름제낀옷을 손질하기 시작하였다. 아무데서나 입은채로 뭉개고 비비대고 해서 꼴이 말이 아니다. 더구나 원시범을 찾아가자면 이 몰골로 나설수는 없는것이다.

《선생님! 간밤엔 곤히 쉬시던데요.》

박창술이 수밤송이같은 머리를 다듬어올리며 말을 건다. 그때 강병철이 눈을 크게 뜨고 박창술의 허리중동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여보, 신창친구, 그게 뭐요? 거기 매단것.》

《뭘말입니까?》

박창술은 어리둥절해서 허리를 살피다가 데룽데룽 드리운 쇠대를 황급히 괴춤에 찔러넣는다. 그런후에 《우리 탄광 금고열댑니다.》 하고 뒤덜미를 긁적거리며 웃는다.

《하하하, 그런걸 난 무슨 호신용 권총이라도 찼는가 했드랬소.》

아닌게아니라 열대는 장뼘 한기장이나 될만치 큰것이였다.

일단 옷차림이 끝나자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래 오늘두 푸른 군복을 입었다는 **김일성**장군님 군대를 찾아보겠소?》

강병철의 물음에 《물론이지요.》 하고 박창술은 확신성있게 대답하고나서 되물었다.

《선생님은 아무 강철이나 마음대로 만들수 있는 기술자가 옳지요?》

《그렇게 봐도 일은 없소. 한데 그건 왜?》

《왜라니요? 우리 탄광에서는 강철과 동발을 밀어넣는것만치 석탄이 나옵니다.》

《그건 옳소.》

《중공강이나 착암기도 만들수 있겠습니다.》

《그런 공구강은 성진고주파에서 만들었댔소. 그러나 기술만 있으면 아무 제강소나 제련소에서도 바쁜 구멍이야 메워낼수 있지.》

《야, 정말 우린 중공강이 있어야 살아갈수 있는데…》

《앞으로 만들수 있겠지. 자,그럼 언제 다시 만나게 될가?》

《산 사람은 아무때고 만나게 된다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어데로 가시렵니까?》

《경상골에 있는 친구네 집에 들렸다가 서울로 가겠소. 하지만 며칠은 더 그 려관 신세를 질것 같소.》

5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을 옆에 끼고 절승을 이룬 층암절벽,부벽루를 향해 휘여돌아간 경상골 한길에는 사람들로 몹시 붐비였다. 경치를 감상하려고 찾는 사람도 많았지만 골안어구에 자리잡은 로천장마당은 또 그대로 사람을 무한정 끓이게 했다.

강병철은 머리를 숙일사하고 사람들틈을 헤치고나가면서 이제 만나게 될 원시범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매사에 굼뜬 그는 보름전과 같이 백추화와의 관계에서 전진이 있을것 같지 않았다. 작곡가가 될것을 지망하고 서울에서 음악공부에 열중하고있는 백추화를 사랑한다는 원시범의 말을 들었을 때 강병철은 쌍수를 들어 찬성하였다. 그 리유는 매우 단순한것이였다. 강병철은 부모들의 권유와 나아가서는 강요에 못이겨 《봉건결혼》을 한 반면에 원시범은 《자유결혼》의 길을 택한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었기때문이다. 그런데 한달전,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백추화의 부모를 찾아가 만나기만 하면 즉석에서 아퀴를 짓게 되리라던 약혼문제가 뜻하지 않게 암초에 걸려있었다. 추화의 말을 들으면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이며 목재상인 그의 아버지는 어떤 문제에서나 처음에는 전적 반대이다가 나중에는 벌컥 뒤집어 꿋꿋이 찬성하는데로 나간다는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이한 립장을 취하였는데 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매우 애매하였다. 매양 《서울젊은이》라고 한다든가 또는 《시범군》 하고 일정한 간격을 두면서 《손님》으로 와있는데는 반대가 없노라고 하였다. 한뉘 그런것을 보아온 그 안해는 사

위감을 고르는데서도 양덕골안에서 동발목 흥정하듯하고있으니 과히 걱정 말고 좀 기다리라고 했다는것이다. 결국 원시범은 두 짬에 끼워버렸다. 한데 량부모의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백추화는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정 아버지가 반대하면 자기는 이 집을 버리는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원시범은 여직까지 높이 가려올렸던 자존심무지를 한치한치 헐어 처녀를 위로하면서 끈덕진 제 성미대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강병철이 우려하는것은 저쪽 녀자편이 아니라 원시범의 《령리》한 머리였다. 어떤 경우에서나 원시범은 인차 몇개의 구성안을 만들어내군 한다. 성공의 봉우리에 오르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갈래가 있다는것이 그의 생활철학인것이다. 때문에 강병철은 원시범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는지 짐작해낼수 없었다.

강병철은 경상골막바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추녀가 높이 들리고 지붕에 이끼가 한벌 내돋은 위풍있게 생긴 기와집이 보이였다. 벽돌담장이 한길이나 되는데 그우에는 병깨미들을 일궈세워 그 무엇도 얼씬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한낮인데도 대문은 닫겨있었다. 주인을 찾자 잠시후에 빗장이 삐익 뽑히고 으르렁거리는 세빠드를 몰아세우는 소리가 나더니 수수하게 생긴 녀인이 나타났다.

녀인은 이쪽을 알아보더니 《계십니다요, 서울도련님이.》 하고 공연히 몸을 옹송그리면서 뒤걸음질을 하는데 강병철은 벌써부터 기분이 축 처져내리고 심사가 비틀렸다. 마치 한세기전에 어느 읍거리의 봉건관료네 집에서나 볼수 있을 고리타분한 가풍이 문명대야에 놓인 평양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있는것이다. 여기서 《자유결혼》이 생겨나길 바란다는것은 사막에서 꽃을 찾는격이며 이런데를 한사코 뚫으려는 30이 된 로총각, 이름난 미녀들을 다 대상했던 교또대학 공과출신의 《서울도련님》은 또 어떤 역을 이제 감당하게 될것인지 알수 없었다.

《어! 벌써 다녀왔는가?》

수심이 가득한채로 원시범은 고무신짝을 덜덜 끌고 나오면서 손을 잡는다.

《벌써라니, 어느새 20일이 지나갔네.》

《그래 어떻게 됐나, 갔던 일이.》

《어떻게 될게 있나. 오천식의 어머니를 만나 기별을 전했지.》

《소식을 전혀 모르고있던가?》

《물론.》

그들간에 이야기되고있는 오천식이란 이런 사연을 가지고있었다.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할 때 강철생산을 늘이는 조치로서 만주에 있는 제철소들을 여러개 개발확장하였다. 그래서 강병철이 근무하고있던 야하다제철소에서는 안산제철로 기술자, 기능자들을 뽑아보내였다. 그때 강병철이와 친했던 흥남출신인 오천식이 가게 되였는데 그와 헤여지면서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누구든 조선에 가는 기회가 생기면 서로 고향집에 안부를 전하기로 약속했었다.

《친구간의 의리가 대단하이.》

《그런걸 의리라고나 할수 있겠는지.》

《그러니 이북에 온 용건은 홀가분하게 다 벗어치운셈이군. 안동권선생은 인차 떠난다고 했겠다.》

《한쪽은 벗었는데 다른쪽에는 더 무거운것을 걸머멘셈이네.》

원시범은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정열적인 눈을 크게 뜨면서 다그쳐 묻는다.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이 땅의 공업은 완전히 페허네.》

완강하게 생긴 억센 턱을 재빨리 놀려 마치 격분한것처럼 대답하고있는 강병철은 이때 안동권의 처량한 얼굴을 언뜩 상기하게 되였다.

《그래 어데어데를 가보았나? 형편을 좀 자세히 말해보게.》

《북조선의 기간공업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파괴해놓은것만 해도 10년안으로는 복구가 불가능하네.》

그리고나서 강병철은 자기가 돌아본 공장들의 실태를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다.

한동안 그들은 말이 없었다. 강병철의 말이 절반만이라도 진실을 띠고있다 해도 그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을 론의했대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것을 그들은

잘 알고있었다.

《한데 자네의 그 이른바 결혼문제는 어찌됐나?》

강병철은 우정 화제를 돌려놓는다.

《언어로 표현하기는 바쁜이. 고등수학이네. 차차 알게 되겠지. 이것도 아마 운명이 선도하는거나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여기서 공연히 시간을 보내지 말고 서울로 가는게 어때?》

《좀 지내봐야지.》

《자네는 추화양이 있지만 난 뭐가 있나, 이 북조선에.》

《자네 리념대로 강철이 있지 않나. 아직은 철광산갱도막장의 막돌에 섞여있기는 하지만.》

《강철? 하하하.》

그 사이 하녀가 음료를 가져왔다. 진주조개로 자개를 박은 쟁반에 유리잔이 두개 놓이고 얼음에 재웠던 삿뽀로맥주 세병이 온몸에 이슬을 돋힌채 세워져있다.

《어쨌든 한잔씩 듭세. 장모로서의 턱인지 인심좋은 이 집 마나님의 선심인지 알수 없지만, 하여튼…》

《이사람, 추화양이 들으면 가슴이 섬찍하겠네.》

공교롭게도 이때 추화가 진한 프랑스 장미향수내를 앞세우고 안방에서 나오고있었다. 무도장이나 어느 연회에라도 나서려는것처럼 성장을 하였다. 파도형으로 어깨에 흘러내린 장발머리에 유한곡선으로 쭉 내리그어진 주름이 많은 까만 비로도원피스의 신선미가 눈을 강하게 자극한다.

어느땐가 지나가는 말로 《오.케》 레코드인기가수 장세정의 머리치장과 옷맵시가 그리도 마음에 든다고 하더니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다는것이 한눈에 알린다.

《여기서도 그 무슨 혁명이라는것을 하는거나 아니예요, 아니면 어떤 정당이라도 하나 만드는가요? 막 심각한 기운이 정원에 꽉 차넘치는걸요. 어쨌든간에 한잔씩 들고 계속하세요.》

추화는 희고 날씬한 손으로 잔을 채우고나서 긴 살눈섭을 애교있게 치켜올리며 처음에는 그가 무뚝뚝하다고 보는 강병철을

그 다음에는 그 무엇으로써나 자기를 옴짝 못하게 압도해버린 원시범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한동안 말없이 그들은 잔을 들었다.

《그럼 가보지 않겠어요?》 추화는 이미 약속이라도 되여있었다는듯이 강병철을 쳐다보며 말을 건네였다. 《련광정앞에 있는 〈백선행기념관〉에서 요란한 시국토론회가 있다는군요.》

《그래요?》

강병철은 듣느니 처음이기도 하였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묻는듯한 눈으로 원시범을 쳐다보았다.

《병철이! 내 말 좀 들어보라구.》 하고 원시범은 담배갑으로 가져가던 손을 멈추고 침착하게 설명을 시작하였다. 《자네는 이미부터 강철은 강철로서 자기를 유지해야지 그 무엇과도 혼합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 견해를 버려야 하네.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거든. 자네도 아다십이 중세기에는 종교가 사회의 모든것 즉 정치,경제,문화,륜리를 지배하고 판을 쳤다면 지금은 모든게 정치네. 정치밖에 서있는 그 무엇도 있을수 없다는것이 오늘이야. 우리는 이 현대의 한복판에 서있는셈이네. 그런데 자네는 엄연한 이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려들거든…》

《가만가만.》 강병철은 손을 내저어 중단시키고나서 계속하였다. 《그러니 결국 나더러 어떤 권력을 위해 복무하라는거지? 정치란 곧 권력이 아닌가. 로씨야의 레닌도 말하지 않았나. 정치의 첫자리에는 정권이 놓여있다고말일세. 여보게! 이에서 신물이 나고 몸서리쳐지네. 야하다에서 8년동안 대일본제국의 국권을 위해 복무한것이면 한정량을 넘겼단말일세. 개짐승도 몽둥이로 얻어맞은 골목으로는 다시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대답해보게. 자네는 누구를 위한,무엇을 위한 복무를 원하는가?》

《내 나라 조선을 위한거지. 왜 웃나.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지. 난 우리가 행해진 모든것의 맨 웃자리에 조선이라는것을 놓아야 한다고 보네.》

《하하하. 그것 참 신통한데. 유럽 어느 누구의 좌우명과 매우 류사하구만.》

그들은 한달가까이 헤여졌던 생활공백을 메꾸어버리려는듯 극성스럽게 객담을 벌리면서 대동강쪽으로 시적시적 걸어나왔다. 언제나 이들 두사람이 말씨름을 벌릴 때에는 추화가 어간에 나서서 극단한 량편을 능숙하게 조절하군하였다. 추화는 그동안 보고 들은 평양녀성계의 움직임을 흥미있게 소개하였다. 지식층녀성들의 한 반은 정치운동에 나서고 한 반은 침묵하고있다고 하였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로동녀성들은 열성이 충천했고 벌써 그들의 영향으로 녀성동맹조직을 내오고있다고 하였다. 색다른 화제는 곧 흥미를 끌어 련광정까지 오는 사이에 전혀 다른데 정신을 팔수 없게 하였다.

어느새 그들은 련광정옆에 있는 《백선행기념관》에 이르렀다. 담장풀이 벽에 한벌 기여오르고 마당에 등나무덩굴이 우거진 그늘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데 활짝 열어제낀 창문으로 열기를 띤 웨침소리가 벌써 흘러나왔다. 시국토론회가 시작된 모양이다. 그들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만원이였다. 그리하여 세사람은 아래층 뒤켠에 겨우 자리를 차지할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이 천재일우의 시각에 주저하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치거나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하여 한발 빗디딘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영원히…》 흰두루마기앞자락을 활 가르고 허공에 팔을 내흔드는것은 반나마 머리가 벗어진 50대의 장년사나이였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틀이 진 그는 전조선에 알려진 독립운동자라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헤그에서 창자를 뿌려던진 리준이나 안중근이와 같은 렬사가 땅속에서 우리를 원망할것이요. 그뿐인줄 압니까. 3.1운동때,6.10만세때 내 나라의 넋을 안고 쓰러진자 그 얼마입니까. 그 피가 이 땅에 젖어있소. 그러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린 리조왕권을 복활하여 천세만세 복락하도록 하여야 할것이요. 그런즉 소인은 조선의 행로는 어데인가라는 물음에 단마디로 대답해가로되 조선은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어 리조 500년의 대를 그대로 계승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그거요.》

여기까지 단숨에 쭉 이어댄 연설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장내를 쭉 둘러보았다. 강한 빛을 뿜고있는 크지 않은 그 눈은 청중들이 자기 의도를 어느 정도 리해하고있는가 알아보는듯하였다.

몇초동안 긴장한 시간이 흐르는데 청중석 맨앞에서 덜커덕 의자 드티는 소리가 나더니 나비넥타이를 매고 머리에 기름기가 도는 중년 신사가 불쑥 일어났다.

아마 그는 연설이 끝난것으로 알았던모양인지 《여보, 조선생！》하고 부르더니 거침없이 뒤를 이어대였다. 《소인은 조선생의 연설을 경청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이 생겼소이다. 리씨조선 500년은 통털어 우리 배달족의 치욕의 력사로서 나중에는 을사조약과 같은 망국의 신세를 불러온 책임이 리왕조에 있다는것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 다음은…》

질문을 하고있는 신사의 말이 한턱없이 길어질것으로 짐작한 사회자는 책상을 손끝으로 똑똑 두드려 발언을 중단시키고나서 주의를 주었다.

《연설도중에 끼여들면 안되겠습니다. 만약 의견이 있으면 질의응답시간에 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청해서 직접 연단에 나서든지 해주시오.》

질문하던 신사는 자리에 앉고 청중들은 술렁술렁하였다. 기분이 돌변해버린 연설자는 청중의 반응은 어떻든간에 제할 소리를 내처 해야겠다고 결심한것 같았다.

《우선 나라라는것은 임금이 있어야 생겨나는것이며 임금이 곧 나라를 세웁니다. 임금을 부정하거나 욕되게 하는것은 우리 민족자체를 부정하는것이며 그것은 기왕의 망국노의 처지를 계속 강요하는것외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나라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확고부동하고 백성에게 복락을 안겨주는 나라는 례외없이 임금을 모신 왕국이라 하겠습니다. 대영제국을 봐도 그렇고 유럽복판에 있는 항가리아도 그렇고 아시아에 와서 타이나 네팔을 봐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이 나라들과는 달리 여하튼 왕권을 부정한 나라는 나라이로되 불한당이 살판치는 지옥이며 백성의 피가 즐펀한 묘지올시다. 황제를 둘러메친 로씨야를 보시오. 또 청조를 없애치운 지나의 꼴을 보시오. 자, 보시오. 어느 길인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력사가 흐르는동안 국세가 왕성할 때도 있고 쇠진할 때도 있는것이 세상의 리치인즉은 고종,

순종에서 비운을 맞았다면 그것은 국왕의 책임이기전에 먼저 우리 백성이 임금을 모신 충정의 결핍에서 온것으로 볼것이요. 그런즉 오늘에는 우리 3천만이 충군의 정을 한결같이 가다듬어 리은 황태자를 모셔다가 왕계를 잇는것이 왜 나쁘며 그것이 불…》

《사회! 긴급 동의요.》 중간쯤에서 키가 껑뚝한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저놈을 당장 끌어내시오! 저놈은 필시 왜놈의 주구요. 리은이가 일본천황가의 사위가 된지 어느 옛날인데 지금에 와서 저따위 미친 소리를 줴치고있소.》

《옳소! 끌어내오.》

《질서를 유지합시다.》

《론리로 해야지 인신을 건드리지 맙시다. 언론은 자유가 아니요!》

장내가 벌둥지 끓듯한다. 그렇지만 연단을 두손으로 꽉 붙잡고 선 흰두루마기는 입술을 짓씹으면서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지지눌리는 목소리로 다시 웨치였다.

《만약 우리 민족이 혹 다른 국체를 요구한다 칩시다. 가정해서말이지요. 백보,천보 양보해서요.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일단 리왕조를 복구했다가 다른것을 선택해야 할것이요. 왜 그런가? 우리는 왜놈들에게서 빼앗겼던것을 당당히 되찾는것,즉 원상복귀를 해야 우리의 기개와 민족의 얼을 지키는것으로 될것이기때문이요.… 우리의 얼,우리의 얼을 위해…》

그는 얼굴이 시뻘개서 연탁을 두드리며 애타게 부르짖는다. 그와 함께 장내에서는 또다시 숭얼숭얼 항의가 일어났다. 하지만 참을성이 있고 날카로운 시선을 가진 사회자가 일어나 손을 들어 제지시켰기때문에 누구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치지는 못하였다.

강병철일행이 이쪽저쪽에 시선을 날리고있는데 어느새 연단에는 흰두루마기가 자취를 감추고 깜장색 제낀옷을 입은 신사풍의 사나이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풍채가 름름한 그 사나이는 들고나간 개화장을 연탁 한쪽에 걸어놓고 청중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기를 기다렸다. 한 1분동안 그러고있다가 드디여 숙였던 고개를 번쩍 쳐들며 《여러분!》 하고 거쉰 목소리로 첫마디를 떼였다.

《저로 말하면 텍사스주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의 주조성원으로서 오래전에 이미 바로 지금 론하고있는 문제는 론진된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그러나 론의의 마당이 마당인만큼 침묵할수 없어서 한마디 하려고 나왔다는것을 전제해둡니다. 조선의 행로는 어디인가? 우리는 지금 이 대답을 찾고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발달에서 불을 리용하게 되였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불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처럼 데모크라시가 인간에 의해 발견되고 장악됐다는것은 실로 인류에게 둘도 없는 행운의 행운인것입니다. 이 행복이 가장 큰 열매를 맺은것이 어데냐? 그것은 두말할것 없이 아메리카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워싱톤이 인류앞에 자랑스럽게 선포한 미합중국입니다. 아메리카 할 때 그것은 5대주 6대양 만천하에 자유의 나라,부유한 나라,강대한 나라로 세상에 공인되여있습니다. 만천하에 소리높이 민족자결을 주장한 윌슨의 조국도 바로 이 나라입니다. 때문에 나는 미국식 자유세계를 이 땅에 펼쳐야 한다고 확신성있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친히 인도하는 길이며 따라서 그것은 주의 보호를 받게 될 나라로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께서 가로사되 〈나는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다. 누구든 나에 기탁함이 없이 하느님께 가지 못한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한걸음도 빗나가서는 안될것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주의 총애에 의해 세워진 부강한 나라로서 그 세력을 누구도 당할자가 없습니다. 가난한 우리 나라는 미국의 동정에,지원에 의해서만 부흥할수 있으며 참된…》

여기까지 거침없이 내리엮고난 연단의 신사는 문득 정신을 차린듯 두리번두리번 좌우를 살피였다. 청중속에서 너무나 반응이 없다보니 자기가 지금 한창 어느 례배당에서 성서풀이를 하고있는것으로 착각을 일으킨 모양이다. 아닌게아니라 청중은 한절반 졸음에 취한듯한 얼빠한 눈길로 쳐다보고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앞장이 뻔히 내다보이는 서투른 연극을 보는 맥빠진 기분들이였다.

《어때?》

하고 강병철이 옆에 앉은 원시범을 쿡 찔렀다. 담배질을 하면서 왕청같은 생각을 하고있던 원시범이 고개를 돌리며 웃었다. 강병철이 무엇을 묻는지 짐작할수 있었다. 우선 연단의 신사가 내놓는 정치적 견해가 어떤가 하는것이다. 이전에도 매양 미국이나 예수가 언급되는 경우에 강병철은 그의 반응을 원시범에게 요구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은 원시범이 오래전부터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선포하였으며 따라서 종교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편에 비긴 맑스와 견해가 같다고 해도 이의가 없노라고 한적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좀 더 들어보지. 지금까지는 에취투오(맹물)인데 이제 무엇이 좀 나올수도 있으니까.》

하고 원시범은 강병철의 손을 힘주어 붙잡았다. 그가 이렇게 한것은 먼저달초 서울 종로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교교회당에서 흡사 이러루한 모임에 끼여들었다가 10분도 못가 강병철이 퇴장해버린적이 있기때문이였다.

《걱정 말게. 오늘은 인내성을 발휘할테니까.》

강병철은 원시범이 우려하는것과는 정 반대의 기분으로 앉아있었다. 애당초 기대한것이 없었기때문에 실망할것도 없는 그였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쉰밥을 먹은것처럼 속이 차츰 메슥메슥해나면서 이마가 달아올랐다. 그는 코끝까지 처져내린 안경을 밀어올리고나서 넥타이를 늦춰놓고야 숨을 제대로 내쉴수가 있었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 연단에 나설쯤 하면 그래도 정치라는것을 초보적으로는 알수 있겠는데 이것은 너무 무지막지하다. 리왕조를 복구해야 한다는것이나 아메리카의 본을 따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곧 망국노의 신세를 계속 유지하자는것이나 다름없다. 리왕조가 조선민족을 팔아먹었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며 또 아메리카식으로 하자는것은 나라가 독립되기도전에 어떤 체제부터 본따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순서전도이며 모방이며 지어 맹물을 졸여서 강철을 만들겠다는 식의 허황한 소리이다. 강병철은 가슴속에서 무엇이 뿌지지 끓어오름을 느끼면서 컬럭컬럭 헛기침을 하였다. 그는 수건으로 입을 훔치고나서 항상 미국에 대한 동경이 있는것으로 보았던 원시범의 맥을 짚어보았다.

《원！ 아메리카식으로 해보자는데 자네 구미에 맞잖나？》

《아메리카식？》 원시범은 조소를 띤 얼굴로 넘겨다보면서 말하였다. 《아메리카를 리해하기엔 지식이 모자라！ 너무 유치해.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리해한다면 이 원시범이도 일류급 정치인이 될만하네. 고대그리스인들이 도시국가를 세우고 데모크라시를 하게 되였던 까닭은 그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고급한 체제를 생각해낼수 없었을 정도로 리성이 미숙했던때문이네. 더구나 아메리카는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자유화란말일세. 그것을 동일시한다는것은 수준이하야. 안그래？》

이러는 원시범의 입술이 한껏 비웃음을 담고 한쪽으로 삑 돌아갔다. 원시범의 말을 듣고보니 강병철은 한층 더 분기가 치밀어올랐다. 언제나 정치문제에서는 원시범의 의견을 따르게마련이였던 그는 원시범에게 손짓을 하여 추동하였다.

《나가게, 나가서 한마디 하란말일세. 이자 그대로만 해도 모두다 압도해버릴수 있네！》

《이 사람！ 누굴 뭐 연설쟁이로 만들셈인가.》

《연설쟁이가 되자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억지로 꿍져넣어둘 필요가 있는가. 우리도 광복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인데.》

하건만 원시범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보일뿐이다.

강병철이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왼쪽켠 앞줄에서 푸른 군복을 입은 우리 군대가 눈에 띄였다. 얼핏 생각난것이 신창탄광 청년이였는데 혹시 이제 기회가 생기면 그를 만나 군대의 거처를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장내에서 폭소가 터졌다. 연단에서는 례의 그 신사가 아직 연설을 끝내지 못했는데 한옆에 머리칼이 채 자라지 못한 중년사나이가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중년사나이는 허름한 국방색 닫긴옷을 입었는데 일본군대옷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병기공장 로동복같았다. 그는 어서 말을 계속하라고 손짓을 하건만 결국 바투 다가선 그의 시선의 압력때문에(신사는 무례하다고 보는것 같았다.) 연설이 잘되지 않았다.

《그만하고 내려오시오. 우리 조선은 예수의 도움으로 걷지기

에는 너무나 참혹하오.》

누군가 앞줄에서 크지 않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것이 신사의 정열을 단번에 쭉 뽑아놓고말았다. 신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하지만 그는 이를 사려물고 분노를 참으면서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두어깨와 이마 그리고 가슴을 차례로 찍어 십자를 긋고 연탁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연탁에는 새로운 연사가 나타났다. 장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하였다. 한마디씩 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이번에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왔다누만.》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장내는 다시 새로운 기분으로 물결치는데 사람들은 연단에서 무슨 말이 울려나오는가에 대해서보다 그자리에 어떤 인물이 나서는가 하는데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것 같았다.

《여러분! 형제들! 나는 10여년간의 령어생활로 해서 내 나라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 있을수 있다는데 대해서 량해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우선 본 연단에 〈조선의 행로〉 다시말해서 조선이 갈길은 어디냐? 하고 붙인 론제가 적당치 않다고 보기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수정해서 〈조선은 어데로 가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답해보려고 합니다.》

박수가 일어났다. 첫마디부터 기지가 있고 예리한 그의 론리가 청중의 마음에 든 모양이였다. 여기저기서 《공산주의자》라고 수군거렸다. 뭇시선이 다부지게 생긴 까까머리연사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장내에는 자못 근엄한 공기가 휘익 물결쳐나갔다. 대체로 네모진 얼굴인데 감각이 예민한 연사는 입을 한 반쯤 벌린채 장내분위기를 쭉 둘러보더니 집게손가락을 꼿꼿이 펴서 연탁 앞모서리를 쿡쿡 찌르면서 연설의 본론을 꺼내였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세번째 행성은 20세기중엽에 이르는동안 벌써 두번에 걸친 큰 충격으로 해서 흔들리고있습니다. 그 첫번째는 1차세계대전의 결과에 일어난 충격인데 여기서는 로씨야에서 프로레타리아가 정권을 장악하는것으로 인류사에 새 장을 펼

쳐놓았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바로 지금 그 충격파가 아직 세차게 울리고있는중인데 2차대전의 결과에 일어난 또하나의 대변화입니다. 앞서의것이 로씨야 한 나라에 국한했다면 이번것은 여러나라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생활의 키를 돌려 맑스—엥겔스—레닌이 명시한 그 길로 전환하고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항가리아, 부르가리아, 체스코, 포랜드 등이 벌써 로농정권을 세웠습니다. 력사의 흐름은 바로 이렇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다면 이 세찬 흐름에 뜬 조선이라는 쪽배가 이제 어데로 가게 될것인가. 그리고 또 어데로 가야 하는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그 무슨 수수께끼처럼 풀이를 해야 하며 그것이 어떤 불가사이한것 같이 취급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지구우에 몇개의 대륙이 숨어있을수 있었고 인간이 자기 육안만을 가지고 사물을 판정하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자기 앞날을 과학적으로 내다보고 모든것을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조선은 주저없이 프로레타리아혁명을 해야 하며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으로 이미 운명지어져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길을 위해서 예수의 신세를 질 필요도 없고 〈셔먼〉호를 끌고와서 로략질을 한 양키놈네 본을 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만국의 로동자는 단결하라 이 구호를 높이 들고… 하느님도 임금도 우리를 구제 못하리…》 시간이 감에 따라 열기를 띠기 시작했던 연설은 이 대목에 와서 하나의 파격적인 절정장면이 연출되였다. 연사는 오른쪽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추켜들었다. 《하느님도 임금도》 하고 한음계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는 온갖것을 부정하듯 들어올렸던 손을 번개같이 연탁우로 내리후리였다. 《우리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제손으로…》

어떻게나 정열적으로 웨쳤던지 연사의 웅변은 장내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내던진 불만의 목소리를 한동안 압도하였다.

《사회！ 긴급동의를 제기합니다.》

오른쪽 청중석에서 청년 하나가 손을 들고 일어났다.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되여 씨근거리였다.

사회자는 연사의 지나친 표현때문에 의견이 있는데다가 손을 들고 긴급동의를 요구하는 청년의 기세에 질려 《무엇인지 말씀하

시오.》 하고 언권을 주었다.

언권을 합법적으로 얻게 된 청년은 손을 내흔들면서 《하느님을 모독하지 마시오.》 하고 소리쳤다. 《시국을 론하는 신성한 마당에서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것을 참을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호응이 일어났다. 회의장에는 주최자가 이름있는 목사 조만식이였던것만큼 그리스도교신자들이 한 절반은 차지하고있었다. 때문에 청년의 제기는 기름가마에 불을 던진격이 되였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저 사람은 붉은 마귀올시다.》 소란한 가운데 청년은 그리스도교도다운 침착성과 참을성을 가지고 온건한 목소리로 자기할 말을 계속하였다. 《붉은마귀나 노랑마귀나 다를것이 없습니다. 일본에 나라를 판 5적이나 로씨야에 파는 공산주의나 다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만하시오. 강연도중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자는 눌러버리였다. 도고하게 서서 지켜보고있던 연사는 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아 경멸해버린다는듯이 긴급동의자를 잠시 지켜보다가 연단에서 내려섰다.

장내에 침묵이 깃들었다.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고 고함치지 않았다. 마치 숨가진 모든 존재들이 질식된것 같은 분위기였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강병철은 공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은 완강한 그 사나이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위선같은것을 전혀 찾아볼수 없는 류창한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공감시켜내지 못하였다. 이미전부터 공산주의자에 대한 불쾌한 인상을 가지고 있던 강병철은 징그러운것을 보는듯한 혐오감까지 생겨났다.

이때 그의 눈앞에서는 다른 얼굴이 또 떠올랐다. 그것은 볼에 고랑이 깊이 패이고 머리가 벗어진 안동권이였다. 안동권은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현 단계에서 조선사람이 지녀야 할 최대의 관심사는 피페해질대로 피페해진 경제를 일궈세우는것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역시 다른데가 아니라 북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물론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것처럼 인간은 어떤 리념이나 제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먹고 입고 불때고 사는 방

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우에 제도나 나라라는 구축물을 얹어놓아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작기는 하지만 예리한 빛을 뿌리고있던 안동권의 눈이 강병철 자기자신을 줄곧 지켜보고있다. 컴컴한 세멘트바닥에서 석양이 깃든 창유리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도 안동권의 얼굴은 그냥 따라오고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들뛰기 시작하였다. 온몸의 피가 우로 솟구치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순간 그는 끙하고 안깐힘을 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바람에 침묵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탁으로 나가고있는 강병철에게로 쏠리였다. 어깨가 쩍 벌어지고 두툼한 근시경을 낀 강병철은 자기자신이 이때 어떤 기대와 불안 속에 휘말려들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오직 그는 이 란장판속에서 한가닥 희망이나마 깃들기를 바라는 어질고 선량한 마음에 이끌리고있을뿐이였다. 그는 두팔을 벌려 연탁을 억세게 틀어잡고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그때 대모테안경이 번쩍 빛을 내면서 록록치 않은 그의 기상을 장내에 확 뿌려던지였다.

《나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강병철은 어렵지 않게 첫마디를 뗄수 있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자기가 연설마당에 섰다기보다 원시범이와 항상 론쟁을 하던 문제거리들을 터칠 생각을 하게 되였다. 《그러나 나는 그 누군가가 나를 깨우쳐준것처럼 오늘에 와서는 정치밖에 서있는 그 어떤 리념도 있을수 없다는 견해를 용납한 조건에서 한마디 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격분을 자아낸 그 사회주의도 좋고 또 예수의 감투를 애모하게 써서 비난을 받은 데모크라시도 좋다고 봅니다. 또 리왕조를 복귀해야 한다는 그 주장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론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다 그대로 나는 받아들이자는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을 때 오른쪽 구석에서 《허어—》 하고 누군가가 김빠지는 소리를 내였다. 《어데서 저런 맹물단지가 하나 나타났어. 두덮어놓고 다 좋다?》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강병철은 배에 힘을 주면서 침착하게 뒤를 이어대였다. 《무엇을 하든 다 좋다고 나는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해결을 보아야 할 근본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것이 곧 론제에 대한 해답으로 될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나라를 떠받드는 경제라는 기둥입니다. 리왕조를 복귀하자는 제씨들, 들어보시오. 일본사람들이 속사포를 쏠 때 우리는 화승대를 가지고있었습니다. 바로 다름아닌 강약의 부동 그 요인에 의해 연연 500년간 지속한 리조는 망한것입니다. 또 미국식 독립의 주장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미국의 창자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로 우리 자신을 지탱할만한 받침대를 세워야 하는것입니다. 현대국가는 모두 경제, 다시말해서 강철에 의해 지탱됩니다. 대동아전쟁도 미국과 일본은 경제대비에서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일본이 경제에서 엄청난 렬세에 있었던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떤 사상이나 주의를 앞세우기전에 반석같은 경제를 구축할수 있는 내 나라를 세우자는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마시오.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 내 나라를 건지기에는 너무나 정도가 지나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크리스챤입니다. 예수의 42대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베도우레헤므에서 탄생하였을 때 유별나게 밝은 별의 인도에 의해 동방에서 3명의 도사가 각각 무엇을 하나씩 가지고 찾아왔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지전능하고 자비지대하신 그리스도님께서 5대주에 널린 그 숱한 기아자들에게 한숟가락의 밥도 나누어준적이 없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먹을것, 입을것, 땔것은 하늘에서 떨어져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모두는 강철기둥으로 나라를 떠받드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터졌다.

《여보! 그만하고 내려오우.》

예수에 대한 비난이 거듭되자 여직까지 참고참았던 신자들의 분노는 터지고야말았다.

《어데서 저런 유다같은 자식이 나타났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대라는 마태복음의 구절대로 할것이요. 그러니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시오. 그러면 공산주의는 또 어떤가.》

사회자가 탁자를 탕탕 울리면서 질서를 지킬것을 요구하건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고함소리가 더 요란하게 터진다.

《저 정신병자를 끌어내라.》

그러거나말거나 강병철은 연탁을 붙잡은채 꺼떡하지 않고 서있다. 공산주의도 받아들일것이 못된다는 론거를 세우려는데 그럴 짬을 얻어낼수 없다.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턱밑에서는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예수를 모독하는자를 끌어내라!》

《저놈은 불한당이다!》

강병철은 실신한 사람처럼 아무런 반항이 없이 얼굴을 들고 서만 있었다.

사회자가 휴식을 선언하였다.

강병철은 부산해진 회의장 한복판에 장승처럼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초점을 잃은 그의 시선은 밖으로 내끄는 원시범의 얼굴에 갔다가 그다음에는 무리등이 달린 천정으로 또 그다음은 희미하게 석양을 받고있는 창문으로 옮겨갔다.

이윽해서 그는 짓씹어서 시퍼렇게 이문 입술을 천천히 열어 뜨거운것을 내불었다.

《내 민족, 내 나라를 구원할 위인은 과연 어데 있는가. 운명이여, 있으면 있다고 말하고 없으면 없다고 알리라.》

그의 눈앞에는 이때 역전앞거리 세멘트담벽에 나붙었던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한장의 구호가 언뜩 나타났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어데 계시는지.》

6

날이 어두워져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원식이 안내하는대로 평양역 대합실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대합실어구에 이르시니 숱한 사람들이 대합실안에서와 그 앞마당에서 춤판을 벌리고있었다. 한 열댓명은 가운데서 빙빙 돌면서 팔다리를 놀리고 그 두리에 하얗게 둘러앉아 손벽장단을 치고있다.

《깽매 깽매 깽매 쿵더쿵 덩덩》 꽹과리소리도 울린다. 한쪽옆에서는 석유상자를 두드려 북소리를 대신하고있다.

《노들강변 봄버들》이 한창이다.

《좋다!》

《좋지!》

주고받는 흥도 멋들어지다.

남녀로소가 어울려 돌아간다. 그가운데서도 젊은축들이 볼만하다. 버드나무가지를 들기도 하고 수건을 흔들기도 한다. 남정들이 곱살한 중년녀인 하나를 한쪽으로 슬슬 몰고가더니 어깨를 으시대며 추파를 던진다. 그통에 모두 좋다고 와야 환성을 지른다.

《광복이 좋다!》

《얼씨구 좋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틈에 끼워 한참이나 흥겨운 춤판을 구경하시다가 박원식의 안내로 기관구쪽으로 질러가는 구내에 들어서시였다. 기관구에 먼저 들리시였다가 다음에 역으로 돌아나올 예정이시였다. 구내에는 여러 갈래로 뻗은 인입선들에 객차와 화물차 방통이 무질서하게 널리고 어데서 무엇을 태우는지 연기가 뽀얗고 골탄내가 코를 찔렀다. 철길을 몇개 가로 건너가니 거기서는 화차 한대를 밀어내기 위해 사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있었다. 그 가운데 세네사람은 불꽃이 탁탁 튕기는 기름방망이를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치고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보고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복작거리는데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기름불을 밝혀든 사나이에게 작업내용을 물으시였다.

《기관차 한대를 요행 수리했는데 그놈이 나오자니까 여기 철길이 막혀 굴러갈수가 있어야지요.》 하고 첫마디를 떼더니 역전에 나가 손님들을 한 50명 데려다가 공사를 벌렸다고 하였다. 지금 일

하는 사람 가운데 철도로동자는 6명이 있고 자기는 기관차에 석탄과 물을 대는 탄수부라고 하였다.

설명을 들으시는 사이에도 목고를 먹이는 작업이 세번이나 거듭 되였다. 화차를 떠밀어 10센치나 20센치 정도 차륜이 드티게 되면 그것이 되밀리지 않게 목데기를 고이고 다시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것이였다. 어느사이에 김책이도 박원식이도 어깨를 들이밀고 지레대를 들어올리였다. 《영차! 영차!》 어둠에 덮인 기관구앞 인입선에서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 둘, 셋!》 하고 선소리를 치시면서 목데기를 들고계시다가 재빨리 차바퀴밑에 밀어넣군하시였다. 밤이 들어 벌써 쌀쌀한 기운이 땅우에 감돌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이 솟고 김이 서리였다. 이윽해서 화차방통은 한 10메터 구간 받침괴목을 댄 맨 땅을 지쳐나가다가 덜컥하고 궤도에 올라섰다.

《성공!》

《됐다. 올라섰다!》

사람들은 팔을 들어 흔들며 좋아하였다. 뒤이어 기름방망이의 신호에 따라서 화차를 다른 선으로 빼내고 기관차 한대가 《칙폭, 칙폭》 힘차게 증기를 내불며 인입선을 빠져 역구내로 멀어져갔다.

《손님들! 이거 수고했습니다. 미안해요.》

기름방망이를 들었던 탄수부가 모자를 벗어들며 인사를 하였다. 그러자 기운차게 나가는 기관차를 보고있던 기차손님들이 제가끔 한마디씩 하였다.

《수고랄기 있소. 이거다 우리 일인데.》

《사흘이나 나흘을 기다렸다가도 우리 기차가 가니 좋기만 하웨다.》

《이를말이요. 아낙네들이 차표를 사기 위해 〈황국신민의 선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소.》

《경찰이 보따리를 뒤지구 따귀를 치던건 어쩌구요.》

《철도에도 광복 만세지요. 하하하…》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로옆에 비켜서신채로 군중들이 설레이고 떠드는 광경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보시였다. 종이로 석탄먼지와 기름이 발린 손을 닦으시면서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짙은

어둠만이 내리덮인 철도구내를 물끄러미 바라보시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민의 기세이다.)
하고 그이께서는 자못 흐뭇한 기분에 잠겨 생각하시였다. (현실은 엄혹하다. 하지만 그것은 이겨낼만한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타이르시였다.
그때 김책이 그이앞으로 다가서며 보선구 휴계실에 한명구기사가 있다는것을 알려드리였다.
《만납시다.》
발밑에서 자갈밟히는 소리가 소란스럽게 나는것을 들으시면서 그이께서는 거기서 얼마 멀지 않는곳에 있는 보선구쪽으로 건너가시였다.
《김책동무! 이자 그 탈선된 화차를 올려놓았을 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하고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저는 아까 덜커덕하고 방통이 철장에 올라설 때 가슴이 활짝 열리는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가다가 내려놓은것처럼 마음이 거뿐합니다.》
김책의 음성은 기쁨에 젖어있었다.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의 흐름이 시작되였습니다. 일을 도와준 기차손님들이 주고받는 말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할수 있었다. 맑고 깨끗한 우리 인민들의 슬기와 열정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여 혼탁된 걸물을 떠밀고 흐르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었다. 기관차가 나갈 길을 틔워주기 위해 숱한 사람들이 어깨를 들이밀고 힘을 쓰고있고 사흘에 한대의 렬차가 떠나도 그것은 일제의 억압과 착취가 없는 우리의것이 되여 좋다고 하고있다. 혼란과 무질서,이것은 겉에 뜬 탁류이고 그밑에서는 아직 눈에 잘 띄지 않을만치 희미한것이기는 하지만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고있다. 이런 흐름을 모아 제곬에 들여세우기만 하면 그것은 곧 대하를 이룰것이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그 심오한 의미를 마음속깊이 새기고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휴계실에 들어서시였을 때 장방형으로 생긴 기다란 방안에는 청년들이 수십명 앉아있었다. 정면벽에는 백로

지 여러장을 이어서 도표를 그려붙였다. 촉광이 낮은 뿌연 전등밑이여서 방안의 모든것이 잘 보이지 않았다.

《지금 한명구동무가 철길에 대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한걸음 앞섰던 박원식이 되돌아나오면서 김책에게 알리였다.

《그러면 좀 기다립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밖으로 나오시며 《강의를 계속하라고 하시오.》 하고 박원식의 등을 떠미시였다.

박원식이 되들어가자 중단되였던 강의가 계속되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쩍 벌어진 한명구는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가며 설명을 하였다. 앞벽을 꽉 채울만치 크게 그린 직관물에는 기차의 차륜과 철길의 곡선이 그려져있는데 거기에는 단면도도 있고 평면도도 있었다.

《어떻게 되여 축에 고정된 량쪽바퀴가 곡선에서 생겨나는 각이한 길이, 여기 그림에 있는것처럼》 그는 손으로 반달형포물선을 찍으면서 설명하였다.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긴데 바퀴가 선로에서 탈선되지 않는가, 그것은 차륜마찰부와 궤도의 생김새에 의해 해결되는데…》

《매우 흥미있소. 박원식동무는 저 원리를 알고있었소?》

그이께서는 한명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물으시였다.

《모릅니다.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거요.》

잠시후 강의를 끝낸 한명구가 밖으로 나왔다. 김책은 **김일성**동지를 정치위원동지라고 소개하였다.

《동무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차림인 한명구를 진심으로 치하하시였다.

《그런데 한명구동무! 기관차나 화차를 수리하는것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평양역에는 수백명의 손님들이 기차를 기다리며 묵고있습니다. 또 지방에서 쌀과 남새와 석탄이 들어오지 못해 평양시민들이 곤난을 받고있습니다.》

간곡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뭐라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명구는 맞잡은 손을 연신 주물기만 하면서 묵묵히 서있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기관차를 수리해야 합

니다, 기관차를.》

이때 박원식이 한걸음 나서며 《이엽에 조용한 방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올리였다.

《아니요.》 하고나서 그이께서는 한명구의 어깨를 두드리시였다. 《동무의 방에 가봅시다. 평양철도국장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여 그이를 모신 일행은 평양역사와 맞붙은 국장 사무실로 가게 되였다. 역구내와 마당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사람이 끓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었다. 그이께서는 한명구가 안내하는대로 홈을 지나서 철도국사무실로 걸어가시였다.

《그래 기관차수리와 화차수리는 왜 못하고있습니까？》

아까부터 한명구가 석연한 대답을 내놓기 거북해한다는것을 감촉하신 그이께서는 재차 물으시였다.

《기관차나 차량수리말입니까？》 하고 한명구는 자신없이 되물었다. 이때 시선에는 괴로운 빛이 언뜩 지나갔다. 《정확한 대답을 올리자면 이루 헬수 없을 정도로 많은 품명과 애로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철제품이 없는것입니다. 산형강, 환강, 제동주철 등을 얻어올데가 없어 아무 일도 해낼수 없습니다. 다른 애로조건들은 모두 이 철제품이 마련된 다음에 론의할것들입니다.》

《결국은 강철！ 강철이 없단말이지요.》 하고 그이께서는 딱히 누구에게 묻는것도 아닌 나지막한 혼자말을 몇번이나 거듭하시였다.

그이를 모신 일행은 다시 걸음을 떼여 한쪽 밀문이 떨어져나간 철도국 사무실 현관에 들어섰다. 2층층계를 오르면서 **김일성**동지께서 다시 물으시였다.

《강철은 어데서 가져와야 합니까？》 조선에서 강철이라고 한다면 겸이포, 삼릉 제철과 청진, 성진, 강선 등일것이 명백하시였지만 그래도 어떤 다른 대답이 있을가 해서 물으시는것이였다.

《제일 가까운데가 여기 강선제강소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다른데와 마찬가지로 8.15광복과 함께 로가 굳어지고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명구는 그이를 2층으로 통하는 층계쪽으로 안내해드리였다.

《여기서부터 보면서 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송과》라는 명찰이 붙은 방문앞에 멈춰서시였다. 방안은 휑뎅그렁하니 비여있었다. 넓다란 방안에 10여개의 량수 또는 편수 책상이 놓이고 한쪽벽에는 주련이 전화가 걸려있었다. 책상은 삐뚤삐뚤 놓이고 걸상은 아무데나 널려있었다. 무질서한 방안정경은 평양철도국 수송과 관할에 드는 수많은 역들의 현실태가 그대로 펼쳐진듯하였다.

《여기는 무슨 일을 보는 부서입니까?》 그이께서는 《운전과》라는 명찰이 붙은 다음방을 쳐다보면서 문가 한쪽에 비켜서있는 한명구에게 물으시였다.

《기관차와 객화차를 담당하고있습니다.》

방안에는 세명의 청년이 한쪽구석에 쌀가마니를 쌓고있다가 일제히 돌아서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왜 사무실에 이런걸 들여놓소?》

한명구는 청년들에게 합숙에 가져가든지 아니면 창고에 넣든지 하지 않고 왜 이런데 끌어들이는가고 추궁하였다.

《한명구동무, 너무 시비를 하지 맙시다. 그래도 여기는 기관사들을 위한 식량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기관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기관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평양에 한사람 있습니다.》

《단 한사람뿐이란 말입니까?》

그이께서는 단위를 헛갈리지 않았는가 해서 다시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원래 광복전에 북조선지역에 기관사자격을 받은 조선사람이 열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두명이 평양에 있었고 한사람은 고원, 다른 하나는 함흥에 있었습니다. 그외는 전부 조수들뿐입니다. 전쟁을 하면서부터 왜놈들은 기관조사까지도 일본놈을 위주로 쓰다가 정 바빠맞으니까 차츰 조선사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양기관구에서 운행하고있다는 여섯대의 기관차는 누가 운전하고있습니까?》

《조수들을 쓰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선사고, 전복사고들이 빈번합니다.》

《여기 이 운전과의 과장은 지금 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임명할 사람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청진에 있던 저의 친구를 끌어다가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말썽이 많아 며칠전에 걷어치우고 가버렸습니다.》

《가버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뒤이어 공무과, 건설과, 서무과 등 사무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였다. 사정은 모두 앞서 본 운전과나 수송과와 어슷비슷하였다.

일행은 장군님을 모시고 국장실에 들어섰다. 그래도 국장실은 다른데 같지 않았다. 책상도 바로 놓이고 반들반들 윤이 나게 닦은 탁상전화기 두대가 제자리에 있었으며 한쪽구석에는 원탁에 물병도 놓여있었다. 그러나 역시 속속들이 침투하였던 시대적 풍조를 말끔히 가셔낼수가 없었던지 등화관제를 했던 시꺼먼 전등갓이 그대로 천정에 달려있고 문짝이 떨어진 철궤가 한쪽구석에 보기 흉하게 자리잡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차림이나 분위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고 달도 없는 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열명도 못된다!》 하고 그이께서는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하시였다. 그러시다가 한명구가 서있는쪽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그래 한명구동무, 어떻게 하면 이 철도를 최단시일안으로 정상적으로 운행해낼수 있겠습니까?》

한참동안이나 대답이 없다가 한명구는 두손을 앞으로 돌려잡고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말하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장사업을 못하겠습니다. 저번날 김책동지한테도 말했지만 저는 능력도 없고 수완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제한 다음 그는 그것을 빈틈없이 론증하였다.

현재 국산하 기관차 20대중 6대만이 성해있으며 그나마 기관사가 모자라고 통신선은 죄다 끊어졌다. 철길상태도 말이 아니여서 임의의 시각에 전복탈선사고가 일어날수 있는 위협이 조성되고있다. 객화차들이 파괴되여 짐이나 사람을 실어나를 형편이 못되며 기관차

용 알탄이 없어 장작에다가 송탄유를 끼얹어 김을 올리는 형편이다. 철도종업원가운데서 60프로가 각종 리유로 직무에서 리탈되였으며 현 인원도 식량을 구하러 자꾸 떠나가기에 점점 줄어들고있다.

《김책동지를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됐습니다. 정치위원동지께서 잘 처리해주십시오. 장시간 설명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업적 견지에서 요구는 각종 자재입니다. 경영상 견지에서는 종업원에게 줄 식량입니다.》

《한가지 물읍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침울한 빛을 띠고계시다가 홀연 기분을 달리하시면서 국장쪽으로 한걸음 다가서시였다.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까?》

《아끼다공대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학비는 누가 댔습니까?》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농사짓는 삼촌네 집에서 보통학교를 나오고 일본에 가서 신문배달을 하며 고학을 했습니다.》

김책이 보고한 그대로였다.

《국장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한명구의 손목을 굳게 잡으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똑똑히 차려야 합니다.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동무가 장시간 설명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난관이 몇가지나 되며 얼마나 큰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난관을 헤치고나갈 각오가 되여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능히 헤쳐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고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동무는 무엇때문에 일본사람들의 문전을 찾아다니며 신문을 팔았습니까. 어디 말해보시오. 기술을 배워서 왜놈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굴종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래 우리의 이 곤난이 왜놈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차별대우를 받던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야 할수 없지 않습니까. 또 이 곤난을 도피해서 가면 어데로 가겠습니까. 동무는 지식인이니까 여기에 책임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대답이 없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떠돌았고 마치 들판

의 어느 풀숲에서처럼 야무진 귀뚜라미소리만이 소란스럽게 들리였다. 한명구는 고개를 떨군채 움직이지 않았다.

《국장동무! 생각해보시오. 철도가 움직이지 않아 지금 만가을인데도 쌀값이 뛰여오르고있습니다. 그거나마 사기 힘듭니다. 이대로 버려두면 오래지 않아 온 평양시민이 굶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린 국장동무에게 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재도 식량도 우리 손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국장동무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애국심 그것밖에 바랄것이 없습니다. 조선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리유때문에 왜놈들한테 차별대우를 받으며 입술을 짓씹어야 했던 전기기사인 당신을 쳐다보는외 방법이 없습니다. 한명구동무, 사정은 이렇습니다.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고생합시다.》

그이의 말씀은 한명구의 페부를 뚫고 갈피갈피 스며들었다. 묵묵히 서있는 한명구의 눈시울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나타낼수 없었다. 믿고 요구하는데 비해 또 그만 못지 않게 난관이 쳐다보이고 그것이 이제 거침없이 불러오게 될 후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웠던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또 〈잘되겠지요, 해봅시다.〉 하고 적당히 대답한다면 그것은 나자신을 속이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명구를 측은하게 바라보시였다. 사실 그의 말대로 속에 없는 대답을 하거나 일시 모면을 위해 적당히 얼버무려 넘긴다면 그것은 하나의 큰 배신으로 될것이며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낳게 될것이다. 그이의 시선이 한명구의 어깨로부터 출입문쪽에 비켜선 박원식에게로 옮겨가더니 이윽해서 방안을 울릴만치 크게 말씀하시였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형편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도울수가 없습니다. 동무가 요구하는것의 백분의 하나도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의 성의와 책임감의 표시로서 저기에 서있는 저 박원식동무를 동무한테 맡기고 가겠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함께 풀어보시오. 박동무는 산에서 10년가까이 우리와 함께 싸운 좋은 동무입니다.》

한명구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앞에 서계신 **김일성**동지와 저쪽 문켠에 서있는 키가 늘씬한 박원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인사를 나누고 서로 헤여졌다.

밤이 퍽 깊었다.

박원식을 떨궈둔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와 함께 역전광장으로 나오시였다. 소슬바람이 불어 옷섶을 흔들면서 홧홧 달아난 볼을 식히였다. 한참동안 말없이 걸으시였다.

（또 하루가 다 지나갔다.）하고 그이께서는 내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에 있었던 인상적인 일들을 돌이켜보시였다. 신문배달을 하며 공부했다는 기술자, 그는 솔직하면서도 완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간혹 실수가 있을수 있고 혹시 빗나갈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무섭게 돌진할 그런 사람이다. 《국장사업을 못하겠다》는 그의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실수 있었다. 그앞에 너무나 아름찬 과제가 놓여있기때문인것이다.

《김책동무！》 하고 부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였다.

김책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지금 우리가 우선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까？》

《하루속히 당조직을 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음성을 높이여 긍정하시였다. 그리고나서 계속하시였다. 《난 거기에다 또 한가지를 더 첨부하자는것입니다. 인재에 대한 전략을 세웁시다. 우리가 이미 산에서 예견했던것처럼 당은 정권을 세우고 인민무력을 창설하고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 모든 밑바탕에 인재 문제를 내세우도록 합시다. 평양철도국은 텅 비여있습니다. 기관차에도 그것을 운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은 다 비여있고 기관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관사！》

그이께서는 주먹을 흔드시며 흥분해서 말씀하시였다. 김책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끓어오르는것을 어쩌지 못하였다. 그이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경건하게 고개를 숙여보이였다.

제 2 장

1

저녁때가 되자 본정에 자리잡은 2층 숙소는 전에없이 흥성거리기 시작하였다. 지방에 파견되였던 정치공작원들이 올라온것이다. 나들문이 쉴새없이 드르륵드르륵 울리였고 식당으로 쓰는 아래층 큰칸은 사람들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말소리로 가득찼다. 작식을 맡은 안명숙은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까지 내돋힌채 부엌과 물뽐프장에서 팽이 돌듯하고있다.

국수를 누르는것이다. 조리대에서는 질컥질컥 소리가 나게 메밀가루반죽을 하고있고 한쪽에서는 신바람이 나게 칼도마를 울리며 양념을 다지고있다. 마늘내, 고추내, 설설 끓는 가마에서 풍기는 메밀내가 한데 엉켜 부엌과 방안을 꽉 채웠다. 청년들은 저마다 분틀에 올라가겠다고 야단이다. 밀영의 국수분틀도 좋지만 광복된 조국에서 분틀타기는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날으는 기분에 못지 않다는것이다. 안명숙은 허여멀쑥하고 통개가 실한 반죽떡을 국수분통에 밀어넣다가 고개를 들었다.

《너무 바빠서 인사도 받을새 없구만, 명숙동무！》

그것은 키가 껑충한 김일이였다.

《김일동지 오셨어요.》 안명숙은 밝게 웃으면서 반죽감이 잔뜩 묻은 손을 들어보인다. 《그럼 평남, 평북 쪽에서는 다 오신 셈인가요？》

《웬걸, 남포에 간 김경석동무도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래요.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청진의 안길동지는 오늘새벽 맨선참 오셨는데요. 혜산에 갔던 류경수동지랑.》

《나두 이자 만났소. 그런데 이거 뭐 오래간만인데 들고올기 있더라구. 자, 받소.》

자루에 든것을 가마목에 털썩 내려놓는다.
《밤이군요.》
안명숙은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말한다. 안명숙의 얼굴은 장미꽃처럼 붉었고 눈은 빛나고있다. 마냥 기쁘고 즐거웠다. 밀영에 있을 때부터 체험해 아는바이지만 이렇게 전우들이 많이 모이면 틀림없이 인차 좋은 일이 있게 되는것이다.
안명숙이 밖으로 물길러 나갔을 때 경위대원 좌현이가 나타났다.
《안동무! 이거 야단이요. 상점들에두 신통한게 없구만.》
안명숙에게 과일을 가득 넣은 구럭을 들어보인다.
《14살에 떠나셨다가 34살에 찾아가시는 고향인데 20년이 어데요. 그런데 빈손이구만그래. 떡이라도 만들어 보잖겠소? 사는것보다야 우리가 만드는게 더 뜻이 있지.》
《그래 장군님께서 만경대에 가신다는건 틀림없어요?》
《만경대쪽으로 나가보겠소 했으니까.》
《그러니까 딱히 만경대고향집으로 가신다는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야 어떻게 말씀하시겠소. 우리가 알아차려야지.》
《하긴 그렇군요.》
안명숙은 찰랑찰랑 물이 담긴 바께쯔를 들고 힝하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건너방에서는 쉴새없이 웃음소리가 울린다. 거기에는 이전에 련대장이나 련대정치위원으로 공작하던 파견원들이 들어있었다. 뒤벽에 등을 기대고 앉은 몸이 다부지고 유독 머리가 커보이는 류경수가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빨리 한번 모이게 해달라고 제기했소? 혹시 저 신의주의 김일동무가 아닌가?》
《원, 천만에…》 맞은켠에 앉았던 김일이 불이 달린 성냥가치를 휘젓는다. 담배에 불을 붙인후에 그는 느릿느릿 까닭을 설명하였다.
《난 그런걸 제기할만한 여유도 없었단말이요. 신의주에 도착하는 그 이튿날부터 일감이 사태 밀리듯하는데 어디 정신을 차릴새나 있더라구. 매일밤 잠자리를 옮기는데두 하루건너 수류탄이 날아들고…》
《그럼 이 청진의 안길이 틀림없구만.》

류경수는 옆에 앉아 무슨 책을 뒤지고있는 안길의 팔을 건드려놓는다. 언제나 침묵이고 사색형인 안길이 고개를 끄덕여보인다.

《그다음은 또 누구요. 네댓명된다는데.》

류경수는 끝까지 알아맞춰보겠다는 기세로 좌중을 둘러본다.

《내 알아맞춰보라우?》 눈섭이 시꺼먼 최현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무뿌리처럼 거치른 손을 앞으로 내들었다가 자기 가슴을 툭툭 두드린다. 《기본장본인은 여기 있소, 여기.》

그렇게 되자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또 최현이다운 기지가 나타난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김책동무한테 우는소리 한것만은 사실이요. 내려가보니 너무 아름차서 어쩔바를 모르겠드란말이요.》

안길이가 책을 덮어놓으며 이렇게 실토정을 한다. 그렇게 되자 김일이도 조정철이도 전적으로 그에 동감이며 김책을 통해 한번 모여서 경험교환도 하고 사령관동지의 말씀도 다시 받아보고싶다는 의사를 비쳤다고 하였다.

부엌에서 안명숙이 방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자, 받으세요.》

국수사발이 연방 올라온다.

《곱배기는 안되겠어요. 한사람에게 한그릇씩입니다. 예상외로 식구가 불었어요.》

안동무는 불이 번쩍 나게 국수사리를 다루는데 그 솜씨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나만은 사전에 신청이 있었으니까 문제가 다르지.》

그것은 최현이였다. 국수라면 오금을 못쓴다는 그였다. 육수를 붓는참 한쪽으로는 련달아 들어올린다. 영업집모양으로 만든 길다란 국수상에서는 벌써 양념을 놓고 사리를 풀고 저가락질이 시작되였다.

《여! 저 미인 누구지?》

부엌에서 안동무를 돕고있는 처녀를 눈으로 가리키며 최현이가 앞에 앉은 동무에게 묻는다.

《박원식동무의 애인이라누만.》

대답하는것은 최현이와 같은 나이의 경위대원 양동무였다.

《아니 뭐 벌써 애인?》

《벌써라니, 여기 오자 며칠만에 제꺽 눈이 맞았다는데.》

《허허, 대단한 속도요.》

국수를 먹으면서 힐끔힐끔 훔쳐본다. 희한할만큼 아름다운 처녀가 불과 몇메터 앞에서 왔다갔다 하고있다. 얼굴은 달덩이처럼 환하고 브라우스를 가뜬하게 해입은 몸매는 평양처녀다운 세련미를 풍기고있었다. 머리는 이때 류행이던 외태인데 대목을 질끈 동이고 밑은 부채살처럼 풀어헤쳐져 어깨의 부드러운 곡선우에서 자유롭게 헤엽치고있다.

《박원식이 그 친구 짬수군인데.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며칠새에 숲속의 억센 사나이를 그렇게 옴짝 못하게 만들었다나.》

《무엇에 반했는가구? 얼굴이 장미꽃같구 마음씨 또한 형편없이 아름답대. 박원식의 실토네.》

좌현은 시기심이 로골적으로 드러난 눈길로 처녀를 쳐다보면서 긴 한숨을 내쉰다. 유격대원들은 태반이 30이 다된 로총각들이여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

며칠전 철도로 떠나는 날 박원식이 양동무에게 실토한데 의하면 필남이라는 괴이한 이름을 가진 그 처녀는 해락관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동양양복점》이 있는데 그 집 딸이라고 한다. 옷을 맡기기 위해 몇번 드나들다가 어느새 눈이 맞아 언약을 맺는데까지 이르렀다는것이다.

2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 한켠에 놓았던 수첩을 앞으로 당겨놓고 회의참가자들을 쭉 둘러보시였다.

오른쪽에 김용범이 앉고 맞은쪽에는 김책이와 김일, 안길, 최현, 류경수, 조정철, 박영순 등등 순서로 지방에 나갔던 파견원들 십여명이 앉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동무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합시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필을 집어드시였다. 《그간 사업정형은 앞에서 초보적으로 총화되였으니까 이번에는 격식을 갖추지 말고 각지 실태를 놓고 대책적인 문제들을 토론해봅시다. 누가 먼저 발언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나들문쪽에 앉은 해주에 파견된 리봉수, 남포에 파견된 김경석 등을 차례로 둘러보시였다. 그이의 시선이 방안쪽으로 거의 옮겨지게 되였을 때 군복차림인 최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화로도 간단히 말씀올렸지만 제가 가있는 강계로 말하면 조선에서도 맨 산골막바지인데다가 만주와 국경을 린접하고있어서 생각지 않던 정황이 자주 생깁니다. 첫째 제가 해결받고싶은것은 식량입니다. 여느때는 만주에서 콩과 고량이 넘어왔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자위대를 조직할수 있게 무기를 몇백정 받아가야 하겠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도 이야기되였습니다만 우리가 유사시에 대처할수 있게 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곳 실정을 보아도 이것은 절실한 문제입니다. 강계근방에는 수전회사에서 언제공사를 하던 화약창고가 흘어졌는데 반동들이 남포약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또 관동군패잔병이 산에 있으면서 마을에 내려와 식량이나 마소를 끌어간다고 합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입에서 총을 줍시사 하는 말이 나온다는것은 좀 어색한 일인줄 압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왜놈군대를 제끼고 벗길데도 없잖습니까.》 그는 잠간 말을 중단하고 좌우를 둘러보다가 계속하였다. 《평양에도 총은 없을거란말입니다. 일본군 77련대거나 좀 있겠는지, 안길동무.》 이번에는 맞은켠에 앉은 안길을 쳐다보며 말을 건네였다. 《거기선 라남19사단을 쳤으니까 좀 있을거 아니요.》

안길은 얼마간 있었는데 각군에 조직된 보안서에 나누어주고 나니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첩에 또박또박 적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또 토론들 하시오.》

이번에는 안길이 일어났다. 그러나 인차 입을 열지 못하고 주

저주저하다가 말을 떼였다.

《저도 역시 몇가지 애로되는것이 있어서 김책동무한테 이미 제기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책동무는 평양이라고 해서 다른데보다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줄 알고 모두 자체해결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간 불만이 있었는데 정작 이번에 와보니 참말 손을 내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어서 말하시오. 해결여부는 후에 따지고 현재는 실정을 정확하게 료해해야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재촉하시였다.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얼굴이 검실검실하고 강인하게 생긴 안길은 수첩장을 번지면서 정확한 억양으로 말을 떼였다.

《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중요임무는 우리 인민들에게 우선 조선이 나아가야 할 혁명로선을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였습니다. 다음은 당,정권기관을 꾸리고 파괴된 산업을 복구해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것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북도의 경우를 보면 군당이나 군인민위원회를 꾸릴 간부도 없습니다. 이전에 로조나 농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평양이요,서울이요 하면서 떠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 나라 글도 똑똑히 읽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공장과 기업소 형편은 더 한심합니다. 청진제철소,제강소,화학공장,유선탄광,무산광산들을 보면 눈이 딱 감깁니다. 그곳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공장설비들을 벼락맞은 소고기 뜯어가듯하고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치위원회를 조직해서 공장을 지키는데 급급하고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복구도 하고 기계를 돌려서 제품을 내야 하겠는데 기술자가 없습니다. 청진제철소 례를 하나 들면 기사 4명에 준기사 11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사는 한명도 없고 준기사 2명이 있을뿐입니다. 때문에 용광로,해탄로,압연기들이 무용지물로 되였습니다. 우리 청진은 전쟁마당이였기때문에 이런 형편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함남도 사정은 좀 다르다고 하는데 일부 기술자들을 좀 양보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길동무!》 처음부터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던 김책이 끼

여들었다. 《며칠전에도 말했지만 함남사정도 거기와 꼭같소. 내가 가보았는데 흥남 5대공장이 그렇고 함흥제사공장, 검덕, 만덕, 리원광산이 다 그렇단말입니다. 거기에서는 오히려 함북에서 기술자들을 좀 받아왔으면 하는 형편이요.》

뒤이어 김일이 일어났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두 다른데는 평북보다는 사정이 나은것 같습니다. 현재 신의주에는 하루에도 천여명의 사람들이 밀려들고있습니다. 만주쪽에 갔던 동포들이 줄을 지어 압록강다리를 건너옵니다. 온 거리에 사람이 차넘치고있습니다. 그러니 식량이나 다른 사정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일 애를 먹고있는것은 선천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세력입니다. 두덮어놓고 공산당의 시책을 반대하고있습니다. 하느님이 가르치기를 조선민족이 나갈 길은 미국식 자유의 길이라고 했다는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적은 인원이고 그 계급적 토대는 모두 지주이거나 거리의 간상배들입니다. 이들이 요언을 돌리는바람에 당이나 인민위원회사업에 큰 지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제때 기술자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의주에 왕자제지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왜정때 기술자가 두명 있습니다. 그들을 인입하면 공장을 돌릴수 있고 제품도 곧 나올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들을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에 공장장이 평양에 올라왔다 가서 그들을 떼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지식인이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와 딴 길을 가겠다고 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는 제지공장기술자가 우리와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이상 그를 써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교계통의 나쁜 영향을 받는 학생층의 동향이 좋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해설선전을 적극적으로 들이대야겠는데 그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대상이 중학생들인것만큼 그들을 설복하자면 지식도 어느 정도 있고 군중공작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50명 선전원으로 쓸 사람을 한두달 파견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은 자리에 앉았다. 잠간사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신중한 문제들을 언급하게 되였기때문에 이마전에 땀이 흥건히 내배였다.

다음에 일어선것은 혜산에 파견된 류경수였고 그다음에는 남포에 나간 김경석이였다. 그들도 여러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앞서 제기한것과 내용이 어슷비슷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파견원들 전원의 토론을 하나하나 다 들으신후에야 연필을 놓으시고 잠간 휴식하자고 하시였다.

3

회의가 다시 계속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파견원들에게 더 보충적으로 제기할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시였다. 모두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사전에 발언요지라도 준비하시였던 모양인지 수첩장을 펼치시고 옆에 있는 잉크단지를 집어다 한옆을 지질러놓으시더니 고개를 드시였다.

《오늘 우리는 당면하게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토론하고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우리는 몇가지 문제에서 반드시 일치한 의견에 도달해야 하겠습니다. 동무들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지금 뜻하지 않은 일에 자주 부닥치게 됩니다. 례를 들면 우리가 지난 봄에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한창 다그칠 때 우리 조국이 38도선으로 갈라지리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 하여 우리는 오늘 일제를 치고 조국을 광복하는데 못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고있습니다. 38도선이북에는 쏘련군대가 진주해서 민주주의적 발전을 돕고있는 반면에 남조선에는 미국군대가 점령함으로써 벌써 한달어간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난관의 성질과 그 정도를 능히 가늠할수 있게 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인민의 의사는 말살되고 전패국에서만 볼수 있는 가혹한 군정이 실시되고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민족을 큰 비운의 언덕으로 떠밀고가리라는것은 명백한 사실로 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떤 문제를 론의하든지간에 우선 먼저 이것을

념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있는가? 그것은 지난 8월 20일 군정간부회의에서 전부 언급되였습니다. 당을 창건하고 국가정권을 세우며 우리의 전취물을 능히 보위해낼수 있는 인민무력을 창설하며 령락된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켜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략을 수행하는 첫걸음에서부터 큰 난관에 직면하고있습니다. 그 실태는 지금까지 동무들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천가지 만가지로 얽히고 형태와 양상이 각기 다른 그 난관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도사리고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자리에서 해부해보아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발언을 일단 중단하시고 고개를 드시였다. 연설내용은 자못 신중하였으며 지어 처절한 느낌마저 자아내였지만 그이의 얼굴에는 신심이 어려있었고 어글어글한 눈에는 금방 미소를 피워올릴것 같은 맑은 정기가 넘쳐흐르고있었다. 그이께서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신후 수첩장을 번지시더니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당을 창건하자고 해도 그 력사적 위업을 감당할만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정권을 세우자고 해도 그 임무를 수행할만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인민무력을 창건하자고 해도 군사를 거느릴 지휘관이 있어야 합니다. 파괴된 경제를 복구해서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해도 그것을 맡아나설 과학자, 기술자, 경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도 문화도 보건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분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인재부족이라는 지진파우에 올라앉아있는 셈입니다. 인재!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합니다. 이미 여러번 말해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또하나의 큰 전역을 치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아와 역병,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하고 이 땅에 자주적인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느덧 흥분되시여 음성이 한결 더 높아지였다.

《동무들! 우리는 현시기 우리 혁명의 성격을 정확하게 리해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력량편성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혁명은 일제잔재를 숙청하는 반제적 과업에 사회발전의 결

정적 질곡으로 되고있는 봉건을 청산해야 할 과제가 겹쳐있습니다. 이 기초우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위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력량편성은 로동자,농민을 주력으로 하고 거기에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돈을 가진 진보적 자본가,량심적인 종교인들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국광복회 강령에서 다시 강조되였고 지난 8월 20일회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변화가 없다는데 대해서 재삼 언급되였습니다. 계급적 력량편성에서 우리가 지금 류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론의되고있는것을 하나의 초점에 집약하면 결국 지식인문제에 귀착됩니다.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지식인은 일반 지식인과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유한 계급의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제에 의한 민족적 차별과 멸시를 당하였기때문에 혁명성이 강한것입니다. 이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조선의 지식인을 혁명의 한 성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제기했던것입니다.

우리 조선혁명의 실태가 이것을 요구하고있는데야 무엇때문에 그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색하고 우리가 창조성을 가지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집니다. 여기서 론의의 폭을 한껏 좁혀서 인재문제전반이 아니라 과학자,기술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안길동무가 말한것처럼 청진제철소,제강소가 서있습니다. 김일동무는 신의주제지공장도 서있다고 했습니다. 김책동무의 보고에 의하면 흥남지구공장들이 다 섰습니다. 겸이포제철도 서고 문평,남포 제련소도 조업을 못합니다. 기차가 다니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양철도에 나가본데 의하면 기술자가 없어서 고장난 기관차를 수리하지 못하며 가동할수 있는 기관차는 기관사가 없어서 뛰지 못합니다. 실태는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료해한데 의하면 일제는 패주하면서 조선산업의 85프로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지식인을 포섭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미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충분히 체험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빛나는 공적을 쌓은 차광수,김혁 동무들을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들을 우리는 기억하고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수 있습니다. 지식인을 적극적으로 혁명에 인입해야 하며 과거지식인들을 아량있게 포섭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새 지식인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를 승리의 언덕에 올라설수 있게 할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앞으로 당의 구성성분을 짜는데 있어서도 마치와 낫만이 아니라 당당히 펜도 인입하도록 고려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지식인을 대하는데 있어서 우리를 스스로 따라오는 대상과만 손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외면하거나 지난날 일제에 복무한 죄책때문에 동요하는 층도 적극적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가 방임하거나 밀쳐버리면 그들은 꿋꿋이 적의 편으로 넘어갑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지식인들을 저들의 손에 넣으려고 갖은 음모를 다할것입니다. 적들도 결코 졸고 있지는 않을것입니다. 때문에 지식인문제는 날카로운 계급투쟁선상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앞에는 당, 국가, 무력 건설과 함께 아득히 뒤떨어진 경제와 문화를 하루빨리 선진국가수준에까지 따라세워야 할 과업이 제기되여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문맹퇴치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인구의 80프로에 달하는 문맹자의 눈을 띄워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고등교육을 새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하나도 없는 대학도 내와야 합니다. 종합대학도 내오고 단과대학도 앞으로 도처에 내와야 합니다. 민족문학예술도 보건사업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것이 다 지식인들의 역할을 떠나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가지 문제에서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일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인재문제가 긴장한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푸는 방도의 하나로서 형제당에 방조를 청해보는 것이 어떤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으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재문제는 좋으나 궂으나 제사람 아니고서는 풀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자기 사람과 자기 힘을 믿고 자기자신이 해결하는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어 그이께서는 기본문제는 다 이야기되였다고 하시면서 제

기된 문제에 대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는데로 넘어가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인 수첩을 다시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파견원동무들은 모두 이미 맡은 기본과업들을 수행하는 한편 이제부터 특히 인재문제와 관련한 사업에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김책동무도 여기 있는 기간 한몫해야겠는데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근엄하게 앉아있는 김책이쪽으로 믿음과 기대에 찬 시선을 보내시였다.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였다.

《인재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맡으면 어떻겠습니까? 정치학교들도 더 내오고 과학자,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써보고싶습니다. 저번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당장 공업전문학교를 하나 평양에 내오고 계속해서 대학을 내오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분공은 따로 토론합시다.》

그이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방안을 둘러보시였다.

《최현동무가 제기한 무기는 주겠습니다. 전리품으로 넣어둔것이 좀 있습니다.》

최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음 안길동무가 제기한 기술자문제는 차츰 해결합시다. 우선 함북도안에 있는 대상을 다 장악하시오. 어제 김책동무는 종로거리에 경성제국대학 교수가 와있다는것을 알아냈고 평양역전 려관에서는 대구에서 왔다는 전기기사를 하나 찾아내였습니다. 일본 야하다제철소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김책동무.》 김책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그이께서는 《대구에서 왔다는 기술자를 언제한번 만나봅시다.》라고 하시였다.

다음에는 창문을 등지고 앉아 두릿두릿 좌우를 살피고있는 김일에게 물으시였다.

《김일동무도 기술자를 요구했지.》

《그렇습니다. 이제는 자체로 해결해보겠습니다.》

김일은 자신있게 대답하였다. 장내는 모두 흐뭇한 기분에 잠

기였다. 그이께서 명확하게 제시하신 길을 따라 가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았다. 얼굴이 모두 환하게 밝아졌고 신심에 넘치였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또 합의를 보아야 할것이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지막 문제는 간단하기때문에 휴식없이 끝내자고 량해를 구하신 다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미 예비회의에서 합의된것이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확인하자는것입니다. 당창립대회를 10월 10일에 열자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겠습니까?》

전원이 찬성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문제가 신중한것이기때문에 매 사람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또 물으시였다. 그러나 역시 다른 의견이 하나도 없었다.

4

회의가 끝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기척소리가 났다. 김책이 급히 나가보았다.

얼마후 그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되돌아들어오더니 **김일성**동지께 무엇인가 나직이 말씀올리였다.

《신창탄광로동자가 틀림없습니까?》

그이께서 따져 물으시였다.

《그렇습니다. 오늘아침부터 와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장군님을 만나뵙겠다는것입니다. 그것이 정 불가능하면 정치위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두분중 누구든 만날 때까지 열흘이고 한달이고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만면에 웃음을 띠우신채 잠간 무엇을 생각하는듯하던 그이께서는 《신창탄광 로동자대표를 만납시다.》 하시며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나이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모두 어슷비슷한 3명의 청년로동자들을 앞세우고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자! 어서들 앉으시오. 먼길에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뜻밖에 친절히 맞아주는데 어리둥절해진 로동자들은 의자에

앉지 못하고 창문가에 서서 주춤거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사람씩 팔목을 끌어다가 차례로 의자에 앉게 하시였다. 하는수없이 의자에 앉게 된 3명의 로동자들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방안을 두릿두릿 살피였다. 흔히 볼수 있는 마루방에 책상 하나가 놓이고 검소한 쪽걸상 몇개가 눈에 뜨일뿐이다. 류다른것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문앞까지 마중나와 손을 잡아끌어주신 부드럽고 인정미가 넘쳐흐르는 환한 얼굴,활기에 넘친 몸가짐 그리고 추호도 위엄을 느끼게 하거나 마음을 긴장시키는데가 없는 안온하면서도 명확한 말씨,이분이 바로 땅을 주름잡고 가랑잎을 타고 강을 건느신다던 그 김장군님이 아니실가. 일단 이렇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자 걷잡을수 없이 이분이 장군님이시다！라는 생각에로 심장이 움직이였다. 하여 방금전에 정치위원을 만나게 된다는 김책의 안내같은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였다.

한편 **김일성**동지께서도 규모가 큰 기업소라고 알고계시던 신창탄광에서 온 로동자대표가 20전후로 보이는 청년들이며 소박하고 어진 눈을 가진 천진한 사람들임에 놀라시지 않을수 없었다.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았던 가운데청년이 일어났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키가 크고 앞가슴이 쩍 벌어진 구리빛얼굴의 청년이다.

《우린 방금 인사를 하지 않았소.》

김일성동지께서는 팔을 잡아 자리에 도로 앉히시였다. 하지만 눈섭이 진하고 관골이 두드러져 록록치 않게 보이는 청년은 고집스럽게 일어서서 깊숙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였다.

《저는 채탄공 박창술이라고 합니다. 이 동무들도 저와 같이 일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이께서도 얼마간 정색해져서 한옆에 앉은 김책을 소개하시고나서 《그래 탄광에서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모두 무사히들 있습니까？》 하고 다정하게 안부를 물으시였다.

박창술이 또 《네！》 하며 벌떡 일어나 대답하려는것을 그이께서 붙잡아앉히시면서 《동무는 마치 일본군대식이요. 동작이…》 하

고 웃으시였다.

박창술은 얼굴이 벌겋게 되며 《아닌게아니라 왜놈군대에 끌려가 생 혼이 났습니다.》 하고 뒤덜미로 손을 가져갔다.

어느덧 박창술 등은 어려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마치 구면의 친지와 오래간만에 회포를 나누기라도 하듯이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되였다. 우선 탄광의 현실정에 대한 문제부터 화제에 올랐다.

《외람되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찾아온 목적은 우리 신창탄광을 책임질 사람을 하나 보내달라고 청을 드리자는것입니다. 광복이 되였다고 모두 춤을 추는데 식량이 떨어졌고 〈간조〉 줄 돈도 없습니다. 굴에는 물이 찼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았는데 누구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지시를 못합니다.》

그이께서는 《그렇소?》 하고 긴장해진 얼굴로 달빛이 은은하게 흐르고있는 창문가를 쳐다보시면서 알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이미 짐작하실수 있었고 또 그 짐작이 큰 편차없이 들어맞은것이다.

《담배를 피우시오.》

담배갑을 박창술이 앞으로 밀어놓으시며 자신께서 불을 켜주시였다.

밤은 퍼그나 깊어졌다. 이따금씩 멀리 지나가는 전차의 고르로운 음향이 아스레하니 들려올뿐 거리는 고요한 정적속에 묻혀있다.

그이께서는 며칠전에 평양철도국에 나가 기술자 한명구를 설복하던 그때 정황을 상기하시였다. 한명구는 지식인이여서 사정이 달랐다. 한데 이 순박한 로동자들한테 어떻게 오늘의 내외정세와 조국이 처한 불가피한 정황을 납득시키며 그것으로 해서 창조적 열정이 끓어번지게 할수 있을것인가. 난처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이께서 잠간 생각에 잠겨 계실 때 담배를 피우고있던 박창술이 재털이에 불을 끄고나서 상의앞섶을 헤치며 허리춤에서 무엇을 찾기 시작하였다. 얼마간 부시럭부시럭하더니 허리띠에 매였던 끈을 풀어 끼뼘 한기장이나 되고 번쩍번쩍 광택이 나는 금고열쇠를 하나 내드는것이였다. 열쇠를 두손으로 받쳐든 박창술은 그것을 장군님 앞으로 내밀면서 정중히 말씀을 올리였다.

《이것은 우리 탄광 금고쇠대입니다. 그 금고에 로동자들에게

주는 〈간조〉 돈도 있었고 돈표도 있었습니다. 왜놈들한테서 우리가 빼아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실로 이것은 뜻밖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분명히 끝이 떨고있는 열쇠를 볼수 있었고 그것을 받쳐든 마디가 굵고 거밋거밋한 젊은 탄부의 억센 손도 같이 떨고있는것을 보실수 있었다.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것입니까?》

《이 쇠대를 간직할 우리 탄광의 주인을 보내주십시오. 주인이 이 쇠대를 차지해야 합니다.》

그제서야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자대표가 내민 열쇠의 사연을 짐작하실수 있었다. 열쇠는 차츰 그이께서 계시는쪽으로 접근해갔다. 앞으로 한치한치 다가오고있는것을 보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성큼 자리를 뜨시고 몇걸음 나서면서 박창술의 손을 덥석 움켜 잡으시였다. 그리고는 으스러지게 손을 꽉 그러쥐시였다. 이때 섬광처럼 빛을 뿜는 그이의 시선은 탄부의 젖은 눈을 응시하고있었다. 그이의 넓은 어깨는 힘차게 오르내리였다.

《박창술동무! 이것은 내가 가질것이 아니라 동무가 가져야 합니다. 다름아닌 바로 동무가 탄광의 주인이요.》

《저는 주인이 아니라 로동잡니다. 임금을 받고 품을 파는 삯군이지요.》

《아니요. 동무가 바로 주인이요!》

방안을 쩡 울린 웅글고 확신에 넘친 목소리에 압도되여 일시에 모든 움직임들이 정지되는듯 하였다. 처음부터 창문쪽에 서서 방안분위기를 줄곧 지키고있던 김책이도 움직이지 않았다.

천근무게로 지지눌리운 방안공기를 흔들며 그이의 음성이 또다시 울리였다.

《박창술동무, 동무의 신세는 달라졌습니다. 일제의 노예로 멍에를 끌던 과거 로동계급이 아니라 동무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일제에게서 빼앗은 그 열쇠를 누구에게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탄광의 주인인 로동계급이 틀어쥐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가진단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인이 가져야 한다고 동무자신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인인 동무가 가져야 합니다.》

순간 박창술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동무가 바로 주인이요!》

이 평범한 그이의 한마디 말씀이 탄부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놓은것이다. 광복이라는 참뜻이 이때에 비로소 끓어오르는 격정을 안고 심장으로 육박해왔다. 한순간에 그는 자기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그는 허리를 비틀며 모지름을 쓰다가 끝내 흑 하고 소리를 내여 흐느끼였다. 박창술의 눈굽에 기름처럼 찐득한것이 솟아오르더니 주르르 볼을 타고 흐르면서 마주잡은 **김일성**동지의 손등에 떨어졌다. 그것은 불찌처럼 뜨겁기도 하고 또한 연알처럼 그렇게 무게를 느끼시게 하는 눈물이였다. 가만 놔두면 끝없이 그러고있을것 같았다.

《자! 그만하고 열쇠를 허리에 매시오. 든든히 매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열쇠를 혁띠에 걸어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금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이 텅 비였을거요. 이제 우리가 벌어서 넣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로동계급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합니다. 식량이 그중 곤난하겠는데 우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탄부들한테 전하시오. 우리들이 있는 한 로동계급이 굶는 일이 이제부터는 절대로 없을것이라고말이요.》

이때 박창술은 비장한 결심이 어린 그이의 얼굴을 볼수 있었고 탁자우에 놓였던 주먹이 여러번 흔들리는것을 목격할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계속해서 탄광을 운영할 구체적인 문제들까지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래동안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이제는 동무들이 물을것이라든가 제기할것이 있으면 제기하라고 하시였다.

《이제는 앞이 내다보입니다. 그런데 애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탄광에 착암기에 쓰는 정대가 없습니다. 정대가 있어야 굴을 뚫고 석탄을 캘수 있습니다. 왜놈들이 쓰다남은 꽁다리밖에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평양철도국 한명구가 제기한것을 상기하시면서 《역시 강철이 요구된단말이지. 그래 기술자들은 있소?》 하고 물으시였다.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간은 이전에 하던 눈짐작으로 할수 있

습니다. 그리고 또 차차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자만 있으면 제철소나 제강소 같은데서는 정대를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소. 만들수 있을거요. 그런데 탄광이면서 석탄을 못캐는 동무네나 그곳 로동자들이나 사정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소.》

《려관에서 기술자를 한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아는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루밤 의논해보니 좀 노력하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될수 있다? 어느 려관에 있었소? 역전근방이 아니요?》

《네! 역전 평양매일신문사뒤 대동강려관 2층에 들었습니다. 집이 경상도 대구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서울서 볼일이 있어 왔다가 이제 돌아갈 소리를 했습니다.》

《서울로 간다고 했겠소. 김책동무! 이 동무가 지금 동무가 찾아낸 그 사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인것 같습니다.》

김책은 매우 공교롭다고 생각하면서 명확히 대답하였다.

동켠하늘이 희붐히 트이기 시작하였다. 김책이 새날이 밝았는데 그만하는것이 어떤가고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좀더 이야기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나라를 세울데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며칠후에 공산당이 창건된다는데 대해서도 진지하게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야기를 하면할수록 힘이 생기고 앞이 트이는것을 느끼시였다. 이런 계급, 이런 인민이면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으시였다. 곡산공장이나 평천병기공장 같은데서는 기술자없이는 한걸음도 나갈수 없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래도 자체로 해보겠노라고 한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의와 기개가 천금같이 귀중하고 듣는 사람에게 큰 고무로 되는것이다.

《동무는 내려가서 탄광주인노릇을 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파견하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아무때고 찾아오시오. 또 전화를 해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습니다. 동무는 건국사업을 떠메고나가는 역군이 돼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건 다하겠는데 건국사업은 못하겠습니다.》

《그건 어째서.》

《그런걸 하자면 연설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연설을 할줄 모릅니다.》

《석탄은 캘줄 알지 않소.》

《그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를 세우는 건국사업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하하…》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창술의 순박한 얼굴을 보고 크게 웃으시였다. 그통에 장밤을 새워가는동안 한번도 말이 없던 김책이도 크게 웃었다.

창문에 아침해가 비쳐들게 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조반이나 같이하자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열쇠가 있는가 잘 보오.》

《여기 있습니다. 그걸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식사를 끝내신 장군님께서는 현관밖까지 세 청년을 바래우시면서 김책에게 박창술을 료해해보고 지배인을 시키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한길에 나온 박창술이들은 어깨가 빠져달아날만치 활개를 저으며 창광산쪽으로 올라갔다. 느티나무가 서있는 산마루에 이르니 평양의 번화거리가 한눈에 안겨왔다. 세 청년은 약속이나 한듯이 발을 돋우어 바야흐로 아침해가 솟고있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청동색인 박창술은 해빛을 향해 한참동안이나 묵묵히 서있다가 허리에서 열쇠를 벗겨내서 그것을 머리우에 흔들어대였다. 억실억실한 그의 눈은 불덩이처럼 이글거렸고 억센 턱은 희열이 흘러넘친 그의 입모습을 받들어내지 못해 축 처져내리였다. 이 순간 박창술은 눈부신 태양의 광휘속에 밤새껏 눈에 익혀둔 그이의 영상을 겹놓아보는것이였다. 언제나 예지와 자애에 빛나는 눈, 인정미 넘쳐흐르는 입가의 미소 그리고 마디마디 가슴속 밑바닥까지 텅텅 울려주는 웅글은 음성, 안기고싶고 한껏 응석을 부리고싶은 넓은 가슴, 그 모든 표상을 눈앞에 그려보던 박창술은 천만갈래 마음의 금선이 단꺼번에 떨면서 행복과 영예의 음향을 울리는것을

감각하였다. (그렇다. 그분은 분명 장군님이시다. 장군님이 아니시고야 어찌 그처럼 큰 뜻을 한꺼번에 안겨주실수 있겠는가!) 그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우리의 장군님! **김일성**장군님!》 하고 두팔을 쩍 벌렸다가 와락 가슴에 부둥켜안았다. 실성한 사람처럼 몸둘바를 몰라하는 세 청년은 서로 닫고 뒤쫓고 하다가 마침내 융단을 펴놓은것 같은 잔디판우에 벌렁 나자빠졌다. 그들은 기쁨에 겨워 몸부림치면서 잔디판을 북북 뜯기도 하고 딩굴기도 하였다. 때마침 한가닥 초가을바람이 휘익 스치면서 사시나무가지를 흔들어 여러장의 잎을 뜯어다가 그들의 머리우에 휘뿌려던지였다.

5

강병철은 오래간만에 머리를 감고 비누세면을 하였으며 깐깐하게 의복차림을 하였다. 이제 서울까지의 로정에서 몇번이나 죽탕이 될는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당장은 제 본색차림을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삯을 주었더니 와이샤쯔 목깃이 눈부시게 희여졌고 바지주름도 나무랄데가 없었다. 거울앞에서 찌크를 발라 머리를 재우고 향수를 뿌린 다음 작년에 야하다에서 산 물방울무늬의 곤색넥타이를 매였다. 이제 트렁크를 들고나서서 원시범을 만나 《난 간다. 잘 있으라.》 하고 거뜬히 발걸음을 돌리면 될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어덴가 딱히 짚어댈수 없는 미흡한것때문에 몹시 망설이고있었다. 시간은 벌써 중낮이 지났다. 우선 그를 이렇게 바재이게 한것은 원시범이 잘 가라 할것 같지 않은 위구였다.

(이제 내가 서울로 간다치자.) 하고 그는 한걸음 내떠 추리해보았다. 거기는 또 거기대로 예측할수 없는 운명의 오솔길이 나질것이다. 여태 모든것이 그러했으니까 거기서도 또 몇바르가 될지 알수 없는 생활파고를 필사적으로 헤염쳐넘어야 한다.

강병철은 상의를 다시 벗어 벽장에 걸고 다다미우에 번듯이 누워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명상에 잠기였다. 생각할수록 천평의 바늘

은 쉴새없이 북과 남사이에서 한들거리고있다.
그런데 박창술은 어제아침에 떠난후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면 간다고 할것이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기별이라도 있음직한데 통 소식이 없다. 하긴 아직도 길거리를 무작정 헤매고있을지도 모른다.
삐걱삐걱 마루 밟는 소리가 나더니 문기척소리가 난다. 《누구요？》 하고 강병철은 누운채로 고개를 들었다.
《이 방이 강병철선생이 계신 방이 옳습니까？》
《네！》
하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신통히도 박원식이와 비슷한 푸른 옷의 군대가 앞에 서있다. 놀라움과 함께 이름할수 없는 기쁨이 앞서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저편에서는 자기네 정치위원동지께서 면회를 청한다고 하였다.
《아！ 그래요. 저는 강병철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혹시 혼돈한것이 아닙니까？》
《일본서 건너와 대구에 있다가 온 야금전문가 강병철씨가 틀림없겠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강병철은 쾌히 대답하고나서 그러면 어데로 가면 만나뵈올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군대의 뒤를 따라 대동강쪽이 내다보이는 본정으로 올라갔다.
자그마한 정원이 있고 2층으로 되였는데 지은지 오래지 않은 일본식 건물이였다. 2층층계를 오르는데 젊은분이 마주나오시였다.
《강병철선생입니까？》
《네！ 제가 강병철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려관으로 갈가 하다가 조용히 의논할만한 장소를 택하다보니 이렇게 되였습니다. 량해하십시오.》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저같은 사람을 찾아주신것만해도 감사합니다.》
강병철은 허리를 굽혀 경례를 하였다.
그분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목소리가 우렁우렁하였으며 얼굴에

는 인자한 웃음이 함뿍 어려있었다. 때문에 옷이 군복이다뿐이지 군인다운 엄격성이나 어떤 격식같은것은 전혀 느낄수 없었다.

다다미방에는 키낮은 탁자가 놓이고 량옆에 눈부시게 흰 방석이 놓여있었다. 자개를 박은 옻칠쟁반에는 차잔이 놓여있었는데 려관에 안내하러 왔던 젊은 군인이 차를 부어 권하였다.

그이께서는 담배를 피우라고 하면서 담배와 성냥을 앞으로 밀어 내놓으시였다. 그러는 순간순간에 강병철은 전혀 예상할수 없었던 상대편의 표상과 인품을 가늠해보려고 하였다. 군대, 그러니까 **김일성**장군님부대의 높은 간부이심에 틀림없을것이였다.

강병철의 머리에는 한순간에 여러갈래의 의문이 떠올랐다.

김일성장군님의 군대와 강병철 자기자신과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써도 도저히 련결시켜낼수 없었다. 사상과 리념에 있어서나 기술면에 있어서 또는 개인적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것에서도 류사한 점은 찾아볼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존대해야 할 손님의 인사치레에만 급급하면서 정신을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에 놓인 차잔을 한옆으로 밀어놓으시며 나직이 말머리를 떼시였다.

《강철문제를 좀 의논하자고 이렇게 수고를 끼치게 되였습니다.》

《네? 강철문제라구요?》

그것은 정말 뜻밖이였다.

《그렇습니다.》

《군사적 목적에 필요되는 강철이라면 그것은 높은 질적 지표를 예견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조선에서의 강철은 생소합니다.》

그는 무엇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분의 예지에 빛나는 시선이라든가 구구한 전제가 없이 직발 용무에로 끌어들이시는 과감성같은데 질려 자기를 무턱대고 낮추어야겠다는 생각밖에 드는것이 없었다.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우선 탄광, 광산에서 쓰는 정대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기관차나 화차를 수리하는 강철이 필요합니다. 빠를수록 좋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이께서는 성급하게 대답을 기다리시지 않고 해빛이 눈부시

게 비쳐들고있는 유리창을 쳐다보시였다. 창문에는 알룩알룩한 말벌 한마리가 웅웅 소리를 내며 날아돌다가 유리에 부딪쳐 미끄러져 내리였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요구가 리해됩니까？》

잠간 시간이 흐른뒤에 그이께서는 상의단추를 하나 테놓으시면서 물으시였다.

강병철은 공연히 여러갈래의 의문에 질려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면서 자기 심정을 터놓았다.

《저는 강철을 위해 여직 살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걸음부터 똑같은 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매우 기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인상이 좋기는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좀 까다로울것 같던 상대편에서 어렵지 않게 자신을 개방하는것을 보고 마음을 놓게 되시였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선의 강철을 론의하는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왜 그런가고 물으시겠지요？ 그 리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조선의 공업실태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너무나 많이 혹사당했고 파괴되였습니다. 제가 목격했거나 들어 알고있는데 의하면 조선의 기간공업은 전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강병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하였다.

《지금 북에서나 남에서나 현재로서는 먹고 입고 불때는것을 중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또 여기 평양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철이라고 표현하는것은 조선의 공업을 말하는것이며 따라서 과학과 기술을 가진 인간의 지성을 말합니다. 지성을 존중한다는 말은 3천리 어데가나 한마디도 들을수 없고 다만 왕권이다, 공산주의다, 공화제다 하는 정치제도에 대한 주장들뿐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 땅에는 정치가 너무 많아 넘쳐나는데 지성인을 위한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기존정치는 복잡한것 같으면서도 뻰드름하지 않습니까. 한데 맑스주의자들은 지

성인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간층인데 항상 통치계급에게 복무하게 되여있으며 동요계층이라고 합니다. 요컨대 이 각양한 정치의 속심에는 공통된 점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철을 론의하는것이 하나의 환상이라는 론거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강병철은 문득 하던 말을 중단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정도이상 론리가 벗어져나갔고 자신의 기분을 너무 로골적으로 그리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는 위구가 생기였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참을성있게 일단 들어보기로 하시였다.

방안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을 때 그이께서는 《내가 보기에는 이자 그뒤의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것 같습니다.》 하고 저편의 표정을 살피시였다.

강병철은 다시한번 상상외의 반응에 부닥치게 되여 의아쩍은 시선으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병철을 마주보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강철에 앞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을 가진 인간을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강철에 얽매인 기술자가 아니라 강철을 자기 손에 장악한 기술자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강병철은 담배를 손에 들기는 하였지만 불은 달지 않고 성냥갑만 방바닥에 굴리고있다.

《리해가 가지 않는다면 잠간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의혹에 잠긴 강병철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얼마전까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조선인민이 가지고있는 불타는 적개심과 반항심 그리고 끝없는 희생정신으로 적을 치고 이기는것이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되였고 마침내는 승리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인민의 무한한 창조적 열정과 비상히 높은 재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강철을 만들고 석탄도 캐고 식량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치도 없고 독립도 없으며 우리 민족의 장래도 없

습니다. 결국 우리는 인차 어느 강대국에 다시 먹히우고맙니다. 또 지금 당장 우리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원할수도 없습니다. 자,보시오. 사정이 이런데 우리가 조선의 지식인을 무시할수 있겠습니까? 광복이 좋다고 하지만 사흘만 굶고나면 그 기쁨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말것입니다.》

강병철은 고도로 신경을 긴장시키고 앉아있었다. 어느 하나도 반박할것이 없었고 수긍되지 않는것이 없었다. 하지만 기왕 시작한 바에는 여직까지 그의 가슴에 옹이로 맺혔던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론의해보고싶었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다시 말을 떼였다.

《참말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남북3천리 어데가도 지성을 귀중히 한다는 말을 들어볼수 없고 먹을것,입을것을 걱정하는데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슴에 사무치게 감격스러운 말을 들어봅니다. 마치 어둔 밤에 한점의 불꽃을 보는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고 그는 괴로운 낯을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절반, 비관절반이 엇섞여있어서 한마디로 표정을 가늠할수 없었다. 《그러나…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조선에서 강철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건 어째서요?》

김일성동지께서는 긴장해지시면서 상대편의 감정변화를 지키고계시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는 군사와 다릅니다. 명령해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설비를 장치하고 로력을 배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들어가서는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기술이 너무 무시돼있습니다.》

이때 강병철은 시장에서 기술도서를 파지로 팔고있던 장면을 상기하였다. 그렇게 되자 가슴이 조여들면서 숨도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의 탓이기보다 일제의 우민화정책에 의한것입니다. 때문에 강선생과 같은 기술자들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철은 철광산막장에서 시작돼서 분괴기의 압착틀을 빠져나올 때까지 기술의 바다를 헤염쳐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우

리 나라의 지금 형편을 본다면 경제도 령이고 기술도 거의나 령입니다. 저도 기술자로 자처해왔지만 시체처럼 식어든 공장을 소생시킬 힘이 없으며 그럴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왜정때는 일본놈때문에 그렇다치고 광복이 된 오늘에야 우리가 왜 허리를 펴고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감정이 이 방향으로 나가다가는 원시범의 앞에서처럼 곧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는데로 나갈것 같아 그는 그만 입을 다물었다.

《알만합니다. 그러나 선생이 가령 이런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며칠전에 우리 동무들이 사창장마당에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한 녀인이 파지를 팔고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야금학과 관련한 기술도서들이였습니다. 떡장사,지짐장사들이 5전이나 10전을 내고 책을 하나씩 들어가고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젊은이가 나타나 그렇게 팔지 말고 집에 되가져다 잘 보관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에 잘 응하지 않게 되자 안경을 꼈다는 그 젊은이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면서 이제 내 나라가 생기면 이것이 금덩이처럼 귀중한것이니 잘 간수해두길 바란다고 애원하더랍니다. 보시오. 이것은 웃지 못할 하나의 일화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암흑의 대지에 떨어진 하나의 불꽃입니다. 이런 애국자가 한둘이 아니겠는데 왜 우리가 그 암흑을 태우고 일어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일어섭니다. 지금 전체 인민이 제 나라를 세우겠다고 활화산처럼 열기를 내뿜고있습니다. 며칠전에 우리가 철도에 나가보았는데 기차손님들이 달라붙어 전복된 기관차를 들어일구고있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강선생도 이제 시작만하면 사창장마당에 나타났던 그런 불꽃이 사방에서 날아들것입니다. 강선생! 이래도 안되겠습니까?》

정열에 불타고계시는 그이의 얼굴을 지켜보고있던 강병철은 가슴이 울렁거려 몸을 진정할수 없었다. 별치 않은 일로 생각되였던 일이 그토록 값높이 인정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수건으로 입을 싸쥐고 돌아앉은 그는 저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훔치였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모로 보나 비범한분앞에서

흥분을 앞세우거나 또는 그런것으로 해서 경망해져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잠시후 그는 마음을 진정하고 말하였다.

《그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기술자이긴 하지만 자본가의 자식입니다. 이를테면 공산당에서 꺼려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대상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약간 놀라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으시였다.

《강선생은 그 사람을 어떻게 되여 알고있습니까?》

강병철은 그만 당황한 표정을 짓고 머뭇거리였다. 자기라고 말씀드리자니 어색한 일이고 그저 아는 사람이라고 하자니 근거를 캐실것만 같고 해서 공연히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그의 이상한 거동을 날날이 여겨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아니, 그게 강선생이였단말입니까?》 하고 대뜸 물으시였다.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그만 실언을 한것 같습니다.》

이윽토록 감심어린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새겨보시던 그이께서는 천천히 눈길을 돌리며 말씀하시였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 안경낀 고마운 젊은이를 마음속으로 늘 잊지 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선생은 그 젊은이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공산당에서 독재대상으로 취급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은 소립니까?》

《그거야 공산당선언에 그렇게 씌여있고 또 로씨야에서 실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선생, 우리는 지금 조선혁명을 론하는중이지 로씨야를 론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기 위한것이였고 우리는 일제식민지에서 광복돼서 새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중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우리는 자본가의 자식뿐아니라 자본가자체도 건국사업에 나서라고 호소합니다. 우리는 로동계급혼자서 나라를 세우고 독판치자는것이 아니라 전체 인민이 참가해서 나라를 세워 전체 인민이 번영하고 잘살게 하자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전부터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이외에 무엇이 또 요구되며 무엇을 더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왕 말이 난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 자꾸 따지는것 같아 매우 안됐습니다만 량해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까박을 붙이고 언치를 잡자는것이 아니라 실지 알고싶어서 그럽니다. 부탁입니다. 진실을 말씀해주십시오.》 강병철은 올방자를 틀고 앉았던 자세를 풀어 무릎을 한데 모으고 단정히 앉았다.

《어서 말씀하시오.》

그이께서는 미소를 짓고 손을 들어 권하시였다.

《듣자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지식인을 일정한 기간 써먹다가 자기네 난관이 해제되면 모두 청산해버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리해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지식인들에게 가장 사활적인 근본문제가 꺼리낌없이 제기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을 써먹다가 청산한다, 그것은 일제의 악선전입니다. 반공분자들은 지식인을 자기편에 끌기 위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꾸며내는것입니다. 혁명직후 로씨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리끼라는 이름있는 작가가 레닌을 만난 기회에 지금 볼쉐비크들은 지식인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다루고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후 레닌은 에쎄르당원에게 저격을 당해 치명상을 받고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레닌은 병문안을 온 고리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혹하게 다룬다던 그들이 나를 이렇게 〈관대〉하게 다루었소 하고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레닌은 범죄자를 극형에 처할데 대한 법무일군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기사선생, 알만합니까. 가혹한것, 배신적인것 모두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에서 생겨났습니다. 기사선생! 우리가 인간의 지성을 존중히 하며 그들과 더불어 우리 조국을 명실공히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만들자는데 무슨 의문이 생깁니까. 이외에 도대체 무엇이 또 있어야 하며 무엇이 더 요구됩니까?》

아직도 그 무슨 이름할수 없는 심리적 중압때문에 모대기고있는 강병철을 동정어린 시선으로 쳐다보시였다. 그런 기미를 강병철이도 느꼈던지 방금전과는 달리 몹시 갈린 목소리로 서둘러서 말을 떼였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철은 고개를 두세번 숙여보이고나서 계속하였다. 《지성을 존중하는 제도면 저는 어느것이나 무관계합니다. 부유하고 향락할수 있는 제도, 그것을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저에게 필요한것이라면 저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우리 집에는 큰 철공소를 차려놓고있고 땅도 또한 구차하지 않을 정도로 가지고있습니다. 명예나 공명,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나는 대학을 나왔고 전기기사이며 또 야금기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집 재력을 합치면 명예를 얼마든지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라는것은 언제나 권력의 부산물입니다. 명예를 위한 지성일 때 그것은 벌써 지성에 대한 배신이며 협잡입니다. 공산주의,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제가 로씨야로 가면 될것입니다. 자본주의, 그것은 제가 이에서 신물이 나게 체험한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바라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정신적 보금자리입니다. 다리로 서는것이 아니라 머리로 선다는 현대인은 빵만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제 말을 리해해주십시오.》

《알만합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심으로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여태 지향을 알수 없이 외로 돌고 바로 돌고 하던 강병철이 끝내 자기 속심을 드러내게 된것이다.

미소를 띄신 그이께서는 온건한 음조로 그러나 명확하게 력점을 찍어 물으시였다. 《기사선생은 지금 자기의 정신적 지탱점을 찾고있는것이지요. 나라는 인간이 무엇에 의탁해 살겠는가 그것이지요?》

이때 강병철은 예리한것으로 가슴을 찔리는것 같이 흠칠하였다.

그는 자기를 지탱할수 있는 그 무엇을 찾고있었으며 그것으로해서 한생 모대기고있었다고 할수 있었다. 깃을 들일데가 없었던 넋은 정처없이 방황하였으며 국경도 량심의 계선도 함부로 넘나들면서 방황하였던것이다. 강병철을 이윽히 지켜보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구태여 그들이 아파하는데를 다쳐 더이상 대답을

요구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한가지 물읍시다.》 하고 그이께서 다시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에 강철전문가가 또 어데 있습니까? 하긴 강철만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라면 그 누구든 다 필요합니다.》

강병철은 고개를 번쩍 쳐들었는데 약간 침울했던 눈이 금시 밝아지였다.

《강철전문가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것은 잘 모릅니다. 저는 동업자의 눈으로 보고있으니까요. 조선에 강철공장이 몇개 있지만 모두다 일본기술자에 의해 운영되였습니다. 그러나 강선제강소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강선제강소에는 특출한 머리를 가진 양춘만이라는 룡강사람이 있었습니다. 양춘만에 의해서 전기로 2기가 돌아가고있었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늘일 계획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본데 의하면 광복이 되자 행처를 감추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데로 갔을것 같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그는 손으로 턱을 만지더니 안경속의 눈을 쪼프리면서 가까스로 뒤를 이어대였다. 《혹시 그를 데려다가 다시 강철을 만들게 하자는 생각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역시 방황하고 있지나 않을가 해서 그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만은 결코 방황하지 않을것입니다. 또 설사 그를 만났다 해도 이쪽으로 끌지 못합니다.》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너무나 뜻밖이여서 다그쳐 물으시였다. 그러나 오히려 강병철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이 침착하게 자기 음조대로 설명을 하였다.

《양춘만은 일본인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탁할만한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 뛰여난 두뇌를 가졌다는것이 알려졌습니다. 일본인들이 점을 찍어놓고 면비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느해인가 도이췰란드의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동경에 와서 자기가 체계를 완성한 특수상대성원리에 대한 강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끝내고나서 질의응답시간이 되였을 때 스무살도 되지 않은 양춘만이 일어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개한 특수상대성원리를 일반상대성원리의 다른 차원에서의 전개… 아니, 이거 미안합니다. 이야기가 너무 가로 달아나서…》

《어서 다 말씀하십시오. 자꾸 듣는 과정에 혹시 리해하게 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이께서는 손을 흔드시며 자유롭게 말해줄것을 요구하시였다. 그러나 강병철은 추호도 지식을 자랑하는것과 같은 느낌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강의에 참가했던 태반 사람들이 아직 문제의 본질을 어렴풋이 리해했거나말았거나 한때에 즉석에서 적중하고 요긴한 질문을 한것때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후에 돌아간 이야기였지만 그것이 또한 조선청년이라는 점에서 더 반향이 컸다고 합니다. 양춘만은 강선에 와서 2년만에 전기로를 세우고 천황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방황할것 같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조선의 강철을 위해 복무하려면…》

강병철은 서두르지 말고 심사숙고해야 할것이 아닌가고 말하려는듯하였지만 그것을 입밖에 내지는 않았다.

《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결코 방임할수는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디마디에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강병철은 좀 뻥해졌다. 너무나도 뜻밖의 말씀이였다. 그속에서 표면화되지 않는 진심과 솔직성을 느낄수 있었다.

강병철은 시간이 갈수록 담이 커지고 무한정 무엇이든 론의하고싶었다. 앞에 앉아계시는분의 실제적인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부터 무척 알고싶었다. 정치위원이라면 간단한 직분이 아니라는것이 명백한데 그것만으로써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존엄과 힘을 가지고계시는것이다. 산악처럼 막아서는 굳건하고 호협한 기상이 풍기면서도 어느 한 귀퉁이에서라도 상대방을 위압하려는 허세같은것은 찾아볼수가 없다. 우정 겸손성과 소박성을 나타내려고 꾸미는것도 없고 더구나 이쪽을 부러 괴여올리는것 같은 가식은 꼬물도 찾아볼수 없다. 모든것이 솔직하고 명백하며 또한 투

철하였다. 어느덧 텅빈것 같던 강병철의 가슴속에 그 무슨 하나의 점과 같은것이 생겨나더니 순식간에 가슴을 꽉 채울만치 커지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우리는 인간의 지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강철에 앞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을 중시합니다.》라고 하시던 말씀이 더욱 가슴을 울리였다.

어느덧 해가 기울었다.

《오늘은 이만합시다. 앞으로 만날 기회가 또 있을것입니다. 오늘 나는 조선의 강철을 위해서 모든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한 조선지식인의 결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을 많이 뺏아서… 이제 구체적인것을 토의하기 위해 누구를 보내든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은 사색에 잠기였던 강병철은 총망중에 인사를 차리고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악수를 청하시는 **김일성**동지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어느 기회에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뵈올수 있도록 힘써주실수 없으시겠는지요. 특별한 용건은 없습니다만 오늘 론의한것 같은 그런걸 두고 다시 말씀을 드려보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무때나 찾아오십시오.》

이때도 그이의 얼굴에는 신심이 차있는 사람에게서만 볼수 있는 흐뭇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도와주십시오. 믿겠습니다.》

6

평양에서 남포로 가는 평탄한 도로로 승용차 한대가 경쾌하게 달리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몇명의 수원들과 함께 차에 앉아계시였다. 수원들가운데는 최준걸이 끼워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 모시고가는분이 장군님이신줄은 전혀 모르고있었다. 그저 정치위원이라고 하기에 그런가부다하고 생각하고있었다.

산과 들에는 가을이 한창이였다. 은백색 해빛이 엇가로 내리질린 안골 어구와 그것을 거쳐서 끝없이 펼쳐진 오리알빛 하늘이 정답게 다가오고있다. 그 옛날에는 무턱대고 높아만 보이고 험준한 것으로만 기억되시였던 룡악산줄기는 화폭에 담긴 그림처럼 진한 곤청색으로 물들었으며 그것은 또한 온통 황토색으로 변해버린 순화벌과 조화를 이루고있다. 싱그러운 바람이 불었다. 어데선가 무르익은 과일내같은것이 끝없이 풍겨왔다. 길량옆에는 아카시아가 우거졌는데 바람이 그닥 불지 않는데도 동전잎같은 잎사귀들이 함부로 떨어졌다. 반반한 길에도 떨어지고 한참 떠가다가 발뚝에도 내려앉고 또 어떤것들은 허공에 날아올라 가물가물 맴돌다가 어데론가 아득히 사라지군하였다.

자동차는 가로수가 짧은 그늘을 던지고있는 새짬을 꿰질러 구릉이 진 언덕을 급히 뒤로 흘러보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매우 평온한 기분으로 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는데 시야에 펼쳐진 자연서경들은 모두 마음 안구석에 깊이 묻혀있던 추억들을 낱낱이 뒤져놓으면서 과거에로 과거에로 이끌어가고있었다. 하여 지금 강선으로 가는 이 한가닥 길에는 사실상 두개의 심리가 펼쳐져있었다. 그 하나는 당창건을 앞두고 큰 규모의 산업부문로동계급을 만나보아야겠다는, 이미부터 그이께서 구상하신 용무와 관련된 사색이며 다른 하나는 완전히 이와 판이한 것으로서 포평으로 떠나면서 20년전에 마지막으로 걸으시였던 이 고향길을 놓고 과거를 추억해보고싶으신 서정적인 기분이였다.

칠골뒤산 저기에는 나무숲이 우거졌었는데 지금은 반반한 벌거숭이가 되였다. 그다음 나진 오류골등판도 역시 그렇다. 석섬틀, 송산마을이 들어앉은 왼쪽 평지에는 온통 논이 생기고 아득히 바라보이는 자래동벌만이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논벌로 남아있다. 이제 잠간 사이에 남리가 나지고 다박솔 오솔길을 빠져 순화강쪽으로 나앉은 언덕에 이르면 키낮은 사립문 초가집이 보일것이다. 거기가 고향인것이다. 연연 20년동안 아득히 멀리 떨어져계시면서도 항시

가슴속에 안고사시던 만경대이다. 어느덧 서리의 갈림길이 나졌다.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려 같이 가던 좌현에게 만경대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며칠 더 있다가 들리겠다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고는 곧 강선쪽으로 향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차창에서 눈을 떼지 못하시였다. 앞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다리강, 이쪽에 높이 솟은 슬메산, 그것을 거쳐 다시 룡악산 봉우리들,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내려서면 금천골, 내맹이, 뒤고개, 그런 낯익은 산야들이 창밖에 흘렀다. 차가 룡산개를 끼고 돌면서 신동안으로 들어섰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돌려 뒤자리를 보시였다. 좌현이를 갈림길에 떨구다보니 뒤자리에는 안경을 낀 최준걸이와 경위대원 최동무가 앉았을뿐이였다.

《최동무!》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옆으로 돌아앉으시였다. 《동무가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나라 강철공업이 언제쯤이면 제 궤도에 들어설것 같습니까. 가령 일제가 정상조업을 했던 43년이나 44년 수준에 이르자면말입니다.》

최준걸은 마치 기다리기나 했던듯이 안경을 벗어들면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였다. 그는 얼마전에 김책으로부터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준비하고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던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조선에서 강철은 20만톤도 채 내지 못했습니다. 최고 18만이라는 기록이 있기는 한데 사실여부는 알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강선은 1만톤수준, 실지 생산은 8천 내지 9천톤정도였습니다.》

최준걸의 경제실태에 대한 료해보고는 계속되였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자료에 대한 최대의 신중성과 과학성을 기하기 위해 문헌자료를 뒤지는 한편 강선, 송림, 청진, 성진 등을 직접 돌아보았던것이다.

먼저 부문별 경제실태가 소개되였다. 채취공업, 금속공업, 전력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이런 순서로 나가면서 일제시기의 평균치수와 오늘의 실태가 대비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조되고 구체적인 자료가 안받침된것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공장을 파괴한 실태였다. 끊임없이 품명과 수량이 라렬되고 파괴상을 거듭 언급하게

되였을 때 최준걸은 목이 메여 잠간동안씩 말을 중단하군하였다.

자동차가 흔들리는대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긴채 최준걸의 설명을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손을 내대시면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중단시키시였다.

최준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순간 자신의 료해자료가 기대에 어긋날만치 불충분한것이 아닌가 하는 위구심이 생기였다. 그러나 가슴을 쓸어만지시면서 침울한 기색을 짓고계시는 그이의 모습을 뵙자 인차 또 다른 하나의 실책을 깨닫게 되였다. 그로서는 실태에 대한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만 고려했을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환기될 그이의 심리적 충격에 대해서는 고려를 돌리지 못했었다. 물론 내 나라가 받은 이 상처를 감출수는 없는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질의것을 반복라렬함으로써 쓰라린 상처를 거듭 헤집을 필요는 없었던것이다.

《차를 좀 세우오!》

그이께서는 자리를 고쳐앉으시면서 운전사에게 손을 들어 지시하시였다.

차는 멎고 일행은 그이와 함께 길가에 내려섰다. 마침 그 길옆은 달마산에서 뻗어내린 바위등판이여서 아무데나 앉을수 있었다. 이제 10분을 채 못가서 강선제강소가 나질것이였다.

《여기 앉아서 자세히 들어봅시다.》

그이께서 최준걸을 가까이 불러앉히시였다. 이리하여 최준걸은 다시 보고를 계속하게 되였는데 이번에는 현실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적게 말씀드리면서 될수록 그에 대한 복구전망을 많이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선광전문가이면서도 일반 경제학분야에 대해서 늘 학구적인 태도로 관심해왔기때문에 그 어느 부문을 놓고도 별로 막힘이 없이 의견을 제기할수 있었다. 그가 경제일반에 대한것을 총괄분석하고 전망을 제기하면서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한것은 그이께서 당면하게 직접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강철, 석탄, 운수 부문에 대한 문제였다. 더구나 오늘 이 걸음이 다름아닌 강철공장에 향해지고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거기에 력점을 찍는것은 응당한것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상복구를 위해 시간이 얼마나 걸릴것 같소?》
보고가 거의 끝났을무렵에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모든것을 동시에 그리고 정상적인 조업을 하는 조건에서 만 5년은 걸릴것으로 추측됩니다.》
《5년이라…》
그이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지으시였다. 그것은 짐작하셨던것보다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놀라움의 표시였다.
그러나 최준걸은 침착하게 자기 론리를 펼치였다.
《5년간에 되기만 해도 그것은 큰 성과입니다. 저의 타산으로써는 설비와 자재, 로력 같은것은 보장되는것으로 예견한것이며 기타 요인들 례를 들면 경영상 문제들인 자금, 기술적 담보 같은데서는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는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정치위원동지, 저는 5년간에라도 해결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전례없는 기적이며 력사앞에서 큰 위훈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그이께서는 빛나는 시선으로 최준걸을 쳐다보시였는데 거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의아쩍고 불만스러운 색조가 비껴있었다.
《5년이라…》 그이께서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시였다. 《그래 현재 우리 형편에서 경제를 추켜세우자면 우선 어느 고리를 쥐야 할것 같습니까?》
역시 이에 대해서도 최준걸은 사전준비가 있었기때문에 즉석에서 대답할수 있었다.
《경제는 역시 자체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서 발전하기때문에 주관적욕망과는 관계없이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선 자금이 필요한데 정상경제라면 경공업과 상업을 발전시켜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중공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 주권기관을 빨리 내오고 그 법에 의해서 경제질서를 세워야 하며 통화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화폐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알만합니다.》
그이께서는 우선 경제학적으로 예견할수 있는 그런 전망적인것보다 당장 공업기업소의 무정부상태를 어떻게 가시고 전체 기업소가 조업을 동시에 개시하도록 할것인가 그리고 당면하게 걸

린 석탄, 강철, 식량, 그에 따르는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묘술이 있겠는가를 탐구하려고 하시였다.

《이미 충분히 료해하고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고 최준걸은 침착하게 고개를 들면서 계속하였다. 《전체 기업소를 동시에 조업한다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공업은 부문간, 제품호상간 공정이 사슬처럼 련결되여있는데다가 파괴정도가 서로 다르며 조업을 위해 갖추어진 조건들이 또한 서로 각이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이나 몇개 기업소를 특수하게 따로 떼서 조업할수 있겠는가 하는것도 구체적인 타산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의 론거는 확고하였으며 지어 그의 억양마저도 드놀지 않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옴짝 못하게 묶이운셈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옆에서 돌쪼각을 하나 집어드시더니 바위등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으시였다. 《이 안에 포위된셈이지요? 결국.》

최준걸이 고개를 끄덕여 어줍게 웃어보이자 그이께서도 웃으시였다.

《내가 보기에는 이 포위환을 뚫을 유일한 구멍은 모든 공장, 기업소가 일제히 작업을 개시하는거라고 봅니다. 깨진데서는 복구하고 그렇지 않은데서는 생산을 진행하는 식으로 말이요.》

그이께서는 돌로 포위환을 북북 그어헤치시였다. 원을 이루었던 선이 여러군데 토막이 나자 그이께서는 돌로 땅바닥을 두드리시였다.

《5년이라는 기일은 너무 깁니다. 물론 동무가 말한 그 경제학이 요구하는 기초조건들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정권도 법률도 화폐도 없습니다. 말그대로 맨주먹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어이 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수 있습니다.》

《5년전에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는 솔직성이 지나쳐서 외람되게 처신하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부터 그는 경제일군으로서 정확하고 철저한 성품을 가졌다는 말을 들었었고 그것으로 해서 칭찬도 받고 또 비난도 사군했다. 《제털 뽑아 제구멍 메꾸는 사람》이 주관에 사로잡혀

정치위원앞에서 혹시 어떤 실책을 범하고있지나 않는지 불안스러웠다.

《그렇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솔직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를 믿음에 찬 눈길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였다. 《솔직한 충고가 고맙기는 한데 해봅시다. 우리에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총을 잡고 유격전을 벌릴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유격전이라는것은 정규군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며 공고한 후방이 있는 조건에서만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경험이 만들어낸 정설이며 하나의 준칙으로 되여있었습니다. 우리는 정규군도 없었고 후방기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무장투쟁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마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앉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 하는수없이 왜놈들의 총을 빼아들고 싸우게 되였고 결국 오늘에 이르렀던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혁명전쟁의 기존규범을 어기고 반칙을 범한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에게 나라를 사랑해서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애국심을 가지고말입니다. 식량이나 로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자신과 후손을 위해 당분간 고생하자고 호소하겠습니다.》

최준걸은 그것이 이제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될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상상이 미치지 못했으나 무엇인가 쇠기둥같은것이 가슴에 박혀오는것을 력력히 감촉하였다.

《한가지 물읍시다. 지식인의 경우에 우리의 호소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할것 같습니까? 그거야 최동무가 잘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 곤난합니다. 왜냐하면 처지가 각기 다르기때문입니다.》

《처지가 다르다는 측면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더 중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애국심이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모두 다름아닌 조선민족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망국노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재산을 얼마간씩 가지고있었다는것이나 일제에게 얼마간 복무했다는 그것보다 중요한 처지가 아니란말입니까. 또 동무처럼 기술

을 가지고 조국건설에 이바지하겠다는 그것이 우리 지식인들의 일반적 소망이 아니란말입니까. 난 며칠전에 남조선에서 온 한 기술자를 만나보고 그것을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마치 자기자신이 어떤 잘못이라도 저지른것처럼 침울해진 최준걸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런 관점에서 로동자도 믿고 기술자도 믿고 또 사무원들도 믿읍시다. 그들은 애국의 길로 나설것입니다.》

그이께서는 최준걸의 얼굴에 미소가 피기 시작하자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일행은 그이를 모시고 차에서 내리였다.

《여기가 강선제강소라! 선녀가 내려온다고 해서 강선이라고 했다는데 이렇게 변했구만. 갈밭이 우거지고 물새가 새끼치던곳인데 강철이 나온단말이지.》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공장전경을 바라보시였다.

7

승용차가 제강소정문에 이르자 경비실에서 목총을 든 청년 하나가 급히 달려나왔다. 그는 아래우 풀색 양복을 입었고 가죽띠로 허리를 동이였는데 왼팔에는 붉은천으로 완장을 둘렀다. 경위대원 최동무가 먼저 다가가 용무를 말하자 목총을 든 청년은 발뒤꿈치에서 딱 소리가 나게 발을 모으면서 군대식 거수경례를 하였다.

《우리는 강선제강소 자치위원회 지시로 공장을 지키고있습니다.》

청년은 얼굴이 시뻘겋게 되면서 큰소리로 보고하였다. 그렇게 되자 경비실에서는 두명의 그 나이또래 청년이 또 달려나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 청년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면서 수고한다고 고무의 말씀을 하여주시였다.

《좋소, 좋아. 대단히 마음에 듭니다. 우리 공장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수고들 합니다.》

그이께서는 량쪽팔로 허리를 짚으시고 공장안을 빙 둘러보시였다.

《그래 지금 무엇들을 하고있습니까?》

청년들의 설명에 의하면 공장은 전부 멎어있고 직장마다 경비서는 사람들이 몇명씩 있을뿐이라고 하였다.

일행은 장군님을 모시고 우선 제선직장에 들리였다. 널다란 직장안은 휑뎅그렁 비여있었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질이 좋은 철선을 뽑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빨갛게 녹이 쓴 쇠줄퉁구리 몇개가 널려있을뿐이다. 일본놈들은 패망하면서 어느 기대 하나 성한것이 없이 모조리 파괴했던것이다. 말로 들으실 때보다 현장에 와 목격하시니 그 정상이 더 처참하였다. 그 모든것 가운데서도 가장 가슴아프신것은 침울한 표정을 하고 기대옆에 서있는 로동자들의 기분상태였다. 1,000명 가깝던 종업원이 200명밖에 남지 않고 다 흩어졌다. 그가운데는 장마당에서 열쇠장사를 하던 그 로동자도 끼여있을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제선직장에서 곧 제강직장으로 옮겨가시였다. 공장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여기에는 전기로가 2대 있는데 그것도 모두 파괴되여 싸늘하게 식어있었다.

그이께서는 불이 꺼진 로벽을 짚어도 보고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쇠장대와 곰배를 들어옮겨도 놓으시면서 한동안 말없이 걸으시였다. 불길을 내뿜던 아구리에서는 휘주근한 바람이 내불리고 얼어붙은 쇠덩이우로는 이름모를 벌레 한마리가 기여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주먹으로 로벽을 툭툭 치시면서 《완전히 숨이 멎었군.》 하고 옆에 서있는 최준걸을 쳐다보시였다.

최준걸은 머리에 썼던 캡을 벗어들고 허리를 약간 굽히면서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있기에는 북조선의 용광로,강철로가 모두 이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고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마치 이 사태가 자기에 의해 저질러지기나 한것처럼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이의 음성이 어떻게나 컸던지 철골로 떠받들린 천정까지 울리였다. 그것은 최준걸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니였으며 두리에 모여선 로동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였다. 그 음조에서는 분명히 단호하고 결정적인,그러면서도 적의에 불타는 열도와 결의를 강하게 느낄수 있었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을 모이게 하라고 하시였다.

삽시간에 로동자들이 수십명 모여왔다. 그중에는 한 50이 가까운 중년도 있었고 열대여섯살 나보이는 소년도 있었다.

《여기 이렇게 선채로 이야기를 좀 합시다.》 하고 그이께서는 쇠장대를 가로타고넘어 로동자들이 모여선 앞으로 몇걸음 다가서시였다. 《보는바와 같이 강철로는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동계급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일제통치에서 영원히 광복됐습니다. 우리는 광복된 조선의 로동계급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신 그이의 말씀은 거침없이 흘러나가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비참하게 파괴된 공장을 보고 또 그만 못지 않게 가라앉은 로동계급의 감정에 신심을 주려고 하시였지만 그렇게만 되시지 않았다. 여직까지 광복된 조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것을 죄다 이야기하고싶으시였다. 그간 군중과 접촉하실 기회가 없었고 강철로동자와 같은 산업로동자들은 더구나 만나신적이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마치 이웃사람들과 이야기하는것처럼 조용조용히 신창탄광 탄부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였다. 그러시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장을 우리 손으로 복구해서 쇠물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일본놈들이 다시는 여기서 쇠물이 나오지 못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어코 조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말씀을 끝내신 그이께서는 상의 단추를 끄르고나서 그중 나이 어린 로동자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온 얼굴에 눈만 반짝거리는 열댓살 나보이는 소년인데 저고리소매는 손끝을 가리우고 발에는 말박만한 지하족을 신었다. 그이께서는 거북등같이 튼 손을 만져보시면서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시였다.

소년은 불찌에 타서 구멍이 숭숭한 모자를 벗어들고 로에 빠져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것저것 심부름을 했다고 하였다.

《보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선로동계급의 처지입니다.》

그이께서는 소년의 손목을 끌어 슬라크무지우에 올려세우며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이제부터 수고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동무들이 나라의 주인이며 공장의 주인입니다. 주인인 동무들이 빨리 쇠물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일어설수 있습니다. 강철이 있어야

석탄도 캐고 철도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 로임을 줄수 없습니다. 쌀창고가 비여있어서 배급도 인차 줄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앉아서 신세타령이나 하다가 일본놈대신에 다른 자본가가 와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기를 기다리겠는가 아니면 애국심을 가지고 일어나서 강철을 구워내겠는가.》

《강철을 굽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될수 없습니다.》

구레나룻이 꺼멓고 키가 큰 중년사나이가 앞으로 성큼 나서면서 불같은 결의를 내뿜었다. 뒤이어 다른 로동자들도 주먹을 흔들며 노예로 될수 없으니 혁띠를 조이고라도 로를 복구해서 쇠물을 뽑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그들의 결의는 눈물이 날만치 고마운것이였다.

《최동무!》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옆에 섰던 최준걸을 쳐다보시였다. 《이 동무들은 해내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준걸은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그가 여태 보아온 로동자는 이렇지 않았다. 일본 북해도에서도 그렇고 만주의 장춘, 조선의 무산철광 그리고 얼마전까지 자기가 있었던 백년광산의 로동자들 모두가 하루의 로임과 하루의 식량배급을 위해 삽이나 괭이를 들고 힘겹게 로동을 했었다. 그는 감격에 겨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채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여기서처럼 모두 이렇게 전체 조선로동계급이 들고일어나면 곧 로임도 주게 될것이고 식량도 실어오며 따라서 모든것이 정상화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말씀을 끝내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맨 선참으로 결의해나선 중년로동자에게 물으시였다. 그는 금년 40살인 리만석이란 용해공이였다.

《동무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좋은일에 앞장설 결심을 했습니까?》

리만석은 벗어들었던 모자를 공연히 주물럭거리다가 대답하였다.

《저는 공산당원입니다.》

《공산당원이란말이지. 그래 언제 당원이 되였습니까?》

《닷새전에 되였습니다. 박원식이라는 동지가 방조를 주어 들

었습니다. 오늘저녁에 다섯명으로 세포를 내오게 됩니다.》
《박원식동무가? 그래 그 동무가 여기 와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양기관구에서 기관차를 수리하는데 강철소재를 구하러 와있습니다. 지금 저 분괴직장앞에서 철무지를 뒤지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미부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한다던 박원식이 날파람있게 움직이는데는 놀라시지 않을수 없었다.
일단 담화를 끝내신 그이께서는 경위대원 최동무에게 박원식이 일하는데 가보라고 하시였다. 강철직장 쇠란간을 밟으며 내리시던 그이께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최준걸동무! 저 동무들 결의가 실현될것 같습니까?》
《꼭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공산당원이라는 그 중년로동자를 향해 물으시였다. 《기술자는 있습니까? 누가 싸늘하게 식은 저 로에 숨을 불어넣습니까? 주먹치기론 안될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문젭니다. 그러나 해보겠습니다.》
리만석은 발을 모으고 크게 대답하였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기술은 열성만으로 대신 못합니다.》
이렇게 되여 강철직장마당에서 다시 담화가 시작되였다.
광복전까지만 해도 이 공장에서 직공장이상, 계장이상은 전부 일본사람이 해먹었다. 특히 강철직장과 분괴직장에는 반장까지 일본사람들이 독차지했었다. 그런데 일본가서 류학한 양춘만기사, 단 한명만이 강철직장 기사로 있었다. 양춘만의 구상으로 제3호전기로를 건설하던중이였는데 광복된 다음날 왜놈들을 두들겨팰 때 어느 사이에 빠졌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왜 그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그한테 친일파라는 딱지라도 붙인것이 아닙니까?》
리만석은 자세히 말씀올리였다. 어떤 사람은 양춘만이 서울로 달아났다고도 하고 룡강에서 이름난 지주인 아버지한테 가서 숨어있을것이라고 한다는것이다. 그가 도망친 리유는 로동자들이 몰아준것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가 일제에게 복무한것이 가책이

되여 그런것이라고 하였다.

《그래 동무네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기술자가 없이도 강철을 뽑을수 있을것 같습니까?》

번연한것인데도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스스로가 판단을 하도록 하시려는것이다.

《우리들도 그걸 몇번 토의해보았습니다. 기술을 좀 안다는축들은 양춘만을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루한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부 로동자들은 왜놈의 앞잡이노릇을 하던자들을 또 섬길 생각을 하지 말고 경험을 살려서 우리끼리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 그이께서는 약간 그늘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뒤짐을 지신채 마당을 한참이나 거닐으시던 그이께서는 리만석이 앞에서 멈추어서시더니 《양춘만기사는 독신이였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족들도 동시에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은 사원사택에 지금도 있습니다.》

《가족은 있다!》

잠간 무엇을 생각하고나신 그이께서는 고개를 드시더니 여기 로동조합이 나왔다는데 거기로 가보자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조합일군들과 한참동안 담화하시고나서 산기슭에 자리잡은 사원사택마을로 가시였다. 양춘만의 집은 맨 우쪽에 위치하고있었다. 리만석이 앞장에 서서 안내하였다. 집은 볼꼴이 못되였다. 유리창이 깨지고 창호지는 뜯어져 너덜거리고 마당은 비를 대본지가 오래돼서 검불이 한벌 널려있었다. 현관에는 녀자고무신이 한컬레 놓여있었는데 애오라지 그것 하나만이 이 집에 사람이 살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아주마니 있소?》

거쉰 목소리로 리만석이 몇번 부르건만 방안에서는 가뭇 대답이 없다. 하는수없이 리만석이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마당한켠에 멀찍이 서시여 박원식이와 이야

기를 나누고계시였다. 로동복을 입은 박원식은 그후 사업을 보고하노라고 신바람이 났다. 닷새동안에 기관차부속을 깎을수 있는 소재를 한자동차분 구했다고 하였다. 그것이면 기관차 두석대는 문제없이 수리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안에 세포를 내올수 있게 한것이 더 큰일이라고 치하하시였다.

그때 리만석의 목소리와 함께 녀인의 울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염열의 독기를 잃어버리고 벌써 매우 온화해진 가을의 저녁해빛이 주택거리를 덮었는데 난데없는 처절한 녀인의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물결쳐나갔다. 비통하게 울리는 녀인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섬찍해지신 그이께서는 급히 마당안으로 들어서시였다.

리만석은 미닫이문을 쩍 열어제끼더니 밖을 내다보라고 손짓을 하면서 방바닥에 드러누운 녀인을 들어일구려고 하였다.

《손님들이 찾아와서 말을 좀 묻자는데 이러문 되겠소, 아주머니.》

그러거나말거나 머리를 풀어헤친 녀인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서너살 나보이는 사내애를 부둥켜안는다. 그러고나서 녀인은 몸부림을 치면서 무어라고 설분을 터뜨리고있다.

《아주머니, 불을 지르긴 누가 지른다고 그러우. 또 죽이긴 누가 죽여요. 누가 그럽데까. 공산당이 사람죽인다고. 정 그러면 이건 참 야단입니다.》 리만석이 하는 말로 미루어보아 녀인이 무엇때문에 그렇게 악에 받쳐있는지 알수 있었다. 《아주머니, 다른 사람이 아니구 평양에서 손님이 오셨수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요. 참.》 리만석은 자기가 모시고온분이 장군님이신줄은 모르고 그저 《평양에서 오신 손님》이라고 표현하였다.

《글쎄 나도 모른다는데 왜 자꾸 못살게 굴어요. 왜 자꾸!》

《하! 이런 딱한 일 봤나. 그래두 안해되는 사람이 제 남편 어데 갔는지 행방이야 모르겠소.》

《몰라요, 몰라요.》

《정 이러면 재미없어요. 까놓고 말하면 양춘만이가 노상 죄가 없는게 아니란말입니다. 왜놈의 정사원이지 일본〈천황〉의 상장까지 받았지.》

《그러니 어서 맘대로 하라고 하지 않소.》

악에 받친 녀인이 입술을 씹는 소리가 들린다.

끝내 설복해낼수 없다고 본 리만석은 쓴입을 쩝쩝 다시면서 마루밑으로 내려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엌쪽 마루에 걸터앉으시며 난처한 기색을 보이고있는 리만석에게 물으시였다.

《내 보기엔 며칠동안 밥도 해자신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먹으며 말며 한것 같습니다. 너무 맥이 없어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아이는 배앓이를 해서 숨이 할싹할싹합니다.》

그이께서는 부엌으로 들어가시였다. 쌀독도 열어보고 가시물그릇도 살펴보시였다.

부엌에서 나오신 그이께서는 열려진 방문을 통해서 양춘만의 생활일단을 어렵지 않게 간별해보실수 있었다. 웃방에는 일어와 영어 등으로 된 기술서적이 한쪽 벽 절반을 채우고있고 왼쪽 퇴창이 있는곳에는 자그마한 액틀에 밀레의 《만종》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몬나 리자》가 붙어있었다. 액틀밑에는 유리를 넣은 책장이 하나 놓여있는데 거기에는 각종 철강재의 시료편들이 들어있었다. 방바닥에는 여기저기 책들이 널리였다. 미루어보건대 이 방의 정경은 양춘만기사의 정신적 초상일수 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녁해가 비쳐든 널마루에 걸터앉으시여 손에 잡히는대로 아무 책이나 집어드시였다. 두툼한 일문판인데 표지에는 《제철의 유래》라고 씌여있었다. 필자의 이름을 보니 영국의 학자가 입문서적으로 집필한것이였다. 책에는 고대 인간이 처음 련철을 얻게 된 경위가 적혀있었다. 다음에 손에 잡힌것은 세계문학선집인데 록색장정을 하고 금박을 누른 《일리아드》였다. 그이께서는 영문판서적을 또 집어드시였다. 《열풍로》였다. 어딘가 사창장마당에서 가져왔던 그 책들과 류사하게 느껴지시였다. 책주가 속가위에 적은 수표가 비슷하기때문이였다. 그러고보니 서가와 책의 비례가 맞지 않았다. 엄청나게 책이 모자랐다.

《리만석동무! 여기 있던 책들을 누가 실어간것이 아닙니까?》

아래방에서 서성거리고있던 리만석이 대답을 올리였다.

《중화에 있다는 삼촌네가 달구지에 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고야 책이지 책은 해 뭘하느냐고 하면서 책을 팔아 아이한테 약을 사먹여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단말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뇌이시며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시였다.

아래방에는 이집 녀인이 이불을 뒤집어쓰고 끅끅 숨을 몰아쉬고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말로 깨우치고 납득시키기는 어려운것이다. 그이께서는 가슴에 손을 짚으신채로 마당가로 나서면서 말씀하시였다.

《공장이 파괴되고 먹을것이 없는것보다 이것은 몇배 더 가슴아픈 일입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다니.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일어설수 있으리라고 믿고있었습니다. 흩어져간 로동자들은 돌아오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양춘만은 사정이 다릅니다. 제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있습니다. 그래서 더 통분합니다. 만석동무, 동무는 양춘만기사를 찾아와야 하겠습니다. 어데든 따라가 찾아오시오. 동무는 공산당원의 첫 사업으로 그것을 맡아야겠습니다. 양춘만이 없으면 공장이 못돌아가고 강철이 못나와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춘만을 버리지 않는다는것을 꼭 알게 해야 합니다. 공산당이 일본회사에 복무한 기사이기때문에 없애치울것이라고 한것은 일본놈의 악선전입니다. 이것을 똑똑히 알게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집의 정상을 보시오. 눈을 뜨고 볼수 없습니다. 만석동무,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준걸에게 다른 의견이 더 없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최준걸은 이미부터 안경을 벗어들고 자기가 서있는 땅을 근엄하게 내려다보고있을뿐이였다. 그이의 말씀은 귀로 듣는다기보다 자기가 딛고선 대지가 울려 온몸에 파동쳐오는것으로 느껴지였다.

그이께서는 토방으로 올라가 창백해진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시였다. 손이 화끈하였다.

《열이 있구만.》

그이께서는 녀인의 어깨를 흔드시였다.

《아주머니, 걱정할건 없습니다. 아이가 열이 많은데 우선 약을 사다먹여야 할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씀이 녀인의 귀와 가슴을 쿵 하고 울려놓았다. 여태까지 마당에서 두런두런 울려오는 말소리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들을수 없었고 또 새겨들으려고도 하지 않고있었다. 뭐라뭐라 하다가 방에 뛰여들어와 포승을 지우고 어디론가 실어가버릴거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앓는 아이걱정을 하다니?! 한껏 공포에 질려있던 녀인의 눈에 의혹과 불안의 빛이 떠돌았다. 무엇인가 새로운것을 찾아내려는듯 녀인은 손님들의 기색을 하나하나 집요하게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가슴은 다시 싸늘하게 식어들기 시작하였다. 자기와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남편이 남겨놓은 마지막부탁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되새겨졌기때문이다. 《이제 여기는 공산주의판이 될거요. 공산주의는 우리같은 기술자들을 다 청산해버린다고 하오. 알겠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죽지 말고 살아있소. 내 데리러 오겠소. 꼭 데리러 오겠소.》 녀인은 남편의 이 말을 티끌만한 의심도 없이 내심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녀학교를 다닐 때 훈육시간에 공산주의는 재산도 공동소유이며 처도 아이들도 다 공동소유로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지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있다. 인정도 있는것 같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본심이 아닐것이다.

녀인은 소스라쳐 일어나앉으며 아이곁에 앉아계시는분을 쳐다보았다. 처량한 그의 두눈에서는 애절한 마음의 호소가 풍겨나오는듯싶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아! 당신네들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촉촉히 젖은 긴 살눈섭밑에서 애처롭게 깜박이는 선량한 녀인

의 시선은 사람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허비였다. 그러나 당장 어떻게 하는수가 없었다. 그래 그이께서는 말로써라도 위안을 남기고 싶어 한참동안 이야기를 하시다가 떠나기로 하시였다.

《일제의 악선전은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리만석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마당에 내려서시여 녀인이 누운 방안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였다. 《저 어린애 병이 중합니다. 급히 의사를 데려다가 보여야 할것 같습니다.》

리만석은 한걸음 나서서 주의깊이 듣고는 있었지만 석연한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네! 그런데 의사가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 있던 의사는 원산에 있는 자기 고향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룡강이나 강서읍에 의사가 없습니까?》

《이전에는 공의가 하나씩 있기는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곧 가보겠습니다.》

《꼭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열이 높고 기력이 진했습니다. 그럼 수고해주시오.》

장군님을 모시고 차에 앉은 사람들은 누구도 말이 없었다. 리만석이와 몇명의 열성로동자들 그리고 기관차 석대분의 수리자재를 얻었다면서 좋아하던 박원식이 한길까지 따라나와 바래드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운전사옆 앞좌석에 앉으시여 줄곧 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아침에 오실 때처럼 낯익은 정경이 다시 펼쳐졌다.

순화강이다. 흐르는듯마는듯 잔잔한 물줄기는 다정하게 만경대를 그러안고있다. 빨간 잠자리가 그리도 많아 맨발로 방천을 내달으시던 그 언덕에는 생당쑥이 길이 넘게 자라 흐느적인다. 석양을 받기 시작한 잔디판은 곱게 빗어넘긴 노랑머리같다. 산기슭에 듬성듬성 덩굴이 져있는 활엽수들은 온 여름내 입고있던 푸른 옷을 벗어던지고 붉기도 하고 혹은 누렇기도 한 색옷으로 단장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불 때면 백양나무잎이 새떼 날아오르듯 허공에 떴다가는 달달달 소리를 내며 길바닥을 굴러가고있다. 차가 굽이를 돌게 되자 그것들은 단번에 뒤로 밀려갔다가 다시 서서히 다가오군한다. 그럴 때면 현실과 명상간에 한계가 없어지면서 생각이 더 깊은데로 잦아든다.

(양춘만이는 이제 어떻게 될것인가.)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그는 지금 스스로 자기를 일제의 운명과 한자리에 놓고 있다. 숨기는 왜 숨는가. 만약 죄가 있다면 그대로 있으면서 로동자들이 안기는 벌을 받아안아야 할것이 아닌가. 로동자들은 그가 죄를 진것만큼 처벌했을것이다. 하긴 그로서는 그렇게 할만한 담이 없었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가있을것인가? 십중팔구는 서울로 달아났을것이다. 우선은 피신했다가 기회를 보아 자기 행로를 선택하자는 속심일것이다. 어쨌든 그도 다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데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있는것이 분명하다. 전날에 만났던 강병철이와 위치가 다를뿐이지 처지는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그들자체도 그를 돌려세우기 어렵다고 보는데 우리가 과연 그를 돌려세워낼수 있겠는가. 그는 자기스스로 자신을 우리와 적대관계에 놓고있다. 바로 이것이 식민지지식인의 가긍한 처지인것이다. 그를 버려두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놓은 《죄》때문에 한생 기를 펴지 못하고 살다말것이다.

순간 **김일성**동지의 눈앞에는 아이를 부둥켜안고 울고있는 녀인의 모습이 삼삼히 떠올랐다. 피기없는 아이를 가슴에 꽉 그러안았는데 그 팔은 걷잡을수 없이 와들와들 떨리였고 공포에 질려 파릿해진 눈은 분명히 동정을 바라고있었다. 녀인은 지금도 슬픔에 잠겨 울고있을것이다.

승용차는 다시 남리등판이 바라보이는 한길어름에 나섰다. 양춘만일가때문에 착잡하고 처절한 감정에 사로잡혀계시였지만 20년전에 떠난 고향마을어구가 저쯤 바라보이게 되자 그이께서는 홀연 다른 생각에 잠기시였다. 앞에 보이는 순화강을 건너 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나서자라신 고향집이 있다. 그이께서는 싸리로 엮었던 사립문안에 들어서는 장면을 상상해보시였다. 허리굽은 할머님께서 버선발로 달려나오신다. 첫마디로 《왜 이제야 왔느냐.》 하실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어머니는 어따 두고 왜 혼자 왔느냐?》고 물으실것이다. 《할머니,용서해주십시오. 늦어졌습니다. 내 나라,이 땅에 갖가지 사연이 하도 많아 인차 여기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올리게 될것이다.

차창턱을 잡으신 손이 땀에 질적해졌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창밖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이제는 칠골이다. 어머님의 얼굴이 차창이 하나가득 확대되여 나타났다. 소사하 토기점골에서 마지막으로 뵙던 그 얼굴이다. 남만으로 떠나던 6월의 그날 문설주를 잡으시고 《왜 빙빙 감돌고만 있느냐. 어서 떠나거라. 집걱정을 하면 큰일을 못한다.》 하시던 그 모습이다. 추억이 이렇게도 생동하게 되살아날줄은 몰랐다.

보통강이 가로질린 길어름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방금전에 잠들고있는 아이의 머리를 짚어보던 생각이 나셨다. 그 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리만석은 의사를 데리러 떠났을가? 읍에 의사가 있기나 하겠는가?

《차를 세우시오!》

그이께서 최동무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시며 말씀하시였다.

《차를 돌려서 이제 그 집으로 다시 갔다오시오.》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차를 리용하겠습니다.》

《아이와 아주머니를 태우고 평양으로 급히 들어오시오. 그냥 버려두면 아이가 살아날수 없소.》

최동무는 군용차를 돌려세워가지고 강선으로 급히 달렸다. 양춘만의 집에 도착한 그는 다짜고짜로 방안에 들어가 녀인을 들어일구려 하였다.

《아이를 살려야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군대어른! 우릴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어요.》

《아주머니, 왜 자꾸 그렇게 삐뚤게만 생각합니까!》

최동무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치다싶이 웨치였다.

《일어나시오, 빨리.》

아이를 빼앗아 포대기에 싸기 시작하자 녀인은 자리를 뜨고 일어났다.

최동무는 아이를 안고 녀인을 떠밀어 차에 앉히였다.

차가 떠나게 되자 녀인은 아이를 가슴에 와락 그러안으며 울음을 터치였다.

자동차는 살같이 평양을 향해 달리였다.

제 3 장

1

강병철은 경상골에 찾아가기 위해 려관을 나섰다. 류정거리를 빠져나온 그는 강기슭을 따라 곧추 올라갔다. 활개를 급히 저으며 부지런히 걷건만 어덴지 모르게 맥빠진 걸음이였다.

그는 평양역전에 있는 대동강려관에 한주일째 묵었다. 당장 떠나기로 차비했던 트렁크를 다시 헤쳐가지고 하루하루 날자를 꼽아가며 밥을 사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슨 꼭 볼일이 있는것도 아닌데 자연히 그렇게 되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자신으로서는 명백했던것 같던 앞날에 대한 문제를 조선인민혁명군 정치위원이라고 하시는분이 방향타를 홀찍 돌려놓으신것이다. 그렇지만 그 방향타는 자기 반동력에 의해서 얼마간 되돌아와서 중간쯤에 멎어버렸다. 그건 그렇다 치고 기왕 이렇게 된바에는 신창탄광 박창술이처럼 대담하게 행동해볼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는 그와 처지가 달라서 장군님을 직접 뵈올수 있는 길이 열릴것 같지 않아 망설이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것은 원시범의 애매모호한 립장이다. 끝장을 보고야말겠다던 혼인문제는 한달전이나 지금이나 일보의 전진도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는 형편이다. 한집에서 한달씩이나 같이 살고있는것을 보면 그들의 혼인문제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건 딱 형식상 문제로 해서 아직 미혼의 처녀,총각으로 되여있는셈이다. 남에서 같이 떠날 때 둘이 동시에 걸머진 안동권의 서울초청문제는 그쯤해두어도 의무를 리행한것으로 될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용무를 보고 함께 돌아가자던 약속이 튀게 되였다. 그렇다고 해서 원시범을 떨궈두고 혼자 갈수도 없었다. 혼자 못가는 리유로서는 친구

간의 의리에 걸리는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로자가 떨어진것이다. 떠나올 때 한 20일간 예견한 려비도 빳빳했는데 이제는 한달이 거진되였다. 돌아가는 려비는 자기가 백추화의 집에서 변통하겠다던 원시범은 아직 그런것을 생각할념도 못내고있다.

강병철은 옥류소쪽으로 내처 걸어올라갔다. 경상골 막바지 고색창연한 그 기와집을 찾아 터벌터벌 걸었다. 때마침 원시범은 샤쯔바람으로 마루에 앉아있었고 백추화는 해질녘 모란봉산책이라도 나갈 차비인지 진회색 세루투피스로 몸단장을 가볍게 하고 마당에서 서성거리고있었다. 안방에서는 자기 존재의 위엄을 시위하듯이 애햄애햄 군기침을 하며 이집 상전인 백씨가 자기또래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강병철이 열려진 미닫이 사이로 인사를 하자 나비넥타이에 조끼를 받쳐입은 백씨는 왜 요새는 꿈쩍하지 않았는가고, 젊은이들이 출입이 없고보면 집안은 시들은 방초나 다를바 없다고 엄살을 부리였다.

《한데 여보게들.》 하고 백씨는 금반지를 낀 손으로 문설주를 붙잡고 원시범과 강병철이 나란히 앉아있는 마루쪽을 내다보면서 말을 꺼내였다. 《이 송형이 나더러, 그래 내가 송선생을 소개해야지. 저 서성리에서 모란제지공장을 운영하는 유력한분이네. 이 선생이 글쎄 나더러 어느 당에 들겠는가 묻질 않겠나. 그래 내가 장사를 잘하게 해주는 당이 어느 당인지 그 당에 들겠다고 하니까 그런 당은 세상에 없다면서 앙천대소하네. 난 통 그런 물계는 모르니까 젊은이들이 판단을 좀 해보게.》

이래놓고는 제딴에 어리석은 자신을 발견했음인지 껄껄 웃었다. 강병철은 원시범의 옆구리를 쿡 찌르고 턱을 들어보이였다. 말상대가 되여주라는것이다. 강병철의 판단에 의하면 이 집의 모든것, 가장집물, 생활양식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 모두가 두 극단의 결합체였다. 그것은 서로 융융과정이 없는 기계적인 결합같은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례컨대 안방에는 쌍학무늬에 붕어쇠가 걸린 백통뒤주가 놓였는가 하면 저쪽 사랑방에는 그랜드피아노가 자리잡고있다. 부엌 한쪽에서 끼니때마다 놋화로에서 곱돌장사귀가 끓는가 하면 이쪽 전기곤로에서는 커피를 끓이고있다. 백씨는 집에서는 명주

바지저고리를 입다가도 외출할 때 보면 맥고모나 헬메트에 스데키를 짚는다. 빅타레코드에서는 남도륙자배기가 울리고 추화는 모짜르트를 즐긴다. 그중에서도 백씨의 사고방식이 걸작이다. 다른 사람들, 특히는 신양촌교회당에 출입하는 그리스도교신자들속에서는 독실한 신자로 되여있다. 그는 신약성서를 거의 통독하였으며 지어 신학전문가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것마저 알고있었다. 그는 알고만 있을뿐아니라 그 교리를 능숙하게 활용할줄도 알았다. 추화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강한 정조관념에 의해 교양되였다고 한다. 아버지가 늘 마태복음 5장을 외워주었다는것이다. 《나는 말한다. 누구든지 정욕을 가지고 녀자를 보는 자는 마음속으로는 벌써 간음을 한것이다.》 그리고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러면 줄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눈에 뜨일것이다.》를 입버릇처럼 외웠다고 한다. 그러나 백씨는 일단 상업거래 즉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그 어느 유물론자만 못지 않게 현실적이였다. 그의 입에서는 《하느님은 마음은 주어도 돈은 주지 않아.》 하고 단호한 론단이 내려지군하였다. 돈이 천당이고 돈이 《에덴》동산이지 그외는 모두 지옥이거나 거짓이라고 하였다.

백씨는 계속 말하였다.

《듣자니까 며칠전에 공산당이 선포되였다는게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10월 10일 날자루 나왔답니다.》

원시범이 기름한 얼굴에 정색한 기운을 담고 확신성있게 대답하였다.

《공산당이 득세를 하면 우리같은 상업가는 서성리로 가야지.》 서성리에 화장터가 있다는것을 념두에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알아보니까 친일파, 민족반역자만 치고 모두 단합한다고 합니다.》

《난 저 사람의 저것이 늘 맘에 없거던.》 하고 백씨는 포동포동 살이 오른 손으로 상아물부리에 담배를 끼우며 낯을 찡그리였다. 《약자에게는 병이 침노하고 불평분자에게는 공산주의가 침투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 사람은 가만 보면 무슨 불만이 많고 또 공산당에 대해서 좋게만 보고있단말이야. 하긴 뭐 요새 지식인치고

공산주의를 동경 안하는 사람이 없지만말이지…》 하고 백씨는 저편에 앉아있는 몸이 체소한 늙은이를 바라보며 계속하였다. 《자! 송선생,마저 한잔 따시오. 페일언하고 난 송선생이 드는 당에 들겠수다. 친구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민주당이면 어떻고 공화당이면 어떻소. 공산당만 아니면야 다 같은판이지.》

결국 이렇게 되여 젊은이들의 속을 뽑아보려고 하다가 되려 자기의 속을 뽑히우고말았다. 백씨가 원시범을 사위로 결정짓지 못한것은 그가 공산주의바람을 탄 사람이 아닌가고 의심하기때문이다.

강병철은 원시범을 따라 모란봉으로 올라갔다. 한걸음 뒤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치 날씬하고 아름다운 백추화가 따라섰다. 강병철은 어느 하나도 명백한것이 없는 알쏭달쏭한 속에서 무엇인가 명백한 대답을 찾고있는 원시범이 가련해보이였다.

《요새 령감에겐 그럴만한 사연이 있네.》

하고 원시범은 오히려 백씨의 립장을 두둔해나섰다.

요새 백씨는 양덕에 있는 벌목장에 가보고 까무러칠만큼 놀랐다. 수천립방의 동발목이 온데간데 없다. 로동자들이 가져다 아궁에 넣었다고도 하고 어데다 팔아먹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광복》이라는 들뜬 기분은 그것이 일단 백씨의 장부책에 나타나자마자 적자표시로 기록되였던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위감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경솔히 대할수 없었다. 일이 안될 때는 마시는 물도 목에 걸린다는 식으로 천만사람이 모두 좋은 일로 되고있는 사위맞이도 무슨 불행으로 번지게 될지 몰라 쩔쩔매는것이다.

사위로 되겠다는 자본가의 자식 원시범은 공산당을 동경하고 있다. 남에서 북에 왔다는자체도 그렇지만 그의 최근 언동은 확실히 붉은것에 접근해가고있었다. 그것을 안 백씨고보면 심사가 편안할리가 없었다.

《나에게는 오로지 추화양이 쏟고있는 애정 하나뿐이네. 그것마저 끊기면 역시 나도 서성리로 갈밖에…》

원시범은 단풍에 묻혀 허허공간에 한가롭게 떠있는 칠성문루각을 쳐다보면서 서글프게 웃었다. 내친걸음으로 그들은 을밀대를 향해 올라갔다.

얼마간 처량한 감정에 잠겼던 원시범이 급기야 기분을 돌려 활기있게 다시 말을 떼였다.

《여！ 강군！ 나도 그새 적극적인 대외진출이 있었네. 여기 평남도에 김광진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데. 내가 교또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리영기를 아는가고 하겠지. 그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잘 아는 사이고 나로 말하면 과학자로 인정하는 첫 대상이라고 했네. 그랬더니 호상 화학이 전문이니까 그럴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하데. 그건 그렇고 그 김광진의 주선으로 공산당본부의 요직에 있는 오기섭이란 사람을 만났네.》

《그래？ 그래서 무엇을 론했나.》

강병철은 안경을 번뜩이면서 크게 관심을 나타내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난 약간 실망했네.》

《실망？ 그건 정말 뜻밖이군 그래. 자네야 공산당에 적응될수 있는 그런 립장이 아닌가.》

《말 말게. 자네가 만나뵈웠다는 그분과는 체질상 완전히 달라.》

이런 식으로 전제해놓고 원시범은 오기섭과의 담화장면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그는 김광진의 안내로 어느 한 려관의 귀빈실같은데서 오기섭을 만나게 되였다. 경제학을 전공한 김광진은 8.15후 인차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상공부문을 담당해서 사업하게 되였다. 하루는 경상골에 있는 목재상 백씨가 찾아와 교또대학 공과졸업생을 하나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래 만나보았는데 개성이 똑똑하고 쓸만하다고 보아 오기섭에게 추천한적이 있었다. 오기섭은 과학자,기술자들의 동향도 알아볼겸 직접 만나보겠다고 하였다. 한편 원시범이측에서는 별로 내키지는 않았지만 백씨의 권고도 있고 또 공산당계통의 표정도 알아보고싶어 그에 응했던것이다.

오기섭의 몸에서는 공산주의자라는 체취가 진하게 풍기였다.

《교또에서 고학을 했는가요？》

오기섭은 첫 마디를 떼였다.

《아니요. 집에서 보내오는 학비로 구차하지 않을 정도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계급출신이지요.》
오기섭은 수염이 텁수룩하니 자란 조개턱을 쳐들고 또 물었다.
《서울서 여기로 오게 된 리유는 무엇입니까?》
《직업을 찾기 위해서지요.》
《남에서도 실직할 정도는 아니겠는데.》
《역시 북에 나의 전공인 화학이 있으니까요.》
《지식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정치에 대한 관여는 어떻게 보는가요?》
《아직 나는 공산주의를 신봉할만치는 못됐지요. 처지도 그렇고 내 리념도 그렇고, 그렇지만 화학도 역시 다른 과학과 함께 정치권밖에 있을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대는 정치에서 공백지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차피 이제 어느것이든 선택해야겠으니까 우선 우리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아볼 생각은 없는가요?》
원시범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화가 아니라 심문과 같은것이기때문이다. 자존심이 건들리우고있다고 생각되자 홀연 그는 이름할수 없는 모욕감과 반발이 일어났다.
《우리 친구 강병철이라는 괴짜가 있는데 그런 질문에는 그 친구가 명철한 대답을 하군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권력을 부정한다, 오직 지성을 존중한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대신 어떤 권력도 다 받아들일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지요.》
오기섭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는 등나무덩굴처럼 비틀리고 꼬인 지식인인 원시범의 본심이 잘 드러났고 그것을 휘여잡기가 여간치 않을것이라고 보았다.
《명백히 말해줄수 있는데 지식층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정당이나 사회운동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것은 구락부나 같은거요.》
《그렇습니까.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것은 위를 채우지 않고는 인간이 살아갈수 없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정의 불꽃이 일어났다. 오기섭은 부르죠아지식인의 덕을 보지 않고도 혁명을 수행할수 있으니 우리 프로레타리아를 동정안해줘도 좋다고 비꼬았고 또 그에 대응하여 원시범

은 히틀러가 망한 까닭을 밝히면서 그가 과학자들을 적대시하여 모두 학살하고 추방했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도이췰란드의 학자들이 미국으로 도망쳐 원자탄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여보 지식인선생! 그건 엄청난 착각이요. 도이췰란드는 원자탄이전에 패망했소. 이건 엄연한 사실이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원시범은 가슴이 터질 지경으로 분격이 차올랐지만 상대방의 체신을 고려해서 꾹 참으면서 심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대답하였다.

《단떼의 신곡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통하는 문간에 이렇게 크게 써붙였더라는겁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일체의 자률성을 버려야 한다.〉 알만합니까. 설마 그런 식은 아니겠지요?》 하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는 언어로써는 리해 못할것이 없었지만 뜻으로써는 완전히 이방인과 마주앉은것과 같았다.

원시범이 여기까지 말하였을 때 강병철은 대경실색하였다.

《그럴수가 없네, 절대로 그럴수가 없네. 사실이 그렇다면 자네는 공산당요직에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난것이 아니라 생판 딴데 가서 왕청같은 사람을 만난것이 틀림없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강병철을 납득시켜야 할지 몰랐다. 차라리 그렇게 어떤 착각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원시범은 어간에 나선 김광진에 대해서 원망하였다. 그러나 김광진은 또 저대로 공산당에서는 지금 인재문제에 대한 난관을 풀기 위해 원대한 뜻을 가지고 첫발을 떼였다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례를 들었다. 첫째, 공산당에서는 해외해내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어느 당이나 파벌을 가리지 않고 오늘 조국건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손잡고 일한다는 폭이 넓고 아량있는 로선을 택하였다는것, 그중에는 지식인에 대한것이 포함되여있는데 출신과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아량있게 대한다고 하였다. 둘째는 새 인재양성인데 정치, 군사 방면의 인재양성과 함께 과학과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아끼지 않으리라는것이다. 김광진자신도 평양에 처음으로 공업전문학교를 내오는데 준비성원으로 되였다고 하였다.

이윽하여 화제를 돌려 원시범은 서울방송을 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9월 2일 미즈리함상에서 진행된 항복서조인식이 굉장했다누만. 일본의 비행기,함선 등에서 떼낸 히노마루를 식장배경에 수천개 진렬했대. 그리구 10월 10일 아놀드는 성명에서 북위 38도이남지역에는 오직 미군정이 있을뿐이라고 했다는거네.》

원시범은 특종 소식이라는투로 내놓았지만 강병철은 전혀 그에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거나저거나 다 권력이야기군. 그래 여보게,그건 그렇다치고 내 말을 좀 들어보게.》 하고 강병철은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가 그날 자네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있었지. 나는 그때 알딸딸해있었잖았나. 그런데 문득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개선하신다는 소문이 날아왔거든.》

《그게 벌써 한 보름되였나?》

《그렇네. 그래서 우리는 서울역으로 달려갔더란말일세.》

《그래서.》

《그래서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이 역전광장과 거리에 군중이 모여있었지.》

《그때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홍명희선생이라고 했지.》

《옳아,어학자이고 〈림꺽정〉작가인 홍명희! 그런데 오늘에 와서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와계신다는것을 확고히 믿게 되였네. 그 근거는 거리에 **김일성**장군 만세라고 쓴 구호가 많이 나붙어있는것을 보아 그렇게 말할수 있네.》

벗나무와 느티나무,아카시아,산대추와 잡관목이 엇섞인 금수산봉우리들은 푸른 띠를 두른듯한 소나무숲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활짝 열린 사동 미림벌은 바야흐로 물들기 시작한 저녁노을을 타고 신기루로 떠오르는듯하였다. 강병철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대단한 위엄이 풍기는 군사가로 보는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뜨거운 심장을 지닌 위대한 인간으로 짐작하네.》

언제나 뚝뚝하고 안경만 번뜩이던 강병철이답지 않은,서정이 함

뿍 담긴 토로에 원시범은 놀랐다.

《자네 꽉 루네쌍스시대 인간 같군 그래.》

《왜 그런가, 나는 **김일성**부대의 정치위원이라는분을 만나뵙고 단연 그걸 느끼였네. 누군가가 말했지. 그가 어떤 사람인가 알고싶거든 그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면 된다고말이지. 참말 훌륭했네. 한마디로 말해서 매혹적이였네. 무엇이 그런가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네. 총체적 인상이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환상이거나 관념이라고 하겠지. 그래도 좋네. 모든것이 명백하고 투철하고 솔직하고 또 우리와도 동격이네. 승리자연하는것을 추호도 찾아볼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정 꾸미는 겸손도 전혀 없었네.》

《알만하이. 자네는 그때부터 이미 그 어느 길엔가 들어선것이네. 유물론자들이 말하는것처럼 의식은 실재에 뒤떨어져있을뿐이지.》

《아니 천만에, 그분은 공산주의자라고 서슴없이 공개하더군. 그때 나는 오싹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더란말일세.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 난 안온한 기분에 잠길수 있었다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결론은 서울인가 평양인가. 자네 론리대로 한다면 인간앞에는 언제나 두 길뿐이라니까.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문제는 그렇게 제기되겠지?》

《그건 아직 미정이네. 한걸음 더 깊이 들어가봐야 알겠어. 자본가의 자식, 일본제국의 제품이며 그에 복무한 강병철이 공산주의자와 손을 잡는다는것이 과연 어울리는 행동인지, 여하튼 모든것우에 조선강철을 올려놓는다면 난 찬성이니까.》

《문제를 늘 그렇게 각박하게 세우지 않는것이 좋아. 성공의 봉우리로 통한 길도 천갈래만갈래고 실패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고 또 제3의 길도 그만큼 있으니까.》

그때 시종 침묵을 지키고있던 백추화가 앵두알같은 입술사이로 한마디 흘리였다.

《이번에는 두분이 각기 제나름의 정당을 하나씩 만드시는거나 아니예요?》

그통에 모두 즐겁게 웃었다. 함부로 흘리는것 같은 처녀의 롱담속에 은근한 야유가 섞이였다. 그렇게 되자 강병철은 두손을 모아대고 이슬람교도들처럼 머리우로 높이 들어올렸다.

《부탁입니다. 세레나데도 좋고 부르스도 무방합니다. 우리 두사람을 한덩어리로 녹여붙일것이면 무엇이나 좋습니다. 한마디만.》

《호호호, 그래요.》

백추화는 어렵지 않게 소청을 받아들이였다. 그는 이전에 피아노반주가 없이 들놀이식 노래를 한번도 불러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때만은 례외로 되였던지 주저없이 카르멘의 아리아 서두를 떼였다.

이때였다. 사동쪽 하늘에서 무엇이 번쩍하더니 비행기 한대가 나타났다. 쌍엽기는 요란한 폭음을 울리면서 공간에 뜬 모든 음향을 압도해버리고 순식간에 대동강을 가로질러 평양역쪽으로 건너가더니 급히 기수를 숙이며 꽁무니에서 무엇을 내뿜었다. 저녁노을을 받아 그것은 은가루를 뿌린것처럼 빛났다. 전차길을 따라가면서 본정, 남문정, 종로, 창전 그다음에는 모란봉 그런 순서로 비행기는 날았다. 서평양에서 돌고 다시 선교쪽으로 건너갔다.

《삐라다!》

세사람은 일시에 환성을 질렀다. 그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큰 사변이 생긴것만은 틀림없었다. 큰 사변이란 무엇이겠는가. 제나름으로 환상을 날리였다. 새 전쟁의 폭발인가? 아니면 고구려공화국이라도 선포되는가? 쏘미 량군의 동시철거인가? 그것도 아니면 지구와 달의 충돌인가. 그들은 두손을 허공에 뻗치고 허둥지둥 달려내려갔다. 경상골에 채 들어서기전에 머리우에 떠도는것을 원시범이 먼저 하나 붙잡았다.

《**김일성**장군 평양에 개선!》

어떻게나 요란하게 고함을 쳤던지 강병철의 심장이 뚝 멎는듯하였다.

《**김일성**장군 개선.》

크지 않은 종이 한장에 특호활자 몇개로 찍힌 짧은 한마디 소식이 이토록 큰 충격을 일으키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강병철은 눈물이 글썽해서 그것을 가슴에 가져다대였다.

2

온 평양이 들끓었다. 40만 시민이 밤새 자지 않고 이야기를 벌리였다. 강병철이와 원시범이도 밤새 자지 못하고 앉았다일어났다하였다. 또 밖에 나가도 보고 들어앉아 래일 있게 될 력사적 사변에 대해 론의도 하였다.

그들만 이렇게 밤을 샌것이 아니라 온 평양거리가 하루밤을 완전히 잃어버린채 새날을 맞은것이다.

력사책에 기록된것을 보면 기원 427년 장수왕대에 고구려가 여기에 도읍을 정하고 성을 쌓고 안학궁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 그 이전 아득한 기원전 30세기경에 신화적인물로 전해오던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인류국가문명의 첫 시대를 열어놓았다는것이 밝혀졌다. 일명 《대동강문화》라고 하는 고대문명시대부터 평양은 길이길이 번성해왔으며 오늘은 40만의 인구를 가진 대평양이 되였다.

연연 수천년 그들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동안 무슨 일인들 없었겠는가. 거듭되는 전란도 땅의 륭기와 함몰도 있었고 역병과 홍수도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것을 다 합쳐도 오늘 이밤처럼 사람들을 격동시키는 사변으로는 되지 못하였을것이다.

날이 훤해지자 거리와 마을에서 사람들이 터져나왔다. 날이 밝기전부터 군중들이 길을 메웠다. 중화쪽에서 들어오는 길, 남포쪽에서 오는 길, 증산, 한천쪽, 신의주, 숙천쪽, 개천, 양덕쪽, 강동과 승호리쪽, 상원과 신계쪽 길이란 길은 온통 사람으로 꽉 찼다.

군중들은 농짝밑에 깊이 넣어두었던 새 옷들을 갈아입고 북, 장고, 꽹과리, 피리를 울려대며 남녀로소가 어울려 춤을 춘다.

《삘리리 꽹창, 삘리리 꽹창!》

어떤데서는 《아리랑》을 부르는가 하면 또 어떤데서는 《닐리리야》를 부른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환희와 기쁨을 한껏

내뿜으려고 한다. 팔을 휘두르고 땅이 꺼지게 발을 구른다. 군중들은 웃으며 설레이며 춤을 추며 평양으로 평양으로 몰려오고있다.

강병철이도 그속에 끼여 모란봉고개를 넘어갔다. 풍문에 의하면 오전 10시부터라고 하는데 날이 훤해지자부터 사람들이 공설운동장으로 밀리고있었다. 원시범은 강병철의 혁띠를 붙잡고 따라갔다. 날이 밝자 벌써 운동장은 차넘치고 을밀대와 최승대의 언덕에,루각들,지붕꼭대기에,소나무가지에 올라갔다. 강병철은 자기의 완강한 체력을 믿고 무작정 주석단쪽으로 뚫고들어갔다. 주석단은 최승대쪽을 배경으로 판자로 둘러쳤고 앞에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흰 광목에 붉은 물감으로 써붙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구호가 나붙었고 여기저기 전주대우에 확성기를 달아매였다.

《이게 누구냐,남의 발등을 밟는게.》

《왜들 이렇게 밀치오.》

《여보,들어갈데 없소.》

광장은 끓어번지였다. 어데도 발들여놓을 자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주석단쪽으로 자꾸 밀리였다.

최승대언덕에는 로동자들이 한벌 덮이였다. 그들은 붉은기를 들고 군대들처럼 정렬해서서 합창을 하고있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군중들의 소음에 의해 노래소리는 자주 중단된다. 그러다가 모든 음향을 짓누르며 온 광장을 흔들어놓는다.

강병철은 발을 돋우고 노래소리 울리는쪽을 넘석하니 바라보고있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강병철과 원시범의 돌진은 계속되였다. 그들의 목표는 주석단에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가려볼 그런 정도 접근하자는것이였는데 아직도 그런 거리까지는 까마득하였다. 아무리 틈을 노려보아야 들어설만한 짬이 없었다. 하는수없이 다른 사람이 한것처럼 땅에 주저앉아야 하였다. 앉아서 한참 있노라니까 전후좌우에서 별의별 소식이 다 날아들었다. 바로

오늘이 일요일이다보니 예수쟁이들이 례배보는 날인데 자꾸만 종을 치건만 한명도 모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어데선가 《뎅그렁 뎅그렁》 종소리가 나기도 하였다. 또 누군가는 이제 **김일성**장군님이 비행기로 도착하신다고 하였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뜨고 땅으로는 20만의 군대가 군악을 울리며 도착하는데 미림에서 여기까지 자동차로 오시게 될거라고 하였다. 그러니 아직 비행기소리도 군악대소리도 들리지 않는것으로 보아 오전에는 틀렸다고 하였다. 이야기가 종잡을수 없이 아무렇게나 번져나가다가 또 우연히 두패로 갈라져서 옥신각신하게 되였다. 한쪽은 김장군이 공산당이라는 사람과 다른 한쪽은 리왕가를 추대하려는 민족주의자라고 하였다. 얼마간 그러고있는데 고노골쪽에 앉았던 군중이 와야하고 일어났다. 그 파도는 삽시에 온 장내를 휩쓸며 설렁거렸다.

어느덧 낮 12시가 지나서 1시 가까이 되였다.

드디여 정각 1시, 마이크에서 덜커덕덜커덕 널마루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환호성이 터졌다.

《**김일성**장군님이 나오셨다.》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실로 이것은 수십만의 환호성이라기보다 하나의 큰 폭발이였다. 사람들이 팔을 흔들고 발돋움을 한채 콩당콩당 뛰였다. 운동장안에서, 비탈진 모란봉언덕에서, 지붕꼭대기에서, 나무가지에서 환성을 질렀다.

강병철은 아무것도 볼수가 없었다. 해일을 일으킨것 같은 인파속에서 앞은 물론이고 좌우도 볼수 없었다. 오직 그의 시야에는 손바닥만한 푸른 하늘이 그것도 커졌다작아졌다하면서 얼른거릴뿐이였다. 환호성은 2분, 3분, 5분, 10분… 그냥 계속되였다. 강병철은 무작정 원시범을 땅에 꿇어앉히고 그의 어깨우에 올라탔다. 그제서야 겨우 그는 주석단을 바라볼수가 있었다. 한 7～8명 앞줄에 서고 그뒤에도 그만한 인원이 서있는데 앞줄 맨 중심에 제낀 옷에 넥타이를 매신분이 손을 들어 답례하고계시였다.

《오! 저분이 **김일성**장군이시구나!》

《뵈는가?》

발밑에서 원시범이 소리쳤다.

《뷘다!》 하는 순간 왈카닥 상체가 앞으로 기울면서 누군가의 머리를 덮쳐안고 내리굴었다. 원시범이 뿌리친것이다. 이번에는 원시범이 강병철의 덜미를 짓밟고 올라섰다. 무턱대고 몸을 솟구려 하였지만 그것은 허사였다. 강병철이 잠시도 진정 못하고 몸을 들먹거리고있었기때문이다. 복잡한 그 짬사리에서도 강병철의 머리는 예리하면서도 정확하게 돌아갔다. 불과 0.2나 0.3초 되나마나 한 사이에 시선이 미친 주석단의 맨 중심에 선 그분,제낀옷을 입고 손을 쳐들었던 그분을 어데선가 본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간 뇌리를 때리고 번개처럼 한가닥 기억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본정거리 2층집에서 만났던 그 정치위원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는것이였다. 이렇게 되자 그는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덤비기 시작하였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하였지만 전혀 몸을 일으켜세울수가 없었다. 그렇게 될수록 그의 눈앞에는 정치위원의 얼굴표상과 방금 볼수 있었던 김장군의 초상이 겹놓아지면서 그 두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것을 확신할수 있게 되였다. 그는 용을 쓰면서 무작정 사람들 가다리짬으로 뚫고나갔다. 원시범이 어떻게 곤두박질을 하였는지 누구의 다리갱이가 어떻게 휘여졌는지 알바가 아니였다. 그는 두더지가 땅을 헤집고나가듯이 그렇게 맹렬하게 앞으로 앞으로 기여나갔다. 이젠 몇십메터 나갔다고 생각될무렵 그는 사람들의 다리새를 비집고 솟구쳐올랐다.

그때 확성기에서 《친애하는 동포여러분!》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온 장내를 흔들며 또다시 환호의 폭발이 일어났다.

《**김일성**장군 만세!》

《우리 장군님 만세!》

수만사람의 감격과 환희가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어 처음에는 광장복판에서 빙글빙글 소용돌다가 그것이 최승대의 높은 봉우리에 부딪쳐 몇쪼각으로 갈라져 하나는 고노골쪽으로 또 하나는 북새골쪽으로 또 하나는 서성리쪽으로 내리꼰지다가 마침내 거기에서 다시 터져오른 환성에 의해 재차 허공으로 끝없이 튕겨올랐다.

이때 강병철은 확성기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가 본정 2층집에 앉아

진지하게 들려주시던 그 음성과 완전히 일치하다는것을 의식하였다.

연설은 계속되였다.

《광복된 조국에서 동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는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하고 여러분과 만날 오늘을 위하여 오래동안 일제침략자들과 싸워왔습니다. 지난날 40년동안 우리 민족을 압박하고 착취하던 간악한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고 기나긴 세월 삼천리 조국땅우에 드리웠던 검은 구름은 가시여졌으며 우리 민족이 그처럼 애타게 고대하던 광복의 날은 오고야말았습니다.》

도가니속에서 쇠물이 끓어번지듯하던 장내가 홀연 정숙해졌다.

김일성동지의 웅글고 부드러우면서도 마디마디 탄력이 느껴지는 음성은 세상만물을 압도해버리듯이 도도하게 공간을 흘렀다. 장내에 있는 사람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이 땅에 있는 세상만물이 모두 귀를 기울이는듯하였다. 세상에는 금언명언으로 엮어진 연설이나 성명이나 담화가 수없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운명을 걸고있었거나 거기에서 어떤 진로를 찾아보려고 한것은 일찌기 그 전례가 없었다. 광복된 조선은 어데로 가는가? 광복된 이 조선을 이끌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광복된 조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무엇을 바라는가! 이 한 민족에게 있어서 근본적이면서 또 피할수 없는 운명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 지금 이 마당에서 펼쳐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여기 모인 사람들모두는 기뻐만 한것이 아니라 그만 못지 않게 그 무엇을 갈망하였으며 기대하고있었던것이다.

강병철이도 그중의 한사람이였다. 아까처럼 한번만 더 체면부지의 행동을 취한다면 어렵지 않게 일정한 거리까지 접근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다만 그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장군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운명의 판도를 굽어보면서 가슴을 들먹이고있을뿐이였다. 그는 이 마당에서 환호를 올리고 또 때로는 숨을 죽이고 듣고있는 그들과 더불어 한때 애매모호하였던 모든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리게 되리라고 확신하고있었다. 연설은 계속되면서 군중이 갈망하고 기다

렸던 그 감정의 물결을 타고 하늘높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천만길 락차를 이루어 내리떨어지기도 하면서 영예의 대안으로 이끌고가는것이였다.

강병철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장군님을 우러러보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연탁을 두손으로 꽉 붙잡고 바다처럼 설레이는 군중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을 높이 들어 푸른 하늘에 큰 원을 그리기도 하고 또 힘있게 내리긋기도 하시면서 열정과 정서로 달구어낸 힘있고 류창한 음조로 연설을 계속하시였다.

《동포여러분!》 하고 얼마간 낮은 목소리로 계속하시다가 문득 고개를 높이 들어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 열정을 발휘하여 새 조선 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이때 강병철은 가슴을 움켜잡으며 속으로 힘있게 부르짖었다. 《그렇다!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 한마디 말씀이 끝없이 소용돌면서 거듭거듭 흉벽을 두드리는것이였다. 힘있는 사람은 힘,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렇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마치 미궁을 헤매다가 한줄기 빛발을 붙잡은것처럼 앞이 탁 트이는것을 느끼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발돋움을 하고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이런 흥분이 그다음도 몇번 더 거듭되였다. 그로서는 이렇게 진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감격해서 자기 감정을 쏟기는 처음이였다. 그는 나서자라 30여년동안 이러저러한 세파에 부대끼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체험하였다. 물론 빈한한 사람이 맛볼수 있는 그런 의식주를 둘러싼 고통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생활에서의 난파는 수없이 체험하였다. 대구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다시 만주땅 려순으로 다음은 일본, 이렇게 전전하면서 그가 보고 느낀것은 무엇이였던가. 현대인 특히 지성인은 먹는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이였다. 이것은 동양삼국을 모두 편답하였고 그 과정에 각종 류형의 인간을 모두 상대하였으며 네개의 외국어에 능통한 도움으로 별의별 경우를 다 읽은 결과에 얻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사실 위의 충족보다 정신적 충족이 없이는 살아갈 보람도 없고 그럴 의욕도 생기지 않았었다. 그래서 인간은 각종 문화를 창조하고 예술을 내세우며 지어 신앙을 빚어내는것일수 있다.

강병철은 그 복잡한 가운데서도 절대로 혼미한것에 빠지지 않고 자기중심의 사고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뿐만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강병철이처럼 그렇게 자기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일반적인것에 합류하여 그의 련속반응이 대하와 같은 흐름을 만들었을수 있을것이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람들은 더 들끓었다. 고노골쪽으로 사람들이 쏠리였다. 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김장군님께서 친척되시는분들을 만나신다고 하였다. 부모님이나 동생은 모두 만주땅에서 잃으시고 만경대에 계시던 조부모님과 삼촌을 만나신다고 하였다. 그것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되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말만 들어도 눈물겨운 이야기였다. 스무해만이라고 한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강산이 변하기를 두번 거듭한것이니 가히 그 감격을 짐작할만한것이다. 인정에 몰린 강병철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눈물이 글썽해서 이윽토록 서있다가 사위를 살펴보았다. 원시범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그는 군중들속에 끼여 칠성문쪽으로 올라갔다. 경상골에 들어설 때까지 종시 원시범을 만나지 못하였다.

3

강병철과 원시범은 종로거리를 빠져서 화신백화점앞을 걸어가고있었다. 그들의 기세는 자못 요란하였다. 강병철의 머리에는 채양이 넓은 메히꼬형 중절모가 삐딱하니 걸려있었으며 앞을 활짝

열어제낀 가슴에는 물방울무늬넥타이가 잉어뜀을 하였다. 근시경을 이리 번뜩,저리 번뜩하며 사람들틈을 가르고나갔다. 그러나 기세를 보이는데서는 언제나 원시범이 우월하였다. 그는 두툼한 입술을 꽉 다물고 권투선수가 적수를 향해 나가듯이 약간 모재비로 서서 보폭을 넓게 잡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원시범은 대동강변을 거닐지 않겠는가고 물었다. 그렇지만 강병철은 좋은 일은 서둘러야 한다는 말 그대로 **김일성**장군님을 빨리 만나뵈워야겠다고 단호히 말하였다.

강병철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마치 그 누가 자기 의견에 반박이라도 하는것처럼 거듭 자기 견해를 력설하였다. 그는 이제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자기도 새 조국 건설에 진력하겠다는 결의를 말씀드리고 과업도 받을 작정이였다. 이에 대해서 원시범이도 쾌히 동의하였고 행동을 같이하기로 하였다.

본정에 있는 2층집에 찾아갔더니 그런 용무라면 먼저 김책을 만나라고 하였다. 김책은 외성쪽으로 나가다가 대동강쪽에 나앉은 왜정때 심상소학교자리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심상소학교자리에 찾아가니 거기서는 건물보수작업이 한창 진행되고있었다. 무너졌던 벽을 쌓기도 하고 문짝을 갈아대고 지붕도 손질하고있었다. 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청년들이였고 간혹가다가 귀바퀴에 연필을 끼운 목수령감네들이 보이였다.

강병철은 지게에 벽돌을 까맣게 올리가리고 디뚝디뚝 힘겹게 걸어가는 중년사나이에게 김책이 어데 있는가고 물었다. 사나이는 먼지가 까맣게 오른 얼굴을 돌려대고 맞갖잖게 쳐다보았다.

《당신넨 누구요?》

시끄럽게 군다는 투다.

《우린 기술자들입니다. 일자리를 받자고 왔습니다.》

하고 원시범이 가로말아나섰다. 성미가 꽛꽛해서 강병철은 자주 이런 외교에서 실패를 보기때문이다.

《기술자?》

키가 껑충하고 목이 기름한 사나이는 짐을 진채로 그냥 서서 아래우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좀 기다리오.》 하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얼떠름해진 원시범은 옆을 지나는 청년을 붙잡고 또 물었다.

《여기 김책동지라고 나와있다는데 어데 있는지 모르겠소?》

《김책동지요?》 하고 청년은 의아해하면서 김책이 현관으로 들어가는것을 보면서 말하였다. 《이자 마주서 이야기하구선, 저기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몇마디 말을 주고받는데 김책은 짐을 부리우고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미안하게 됐소. 내가 김책이요.》 하면서 벽돌가루가 빨갛게 묻은 손을 툭툭 털면서 《저쪽에서 벽돌이 딸려서 그랬소. 그런데 무슨 기술자요?》 하고 반가와하였다.

이번에도 원시범이 나섰다.

《이 친구는 전기와 야금이 전문이고 나는 화학입니다.》

《그렇습니까. 하하하, 이거 정말.》 김책은 마냥 반가와하면서 한쪽손에 하나씩 잡고 널판자가 무둑히 쌓인데로 끌고갔다. 《정말 반갑소, 반갑소. …》

노상 성난 사람같던 김책인데 아이들처럼 기뻐하며 어쩔줄을 몰라 한다. 원시범이와 강병철을 번갈아 쳐다보던 김책은 두팔을 쩍 벌려 한아름에 안으면서 《당신네는 아무데도 못가. 나와 같이 일하자구. 당신이 역전려관에 있던 그 사람이지.》 하면서 감격에 목메인 소리를 하였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군그래.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온다더니 며칠전에 당신은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웠지. 참 잘됐소. 장군님께서 기뻐하실거요.》 이러면서 김책은 40줄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하였다. 《여기가 뭘 하자는덴지 아오? 당신네 같은 기술자를 키워내자는 학교요. 우리가 처음 가지게 되는 공업전문학교지.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지 않소. 이제 우리는 자기의 기술인재를 키워내게 되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앞에 천만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재를 키우는 사업이 첫째라고 하시였소. 알겠소? 그래서 이 일이 벌어졌소. 그래 난 이러고있으면서도 힘든줄을 모르겠소. 같이 일하기요. 여기에 이제 채광, 기계 등 전문과들을 여러개 두게 되오. 11월초부터 개교하자는데 아직 우리는 교원이 모자라오.》

김책은 두손을 펴서 자꾸 무엇을 끌어들이는 형용을 하다가는 두 기술자의 손을 다정하게 붙잡고 거듭 《우리와 같이 있자구!》

하군 하였다.

《그러니 우리더러 남의 검에 날을 세워주는 숫돌이 되라는거지요.》

강병철이 웃으며 롱담을 하는데 김책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그것이 요구되오.》

《우리는 지난날 남의 검을 위해 등때기를 너무 많이 소모했습니다. 그 검은 또 우리 목을 내리치고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란말이요. 남의 검이 아니라 우리 검이요.》

김책은 계속 온화한 말로 대하였다. 《우리를 찾아온것을 보면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자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어서 말하오.》

《우리의 요구는 별것이 없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건국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공장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요. 전번날 장군님께서는 역전려관에 있는 기사를 만났다고 하시면서 흥남지구에 그런 기술자가 몇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말씀하신적이 있소. 흥남으로 가시오. 비료가 나와야 쌀이 나오니까. 흥남에는 비료,제련,기계,화학이 다 있소. 이쪽 동무도 같이 가는것이 좋겠소.》 김책은 시꺼먼 눈섭을 치켜올리며 흥분해서 말하였다. 《그럼 이렇게 하기요. 내 이제 사람을 하나 붙여줄테니까 최준걸이라는 사람을 만나오. 그 동무도 동무네들과 같은 기술자요. 서울서 대학을 나온 선광기사요. 그 동무를 만나 토론해서 흥남으로 내려가는 수속을 하시오.》

《감사합니다.》 강병철은 김책의 손을 잡고 여러번 흔들었다.

방문객과 헤여진 김책은 또 아까처럼 벽돌지게를 지고 마당에서 현관쪽으로 힘겹게 걸어갔다. 강병철은 백양나무밑에 못박힌채 잠시 움직이지 못하였다. 참으로 감회가 깊었다.

허물어진 교사를 수리하면 이제 여기에 몇명의 학생이 앉아 공부하게 될것이다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것은 어느모로 보나 큰일이 아니며 더구나 그 어떤 사변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큰 위업을 위한 하나의 시초임에는 틀림없다. 마치 그는 어느 산골짜기의 맨 끝머리 바위돌밑을 들여다보고있는것 같았다. 락엽을 헤

치면 한공기 되나마나한 물이 보인다. 그것이 넘쳐 실오리같은 줄이 생기고 그것이 또 뻗어 개울,강,대하를 이루게 된다. 총과 배낭을 메고 산줄기를 타던 빨찌산투사들이 지금 가랑잎을 헤쳐 물줄기를 모으고있는것이다.

《빨리 갑세.》

원시범이 재촉하는데 강병철은 코멘 소리를 하였다.

《발걸음이 떨어 안지누만.》

그들은 다시 역전거리를 빠져 김책이 달아준 사람과 함께 최준걸이 있는데를 찾아갔다.

정원을 끼고 서있는 2층집은 매우 조용하였다. 키가 자그마하고 안경을 낀 리지적인 사람이 맞아주었다. 자기가 최준걸이라고 하였다. 마당에 선채로 통성을 하고 용무를 말하였을 때 최준걸은 장군님께서 대구에서 온 기사이야기를 몇번에 걸쳐 하시는것을 들었노라고 하였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동업자군요.》

강병철은 스스럼없이 롱담을 하였다. 간데마다 정치인들이 차 넘치는 때에 그것도 공식적인 마당에서 자기와 같은 류인 기술자를 만났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다. 더구나 장군님께서 거처하시는곳으로 짐작되는 울타리안에서 경성제국대학 공과를 나온 선광기사를 만날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려깊은 근시안을 가졌고 조용조용히 말하는 성미인 최준걸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지식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자기소개와 같은것도 서슴없이 내놓으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손을 붙잡았다.

이렇게 하는것이 최준걸이로서는 대단한 결심이였으며 매우 견결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는 지금까지 그 누구를 자기편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단 한번도 해본적이 없었다. 다만 자기혼자 조심스럽게 살얼음판을 걸어가는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여 별로 큰 곡절없이 이날에 이르게 했던것이다.

그는 나라의 경제형편과 그에 기초해서 제시하신 장군님의 방침을 놓고볼 때 아닌게아니라 강철과 비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고리라고 하면서 전기와 야금 전문인 강병철은 흥남비료에 가는것

이 좋겠다고 하였다. 질소비료는 전기가 기본이고 흥남에는 제련도 있기때문에 그것도 같이 볼수 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원시범은 화학기사니까 본궁화학에 가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마당 한켠에 장의자가 두개나 놓여있어서 그들은 평온한 기분으로 앉아 대화를 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중 키가 제일 작고 조용한 최준걸은 시종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있었으며 그와 마주선 강병철은 좀 조폭할것 같은 그 외형과는 딴판으로 뜨직뜨직 말하면서도 매번 적중한 표현을 가지고 자기 용무를 한걸음씩 접근시켜갔다. 그런가 하면 원시범은 이미 자기 태도는 다 결정하였으며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분을 나타내고있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부엌에서 나온 젊은 녀인(안명숙)이 마당 한쪽구석에 있는 물뽐프에서 물을 길었으며 그때마다 치마끄리를 붙잡고 두세살 나보이는 사내애가 따라다니군하였다. 아이가 《아줌마, 아줌마.》 하는것으로 보아 모자간같지는 않았다. 강병철은 그 애가 신통히도 대구에 있는 자기 아들 영남이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였다.

《만약 당신네들의 용무가 단순히 직장배치문제만이라면 구태여 장군님을 만나뵈올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런 취지로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네들의 직장배치문제를 저에게 구체적으로 위임하시였습니다. 그이께서 오늘과 래일까지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른데 나가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김책동무와 토론해서 보고를 올리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병철은 머리를 가로흔들어보이였다.

《이것은 직장배치문제이기전에 우리들의 운명문제입니다. 또 겸해서 나는 사전에 론의한것도 있었기때문에 누가 대신할수 없습니다. 또 내가 장군님앞에서 직접 표명해야 할 결심도 있는거구말입니다.》

옆에서 듣고있던 원시범이도 역시 같은 심정이라고 첨부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다르지요.》

최준걸은 마루에 놓였던 담배를 집어서 권하였다. 강병철이 자기한테도 있노라고 하면서 불을 다는동안 최준걸은 상대방 두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있다가 다시 말을 떼였다.

《내가 보건대 당신네나 나나 공통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사사용무가 아니라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 못할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지식인이 처한 운명문제와 같은데서는 내가 한걸음 먼저 내뗐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최준걸이 겸손하게 웃었고 뒤미처 강병철이도 안경을 번뜩이며 원시범을 쳐다보았다.

그때 마당에서 놀이감자동차를 끌고 수도가를 빙빙 돌고있던 사내애가 《아저씨, 이거.》 하고 소리쳤다. 자동차가 하수도구멍에 빠져 나오지 않았다. 최준걸이 급히 달려가 자동차를 꺼내여 감탕이 발린것을 물에 씻어주고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있던 강병철이 입가에 웃음을 띠고 말을 떼였다.

《물론 개인용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대신하기도 힘든것입니다. 하지만 말해봅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지식인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데 대한 확고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이건 최준걸씨도 우리와 같은 립장이라고 보기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건 개선연설에 있잖습니까.》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민주조국건설에 나서라는것말이지요.》

《그 이상 더 명확한 대답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답변이 아니라 그에 대한 담보가 요구됩니다.》

《담보? 그러니 그것을 믿을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확답을 드릴수 있습니다.》

《확답을 말입니까?》

《그렇지요. 확답이지요. 좀 야박하게 해석한다면 우선 언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관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볼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아닙니까.》 최준걸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갔다. 《우리 서로 외교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들을 드러냅시다. 나도 얼마전까지 그것이 필요했고 그것으로 해서 주저도 했고 모대기기도 했습니다.》

최준걸은 그 누가 들어도 무방하다는투로 어성을 높여가며 개

성에 있는 부유한 자기 가정형편과 조선에 오직 하나뿐이였던 세력자와 수재들만이 모인다고 하던 경성제국대학시절이야기 그리고 북해도, 장춘근교, 무산 등 지방을 전전하면서 일제 대륙침략을 경제기술적으로 안받침한 이른바 《죄상》도 내놓았다. 광복은 황해도 신평 백년광산에서 맞았다. 기술자라고는 오직 자기 하나뿐이였다. 갱도에 물이 차고 식량은 떨어져서 행여나 무슨 수가 있을가 해서 평양에 왔다가 조선군대를 찾아갔다. 김책을 만난 그는 즉석에서 환영을 받았으며 갈이 일하자고 해서 광산에 내려가 후임자를 정해놓고 올라왔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네가 묻고싶은것은 이런거지요? 프로레타리아와 적대되는 자산계급출신을 용납하겠는가, 언제까지. 그리고 의식적이든 불가피한것이든 일제에게 복무한 지식인을 당신네들이 용납하겠는가, 끝까지? 어떻습니까? 이밖에 뭐가 또 있습니까? 나의 경우에는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뭐가 또 있는가?》

온화할것이라고 보았던 최준걸의 거동은 매우 정열적이였으며 주장은 강경하였다.

강병철은 소탈하게 대답을 주었다.

《그렇소. 바로 그것입니다. 한데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장군님한테서 직접 받자는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체험했기때문에 이자리에서도 정확히 말해줄수 있소.》

단호한 최준걸의 대답에 이쪽은 약간 얼떠름해졌다. 주제넘은 태도라고 보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힘을 가지고 울려왔기때문에 립장이 얼마간 흔들리게 되였다.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는 지금 치명적인 결함들을 가지고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전의 습성대로, 말하자면 이전의 눈으로 새 현실을 보고 평가하려고 하는것입니다. 회의, 의심, 불안, 공포 그것으로 광복된 오늘을 보고있는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았고 의심을 당했댔습니까. 그리고 의심을 당한것만치 우리 또한 얼마나 의심을 했고 공포에 사로잡혀있었습니까. 나는 장군님을 만나뵈온지 아직 한달이 못됩니다. 그러나 나는 만나뵈올

적마다 느껴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내가 확답을 할만큼 심각한 체험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믿으라 이외에 할 말이 더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공개적 언명과 내적 심리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다는것을 나는 이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최준걸은 계속해서 자기를 처음 대해주실 때 장군님께서는 과거를 묻기전에 먼저 현재의 결의를 듣자고 하시였고 애국적이라고까지 명명할수 없는 작은 소행과 의견에 대해서까지 크게 치하를 하고 상하없이 서로 의지하고 믿고 나라를 세우자고 하시였다는것을 실지 생활장면을 펼쳐가며 이야기하였다. 특히 그가 놀랍게 생각한것은 강선제강소에 갔을 때 얼어붙은 전기로를 만져보시며 여기 로동자들이 복구하겠다면 자신께서는 그대로 믿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그때 그윽한 눈길로 둘러보시던 그 모습이라고 하였다.

최준걸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이런 관점에 기초하지 않았기때문에 우리 나라 경제실태로 미루어보아 5년안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며 더구나 전국의 경제를 동시에 들어일구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그이의 주장에 선뜻 지지해나설수 없었다고 하였다.

빈틈없이 째인 최준걸의 설명을 듣고나니 강병철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다. 모든 의문이 풀렸을뿐아니라 이미 그렇게 신뢰에로 쏠리였던 심정이 확고한것으로 되였다. 그렇지만 고집스럽게 가슴속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는것은 장군님을 한번 다시 만나 자기의 결의를 직접 표명하고싶은 강한 충동이였다. 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경우라 해도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뵈옵고싶은 누를길 없는 흠모심이였다. 그들사이에는 한동안 오가는 말이 없게 되였다.

《아저씨, 이거！》

사내애가 노끈이 끊어진 자동차를 안고 와서 그것을 비끄러매달라고 한다. 최준걸은 마루우에 놓은 주전자를 기울여 물을 마시고있었다.

《이리 온. 내 매줄게.》

사내애는 코를 훌쩍거리며 강병철이 있는데로 다가왔다. 강병철은 눈이 큰 사내애의 머리며 어깨며 이마를 만져보면서 물었다.

《이름이 뭐지？》

《이루이.》

《뭐 이룽이？》

《응.》

《몇살이지？》

《요렇게.》

손가락을 펴보인다는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뭐가 뭔지 모르게 되였다.

《세살? 응,세살.》

그러면서 강병철은 아이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살펴보았다. 아이가 다시 자동차를 끌고 저쯤 대문가로 나갔을 때 강병철이 물었다.

《장군님네 자제분이겠지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럴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를 기웃거리며 강병철이 웃고있었다. 그에는 응대를 하지 않고 최준걸은 아이를 불렀다. 최준걸이 아이의 코를 수건으로 훔쳐주며 물었다.

《아버지 이름이 뭐나요？》

《아버지? 양춘만！》

《뭘 하나요？》

《공장에서 강철 만듭니다.》

이때 강병철은 전류에 닿은것처럼 와뜰 놀랐다. 양춘만 할 때까지만 해도 무심히 들었는데 그것이 강철과 결부되자 그의 뇌리에는 강선제강소 양춘만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던것이다.

《양춘만！ 강선제강소가 아닙니까？》

강병철은 짯짯이 얼어드는 입을 겨우 놀려 물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아는 사이입니까？》

최준걸은 역시 그럴수도 있다는투로 이상한것을 느끼지 않으면서 물었다.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의 금속전문가 치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나도 역시 그런 정도는 알고있었습니다.》

강병철은 온몸이 옥죄이는것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 공교로울수 있겠는가 생각하였다. 얼마전에 장군님을 만나뵈웠을 때 양춘만은 자기들과 처지가 다르다고 하였는데 그 양춘만의 아들이 여기에 있는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연을 알리 없었던 최준걸은 상대방의 감정변화에는 아무 관계없이 아이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지금 아버지 어데 있나요?》

《저기 먼데 갔어요. 이제 온대요.》

《누가 배아픈거 고쳐줬나요?》

《장군님!》

유리창이 달린 2층을 가리킨다.

《일웅이 용타, 가서 놀아라.》

최준걸은 멀어져가는 아이를 쳐다보면서 석쉼한 목소리를 내였다.

《들었습니까? 아이가 말한 그대롭니다.》

《그런데 양춘만의 아들이 어떻게 되여 여기 와있습니까?》

강병철은 놀라운 눈길로 최준걸이와 사내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물었다.

《이 이야기만은 당신들이 믿어지지 않아할것 같아 그만두자고 했댔는데 이젠 해야겠습니다.》

최준걸은 벌써부터 흥분이 앞서 음성이 고르롭지 못했다. 그는 8.15광복이 되자 양춘만이 자취를 감춘 이야기로부터 장군님께서 가정방문한것을 말하고 일웅이를 데려다 치료해준 사연을 감명깊게 말하였다.

아이 하나를 둘러싼 이야기가 너무나 심각하고 뜻이 깊어 그렇게도 침착했던 최준걸이도 조리있게 형상해내지 못하였다. 듣고보면 생활에서 곤경을 당하고있는 한 강철기사네 모자를 그대로 버려둘수 없어서 얼마간 도와주었다는것이 전부였던것이다. 그때 최준걸이 들은것은 장군님께서 《그들도 우리 사람입니다.》라고 한 단 한마디 말씀뿐이였다.

(아! 어쩌면 이렇게 될수 있는가?) 하고 강병철은 속으로 부

르짖었다. 일제에게 충실히 복무한 야금기사 양춘만이가 아닌가. 출신으로 보면 지주, 더구나 공산주의리념을 한사코 반대한 그가 아니였던가. 그는 광복이 돼서 자기스스로 자기가 어떤 인간이라는것을 세상에 드러내놓지 않았는가. 양춘만이는 일본놈들과 운명을 같이하기로 결심한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과 그 안해가 **김일성**장군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고있다니. 앞서 만났을 때 강병철은 장군님께 《양춘만은 우리와 사정이 다릅니다.》라고 했던것이다. 그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하자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하나의 물방울과 같이 작은것에 비낀 실로 놀랍고 위대한것을 진작 받아들이기가 아름찼던것이다. 그는 숭엄한 얼굴로 장군님께서 계시는곳으로 짐작되는 2층을 쳐다보았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그날 그때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들같은 인간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강병철이 두손을 내흔들며 혼자소리를 하고있는 그 바로 뒤에 원시범이 서있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무심히 놀고있는 아이만 계속 바라보고있었다.

시간이 얼마간 흘러서였다. 강병철이 천천히 돌아서더니 묵묵히 서있는 원시범의 팔을 건드렸다.

《갑세!》

원시범이도 인차 일어나 대문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최준걸은 얼굴이 벌겋게 된 강병철을 향해서 물었다.

《언제 다시 오겠습니까?》

《아니요. 다시 오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길로 흥남으로 가겠습니다. 이 원시범은 본궁화학으로 갈것이고. 그렇지?》

원시범은 그것은 응당하다는듯이 고개를 끄덕하였다.

《나는 다 알았습니다. 나는 모든 대답을 다 받았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사회혁명을 하기에 앞서 인간혁명을 하

고계십니다. 그것이면 다지요. 수십만이 목소리를 높여 웨치는 환성, 그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대중을 선도하는 현명한 리론, 선언, 그것도 또한 훌륭합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을 귀중히 하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성품을 모든것가운데서 가장 크고 고귀한것으로 봅니다. 그속에 우리가 바라는 모든것이 다 있으니까요.》

이처럼 격한 말을 남기고 강병철은 거리로 나왔다.

원시범이와 헤여진 강병철은 거리를 말없이 걸어가다가 문득 당과류상점으로 들어갔다.

《저 알사탕 한봉지 주시오.》

어느것을 골라야 한다는것도 없이 그는 손짓을 하였다. 그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 진렬장유리우로 쭉 밀어줄 때 그 유리판에 집에 두고 온 네살짜리 아이 얼굴이 언뜩 나타났다. 아이는 웃고있었다. 몸이 오싹해진 그가 다시 여겨보게 되였을 때 아이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이지러진 자기 얼굴이 비쳐있을뿐이였다.

사탕봉지를 움켜잡고 상점에서 급히 돌아나온 그는 다시 오던 길을 되짚어 최준걸이와 이야기하던 그 마당으로 들어갔다. 최준걸은 보이지 않고 양춘만의 아들이 혼자 봉당을 헤집으며 아직 놀고있었다. 강병철은 그 애앞에 알사탕봉지를 내밀었다.

《자! 받아라.》

뜻밖의 횡재를 하게 된 아이가 눈이 둥그래지는데 강병철은 와락 어린것을 가슴에 그러안으며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대구에서 떠나올 때 한길까지 따라나오는것을 아버지가 사탕사다준다고 얼려서 떼놓고 온 아들 영남이의 얼굴이 못견디게 그리웠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슬이 고인 고마운 아저씨의 눈을 쳐다보면서 입을 뚜 내밀고있었다.

《잘 있거라. 일웅아, 너는 우리와 달리 한생 행복하게 살수 있다.》

그는 능금알같이 포동포동한 아이의 볼을 한번 다독여주었다.

이윽해서 그는 거리로 나와 역전려관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기였다.

4

하루동안에 길떠날 준비를 해가지고 저녁녘에 그들은 평양역으로 나왔다.

강병철은 국방색광목으로 만든 배낭에 트렁크를 넣어 등에 졌고 원시범은 크지 않은 가죽가방을 손에 들었다.

10개로 편성된 라진행 렬차는 객차칸마다 벌써 송곳끌도 들어갈짬없이 사람들이 들어섰고 층계와 련결부 그리고 방통지붕꼭대기에까지 사람이 앉았고 기관차대가리에까지 하얗게 매달렸다.

강병철은 손으로 헤집고 머리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밀고나갔다. 그리하여 끝내 그는 객차안에 들어서고야말았다.

《이 철도는 광복이 됐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아야야,내 다리 누가 뽑아간다.》

그 혼잡속에서도 역시 강병철의 머리는 잘 돌아가는축이여서 인차 묘한데 착안을 할수 있었다. 공중에 떠있으면 될것이였다. 그래 그는 짐을 얹는 선반에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는 공설운동장에서처럼 원시범의 등판을 디디고 훌쩍 현수동작을 해서 어렵지 않게 선반에 올라갈수 있었다. 그다음에는 원시범을 올리끌었다. 그러나 원시범은 발을 헛디뎌 허양 모자로 떨어졌다. 그통에 벌써부터 극성스럽게 무엇을 먹고있던 뚱뚱한 아낙네가 《아구,나 죽는다! 내 모가지 부러졌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어떻게나 그 고함소리가 요란했던지 차칸에 그 녀편네 목소리만이 꽉 들어찼다. 아닌게아니라 누가 하나 죽는것이 아닌가 했던 모양인지 차칸은 한순간 조용해졌다.

《아이구,모가지야. 나 죽는다,나 죽는다.》

함경도내기녀편네의 아부재기가 계속되자 이번에는 그옆에서 웅글고 거쉰 목소리가 울리였다.

《고함소리 들으니끼니 아직 숨넘어갈라면 멀고멀었시다레.

고만하고 참으라구요.》
《이러다 죽지 죽는게 별겐줄 아오. 나 죽으문 뉘기 우리 박서방 노친네 돼주겠소.》
《쩌쩌쩌, 데거 보디. 죽었다는게 어드르케 말은 하나?》
《곰시 죽었는데 몇마디 말을 못할수야 없지앙이요.》
그통에 온 차칸이 떠나가게 웃음이 터졌다.
해질녘이 되여 덜커덩하고 차방통에 충격이 생기더니 마침내 라진행렬차가 자리를 드티였다.
강병철은 다리를 꼬부리고 누워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우주공간에 떠서 인간세상이 펼쳐진 지구덩어리를 한눈으로 굽어보는 기분이였다. 고생은 막심했지만 그런대로 이제는 고향땅 함경도에 가게 되였다고 기뻐하는 사람, 징병에 걸려 남양으로 가다가 배가 깨져 널판대기 하나를 붙잡고 이틀동안 물에 떠있다 살아났다는 사람, 광복덕으로 과부가 령감얻어 간다는 아낙네, 자기 형을 주의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게 한 고원경찰서 고등계형사 양가놈을 잡아치우러 간다는 청년, 광복되는 날 보국대합숙에서 왜놈십장 두놈을 아예 편포짝을 만들었다는 결패있는 사나이, 사돈끼리 마주앉아 어느 당에 들든지 같은 당에 들어야지 사위, 며느리사이가 버그러질지 모른다는 중로배 등등이 각기 제나름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어디를 보든지 사람들과 이야기거리는 싫지 않은데 뽀얗게 담배연기가 서리고 숨이 꺽꺽 막히게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골치가 빠개져온다. 얼마간 있노라니까 원시범은 벌써 잠이 들었다. 강병철은 허리와 무릎이 쑤시고 숨이 막혀와서 창문쪽으로 돌아누우려고 몸을 뒤채였다. 그때 그의 한쪽구두짝이 벗어져 떨어지면서 밑에 앉았던 아까 그 함경도녀인의 정수리를 때리고 열려진 창문밖으로 날아났다.
《어, 어.》
강병철이 미안하다는 말도 할새 없이 당황해하는데 이번에는 그 아낙네가 밥곽에 떠다놓았던 물을 올리끼얹었다.
《이 옹기없는 인간들, 날 끝내 죽이고야말 차비 아잉가.》
또 한참동안 떠들썩하였다.

그러나 강병철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렬차는 순천을 지나서 양덕을 향해 달리였다.

차칸은 혼잡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렬차는 자기 궤도를 잃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있었다.

양덕역을 떠난 렬차는 천을역에 채 이르지 못한 산중에 멎어섰다. 량쪽 다 깎아지른 절벽이고 앞에도 뒤에도 굴이 있는 어간이였다. 한시간이나 기다리는데 누군가가 내렸다가 올라와 알리였다.

《기관차가 배가 고파 못간답니다.》

《뭐? 배가 고파.》

강병철은 인차 기관차의 연료를 생각하였다. 양덕에서 보급이 없이 무턱대고 떠났단말인가.

《그래 어쩐다오?》

누군가가 물었다.

《그래 모두 돈도 좋고 먹을것도 좋고 있는대로 좀씩 내라는거요.》

그때 강병철이 화가 난다는듯이 한마디 하였다.

《기관차가 돈을 먹으면 증기가 오른다는가?》

《여보, 여보! 안경쟁이신사나리.》

무딘도끼로 대강 다듬어놓은것 같이 막 생긴 사나이가 로동복 앞자락을 열면서 시비를 청하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입이 나불나불이야.》

그런다고 무맥하게 물러날 강병철이 아니였다.

《증기기관차는 5천카로리이상의 삐찌탄이 있으면 그만이란말이요.》

《저 신사 끌어내라. 보아하니 돈냥이나 있는 부르죠아같은데 광복맛을 보여야지.》

사나이는 군중을 향해 명령조로 나온다.

《옳당이. 저 안경쟁이 온기 있는가 봐줍세. 평양서부터 사람을 못살게 굴재이겠소. 아재, 이리 옵세.》

이런 식으로 차칸이 끓게 되자 인차 어느 한 청년이 나서서 《번역》을 해주었다. 양덕고개는 임당수에서처럼 《고수레》가 있어야 무사히 넘어갈수 있다는걸 왜 모르느냐고 했다. 기관사아저

씨들도 먹어야 살지 않는가. 돈이면 돈,먹을것이면 먹을것,그것도 없으면 아무것이라도 좋다고 하였다. 청년은 모자를 벗어들고 십시일반으로 모아다주자고 하였다. 불평으로 끓던 손님들이 저마다 돈도 던지고 먹을것도 내놓았다. 선반에 누운 강병철은 그때에야 새로 생긴 《양덕고개풍속》을 알아차리고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훌쩍 던지였다.

《난 이것밖에 없소.》

고수레를 모으고있던 청년이 《어！》 하고 놀란다.

《이거 통채로 다요？ 아니면 가승이 있어야겠소？》

《다 주고 빨리 가자고 하시오.》

그것을 보고있던 함경도아낙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구두를 신지 못한 발목을 툭툭 치면서 웃었다.

《안경쟁이생원,내려옵세. 떡이나 하나씩 나누기오. 내 입이 걸어 그렇지 맘은 앙이 그렇소. 이재 보이 패이찮은 생원이구마.》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지 까닭을 알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렬차는 다시 떠나 동서를 가르는 분수령 천을고개를 가까스로 톺아오르더니 고원으로 향해 미끄러져내려갔다. 이렇게 가기도 하고 멎기도 하면서 강병철이 이제는 입버릇처럼 돼버린 《광복》이라는것을 하나가득 실은 렬차는 옹근 하루만에 지쳐빠진 바퀴를 끌고 함흥역에 겨우 들어섰다.

강병철은 줄창 잠만 자고있는 원시범을 들어일구어 홈에 내리였다. 본궁이나 흥남역에서 내려야 하지만 그사이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알지도 못하거니와 도소재지 구경도 하고싶었다. 홈에 내렸지만 강병철은 한쪽발의 신이 없었다. 한쪽은 구두,한쪽은 양말발, 두루 뭉개지고 단추가 떨어져 달아나기는 했지만 본바탕은 아직 유지신사풍이 그대로 남아있는 안경쟁이가 함흥역광장을 걸어나가는것이 볼만하였다.

원시범은 신통히 일본인피난민과 같다고 놀려주면서 차라리 한쪽것을 마저 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강병철은 그래도 한짝이 있다는것만으로도 전체의 50프로는 되는셈이니까 그것이 낫다고 하다가 끝내 더 걸을수 없게 되여 한짝마저 하수도도랑에 던져넣고

솔직하게 맨발신사가 되고말았다.

그길로 그들은 장마당에 들려 만 세끼를 건너뛴끝에 설렁탕을 한그릇씩 제끼고 문수가 큰 일본군화를 사신고 뚜거덕뚜거덕 소리를 내며 흥남비료공장을 향해 걸었다.

흥남비료공장자치위원회는 강병철을 환영하였다. 평양에 있는 최준걸한테서 전화도 왔다고 하였다.

때마침 공장에서는 흥남지구인민공장을 짜고있는중이였다. 공산당 함남도당 파견원의 립회밑에 흥남지구에 있는 5대공장,비료공장,제련소,화학공장,화약공장,기계공장들의 관리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것이다. 원시범은 화학기사로서 본궁화학공장 기술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강병철은 원시범을 딱 붙잡았다. 화학공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발이 닿은곳에서부터 일을 착실히 시작해야 할것이 아닌가고 졸랐다. 비료공장을 필두로 5개 공장을 다같이 돌아보고 복구대책만 같이 토론해주어도 좋겠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여 강병철과 원시범은 다시 한짝이 되여 광복이 가져다주는 첫 작업에 발을 들여놓게 되였다. 밤낮 잇대서 현장에 나가보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한편 기능공들을 모아오고 하는 가운데 날자는 급히 흘러갔다. 가능한 공정들에서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수리보수는 그것대로 따로 공정표를 짜서 내밀기로 하였다. 닷새,열흘,보름,시간은 빨리 흘러갔다. 강병철은 끈덕지게 원시범을 잡고 놓지 않으면서 기술협의를 하였다. 원시범은 원시범이대로 본궁화학공장에 빨리 가야겠다고 엄살을 하였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강병철에게만 맡겨놓고 훌쩍 떠날수도 없는 형편이였다. 흥남제련소만은 강병철이 전문분야지만 그밖의 대부분은 결국 화학과 련관이 있기때문에 모른다고 할수 없어서 억지에 못이기는척하면서 강병철에게 끌려다니다가 맨 나중에야 본궁에 와닿았던것이다. 화학공장합숙에서 이틀 묵고 강병철은 짐을 싸들고 본궁역으로 나왔다.

《나는 비료를 찾아 떠나야겠네.》

아무말없이 역으로 따라나왔던 원시범이 기차가 들어오는것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한 낯을 들었다. 거리로 보면 한정거장사이

인데 타국으로라도 가는것처럼 심각해진다.

《할수 없지. 서로 길이 다르니까.》

왜 그런지 원시범은 직무나 거처가 다르다는 뜻으로가 아니라 그 어떤 합칠수 없는 운명을 말하는듯하였다. 원시범이 이 마당에서 그렇게까지 처량해지는것은 평양에서는 애인을 떨구게 되고 이제는 벗과 헤여지게 되기때문에 상심한것일수 있다.

그러나 성공을 바란다고 진심으로 축원해주었을 때 강병철이도 코마루가 찌르르해왔다.

차에서 손님들이 쏟아져내릴 때 어디선가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선생! 나예요. 내가 왔어요.》

그것은 백추화였다. 하늘에서 떨어진것처럼 그렇게 나타난것이다. 원시범은 정신없이 달려가 처녀를 부둥켜안았다.

《추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그들이 만나는것과 동시에 강병철은 차에 오르지 않으면 안되였다. 마치 숨박곡질을 하고있는것처럼,이런것이 결국 운명의 희롱일수 있다는 유모아를 생각할새도 없이 강병철은 평양역에서처럼 또 그런 식으로 머리를 휘저으며 사람들 틈을 뚫고 올라가 란간에 붙어섰다. 기차가 떠날 때 차창으로 머리를 내밀고 뒤를 돌아다보니 원시범이와 백추화가 손을 흔들며 나란히 서있었다. 그의 시야에 환상으로 확대되여 나타난 백추화는 역시 서리꽃처럼 그렇게 깨끗하며 싸늘한것이였고 원시범은 정신을 못차리고 멍청히 서있는것으로 보이였다.

5

흥남으로 다시 돌아온 강병철은 압축기직장과 전해직장을 돌아보았다. 비료공장에서는 여기가 첫 공정이면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압축기직장에서는 파괴된 전동기들을 해체해놓고

코일부분을 수리하고있었다. 전해직장에서는 절연물들을 뜯어놓고 실험을 하고있었다. 두 직장 다 공정표에 예견한대로 작업이 추진되고있었다. 그러나 비료가 나오게 되자면 아직 할 일이 많았다.

강병철은 휴계실에 두었던 가방을 집어들고 공장합숙을 향해 떠났다. 그는 처량하기도 하고 또 그 어떤 대담한 활력을 느끼기도 하는 2중적 감정을 품은채 우선 합숙으로 찾아갔다. 거의 비다싶이 된 합숙은 아무데나 마음에 드는 방을 고르라는 형편이였다.

썰렁한 합숙장판방에 배낭을 내려놓고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대두박을 깨뜨려서 밥이라고 지은것에 무우국과 된장 한접시뿐이였다. 식욕으로 보면 그것을 통채로 삼켜도 시원치 않을 형편인데 콩썩은 냄새때문에 도저히 목구멍을 넘길수 없었다. 2층 3호실 바닥에 맥없이 누웠는데 마루가 가볍게 울리더니 알릴듯말듯하게 문기척소리가 났다. 강병철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 방에 평양손님이…》

대답이 나가기전에 먼저 그 녀인의 목소리와 함께 용모가 매우 아름답다는데 신경이 쏠리였다.

《네,네,제가.》

《식사를 전혀 안하셨더군요. 이걸.》

《이게 뭡니까?》

쟁반에 접시가 하나,공기가 하나 놓였다. 녀인은 몹시 수집음을 타면서 대답도 남기지 않고 총총히 사라지는데 접시에 맞엎었던 보깨를 여니 거기에는 하얀 송편이 다섯개,공기에는 김치 그리고 수저가 놓여있었다. 얼떠름해진 강병철은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리다가 책상우에 올려놓고 우선 김치국부터 마시였다. 잠시동안에 그릇을 다 비운 그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흰연기가 솜송이처럼 덩어리가 져서 방안에 떠도는데 그것을 타고 그의 복잡한 심정이 여러갈래로 줄이 뻗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 대한 합숙녀인의 인정이다. 목이 메게 고마왔다. 여태 만주로,일본으로 서울로 안가본데가 없고 돈냥간 써가면서 별의별 미식을 다 맛본 그였지만 이렇게 맛나고 달게 음식을 먹어보기가 처음이다. 8.15후 여직까지 있어보지 못한 평양손님에 대한 그 어떤 기대일수도 있고 너

무 초라하고 가련해보이는 한 사나이에 대한 동정일수도 있다. 어쨌든 그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인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한동안이나 떨게 되는 인정의 금선을 사정없이 다쳐놓은것이다. 그는 갈아입을 옷도 없어서 줄무늬가 간 춘추 제낀옷에 와이샤쯔, 발에는 목다리가 긴 헐럭한 왜놈군화, 머리는 막 빗어넘기였는데 압축기 직장 휴계실에서 얻어쓴 기름묻은 캡을 올려놓은 몸차림으로 거리로 나갔다. 그는 서호쪽으로 한참 내려가다가 제련소사택마을로 들어갔다. 전번에 와서 반나절이나 걸려 겨우 찾았던 길이여서 이번에는 직발 오천식이네 집에 찾아갈수 있었다.

오천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오천식 어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남기고 선자리에서 돌아섰다. 이제는 여기 와 일하기때문에 자주 들릴수 있다고 하니 녀인은 대단히 기뻐하였다.

합숙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한길에 나서서 얼마간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문득 앞을 막아서며 《강병철선생이 옳지요?》 하고 덥석 어깨를 그러안는것이였다.

《누구요, 당신은?》

흠칫 놀라며 그는 목에 감긴 팔을 뿌려던지였다.

《신창탄광 박창술입니다.》

젊은이의 말소리가 어떻게나 컸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기까지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석탄을 캐서 건국을 한다던 사람이 여기에 나타나다니.》

《그러기말입니다.》

박창술은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라한다. 주머니에서 쌈지와 종이를 꺼내면서 아무데나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한다. 려인숙이나 사무실에 갈 경황도 없다고 하였다.

길가 언덕의 돌등에 나란히 앉아 뻥뻥초에 불을 달았다.

사위는 고요한데 사택마을쪽에서는 이따금씩 박수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느 누가 또 격동적인 연설이라도 하는 모양이다.

《강선생! 나를 좀 살려주시오.》

성미가 급한 박창술은 강병철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내가 뭐 당신을 어쨌다고 그러오.》

덤볐다치는것이 재미있어 강병철은 우정 제빠듬해보인다.

《강선생이 내 목을 쥐고있지요. 사정을 들어보시우.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탄광에 돌아간지 열흘도 안돼서 쌀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건국을 잘하라고말이지요. 그런데 석탄을 캐야 건국을 하지요. 막장에서 물을 다 퍼냈는데 착암기부속이 없고 정대가 없습니다. 내가 역전려관에서 만났을 때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한테 정대를 만들어달라고요.》

《어허,이 친구 이거 생사람 잡겠다. 정대를 만들어낼수 있는가 해서 만들수 있다고 했지 언제 만들어주겠다고 했나?》

《그건 옳습니다. 그쯤했으면 그거나 저거나 같구 같지요. 강선생,여기 제련소에서도 그런 깡쇠를 만들수 있다면서요?》

박창술은 숨돌릴새 없이 몰아댄다. 그럴수록 강병철은 차츰 더 완완한 표정을 지어보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련달아 마라초 두대를 태웠다. 그러면서 그는 속구구를 해보고있었다.

여기 제련소에서는 동과 금 제련이 기본이였는데 그 기술상태는 이제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로만 성해있다면 그런 정도의 합금은 별로 어려울것이 없다. 정작 생활에 부닥치고보니 **김일성**장군님께서 자기와 같이 보잘것 없는 기술자와 마주앉으시여 강철에 대해서 론의하신 그 사연과 의의가 절박하게 안겨왔다.

《여보,탄광친구!》 하고 강병철은 잠시도 자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박창술의 어깨를 붙잡고 말을 걸었다. 《이렇게 하기요. 내가 이제 제련소를 돌아보고 의논하는것이 어떻소. 여기서는 중공강은 못만들어. 림시 대용으로 정머리를 만들어볼수는 있지.》

《그러니 결국 대답은 외상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죽으나사나 나는 정대를 가지고가야 합니다. 내가 강선생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압니까. 처음에 난 성진에 갔댔습니다. 그다음에 청진에 갔었구요. 그래도 찾을 길이 없어 평양에 갔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 건국을 하겠노라고 맹세를 올렸는데 석탄을 캐지 못하면 우린 죽은 몸이나 같습니다. 석탄을 못캐면야 탄광은 해서 뭘하며 탄부가 무슨 소용 있습니까. 강선생,우릴 도와주시오.》

《알겠소. 그러나 여보! 당신도 아다싶이 강철이라는것이 그리 간단치 않소. 더구나 공구강은 간단치 않소. 다문 한톤의 강철이라도 온 공장이 움직여야 뽑아낼수 있단말이요.》

《아하…》 박창술은 진지하게 듣고있다가 갑자기 맥빠진 소리를 지른다. 그러고나서 옹근 이틀동안 공장장 리연수를 따라다니면서 사정해보던 이야기를 하였다. 서대문감옥에서 나온지 오라지 않다는 리연수는 박창술의 청원을 첫마디에 일축해버리였다. 당신네가 석탄을 캐지 못하는 리유나 여기서 합금로를 돌리지 못하는 까닭은 갈고갈다고 하였다. 그래 박창술은 평양서 기술자가 왔다는데 그래도 안되는가 하니 그것은 더 우환거리라고 했다.

박창술은 이야기에 아지를 달지 않고 꿋꿋이 강병철을 설복하는데로 나갔다.

강병철은 박창술을 려인숙으로 돌려보내고 제련소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제련소정문에 들어선 그는 곧추 용해직장으로 나갔다. 맨처음에 합금로가 있고 그다음에는 연,동을 뽑는 로가 있었다. 어데나 모두 숨을 죽이고있다. 열풍이 불고 매캐한 류황내가 풍기던곳에 맑고 싸늘한 공기가 흐르고있다.

강병철은 이미 눈에 거친적이 있었던 대상을 새로운 의미를 담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박창술의 요구를 들어주는데는 별로 힘들것이 없었다. 로를 복구해서 돌리면 된다. 구리를 용해하던 로가 그중 많이 파괴되였다. 그것을 복구하면 구리도 뽑고 겸해서 탄광이나 광산에서도 쓸수 있고 기계절삭에도 쓸수 있는 특수합금제련도 할수 있을것이다. 한동안 쓸수 있는 정광도 있었다.

그는 로를 깐깐히 돌아보았다. 배전실은 새까맣다. 성냥불을 켜대서야 계기판이 보이였다. 다음은 로본체에 올라가 전극이며 쇠물이 새까맣게 녹아붙은 로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다음은 기중기에도 올라가보았다. 화구앞에 얼마간 서있다가 다시 한바퀴 돌았다. 어느것이나 다 기술상태가 명백한것이여서 다시 따져볼 필요가 없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었다.

강병철은 어둠이 내려덮인 로앞에서 쇠장대를 깔고 앉았다.

담배를 붙여물었다. 푸른 연기가 어둠이 깔린 로앞으로 서서히

흘러가고있다. 지난날의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언뜻언뜻 나타났다. 려순공대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철공소를 경영하는 한편 생약도매상을 겸한 아버지는 돈을 버는데 있어서는 맹수와 같이 포악하고 극성스러웠고 그것을 쓰는데 있어서는 고양이처럼 요령이 있고 이악하였다. 그런 아버지가 부산발 봉천행 특급렬차 《히까리》에 앉히면서 《네 재간껏 날아보아라.》 해서 떠난 길이 8.15까지 수난이 겹쌓인 일제에게 복무한 그 길이였다. 예로부터 중국과 함께 동방을 노리였던 침략자들이 모두 보잘것없는 하나의 항구에 그토록 큰 관심을 가지고 다투고있던 바로 그 려순거리에 발을 들여놓은것이다. 동쪽에 황금산, 서쪽에 로호미반도(늙은 범의 꼬리반도)라는것에 의해 아늑하고 온화한 물굽이가 생긴 여기에 대륙에 뻗친 일본의 촉수 관동청, 관동군사령부, 요새사령부들이 자리잡고있었다. 그 이전에는 제정로씨야가 여기를 조차해서 동방진출의 발판으로 썼었다.

바로 려순공대는 이 촉수에 앞잡이가 되고 또한 뒤수습자가 될 임무를 지닌것이였다.

지금 보면 조선사람인 강병철이 이속에서 그 무엇인가 조선적인것, 정의로운것,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악한것은 아닌것 례컨대 인간을 살륙하거나 재산을 강탈하는것이 아닌 그 무엇을 바라서 이 려순공대 교실에 앉아 수업을 했다는것은 마치 불속에서 물을 구하자고 한것과 같은 극히 어리석은짓이 아닐수 없었다.

다음은 야하다제철때의 일이 떠올랐다. 일본제국이 자기들의 강대성을 강철생산량으로 재고있을 때 야하다제철은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으며 따라서 군부의 물음에 모든것이 가능하다는 대답을 줄수 있었던것이다. 이곳 강철이 진흙이나 화강암으로 높이 쌓아올린 중국의 성벽들을 격파하였고 수많은 동남아와 태평양지역의 항구와 겨울을 모르는 열대와 아열대 거리들을 정복하게 했다. 강철수레의 동음을 타고 또 강철이 작렬하는 빛을 따라서 나가는 일본군국주의의 마수가 아시아의 거의 전부를 거머쥐였던것이다. 이 진격을 멈춰세울수 없을것 같았다. 하지만 력사는 힘겹기는 하지만 자기 궤도를 그대로 굴러서 오늘에 이르렀다.

강병철은 제낀옷의 목깃을 세우며 몸을 후두두 떨었다.

발길이 돌려지는곳마다 선량한 사람들의 피가 스민 그 땅으로 야하다강철이 자국을 찍으며 나갔다. 그 자국가운데 어느 하나는 그것이 극히 적은것이고 보잘것없는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강병철의 몫이 있었을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몸서리치는 복무도 당시의 매일매일은 극히 평범하게 아무런 고려도 주저도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였었다. 아침밥을 먹고 공장에 나가서는 상급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였으며 그때그때의 실험지수나 합성프로를 계산하면서 하루가 가고 또 다음날이 왔던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3천만이 목소리를 합쳐 저주하고 규탄하는 일제 40년간의 억압과 착취 거기에,그 저주의 대상속에 강병철이 서있게 된것이다.

온몸이 죄의식에 압착되면서 등골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다. 입술이 바삭바삭 마르고 머리가 뗑하였다.

어쨌든 어제는 려순에서 시작되였고 오늘은 이 흥남에서 시작되는것이다. 어제는 일본인들이 메워준 짐을 지고 그들이 떠미는 길로 지향도 목적도 없이 미친놈처럼 달려나갔다면 오늘은 나라는 인간의 지향이 있고 내가 선택한 길에 내 발을 들여놓는것이다.

자리에서 일어난 강병철은 로앞을 거닐기 시작했다.

본정2층집에서 만나뵈웠던 장군님,의지와 힘과 예지와 순결함을 동시에 나타내고있던 그이의 웃음,그런가 하면 똑바로 쳐다볼수 없을만큼 열정에 불타고있는 눈,그 시선은 나를 순식간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더듬어내려가면서 모든것을 꿰뚫어보는듯하였다. 하여 마치 불빛이 모든것을 드러내듯이 그이앞에서 그 무엇을 숨길수도 없었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함께 일해봅시다.》 하고 그이께서는 권고하시였으며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고 우리를 찍어서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여기를 등지고간 양춘만의 아들을 구원해주시였다. 바로 지금 내가 서있는 이 마당은 그러한 우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곳이다. 이제 어떤 시련과 난관이 이 인생의 쪽배를 어느만치 들볶아놓을지 알수 없는것이지만 어쨌든 이 숨진 금속로에 불을

지펴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헛된것 그리고 죄악적인 모든것을 불태워버리고말것이다. 그속에서 박창술의 요구도 해결될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쇠란간을 타고 땅에 내려섰다. 그때 어둠속에서 《거 누구요?》 하는 고함소리가 나면서 불을 비쳐대였다.

《나요? 난 새로 온 기삽니다.》

《기사라구요? 평양서 왔지요. …》

《예!》

그들은 서로 통성을 하고나서 간데라불을 돋구어 벽에 걸고 휴계실 걸상에 마주앉았다. 할일도 없고 잠도 오지 않아 여기서 늘 밤을 보내군한다는 최한덕은 올해 갓 50이라고 한다. 여기 제련소가 생겨서부터 슬라크도 퍼내고 배합물도 져나르는 로동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로가 멎은 다음부터는 생기가 없어지고 살아갈 재미도 없다고 하였다. 집에는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산중에 들어가 부대기를 일궈먹으면서라도 이 제련소 사지판만은 면하자고 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최한덕은 행여나 이제 좋은 세상이 올수도 있는거구 또 어느새 그렇게 되였는지 정작 떠나자고 하니 쇠물로가 그리워 훌쩍 뜰수 없어 이날저날 미루고있다고 하였다. 키가 작고 눈섭이 검고 오돌차게 생긴 로인은 성미가 매우 완강해보이였다.

《내 아까 저녁켠에 합숙에 들렸다가 우리 딸년한테 칭찬을 해줬쉐다.》

하고 설명하는 로인의 말을 들으면 떡 한접시의 사연을 잘 알수 있었다. 최한덕이 직장으로 나오던 길에 딸이 취사원으로 있는 비료공장합숙에 들렸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합숙이란 사실상 이 공장성원의 기식터이면서 동시에 새 소식을 잘 알수 있는 조화통이기도 하다는것이다. 아무때고 평양에서 무슨 소식이 있어야 공장이 다시 숨을 쉬게 될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있었다. 여러가지로 론의하던 **김일성**장군님 개선소식도 저번날 평양에서 파견원이라는 사람이 와서 회관에 모아놓고 강연을 하였는데 그때 누구보다 맨먼저 그 소식을 알게 된것도 합숙에 매일 한번씩 들리군하던 최한덕이였다. 새 사람이 나타나면 우정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찾아

가 알아보는것이다.

오늘도 역시 그런 생활습성에 의해 들렸는데 딸애가 대두박을 넘기지 못하는 평양손님이야기를 하였다. 딸애가 속을 태우다가 장마당에 나가 송편 한접시를 사다 대접했다고 하기에 《거 너 참 잘했다. 평양서 오는 손님인즉은 모두 나라를 세우자고 수고하는분들인데 끼를 넘기면 되겠느냐. 그 나라인즉은 우리 나라거든. 너 애비같이 로동하는 사람들 나라라고 하더라.》고 했다는것이다. 그런 후에 최한덕은 묻지 않는 딸이야기를 꺼내였다. 올해 스무살난 딸애는 여기 서호에서 20리 들어간 골안 지주집에 부엌데기로 있었다고 한다. 아들이라는것은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서 쇠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발가락을 다 잃고 몽둥발이 돼서 집에 누워있다고 하였다. 불우한 운명이 등나무넝쿨처럼 칭칭 감겨돌아간 최한덕이였다.

《그러니 이제 이걸 살려서 구리나 연을 뽑게 되겠수다？》

푹 꺼져들어간 눈이 강병철에게 큰 기대를 날려보내고있다.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됐구만, 됐어.》

입에 물었던 고불통을 뽑더니 성글어진 이새를 드러내놓으며 최한덕은 흐드러지게 웃었다.

최한덕은 강병철을 앞세우고 대포 한잔을 낼수 있다고 하면서 합숙 식당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제 4 장

1

김책의 방에 오기섭이 찾아들어왔다. 와이샤쯔바람인 오기섭은 쪽걸상에 앉으면서 수첩에 무엇을 적고있는 김책을 향하여 말을 걸었다.

《김책동무! 한가지 물어봅시다.》

김책은 수첩을 밀어놓고 고개를 들었는데 대번에 그의 얼굴은 팽팽해졌다. 서로 알게 된지는 오래지 않지만 매번 오다가다 길가에서 마주쳤거나 어떤 모임뒤끝에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나누군했었는데 이번에는 부러 찾아온것이다.

《김책동무, 다름이 아니라 공업전문학교 교원으로 종로에 있는 제국대학교수 안동권을 쓰려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사실이요, 한데…》

《사실이라?》 오기섭은 처량한 낯빛을 지으면서 잠간 창밖을 내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단말이요.》

김책은 자리를 떠서 오기섭이앞에 놓인 탁자를 향해 마주앉았다.

《그건 어째서 그런가요?》 이미 속심은 뻔드름한것인데 묻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그럼 들어보우.》 하고 오기섭은 번쩍번쩍 빛을 뿌리는 마드로스파이프를 염낭에서 꺼내 불을 달고나서 말을 이었다.

《난 프로레타리아식으로 솔직하고 투철한것을 좋아하오. 그래서 속심을 말하기 위해 빙빙 에둘지 않겠소. 김책동무를 함흥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성진출신이라고 하길래 나는 대단히 친근하게 생각했었소. 그런데 후에 보니까 동무는 그 누군가를 분명히 념두에 두고 좌경을 따라가지 말라, 지방주의로 나가는것은 좋지 않다

등등 귀맛이 덜한 말을 함부로 퍼뜨리고있었단말이요. 이쯤해두면 동무도 짐작이 갈것이라고 생각하오.》

일단 말을 중단하고 록록치 않게 쳐다보고있는 상대편을 위압이라도 하려는듯이 오기섭은 상체를 뒤로 젖히고 담배를 뻐금뻐금 빨고있다.

김책은 빛나는 시선으로 부자연스럽게 꾸미고있는 오기섭의 몸가짐을 지켜보고있다.

《그런데, 그런데말이요.》 오기섭은 손을 앞으로 내흔들며 계속하였다. 《좌경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경으로 달아난다면 그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난 지금 동무가 평양에 올라와서 처리해놓은 몇건의 인사문제를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요. 생각해보우. 우리 당이 채택한 정치로선에는 엄연히 일제잔재를 숙청하는것이 급선무라고 지적돼있는데 거기에 배치된다는것을 모르겠는가요?》

《어서 더 계속하시오.》

잠간 동안이 생기자 김책이 재촉하였다.

《계속 설명할거나 있소? 그거면 다요.》

《그것이면 다라?》 김책은 한껏 비틀린 오기섭의 심리를 읽으면서도 참을성있게 상대편을 존중하려고 한다. 《그것뿐이요? 나한테 말하자는것이…》

《그렇소. 그런데 철도의 한명구는 왜 그대로 국장자리에 두고있소? 벌써 내가 여러번 제기했다고 보는데.》

《오기섭동무, 그러면 나도 하나 묻기요. 한명구를 평양철도국장자리에서 뗀다고 합시다. 그대신 누구를 앉히겠소. 안을 내놓으시오. 또 안동권도 그만둡시다. 그러면 그대신 누가 교단에 서겠소. 그 대답을 당신이 해야 하지 않소.》

이마귀가 벗어져올라간 김책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하지만 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기섭은 제빠듬히 뒤로 젖힌 자세로 여유있게 대답을 하고있다.

《내 견해는 이렇소. 누구를 어디에 세우고 어디에 앉힌다 등을 론하기전에 우리가 일제의 앞잡이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것부터 결정해야 하겠단말입니다. 우리는 정

치체제에서나 경제관리에서나 문화도덕령역에서 철저히 일제잔재를 숙청해야 하잖소. 그런데 김책동무가 처리하는것을 보면 이런 원칙적 문제를 알고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단말이요.

내 이야기를 좀 듣소. 공산당선언에는 이런 구절이 있소. 계급투쟁이 결전에 가까와가는 시기에는 지배계급내부,전체 구사회내부에서의 해체과정이 극히 격렬하고 날카로운 성격을 띠는 까닭에 지배계급의 소부분이 지배계급으로부터 떨어져나와 혁명적 계급에게 가담하게 된다.

혹시 당신이 이런 구절을 본 기억이 있어서 일제에게 복무한 안동권이나 한명구를 우리의 신성한 혁명진지에 끌어들이려고 하는것같은데 그것은 큰 오산이요. 마르크스나 엥겔스의 견해는 종주국내의 문제를 념두에 둔것이기때문에 우리와 사정이 다르단말이요. 그리고 또 김책동무도 혁명은 인정이나 선심을 가지고는 하지 못한다는것쯤은 알고있겠는데…》

오기섭은 눈을 게슴츠레하니 뜨고 거의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김책을 쳐다보고있다.

약간 동안을 두었다가 김책이 입을 열었다.

《리론은 그만하고 내가 제기한것에 대답을 하오. 한명구나 안동권이 대신 누구를 앉히자는 안이 있어야 할거 아니요.》

《리론은 그만하자! 결국 리론이 필요없단 말이지. 혁명적 리론이 없이는 혁명적 실천이 있을수 없다는 레닌의 명제를 모르지 않겠는데.》 말투는 온화하였지만 한껏 가시가 돋힌 야유조였다. 김책은 그것을 예민하게 감촉하였다.

《오기섭동무! 동무는 이야기가 시작되기만 하면 인차 선행고전가들의 견해가 어떻소,또는 공산당선언이 어떻소,레닌이 어떻소 하는데 기왕 말이 났으니 어디 론의를 좀 해봅시다. 도대체 공산당선언의 어느 구절에 우리를 따라오는 지식인을 배척하라는것이 있소. 말해보시오. 누가 그랬소? 맑스요? 엥겔스요? 〈자본론〉에 있소? 〈고타강령비판〉에 있소? 빠리꼼뮨을 총화한 〈프랑스국내전쟁〉에 있소? 그것도 아니면 그래 레닌이 그랬소? 〈프로레타리아전쟁강령〉이요? 〈좌익소아병〉이요?

난 어데서도 그런것을 읽은 기억이 없소.》

여기까지 단숨에 쭉 내려엮은 김책은 숨이 차서 어깨를 들먹이였다.

뜻하지 않게 집중포화에 얻어맞은 오기섭은 눈이 퀭해졌다. 지금까지 그가 알고있었던 김책은 정열과 의지는 있었지만 지식이나 리론은 형편없이 빈곤해서 기껏해야 로씨야의 차빠예브형 군사지휘관으로나 보았었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김책은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리론이라는것이 도대체 뭐겠소. 난 리론이란 경험을 일반화한것으로 보고있소.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나 리론이 필요한가?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고있기때문에 조선혁명의 경험과 리론이 우선 필요한것이 아니겠소. 우리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조선혁명에서 지식인들이 노는 역할에 대해서 투철한 방침을 제시하시였고 광복된 오늘에도 그것을 거듭 강조하고계시오. 당신이 말하는 한명구나 안동권이 우리를 따라오겠다는데 무엇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배척해야 하는가말이요. 출신이 부유하기때문이요? 아니면 그들이 지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요? 어디 말해보우.》

오기섭은 소태를 씹은 낯을 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인차 그는 웃는 낯을 지으며 담배를 또 붙여문다. 리론을 가지고 론쟁하자는것은 무섭지 않은데 상대편에 겉보기와 전혀 다른점이 있기때문에 이제 어떤 방패를 내들게 되겠는지 또 어떤 검으로 내리치게 되겠는지 몰라 망설이고있는중이였다.

김책은 어성을 높이였다.

《당신 주장대로 하면 일제잔재가 없어질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동시에 혁명도 없어진단말이요. 구경에는 혁명을 포기하자는 주장이요.》

《혁명을 포기한다? 여보! 동무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있는지 모르지 않겠지. 중앙조직위원회 제2비서가 동무에게 지금 사업상충고를 하고있단말이요.》 순간에 론리로부터 직권으로 바꾸어버린 그는 야릇한 감정에 잠겨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하였다.

《방금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어제오늘 처음 느낀것이 아니라 동무가 함흥에 처음 나타났을 때부터 감촉했던거요. 그래 동지호상간에 이런 말도 못한다면야 여기에 무슨 조직이 있고 동지적 의리가 있소.》
오기섭은 얼굴이 뻘겋게 되여 점점 더 도고해진다.
그럴수록 김책은 더 완강해진다.
《동지호상간이라니까 듣기는 좋소. 그렇지만 함남의 그 틀이 앞으로 당사업발전에 큰 지장을 줄것 같아 미리 말해두오.》
격분한 김책은 방안을 왔다갔다하다가 다시 오기섭이 앞에 멈춰서서 두손을 내밀었다.
《어서 내놓소. 철도를 운영할 사람, 교단에 설 사람을. 당신이 훌륭하다고 보는 사람을 다 내놓으란말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있던 오기섭이 떨리는 목소리를 내였다.
《너무 과격하니까 말이나 해보겠소. 내 의견이 그렇다는것인데 접수안되면 좋구.》
《당신이 지금 당장에 내놓을 사람이 없지 않소. 그러니 있는 사람을 쓰자는것인데 뭐가 못마땅해서 그러오. 더 할말이 있소? 난 공업전문학교에 나가봐야겠소.》
그때 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군님께서 오기섭을 부른다고 좌현이가 알리였다.
오기섭은 요행 잘되였다는 식으로 가볍게 자리를 떠서 문밖으로 사라졌다.
벌써 밤 10시가 오래지 않았다. 담화는 무려 3시간이상이나 계속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창문을 등지고 앉으시고 그 오른쪽옆에 오기섭이 앉아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이께서는 먼저 얼마전에 열리였던 정치공작원들의 모임에서 론의된 인재문제와 관련한 실태를 설명하시고 그에 따라 지식인들과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데 대해서 말씀하시였다.
《오기섭동무는 현재 우리 나라에 있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맡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건국사업에 지식을 가지

고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나 다 장악하시오.》

《일제에게 복무한 경력여하에 관계없이말입니까?》

오기섭은 약간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은근한 말투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이의 대답은 단호하였다. 《우리는 이미 각 도당과 지방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에게 일제때 일하던 기술자, 전문가들도 모두 포섭할데 대한 과업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낡은 지식인들을 다 쟁취할뿐아니라 새 인재들도 키우려고 합니다. 인재문제는 결국 우리의 손으로 새롭게 키워내는데 의해서만 종국적으로 해결될것입니다. 그 첫 사업으로서 얼마전에 김책동무가 담당한 공업전문학교 개교준비가 현재 순조롭게 진척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대학도 곧 내와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이 끝나자 오기섭은 대뜸 의아한 눈길로 그이를 쳐다보며 《대학을 북조선에 내온단 말씀입니까?》 하고 놀란 소리를 하였다.

《그렇습니다.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형편에서는 한 1년정도 걸리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오기섭은 다시 놀라운 표정을 보이며 《1년입니까?》 하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왜, 너무 늦다는것입니까?》 미소를 띠시며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와 반대입니다.》 오기섭은 너그럽게 웃으시는 그이를 쳐다보며 뒤를 이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고등교육이란 보통교육을 적어도 10년이상 앞세우고 그다음에 시작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뒤를 채 맺지 않고 흐리마리해버리자 그이께서 즉시에 대답하시였다.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만해도 너무나 멀리 뒤떨어졌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보통교육도 하고 고등교육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시간 론의한뒤에 얻게 된 결론이 인재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해봅시다. 될수 있을것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것

이 문제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하고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2

오기섭이 돌아간지 얼마 안되였는데 부엌문소리가 덜컥 났다. 박원식이 들어왔다.
《아니 왜 그새 꿈쩍안했어요.》 하는 안명숙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였다.
《요 우리 필남이가 막 속상해 혼났는데. 그런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이예요.》
《석탄 구하러 사동탄광에 갔었소.》
그때 방안에서 《거 박원식동무가 아니요?》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박원식은 부엌에 들어섰다는것이 좀 어색하여 인차 대답을 못하는데 사이문이 쩍 열리며 **김일성**동지께서 내다보시였다.
《마침 잘 만났소. 그새 동무의 소식이 궁금해서 오늘밤에 역전에 있는 학교에 들렸다가 만나자던 참이요. 어서 올라오우. 안동무가 비지를 잘 끓였소. 어서.》
《제 밥은 기관구에 있습니다.》
《어서!》
이렇게 되여 박원식은 오래간만에 **김일성**동지와 마주앉게 되였다.
《군복만 보다가 그런 옷을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오. 한다하는 신사요.》
박원식이 제낀옷에 넥타이를 맨것을 보고 웃으며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입으니 다 풀어헤친것처럼 허전합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언제까지나 군복만 입고 살순 없지 않소. 이렇게 하다가 필요하면 또 입으면 되니까.》
그이께서 박원식을 만나자고 하신것은 철도문제를 푸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만 못지 않게 바쁜것이 강선에 있던 양춘만을 찾아보라고 하신것이다. 박원식이 몇군데 줄을 놓아 알아보았지만 평양근방이나 고향인 룡강이나 증산근방에는 있을만한데가 없었다. 결국 그이께서 이미 예측하신대로 38선을 넘어 서울로 갔으리라는것이 거의 확정적이였다. 때문에 며칠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하던 일을 빨리 수습하고 서울에 한번 갔다와야 하잖겠소.》 하고 박원식의 의견을 물으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이런 경우에 언제나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용무와 그 의의를 충분히 납득시켜 당사자가 스스로 행동방향을 결정하도록 하시는것이였다. 박원식은 이때 《서울에 갔다오자면 하루나 이틀에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 사동에 가서 기관차 연료를 얼마간 해결해놓고 떠날가 합니다.》 하고 말씀드리였다.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찬성하시였다. 그래 사동탄광에 가보니 막장에 물이 차고 권양기는 모터의 습기때문에 돌아가지 못하였다. 하는수없이 박원식은 로동자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뽐프를 뜯어올리고 권양기모터는 목탄불에 말리게 하였다. 이제 한 열흘안으로 탄을 실어내다가 알탄공장에 넣어 뻬찌로 빚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겨울연료는 얼마간 해결될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동무의 눈자위가 그 모양이겠소.》

박원식은 제딴에 웃음을 터뜨리였다.

《비누로 암만 닦아도 지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이걸 안경꼈다고 하는데 한 3년 탄일을 해봐야 미립이 터서 말끔히 지워낼수 있답니다. 하긴 몸에 석탄이 뱄다가 몇해동안은 그것이 계속 나온다고도 합니다.》

《알만하오. 그런데 철도국장동무는 어떻게 하고있소?》

《아직도 자기는 국장노릇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간데마다 꽥꽥 소리만 치는데 로동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쩍하면 〈당신이 우리한테 로임을 줬소 쌀배급을 줬소, 왜정때 십장처럼 왝왝 소래기만 치면서〉 이런 식입니다.》

《바로 그래서 거기에 동무가 필요한거요. 그 동무한테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이 어떻게 군중과의 사업을 했는가 알려주시오. 열

번, 백번, 천번이라도 해설하고 설복해서 군중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해야 합니다. 어데서나 실태는 모두 그렇소. 최현동무, 김일동무, 류경수동무들이 그새 통신을 보내왔는데 실정은 모두 어슷비슷합니다. 잘 도와주시오. 그래서 한몫하는 일군으로 키웁시다.》

그이께서는 계속하여 현시기 우리가 겪고있는 난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였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면 승리하는것이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군중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고 하시였다. 식량문제도 역시 그렇다. 현재 어데서나 식량을 무져놓고 가져가라는데가 없다. 돈도 없고 돈이 있다 해도 살데가 없는 형편이다.

일제때는 조선에 만주식량을 많이 들여왔었는데 지금 거기는 지난 8월에 있은 몇십년래 보기 드문 대홍수로 해서 대부분 지방이 물에 잠겨 흉년이 들었다. 다른데서도 전후에 의례히 있게 되는 기아시기에 들어서서 아우성이다.

조선총독부에서 패망직전에 조선의 식량사정을 추산한데 의하면 전라남북도, 황해도, 충청남도 즉 이 4개 도를 제외한 9개 도는 완전히 기근지대로 될것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의 난관은 처창즈를 련상케 한다, 동무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북부산간지대 특히 탄광, 광산은 벌써 굶는 사람이 많이 나지고있다, 이제 황해도, 평안도 지방에서 성출미가 나오게 된다, 정치일군들을 파견해서 농민들에게 호소했더니 얼마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탄광, 광산에 먼저 넣기로 하였다, 철도에서는 이제 황해도에 가서 쌀을 실어와야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런 식으로 단 한명의 유격대출신 일군앞에서가 아니라 어느 큰 회의에서 정중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듯이 그렇게 박원식을 상대로 친절하고 진지하게 말씀하시였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동지!》

박원식은 자세를 바로하며 군대식으로 대답을 올리였다.

《그건 그렇고 어서 많이 드시오.》

이야기를 하는동안 박원식은 단정히 앉아 듣기만 했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에 놓았던 일감을 집어드시였다. 《정로》

창간호에 낼 사설 교정지였다. 연필을 드신 그이께서는 줄줄이 더듬어가며 오자를 바로잡기도 하시고 어떤데서는 대폭수정도 하시였다. 그다음에는 전체 조선의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초고를 펼치시였다. 광복후 몇달동안에 청년단체가 여러개 나왔었다. 그런데 청년들의 력량이 여러갈래로 분산된채로 있다는것은 큰 정치적손실을 가져올수 있었다. 그래 청년들을 하나의 조직에 집결되도록 호소하시려는것이다.

박원식은 상머리에 다가앉으며 비지그릇을 앞으로 당겨놓았다. 두툼한 입술을 한번 감빨고나서 그는 양념보시기에 숟갈을 넣어 고추와 마늘을 다지고 기름을 뗘군것을 걸쌩걸쌩 저어서 비지우에 쭉 발랐다. 좁쌀이 반나마 섞인 밥을 꾹꾹 눌러서 듬뿍 뜨고 그다음에 비지를 가져갔다. 박원식은 밥을 퍼내서 비지에 버무렸다. 잠간사이에 그릇을 다 비워버렸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우정 체면을 차리거나 사양을 하는것이 아니라 권하는 사람이 흡족하도록 하는데 습관되여있었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나 먹는데서는 식성껏 먹고 일하는 마당에서는 정열에 넘쳐 힘차게 일하는것을 좋아하시였던것이다.

박원식이 숭늉을 마시고나자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래 서울에 가면 양춘만기사를 만날수 있을것 같습니까?》

《있기만 하면 만날수 있습니다. 서울장안이 아무리 복잡하다해도 밀림속에서 부대가 지나간 흔적을 찾는것만이야 하겠습니까.》

박원식은 코날이 덩실한 얼굴을 들었다.

《그러나 무턱대고 헤매서는 끝이 없잖겠소.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양춘만의 처와 친척을 통해서 약간한 실마리는 쥐였습니다. 외삼촌벌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보통학교때 은사가 있다고 합니다. 양춘만은 떠나기전에 그 오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대상을 찍어서 찾아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것은 남쪽에 있는 지식인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들이 한데 모여있을수도 있고 그들이 통하는 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속에 양

춘만이도 있을것입니다. 양춘만을 찾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남조선에 있는 지식인들의 일반적 동향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떠나기전에 김책동무와 토론하시오. 이전에 변호사를 한 허헌이란 사람도 김책동무가 잘 압니다. 김책동무는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와 그 집에서 로비를 보태주어 우리를 찾아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어학자이고 작가인 홍명희라든가 화학자인 리영기도 이름이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난관은 양춘만을 만난 다음입니다. 필경 양춘만은 〈나는 당신네를 따라갈수 없소.〉 이렇게 나올수 있습니다. 박원식동무! 이런 정황을 예견해야 합니다.》

《사령관동지! 십중팔구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나기만 하면 놓쳐버릴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양춘만을 찾는것은 그를 강철을 생산하기 위한 하나의 촉매제처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인을 배척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영원히 같이 갈 동행자로 보고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동행자를 위해 피치 못할 희생도 각오해야 합니다. 지금 그 가정을 보시오. 현재 그 가정은 뒤죽박죽입니다. 모두다 광복을 맞아 기쁨에 넘쳤는데 그 모양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만나면 저번날 우리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다 전하시오. 그것이 동무의 임무입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제발로 걸어오게 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육신은 우리한테 오는데 정신은 딴데 가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언제나 사려가 깊고 침착하면서도 여유가 있던 박원식이였지만 이때만은 매우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앞을 정시하였다.

계속해서 박원식은 그동안 강선에 있는 리만석을 만나 서울에 같이 갔다올것을 의논했는데 과히 구차하지 않을 정도로 신사옷이랑 준비했다는것을 말씀올리였다.

《양복쟁이신사차림을 하겠소?》

그이께서 웃으시였다.

《봐가다가 그래볼가 합니다.》

《하긴 이전에 동무는 무송현성전투때 척후대로 들어갔던 일이 있었지. 그때 헌병대 장교로 변장했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사군으로 돼볼가 생각합니다.》

《좋도록 하시오. 다시 만날것 같지 않습니다. 잘 갔다오오. 건강에 주의하시오.》

박원식은 발을 모으고 서서 정중히 경례를 올리였다.

그이께서 밖에 나서시자 김좌현은 보자기를 싸들고 벌써부터 기다리고있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났다. 《땅땅땅》 총소리도 내고 무엇을 왜깍재깍 부시는 소리도 났다.

안명숙이 아이들을 쫓고있다.

《꼬마동무들! 이러면 안됩니다. 꽃나무를 부러뜨리고 화분을 마스면 안되지요. 용성이, 인동이! 여기로 다 나오세요.》

대여섯살짜리 사내애들이 군사놀이를 하고있었다. 《적》이 이 안마당으로 들이뛰자 추격전을 벌린것인데 그통에 수도가에 놓았던 화분이 넘어지고 쑥국화가지도 부러졌던것이다.

《아줌마! 권총 어떻게 했나?》

그중 키가 꺽둑한 인동이가 화분을 옮겨놓고있는 안명숙에게 손을 내대였다.

《권총?》

그제서야 생각이 나서 안명숙은 부엌에 있는 필남이에게 물었다.

《박원식동무가 애들하구 저번날 약속했다는데 그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난 몰라요. 놀이감을 깎고있을새가 어데 있을라구요.》

박원식이 마당에 나서자 안명숙에게 붙잡혔던 조무래기들이 와야 하고 달려들었다.

《아저씨 왔다!》

《아저씨, 총!》

《총 주세요!》

아이들이 박원식의 량팔을 붙잡기도 하고 가방에 매달리기도 하였다.

그 광경을 대견하게 바라보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껄껄 웃으시였다.

《저 동무는 산에 있을 때도 마을에 들리기만 하면 아이들과 저렇게 인차 친해졌댔소. 그래 아동단대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지.》

뽐프장에서 물을 푸고있던 안명숙이도 손을 멈추고 평양에 온 날부터 박동무뒤에는 아이들이 줄줄 따라다닌다고 하였다.

박원식은 전투가방에서 나무로 깎은 권총 2개를 꺼내주면서 그새 탄광에 가있어서 약속한대로 못만들었다고 사정을 하였다.

아이들은 총을 받아들고 와야 환성을 질렀다. 그런데 이마가 쑥 나오고 찌드럭군으로 알려진 인동이만은 딱딱 소리가 나게 몇번 쏴보더니 《아저씨, 이런거 말구.》 하고 머리를 흔들었다.

인동이는 코를 훌쩍 들이긋고나서 박원식이 앞으로 총을 내대며 말하였다.

《땅땅땅땅 자꾸 나가는거 해준다구 하구선 힝.》

《그건 못해. 고무줄루는 못한다니까.》

《아니야. 해달라. 아저씨, 자꾸자꾸 나가는거, 응야.》

《하! 이런 성화라구야. 이러면 되잖니.》 박원식은 고무줄이 달린 격침을 당겨놓고 방아쇠를 당기였다. 《딱!》 하고 소리가 났다. 《이렇게 자꾸 하면 련발이지 뭐냐. 이것 가지구두 적을 얼마든지 잡을수 있다. 자!》

그러나 인동이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투정을 계속하였다.

《땅땅땅땅 하는거, 아저씨 힝, 아저씨.》

소매자락을 잡고 대구 몸을 흔든다. 성화에 못이겨 절절매는 것을 보신 **김일성**동지께서 몇걸음 나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원식이한테서 장난감총을 받아들고 이모저모 유심히 뜯어보시였다. 참대로 만든 총신도 그럴듯하고 격침에는 탄력이 센 고무줄을 달아 당겼다 놓으면 요란한 소리가 났다. 총가목에는 라크칠을 해서 번들거렸고 손잡이는 정교하게 격자무늬로 홈까지 파서 제법 모양이 그럴듯하였다. 그이께서는 총을 빙글빙글 돌려보시다가 《이안에 용수철이나 태엽장치같은것을 해서 돌아가게는 할수 없을가?》 하고 물으시였다.

《될수는 있겠는데 품이 좀 들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했으면 해줘야지.》
이렇게 되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장군님 두리로 모여들었다.
《련발총 만들어주세요, 네!》
《자! 그만하자요. 인동이! 이럼 안됩니다. 물러서라요.》
박원식은 장군님의 옷자락에 매달린 인동이를 떼놓으며 타일렀다.
《아저씨가 만들어주겠어요.》
《야! 만들어주겠대. 좋다!》
《아저씨! 나 곰!》
《난 토끼!》
《응! 다 만들어준다.》
《만세!》
《땅 땅 땅!》
인동이가 앞서고 뒤따라 대여섯명의 고또래 아이들이 깡충깡충 뛰여 골목으로 사라진다.
《좋은 때로군.》 하고 그이께서는 박원식을 쳐다보시였다. 《박동무는 무기공급을 든든히 책임진 셈이요. 하하하.》
그때 마당에까지 나서서 박원식을 어떻게 하나 붙잡아야겠다고 기회만 노리고있던 안명숙이 고개를 갸웃해보이였다.
《좌현동무! 빨리 떠나요. 나 박동무와 뭐 좀 토론할게 있어요.》
안명숙은 부엌문짬으로 내다보고있는 필남이의 눈치를 보면서 박원식에게 자연스럽게 암시를 하였다. 그렇게 되자 익살이 심한 좌현이 박원식에게 주먹을 흔들어보이였다.
《솔직히 실토해야지 없소.》
좌현이는 장군님을 모시고 본정거리를 가로질러 류정으로 빠져나왔다. 좀 에돌기는 하지만 그 길이 덜 복잡하고 또 장군님께서는 시민들의 생활을 잘 료해하실수 있는데로 가자고 하시던 뜻에도 맞을것이였다.

3

대동강을 옆에 낀 류정은 말그대로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졌고 아득히 휘여돌아간 강뚝에는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앉았다. 아직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김장감이 벌써 선창에 한벌 깔려있었다. 무우, 배추, 장작, 독, 단지들, 어쨌든간에 겨울차비를 위한 토산물들이 련이어 배에 실려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물건값이라든가 그 물건의 출처와 수송수단 같은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묻기도 하시고 또 물건을 만져보기도 하시였다. 그러다보니 강기슭에서 심상소학교자리로 들어서시게 되였을무렵에는 밤이 퍽 깊었다.

별로 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제볼장을 다 보는 좌현이는 어둑컴컴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넌지시 말씀을 올리였다.

《사령관동지!》

하고 부르고나서 그는 잠시 망설이였다.

《뭐요?》

재촉이 있어서야 그는 겨우 첫마디를 내떼였다.

《뭐 한가지 물어볼것이 있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무심히 들어넘기는것 같았는데 인차 걸음을 멈추시고 주저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였다.

《이건 참 좀 어색합니다.》

좌현이는 낯이 화끈 달아나서 고개를 가로들고 입술만 씹고있다.

《하하, 이건 정말 김좌현이답지 않은데, 응. 뭐가 어색하오. 대담성은 전투에만 필요한것이 아니요.》

이렇게 롱담으로 전환되자 좌현이는 용기를 내여 입을 열게 되였다.

《우리 인민혁명군대원들가운데서 지금 사랑이요 애정이요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걸 어떻게 봐야 하겠는지 해서 그럽니다.》

《사랑? 애정?》

그이께서도 자못 놀라며 반문하시였다. 그것은 새삼스럽기도 하고 뜻밖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떻다는거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이 문제로 된적이야 없잖소.》

《그저 그렇습니다.》

《그저 그럴수야 있소. 무슨 일이 생겼기에 동무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거겠지.》

《전 뭐 아직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좌현이는 차라리 민망스러운대로 낱낱이 털어놓기로 하였다. 지금 당장 문제로 된것은 철도국에 파견된 박원식이라 하였다. 박원식은 벌써 한달전에 양복을 맡기러 다니다가 그 집 처녀와 눈이 맞았는데 벌써 정이 흠뻑 든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어간에는 식당에 있는 안명숙동무가 얼마간 역할이 있는것 같다고 하였다. 안명숙의 말에 의하면 제꺽 잔치를 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여도 별일 없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뭐가 어떻다는거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츰 더 갈피를 잡을수 없게 되시였다. 처녀총각사이에 애정이 있다면 결혼을 하면 되는것인데 그것을 두고 물어본다든지 또 어색하다든지 하는 까닭을 도무지 리해하실수 없었다.

《며칠전에 제가 김책동지한테 약간 비쳤다가 생넋이 떨어졌습니다.》

좌현은 얼마간 대담해져서 자신있게 뒤말을 이어대였다.

《제가 〈김책동지! 저 철도에 나가있는 박원식동무 있잖습니까. 그 동무 장가를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하니까 〈장가?〉 하고 한참이나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김책동지의 시선은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지 않았는가 하고 묻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대로 나는 〈박원식이가 처녀를 하나 봐둔게 있는데 인물도 좋고 이제는 정이 푹 들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이 푹 들었다?〉 하고 또 반문했습니다. 나는 그때 김책동지의 눈길을 보고 아이

쿠 틀렸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대로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기다리는데 〈우선 동무부터 이 머리가 떨떨하단말이야. 지금 어느 땐데 그런 말을 들고다녀.〉 하잖겠습니까. 단방에 얼이 빠져 나는 고개를 푹 떨구고 서있었습니다. 김책동지는 정색해서 〈우리가 산에서 총을 멜 때 어떻게 맹세했는가. 나라를 찾기전에는 총을 놓을수 없고 행군을 멈출수 없다고 했지. 지금 이 땅에서 왜놈들이 달아났을뿐이지 우리가 할 일이 오죽 많은가. 그거나마 우리 3천리가 두동강이 나지 않았는가. 당을 강화해야지, 정권을 세워야지, 군대도 더 늘여야지, 인민들을 먹여살려야지, 그래서 사령관동지께서는 하루에 한시간도 류하나마나 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뒤에서는 어쨌어, 사랑? 가정?〉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만 듣고만있다가 내가 〈김책동지는 이미 그런것을 지내보냈으니까 무관심하지만 우리 청년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하니까 〈그 말은 옳소.〉 하고 빙긋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원식이 지금 몇살이던가?〉 해서 〈30입니다.〉 하니 〈30? 벌써?〉하고 눈이 둥그래집디다. 〈좌현이, 넌 몇이야.〉해서 나도 그렇다고 하니 〈아이구나, 모두 늦었구나. 세월이 이렇게 갔나.〉 하고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도 나중에는 좀 심각해지시였다. 그렇지, 놀랄만큼 시간이 흘렀었지. 처음에 유격대에 입대하던 그들은 모두 스무살되나마나한 애숭이였지. 한데 지금은 서른이 되였다. 선자리에서 10년이라는, 그것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이 순간에 흘러가는듯한 느낌이 드시였다.

골목을 또 하나 돌아설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다가 심상소학교마당에 들어서시게 되자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래 나한테 묻자는것은 도대체 무엇이였소? 사랑은 벌써 이루어졌으니 된것이고 김책동무도 그쯤하면 반대가 없는것이 아니요? 문제는 결혼식이 아니겠소. 말그대로 식은 식이니까 식을 차려야지.》

《그렇습니까?》

좌현이는 어깨를 솟구며 놀라는데 그 말소리가 너무나 커서 장군님께서도 같이 놀라실 지경이였다.

《사령관동지! 그렇지만말입니다, 어쩐지 좀 쑥스러운 생각

이 듭니다. 조국에 돌아와서 3개월도 되나마나해서말입니다. 그러고보면 김책동지의 말도 노상 지나치다고만 볼수 없잖습니까.》

《하긴 그렇소. 그러나 사랑을 하면 혁명성이 더 강해지고 애국심도 더 생길것이 아니요. 우리가 10여년동안 무엇에 의지해서 이날까지 견뎌왔는가. 그건 동무도 잘 알지 않소. 부모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고 정든 사람들을 사랑했기때문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눈구뎅이속에서도 얼어죽지 않았고 풀뿌리로 창자를 채우고도 살아난것이 아니겠소.》

그이께서는 좌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나직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박원식에게 가정을 가지도록 도와줍시다. 그런데 처녀는 어데 있소?》

《처녀말입니까? 아까도 부엌에서 비지를 끓이고있잖았습니까.》

《양복방처녀?》

《옳습니다.》

《그래서 그 동무가 옷을 지을 일이 있으면 나래가 돋혀서 달려가군했었구만.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운동장 저쪽 미루나무 있는데까지 울려갔다.

잠시동안 묵묵히 걷기만 하시였다. 그러다가 그이께서는 모자채양을 밀어올리고 한걸음 뒤떨어진 좌현이가 따라서기를 기다리시였다가 말씀하시였다.

《나는 오늘아침 일력장을 번지다가 문득 차광수동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였소. 오늘이 그가 희생된 날이요. 1932년이였소. 동무는 아마 차동무를 보지 못했을거요. 안경을 끼고 얼굴이 둥글둥글했는데 생김새처럼 성격이 원만하고 열정적이였소. 조선인민혁명군 첫 참모장이였던 그는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전혀 그런 내색이 없이 떠나갔소. 돈화에서 적들과의 조우전에서 전사했소. 나는 그가 우리곁을 떠난후에 두고두고 후회하는것이 하나 있소. 그것은 그한테 애인이 있었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어데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소. 후에 알아보았는데 돈화인지 녕안인지 알수 없었소. 그래서 우리는 그후

부터 누구에 대해서건 애정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대하게 되였소. 그래서…》

길바닥에 널판을 무져놓아 그것을 에돌아야 했기때문에 잠간 말씀이 중단되였다. 그러나 평탄한 학교마당에 들어섰는데도 그이께서는 뒤를 이어대지 않으시였다. 말을 떼고보니 생각이 더 깊어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격정에 젖어든듯하시였다.

공사장은 조용하였다. 그이께서는 여기에 자리를 정하신 그때부터 벌써 다섯차례나 찾아오시였다. 몇번은 집무실에서 곧추 나오시였고 또 몇번은 어데로 오가던길에 들리시였다. 운동장도 고르롭게 닦아놓았고 둘레에 쌓였던 담장도 다시 손질해서 외형부터 멀쑥해졌다. 현관앞에 모래무지와 널판자 쌓은것이 있었는데 그것만 들어내면 손댈것이 거의 없었다. 그이께서는 한쪽에서부터 방방을 다 돌아보시였다. 어떤 방은 천정을 다시 바른데도 있고 어떤 방은 칸을 터쳐 넓힌데도 있었다. 교실에는 칠을 금방 해서 라크내가 풍기는 책상걸상들이 놓이고 칠판도 걸렸다. 칠판마다에는 지우개도 있었고 교탁에는 지시봉과 분필도 새것이 놓여있었다. 어제 김책에게 오늘쯤 미리 나가보지 않겠는가고 했을 때 아직 멀고멀었다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동안 몹시 서둘렀고 또 그러면서도 얼마나 깐깐히 준비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었다. 무슨 일이나 일단 손을 대면 다시 손이 가지 않도록 만드는 김책의 솜씨가 여기에서도 잘 나타나있었다. 목공과 미장공을 몇명 도움 받고는 자재와 로력은 모두 김책이 사회적 동원으로 해결하였다. 앞서 개교한 로농정치학교 학생들과 시청년동맹의 지원도 받았다.

남쪽끝에서부터 칸칸을 톺아나가시는데 맨 북쪽칸에 불빛이 내비치였다. 누가 야간작업을 하는것이 아닌가고 보시는데 간데라불을 켜고 무슨 사람이 둘이 앉아 이야기를 한창 하고있었다. 방에는 무슨 책인지 한쪽에 가득 무져있고 그옆에 앉아 책을 들어 내흔들며 말을 주고받는다.

《사령관동지! 이쪽에 앉은것이 김책동집니다.》

좌현이 먼저 알아보고 목청을 누르며 알려드리였다.

《김책이?》

아닌게아니라 김책이였다. 문께로 뻗쳤던 손을 내리우고 그이께서는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자고 하시였다. 김책의 말은 똑똑히 들리였지만 맞은켠에 앉은 넥타이신사의 말은 너무 가늘어 도간도간 한마디씩 겨우 알아들을수 있었다.

《글쎄 선생님이 애국심을 가지고 이 책을 학교에 희사한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그러나 더 좋기는 선생님이 직접 교단에 나서서 교수를 하시는것입니다. 글쎄 건강관계라고 하는데 건강이 좋을 때는 나오고 나쁠 때는 못나오고 그래도 좋습니다. 한달에 가다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이 책도 요구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교단에 서주실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은 이전에 모두 헐벗고 굶주린 무산자들입니다. 그들은 선생이라기보다 자기네 부모들처럼 그렇게 인정이 있고 너그러운 그런 교원을 바라고있습니다. 선생은 꼭 그렇게 하실수 있는 실력과 인품을 가지고있습니다.》

《가만 들으니까 무산자요 뭐요 하는걸 보면 저더러 정치에 가담하라는것 같은데 그건 못합니다. 명실공히 과학기술은 자기의 법칙이 있고 그 어떤 정치리념에 의해 좌우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빈약한 저음인데다 어느 정도 갈증까지 느껴서인지 간신히 알아들을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오른쪽 복도를 거쳐 뒤마당으로 나오시였다. 서로 오가는 말을 통해서 앞서 무엇이 론의되였고 뒤가 어떻게 결속되겠는지 명백하였다. 뒤울안에는 창고가 있고 온실로 꾸리려고 골조만을 세웠다. 얼마간 뒤떨어져 나온 좌현이가 담화가 지금 신통치 않게 번져간다고 걱정을 하였다.

《김책동지의 말이 나는 공산주의자라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더러 공산주의공업학을 배워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니 저편에서 화를 내면서 〈그것이 진정입니까? 정치와 관계없는 과학을 하라고요? 내앞에서 외교하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아무 응대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체육기재가 쌓인 창고를 돌아보시였다.

《어떻소! 동무 보기엔 이만하면 우리가 기술인재를 양성하

는 첫 걸음을 내뗄만 하지 않소? 첫술에 배부르지야 않겠지. 그만 하고 갑시다. 김책동무는 일단 시작했으니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거요. 우리가 끼여들면 더 어색해질수도 있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역전거리쪽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면서 마당 한켠으로 나서시였다. 그때 《왱가당》 하고 쇠붙이를 메치는 소리가 났다. 흠칫 걸음을 멈추고 어둠이 짙게 깔린 앞을 내다보시였다. 또 한번 같은 소리가 반복되더니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였다. 《와! 와!》 소를 멈춰세우는 소리가 나더니 《애야, 곡괭이를 실었댔니?》 하는 거쉰 소리가 난후에 《내가 메고 온걸요.》 하는 애된 대답소리가 울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적기가 나는쪽으로 다가가시였다.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하고 물으시자 땅바닥에서 통나무를 옮겨놓고있던 사나이가 대답하였다.

《작업이라고 할만한것이 못됩니다. 철봉대를 몇개 세워볼가 해서요.》

《철봉대를요?》 그이께서는 힘에 부쳐 질질 끌리는 통나무를 맞들어 옮겨놓으면서 다시 물으시였다. 《왜 이걸 한밤중에 합니까. 래일 밝아서 해도 늦지는 않겠는데요.》

《소문없이 제꺽 해치우자는거웨다. 남보는데서 하기가 거북해서요.》 50에 가까운 중년사나이는 웃도리를 벗어서 달구지판자우에 훌쩍 던지더니 《야 창길아, 그쯤에 구뎅이를 파라. 난 여기서 기둥을 마를테니까.》 하며 톱을 들고 돌아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좌현에게 우리들도 같이 땅을 파보지 않겠는가고 하시였다.

《하! 이거 뭐 그만두시우. 우리 부자간이 잠간이면 세울수 있는데요.》

성미가 괄괄한 사나이는 약삭바르게 생긴 아들에게 기둥그루를 깊이 파라는것과 묻을 때 돌을 처넣을터이니 돌을 주어오라고 하면서 걸싸게 톱질을 하였다. 곡괭이로 찍고 삽으로 파제끼고 하였다. 깔목을 놓을것을 가늠해서 길죽한 구뎅이를 하나 다 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열대여섯살 난 소년과 한패가 되여 파고 좌

현이는 혼자서 맞은편에 또 같은것을 팠다. 이마에 땀이 솟고 몸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덜커덕하고 잘리워 떨어진 통나무대가리를 발로 차굴리면서 사나이가 삽질을 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의 팔을 잡으며 말하였다.

《기성회선생님! 그만하시우다. 이래뵈두 첨 하는분들은 힘이 듭지요.》

사나이는 학교에 나타나는 손님들모두를 기성회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통나무를 깔고 **김일성**동지께서 앉으신 맞은켠에 앉아 땀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물으시였다.

《이 좋은 일을 왜 남모르게 하자고 그럽니까?》

《하긴 우리 사정을 모르시니까. 난 저 철도기관구에서 보이라를 고치는 로동자야요. 요새 소문을 들으니까 로동자 자식도 공부하는 전문학교가 나온다기에 여기 기성회에 찾아갔지요. 그러니 보통학교를 다녔으면 입학할수 있다면서 이름을 적어둡디다. 그래 그 은공을 갚자구 두루 생각하다 이걸 생각해냈수다. 우리야 돈이 있어 기부를 하겠나요 물자가 있어 희사를 하겠나요. 그래 기관구어방에서 굴러다니는걸 주어다가 철봉대라두 몇개 세워주자구요. 그러니 이걸 소문낼수나 있나요.》

《하아, 그렇습니까.》

몇마디 말로써 온갖 사연을 낱낱이 토로해버리는 투명한 성격이 대번에 마음을 끌었다. 그이께서는 《그렇군요.》 하고 다시 한번 감탄하시면서 가치담배를 권하시였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라초가 제격이지요.》

그이께서는 담배가치를 한사코 쥐여주시며 좋지 못한것이지만 피워보라고 하시였다. 사나이가 어쩌는수없이 담배를 받아쥐자 그이께서는 성냥을 드윽 그어 대주시였다. 성냥불은 순간에 어둠을 밀어제끼고 마주앉은 두리를 환하게 비치였다.

《아, 이거 불까지.》

하면서 사나이는 황급히 이쪽을 쳐다보면서 허리를 굽히였다. 그러다가 《어?》 하고 몸을 움츠리면서 입에 물었던 담배가치

를 움켜쥐였다.

《아니 이런！》 성냥가치는 거지반 타고있는데 사나이는 무릎을 짚고 벌떡 일어난다. 《장군님이 아니십니까！ 아니？ 장군님께서…》

그는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한다.

《앉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이께서는 성냥을 또 한가치 그으시였다. 하는수없이 사나이는 불을 달고 한참만에야 큰 숨을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였다.

《글쎄 처음부터 목소리가 어쩐지 귀에 익다하면서도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번때 모란봉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가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황송합니다. 저의 이름은 리윤봉이라고 합니다. 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니 나같은 로동자 자식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얘 창길아！ 얼른 이리와 인사를 올려라.》

사나이는 좌현이와 이야기를 하고있는 아들을 불러 인사를 시켰다.

《저게 글쎄 먹지 못해 입지 못해 비들비들하던것이 이제 공부를 해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길구짧은것은 대보아야 안다는 격으루 냅다 몰아쳐보기는 하겠는데요.》

수염이 텁수룩한 입으로 기다란 연기가 훌훌 나간다. 허름한 옷에 말투마저 투박하였으나 별빛을 받은 리윤봉의 눈은 희망에 넘쳐 푸른 광채를 뿌리고있다.

《공부를 잘할것 같습니다. 령리하고 건강합니다. 무슨 과에 지망했습니까？》

그이께서 학생애의 어깨를 쓸어주시면서 물으시였다.

《무슨 과라는게 있습니까. 아무거나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학생애가 《기계과에 신청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학생의 어깨로부터 팔목에 이르기까지 쓸어만져주시면서 공부를 잘해서 새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되라고 고무하시였다. 리윤봉은 마냥 감격이 앞서서 뭉툭한 손가락으로 눈굽을 연방 찍어내고있었다.

《그래 기관구에서는 요새 로동자들이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기관구에서말입니까. 참 말씀드리기 거북합니다. 이전에 비

하면 반의 반도 못되는 로동자들이 모여서 말씨름만 하다가 헤여지지요. 배급쌀은 왜 안주는가, 간조는 누가 주는가, 그런 타령뿐이지요. 그러다가 요새는 공산당에서 한명구라는 국장을 앉혔으니 그와 해볼 판이라고 하면서 쑥덕쑥덕합니다. 그저 판이 시시합니다.》

리윤봉은 장탄식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철도라는 점에서 더구나 기관구라는데 관심이 쏠리여 이것저것 물으시였다. 기관차나 화차 수리작업을 시작했는가, 기관차의 연료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기관사는 몇명이나 있는가고 알아보시였다.

《그런걸 생각해볼새가 없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모아놓고 자꾸 연설을 합니다. 한명구국장도 잠을 자지 못해 반쪽이 됐습니다. 눈에 피가 지고 입술이 텄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나요. 며칠전에 용케 기관차수리에 몇명 붙여놓았는데 〈쌀을 달래러 가자！ 일을 시켰으니 배급이야 줘야 할거 아닌가.〉 하고 누가 선코를 떼니 모두 그럼직해서 욱욱 밀려다닙니다. 보선구도 그렇구 검차구도 그렇구 다 그 모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이께서는 난처한 얼굴을 짓고있는 리윤봉을 쳐다보시면서 《이제 다 질서가 잡힐것입니다.》 하고 안심시키시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철도에 례사롭지 않은 사태가 빚어지고있다는것을 직감하시였다. 그대로 방임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었다.

휴식을 끝내고나서 그이께서는 다시 량쪽에 기둥을 세우고 철봉을 건너지르는 작업을 도우시였다. 기둥이 약간 안으로 숙어들도록 하고 평행이 이루어지게 철봉을 놓는것이다. 그이께서는 기둥그루에 막돌을 처넣고 우에 흙으로 덮은 다음 큰 돌을 달구삼아 들었다 놓으시며 깐깐히 다지시였다. 그러시는 속에서도 한밤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학교건설을 돕고있는 갸륵한 심정을 가슴이 저리게 느끼시였다. 참으로 이런 지성과 열의를 한데 모을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든 못해낼 일이 없을것 같으시였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전문학교도 내오고 대학도 내와야 한다. 대학도 한둘이 아니고 각종 대학을 다 내와야 하고 종합대학도 내와야 한다. 가슴이 뻐

근할만치 해야 할 일이 많이 내다보인다. 하지만 이때 그이께서는 대양을 향해 닻을 올리는 항해사마냥 가슴이 벅차고 긍지와 자부심에 의해 온몸이 젖어드는것을 느끼시였다. (나가자! 그래서 저들에게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열어주자.) 하고 생각하시였다.

다짐이 끝나자 기둥우에서 꺾쇠를 박고있던 리윤봉이 《장군님! 이제는 다 된것 같습니다.》 하며 망치를 땅에 훌쩍 던지였다.

《창길아, 매달려봐라!》

리윤봉은 장군님을 쳐다보면서 아들애한테 손짓을 하였다. 창길이는 훌쩍 땅을 구르고 날아오르더니 대차동작을 멋들어지게 하였다.

《아주 훌륭합니다. 잘됐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늘에 훌쩍 날아오른 창길이를 쳐다보시며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였다.

몇걸음 운동장복판으로 나서시였을 때 좌현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거 보십시오, 사령관동지!》

그이께서 급히 돌아서서 좌현이 가리키는쪽을 바라보시였다.

《지금은 악수를 하잖습니까. 이자 방금 서로 부둥켜안고 빙빙 돌았댔습니다. 일이 다 잘된것 같습니다.》

《번개불에 담배를 붙인다더니 꼭 그 식이요. 내 그렇게 될것으로 짐작은 했었는데 시간은 뜻밖에 너무 빨랐소. 김책동무한테는 솔직하고 투철한것 그 한가지 수가 있을뿐인데 그게 적중하게 들어맞을 때는 저렇게 되기도 하거든. 급전직하식으로 말이요.》

《김책동지는 참 별난 성미입니다. 어느날 빠짐없이 여기 와서 등짐도 지고 새까맣게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고는 우리한테 올 때는 목욕을 깨끗이 하고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시침을 뻑 따군합니다.》

《그렇소. 본래부터 그런 사람이요.》

《이 저녁밥을 어떻게 하랍니까?》

《가지고 가서 밤참으로 하기요.》

《안동무가 되게 말할것 같습니다.》

《욕을 먹읍시다. 어찌겠소. 잘못한건 사실이니까.》

그이께서는 기분이 좋으셔서 두팔을 동시에 쭉 펴 흔들며 웃

으시였다.

학교를 뒤에 두고 걸으시면서 그이께서는 좌우를 살피시였다. 거리도 그렇고 정거장쪽에 려행자들이 운집돼있는것도 그렇고 모두 전날이나 별로 다름이 없었다. 좌현이는 얼마간 앞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싹 뒤따르기도 하면서 그이께서 가셔야 할 길을 안내하였다. 이제 그이의 로정은 명백하였다. 거리를 돌아보고 집무실에 가서는 밤새 누구를 만나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시는것이다.

《사령관동지! 저걸 좀 보십시오.》

좌현이는 앞을 막아서며 손짓을 하였다. 철도공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가지가 우거진 느티나무가 한그루 서있었는데 거기에 젊은 남녀가 바투 다가서서 이야기를 하고있는것이 보이였다.

《그래 그게 어떻다는거요. 청춘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있는것 같은데.》

《그러기말입니다.》

《그러기말이다? 동문 정말 별데 다 관심을 가지고있소.》

《자세히 보십시오. 이쪽은 박원식이고 이쪽은 필남입니다.》

《박원식이?》 잠간사이를 두었다가 좀더 정색하신 음성으로 《그렇다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요.》 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얼핏 그들을 익혀본 다음 온 얼굴에 웃음을 담고 재촉하시였다.

《빨리 가기나 합시다.》

4

좌현이가 떠난후에 박원식은 안명숙에게 무슨 용무가 있기에 그러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안명숙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보이면서 처녀가 샤쯔를 만들어왔길래 입어보고 가라고 그랬다고 했다. 처녀말이 나오자 공연히 몸이 굳어진 그는 빨리 철도에 나가봐야겠다면서 획 돌아서 나갔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어깨가 넓으며 미끈하게 생긴 박원식은 제입으로 군복을 입었을 때보다 격이 뚝 떨어졌다고

하지만 안명숙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사나이답게 언틀먼틀하게 생긴 얼굴륜곽이며 름름한 그 체구가 사복, 제낀옷에 의해 한껏 효과를 내고있었다.

《아니 넌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 평양처녀가.》

안명숙이 옆에 서있던 처녀의 등을 탁 밀쳐서야 비로소 필남이 걸음을 뗄수 있었다. 아닌게아니라 이제 놓치면 열흘이 될지 한달이 될지 기약이 없는것이다. 치마자락이 날릴만치 총총히 뒤따라가건만 저쪽에서는 뒤를 한번 돌아다보지도 않고 무엇에 쫓기듯이 내빼고있다.

《저! 이보세요, 이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웨치건만 귀에는 모기소리만큼도 울리지 못한다. 젊음이 가득찬 가슴이 급히 오르내리고 숨이 턱에 닿았다. 한데 천만다행으로 어떤 할머니가 박원식에게 길을 묻고있었다. 할머니가 길을 물었는지 그가 말을 걸어서 그 핑게로 처녀를 기다렸는지 알수 없으나 어쨌든 필남이는 그사이에 따라잡을수 있었다.

록록치 않은 깔끔한 눈을 치켜뜨면서 처녀는 박원식이앞에 불쑥 나섰다.

《할머니, 조심해 가세요. 요 골목 지나서 인찹니다.》

성급하고 거칠다고 보았던 그는 심술궂을만치 깐깐해져서 골목어귀까지 로인의 손목을 잡고 가기까지 한다. 필남이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는다. 혹시 그러다가 그쪽 골목으로 아주 빠져나갈것 같아 처녀는 그의 뒤에 붙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필남인 정말, 남보는데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말로는 노엽다는것이지만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있었다.

《누가 따라왔나요. 그쪽에서 막 내빼구선.》

긴 살눈섭을 들어올리자 흑진주같은 눈동자가 사나이를 옴짝 못할만큼 취하게 만든다.

《왜 왔어？》

《옷이 됐으니 입어보라고 그래서.》

서로 번연히 알고있는 숨박곡질대화가 몇마디 오가는 사이에 그들은 꼭같이 이대로 헤여질수 없다는 속심을 드러내보이고야말

았다. 하긴 이렇게 되기를 그들이 서로 바랐을수도 있다.

박원식은 우정 역전쪽으로 나가지 않고 양기산 기슭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날은 어두워져 거리는 네온으로 장식되였는데 그들이 한가롭게 걷고있는 아카시아숲속만이 가뭇 정적에 잠겨있었다. 바람이 불적마다 동전잎같은것이 우수수 떨어지군하였다. 박원식은 드문드문 서있는 외등밑에 이르게 되자 처녀를 몇걸음 앞세워놓기도 하고 또 뒤에 두기도 하면서 얼굴이며 몸맵시를 앞뒤로 뜯어보는것이였다. 알맞춤한 키에 급하게 곡선을 이룬 어깨와 목 그리고 팽팽한 앞가슴은 오늘따라 처음 보게 된 깜장치마에 흰저고리와 황홀하게 잘 어울려있다. 건강미가 안받침된 감실감실한 살결에 언제나 사색하고있는듯한 눈과 약간 도드라진 입술, 그것들은 평양고녀출신이라고 볼수 없을만치 순박하고 어져보이였다. 하지만 박원식은 처음부터 이토록 아름다운 처녀의 용모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를 그리워한다는 그것을 처녀의 얼굴에서 읽는 순간에 가슴에서 확 불길이 용솟음쳐올랐던것이다. 부모와 형들을 부암동근거지에서 다 잃고 토스레잠뱅이적삼을 걸친채 마안산밀영을 찾아갔던 그였다. 그는 이때까지 오직 전우들의 보살핌과 지휘관들의 관심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습관되여있었다. 한데 눈앞에 아릿다운 처녀가 몸에 감쌀 속옷이며 양복을 해들고 나타났을때 그는 머리가 뗑 하고 리성이 혼미해지고말았다. 하여 그가 여태 상식으로 간직했던 우정을 거치지 않은 애정은 백년불행의 시작이라든가, 애정은 공통된 지향과 행로에서 얻게 되여야 한다는 등의 교훈을 고려할 여유가 전혀 없었던것이다. 인정에 주려왔던 그가 이성이라는것을 처음으로 대상하게 되였을 때 이미 간직했던 리상이나 기존지식같은것은 모두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고말았다. 하지만 이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로정을 처녀나 주변사람 그 누구도 알수 없었다. 다만 지금 바싹 붙어서서 거의 공포에 질리다싶이 되여 따라오고있는 필남이만은 저편에서 자기를 굴복시키고도 남을만한 야심과 정열과 과격함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을뿐이다. 처녀도 고녀시절과 그 이후에 사람들한테서나 또는 책에서 얻은 남성에 대한 견해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박원식을 만나는 순간부터 처녀는 남

성의 미는 행위의 고상한 목표 또는 애정을 영원히 지켜낼수 있는 완강한 의지라는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게 되였다. 처녀가 보건대 박원식은 열정의 화신이였다. 예리하지 못하고 뭉툭한 심리, 세련을 거치지 못한 대인관계에서의 조잡성, 군사, 전투 그것외에는 모든것을 무시해버리는 일면성, 이를테면 아홉가지 단점에 단 하나의 장점이라 할수 있는 그의 열정 그것이 이여의 모든것을 압도해버린 그런 남자였다.

《그만하고 돌아가오.》

박원식은 앞을 막아서며 약간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여기서 옷을 입어볼수도 없는거구. 또 입어봤대야 그게 무슨 소용이요.》

처녀는 긴 살눈섭을 들어올리며 절망적으로 쳐다보는것이였다. 처녀의 그 시선은 (왜 그래요. 나는 그래도 이것을 정성껏 만들었는데… 캄캄하고 바깥이니까 입어볼수는 없다쳐도 소용없다는건 또 뭐야요.) 하고 웨치고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입술은 피가 날만치 씹혀있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서있었다. 그러다가 박원식이 까닭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음인지 가던 길로 또 걸음을 내짚으며 무뚝뚝하게 입을 놀리였다.

《지금 철도가 잘 운영되지 못해 온 나라가 큰 난관에 처해있소. 역전마다 인산인해요. 물자를 싣지 못해 공장이 못돌아가고 식량이 없어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탓이게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처녀도 얼마간 대담해져서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탓으로 말하면 일본제국주의탓이지. 그렇지만 그걸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한테 있단말이요.》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요?》

처녀는 더욱더 미궁으로 들어가는것 같았다. 자기가 알고있는 범위에서의 의무나 책임은 그런것이 아니였을뿐더러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때문에 자기들의 사랑이 파동을 겪어야 할만한 그 어떤 타당성이나 필연성을 꼬물만치도 찾아낼수 없었다. 더구나 며칠

전까지 그렇게 소망했던 샤쯔가 이제는 전혀 쓸모없는것으로 보이게 되는 그것과 전혀 련결시켜낼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고 처녀는 따지고들었다.

《그러니까 가져다 둬두오.》

《둬두라구요?》

너무나 놀라와 처녀는 무의식적으로 받아외웠다. 그것만으로도 처녀는 며칠사이에 박원식에게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것을 능히 짐작할수 있었다. 가슴에 안았던 보자기를 동댕이치고 목청껏 울음을 터칠만치 분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처녀는 참았다. 아직 열어보아야 할 미궁의 칸은 얼마든지 있었고 또 이자리에서 설음을 보인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것도 아니였다.

《그런 의무와 책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김일성**장군님부대는 오랜 세월 산중에서 초근목피를 달게 여기며 일제와 싸웠다지 않아요. 그래서 인민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도 역시 그렇고. 그런데 철도가 어떻고 공장이 어떻고 식량이 어떻고 그게 왜 거기 책임이겠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 결국 내가 싫어서…》

손등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흑 들이그으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니요, 아니요.》 하며 박원식은 마치 새새끼를 덮치는 아이들처럼 처녀의 어깨를 덥석 부둥켜안았다. 처녀가 본능적으로 반발하자 그는 억센 팔로 더 우쩍 그러당겨 가슴에 머리를 눌러대였다.

《난 달라진것이 없소. 진정이요. 나는 필남이를 사랑하오.》

짓눌린 박원식의 목소리가 아카시아숲속을 울리였건만 그 누구도 그것을 들을수가 없었고 지어 턱밑에 안긴 처녀마저도 들은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처녀의 얼굴과 입술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온몸으로 이성의 애무를 갈망하고있었으나 행동은 그와 정반대였다.

끝내 몸을 빼낸 처녀는 두걸음이나 뒤로 물러나서 박원식이 안고있는 보자기를 쏘아보며 명령하였다.

《그걸 이제 입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어요.》

박원식은 입을 한 반쯤 벌리고 저편을 쳐다보면서 울상이 된다.

《그렇게 똑똑히 말했는데 그래도 못믿겠소?》

《그런게 아니예요.》

또 부인하게 되자 박원식은 상의를 풀밭에 벗어던지고 보자기의것을 와락와락 헤치더니 와이샤쯔에 팔을 꿰였다. 그러자 처녀는 팩 돌아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울기 시작하였다. 무엇때문에 우는지 자기자신도 몰랐다. 욕할 때는 삐쭉했다가 얼리며 가슴에 안아줄 때 울음을 터치는 어린애심정과도 같은것인지 덮어놓고 눈물이 그칠새없이 흘렀다.

귀전에 울린 박원식의 음성이 《이제 석탄투성이가 되겠는데…》 하는것 같아 처녀는 《아무래도 좋아요. 불에 타도 좋구요.》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종시 입안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걸어서 평양역쪽 한길에 들어섰다. 밤이 깊어 사람들 래왕이 거의 없었는데 다만 야경을 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이따금씩 보일뿐이였다. 박원식은 묵묵히 길바닥만 내려다보며 걸었다. 이런 때 무슨 말을 해야 처녀에게 위안이 되겠는지 알지도 못하였으며 설혹 그것을 알고있었다 해도 입술에 발린 그런 천박한 말을 번지고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도 노상 고민이 없는것도 아니고 또 처녀와 의논하고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얼굴에 내비친것을 보고 처녀가 그토록 강경해지고 초조해졌는지도 모른다. 며칠전에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런 충격이 있었는데 동무들가운데서 유격대원들의 사랑, 결혼, 그런것은 지금 너무 시기상조라는것이다. 어떤 친구들은 공공연히 비난조로 말하기도 하였다. 군복을 벗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라든가 아직 행군길이 멀고먼데 벌써 배낭을 벗자고 하는가 그런것이였다. 좌현이의 귀뜸에 의하면 지휘관들가운데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박원식은 이런 정도로 있다가 적절한 기회를 볼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소탈하게 필남이를 설복해서 자기와 같은 립장에 서도록 만들고싶었다. 그러나 매번 만나기만 하면 감정은 심술궂게 조급한데로 끌고갔으며 자기와 다른 또하나의 박원식이가 제멋대로 휘둘러놓는것이였다. 마치 처녀의 빛나는 눈동자는 그 모든것을 꿰뚫어보고있는듯하였다.

《결국 지내보니까 필남이는 제마음대로 할수 있는 그런 남자

를 요구하는거지?》

하고 박원식이 롱을 걸자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세상의 모든 남녀관계는 그렇게 되기마련이라나요.》 하고 천연스럽게 응수하였다.

《아니 뭐?》

놀라와하는데 처녀는 《왜요?》 하고 제편에서 오히려 놀라움을 보인다.

그들은 서로 롱담을 하고있었지만 그안에는 진심의 알맹이가 깃들어있었다.

《그렇단말이지.》 박원식은 처녀의 어깨를 붙잡고 다정하게 말하였다. 《필남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남편이 차지하는 안해, 안해가 차지하는 남편, 그것은 옳소.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수는 없고 그렇게 돼서는 안되오. 내 말 좀 듣소. 필남이는 나를 완전히 제것으로 만들고싶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는 바보구실밖에 못하오. 이 박원식은 필남이보다 먼저 혁명이 차지해야 하오, 알겠소? 지금 내가 어데로 가는가. 철도기관구로 가오. 혁명이 거기서 부르고있단말이요. 우리는 이렇게 여태 살아왔소.》

잠간 이야기가 중단되였을 때 마주서있던 처녀는 어깨를 들었다 놓으며 긴숨을 내쉬였다. 어쩌면 그렇게도 솔직하고 고상한가, 여직 들어본 일도 없고 따라서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런 숭고한 이야기가 지성이 깊지 못하다고 보았던 저편에서 거침없이 흘러나오고있다.

《필남이, 내 말을 듣소. 우리도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웠소. 또 안해와 자식을 아침저녁으로 쳐다볼수 있는 단란한 가정도 필요했구. 그런데 우리는 눈구뎅이속에서 잤고 가정을 뒤에 두고 밀림속을 걷고걸었지. 그러다는 전투에서 희생되고, 그래 지금 평양에 온 조선인민혁명군은 얼마 많지 않소. 그들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알겠소. 숱한 사람들이 광복된 조국이 그리웠지만 종시 오늘을 못보고 갔거든. 자! 이렇소. 이런데두 내가 깡그리 필남이가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소? 우린 할일이 많소. 이 땅에다 나라를 세워야지 또 세계혁명도 해야 하구. 와이샤쯔에 넥타이를 매구 필남이와 나란히 대동강가에 앉아 밤새

도록 이야기를 하고싶소. 나에게 하고싶은 말이 오죽 많은줄 아오. 나의 어머니, 아버지 고생한 이야기두 하구. 유격대밀영생활도 참 재미있었소. 필남이, 알겠지 내 맘을…》

《알겠어요.》

처녀는 불타고있는 사나이의 눈을 말끄러미 쳐다보면서 입새로 대답을 겨우 내보내였다. 하지만 그것은 가슴속깊은데서 펴올린 진심이 담긴것이였다.

《후회하지 않겠지. 사람이 승승하구 뚝바우구. 그렇지만 한가지만은 좋은 점이 있을거요. 그건 뭔가. 변하지 않는다는거요. 우리가 배운것은 변절하지 않는다는것을 목숨을 걸고 배웠소. 혁명앞에서도 동지앞에서도 또 처녀앞에서도 그것을 담보한단말이요. 그만하고 난 가겠소. 자, 다시 만나기요.》

박원식은 철길옆 느티나무밑에 이르자 손을 내밀었다. 《나는 래일 서울로 떠나오. 보름이 될지 한달이 될지 모르겠소. 어쨌든 갔다오겠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것을 꿀꺽 삼키였다. 무슨 말인지 할듯할듯하면서도 자꾸 손만 흔들어준다. 또 휘딱 장면을 뒤집어놓는데 놀란 처녀는 손을 내밀기는 했지만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손을 놓고 박원식이 돌아설 때 《좀 서세요.》 하고 엉겁결에 소리를 쳤다. 박원식은 돌아섰다. 한걸음 사이를 두고 마주섰는데 처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본다. 이윽해서 박원식이 또 자리를 뜨려고 하자 다시 같은 구령을 반복하는것이였다. 《좀 서세요.》 그다음에도 두번이나 같은것이 반복되였다.

5

《우선 잠자리부터 구하고보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따라오던 리만석이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그러나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박원식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박원식은 담배를 붙여물고 쓰겁게 한마디 내뱉았다.

《기분이 나빠서. 원 조선땅인지 미국땅인지 갈래판을 모르겠거든.》

그때 그들앞으로 총을 멘 미국병사 세명이 입에 무엇을 넣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지나갔다. 룡산쪽으로 통한다는 대통로로는 푸른 연기를 풀풀 내불면서 땅크 석대가 기여가고있다.

《여보 만석동무, 기왕 여기까지 온바에는 경성역이라는것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이나 좀 하고 갑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이름이 그래도 서울인데 돈 내고 잘데야 없겠습니까.》

그들은 천천히 걸어서 대합실로 들어갔다. 사람우에 사람이 덮씌우다싶이 되였다. 남녀로소 각양한 사람이 각양한 모양으로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꿈지럭거리기도 한다. 혼잡정도는 한달전쯤의 평양역과 비슷하였다. 그중 볼만한것은 벽에 나붙은 광고들이였다. 어떤것은 《광고》이고 어떤것은 《알림》이고 어떤것은 《공시》이고 또 어떤것은 몇마디 내용뿐인것도 있다. 박원식은 발을 골라 디뎌가며 하나씩 읽어나갔다. 무슨 회가 발족했는데 본소는 어데다, 무슨 강연회가 있는데 강사는 누구다, 무슨 려관이 새로 나왔는데 숙박비는 얼마다, 이러루한 등속인데 내용이 같은것은 하나도 없고 종이장의 규격이 각이하고 글을 쓴 색도 붉은것, 검은것, 푸른것 등으로 가지각색이다. 한참이나 그렇게 나가는데 한군데에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여 웅성거리는곳이 있었다. 틈을 비집고 들어가니 과연 그럴만하게 큰 광고문이 하나 나붙었다. 붉은색으로 쓴 글자 하나가 옹근 책장 하나만큼씩이나 컸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 서울개선을 열렬히 환영한다.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 홍명희

다음은 《단군》 하고 몇년 몇월 날자가 있었던것 같은데 그 밑은 떨어져나갔다.

《하아!》

박원식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입을 한 반쯤 벌리였다. 보고 또

보았지만 역시 틀림없었다. 잠시동안에 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였다. 기쁘고 환희로운 감정이 온몸에 젖어든것이다. 그는 좀체로 그 자리를 뜰수 없어 시간가는줄 모르고 서있었다. 모여선 사람들 각기 제나름으로 한마디씩 한다.

《며칠전에 평양에 오셨다고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그럴리가 있소. 뜬소문이지. 장군님께서 개선하시면 먼저 서울에 오실건 틀림없지요. 저기에 9월 28일이라고 날자가 있었다는군요.》

《그러니 더 의문이 아니요. 날자가 한달가까이나 지났는데.》

《어쨌거나 불일간 서울에 개선하실것은 틀림없어요.》

각이한 사람들의 종잡을수 없는 말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참말 대단하군요. 대단해요. 여기 와보니까 장군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다. 과시 3천만 온 민족이 떠받드는분이지요.》

리만석이 뒤에 따라오며 연방 감탄을 한다.

그들은 숙소를 정하기 위해 전차길을 건너 세브란스병원쪽으로 들어갔다.

세브란스병원을 지나고나니 길 량쪽에 간판이 촘촘히 잇대붙었는데 그것은 모두 려관 또는 려인숙들이였다. 벼락치듯 간판들을 내붙이였다. 양철이나 널쪽으로 만든것도 있었지만 갈노전에 뼁끼칠을 해서 붙인것은 몇배로 더 많았다. 《신의주려관》, 《함흥려관》, 《철원려관》 등 북조선의 이름난 지명이 련달아 나왔다.

정신없이 간판을 쳐다보며 나가던 리만석이 《알만합니다, 알만해요.》 하고 자기 해석을 내놓았다. 북조선지명을 적당히 따온 이 려관들은 모두 북에서 오는 손님을 자기한테로 끌자는 수작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박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사물계에 민감한 리만석에게 감탄을 표시하고나서 중절모를 벗어 훌쩍훌쩍 부치였다. 부지런히 걸었더니 땀이 난다.

《여기 〈사리원려관〉이 어떻습니까?》

박원식이 두릿두릿 사위를 살피고있는 리만석에게 물었다.

《나도 그쯤 생각을 하면서도 좀더 그럴사한데가 없겠는가 해서 살피는중입니다.》

그들은 《사리원려관》앞으로 다가갔다. 주인을 찾자 안방에서 몸이 비대한 중년녀인이 뚱기적거리며 나왔다. 중절모차림을 한 박원식을 쳐다보더니 녀인은 《신사나리는 안방 고급에 들구 이쪽사람은 사랑방 목침칸에 드시오.》 하며 따라들어오라고 한다.

《우리는 한방에 들어야겠습니다. 동행이니까요.》

박원식의 점잖은 목소리에 반발이나 하듯이 녀인은 《글쎄 북에서는 공산주의라니까 주인과 머슴을 한이불에 재울지 모르나 여기는 다르지요. 그대신 꼭같이 고급을 물어야 합니다. 하루밤에 1원씩.》

하며 돈만 내면 만사는 해결이라는 기색을 보인다.

박원식은 방안에 들어가 트렁크를 선반에 얹고 옷을 벗어 건 다음 우선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러는 사이에 리만석은 어덴가 갔다오더니 좋은수가 있다고 하며 기뻐하였다.

《박선생! 요 앞에 천막촌이 있는데 저걸 보고 〈38따라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38선을 넘어가고 넘어오는 사람이 드는덴데 거기에 줄을 늘이면 양춘만을 쉽게 찾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 참 잘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따라지라는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모릅니까. 하긴 우리와 다르니까. 모이쪼에서,아하 모이쪼가 또 뭔지 모르겠지요. 하여간 투전놀음인데. 3자하고 8자를 합치면 11이 되는데 그것은 열을 떼갈기고 1끗이란말입니다. 그러니 1끗은 최하 즉 맨 하바닥이란 뜻입니다. 그저 그러루한거지요. 여하간 오가잡탕이 모인데서두 잘 골라잡으면 혹시 갑오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박원식은 신기하게 듣고있다가 껄껄 웃었다. 최하층생활에서는 모르는것이 없는 리만석이 부러울정도이다.

어느덧 저녁때가 되여 사랑채에 있는 그 목침칸에서 장길이상을 펴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박원식이와 리만석은 고급방에 들었기때문에 제자리에서 소반을 각각 받게 되였다.

상을 물리고 그들은 《38따라지》로 찾아갔다. 참말 놀라운 광경이였다. 사람들이 자고 먹고 하다뿐이지 이것은 집도 아니고 천막도 아니며 어느 리재민의 가설거처라고나 할수 있었다.

판자, 노전, 풍천 닥치는대로 주어다가 둘레를 막고 하늘은 함석장, 합판, 석유초롱 따갠것으로 엉성하게 가려놓았다. 그속에서 연기를 피우고 악다구니질을 하고 흐지부지하고 가끔 노래도 나온다.

박원식은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며 평안도사람들이 어데 들어있는가 알아보았다. 평안도도 여러가지였다. 안주, 남포, 숙천, 개천이 있는가 하면 승호, 강동도 있었다. 그의 속심은 강선과 잇닿은데를 찾고싶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화살이 그어지지 않았다. 양춘만을 찾기 위해서는 이미 리만석이와 토론해서 몇개의 지점이 찍혀있기는 하였다. 양춘만의 6촌이 있다는 명동 50번지와 종로에 있다는 소학교시절의 그의 은사네 집이였다. 하지만 박원식은 유격대시기 척후에 나가보아도 언제나 예견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건이 항상 문제로 되여있어서 꼭 그 두개 대상에만 국한할수가 없었다. 그는 제낀옷에 넥타이를 맨채로 여기저기 기웃기웃 들여다보면서 《여긴 어데요?》 하고 묻기도 하고 《여기 강서사람이 없소?》 하고 나드는 거적을 들어보기도 하였다. 둘이 서로 갈라져서 찾아보기로 하였다. 매사에 성실한 박원식은 밤이 깊어서야 려관으로 돌아왔다. 리만석은 진작 단념한것인지 자리도 펴지 않은채 웃목에 활개를 펴고 코를 드릉드릉 골고있다. 웃방에서는 두런두런 말소리가 나면서 무엇인가 철썩철썩 메치는 소리가 났다. 자리에 누워서 귀를 기울이니 도박을 놀고있었다.

《삼칠장 짓구 오땅이라?》 그 소리에 뒤이어 《오늘밤에 철원량반 그 무슨 땅이 그렇게 잦아.》 하자 또 누군가 《뽑을 때 련달아 뽑아야지. 자! 이번에는 내가 박을 쥐겠소. 5원을 대겠소.》 하였다. 이런 투로 종잡을수 없는 대화가 오간다.

《5원이라! 원산 손님치군 손탁이 너무 엷구려.》

《엷구 두껍고 가릴거 있소. 갑오만 뽑구려.》

《자! 여기 모잇쪼.》

《난 그만.》

《자！ 알알팔짓구 삼오 여덟 끗！ 제꺽제꺽 펴시오.》

《어이구！ 투전이 사람 죽인다. 하루종일 머렝이야.》

《자！ 쌍 이에 륙 짓구 알팔 갑오라！ 흐흐흐.》

이런 식으로 웃기도 하고 가슴이 꺼지게 한숨도 쉬고 또 싱갱이질도 하였다.

박원식은 새벽 3시가 다 되여 깜박 졸고 다시 일어났다. 그때는 벌써 리만석이 일어나 사이문을 열어놓고 투전군의 등뒤에서 구경을 하고있었다.

아침을 일찍 채근해 먹고 박원식은 명동 6번지와 종로 3정목을 찾아떠났다.

서울거리는 상상외로 복잡하였다. 명동거리 6번지에 양한규라는 명확한 주소성명을 가지였는데도 옹근 다섯시간 걸려서야 겨우 찾아낼수 있었다. 박원식은 신사풍의 차림새가 몸에 붙지 않은데다가 열댓번 길을 물어서 찾아오고나니 지칠대로 지쳤다. 《이건 밀림에서 헤매는것보다 더 한심한걸.》 하고 혼자소리를 하면서 거치장스러운 중절모를 벗어 활활 부채질을 하였다.

주인을 찾으니 허리가 굽은 령감이 널대문을 빗서 열고 내다본다.

《누구를 찾으시오？》

《저, 이 집이 양한규댁이 맞는지요？》

그러자 먼저 대문이 닫기고 빗장 지르는 소리가 난후에 《그 집은 작년에 부산으로 갔소.》 하는 소리가 겨우 널판자틈으로 새나왔다.

박원식은 종로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며 뗠뗠한 주소를 가지고 양춘만을 찾는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로 3정목 소학교뒤골목 한성약국집을 찾아갔다. 두툼한 근시경을 끼고 머리가 홀렁 벗어진 50대의 오선생은 추위가 나기전부터 감기에 걸려서 쿨럭쿨럭 기침을 하였다. 양춘만을 찾아왔다고 하자 오선생은 《평양에서요？》 하고 놀라움을 보이는것이였다. 세파에 찌든 오선생은 옷차림새나 말투에서는 별것이 없었지만 로동자풍의 체취에서 대뜸 양춘만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것을 짐작한 모양이였다.

《글쎄 나도 모르지요. 한달전에 양춘만군의 친구를 길가에서

만났는데 짬을 봐서 이제 나를 한번 찾아오겠다고 하더랍니다. 평양에서 왔다면 혹시 강선제강소에서 왔는가요?》

《네! 제강소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선생의 얼굴에는 그늘이 휘 지나간다.

《매우 실례의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오선생님에게도 할 말이 있는데 잠간 방을 빌수 없겠습니까?》

《네? 저한테요?》

뒤로 한걸음 물러나며 흠칫 놀라는것이였다. 몇초동안 생각하더니 마루쪽을 가리키면서 올라가자고 하였다.

박원식과 리만석이 웃목에 앉고 오선생은 누웠던 자리를 밀어제끼고 아래목에 앉았다. 박원식은 유격대에서 하던 군중공작방법을 쓰기로 하였다.

《오선생님! 이 동무는 강선제강소 강철용해공이고 저는 평양철도국에서 일을 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강철이 없어서 기관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탄광에서 탄을 캐내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항상 깊이 사색하고있는듯한 오선생의 눈이 듬직하고 완강해보이는 두 청년을 눈여겨보고있다. 한생 중학교 대수교원을 하면서 생계를 보태기 위해 안해에게 약국을 차리게 한 빈곤한 지식인의 관찰은 예리하였다.

《동무라구요? 하긴 북에서는 호상 동무로 통한다지요. 공산당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미풍미덕이구요. 한데 미력한 저에게 무슨 연고로 도움을 청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한뉘 산수를 가르치고있을뿐인데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평양에서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하셔서 정치를 펴고계십니다. 지난 10월 14일 평양공설운동장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우리 조선은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원식은 연설내용을 거침없이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한참동안이나 귀를 기울이고 듣고있던 오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복하였다.

《옳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신문을 보았습니다. 장군님께서

이제 서울로 오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강철을 만들고 기관차를 달리게 하자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박원식은 한걸음 나앉으며 목소리를 높이였다. 《그런데 강철을 만들어야 할 기술자인 양춘만은 여기 와서 돌아다니니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과시 옳은 말이요. 그러나 내 모르긴 해도 양춘만군이 절대로 허송세월은 하지 않을것이요. 정작 그 사람의 립장이 되고보면 강철을 꼭 강선에서만 만들어야 한다는 법은 없을테니까.》

그때 여직 침묵하고있던 리만석이 끼여들었다.

《오선생! 양춘만은 강선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처자도 있고 몇달전까지 강철을 만들던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하고 오선생은 약간 의아한 빛을 띠고 두 청년을 다시 번갈아보고나서 말을 계속하였다. 《공산당에서는 지식인을 잡아다가 강제로동을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서 달아났겠지요.》

《오선생님, 그건 오해입니다.》 하고 박원식이 재빨리 부정하였다.

《불 안땐 굴뚝에 연기날가 하는 식으로 그래도 얼마간…》

《옳습니다. 연기가 났다면 불을 땠을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땐것이 아니라 일제나 친일파 민족반역자놈들의 악선전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에서 민주주의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나도 그걸 읽었습니다. 참말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요. 그것이 우리 3천만 겨레의 뜻인줄 압니다.》

부엌에서 저녁준비를 하는 소리가 났다. 박원식은 후에 다시 만나게 될수 있을것이라는 인사를 남기고 마당에 나섰다.

《혹시 양춘만선생이 여기 오거나 그의 행처를 알게 되면 저희들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세브란스병원 뒤골목 〈사리원려관〉에 있습니다.》

6

그 이튿날 중절모에 코트를 걸친 박원식은 종로 3정목을 또 찾아갔다. 리만석은 양춘만의 친척을 찾아보기 위해 룡산쪽을 나갔다. 목이 쑥 빠지고 키가 후리후리해서 그의 행동거지는 위풍이 있어보이였다. 오선생은 전날이나 다름없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박원식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남조선지식인들이 모이는데를 뒤져볼 생각이였다. 간단히 의도를 말한 다음 박원식은 오선생에게 간곡하게 청을 들였다.

《좀 도와주십시오. 정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같이 몇군데 다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어데가 어덴지 길을 모르다나니…》

천식기가 있어서 한참동안이나 기침을 하고나서 오선생은 안방에 들어가 코트와 모자를 들고 나왔다.

《헛걸음인셈치고 같이 가봅시다.》

오선생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의 지식인은 8할이상이 서울에 있다고 하였다. 그 지식인은 대개 두개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사회과학자들은 모두 정치운동에 가담하고있고 자연과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였다. 그런것을 전제해놓고 우선 먼저 장안빌딩이 요새 인기가 있는데 거기 가보자고 하였다. 빌딩 현관이 저쯤 바라보이는 골목에서 그들은 담배를 한대씩 피웠다. 아닌게아니라 나들문에 불이 일만치 사람출입이 잦았다. 중절모패들이 뻔질나게 드나든다. 그런가 하면 감옥에서 금시 나온것으로 짐작되는 까까머리패들도 그만큼 되였다. 오선생은 자기는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볼 용기가 나지 않으니 들어가볼라면 당신 혼자 들어가보라고 하였다.

《여보! 당신은 누구요. 보아하니 부르죠아지식인같은데 여긴 왜 왔소?》 광실로 된 첫칸에 박원식이 들어섰을 때 문칸을 지

키고있던 장발청년이 앞을 막아서며 위협조로 물었다.

《나도 좀 관계하고싶어서 찾아왔소.》

《관계? 북에서 오지 않았소?》

《북에서 왔소, 평양에서.》

《으흠, 그렇다.》

장발은 이쪽의 아래우를 훑어보더니 현관에 나가있다가 박선생의 연설이 끝난 다음에 만나자고 하였다. 문틈으로는 뽀얀 담배연기와 함께 휘주근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그와 함께 열기를 띤 그러나 바짝 여윈 노란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리였다.

《우리가 제구실을 똑똑히 못하니까 평양에 또하나의 공산당이 나온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오. 우리가 원산에 있는 리주하나 함남도 배경의 오기섭에게도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은 곧 우리 로선을 따를것이요.》

박원식이 복도창가에 서있는데 장발청년이 팔을 잡아 현관쪽으로 끌어내였다.

《그러단 재미없어. 당신이 밀정일수도 있단말이요. 편포짝이 되기전에 물러가오.》

장발은 어깨를 으쓱으쓱 추어올리며 쌈패냄새를 풍기더니 문간으로 되돌아가 눈을 히끗히끗 흘기며 쳐다보는것이였다.

쓴입을 다시며 되돌아나온 박원식은 오선생에게 좀 그럴듯한 데가 없는가고 하였다. 오선생은 자기가 권고하고싶은곳은 그래도 경성제국대학밖에 없다고 하였다. 박원식은 그길로 전차에 앉아 물리과교사를 찾아갔다. 정문을 지키고있는 수위에게 오선생이 박아무개 교수를 찾아왔다고 하였다. 그러자 로이터안경을 끼고 깡뚱한 코트를 걸친 사나이가 나오더니 조용히 좀 만나자고 하였다. 오선생을 앞세우고 강당을 에돌아 들어가니 좁다란 방에 조선말을 능숙하게 하는 미국군인이 앉아있었다. 중좌였다.

《당신이 누구를 찾는다구요?》

중좌는 금테안경너머로 조소하는듯한 시선을 보내왔다. 제발로 함정에 찾아든셈으로 되였다. 박원식은 들은둥만둥하고 염낭에서 담배를 꺼내였다. 불을 달면서 제꺽 둘러댈 생각을 하였다.

《박만기라는 교수를 찾아왔소.》
《박만기? 무엇이 전문인가요?》
중좌는 방구석에 서있는 소위에게 눈짓을 하였다. 그러자 소위는 수첩을 펼치고 받아적을 태세를 취하였다.
《고고학이지요. 벽돌장이나 질그릇을 주어모은다고 합니다.》
《당신네는 북에서 왔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북에서 왔습니다.》
《박만기를 데려가겠는가요?》
《아니요.》 하고 박원식은 단호히 부정하였다. 《이 복새통에 박물관이나 무덤을 뒤지면 한몫 크게 잡을수 있다기에 북에서 우정 왔습니다.》
《오! 그렇습니까? 그것을 하자면 여기보다 북이 더 좋겠는데. 북이 고구려의 본거지니까.》
중좌는 소위에게 알아보라고 하자 소위는 제꺽 서류장에서 두툼한 명부를 뒤지더니 박만기라는 교수는 없다고 하였다.
《여보! 북에서 온 신사, 박만기는 유령이요. 이 대학에는 없소.》
입가에 랭소를 담고 이쪽의 동향을 살핀다.
《아! 그러면 우리는 전주로 가야겠습니다. 전주에 그의 집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에도 없으면 일본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수도 있구요.》
중좌는 이쪽에 대해서 전혀 가늠이 가지 않아 고개만 기웃거리고있다.
오선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한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였다. 이쯤하면 남조선은 일제대신 미합중국판이 되고말았으니 더이상 돌아다니지 말자고 하였다. 오선생은 기분이 나빠 그런지 또 천식기침을 터뜨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컬럭컬럭하였다. 그러나 박원식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허헌변호사네 집까지는 자기가 안내해주겠다고 하였다. 전차를 두번이나 갈아타고 한참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가니 대문앞에 《법률상담소》라는 간판이 붙어있었다. 주인을 찾으니 중년녀인이 나와 허헌선생은 한

열흘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것으로 꼬박 하루해가 지나갔다.

다음날 박원식은 아침 일찌기 음식점에 들려 설렁탕을 한그릇 사먹고 오선생네 집에 들렸다가 그길로 경성역으로 나갔다. 대합실에 들어가 장군님 환영준비위원회의 광고문앞을 지키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여들었다는 흩어지군하였다. 박원식은 군중들틈을 오가면서 모여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그러다가 지식이 있어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홍명희에 대하여 묻군하였다. 한 댓명 붙잡고 물었지만 모두 홍명희라는 이름은 익히 들었지만 그의 집이 어데인지, 그가 지금 어떤 직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중낮이 기울무렵 허름한 중절모를 쓰고 등나무지팽이를 짚은 로인이 하나 나타났다. 등에는 보따리를 졌고 발에는 일본군화를 신었다. 그러나 영채가 도는 눈으로 광고문을 한참이나 쳐다보다가 《옳거니, 옳거니 과연 뜬소문은 아니였구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셔야지.》 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박원식은 그 로인의 손을 붙잡고 홍명희를 잘 아는가고 물었다. 로인은 잠간 쳐다보더니 지팽이를 들어 출입문쪽을 가리키였다. 박원식은 로인의 팔을 부축하고 광장 한옆에 나가 마주앉았다.

《나는 올해 일흔일곱인데 홍명희는 잘 모르고 그의 부친 홍범석과는 친한 사이였소. 금산군수로 있다가 한일합방소식을 듣고 명주수건으로 목을 매고 자결하였소.》

이렇게 시작한 로인은 묻지 않는것까지 대구 늘어놓았다. 그로서는 그렇게 하는것이 왜정 40년간 참고참았던 설분을 토해버리는것으로 되였던 모양이다. 로인은 차츰 서울이 돼가는 꼴을 보니 왜정 때나 다를바 없는데 일루의 희망으로서 장군님께서 개선하신다는 소문에 기대를 걸고있다고 하였다. 그래 수원에 있는 딸네 집에 갔다올가 해서 떠난김에 광고를 확인하던중이라고 하면서 묻는 말에 대답하였다. 홍범석의 맏아들 홍명희는 괴산군 동부리에서 태여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했다고 하는데 15살에 서울 중교의숙에 들어가 외국어를 공부하였다. 뛰여난 재능이 알려져 고종이 만나주었고 《리조실록》을 보는 특혜를 받았다고 했다.

3.1운동때 홍명희는 일경에 체포되여 징역을 살았다. 그후 중국이요 어데요 전전하다가 시골에 내려가서 소설 《림꺽정》을 썼는데 홍명희는 단연 조선의 《3수재》중 한사람이라고 하였다. 로인은 이런 정도밖에 모른다고 하였다.

《그 집 주소는 모르십니까?》

박원식은 다그쳐물었다.

《홍명희는 촌에 나가있다고 했는데 그 아들네 집은 저 사직동에 있소. 하기야 지금 서울에 와있게다 저렇게 광고를 내붙였겠지요. 그러나 어찌 만나겠소. 뜻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없이 동분서주하는 때인데.》

로인과 헤여진 박원식은 사직동을 찾아떠났다. 요행 있으면 만나는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행처라도 알수 있을것이였다. 전차를 타고 종로에 내려서 골안으로 들어갔다. 단층집이 오구구 모여앉은곳인데 널판자를 둘렀다.

박원식은 널대문앞에 서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 찾을가 잠간 망설이다가 우선 《주인 계십니까?》 하고 불렀다.

《거 누구요?》

마당에서 서성거리던 대머리진 환갑나이 로인이 문을 열었다.

《저 여기가 홍명희선생네 댁이 옳은지요?》

박원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그런데 어데서 오셨는가요?》

이때 박원식은 예민한 감각으로써 상대자가 홍명희일수도 있다고 단정하였다.

《선생님,안녕하셨습니까?》

박원식은 환성을 지르다싶이 큰소리를 내며 인사를 하였다.

《저는 평양서 왔습니다.》

흥분된 음성과 부자연스러운 몸가짐을 보고 저쪽에서는 흠칫 놀란다.

《평양서요?》

그러는 사이에 아래방문이 열리더니 젊은 녀인이 중절모와 회색두루마기를 들고나왔다.

로인은 두루마기를 입고 모자를 올려놓더니 그제서야 《평양

손님은 직발 홍명희에게 용무가 있겠습니다?》 하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뗀 박원식은 자기 소개를 대충 한 다음 양춘만을 만나야겠다는것과 겸해서 이곳 몇몇 지식인들의 안부나 알자고 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장군님부대에 계시다는것이 사실입니까?》

홍명희는 발을 모으며 정중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입니다.》

홍명희는 방금전에 손님의 용무를 무시해버리고 어데론가 떠나가려던것을 그만두고 모자를 벗어 뒤에 지켜섰던 녀인에게 들려주었다.

《서재의 문을 열어라!》

녀인은 급히 되돌아들어가더니 남쪽으로 향한 유리문을 열었다. 홍명희는 아들벌이 되고도 남는 년령차이에는 관계없이 깍듯이 존대를 한다.

《우선 먼저 문안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신지요?》

《건강하십니다. 지금 매우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십니다만 건강은 일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홍명희는 고개를 숙여 근엄하게 경의를 표하였다. 방안은 책으로 꽉 차있고 둘이 앉고보니 사람 하나 비킬 자리도 없이 비좁았다. 이야기를 빨리 진척시켰으면 좋겠는데 저쪽에서는 손님에 대한 신분에 믿음이 덜가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각되는바가 있어 그런지 좀체로 의사표시가 없다. 번들번들한 이마와 누르끼레한 얼굴은 부석부석해보이였다. 홍차를 두잔이나 마시는 동안에도 말이 없었다.

《여기 지식인들의 동향이나 안부를 알려거든 우리 아들애를 만나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여직 촌에 들어박혀있어서 잘 모릅니다. 말은 바른대로 조선사람으로 자연과학을 전공한것은 열손가락안에 듭니다. 그러니 거의 없는 셈이지요. 방금 리영기가 어데 있

는가 물었지만 나는 작년까지 일본에 있었다는것외 모릅니다. 지금 한두달이야 전에 몇해에 맞먹는 변화가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는 저 〈매일신보〉 자리를 차지하고 신문을 내고있는데 거기에 찾아가야 합니다. 집에는 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화를 하면서 홍명희는 서른살되나마나한 청년의 모습을 기회가 있을적마다 자세히 뜯어보고있다. 막로동자처럼 거칠어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범접키 어려운 위엄을 풍기기도 한다.

《젊은이,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난 참으로 기쁩니다. 장군님께서 건강하시다는 안부를 들으니 천만금보다도 더한 기쁨을 얻었고 만시름이 놓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오직 홍명희선생이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그 명칭 하나를 보고 한량없는 기쁨을 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장군님의 전사로서 서울에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릴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직발 평양으로 가시겠는가요?》

《네, 며칠 더 있다가 사람을 하나 만나고 곧 떠나겠습니다.》

홍명희는 이슥토록 말없이 박원식을 응시하다가 간절한 눈빛을 띠우며 이렇게 말하였다.

《젊은이는 나의 부탁을 하나 들어줄수 있는가요?》

《어서 말씀하십시오.》

《장군님께 안부를 전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장군님께 말씀올려주시오. 여기 남조선 전체 동포들은 장군님께서 서울에 개선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있더라고 전해주시오.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습니다. 아니,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겠단다고 전해주시오.》

《꼭 전하겠습니다.》

홍명희는 고개를 깊이 숙여보이였다. 그것은 박원식에게가 아니라 그를 거쳐 장군님께 드리는 인사로 느껴졌다.

7

이튿날 박원식은 영등포와 인천으로 예정했던 방향을 급전환시켰다. 추격전이 언제나 좋은것이 아니고 매복이 오히려 우월한 때도 있는것이라고 보는 그였다. 그는 전차를 타고 종로로 나갔다. 오선생네 집을 지켜보자는것이였다. 그는 오선생네 대문안에 들어섰다. 토방에는 구두가 두컬레 놓였는데 방안에서는 두런두런 말소리가 울리였다.

《오선생님 계십니까?》

말소리가 뚝 끊어지더니 잠잠해졌다.

《오선생님 계십니까?》

다시 불러서야 안에서 《누구요?》 하고 가래끓는 소리가 섞인 대답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간 기다리는데 안에서 젊은 사나이 둘이 서둘러 마루로 나서는데 얼굴이 모두 붉게 상기되였다. 뒤미처 오선생이 뜨개덧옷을 어깨에 걸친채 따라나오는데 매우 당황한 기색이였다.

《혹시?》 하는 순간 가슴에 쭝 울리는것이 있어서 박원식은 사나이들앞을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양춘만선생이 아닙니까?》 하면서 사진에서 본것 같은 매우 리지적인 눈을 가진 사나이를 쳐다보았다.

《양춘만이? 난 모르오.》

상대편에서 태연하게 대답하는데 그의 말끄리가 약간 떨리는듯 하였다.

《반갑습니다. 양춘만선생이 옳구만요.》

박원식은 본능적으로 저편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그렇게 되자 사나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몸을 떨었다. 마루에 나섰던 오선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마당에 내려서고있다.

《방안에 들어들 갑시다. 서로 과격해지지는 말구요.》

애원하는 목소리였다.

박원식은 온돌방문켠에 앉고 양춘만이라고 생각되는 사나이는 아래목에 앉았다. 또 한명의 사나이는 어데론가 가버렸다. 어간에 오선생이 앉아 일단 통성을 하도록 하였다. 사나이는 그제서야, 즉 그 어떤 위협이 느껴지지 않게 되여서야 자신의 입으로 강선에 있던 양춘만이라고 실토하였다. 몸은 가느다란편이였지만 지혜가 있고 의지가 강하다는것이 섬세한 얼굴륜곽에 잘 나타나있었다.

《우리는 양춘만선생을 데려가자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고 박원식은 신중한 표정을 짓고 말을 떼였다. 그런후에 그는 여직까지 수십수백번 속으로 외워보았던 일련의 표현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하였다. 《양선생! 우리와 함께 강선으로 돌아갑시다.》

《강선으로 돌아가요?》 양춘만의 입가에는 알릴듯말듯한 비웃음이 비껴있었다. 《난 나대로 필요에 의해 여기 와있는데요.》

《그렇긴 하겠지만 강선에는 양선생이 공들여 만든 강철전기로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로요?》 그의 눈에서는 불이 번쩍하였다. 마치 그는 호되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몸을 비틀면서 적의에 찬 시선으로 박원식의 근엄한 얼굴을 쏴보았다. 《난 전기로를 증오하오. 다시는 내앞에서 전기로가 어떻다는 말을 하지 마시오.》

《그것은 옛날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전기로가 필요합니다. 빨리 가서 불을 지펴 강철을 뽑읍시다.》

《강철을 뽑는다?》 담배갑으로 가져가던 손이 파르르 떨면서 몇번이나 헛데를 짚고있다. 《나는 강선에 가지 않을것이고 역시 강철도 뽑지 않을것이요. 난 그 모든것과 결별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나대로 행로를 다시 찾겠소.》

이쯤하고보니 공연한 말씨름만 계속하게 될것 같았다.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굳게 다짐하였지만 조소와 멸시가 로골적으로 어린 양춘만의 눈길이 가슴을 못견디게 흔들었다.

《마음을 누잦히고 생각해보시오. 저번날 내 여기 오선생님한테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우리는 강철이 없어 철도도 탄광, 광산도 운영을 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인민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하는데 공장들이 돌아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여보시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양춘만은 끈덕진 상대편에 대해 더는 참을수 없었던지 무례한줄 알면서도 되알지게 내쏘았다. 《보아하니 당신도 공산주의자같은데 8.15가 되자 로동자들을 선동해서 모두다 두들겨패지 않았습니까. 야만같이 말입니다.》

《어쨌든 군중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의 힘이 미치는껏 압제자들을 징벌했을겁니다. 그들은 자유와 권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런데 양선생이야 아무런 벌도 받은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제때에 몸을 숨긴탓이지요. 여하튼 나는 당신네 요구에 응할수 없습니다.》

잠간 침묵이 흘렀다. 바깥에서 인적기나서 그랬던지 오선생이 부엌을 거쳐 밖으로 나갔다.

《아니 신들을 어쨌소?》

《거기 마루밑에 있었지요.》

양춘만이 바라지를 열어제끼였다.

《허 참,생눈 뽑아가겠군.》 오선생은 너무 턱자없어 허허 웃고있다. 《몽땅 들어갔네,반반하게. 세상이 이러구서야 어떻게 살아가나. 이건 무법천지거든.》

마루밑에 벗었던 구두들을 몽땅 걷어갔다.

《하기야 뭐 인간의 정신마저 앗아가자고 달려드는판인데 구두가 대수요.》

양춘만의 비꼬임이 몹시 거슬렸지만 박원식은 분기를 꾹 눌렀다. 그런후에 오선생에게 잠간 기다리라고 하고 그는 앞거리로 나갔다. 한 삼십분후에 운동화 두컬레를 사들고 돌아왔다.

《어찌겠습니까. 걸음을 걷자면 신이 있어야 할테니까 피차 아무거나 하나씩 걸칩시다.》

너무나 태연하고 로골적으로 기성화해버리는 박원식의 해석에는 놀라움을 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데도 양춘만은 그것을 탓할만한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급히 걸어서 그런지 얼굴이 벌겋게 된 박원식은 양춘만이 앞

에 마주앉으며 오선생에게 고뿌를 빌자고 하더니 염낭에서 술병 2개를 꺼내였다. 한홉들이 사기고뿌를 내놓자 박원식은 마개를 뽑고 35도짜리 소주를 가득차게 부었다. 그는 다른 주머니에서 마른명태 두마리를 꺼내 쭉쭉 찢어놓더니 고뿌의 술을 제가 먼저 단숨에 쭉 들이켰다. 양춘만이도 오선생도 술좌석의 범례를 너무나 엄청나게 어기는데 놀라 눈이 둥그래져서 마주보았다.

《먼저 실례했습니다.》 입술에 매달린것을 손바닥으로 문대며 박원식은 어질게 웃었다. 《이렇게 해야 안심할수 있습니다.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은 소금에 독약을 치고 우물에 청산카리를 타고 쌀에 비상을 섞고 하는 별의별 경난을 다 겪었기때문에 서울 복판에서 파는 술도 조심히 대합니다. 한대씩 피우시오. 그사이에 내가 별일없으면 그때 정식으로 권하겠습니다.》

양춘만은 오선생과 박원식을 놀라운 시선으로 번갈아 쳐다보고있다. 그런데도 다시 놀라운것은 박원식이 그 경악할만한 행동을 별로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수행하는것이다. 더구나 《우리 항일유격대원들은》 하는 대목에서 그의 넋은 완전히 질리고말았다.

《허어 참!》

오선생은 장미가 꿋꿋이 내뻗은 눈섭을 치켜올리며 연방 감탄의 소리를 지르고있다.

박원식은 얼굴이 홍당무우처럼 되였다. 그는 주정에 과민한 체질이여서 전혀 술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러나 태연하게 술을 부어 오선생에게 먼저 권하고 그다음에 양춘만에게 잔을 돌리였다.

《우리 유격대가 활동하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원식은 양춘만이 잔을 비우는것을 보고 또 병을 기울이였다. 기왕 위장포를 벗은바에는 거침없이 자기를 드러내놓을 결심을 하였다. 옴니암니 체면과 정황과 심리동향을 가리노라면 한정이 없겠고 또 그래봤대야 론리로써는 양춘만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고개를 들고 억실억실한 눈으로 웃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유격대에 최의관이란 성실한 대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룡정거리에서 간판을 붙이고 병원을 차리고있었는데 어느날 밤 항일유격대원 두명이 나타나 우리한테 부상을 당한 사람이 많이

생겼는데 수고스러운대로 같이 가서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난 못간다. 난 통비가 될수 없다.〉 하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하는수없어 유격대원들은 그의 입에 수건을 틀어막고 둘쳐업었습니다. 한사람은 수술도구와 약가방을 들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업히여간 최의사는 인간을 귀히 여기는 정신이 얼마간 있다보니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유격대원들의 애국심에 감동이 되여 밤을 새워가며 수술을 했습니다.》

《어—험!》

오선생이 취기에 거나해진 눈을 크게 뜨면서 고개를 끼떡끼떡하였다.

《환자들의 생명이 다행히 구원되게 된 열흘후에 최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려갑시다. 우리가 약속한 기일이 되였습니다. 선생님에게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해 우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물으면 강압에 못이겨 붙잡혀갔댔노라고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자! 떠납시다.〉 그러니 최의사는 〈나는 환자를 이대로 두고 못가겠소. 이제 알고보니 항일유격대원들은 우리 민족사에 첫째가는 애국자들이요. 이들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내 하나의 안일을 위해 여기를 떠나다니. 나는 못가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후 최의사는 유격대군의가 되여 적탄에 희생되는 날까지 잘 싸웠습니다. 그는 우리모두가 기억하는 혁명투사였습니다. 그래 유격대원들은 최의관이라고 하면서 룡정의사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우리는 지금 술을 마셔야지요.》

박원식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또 잔을 부었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차츰 더 팽팽해진 양춘만은 공연히 자리를 고쳐앉기도 하고 술잔을 들어옮겨놓기도 하면서 안절부절을 못하고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오선생은 고개를 숙인채 빚어세운듯이 앉아서 박원식의 다음말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여담을 끝냈다고 본 박원식은 아까 시작했던 말을 다시 꺼내기로 결심하였다. 시작한바에는 앉은자리에서 끝장을 보아야 할것이기때문이였다. 그의 머리속에는 강선에 갔다온 그날밤 **김일성**동지께서 자기를 앉혀놓고 하시던 그 말씀과 그때 그이의 모

습이 생동하게 떠올랐다.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야 할것이였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한대 태우고 나서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양춘만선생을 데려오라고 해서 여기까지 찾아온 박원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요?》

양춘만이와 오선생이 일시에 같은 소리를 내였다. 하지만 양춘만은 인차 얼굴에 그늘이 비끼면서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잠시후에 양춘만이 입을 열었다.

《분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믿기도 어렵구요. 또 **김일성**장군님께서 어찌하여 나같은 인간을 알게 되였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환영을 받을만한 인간이 못됩니다. 그러니 그편의 말을 내가 믿기 어렵다는것을 리해할수 있겠지요?》

《그렇습니까?》 하고 박원식은 더욱더 침착해지면서 입에 물었던 담배를 재털이에 올려놓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테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결심하십시오.》 박원식은 의혹과 공포에 가위눌린 양춘만을 동정하는 눈길로 쳐다보며 말을 계속하였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였습니다. 양춘만기사를 만나면 우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시오. 강선제강소에서 강철을 만들던 기사 양춘만은 광복된 우리 조국의 강철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당장은 그가 우리의 의도를 잘 리해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리해하게 됩니다. 혹시 그가 일본놈들에게 리용된것이 마음에 걸려 우리를 따라오는데 주저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고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건설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나 손잡고 나갈것입니다.》

박원식은 잠간 말을 중단하였다. 흥분이 앞서고 귀가 벙벙 울리였다. 자기가 말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장군님앞에서 자신이 듣고있는것 같은 착각마저 생기였다. 그는 자기를 정시하고있는 양춘만의 예리한 시선을 감촉하였다. 의혹은 점점 더 커지는것 같

았다. 이야기의 구절구절이 다듬어지고 론리에 빈틈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막벌이군같은 사람한테서 그런 정치적이고 세련된 표현이 거침없이 나오는가 의심하는것 같았다. 하지만 박원식은 그냥 한본새로 내리엮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에 강철이 필요하기때문에 강철을 만드는 양춘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것은 식민지지식인인 그 인간을 해방시키자는것입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얽매였던 그 지식과 그 정신을 해방시켜 자기 나라, 자기 인민의 편에 그를 세우자는것입니다. 그 식민지지식인들속에 양춘만이도 끼워있습니다. 지식인에 대한 해방, 그것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는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오랜 기간 일을 같이하면서 서로 의사가 통하고 역시 그것도 지식인답게 마음으로 우리의 의도를 접수해야 하는것입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맙시다, 박선생!》

양춘만은 짓씹고있던 입술을 열고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것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우리는 지식인을 해방하자는것입니다.》

《해방이요? 해방이라면 우리한테 자유를 주어야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을가요?》

《물론이지요. 당신들이 어느쪽으로 가는가 하는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라?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이자리에서 당신들을 따라 안가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버려두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양춘만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은 전사입니다.》

《그럼 나는 포로되였습니까?》

양춘만은 무릎에 올려놓은 주먹을 떨면서 고개를 떨구었다. 박원식에게는 그 모양이 매우 가련해보이였다.

《양춘만선생!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야기합시다. 나는 지식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참말 지식인에 대한 해방이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공산주의다 뭐다 자꾸 그러지만 말고 답변해보시오. 그럼 당신은 계속 일본제국주의와 운명을 같이하겠는가? 당신은 앞으로도 일제를 위해 강철을 만들겠는가? 양춘만은 엄연히 조선사람이고 조선사람의 량심을 가진 기술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시오.》

양춘만은 고개를 들고 앞에 떡 막아앉은 박원식을 쳐다보며 가슴을 움켜쥐는것이였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었다.

《당신네 맘대로 하오. 당신은 총을 가지고있겠지요. 룡정에 있는 최의사처럼 나를 만들자는거지요. 나는 먼 앞날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 하지 않소. 그러나 오늘 지금현재 나는 당신네를 따라갈수 없소.》

말을 끊고나서도 잠간 그는 이쪽을 모멸에 찬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눈굽이 젖어들더니 흑 하고 숨을 들이그으며 방바닥에 엎어지는것이였다. 그는 울고있었다.

박원식은 다시 담배를 붙여물고 가련한 정상을 지켜보고있었다.

《양선생! 너무 이러지 마시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했소, 어쨌소. 우리는 솔직히 다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강철이 필요하다, 기관차도 수리하고 석탄도 캐야겠는데 강철이 없단말입니다. 새 나라를 세우는데 지식인도 있어야 나라가 흥한단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면 당신네 앞길은 대단히 좋을것입니다. 또 거기에 처자가 있잖소. 당신도 인간이겠지. 당신은 남편이구 아버지가 아니요.》

《나도 인간?》

양춘만이 뻘겋게 충혈한 눈을 들었다. 초점을 잃은 그의 시선은 안해와 자식이 보이는것처럼 번뜩이고있다.

《양선생네 부인과 아이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지만 잘 믿을것 같지 않아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가보면 다 알게 될겁니다.》

이야기는 날이 어두울 때까지 계속되였다. 한쪽에서는 손을 내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한사코 물리치고있다. 그렇게 하기를 수십차례 거듭하고있는것이다. 처음부터 몇시간동안 가운데서 랭랭히 듣고만 있던 오선생이 담배연기가 자욱한 공기를 갈기 위해 미닫이를 틔워놓았다. 그런후에 간곡한 어조로 타일렀다.

《나는 양군의 스승으로서 한마디 권고할것이 있네. 내가 자

네를 처음 만나서 북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면서 한 말이 있었지. 나는 **김일성**장군님을 숭배하는 사람이요. 우리 조국의 운명이 칠성판에 놓였을 때 누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싸웠는가. 나는 목격하지도 못했고 들은 소리도 없소. 다만 나는 왜정때의 신문을 통해서 읽었을뿐이요. 왜놈들은 공산비적이요 토비요 하고 악선전했지만 총을 들고 조국광복을 위해 싸운것은 오직 **김일성**장군님뿐이요. 그래 김구가 그랬소? 리승만이나 김성수가 그랬소? **김일성**장군님과 견줄 애국자가 어데 있소. 그러길래 우리 남조선사람들모두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셔서 우리 3천리강토에 정치를 펴야 한다고 간절히 바라고있단말이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장군님의 부르심이 틀림없으면 선뜻 따라가는것이고 그것이 미타하면 후에 다시 기회를 보는것이 좋겠소. 내 의견은 이렇소.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인데 경솔히 해서는 안된다고 보오.》

오선생은 과연 스승답게 용의주도하게 그리고 사리에 맞게 판단을 내리고 나중에는 좌우 편향을 다 경계한 중립적인 대안을 제기하는것이였다.

그날밤 박원식은 오선생네 집 웃방에서 양춘만이와 함께 날이 샐때까지 이야기를 하였다. 온갖 수놀음을 다했지만 방싯이 열리는것같던 양춘만의 마음은 인차 조갑지처럼 꽉 다물군하였다.

박원식이 길거리에 나가 설렁탕을 한그릇 사먹고 들어오니 양춘만은 웃방에 누워 자고있었다. 숨소리도 없는것을 보니 자는것처럼 하면서 갈것인가말것인가 바재이기도 하고 또 이런것저런것을 예측하면서 운명을 점쳐보는것 같았다.

그앞에는 두 길이 열려있었다. 하나는 북이요 하나는 여기 남이다. 그는 벌써 몇달동안 확고하다고 믿었던 자기 행로가 불과 하루사이에 모질게 흔들리고있다는것을 감각하였다. 여직까지 그는 북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소박하면서도 과격한 박원식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를 사정없이 밀쳐놓은것이다. 그는 눈을 감고 연방 자리를 뒤채면서 갈림길에 선 자기의 운명을 지켜보았다. 지금 내뗀 남쪽의 길, 이 방향으로 꿋꿋이 걸어가고싶은것이 그의 요망이기도 하였다. 그러면 그 길에는 무엇이 있

는가? 이에 대해서 아직 확고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예측이나 가정도 만들수 없었다. 막연하게나마 볼수 있다면 미국쪽에 붙는것뿐이다. 그런데 그앞은 단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이 아닌가. 미국에 붙는다는것은 이전에 일본에 붙었던것의 반복일것이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광복전에 일제의 리용물이 되였던 값을 톡톡히 치르고있는데, 바로 그것때문에 처자를 버리고 쫓겨다니는 설음많은 나그네신세가 되였는데 이제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야 한단말인가. 전철도 전철이지만 남에 와보니 미국놈이란 왜놈보다 더 혐오스러운 징그러운자들 같다. 온 남조선 일판을 미국판으로 만들려는 꼴이 헨둥하게 알렸다. 이제 그 손아귀에 잡히는 날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수족을 얽히우고말것 같았다. 호랑이굴에서 빠져나오니 승냥이와 맞다든 처지라 할가. 아,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어떤가? 박원식이라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길이다. 그런데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 있겠는가. 유인자란 언제나 마음이 동하게 들띄워놓는 수법을 쓰는법이다. 그러나 그 인간은 분명 두가지만은 명백히 자기를 나타내였다. 하나는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완강한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성품이 결코 악하지 않다는 점이다. 독이 들어있을수도 있다면서 먼저 술을 마시는것도 그렇고 장군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면 수첩을 꺼내서 이미 적어두었던것을 그대로 읽어주는 성실한 점이다. 그러면 그를 따라 북으로 가면 어떻게 될것인가? 그가 말한대로 강철을 만들게 될것이다. 그저 평범한 조선사람으로 살게 될것이다. 이것이 최상일것이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극단한 경우 《일제에 복무한자》로 되여 강제로동을 당하거나 붉은 교수대에 목을 걸게 될것이다.

이 모든것은 다 가정이다. 현실은 내가 박원식의 손탁에서 빠져날수 있는가 하는것인데 그것은 지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오선생의 권고를 따를것인가? 오선생의 공리는 한번도 빗나간적이 없지 않는가. 돌아설 기회는 아무 때도 있을테니까. (박원식이 말대로 장군님께서 부르시는것이 사실이라면…) 하고 그는 가정해보았다. 뒤이어(그것은 거짓이다. 그럴리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면 그만한 세기로 또 앞의것이 되돌아와 가슴을 세게 두드린다.

그는 박원식의 얼굴을 상기하고는 공포에 질려 떨다가 개선연설을 하시는 장군님의 초상화를 본 생각을 하면서는 한가닥 기대에 젖어들군하였다. 날이 샐 때까지 숨을 죽이고 누워 수십번 같은 생각을 반복하였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가겠소, 북으로 가겠소.》 하고 실성한 사람처럼 되뇌이였다.

박원식은 그를 붙잡고 눈물이 글썽해져서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고 같은 소리를 반복하였다.

이렇게 되여 박원식은 다음날 《사리원려관》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약속하고 둥둥 뜬 기분으로 숙소로 돌아왔다.

8

키가 늘씬한 양춘만은 등산용 배낭을 걸머지고 리화녀전이 저쯤 바라보이는 정동 33번지 객주집을 떠나 서울역으로 나가고있었다. 8.15직전에 해입었던 줄무늬의 등색 제낀옷은 볼모양이 없이 꼬깃꼬깃해졌고 에나메르트구두도 이제는 코가 허옇게 벗겨졌다. 발을 옮겨짚을 때마다 늦추 달린 배낭이 엉뎅이를 털썩털썩 때렸다. 고르롭지 못한 보도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있는 크지 않은 눈은 한껏 음울한 빛을 띠였다.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 앞을 가려보고는 황급히 목을 움츠리군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석비레땅이 나타났다가는 콩크리트포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지나면 다시 아스팔트를 다진 반반한 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시야에 비친 그것들은 마치 얼룩진 그의 심리와 대칭을 이루고있는것 같아 어데를 디디든 불안하고 초조하였다.

밤새 그렇게도 깊이 궁냥하고 떠난 길이지만 정작 북으로 향하고보니 오금이 저려나기 시작하였다. 원래 그가 강선제강소를 뒤에 두고, 아니 제강소가 아니라 아릿다운 안해와 보배덩이같이 귀한

첫아들 일웅이를 남겨두고 서울에 와서 첫번째 짜낸 안은 운명에 순종하여야겠다는 무저항적인 안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몇번 이리저리 사회라는 면판우에서 굴려보니 아무리 체념이라 하더라도 한생 그렇게 살수는 없는것이며 더구나 그 순종이 공산주의자들의 치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서리가 내돋았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적인 공포도 있었지만 몇권의 책과 그 리념을 해석할만한 친구와 하루밤 론쟁을 벌린끝에 공산주의는 범접해서는 안될 페스트지구로 인정해버리고말았던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리념때문에 부모나 자식과 절연하기를 서슴지 않으며 지어 살륙을 벌리는 경우도 있다 한다. 그토록 인간성, 인도주의와 담을 쌓은 싸늘한 인간들이 그 무슨 인간이 용납할만한 체제나 제도를 만들어낼수 있겠는가. 그래서 죽어도 북으로는 안간다고 벼르던 자기가 지금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있는가. 그렇다고 이제 돌아서야 한단말인가.

《아!…》

그는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터져나오는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터덜터덜 기계적으로 발을 내짚었다.

《가자, 가자.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힌 신세에 이제 주저한들 살길이 열릴소냐. 내친 걸음이니 가놓고보자. 나도 모르겠다.》

입속으로 이렇게 내처 중얼거리며 걷느라니 어느덧 기운과 정신이 회복된듯싶었다.

어느사이에 《사리원려관》쪽으로 나가는 전차정류소에 이르렀다. 색날은 회색캡을 푹 눌러쓴 그는 경계하는 시선으로 몇명 안되는 정류소승객들을 훑어본후 다시 앞뒤를 살피였다. 웬일인지 이런 때에 민기환이 불쑥 나타날것 같은 위구심이 생겼기때문이다.

(북으로 돌아가는 나를 본다면 민기환이 뭐라고 할가.) 생각만해도 오싹해진다.

양춘만이 민기환을 만난것은 서울에 도착해서 한달만이였다. 어느때를 막론하고 성급한것때문에 랑패본 일이 한번도 없었던 양춘만은 하루 한번씩 그것도 정확히 타산해서 선택한 대상인물들만을 잠간씩 만나보고는 노상 집에 들어앉아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비가 부실부실 내리는 저녁때 대문앞까지 대형포드가 바싹 붙어서더니 위풍이 당당한 신사가 하나 내렸다. 창경으로 내다보고있던 양춘만이 누가 온것 같다고 조카를 내보냈더니 인차 명함 한장을 들고 들어왔다.

《민기환 서울영어강습소 부소장 전화번호 01423.》

양춘만은 마치 불타는 숯덩이라도 집어든것처럼 명함장을 이쪽저쪽으로 옮겨잡으며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도꾜에 가서 고학생들 하숙을 경영한다더니 어찌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는데 《양군 있나?》 하고 이미부터 귀에 익은 전형적인 남성저음이 울리였다.

미닫이를 열고 마루에 나서며 양춘만은 《민군이 어떻게…》 하고 말꼬리를 흐리였다.

《그쯤 알아두게.》

민기환은 마당에 들어선 운전사에게 시간이 걸릴테니까 밤 11시부터 12시어간에 와보라고 하면서 짐칸에 실은 지함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양춘만은 친구의 손을 놓지 않은채 방안으로 끌어들이였다. 그리고나서 그는 민감하게 친구의 아래우를 쭉 훑어 체취를 간취하려 했고 겸해 그 무게를 짐작해보았다. 원래 허풍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것을 느낄수 없고 오직 지나칠사한 틀차림이 다소 엿보일뿐이였다.

《여보게,내가 양춘만때문에 얼마나 고심했는지 아나? 강선에 두번이나 사람을 띄웠고 또 이 서울장안에 있을만한데를 샅샅이 뒤졌네. 역시 자네는 령리할뿐더러 운수가 좋아. 하느님은 자네한테 변함없이 계속 자비와 은총을 베풀고있거든.…》

민기환은 옷을 벗고 넥타이를 풀더니 잇대서 지함을 터치였다. 지함에는 여러가지의 술병과 통졸임이 들어있었다. 번쩍번쩍 윤이 나는 상표들에 무슨 샴팡,무슨 꼬냐크 등 꼬부랑글이 찍혀있었다.

《어찌된 일인가?》

양춘만이도 위압을 밀어제끼기 위해 태연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서가에 등을 대고 제빠듬히 앉았다.

《어째서라는것이 있는가. 민기환이 양춘만을 축하해서 한잔 마시자는거지.》

《축하？》

《그렇네. 축하네. 자네가 여기 서울에 왔다는 그자체가 축하를 받을만한 거사였네. 내 말의 뜻은 차츰 알게 될걸세. 자！ 자네는 독한것부터 마시기를 좋아했지.》

민기환은 희고 포동포동한 손으로 단지형 꼬냐크병마개를 따더니 유리잔에 부었다.

《자！》

잔을 내들고 쳐다본다. 양춘만이도 잔을 내대는데 민기환은 점잖게 턱을 들면서 빙그레 웃었다. 어쨌든간에 얼마간의 번민을 가실수도 있고 요행수를 바랄수도 있어서 단숨에 잔을 쭉 비웠다. 연거퍼 잔이 오고갔다. 도수높은것을 자꾸 마시지만 양춘만은 전혀 정신이 흐려지는것을 느낄수 없었다. 오히려 더 초롱초롱해진다. 그 까닭은 전과는 딴판으로 된 민기환을 목전에 보기때문이였다. 원래 민기환은 다재다능하였고 언변도 좋았다. 대체로 면담을 시작해서 10분정도면 자기도 다 드러내놓고 남의것도 그만 못지 않게 뽑아내는 수완을 가진 그였다. 한데 한시간이 지나고 두시간이 지나는데도 명함에 적힌 직분외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이따금 약간씩 내비친다는것은 《저쪽에서 좋아할것이네.》라든가 《내가 그쪽 의사를 알아보지.》 하는 등인데 그것은 분명히 미군정계통의 모 대상을 념두에 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사실 그러하였다. 민기환의 모든것 즉 사고, 행동, 목적, 수단은 전부 거기에 귀착되여있었다. 첫 대상은 서울대학 2호교사 구석방을 차지한 미군중좌 햄스이며 그것을 거쳐 그다음에는 미군정장관 아놀드소장이였다. 또 아놀드를 거쳐서는 동경에 주둔한 맥아더원수와 펜타곤이라는것이 명백하였다. 왜정때 동경에 있던 민기환은 일본군부의 정탐이였는데 서울에 건너와서 3일만인 9월 13일에 미군의 정보계통과 접선하게 되였다. 햄스와 관계를 가져서 한달이 되는 어느날 그는 교외로 실려나갔다. 가보니 제낀옷신사차림인 장신자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아놀드라고 하였다. 그는 한끼 식사나 같이하면서 얼굴이나 보아두자고 불렀다고 하였다. 주탁에 앉았을 때 아놀드는 며칠전에 만난 맥아더에 대한 인상을 많

이 말하였다. 점령국 일본에 대한 일체 권한을 독차지한 맥아더는 다망한가운데서 옹근 3일동안 자기, 군정장관을 위해 바쳤다고 하였다. 정치여담은 두간두간 끼였는데 맥아더의 관심사는 일주일동안 대일전쟁을 한 쏘련이 해수로 5년이나 희생을 무릅쓴 미국보다 몇배나 더 많은 령토를 차지했다는것을 거듭 상기시켰다고 한다. 군사에서는 미군이 승리했지만 외교에서는 쏘련이 승리했다.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만회하자면 정보와 정탐전을 하는외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것이다. 맥아더는 자주 자기를 쓰딸린과 대비하면서 자기가 애용하는 상아파이프는 500년전 아프리카 코끼리뼈인데 크레믈리것은 우랄산의 목제품이라고 했었다. 맥아더는 한잔 들고나서 《전쟁의 목적은 승리하는데 있다. 승리의 대용품은 없다.》고 선자리에서 세번이나 되풀이하고나서 노래를 불렀는데 《로병은 죽지 않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웨스트포인트(륙군사관학교) 교가를 부르더라고 하였다. 맥아더는 아놀드를 문앞까지 바래주면서 조선이라는 한개 나라가 당신의 손안에 있소, 머리를 붙잡아 오오, 머리를, 오펜하이워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그런걸 말이요, 서울대학에 안무어라는 물리교수가 하나 있고 일본서 건너간 화학박사가 또 하나 있다는데 그걸 붙잡아 오오, 그걸 내앞에 가져오란말이요, 알겠소, 그와 함께 북측으로 쏠리는것은 무자비하게 없애치우시오, 그것만이 우리한테 혜택을 주니까 했다면서 아놀드는 맥아더를 로골적으로 숭배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민기환이 정신을 차릴수 없을만치 현혹시켰다. 그날밤부터 민기환은 아놀드의 지시를 받아물고 곧 행동에로 옮기기로 하였다.

민기환이 떠나올 때 아놀드는 현관에 세운 《포드》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당신거요. 서로 알게 된 기념으로 주겠소. 영예는 후하게 차례지오. 우리는 제사람한테는 린색하지 않소.》 하고 어깨를 떠밀었었다.

어느덧 통금싸이렌이 울리였다. 양춘만이 벽시계를 쳐다보자 《이봐, 양군!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시간을 재서 뭘하나. 밤새워 이야기나 하세. 지금이 어느땐가. 지금 각도를 정하는데 따라 영영 사귀지 못하는 편차가 생길수 있어. 그러나 난 믿네. 양

군이 38선을 넘어 여기 서울에 제발로 왔다는 그 자체가 영원한 평행을 그을수 있다는걸 의미하고도 남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한잔!》

양춘만은 점점 더 환상세계에 끌려들어가는것 같아 약간 불안한 감정이 솟아나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그 어떤 위험이나 공포를 자아낼만한것을 전혀 느낄수 없어서 그는 어중간한 기분에 계속 잠겨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또 갔을 때 대문밖에서 자동차경적소리가 울리였다. 이미 예정했던 그 차가 온것 같았다.

《이쯤하고 난 가겠네.》

민기환은 옷을 집어들었다.

《못가네. 통금시간이 두시간이나 초과됐네.》

《통금? 난 그런데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네. 알겠나.》

그는 두세번이나 발을 헛짚고서야 겨우 구두를 찾아신었다.

《이사람 양춘만! 인생이란 참말 공교롭지. 이런 중요한 때 내가 양춘만을 생각해냈거든. 내 대상명단에 양춘만을 적어넣지.》

《명단이란건 뭔가?》

《그런것이 있네. 첫 대상은 평양에 있는 서울대학 교수 안동권선생과 교또대학 리영기박사네. 차츰 자네도 그런 급에 끼우도록 내가 힘써보지. 다시 오겠네. 그래서 우리 인생행로의 각도를 확고히 정해보세.》 그는 비척거리며 마당을 걸어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양군, 우리 전도는 양양해. 자, 안녕히!》

역한 냄새를 확 풍기며 열려있는 포드안으로 그가 들어가자 빨간 꼬리등이 잠시동안에 골목으로 사라졌다.

양춘만은 그후에도 두번이나 그를 만났다. 의사소통이 거듭될수록 양춘만은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발언을 듣게 된것이 민기환의 그 어떤 조작이거나 정도이상 사실을 과장한것이 아니였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민기환의 출현은 크게 실망했던 양춘만에게 재생의 길을 틔워주었고 열정을 불어넣어주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충고를 배반하고 북행의 길에 오른것이다.

《사리원려관》에 찾아가니 기다리고있던 박원식과 리만석이 환

성을 지르며 달려나온다. 그중에서도 리만석의 얼굴을 보기가 매우 민망스러웠다. 아무때고 기회만 있으면 둘러메치고 밟아주고말겠다는 적의가 항시 로골적으로 어려있던 시꺼멓고 큰 그 눈이 지금에 와서는 대단히 선량하게 웃고있다.

(저것이 참말 지금현재의 속심그대로의 표정일가.)

하고 양춘만은 생각하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무슨 리해관계에 기초한것인가. 기술에 대한 리용인가?

그러는 사이에 박원식은 친절하게 배낭을 벗기며 한대씩 피우고 역으로 나가보자고 하였다. 양춘만은 시키는대로 마루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리만석이 후하게 숙박비를 치르는 모양인지 려관주인은 다음에 와서도 꼭 들리라고 한다.

《우리 집에 들려 판을 벌리면 손해는 없습넨다. 잘하면 장땅도 나오디요.》

뚱뚱한 녀주인의 평안도사투리를 건성 들어넘기면서 양춘만은 둥글둥글 구름처럼 덩어리가 져서 멀어져가는 담배연기를 시름에 겨워 쳐다보고있다. 그 연기를 거쳐 저기 서울역으로 뻗은 저 길에 내가 들어설것이다. 거기에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숙명이 어데로 끌고갈지 알수 없는것이다.

일행 셋은 경성역 대합실로 들어갔다. 밤을 거기서 밝히고 해가 뜰 무렵에 그들은 북으로 달리는 차에 앉아있게 되였다.

양춘만은 《야미장사군》들속에 끼워 차창옆에 겨우 비집고 들어앉았다. 잡채에 잡채를 들버무려 휘저은듯한 서울거리, 그의 한 가락을 뜯어가지고 렬차는 가는껏 가다보자는 식으로 개성을 향해 달리고있다. 서울이 차츰 멀어지고있다. 양춘만에게 있어서 서울은 매우 인상이 깊은곳이다. 룡강아버지는 항상 입버릇처럼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평양보다 서울이 좋다고 하였다. 그래 재산을 점차 전환시켜 룡강땅을 서울거리의 점포로 바꾸었으며 몇해안으로 거처도 옮긴다고 했었다. 그러나 양춘만의 이번 걸음은 그런 보라색꿈에 취해있을수 없었으며 두달동안을 어떻게 흘러보냈는지 알수 없을만치 번민속에서 보냈다. 그렇기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서울구경을 톡톡히 하리라던 어렵지 않은 소망마저도 이룩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가 책에서 본 서울의 인상들은 그대로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였다. 서울의 세가지 자랑,삼각산의 절경,한강의 장류,세종대왕과 충무 리순신의 출생 그리고 세가지 치욕 유교편중의 한양조 500년,비린내나는 500년간의 쇄국,수십만의 피땀으로 이룩된 40리 둘레의 서울성곽 여기서 단 한대의 화살도 날려본적이 없는 무용지물 이런것들,얼마간의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지 알수 없는 지식들이 독한 마음을 먹고 떠나가는 양춘만의 사색을 한동안 어지럽혀놓았다.

차창에 이마를 대고 번민하고있는 양춘만의 눈앞에는 착잡하게 얽힌 갖가지 생활들과 그 새짬으로 뻗은 무수한 길들이 내다보이였다. 그것은 인차 싫증이 나고 역겹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를 항상 붙잡고 따라다니는 하나의 환영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해와 아들의 얼굴이였다. 그것은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있었고 눈물이 가랑가랑한 눈길로 애무를 조르고있다. 사주팔자에 무자식일수도 있다는 점괘를 보기좋게 반박이라도 하는것처럼 결혼후 5년간 꿈쩍 소식이 없던 안해가 덜컥 메주덩이 같은 아들을 낳은것이 이제 잴잴 말을 번지게 된 아들 일웅이였다.

《일웅아! 너는 지금 어데 있느냐?》

초들초들 마른 입술을 터치고 이런 혼자소리마저 내였다.

부르죠아지식인퍼줄이라고 어떤 처참한 지경에 몰아넣었을것이다. 틀림없이 살아남지 못했을것이다. 급성대장염에 걸려 머리가 불덩이같고 활활 설사를 하는것을 보고 떠났었다. 차라리 이것저것 앞날을 타산하지 말고 그대로 눌러앉아 숨지는 아이를 지켜 안해앞에서,어린 넋앞에서 인간성을 저버리지 않은 아버지로나 남아있을걸 그랬다.

양춘만일행은 차에서 내린 그 이튿날 자기와 비슷하게 차린 《야미장사군》과 한짝이 되여 38선을 넘기로 하였다. 같은 양가라고 해서 말붙이기가 한결 수월했던 순천에 산다는 그는 천알들이 다이야찡 열병과 미군군복상의 열벌을 걸머졌는데 달밤을 리용해서 례성강물을 건너자고 했다. 그러자면 개성에서 서북방으로 올라가

려현에서 10리 상거한 례성강 여울을 건너야 했다. 별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걸었다. 논밭을 꿰지르기도 하고 버들밭을 뭉개면서 나가기도 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했다. 춥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쪽 탄알이 날아와 가냘픈 한목숨을 앗아갈지 모를 일이다.

양춘만은 물버들이 우거진 개장변에 엎드리여 뜨물속처럼 뿌연 앞을 내다보았다. 한 10메터가량 앞서나가던 박원식이 별일없다고 손짓을 한다. 먼저 순천장사군이 기여나가고 다음에 양춘만이 그리고 맨뒤가 리만석이였다. 물에 들어서니 칼로 에이는듯 물이 찼다. 잠시동안에 이가 떡떡 마주쳤다. 하지만 양춘만은 입술을 짓씹으면서 배허벅까지 올라오는 물을 건늬였다. 참으로 그것은 기적적이였다. 어떻게 되여 물속에 잠기지 않고 콩나물처럼 해말쑥한 다리가 몸체를 지탱했는지 부정맥이 심해서 항상 안나카의 도움에 의해서만 유지되였던 심장이 견디여냈는지 알수 없었다. 그가 압착을 느낀것은 불리한 자연이나 육체만이 아니고 앞에서 뒤에서 분명히 자기를 감시하고있는 두 인간의 시선이였다. 리만석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배낭을 들어주기도 하고 엉치를 떠밀어주기도 하였다.

쑥대가 우거진 최뚝을 벌벌 기여 한 서너마장 나가니 야산밑에 오막살이집이 한채 있었다. 날이 샐녘인데 마당에서는 숱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가 38선이북의 첫 인가라고 하였다. 남으로 나가는 사람, 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리는곳이였다.

양춘만은 허청간앞에 널린 벼짚을 깔고 털썩 누워버렸다. 온몸이 물에 젖고 손발이 까들어들어서 서있을수도 앉아있을수도 없었다. 이곳 사람들이 말하는 《38선학질》이 온것이다. 사지가 떨리고 머리가 띵하였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거침도 없이 오가던곳인데 얄따요 포츠담이요 하는 어간에 문득 환상으로 생겨난 그 무슨 계선에 의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것이다. 양춘만은 극동에서 남으로 내리뻗은 하나의 크지 않은 반도가 둘로 갈라져서 이 모양이 되고 또한 그와 류사하게 토막이 난 자기 신세를 비웃기 위해 허허 하고 공간에 대고 입김을 내불었다.

오막살이 한채를 놓고 샘구멍에 송사리 모이듯한 여기서 하루 쉬고 이튿날 배천쪽으로 나가다가 방향을 꺾어 곳곳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평산에서 차를 타자는것이다. 옹근 사흘동안 줄곧 걸어서 평산에 오니 거기도 역시 이때 어데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광경이 벌어지고있었다. 정거장근방에는 차손님이 한벌 널리였다. 려인숙에 들려 이틀을 묵고있는데 개천서 왔다는 장사군이 조용히 좀 만나자고 하였다. 그래 변소모퉁이에 따라갔더니 서울서 민기환이 보내서 왔다면서 50대의 령감이 양춘만이 옳은가고 물었다.

《그렇소. 내가 양춘만이요.》 하고 그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였다.

《민선생이 왜 자기와 의논도 없이 그렇게 훌쩍 떠나는가고 나무람합디다. 끝까지 따라가서 직접 말을 전하라는거지요. 평산에서 만날수 없으면 평양까지라도 갔다오라는겁니다.》

《그래 용건은 뭡니까?》

가슴이 섬찍해나는 순간 신경질적으로 내쏘았다.

《민선생의 말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다는거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당신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해서 목을 달아매자고 한다는겁니다. 당신의 아들 일웅이는 당신을 잡아오기 위한 인질로 지금 평양에 가있다는것을 알고있는가 합디다.》

장사군차림의 령감은 능청스럽게 말을 뜨직뜨직하면서 양춘만을 쳐다보고있었다. 양춘만은 눈앞이 아찔해져서 널바자를 붙잡고야 겨우 몸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몇초후에 그는 적의에 찬 시선으로 흉물스럽게 웃고있는 령감을 쏘아보면서 내대였다.

《내가 어쨌다구 목을 매달아.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쨌느냐 말이야.》

《내가 어쨌는가구? 제가 한 노릇을 그렇게도 모르겠소. 당신은 대일본제국에 복무하지 않았소. 천황폐하께 충성한것으로 해서 표창장까지 받았구 그만하면 친일분자로서 자격이 넉넉하잖소?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제국에 복무한 지식인들이 어떤자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견본품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요, 알겠소?》

《우리 일웅이가 인질로 잡혀가있다구?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민선생이 말하는데 당신의 뒤를 따르고있는 리만석이란자가 당신의 아들을 평양에 있는 공산당본부에 가져갔다고 했소. 그만하고 난 가겠소. 이제는 당신이 자기 할바를 생각해내야 할테니까.》

양춘만이 정신을 가다듬었을 때는 벌써 령감은 어데론가 사라지고말았다. 유령처럼 나타났다 유령처럼 사라졌다.

려인숙에 있던 차손님들이 우르르 역전으로 몰려나가고있었다. 역에 나갔던 박원식은 급히 떠나야겠다면서 서둘러대였다. 양춘만은 변함없이 그들이 하는대로 따라갔다.

기차는 인차 떠났다. 푸른 달빛이 차창으로 흘러들고 멀리 내다보이는 산과 들이 천천히 뒤로 흘러가고있었다.

양춘만은 하얀 얼굴을 내대고 창밖을 한동안 바라보고있다가 슬며시 일어났다. 휘청거리는 다리를 끌고 승강계단이 있는쪽으로 나갔다. 《고스란히 무덤을 향해 내 발로 들어갈수야 없지.》 덕지가 앉은 입술에서 혼자소리가 새나왔다. 논판을 지나가고 다음에는 민틋이 비껴간 등성이가 나졌다. 고르롭지도 못하고 몹시 얼룩진것들이 눈앞에 얼찐얼찐 지나가면서 운명에 대한 환영을 그려놓고있다. 그는 눈을 딱 감고 바로 그 어둠이 소용돌고있는 철뚝을 향해 몸을 날리였다.

양춘만이 자리를 뜨자 인차 박원식의 옆에 앉았던 사나이가 뒤따라 일어서 나갔다. 평산에서부터 기분나쁘게 보았던 그 사나이와 양춘만이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련결시키게 된 박원식은 자리를 차고 일어나 승강대쪽으로 나갔다. 위생실에도 승강대에도 양춘만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른 박원식은 리만석을 불러내면서 사위를 살펴보았다. 그때 그는 발뚝으로 내달리고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였다.

《양춘만이다!》

순간 그는 승강대발판을 차면서 어둠속으로 뛰여내렸다. 몇고패 딩굴고나서 그는 양춘만이쪽으로 달려갔다. 발가운데를 꿰지르고 나가면서 소리쳤다.

《양춘만이 서라！ 서라！》

박원식의 고함소리가 들판을 울리였다. 뒤에서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것을 알게 된 양춘만은 필사적으로 내뛰고있다. 넘어졌다가는 일어나고 일어서서 내뛰다가는 또 넘어지면서 달리고있다. 그러나 박원식은 산에서 단련된 완강한 체력으로 점점 더 간격을 좁혀나갔다. 《서라！ 서라！ 가지 말라！》 박원식의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된 양춘만은 오금이 저리고 숨이 차서 걸음을 내뜰수 없게 되였다. 이제 몇분만 더 따르면 붙잡을만한 거리가 되였다. 그런데 난데없는 총소리가 울리였다. 개천장사군이 쏜것이다. 《땅！ 땅！》 하는 순간 박원식은 다리가 휘청하며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일어서서 몇걸음 나아가다가 다시 모로 쓰러졌다. 넙적다리에 불이 달린것처럼 뜨거워났다. 박원식은 일어서서 손을 내흔들며 고함을 쳤다.

《양춘만이 가지 말라. 우리와 같이 가자！ 양춘만이 돌아서라. 우리와 같이 가자！》

처절한 웨침소리가 거듭거듭 야음을 흔들면서 멀리까지 울려갔다. 뒤따라온 리만석이 그를 부축하였다. 다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박원식은 리만석이더러 양춘만을 끝까지 따라가 붙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리만석은 추격하는것을 단념하고 박원식을 들어업고 마을로 찾아들어갔다.

제 5 장

1

자동차가 급정거하는바람에 **김일성**동지께서는 흠칫 놀라시였다. 앞을 꽉 막아선것은 장작을 높이 올리가린 달구지였는데 자동차를 만나게 된 황소란놈이 엉겁결에 길한복판으로 들어섰던것이다. 차창으로 내다보니 팔동교어구이다. 그이께서는 앞으로 숙어진 중절모를 바로잡고나서 옷소매를 들어보시였다. 팔목시계는 여덟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어느새 30분이 지나갔다. 집무실에서 밤을 새고 조반전에 대동군 농촌마을을 몇개 돌아보신것이다. 농민들은 한결같이 3.7제가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농민운동의 구호로서 3.7제를 제기해도 무방할것이였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공업형편이며 당면하게는 철도운수를 푸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박원식을 파견하시였고 최근에는 김책이도 당분간 거기에 붙어있게 하시였다.

우선 오늘 첫 시간에는 김책을 만나 철도형편을 들어보아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며칠전 공업전문학교마당에서 기관구에 다닌다는 로동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김책에게 알려주시였던것이다. 역시 평양철도는 복잡하였고 지어 불순한 공기마저 떠돌고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데까지나 일시적 대책이고 궁극에는 인재문제를 해결하는 그때에 가서야 정상상태에 들어서게 될것이다.

자동차는 급히 달려 잠시동안에 보통벌을 지나 창광산언덕을 끼고돌았다. 한반쯤 열어놓은 차창으로는 가을날 선기를 한껏 머금은 쌀쌀한 아침바람이 불어오면서 기분을 상쾌하게 하였다. 거리에는 벌써 사람들이 많이 나와있었다. 아카시아가 우거진 고개를 넘어서니 인차 조직위원회청사가 나졌다.

차가 정문안에 들어서자
《좀 세우시오.》 하고 그이께서는 운전사쪽으로 손을 들어보이시였다. 차가 멎자 그이께서는 금방 앞서 걸어가고있는 오기섭을 부르시였다. 함흥, 흥남지구에 파견하였던 오기섭이 돌아온것이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건강이 어떤가부터 물으시였다. 벌써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헐치 않은 기차려행에 대해서 걱정하시였다. 하지만 오기섭은 명랑한 기분으로 무사히 다녀왔다는것과 정작 가고보니 매우 필요한, 그러면서도 적절한 시기의 려행이였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인차 집무실에 들어가시여 오기섭이와 마주앉으시였다.
오기섭은 전에없이 약간 긴장하고 정색한 낯을 지었다. 적절한 비유와 경구가 어렵지 않게 나오고 언제나 해학이 있고 명랑하던 그는 탁자우에 문건을 펼쳐놓으며 될수록 정중해지려고 애쓰고있었다. 그러나 꺼슬꺼슬하니 자란 턱수염이나 항상 열어제껴놓은 앞섶 그리고 구두약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코등이 허옇게 된 가죽장화,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아 몸치장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있다는 점에서는 전이나 아무런 다름이 없었다. 다만 변화가 있다면 더웠을 때는 노타이샤쯔를 입었던것이 선기가 난 지금에는 검은색 잠바로 바뀌였다는것뿐이다.
《기일이 박해서 잘되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요대상은 대체로 알수 있게 종합되였습니다. 지식인이라고 할만한 대상이 열명정도 있고 최대한으로 폭을 넓혀서 열다섯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떼고나서 매개인당으로 설명하였다. 일단 명단에 실린 대상을 다 더듬고나서 의자에 앉으며 실망할수밖에 없다는 난처한 기색을 보이였다.
《그러니까 오기섭동무 생각에는 여기있는 열명이 모두 믿음성이 덜하다는것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하나 표시해나가던 연필을 놓으시며 오기섭이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결국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만 저는 이렇다저렇다 평가를 앞세우기전에 먼저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싶었습니다.》

《알만합니다. 우선 먼저 동무의 의견부터 충분히 들어보도록 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어떤 미묘한 감정선이 흐르고있다는것을 예민하게 감촉하시고 자연스럽게 담화를 심화시켜나가시였다. 오기섭이 낯을 찌프릴만치 혐오를 느끼고있는 문제는 10명의 대상이 모두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간 대상이라는 점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하고 오기섭은 침착하게 설명을 첨부하였다. 종주국은 식민지의 《머리》를 없애치우기 위해 우민화정책을 쓰는 한편 상류층의 재능있는 《머리》를 선발해서 동화시키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 바로 그 10명이 그 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이다. 10명, 그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뛰여난 두뇌를 가지고있으며 부유한 중류급 이상의 자산계층으로서 완전히 종주국자산층과 리해관계가 일치하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조선이라는것을 낚기 위한 일제의 미끼를 너무 깊이 삼켰기때문에 그 민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현재 우리를 따라오겠다는 동향을 보이고있는것은 지식인들이 가지고있는 본성에 의한것으로서 자기들의 생존에 유리한 편으로 가담하려는 의도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 론리를 피력하고나서 오기섭은 하얀 수건을 꺼내 입에 대고 밭은 기침을 하였다.

《양춘만은 할빈대학 공과 최우등생입니다. 그의 집은 룡강에 있는데 약 10정보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있습니다. 광복이 되자 그는 자신이 자기를 일제의 운명과 유착된것으로 인정하고 행처를 감추었는데 필연코 그는 서울에 갔을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대할것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평양곡산공장에 있던 오한민인데 그는 교또대학출신으로서 뛰여난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이 하바트대학에 추천해서 한달후에 떠난다고 하다가 전쟁이 발발하여 눌러있었습니다. 집은 서울 종로 대포목상인데 이도 행방을 알길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대할수 있는 근거를 찾을수 없었습니다.》

오기섭은 이런 식으로 9명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는데 판에 박은듯이 똑같은 결구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수 있겠는가?》 하고 수사학적 의문을 붙이는 방법으로 자기 의견에 력점을

찍어두군하였다. 맨나중에 약간 어색한 낯을 짓고 그러면서도 거침없이 《김책동무가 크게 믿고있는》 하고 전제한 다음 다른것보다 좀더 상세히 최준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경성제국대학 하면 조선에 유일한 관제대학입니다. 때문에 저들에 의해 그 관문이 극히 좁혀진것인데 거기에 최준걸이 들어갔다는 그자체만으로써도 우리는 그의 친일경향을 충분히 엿볼수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를 일제는 충실한 수족으로 만들기 위해 만주 장춘근교 모 광업연구소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경제적명맥을 장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참가시켰습니다. 그후 관동군을 무장시키고 일본에 투입할 철광석이 다량 요구되여 무산에 보냈고 또 다음에는 병기공업에 쓰이는 중석광생산에 밀어넣었습니다.》

오기섭은 초조한 빛을 보이면서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의 자료가 아무리 불쾌한것이라 해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탓할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실태이기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대로 알고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둘러싸고 세우게 되는 우리들의 견해이며 동시에 그들에 대한 우리의 립장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김일성**동지를 믿는외에 아무데도 의존할데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한생을 역경에서 보내다보니 친지도 동지도 없고 오직 맑스—레닌주의에 의탁할뿐입니다. 그런데 요새 나는 맑스와 엥겔스가 창건한 브류쎌민주주의협회에서 부르죠아급진주의대표와 사회주의적 로동자대표들이 만나군하던 그런 장면을 련상하게 됩니다.》 하고 그는 랭랭한 표정을 짓고 구체적인 실례를 들었다.

《김책동무는 나와 만나기만 하면 언제나 의견이 상반되는데 그것이 호상 충분한 납득이 없이 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김책동무는 자기 주관에 의해 사람문제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것은 최준걸인데 나는 앞서 말한 그런 근거에 의해 그를 경제정책작성에 참가시키거나 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최준걸은 경제문제에

서 중요한 의견을 내고있는 사람입니다. 또 김책은 그의 의견에 자주 동의하고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몇개의 기간부문 공장에 파견한 기술자를 보면 그 실태를 잘 알수 있습니다. 최준걸이 신통히도 자기자신과 어슷비슷한 대상들을 추천하였는데 가령 흥남비료공장에 나간 강병철이나 본궁화학의 원시범이 그렇습니다. 평양철도국에 있는 한명구도 그런 류형이라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또 요새 보면 공업전문학교를 내온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그러루한 인물을 분별없이 끌어들이고있습니다. 특히 그와 융합되기 어려울만치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것은 얼마전에 있은 중요공장기업소 책임자들과의 협의회석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나는 공장기업소를 복구하고 하루빨리 정상조업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견지해야 할것은 경제,거기에 우리의 계급성을 똑똑히 세우는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경제라고 해서 일제가 만든 공장에 그때의 기술자나 관리일군을 이전그대로 들여앉힌다면 그것은 결국 정치령역에서 돌이킬수 없는 우경적 후과를 남기게 될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기술자들이나 관리인원 가운데서 일제에게 복무한자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 김책동무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친일적인 요소가 없어질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제도 없어질것이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오기섭의 검실검실하던 얼굴이 불그스레해졌다. 그렇게 될수록 더욱더 침착해지고 률동적인 억양은 그의 심리적 파동을 타고나가면서 정연한 론리에 최대의 효과를 부여하였다.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하고 오기섭은 붉어진 얼굴을 천천히 들고 여직까지 펼쳐놓은 자기 견해를 한점에다 결속짓는데로 끌고갔다.

《우리 공장기업소를 통털어 일제를 대신한 친일분자들의 손에 넘겨주는것으로 될것이며 구경 우리 당은 그들이 조성한 경제적 난관으로 해서 커다란 암초에 봉착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계급적선에서 우경적 편향으로 나가는것으로 됩니다.》

매우 리지적으로 빛나던 오기섭의 시선은 차츰 더 랭철해져서 자기 의견에 확신성을 나타내였다. 무엇인가 더 미흡한 점이 있

어 잠간 망설이는것 같았는데 인차 평온한 기분으로 돌아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숨을 한껏 들이그었다가 길게 내부시였다. 정적이 깃든 방안에 고요가 천천히 감돌아 석양이 비낀 창가로 흘러가고있었다. 잠간 생각에 잠기시였던 그이께서 드디여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오기섭동무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문제를 놓고 많이 사색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문제 제기가 적극적이고 솔직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을 말하지 않고 속에 꿍지고 계속 가지고있었다면 사업에 큰 지장을 줄수 있었을것입니다.》

오기섭은 대바람에 온몸이 싸늘해질만치 긴장해짐을 느끼였다. 그는 **김일성**동지께서 즉석에서 《동무의 의견이 옳소.》 한다든지 《동무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하시는것이 아니라 그 리치를 엄정하게 따져보실것으로 짐작되였기때문이다. 한달 되나마나한 사이에 접촉해본데 의하더래도 그렇고 또 문제자체가 당의 전략적계선에서 넘나드는것이기때문에 그러하였다.

《그런데 오기섭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나직한 음성으로 그러나 매우 친근하면서도 존엄이 느껴지게 부르시였다. 《이 10명, 폭을 넓혀서 15명미만인 이들을 동무가 직접 다 만나보았습니까?》

그것은 뜻밖이였다. 순간에 입이 딱 얼어붙는것 같았다. 계급선상에 놓고 인간의 처지와 사상적 지향 같은것을 론의하게 된다면 고전가들의 임의의 견해나 저술까지도 자유롭게 인용 분석할수 있었는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오기섭은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그이의 안색을 살피였다. 그이께서는 별치 않은 물음에 정도이상 긴장하고있는데 대해 감촉하시였던지 상체를 뒤로 제끼며 부드럽고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오기섭동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눕시다. 일문일답식이니까 자연 서로 딱딱해지는것 같은데…》

기분을 전환시킬 여유를 주기 위해 그러시는지 그이께서는 자리를 떠서 창문을 약간 틔워놓고 란초꽃이 피기 시작한 화분을 해가 잘

드는쪽으로 옮겨놓으신 다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앉으시였다.

《명단에 있는 대상을 다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형적인 인물을 하나 만났습니다. 이 명단 네번째에 적힌 안동권이라는 경성제국대학 교수입니다.》

오기섭은 한결 기분이 완화되여 손과 몸으로 형용까지 해보이면서 명쾌한 어조로 말하였다.

《물리학에 권위가 있다는데 환갑이 넘었고 몸이 매우 허약합니다. 교수는 우리 공업전문학교에 자기가 가지고있던 도서를 약 2천권 기증해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교단에 나설것을 권고하니 재차 더 권고하지 못하도록 딱 자릅니다. 령리하고 명석한데 성격은 칼날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아니 하고 한번 결심하면 그것이 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짐작컨대 그는 공산주의리념에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있는것 같습니다. 김책동무가 여러번 찾아갔는데 매번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계급적 토대로 보면 여기 미림벌에 20정보이상 토지를 가진 지주의 장남인데 80객의 부친이 아직 거기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잠간 중단하였을 때 그이께서 물으시였다.

《그한테 우리와 함께 건국사업에 나서도록 권고하고 설복해보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안동권자신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어떤 리념이나 정치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해설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렇다?》

《그래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었고 그를 미루어보아 조선의 지식인라는것에 대해서 크게 기대할것이 못된다고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계속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오기섭의 조급하고 실무적이며 겸해 부문과 전체를 가려보려고 하지 않는 이그러진 심리가 리해되지 않아 고개를 가로저으시다가 또 물으시였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 명단을 보면 남조선에 있는 대상은 제외되였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이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원만한 대답을 할수 없었다. 그래 그

는 잠간 주저하다가 대답하였다.

《남조선의 대상인원은 우선 깊이 료해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누가 가야 하고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것입니다. 또 다른 리유는 그렇게 해봤대야 우리가 사업할만한 신통한 대상이 없다는것입니다.》

《신통한 대상이 없다구요?》

그이께서는 눈섭을 치켜올리고 의아쩍은 시선으로 오기섭을 잠간 쳐다보시더니 명단용지를 앞으로 밀어 내놓으시였다.

《리해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것만 해도 무시할 정도는 아닌데 이상합니다. 〈림꺽정〉을 쓴 작가 홍명희라든지 합성섬유를 처음 발명한 리영기 그리고 〈조선경제사〉를 쓴 백남운이, 또 동경제대출신 조선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처음으로 박사칭호를 준 공학자도 있고 수학전문가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학부문, 교육부문에도 더 있고 문학, 예술, 체육 부문에도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것입니다.》

《저는 그런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알아보아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가 남조선을 무시하거나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어데까지나 우리는 모든 점에서 북과 남 전체를 차별없이 대상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생각 안한것은 아니지만…》

《오기섭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근엄한 음성으로 저편의 말을 중단시키시였다. 건마다 해당한 리유가 있기는 하나 거기서 인간을 감화시킬만한 추호의 온기도 느끼실수 없었다.

《동무생각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정말 눈물이 날만치 서글프고 처량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도 한개 나라, 한개의 민족인데 과학자, 기술자가 천이나 만으로 세지는 못한다 해도 다문 몇백은 되여야 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열명이라니 이건 너무하지 않소. 참말 복통이 터질노릇입니다. 아무리 제국주의통치가 가혹하다 해도 이건 너무하오. 그런데 동무는 그 10명마저도 다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남조선은 셈에 넣지도 않았고.》

어떻게나 그이의 말씀이 사리에 맞고 그러면서도 뜨겁고 절절하였던지 랭철하였던 오기섭이의 시선은 멎을데를 못찾고 방황하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는 단호하게 결심을 내리시였다. 먼저번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할 때도 그는 미묘한 감정을 내비친적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지식인문제에서 매우 편협하고 좌경적인것을 자주 보였기때문에 그이께서는 기왕 이야기를 시작한 기회에 낱낱이 털어놓아야겠다고 다짐하시였다.

《참말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단 10명밖에 없다는 이것은 사실상 전혀 없는 령보다 더 슬픈 수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무는 그것마저도 만나지 않았다니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산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여기서 론의할수 있는가말입니다. 그들은 이국만리에 있는것도 아니고 또 그 어떤 건드릴수 없는 위험계선안에 들어있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곁에 있고 우리를 붙잡고 따라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얼음장같은 랭랭한 가슴을 가지고있으면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을것이며 설사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해도 따뜻이 안아줄수 없는것입니다. 또 동무가 말하는 지식인에 대한 리론적,계급적 견해를 따져봅시다. 저번날도 우리가 말했지만 지식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혁명의 생명선을 어떻게 장악하는가 하는데 관한 문제입니다. 당도 있고 정권도 있다,그러나 지식인을 다 청산해치워서 경제는 마비되고 따라서 먹을것,입을것이 없다,문화도 없고 예술도 없다,태반이 문맹자이고 질병에 허덕인다,이런 혁명을 도대체 누가 찬성하며 이렇게 만드는 당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시였다. 제기된 문제자체도 그렇고 에둘지 말고 투철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끌고나가야 하시였다. 오기섭이 인용한 실례들가운데서 그중 중시해야 할것은 방금 성대교수 안동권과 같은 대상에 대한 태도였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열정에 북받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기섭을 그윽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어디 대답해보시오. 오기섭동무가 공장을 직접 돌릴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식인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그들이 물질적 부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정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회성원의 중요부분인 그들을 온갖 낡은 처지의 영향에서 종국적으로 해방시키자는데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일제에게 얽매였던 처지에서는 해방되였지만 그들이 가지고있던 부르죠아적이며 개인리기주의적인 사상은 그대로 가지고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서 애국적이고 혁명적인 길에 들어서도록 해야지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른바 그 리론이나 계급투쟁을 위해서 지식인을 모두다 청산해치우고 맨주먹으로 앉아 공담만 하는데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무게있게 내대시는 이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은 저편의 페부를 사정없이 찌르는듯하였다. 드디여 오기섭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동무가 료해했다는 자료자체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일면에 치우쳤습니다. 다시말해서 나쁜 측면만 긁어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일제에게 복무했지만 일제의 차별대우와 민족적 멸시를 몸서리칠만치 당했습니다. 때문에 일제에 대한 반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과거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결정적인것은 오늘 현재이고 그들의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부유한 가정출신, 그것이 본인의 죄로 될수는 없잖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기가 세상에 태여났다는 그자체를 책임질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일제통치하에서 과학과 기술을 소유할수 있었고 지식인이 되였던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늘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가 하는데 있는것입니다. 설혹 과거에 일제에게 복무했다 해도 과거를 뉘우치고 우리와 함께 나가겠다면 되였지 거기에 무슨 우려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저쪽으로 달아나겠다고 해도 우리는 그를 붙잡아 돌려세워야 하는것입니다. 먼저 정치공작원들과의 협의회때도 말했지만 그것이 곧 정치입니다. 동무가 말한 강선제강소 양춘만이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찾아다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대 교수라는 안동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권고와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천권의 책을 자발적으로 기증했습니다. 또 흥남에 간 두명의 기술자들도 자진해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로동자나 농민은 그들의 처지에 의해 우리를 따라오기마련이지만 지식인은 그들의 처지에 의해 어간에서 눈치를 보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적측으로 넘어갑니다. 짐작키 어렵지 않습니다. 적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지식인들까지 온갖 회유와 기만, 공갈로써 뒤덜미를 잡아끌어가려고 할것입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식인문제가 적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선상에 놓여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앞에 막아선 애로와 난관을 천만가지로 셀수 있는데 그 원인의 원인은 인재에 대한 난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일치하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의 목표를 과감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첫째도 인재, 둘째도 인재, 셋째도 인재입니다.》

온 얼굴에 땀이 한벌 내돋힌 그이께서는 팔을 벌려 우쩍 포옹하는 시늉을 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한쪽손을 엇가로 쳐드시면서 적측으로 내뺀다는것을 표현하기도 하시였다. 그러신후에 그이께서는 주먹으로 책상을 울리시면서 단호하게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는 결의도 표명하시였다.

이런 식으로 그이께서는 자신의 립장을 밝히거나 상대방의 결함을 지적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충분히 납득이 가게 절절하게 해석을 가하시였다. 때문에 이미부터 서로 알고있는것도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떤 중요한 문제점에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였다.

오기섭은 드놀지 않는 확고한 론거를 세워서 주장해오던 당초의 견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말았다. 그렇게 되자 그는 홀연 허무한 감정에 잠겨들어갔다. 단한마디도 론박할것이 없었고 수긍되지 않는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의 근본적 의문은 지워지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차츰 더 가슴을 꽉 채울만치 확대되여나갔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딴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의 리해

를 깊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든것이 무엇에 의해 담보되는가 하는것입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더한층 신중한 안색을 지으시며 의자를 한걸음 당겨놓고 나앉으시였다. 이때 그이의 안색에는 《옳소, 당신은 요진통을 찔렀소. 그것을 간과했더라면 여직까지의 론의는 완전히 공담으로 될번하였소.》라는 내심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그이께서는 고도로 긴장된 오기섭의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가 그것을 모르고 지난다면 지식인일방에 대한것은 알수 있지만 그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의 립장에 대해서는 전혀 리해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식민지지식인인 그들이 혁명의 편에 서서 잘 나갈수 있다고 보는 담보가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믿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입니다.》

《믿는단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오기섭의 얼떠름해진 얼굴에는 너무나 자주 들을수 있었고 또 너무나 평범한 대답으로 해서 놀라는 기색이 완연하였다. 정도이상 일반적이고 범박한것이여서 거기에 어떤 심각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사색에 응용할만한 여지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이께서는 (그렇다. 단순하고 평범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것이며 기탄없는것이며 솔직하고 변함이 없는것이다.)라는 내심을 오직 자신만만한 미소를 떤 얼굴로만 표현하고계시였다. 이윽해서 그이께서는 어성을 좀 낮추어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는 총을 들고 오래동안 일제와 싸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리치를 터득한것이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오기섭이 앞으로 또 한걸음 의자를 당겨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는 그때 일제와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손잡고 함께 싸웠습니다. 첫날부터 한가마밥을 먹고 한천막안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총과 탄약을 들려주었습니다. 정권도 없고 법령도 없고 감옥도 없었습니다. 권력으로 강박할수도 없었고

향락을 가지고 유혹시킬만한것도 없었습니다. 단 몇걸음만 나서면 적진입니다. 아무때고 혁명이 싫으면 넘어갈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잘 싸웠습니다. 그가운데 일부는 우리와 함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은 숨지는 순간까지 자기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힘이 이렇게 할수 있었는가, 그 견인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들 호상간에 서로 믿은 동지적 관계입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를 단합시켰고 초인간적 힘을 발휘하게 했던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정황은 달라졌어도 이 리치는 오늘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지식인을 믿는다, 당신들도 우리를 믿으라 이것입니다. …》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시고 오기섭을 쳐다보시였다. 사색이 함뿍 담긴 그이의 시선에서는 더이상 설명이 필요한가고 물으시는듯하였다.

역시 감각이 예민했던 오기섭은 그이의 팔을 붙잡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연방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견해가 리해되였다니 대단히 좋습니다. 하긴 우리가 벌써 이것을 론의했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한가지 더 이야기할것이 있습니다. 동무는 아까 부르죠아급진주의대표요, 사회주의로동자대표요 하고 표현하였는데 다시는 그렇게 표현해도 안되겠고 또 그런 방식으로 사고해서는 안되겠다는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나타내는데서는 필요할지 모르나 백해무익합니다. 지어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의도를 알만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이만합시다. 내 생각에는 그 열명을 이제라도 모두 만나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하면 고무도 해주고 잘못 생각하는것이 있으면 리해도 시키고…》

그때 문기척소리가 났다.

김일성동지께서 응대를 하자 키가 꺽두룩한 김책이 《찾았습니까?》 하고 들어서는데 그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늘이 한벌 번져있었다.

《앉으시오. 갔던 일들은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자리를 권하자 오기섭은 요행 숨가쁜 대목을 면했다는 기

분으로 물러나앉았다.

《이것도 역시 오기섭동무의 사업과 련관이 있는것입니다.》 하고 손짓을 하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갔던 일이란것은 철도에 있는 한명구의 사업정형을 알아보는것이고 그다음은 이제도 우리가 론의한 공업전문학교 교원으로 나오게 하자는 성대 교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책동무가 오늘까지 무려 열번이상 찾아갔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승낙을 받았습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이라？》

기대가 졸지에 무너지고만것이다. 잠간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때 오기섭은 앞서 10명의 지식인명단때문에 여지없이 궁지에 빠졌던 자기처지로부터 자연스럽게 헤여나올만한 정황이 생기지 않나 하는 한가닥의 기대가 생겨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좌우를 살피고있었다.

김책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저！ 한가지 급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제기하였다.

《박원식동무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서울에 갔던 박원식이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빛나는 시선을 날리며 반문하시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밖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그때 문켠에 서있던 오기섭이 나갔다가 박원식을 앞세우고 들어왔다.

박원식은 이미 서울차림을 벗어던지고 눈에 익은 그 푸른색 닫긴옷상하와 검은색 모자를 단정히 쓴채로 군대식 경례를 하였다. 얼굴은 상당한 정도로 수척해보였지만 그의 몸거동은 변함없이 활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손을 잡은채 창가에 놓인 안락의자에까지 끌고가 앉히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자리를 차지하시였다. 그이의 시선은 박원식의 진한 눈섭과 억센 턱 그리고 예리하게 번뜩이고있는 쌍까풀진 눈을 지키고있었다.

《수고했소. 정말 수고했소. 어쩐지 난 이전에 적구에 보낸 공작원들의 소식을 기다리는것처럼 그렇게 줄곧 마음이 쓰이드란말이

요. 건강은 어떻소. 그러니 한 뒤주일 됐지. 과연 빨리 갔다왔소.》

이렇게 단꺼번에 여러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그이의 심중에는 박원식의 이번 서울공작에 대해서 그만큼 큰 의의를 부여하고계셨다는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였다.

김책이도 오기섭이도 그것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차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초보적인 례절마저 잊고 박원식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오겠는가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래 식사는 했소?》

만면에 대견한 웃음을 띠신 그이께서는 마치 몸무게를 가늠이라도 하시는것처럼 어깨를 잡아흔들며 물으시였다.

《네! 금방 먹었습니다.》

《그럼 목욕은 어떻게 됐소. 목욕을 해야 피곤이 인차 풀리는데. 기차가 복잡했겠지.》

《목욕은 밤에 하겠습니다.》 박원식은 약간 침울한 낯을 지으면서 계속하였다. 《갔던 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피곤하면 차츰 합시다. 난 천천히 들어도 일없소.》

분위기가 이렇게 되자 오기섭이와 김책은 일어나 문께로 나가려고 하였다.

《나가지 말고 같이 들읍시다.》

2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자연히 박원식을 재촉하는것으로 되였으며 또한 그 재촉가운데는 응당한 기대가 실려있었다. 정작 입을 열자고 하니 가슴과 목구멍이 순식간에 꽛꽛하니 얼어드는것 같으면서 말을 해낼수가 없게 되였다. 눈자위에는 경련이 일고 굽슬굽슬하고 총이 센 머리는 중압을 받아 차차 아래로 내려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어떤 징조를 감촉하시였는지 탁자에 놓인 붉은색연필을 가까이 당겨쥐시고 가볍게 두드리시였다.

침묵이 계속되다가 불쑥 《한마디로 결과부터 보고드리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하고 거쉰 음성이 방안을 울리였다. 박원식의 말은 한자한자 찍어넘기는 전보문같은것인데 그의 음절끝은 매번 파르르 떨었다.

《완전한 실패라?》

김일성동지께서는 박원식이쪽으로 흠칫 고개를 틀면서 검고 진한 눈섭이 꿈틀할만큼 의혹을 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원식이 입대해서 이날까지 10년동안에 언제한번 이렇게 완전히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와본적이 없다는것과 또 이번 서울공작을 보더라도 그럴만한 어떤 미지수의 전제가 없었다는것을 확신하고계시기때문이였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 이야기를 하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이께서는 박원식의 결론이 부정확할수도 있으며 설혹 정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패》라고까지 표현하는것이 너무 성급한것이 아닌가라는 속심을 충분히 울려놓으시였다.

원래 내성적이고 완강한 성미인 김책은 흥분이 지나쳐서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자리를 고쳐앉기도 하고 앞에 놓였던 두팔을 각각 팔걸이로 가져가는가 하면 항상 틀이 있고 무게있게 보이던 얼굴은 초조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있다.

그와 반면에 별치 않은 일에도 흥분하기 잘하던 오기섭은 자기 예측이 맞아떨어졌다는 속심에서 그랬던지 아무런 감정변화도 없이 묵묵히 앉아 침묵을 지키기만 하였다.

박원식은 침착하게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서울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리고 그다음 서울거리를 방황하면서 닷새 그리고 우연히 양춘만을 만나게 되였다고 하였다. 뜻밖의 일이 련달아 생기는 가운데는 유리한 정황도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장애물경기를 하는것처럼 요행 한고비를 넘기면 또 한고비식으로 거듭거듭 길이 막혔다는것을 실감있게 설명하였다.

《재미있소. 죄다 말하시오. 마치 추리소설 줄거리를 듣는것 같소.》

김일성동지께서는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고 대하시였다. 극적으로 얽히고 돌변하는 줄거리도 재미있었지만 그것을 타고 우연히 묻

어나오게 되는 그 숱한 서울풍경과 생활세부들이 주목을 끌었다.

《그래 양춘만을 직접 만나보았습니까?》

그이께서는 박원식이 지나칠 정도로 긴장하고 침울했던 기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보아질무렵에 가장 요긴한 문제에로 화제를 집중시키시였다.

《만났습니다. 양춘만의 중학시절 대수선생네 집에서 그것도 역시 우연히 맞다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놓고 우선 양춘만의 팔목을 붙잡고 약봉지가 한벌 널린 온돌방에 들어앉아 밤새껏 담판을 하던 장면을 눈으로 보는것처럼 선하게 형상하였다. 그런후에 그는 《가겠소. 당신네를 따라 북으로 가겠소.》 하던 그때로부터 렬차에서 뛰여내려 온데간데없이 종적을 감춘 대목까지 상세히 보고를 올리였다.

《그러니까 양춘만을 데려오라는 과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만하오. 또 한가지 물읍시다.》

한마디도 놓칠세라 주의깊이 듣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일단 결속해버리려는 박원식의 말을 성급히 중단시키시였다. 들어보나마나 맨 앞머리에서 규정해버린 《완전한 실패》 거기에 귀착시킬것이 뻔하였기때문이다.

《그래 동무는 우리가 양춘만에게 하라던 그 말을 정확하게 전했습니까?》

박원식은 붉게 상기된 얼굴을 들고 몸을 꼿꼿이 세우면서 맑은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장군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저쪽에서 잊을수 있을것 같아 같은 내용을 몇번 반복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소.》

그이의 얼굴에는 한껏 만족할 때만 볼수 있는 그런 흐뭇한 빛이 한벌 번져가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색연필을 또 두드리시였다. 그 소리가 그이의 심중을 담고 방안을 단조롭게 울리며 란초잎이 휘여내린 창가에 공명되는듯싶었다.

《양춘만을 데려오라.》

박원식을 떠나보내시면서 그이께서는 이렇게 지시를 준것만은

사실이다. 때문에 박원식은 결과를 놓고 《실패》라는 평가를 서슴지 않는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산수적으로 그 복잡한 인간문제 즉 지식인문제를 단순하게 보아넘길것인가. 그렇게는 할수 없는것이다.

《자! 실태는 이렇습니다. 우리 서로 의견을 교환해봅시다.》

그이께서 처음에 김책이, 다음에 오기섭이, 그다음에 역시 박원식을 차례로 쳐다보며 각각 발언할것을 요구하시였다.

잠시후 김책이 팔걸이에 올려놓았던 손을 내리우며 입을 열었다.

《제 생각에는 박원식동무가 수고는 했지만 역시 실패한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런 대상과의 사업을 포기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때 오기섭이 뒤로 기대였던 상체를 흠칫 일으켜세우면서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였다. 짐작컨대 그는 결과에 의해서 명백해진 문제를 놓고 그렇게 집요하게 정도이상 둔감하게 사고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생긴 모양이다.

그러거나말거나 김책은 자기 의견을 거침없이 제기하였다.

《우리가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 사람문제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면 큰 후과를 낳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양춘만은 좀 특이한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가, 따라오다가 달아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김책동무, 거기에 무슨 연구할것이 있소. 모든것이 명백한데.》 옆차대우에 놓인 손가락으로 도드락도드락 상판을 울리면서 오기섭은 론의대상도 되지 않는 응당한 결과라는 내심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그에는 응수하지 않고 김책은 계속하였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식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두번세번 지어 열번 백번 교양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책은 오기섭이 옆에 있다는것과 더구나 그가 지식인문제에 있어서는 처음 만나서부터 판이한 의견을 가지고있고 류창한 언변으로 매번 말씨름을 걸어왔다는것도 념두에 두면서 제 할 말을 하고마는것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기섭에게 의견을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원식동무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것뿐입니다.》 그러고는 더이상 말이 없었다.

그이께서는 침묵을 지키고있는 오기섭에게서 한동안 시선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침묵은 사실상 백마디 웨침보다 더 많은 말을 하고있었다. 그의 침묵속에는 여직까지 자기가 말하지 못하고있던 딱한 심리가 력력히 드러나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서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어느새 어두워졌는지 벌써 거리에는 색등이 명멸하고있다. 그러나 강한 광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태반이 어둠에 잠겨있었다. 큰길에서 오가는 사람들과 자동차들이 흡사 그 어둠속을 헤염치고있는것 같았다.

그이께서는 사색에 잠겨계시였다. 호상 리해의 부족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다. 경험에서 지식에서 또는 관계에서 처음에는 눈에 뜨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차이를 낳고 그것이 자라 융합시켜낼수 없는 간격을 이룬다. 그러나 이 마당에서도 그의 해결은 방금 김책이 말한것처럼 《상점에서 물건사는 식으로》 되여서는 안된다는 준엄한 진리가 살아숨쉬고있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을 향해 뒤짐을 지고있던 몸을 삑 돌려 박원식이 고개를 떨구고있는데로 한걸음 다가가시였다.

《박원식동무! 동무는 어째서 그렇게 울상을 하고있소. 난 그것이 전혀 리해되지 않소. 실패했기때문이다, 이것이 리유요? 참말 이렇게도 큰 착오를 범하다니.》

그이께서 오른쪽손을 높이 들었다가 허공을 쭉 내리그으시면서 완전히 부정하는 표현을 하시자 오기섭은 흠칫 놀라기까지 하였다. 그만 못지 않게 김책이도 의아한 시선을 보내였다.

《동무가 만일 산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지금처럼 그런 모양을 보이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적구에 들어가 강철기사를 하나 설복해서 데려오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면 그 가능성을 아마 최대한으로 50% 정도로 보았을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지식인의 리념을 바꾸는 문제를 단마디 말이나 고작해서 하루이틀, 기껏해서 한 열흘기한으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서로 잘 알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원식동무는 지금 광복이 되였다는 그 전제가 모든 문제를 수월하게 만들어낼수 있으리라고 착각하고있는것입니다. 어떻소? 박원식동무.》

그이께서는 고개를 든 박원식을 보시는것이 아니라 김책이와 오기섭을 주시하면서 그리고 뭇시선이 함부로 날아드는 그 어느 큰 모임에서 수많은 청중을 향해 하시는것처럼 근엄하고 침착한 몸가짐으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동무는 실패로 보고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준 과업은 양춘만을 만나서 정확하게 우리의 말을 전달하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이 달성되였다면 동무의 임무는 끝입니다. 물론 그가 즉석에서 우리쪽으로 왔다면 그이상 더 좋은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경우도 예견안한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에로 넘어오는데 어떻게 기일이 걸리지 않으며 곡절이 없겠습니까. 양춘만을 데려오라는것은 그를 포로해오라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육신이 왔을뿐이지 그의 처지와 사상은 바다건너 저쪽세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필연코 풍랑을 헤치면서 그가 스스로 노를 저어 대안에 와닿아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한것이 하나 있습니다. 양춘만은 본래자리에서 자리드팀을 하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은 박원식동무가 떠밀었기때문입니다. 두고봅시다. 양춘만은 자기 궤도를 타고 우리에게 오고야말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중단하시고 방안사람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다시 둘러보시였다.

김책은 그 어떤 위태로운 낭떠러지에 미끄러져내리다가 불쑥 나타난 팔에 잡혀 구원된것처럼 얼굴에 안도의 빛을 띠고있었다.

《박원식동무는 매우 조급했던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되돌아가 붙잡아오라고 할번했습니다, 하하하.》

김책은 매우 후련한 기분으로 자기자신을 비유해서 박원식을 두둔하였다. 한바탕 같이 웃고나신 그이께서는 역시 같이 웃고있는 오기섭을 쳐다보시였다. 예리하면서도 언제나 사색하고있는 빛을

띠였던 오기섭의 눈에는 약간 쌀쌀하면서도 실망한듯한 기분이 어려있었다. 다 옳기는 한데 지식인들이 종당에는 우리를 따라오게 되리라는 그 예측을 그대로 믿어도 일없겠는지 우려되는 모양이다.

《이야기가 난 기회에 말해둘것은 조급하게 생각하는것은 박원식동무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모두인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위기라고 지적하고싶습니다. 며칠사이에 혹은 몇달사이에 하나의 사회혁명을 해치울것처럼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를 개조하고 인간을 개조하고 체제를 새로 세우는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면 박원식동무처럼 비관하게 될수 있습니다. 오기섭동무, 우리가 보천보를 치거나 대홍단에서 적을 족친 후에 어째서 그것으로 일제가 패망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까닭이 리해됩니까? 박원식동무는 지금 그것을 범하고있습니다,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가 한동안 침울해졌던 방안의 공기를 사정없이 흔들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 잠간 사이를 두시였을 때 오기섭이 재빨리 그에 반응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가운데 한사람이며 조급한데서는 첫번째로 지적되여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광복이라는 기분은 사람을 성급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하기야 세기를 두고 정체되였던것이 한순간에 뚝을 터치고보니 급류를 이루는것은 응당한 일이기는 하지만말입니다.》

그는 쾌활하게 웃었다. 이때 처음부터 줄곧 고개를 숙이고 앉았던 박원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천천히 좌우를 한번 살피고나서 장군님을 정중히 바라보면서 입을 열었다.

《사령관동지, 제가 어학자이고 작가인 홍명희선생을 만났습니다.》

《홍명희선생을?》

김일성동지께서는 뜻밖이라는듯이 빛나는 시선으로 크게 관심을 표시하시면서 다음말을 재촉하시였다.

박원식은 경성역대합실에 나붙은 광고문에서부터 홍명희를 만난 그 어간에 있은 일들을 자세히 보고드리였다. 양춘만의 보통학교시절 수학선생이였던 오씨와 함께 장안빌딩, 경성제국대학, 다음에

는 허헌의 집 등등 서울전역을 편력한 실황을 그대로 펼치였다.
《그래 허헌선생도 만났소？》
김책이 다그쳐물었다. 하지만 두번이나 거듭 찾아갔는데 종시 만나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오자 김책은 대단히 아쉬워하였다.
양춘만의 도주사건으로 해서 침울했던 박원식은 어느 정도 기분이 맑아져서 서울에서 보고 들은것을 신이 나서 재현하였다. 남조선에는 일본군대 대신 미국군대가 판을 치고있다는것, 그러나 인민들은 기세만만해서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로 개선하실 날을 손꼽아기다리고있다고 하였다. 홍명희선생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허헌 등이 **김일성**장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서울거리 도처에 나붙은 광고문앞에는 밤이고 낮이고 사람 찔 시간이 없다고 하였다. 로동자, 농민도 기다리고 상공인도 기다리고 지식인도 기다리고 지어 80이 가까운 로인도 기다린다고 하였다.
《제가 홍명희선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헤여질 때 홍명희선생이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박원식은 목에서 떨꺽 소리가 나게 마른침을 삼키고나서 계속하였다. 《우리가 무엇보다 기쁜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건강하시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장군님을 직접 만나뵈올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전해주시오. 남조선에 있는 전체 우리 겨레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로 개선하실 날을 기다리고있다고 하시오.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습니다. 아니,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겠다고 전하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때 박원식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부그그 끓어올랐다. 금시 눈자위가 붉어졌다. 무엇인가 더 설명할 내용이 있는것 같았는데 인차 떠오르지 않아 잠간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덜컥 의자 드티는 소리가 나더니 **김일성**동지께서 자리를 뜨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줄곧 창밖을 내다보고계시는것이다. 방안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이의 어깨에 쏠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전혀 그에 개의치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실뿐이다. 《뿌지직》 하는 소리가 나서 박원식이 눈여겨보니 그이의 손에서 성냥갑이 부서지고있었다. 담화는 더이상 계속되지 않았다. 더 자세한것은 후날 듣기로 하고 박원식이

더러 먼저 나가 쉬라고 하시였다.

박원식은 아직도 채 직성이 풀리지 않아 며칠후 양춘만을 찾아 또 서울에 가겠다고 제기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하고 곧 평양철도국에 다시 나가도록 지시를 주시였다.

《가만!》 하고 그이께서는 다리를 부자연스럽게 옮겨놓고있는 박원식을 불러세우시였다. 《아까도 그렇게 보았는데 동무는 왜 다리가 그렇게 뻣뻣하오?》

《네? 예!》 하고 박원식은 우정 발을 굴러보이면서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걸음을 많이 걸어서 부르텄습니다.》

《부르텄다? 산에서 단련된 다리가 벌써 그렇게 될수는 없겠는데.》

《산보다 평지가 더 걷기 바빴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소리요.》

그이께서는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박원식을 미심쩍게 쳐다보시였다.

3

헐럭한 고무신을 털썩털썩 옮겨짚으며 안동권은 마당을 거닐고있었다. 반반하게 다져진 석비레땅을 내려다보다가는 고개를 들어 유리처럼 파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왜 그런지 안정이 되지 않는것이다. 독서를 하면 번민을 얼마간이라도 가실수 있을것 같아 몇장 읽었더니 혈압이 오르면서 머리가 휘휘 돌아간다. 그는 문득 김책이 또 나타날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우정 피할 필요도 없었고 또 그닥 싫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요청에 성근히 응할수 없는것이 매번 안타까울뿐이다. 독실한 농민같이 수수하게 생긴 김책은 침착하고 내성적이면서 또한 완강하였다. 공산당 본부의 요직에 있다는 그는 온적마다 한본새로 맑지 못하게 대하건만 낯색 한번 달리하지 않고 계속 같은 용무를 안고 또 같은

기분으로 찾아온다. 그래서는 똑같은 음조로 왜 교단에 나와주어야 하겠는가, 그것이 건국사업과 어떻게 련관되여있는가를 해설한다.

초인종이 울리였다. 아니나다를가 안동권은 김책이 온것으로 짐작하고 급히 대문을 열어주었다.

《선생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하는것은 예상과는 판이한 서울신사였다. 향수내를 확 풍기면서 몇초동안 서있다가 이쪽에서 인사차림을 하자 중절모를 벗어들며 천천히 걸음을 내짚는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한달전에 잠간 들렸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알만합니다. 민씨라고 하셨지요.》

《옳습니다. 민기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으시고 친절히 맞아주시니.》

안동권은 역시 그의 고유한 품성대로 손님을 친절히 안내해서 응접실로 들어갔다. 검소한 방에는 키낮은 네모탁자가 놓이고 그 둘레에 방석이 널려있었다. 창가에 놓인 화분대에는 유능한 원예사의 정성이 깃든 키낮은 무궁화 한그루가 청자기화분에서 싱싱히 자라고있고 벽 한쪽에는 김홍도의 그림을 모사한 족자 한폭이 단정하게 걸려있었다. 방안을 잠간 둘러보고있던 민기환은 눈부시게 흰 와이샤쯔목깃과 밤색바탕에 흰점이 찍힌 넥타이를 만져보고나서 침착하게 말을 떼였다.

《무엇보다 선생님께서 건강하시니까 저의 기쁨을 무어라 표현하기 힘듭니다.》

먼저번이나 이번이나 다같이 그의 침착한 거동이라든가 세련된 언어구사를 통해서 대단히 능란한 외교관같은 인품을 느낄수 있었다.

《온, 천만에, 저같은것이 뭣이기에.》

안동권은 손을 내저었다. 보다 세련된 몸가짐과 보다 능란한 례법을 그도 갖출수 있었지만 저쪽에서 정도를 초과하는 때는 불쑥 이렇게 엇나가는 괴벽한 점이 있었다. 그는 부엌에 대고 차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민기환은 방바닥에 놓았던 가죽트렁크를 가져다 절컥 열었다. 텍사스주 특산품인 고양이표 브란데와 담배 럭

키스트라이크가 나오고 브라질제 커피도 한통 나왔다. 그것들은 모두 지함에 든것이였다.

《선생님, 달리 생각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제가 여기서 소비하고 갈것들입니다.》

빨락지를 째고 병을 내놓으니 술이나 담배들에서는 벌써부터 각각 향기를 풍기였다. 민기환은 담배를 떼서 안동권에게 권하고 자기도 한대 붙여물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선생님께서 예정한 날에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무슨 변고가 있든지 아니면 몸져누우신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정하시니 참말 감개무량합니다.》

《아니, 내가 그쪽과 언제 날자를 정한적이 있었던가요？》

예민한 안동권은 과분한 치하속에 은근히 까닭을 캐는 뼈가 숨어있다는것을 감촉하고 웃으면서 되물었다.

《그거야 없었지만 저번에 왔을 때 감기가 나으면 지체없이 떠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어쨌든간에 서울서는 지금 선생님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우정 찾아왔을거루 저는 알고있습니다.》

《오！ 왔소. 그런 일이 있었지. 려순공대출신이라고 하면서 안경을 낀 젊은이가 왔댔소. 그 사람은 인차 돌아간다고 했었는데 그후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도 소식이 없고 선생님도 통 기별이 없으니 궁금할밖에요.》

홍차 잔을 밀어놓고 민기환은 브란데를 부어 권하였다. 안동권은 잔을 받으면서도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상대가 인차 속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멀리 환을 지어 죄여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툭툭 타진도 해오기때문에 한껏 정신이 긴장되였다. 한동안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펼치던 민기환은 제낀옷 속주머니에 손을 넣어 하얀 봉투 하나를 정중히 꺼내놓았다. 그는 이름이 보이는 쪽으로 돌려잡더니 안동권앞에 두손으로 밀어놓는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동권이 드디여 예측이 맞았다고 생각하면서 눈덕을 들어 예리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속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민기환은 안동권의 기분을 살피며 잘못하다가는 《무기명봉투를 나는 개봉할수 없소.》 하면 안될것 같아 인차 봉투를 뜯어 단정히 내놓았다.

안동권은 무심히 속지를 집어들고 탁자에 놓인 돋보기를 걸치였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예리한 빛을 뿜고있는 그의 눈은 잠시동안에 한장의 글을 다 읽어치웠다.

속지는 영문자로 된 글이 타자기를 거쳐 나온것이였다. 안동권은 돋보기를 벗고 속지를 한쪽으로 밀어놓더니 입가에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그것을 본 민기환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혹시 그 편지를 북북 찢어 창밖에 내던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대자의 면상을 후려칠 경우도 예상했던것이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은 선생님에 대한 저희들 그리고 저쪽의 최대의 신임의 표시인줄 압니다.》

《그렇소. 그것은 참말 고마운 일이요.》

이쯤되면 안심할수 있는것으로 보이는 모양인지 민기환은 기분을 돌리기 위해 새 술병을 테서 각각 잔을 채우더니 《축하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잔을 들어올린다. 그러는 민기환의 얼굴에는 자못 희열이 넘쳐흘렀다.

《여보! 민군!》 안동권은 갑자기 하대하는쪽으로 호칭을 돌리면서 허리를 꼿꼿이 폈다. 《이 신임이라는것은 내게 과남할뿐더러 격에도 맞지 않소. 거치장스럽기까지 하구. 〈서울대학 학장으로 초대한다. 미군정청 고문 송성수〉 여보! 똑똑히 듣소. 이 안동권이는 송성수따위의 추파에 매혹을 느낄 인간이 아니요.》

《아, 선생님, 고정하십시오.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너무 선생님을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무엇때문에 당신네들이 나를 기다리는가 하는거요.》

안동권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안을 왔다갔다하였다. 언제 보나 온건하던 그의 언동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졌다. 민기환이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리해되지 않았다. 묵묵히 앉아있던 그는 고개를 번쩍 들었

다. 지식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때 단단히 눌러놓아야 한다. 그의 자존심을 그대로 두면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될는지 모르는것이다.

《안선생！》 하고 민기환은 나직이 불렀다. 안동권이 자리에 앉자 그는 엄엄한 눈길로 쏘아보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기다리였다는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신임이야 그렇게까지 타기할수 없잖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저쪽의 동의와 지원 밑에서 행동하는것만큼… 이에 대해서는 먼저번에도 약간 말씀올렸습니다만…》

불을 끄려고 쏟아부은것은 물이 아니라 기름격으로 되였다.

안동권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다.

《그러니 당신은 나더러 어데다 대고 굴복하라는거요. 나는 조선사람이란말이요. 서울대학 학장으로 초대한다는 글을 꼭 영어로 표기해야만 하겠소, 응？ 미국？ 그것으로 위압될 촌뜨기가 아니라는것쯤 당신은 모르오？ 나를 뭐 어째보자구. 하긴 그것도 자유일수 있겠지. 그러나 하는짓이 어리석단말이요. 이제는 내가 공개해도 되오. 안동권으로 말하면 1944년 12월에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데리러온것을 물리친적이 있소. 그 사람들은 나의 개인연구소를 꾸려준다고까지 했댔소.》

민기환은 어깨를 으쓱 추어올리며 놀랐다. 그런것까지는 몰랐던것이다.

《여보, 당신 똑똑히 들어두오. 내가 서울에 가는것은 당신들에게 필요되는것이 아니라 안동권 나자신의 필요에 의한것이란말이요. 그래 안동권을 무슨 미끼로 하려는건가？ 응？ 너절한 속물들같으니.》

《고정하십시오, 선생님. 사실은 저의 잘못이 큽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눌러앉으시면 서울과 남에 있는 그 숱한 지성인들을 이끌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민기환은 돌변하는 저쪽 기분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쩔쩔 매였다. 한참동안이나 분노를 터뜨린 안동권은 더이상 말을 하지 않고 랭랭히 앉아만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무례한 인간으로 된다는것을 나도 잘 아오. 그러나 난 지금 이렇게밖에 달리 할수 없소. 민군！ 돌아가오.》

《선생님！ 저는 이대로 돌아갈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서울로 오시겠다는 의사가 있었기때문에 그것이 빨리 성취되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것인데 어째서 오늘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시는지 알수 없습니다.》

《달리 한다？》

안동권은 바퀴가 큰 귀를 상대쪽으로 돌리면서 반문하였다.

《그렇습니다. 왜 서울에 가신다는 예정을 바꾸시였는지.》 민기환은 울상이 돼서 두손을 앞으로 내대고 머리를 흔든다.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납득될수 있게말입니다.》

그렇게 되자 안동권은 더 론의할것이 없다는 투로 편지를 앞으로 썩 밀어놓으면서 차잔을 들어올린다.

《당신하군 우선 론리가 통하지 않아 말을 해낼수 없소. 달라지긴 누가 달라졌나, 응！ 나는 서울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단말이요. 그런데 당신이 군정청이요 학장이요 하면서 잔꾀를 부리고있단말이요, 응？ 누가 달라졌나 보오. 달라진건 그쪽이지. 그렇지 않소？》

민기환은 더 할 말이 없었다. 안동권의 명석한 판단과 빈틈없는 론리를 도저히 허물어낼수 없었다. 더구나 서울로 간다는것이 스스로 명백해졌고 그자신을 통해서 재삼 확인되였기때문에 그는 환성을 지를만치 기뻤다. 불행중 다행이라 할가. 하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체면을 유지하면서 후퇴해야 하였다. 결론이 이렇게 떨어지는것을 공연히 처참하다 할 정도로 빌붙은것이 후회되기까지 하였다. 그는 봉투를 다시 안동권이 앞으로 밀어내놓고 또 한번 잔을 찧을것을 제의하였다.

《감사하네！》 안동권은 시초에 유지했던 존대로는 끝내 돌아가지 않고 계속 도고하게 하대를 한다.

민기환은 잔을 비우고 거듭 건강에 류의할것을 말한 다음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동권은 민기환을 친절히 배웅하였다. 그가 늘쌍 자녀들에게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다. 집에 찾아온 손님은 설혹 걸식자라 해도 문밖까지 잘 바래주어야 한다. 이것이 안동권의 집의 가풍이다.》라고 훈계하군했는데 이때도 그 생각을 하면

서 고무신을 끌고 문밖까지 따라나갔다.

민기환은 두세번 거듭 인사를 하고나서 한길쪽으로 멀어져갔다.

《아! 이건 큰 고역이군. 오늘이나 래일쯤 김책이 또 나타나겠지… 허허 참.》

그는 고개를 쳐들고 긴 한숨소리를 터치였다.

언제 보나 맑고 깨끗하던 가을하늘이 피빛으로 물들어있었다.

4

김일성동지께서 집무실에 이르시였을 때 김책이 곧 따라들어왔다. 역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하루일정을 보고하였는데 공업전문학교건설장에 나가보겠다는것이였다.

《개교일이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때문에 다그쳐야 할것 같습니다.》

문가에 선채로 보고한 김책은 즉시 돌아나가려고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다는 종로거리 안동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그런데 김책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하시고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좌현동무한테 들으니까 저번날밤에 안동권선생과 서로 부둥켜안고 포옹을 했다는데 그런 후에 거절을 당했다면 앞뒤사개가 잘 맞지 않는것이 아닙니까.》

김책은 면도를 가지 해서 푸릿푸릿해진 턱을 썩썩 문지르며 어색하게 웃었다.

《교수선생의 성미가 어떻게나 땅고집인지 첫마디부터 아니아닌데 마지막까지 한본새로 나왔습니다. 그래 세시간동안이나 지구전을 펴고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지쳐서 그랬던지 그럼 내 좀 생각해보겠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는 무슨 변화가 있는가 해서 환성을 지르며 부둥켜안았는데 어제 다시 만나니 역시 본래대로 아니 아니하고 거절했습니다. 교수선생은 자기 입으로 〈성대에서는 안동권하면 소금이 필요없는 사람으로 알려져있답니다.〉라

고 했습니다. 아닌게아니라 사람이 좀 특이한데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 며칠동안 더 물색해보다가 정 할수 없으면 물리과목만은 당분간 비워두었다가 차후에 보충할가 합니다.》

《네개과 가운데서 기초과학의 하나인 물리학을 비워둔단말입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리질을 하시면서 탁자우에 놓인 색연필을 집으시였다. 《우리는 아직 그 교수선생에 대해서 모르는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간밤에 최준결동무와 토론을 해보았는데 지식인은 누구나 자기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는것을 다시금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고려 안한것이 아닙니다. 그 선생은 자기 서재를 다 털어내서 학교에 기증하면서도 아무런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 선생은 자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는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모르고있습니다. 그도 인간인이상 그럴수가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색연필로 탁자를 울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였다. 이리하여 김책은 자신이 알고있는 안동권에 대한 자료를 다시금 설명하게 되였다.

안동권교수는 올해에 환갑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하고 정열이 있어서 50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에도 갔었고 미국에도 간적이 있는데 경성제국대학이 나오면서부터 교단에 섰다고 한다. 30년대 학계에서 이름있던 홍명희나 신채호 등과도 친교가 있다고 한다. 그는 명석한 두뇌에 남다른 정열과 인내성을 가진 학자이다. 대동아전쟁이 끝나갈무렵 그는 어수선한 정국을 피해서 일본에서 얻은 관절염을 핑게로 평양본집에 와있다가 8.15를 맞았다.

《김책동무!》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를 뜨시였다. 《동무가 열한번째 가서 거절을 당했다는데 우리 함께 열두번째로 가보지 않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옷걸개에서 모자를 벗겨드시면서 문께로 나서시였다.

《제가 한번 다시 가보고 그렇게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책은 송구해서 절절매였다. 자기 장서를 통채로 내놓을 정도의 애국적 지식인 하나를 설복해낼수 없었다는 자신의 무능도 문

제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장군님께서도 어떻게 해내실수 없을것 같은 땅고집, 그 완강하고 매서운 성미가 필연코 면구스러운 장면을 빚어낼것 같았다.

《우선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가봅시다. 또 열이면 열번 다 성공만 하리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종로거리 뒤골목 장대재 중간쯤에 있는 듬직하게 자리잡은 기와집을 찾아가시였다. 말그대로 고색이 창연하였다. 합각지붕에 추녀가 성큼하게 들린 기윽자집인데 벽돌로 높이 쌓은 굴뚝에는 담장풀덩굴이 한벌 덮이였다.

김책이 초인종을 울리자 안에서 찰딱찰딱 신끄는 소리가 나더니 행주치마를 두른 중년녀인이 《누구신지요？》 하면서 허리를 굽혀보이였다. 그때 물조리를 들고 화분대로 다가가던 안동권이 대문께를 넌지시 내다보았다.

《안선생！ 안녕하십니까？ 또 왔습니다.》

김책이 마당에 들어서자 그때에야 알아보았던지 《어서 오시유, 김선생！》 하며 마주나왔다. 처음 통성하고나서부터 매번 김선생이라 부르고 온적마다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것이다. 몇걸음 급히 맞받아나오다가 김책의 뒤를 살피더니 입을 딱 벌리며 멎어선다.

《아니！》

그는 물이 흐르는 조리를 이쪽저쪽 옮겨잡으면서 어쩔줄을 몰라하다가 그것을 세면대우에 아무렇게 내던지고 허둥지둥 대문을 향해 달려나온다.

《아니 이거 장군님께서…》

그는 급히 물묻은 손을 바지에 문대고나서 그이의 손을 움켜잡고 절을 한다.

《선생님, 너무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되려 미안해서 기를 펴지 못합니다.》

《아니올시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장군님 앞에서 제가 소홀하면 되겠습니까.》

안동권은 잠간 실례하겠노라고 하더니 안방에 들어가 제낀옷

에 넥타이까지 매고 나와 응접실로 장군님을 안내하였다. 잇닿아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는 홍차가 들어왔다. 앞머리는 다 벗어지고 뒤에 얼마간 남은 머리칼마저 모두 희여졌다. 하지만 안동권의 눈은 고급한 지성인답게 예지에 빛나고있었다. 김책이 또 나타난것으로 보아 이미부터 끌어오던 공업전문학교문제일것이라고 넘겨짚은 그는 그동안 미안하게 되였노라고 먼저 사과부터 한다.

《아마 내 알기에도 열번은 더 여기를 찾아온것 같은데 청을 들어주지 못해 매우 미안합니다. 나는 며칠안으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는 희고 얄팍한 손을 맞비비면서 미소를 지어보이였는데 그 얼굴과 몸가짐에는 추호도 가식이 느껴지지 않고 진지하였다. 하지만 김책은 인사말처럼 어렵지 않게 내놓은 그 한마디 말이 단번에 큰 장벽으로 되여 막아서는바람에 가슴이 뜨끔하고 등골에 서리가 내돋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이 서려오르는 차잔을 잠간 보고계시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였다.

《안선생님이 한생 모으고모은 서재의 책을 전부 학교에 기증해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크게 감동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올릴겸 몇가지 의논할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안동권은 두손을 내흔들며 연방 고개를 저어보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려 제가 죄송합니다. 장군님! 나먹은 사람을 이렇게 옹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책이라는거야 생겨나서부터 어느 누구의 개인독점물일수 없는거고 또 여기에 사장시켜두는것보다 돌려가며 읽는것이 좋겠기에 그렇게 한것인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외우신다면 저는 그렇게 안한것만 못하게 여기겠습니다.》

《안선생님, 뜻은 충분히 알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문학교 기성회성원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모두가 다 가지게 된 심정을 전달할 의무쯤이야 저희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참!》

장탄식을 하는 그의 눈굽에서 눈물방울이 번쩍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우민화정책에 대해서 모르는바 아니였지만 이렇게까지 한민족의 지성을 철저히 폐쇄질식시켰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잔을 들어 목이 아니라 가슴을 추기시려는듯 련달아 몇모금 마시고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공장이 있지만 기술자가 없고 기관차가 있지만 기관사가 없습니다. 모두다 일본사람들이 직접 하다가 파괴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이 후과는 이제부터 몇해동안 우리 인민을 큰 재난속에 몰아넣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결심을 품고 인재육성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족존망문제와 관련되기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우선 공업전문을 내오자 합니다. 그런데 학생은 있는데 교원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간 말씀을 끊으시였다.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랑방 추녀끝에 달아맨 조롱에서 방울을 굴리는것 같은 새소리마저 들리였다. 사실상 이 침묵은 호상 더 많은 자기 내심들을 표현하고있는지도 몰랐다. 성냥갑을 굴리며 군손질을 하고있는 안동권은 《결국은 나더러 공업전문 교단에 서달라는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는듯하였고 김책은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는 안동권을 쳐다보면서 실망한 빛을 보이고있었다. 하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채도는 시선과 항상 미소를 띠고있는 입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계시였다.

방안에 차분히 가라앉은 정적을 흔들며 《안선생!》 하는 그이의 정중한 음성이 울리였다.

《멀리 에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말한 그런 민족존망의 이 계기점에서 안선생이 우리 교단에 서서 인재육성을 위한 강의를 해주실것을 바랍니다.》

천근같은 무게가 실린 그이의 음성이 서서히 방안에 잦아들고 그런후에도 얼마간 시간이 흐르는데도 안동권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언제나 사색을 담고있는 빛나는 눈은 창밖을 향한채 움직이지 않았고 처음부터 정자세를 취했던 몸도 전혀 풀리지 않았다. 이윽해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려있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올리는데 대해 널리 량해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

하여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제가 만약 저 김선생앞에서는 할수 있는것을 못하겠다고 하고 장군님앞에서는 못할것도 할수 있다고 대답을 올린다면 저는 인간이 아니라 천한 금수와 같은 존재로 되며 안팎이 다른 나쁜 사람으로 될것입니다. 그런즉 저는 장군님의 뜻을 충분히 리해하면서도 부득이 서울로 올라가보아야겠습니다. 물론 거기 갔다가 그후에는 어찌 되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난하고 설혹 말씀드렸대야 그것은 빈소리로 될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서재를 통털어 바쳤다는 그것으로써 저의 성의는 전부라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음조에도 변화가 없고 감정도 또한 같은 색채를 띠고있다. 명석하고 빈틈없는 론리인데다가 례의마저 충분히 갖추어져있어서 전혀 나무랄데가 없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앞에 내대는 방패가 견고할수록 그뒤에는 어렵지 않게 극복할수 있는 장애가 있을뿐이라는것을 짐작하시였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여 안동권의 답변에 동의를 표시하시였다.

《안선생! 이거 대화가 지내 각박하게 되는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시였다. 《안선생이 서울에 꼭 가셔야 할 리유가운데는 부인과 두 자녀가 거기 있다는것과 경성제국대학 교수 그 직분에서 정식 사퇴하지 않았다는것이라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안동권은 이때 입으로 가져가던 담배를 도로 내리우며 만면에 웃음을 짓고계시는 장군님의 얼굴을 우러러보았다. 이때 그는 무엇인가 숨겨둔것이 발각되기나 한것처럼 공연히 두려워하는 기색이였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 김선생에게 여러번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했다 해도 대학교수였던 저는 저대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이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의 몸으로 서울에 하나 평양에 또 하나 동시에 두 직분을 가질수 없다는것입니다. 그 둘중 어느것이 저에게 유리한가 그것은 제쳐놓고 두 지역, 두 학교, 두 교단에 량다리를 걸수 없다는것입니다. 저번날 누가 또 저를 찾아와 북이냐 남이냐 하고 이 안동권의 위치를 론하게 되였을 때 저로서는 명백히 해둔 대답이 있습니다. 그때 나

는 과학자는 남이다 북이다 하는 지리적 개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문제는 그 과학이 조선민족을 위해 복무하면 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의 립장은 그 점에서 출발하고 그 점에서 종식됩니다, 장군님！ 저의 립장은 무리한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차츰 목소리가 높아지더니 나중에는 완연히 흥분을 나타내였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소리내여 웃으시였다. 별치않은것이기는 하지만 상대편에서 일단 심각한 계선에까지 끌어들이였기때문에 부득불 그에 호응해야겠다고 보시였다.

《참고로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박원식이라는 동무가 있는데 며칠전에 기술자를 하나 데리러 서울에 갔다왔습니다. 그 동무 말을 들으니 경성제국대학 교사에는 미국군대가 들어있더라고 했습니다. 공과계통교실에는 미군정보장교들이 가득차있답니다. 그러니 안선생이 거기 가봤대야 정식으로 사표를 받아줄만한 사람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도리를 지켜서 한번 가보는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필경 헛걸음으로 될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저희들의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부인과 자녀에 대한것이 크게 걱정됩니다. 날이 갈수록 38도선이 차츰 더 넘나들기 어려운 장벽으로 되고있는것만큼 한가족이 갈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면 건장한 사람을 몇명 보내서 데려오도록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년로하시기때문에 직접 가도 현재 교통형편으로써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것 같습니다.》

잠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가 안동권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입을 열었다.

《참말 알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헌법에는 정치적 권력이 교육에 관계하지 않게 되여있습니다. 군대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의 헌법은 어쨌든 서울대학교사에 미군이 들어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아！ 참 세상이 변하긴 변했군！》

안동권은 너무나 놀라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기까지 하였다. 짐작컨대 그의 놀라움에는 자신이 이미 그 이름할수 없는 공포속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 느낌이 어려있었다.

《하긴 그 사람들은 우리 땅을 하나의 점령지대로 볼수 있을테니까요. 그렇게만 본다면야 무슨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털이에 불을 끄고나서 고개를 들었다.

《그러니 결국 저더러 꼭 전문학교 교단에 서달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장서를 기증하는 안선생의 애국심과도 어울리게 됩니다.》

《아하!》 하고 그는 탄식을 하였다. 《점점 더 저를 궁지에 끌어넣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자권속이 중해서 부득부득 서울에 가겠다는 그런 속된 인간이 아닙니다.》

《아니, 안선생!》 하고 그이께서는 놀라움을 보이시였다. 《저희들의 성의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처자권속이 중하지 않다면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론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에서 초근목피로 목숨을 이어가며 일제와 싸운것도 부모형제와 처자를 사랑했기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부모처자가 일제의 기반에서 신음하는것을 참을수 없어서 조국을 광복하기 위해 한몸을 바쳤던것입니다. 안선생!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등의자팔걸이에 놓인 안동권의 팔을 잡아흔들며 다정하게 물으시였다. 한동안 입술을 다물고 아무 대답이 없던 안동권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현기증을 일으켜서 그런지 그는 몇초동안 눈을 감고있다가 몸을 떨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장군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라고 왜 처자가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60평생을 바쳐온 저의 과학을 그것과 맞바꾸지는 못합니다. 과학에서 하루나 한걸음 후퇴는 민족의 앞길에 10년이나 20년, 나아가서는 한세기를 뒤떨어지게 합니다. 앞서 장군님께서 인재육성에 그토록 큰 의의를 부여하신것도 저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학교수인 안동권에게 썩 멀리 뒤걸음질쳐서 전문학교 교단에 서라고 하시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직위? 아닙니다. 명예?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과학자 그더러 자기의 높이에서 후퇴하라는것을 저

는 받아들일수 없는것입니다. 안동권이라는 인간은 이렇습니다. 이 이상 저의 파멸을 더 권고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는 와들와들 떨리는 손으로 샤쯔를 헤치더니 어깨와 목덜미 사이에 쭉 그어진 상처자국을 내보이였다. 《이것이 성대공과 3호강의실에서 제가 조선학생들에게 물리에도 얼이 있어야 하는것인즉 배달족의 얼을 잊지 말라고 한마디 한 그날밤 경찰서에 끌려가 인두로 지지운 자리입니다. 그때 저는 자백서를 쓰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비굴했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뒤걸음질을 할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안동권이와 마주서시여 손을 들어 흔들며 목소리를 높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책이쪽으로 돌아서시며 《어떻습니까, 김책동무 생각에는?》 하고 물으시였다. 김책은 전적으로 옳다고 대답하면서 한 과학자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을줄은 미처 몰랐다는것을 온몸으로 나타내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안선생! 우리 민족은 지난날 너무나 많이 물러섰고 너무나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첨성대를 쌓고 우주현상을 남먼저 헤아리고 거북선을 만들어 바다를 지키던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봉건통치자들이 태평하게 문을 닫아걸고 음풍영월이나 하다보니 어느새 뒤떨어져 일제가 기관총을 쏠 때 우리는 화승대를 들고 서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락후와 후진을 뒤집어엎자는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업전문학교를 내오지만 계속해서 종합대학을 평양에 내오자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모체에서 적어도 50개의 대학, 나아가서는 100개, 200개의 대학을 내오자고 합니다.》

《종합대학이라구요?》

침울했던 안동권은 흠칫 놀라며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라에 필요한 모든 과학을 다 포괄할것입니다.》

《평양에 말이지요.》

꿈이 아닌가 생각하며 다시 반문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평양입니다.》

그이께서는 인지로 탁자우를 두번이나 내리찍으시였다.

《아！》

힘있고 기다란 한마디 탄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일종의 공포이기도 하고 또한 환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동권은 놀라움과 기쁨만 못지 않은 하나의 큰 의문이 생기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체면을 가릴 생각도 못하고 질문을 하였다.

《그것은 언제 실현됩니까？》

《먼 앞날이 아니라 당장입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서 래년에는 개학을 하자고 합니다.》

《래년에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하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인민은 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동권은 믿음절반, 의심절반의 말을 흘리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에 관계없이 내처 포부에 안으신 구상을 펼치시였다.

《앞으로 우리 나라는 세계앞에서 령토의 크기나 인구의 많기나 고대유물유적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학교가 많고 학생이 많으며 온 나라가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라고 자랑할수 있도록 하자는것입니다. 안선생！ 이것이 그래 전진이 아니란말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전진이며 대전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선생, 다시는 우리의 목덜미를 인두로 태우지 않기 위해 우리의 종합대학 교단에 서주십시오. 초청합니다. 조선혁명가들의 이름으로 정중히 초청합니다.》

차츰 몸이 굳어져서 화석처럼 돼버린 안동권은 부지불식간에 장군님의 마지막 말씀 구절을 받아외웠다.

《초청합니다.》

피기를 잃고 얄팍해졌던 안동권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순간에 그 파문이 온몸으로 번져갔다. 눈은 빛나고 얼굴은 밝은색을 띠였으며 탁자우에 놓인 손은 알릴듯말듯하게 떨었다. 그는 이때 자기앞에 자연스럽게 앉아계시는 장군님을 경건하게 우러러보았다.

안동권은 환갑이 되는 이 나이까지 인간의 별의별 경우를 다 체

험하였다. 희로애락의 절정에도 올라보았고 고초와 환락의 상상봉에도 서보았다. 그 과정에 수많은 위인을 직접 만나도 보았고 그에 대한 서적도 읽었다. 그러나 **김일성**장군님처럼 이렇게 숭고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넋을 흔드시는분은 처음보았다. 대학이 새로 나온다는것은 놀라운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안동권이 인생행로를 바꾸어야 할것까지는 못된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온갖 정열을 다 쏟아부으시는 그 인품에는 참으로 머리가 숙어진다. 그이의 노력에 의해 틀림없이 이제 우리 민족우에 오래동안 무겁게 드리웠던 불행과 후진을 깡그리 씻어버리게 될것이다. 하여 그는 이런분의 기대를 어기게 한다든지 얼마간이라도 실망하게 한다는것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짓이며 조선민족사에 천추에 씻을수 없는 죄로 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장시간 내들었던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죄다 밀어버리고 새롭게 행로를 정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바작바작 타드는 입술을 추겨서 겨우 한마디 대답을 하였다.

《선생님! 저희들은 진심을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주십시오. 각박하게 당장에 어떤 대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좀 걸려야겠다고 보신다면 저희들은 한달도 좋고 한해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가지 부탁만은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안동권은 빛발이 뿜겨나오는것 같은 시선으로 미소를 띤 장군님의 얼굴을 쳐다보고있다.

《우리가 교육사업에 대해서 경험을 못가지고있다는것이야 선생님이 잘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도와주십시오. 종합대학을 내오자면 어떤 학부들을 두며 거기에는 어느 정도 교원진이 꾸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안의 기구들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배워서 시작하자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저의 진심을 뒤늦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장군님께서 다시는 저같은 사람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도 한시간이나 더 담화가 계속되였다.

5

김일성동지께서는 좌현의 안내를 받으시며 김용범이와 함께 공업전문학교마당에 이르시였다. 운동장입구에는 솔문을 높다랗게 세우고 거기에 《평양공업전문학교 개교식장》이라고 써붙였는데 그 둘레에는 테프와 오색기가 날리였다.

김책은 오기섭이와 함께 기성회성원들을 데리고 솔문앞까지 나와서 장군님을 맞이하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터졌다.

《**김일성**장군 만세!》 소리가 푸른 하늘로 높이 솟아올랐다가 역전광장과 저쪽 평천벌로 물결쳐나갔다.

식장에는 주석단이 만들어졌고 정면에 **김일성**장군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으며 량쪽에 《조선공산당 만세!》와 《온 민족이 떨쳐나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구호가 붙어있었다. 300여명 학생이 정렬해서고 래빈과 부형들 그리고 학교후원사업에 참가한 시민들이 수백명 참가하였다.

교장의 기성회경과보고가 있은 다음 학교간판을 달게 되였다. 온 장내의 시선이 쏠리는가운데 송진내가 풍기는 널판자에 청조체로 쓴 《평양공업전문학교》라는 간판이 현관 오른쪽 기둥에 세워지고 **김일성**동지께서 교장의 안내를 받아 현관에 올라서시였다. 장군님께서 망치질을 하시자 또다시 장내에 만세가 터져올랐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팔을 휘둘러 못을 치시였다. 억년드놀지 않게 주추돌에 튼튼히 의지한 기둥에 못을 박으시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걸음으로 연단에 오르시였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을 하실 때 입으셨던 그 제낀옷에 그 줄무늬넥타이를 매시였다. 그이께서는 연탁가장자리를 꽉 붙잡으시고 장내를 한바퀴 둘러보시더니 《여러분!》 하고 첫마디를 떼시였다.

《우리는 오늘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첫 학교인 평양공업전문학교 개교식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이의 얼굴은 인차 붉게 상기되였고 목소리는 약간 갈린듯이 들리였다. 운동장에는 사람들로 꽉 찼다.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 온 시내가 떨쳐나서 여기로 모여들기 시작한것이다. 담장우에 올라도 서고 맞은편 지붕우에도 사람이 하얗게 덮이였다. 하지만 개교식은 예정했던대로 소박하게 진행되고있었다. 확성기를 걸거나 보도진이 달려와서 사진을 찍는것도 없었다. 다만 크지 않은 교실과 그앞에 마당이 있고 얼마간의 관계자들이 모여 뜻깊은 첫걸음을 섭섭치 않게 내떼자는것이였다. 무슨 일에나 욕심이 많기로 이름난 교장선생마저도 **김일성**장군님을 모시면 좋겠다는 청을 김책에게 전하면서도 그토록 다망하신분께서 별로 특이한것도 없는 여기를 찾으시겠는가 하여 아무런 갖춤새도 없는터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조선에 우민화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어떤 기술도 배워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이라는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의 언어를 익혀서 노예로 부릴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일뿐이였습니다. 때문에 조선민족은 통털어 멍에를 끌고 등짐을 지는 마소의 신세를 강요당했던것입니다. 이 땅에서 강철을 만들었지만 강철 만드는 기술을 알수 없었으며 기차가 달리고 배가 떠갔지만 우리는 그 기계를 다룰줄 몰랐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직공장, 계장은 물론이고 기차의 기관사도 저들이 독차지하였습니다.》

일제의 침략상을 낱낱이 밝히고있는 그이의 안광은 번개불이 이는듯 번뜩이였으며 연탁을 붙잡은 손에는 땀이 질벅하게 배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가 남긴 후과를 말끔히 가시고 우리 나라를 번영에로 이끌 바로 그 사업이 이 마당에서 시작되고있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을 향해 손을 뻗치시였다. 참으로 이때 그이께서는 가슴속에서 북받치는 흥분을 누르실길이 없었다. 세상에는 하늘을 찌를듯이 높고 요란한 건물에 인류가 쌓아올린 기술문명의 온갖 표본들과 수많은 저술들을 가져다놓고 수천수만명이 모여 공부하는데가 한둘이 아니다. 진보의 의의를 일찌기 깨닫고 문명혜택을 요망하는 나라들이나 인사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 뒤늦기는 했지만 바로 그것을 지향한 하나의 맹아가 움트고있는것이다. 방금 피각을 터치고 한가닥 연약한 싹을 내밀었다. 이제 이

것은 비바람을 맞아 가지가 꺾이고 살이 찢기면서도 기세있게 자랄것이다. 이 나라 사람들이 힘겹게 그러나 정성들여 날라오는 물과 온기와 빛을 안고 일어설것이다. 그리하여 락후와 빈궁과 비문명으로 메말랐던 이 땅을 푸근히 덮어줄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지혜와 재능의 꽃이 만발할것이며 알찬 열매가 주렁질것이다. 바로 그 첫 걸음마가 시작된것이다. 우리 땅에서, 우리 사람들로, 우리 손으로!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을 계속하시면서 그윽한 시선으로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시각에 미쳐오는대로 운집한 군중들의 수효나 그들이 웨치고있는 환호성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자유분방하게 환상을 날리여 이 모임의 의의를 시인처럼 격조높이 읊조리고 계시였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시였던가. 그것은 백두산줄기를 걸어가시면서 또는 우수수 바람소리를 울리는 천막천정을 쳐다보시면서 또는 우등불가에 둘러앉아 고향이야기를 하시던 그때부터 시작되였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한것이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당창건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오늘은 과학기술을 점령하는 첫 포성을 울리는것이다. 또 그다음에는 밭가는 농민에게 땅을 주는 토지혁명을 단행할것이다.

그이께서는 사전에 적어두었던 원고가 있었거나 이미 생각해두었던 사전구상이 있은것도 아니여서 가슴에 미쳐오는 충격을 그대로 표현하는것으로 연설을 거침없이 끌고나가시였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한번 세차게 설레이였다.

그이께서는 연단에서 내리며 교실과 실습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과별로 이루어진 교실은 모두 어슷비슷하였다. 그러나 물리실에 이르렀을 때 그이께서는 발걸음 멈추시고 교실안을 유심히 살펴보시였다. 다른데와 아무런 특이한 점이 없는데도 오래동안 시간을 지체하시며 학생은 몇이며 실험기구들은 예정했던데 비해 얼마나 구했는가, 교원들은 몇명이나 되며 그들은 어데서 왔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교장은 물음에 일일이 대답을 올리였는데 그이께서는 뒤에 따라선 김책에게 물으시였다.

《바로 이 방이지요. 책을 무져놓고 마주 앉아서 밤 깊도록 담화를 하던데가…》

영문을 몰라 잠시 얼떠름해졌던 김책은 며칠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기하며 대답하였다.

《극히 비밀리에 진행됐는데 탄로된것 같습니다.》

《어깨가 벗겨질만치 등짐을 진다기에 나와봤더니 그날은 앉아서 론쟁을 하고있더란말입니다.》

《하하하, 한데 등짐지는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인간의 위치를 옮겨놓는다는것은 몇십톤의 중량물을 다루는것이나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몇십톤? 아니요, 지구를 통채로 들어옮기는데 비길수 있을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위해 가슴아픈 희생도 각오해야 할것입니다.》

그옆에서 대화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이곳 교장은 정의가 두텁게 깔려있는 두분의 대화의 내용을 전혀 리해할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한 교원을 교단에 나서도록 하는데 형언키 어려운 큰 힘이 소요되였다는것만은 짐작할수 있었다.

그때 안동권이 사람들틈을 가르고 장군님앞으로 다가섰다.

《장군님!》 하고 그는 머리를 숙이는데 순간에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숙어졌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지 않아도 안선생이 왜 보이지 않는가 하고 살피던중입니다.》라고 하시며 안동권의 어깨를 덥석 그러안으시였다.

《장군님! 오늘 저는 손님으로 초청을 받고 왔습니다. 정작 와보니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안동권은 그 누구보다도 오늘의 이 사변의 의의를 종심 한끝까지 들여다보고있었지만 그 심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 모든것을 헤아리신듯 안동권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둘러선 사람들에게 설명하시였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내뗐으니 다시는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되였습니다. 안선생! 우리는 이렇게 한걸음씩 내디디자는것입니다. 자, 그럼 방안에 들어가서 종합대학을 내올데 대한

토론을 좀 해봅시다.》

안동권은 장군님의 뒤를 따라 넓다란 교무실에 들어갔다. 공업전문학교 기성회성원들과 교원들이 둘러앉게 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나직이 그러나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오늘 평양공업전문학교를 내오는데 누구보다도 여기에 참석하신 기성회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짓고 고개를 숙여 사의를 표한 다음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우리는 인재를 육성하는 첫걸음을 떼였을뿐입니다. 우리는 곧 평양에 종합대학을 내와야 하겠습니다.》

온 방안이 순간에 설레였다. 어리둥절해진 사람들이 옆에 대고 자기가 들은것이 사실인가 서로 확인하는것이였다. 그래서 잠간 동안이 생겼다가 박수가 터졌다. 그이께서도 박수를 치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종합대학을 내옵시다. 종합대학을 내온 다음에는 그것을 모체로 각 부문별 대학을 내와야 하겠습니다. 자금도 없고 교원진을 꾸리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민족지상의 과업인 이 인재양성사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공업전문학교를 내오자고 할 때도 사정은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후대육성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있는 애국적 인민들의 열의를 믿고 대담하게 종합대학 기성회를 뭇고 세상에 공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기 앉아계시는 전문학교 기성회 성원들 11명을 다 망라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인 안동권선생을…》 이때 그이께서는 당황해서 어쩔바를 몰라하는 안동권에게 일어서달라고 권하시였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안동권이 일어서자 그이께서는 그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였다. 《이 안동권선생을 기성회의 한 성원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서울에 가있게 된다 해도 평양에 있는 종합대학에 안선생이 관계했다고 해서 나쁠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조선을 대상하는 학교를 내오자고 합니다. 안선생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장군님! 오직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뿐입니다. 저같은 미력한 인간을 이렇게 내세워주시니…》

약간한 충격으로도 인차 얼굴에 흥분을 나타내군하던 그도 이

때만은 침착하게 거동하였다. 그는 두손을 맞잡고 먼저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그다음에는 장내에 대고 머리를 숙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기성회에는 전조선적으로 이름있고 유력한분들을 많이 망라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 뜻을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때문에 종전에 10명내외로 하던 기성관념을 벗어나 적어도 30명이상으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이께서는 종합대학의 개교예정일을 명년가을쯤으로 하고 그 규모와 기구에 대해서는 안동권이 초안을 작성하게 될것이라고 공개하시였다. 만장에서 박수가 울리는 가운데 그이께서는 안동권의 손을 잡아흔들며 수고해달라는 인사를 남기고 현관으로 나오시였다.

이제는 떠나실 때가 되였다. 군중들의 전송을 받으며 솔문을 세운데까지 이르신 그이께서는 학교 교사며 운동장이며 마당가에 서있는 백양나무를 한번 다시 둘러보시였다.

그때였다. 빽빽이 모여선 군중들 틈을 사정없이 헤가르면서 중년사나이 하나가 장군님앞으로 달려나왔다. 왁살스럽게 생긴 그 사나이는 열댓살난 학생 하나를 끌고나와 땅을 짚고 엎드렸다.

《장군님!》 사나이는 억센 손가락으로 땅을 움켜잡으면서 울음섞인 소리를 내였다. 《철도기관구 로동자 리윤봉이올시다.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제서야 **김일성**동지께서는 영문을 알아차리시고 땅에 엎드린 리윤봉을 들어일구시였다.

흥분을 이기지 못해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있는 리윤봉의 어깨를 잡고 그이께서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였다.

《참말 대견합니다. 로동자의 아들이 전문학교 학생이 되였습니다. 저 모자, 모표, 교복을 보시오. 아들이 얼마나 름름합니까.》

아닌게아니라 리윤봉이 앞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것 같은 보배덩이가 하나 서있었다. 자식을 보는것은 좋은 일인데 이제 무엇을 먹여 키우겠는가 걱정하던 아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학생이 서있는쪽 저쯤의 철봉대를 잠간 쳐다보시다가 리윤봉의 팔을 머리우로 한껏 들어올리시였다.

《만세를 부릅시다.》

그이께서 만장을 향해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평양공업전문학교 만세!》

리윤봉은 기쁨을 이길수 없어 볼품없이 이그러진 얼굴을 들어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발돋움을 하였다. 순간 그의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솟아오르더니 주르르 턱으로 흘러내리였다.

군중들이 일제히 손을 쳐들고 화답하였다. 이것은 오래동안 축적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폭발인 동시에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쓰던 우리 인민의 몸부림의 절정이기도 하였다.

《평양공업전문학교 개교식 만세!》

뒤이어 환호성이 또 터져올랐다.

《우리 민족의 영명한 령도자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눈물이 글썽해진 장군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군중들이 목청껏 웨치였다. 그들은 이때 어째서 장군님께서 그토록 감격해하시였는지 다는 알수 없었다. 다만 건국도상에 자그마한것이나마 하나 성취했다는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인줄로만 알았을뿐이였다. 그리고 군중의 환호성에 휩싸여 장군님께서 타신 차를 멀리까지 따라가는 로동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류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김일성**동지께서만이 승용차의 차창으로 내다보시다가 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내시는것이였다.

승용차는 잠시동안에 팔골을 지나 남포쪽으로 가는 한길에 들어섰다. 만경대로 가시는 길이였다.

《사령관동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또 새로 만들게 됩니까?》

뒤에 앉았던 좌현이가 즐거운 기분으로 물었다. 광복돼서 몇달 안되는 사이에 그는 매일이다싶이 새로 새것을 만드는데 습관된듯 하였다.

《새로 만든다? 이제 우리는 종합대학을 만들게 되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가. 이제 우리는 땅의 주인을 만들게 되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고있잖소.》

그이께서는 농촌으로 가실 때면 언제나 토지문제에 대하여 생

각하고계시였다. 하지만 오늘 그이께서 만경대로 가시게 된 리유는 토지문제라기보다 한달전부터 시작한 성출미운동이 어떻게 벌어지고있는가를 료해하고싶으시였으며 겸해서 조부님께서 독감으로 누워계신다는 소식을 들으시였기때문이다.

《머슴에게 땅을 주어 주인을 만든다는거겠습니다. 참말 재미있습니다. 혁명이 이렇게까지 재미있는줄 여직 몰랐댔습니다. 이전에는 전투행군, 전투행군의 련속이 혁명인가 했더니 이건 굉장합니다.》

《재미있다, 하긴 그럴수도 있겠지. 그러나 화약이 터지지 않는 전쟁도 그만 못지 않게 힘이 드오. 각오해야 돼.》

좌현은 순간 눈이 둥그래졌다. 그렇지만 얼굴에 그려졌던 기쁨만은 지워지지 않고있었다.

《용무를 빨리 끝내셔야겠습니다. 김책동지가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박원식동무의 결혼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옳소. 며칠전에 피뜩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요?》

《그렇습니다.》

승용차는 잠시동안에 남리쪽 솔밭을 빠져 대다리강이 바라보이는 경사지를 내리달리였다.

《세우오!》

그이께서 운전사의 어깨를 잡으시였다.

《아직 좀더 가야 합니다.》

《아니요. 할머님께서는 자동차소리를 들을적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하시였소. 왜놈들이 문앞까지 타고와서는 **김일성**을 붙잡았다, **김일성**을 이제 여기 데려온다 했다는거요.》

6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락이 있는 고향집으로 가시다가 문득 걸음을 돌리시여 오른쪽 수수밭으로 들어가시였다. 수수밭에서는 할아버님과 형록삼촌께서 수수그루를 뽑고계시였다. 형록삼촌께서 허리

를 굽히고 나가시면서 쭉쭉 뽑아 흙을 털어서는 한군데 무져놓으시였다. 할아버님께서는 기력에 맞게 쇠스랑으로 찍어당기시였다.

《그새 안녕들 하셨습니까?》

중절모를 벗으며 인사를 하시는데 삼촌께서는 저만치에 계시는 할아버님이 들으시도록 《장군이 왔수다!》 하고 고함을 치시였다. 그제서야 할아버님께서는 쇠스랑을 땅에 박은채 《어찌된 일인가.》 하고 반기시였다.

《할아버님! 감기로 누워계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일없겠습니까. 몸조리를 하셔야지.》

《농민한테야 별기 있나. 땅냄새를 맡는것이 몸조리구 천하명약이지.》

할아버님께서는 손에 묻었던 흙을 털면서 밭뚝으로 나오시였다. 인사가 끝난후 세분은 아직 잎이 푸르싱싱한 배추밭머리에 앉으시였다. 삼촌께서는 냄새가 향기로운 잎담배를 종이에 말아피우시면서 요새 성안형편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삼촌께서 념두에 두신 성안형편이라는것은 혁명사업에 대한 여부라기보다 장군님의 기거하실데라든가 침식의 마련이 어떤가 하는것을 아시자는것이였다. 공설운동장에서 연설이 있던 날에 가보시였던 숙소라는데는 유격대원들이 모두 한곳에서 먹고 자는 합숙이였던것이다.

《별일없이 지내고있습니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삼촌의 의도에 맞게 대답을 하시고 탐스럽게 자란 배추잎을 만지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배추가 참 잘됐습니다. 통이 잘 져서 살이 만문할것 같습니다.》

《그러기말이네.》 하고 이번에는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배추도 광복을 만나 기껏 자란거라고 하더군. 그래 내가 말인즉은 듣기 좋은데 올해에 조이흉년벌충을 하느라고 내 거름을 곱절이나 더 냈다고 말해줬네. 그건 그렇고 내 듣는 말이 장군은 공산당이기때문에 로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농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란말일세. 그래 내가 여보, 우리 장군은 천하지대본인 농사집 자손이요, 근본을 잊을리가 없은즉 그런 말 말고 안심하오 하니 그러면 그렇겠지 하

고 무릎을 치더란말이다.》

그이께서는 참 정통을 찍어 명철한 대답을 주셨다고 하면서 껄껄 웃으시였다. 이렇게 대화가 오고가는 사이에 오늘 있은 《기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과학자,기술자를 양성하는 첫 학교가 개교되였다고 하시였다.

《허허,그거 참 경사가 틀림없다. 농사라는건 호미를 쥔 농군만 짓는것이 아니라 비료를 만들고 보습도 만들고 지어는 낫가락까지 만들어야 한즉 그 로동자나 기술자들도 결국 농사를 짓는거나 같은거 아닌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놀라운 기색을 보이며 웃으시였다.

《할아버님은 훌륭한 경제학자이십니다.》

《학자? 다른건 몰라도 농사물계에서야 내가 박사지,허허허.》

두석대 자리가 빈 이틀을 보이면서 할아버님께서 웃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에 들어앉아 옹색하게 이야기하는것보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냥 식량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것이 좋겠다고 보시였다. 처음 여기 남리에서는 성출미운동이 어떻게 되고있는가 물으시였다. 삼촌께서는 마을에서 보고 들은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말씀하시였다. 왜놈들이 전쟁을 하면서부터 어느해나 농사가 제대로 돼본적이 없었다. 비료도 농약도 살수가 없었고 농번기에도 제꺽하면 부역에 내몰리였다. 가을이 오면 곡식은 물론이고 곡초와 터밭수확물까지 모두 공출로 빼앗겼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 농사가 어느해보다도 안되였다. 그래도 농민들은 나라를 세우는 일에 곡식이 필요하다니 너도나도 성출미운동에 참가한다고 하시였다. 그것이 한두집으로 볼 때는 큰것이 아니더니 마을이 떨쳐 일어서니 남리에서만도 열달구지를 실어냈다고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단히 만족해지시였다. 역시 곤난이 있을 때에는 군중에게 의거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것을 다시 느끼게 되시였다.

《리치라는거야 뻔한것이 아닌가.》 하고 할아버님께서는 매끼가 풀어진 배추통을 다시 손질하면서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세우자면 로동자와 농민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로동자들이 굶게 되였다는데 우리 농민이 가만있겠나. 어쨌거나 쌀이야 우리

농민이 가지고있는거니까 십시일반을 해서라도 이 고개를 넘겨야지.》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 지금 로동자들은 공장과 철도를 복구하는데 달라붙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의를 벗으시여 수수동가리에 얹으시고 밭에 들어서시였다.

《삼촌, 이 밭이 그때 열무를 팔아서 서울로 면회가는데 로비를 보탰다는 밭이 아닙니까?》

수수그루를 붙잡은채 삼촌께서는 침울한 음조로 《옳네. 한데 그건 왜 묻나?》 하고나서 대답을 기다리시지도 않고 성큼성큼 이랑을 타고나가시였다. 이 밭에 심었던 열무이야기가 하도 가슴에 사무쳐서 물으신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하시고 수수그루를 뽑으며 뒤따라나가시였다. 공설운동장에서 개선연설이 있은후 처음으로 집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그날밤 눅눅한 방에 지적을 깔고 누우셔서 할머님과 함께 날이 밝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시던 생각이 떠오르시였다. 스무해동안 쌓이고쌓인 이야기는 순서없이 이리저리 뻗었지만 그것은 어차피 하나하나 식솔들의 운명을 짚어나가는것으로밖에 달리 될수 없었다. 낯설은 이국땅에 묻히신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데서 어떻게 되였는지 알길 없는 동생들 이야기, 그다음에는 만경대의 삼촌네들, 칠골외가집 그렇게 더듬어나가시였다. 그러다가 할머님께서는 둘째 삼촌이 막냉이삼촌(김형권)을 마지막으로 만나시던 때 이야기를 하시였다. 열무가 한창 자랐을 때니까 그해 여름이였다. 서울에서 전보 한장이 날아왔다. 발신인을 밝히지 않은 그 전보에는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삼촌의 생명이 위급하니 빨리 와서 만나라는것이다. 해마다 재난이 덮씌우는 이 초가집에 또하나의 슬픈 소식이 사립문을 세차게 두드린것이다.

할아버님께서는 너무 기가 막혀 《그건 가봐 뭘해. 차라리 안보는게 낫지.》 하시였지만 할머님께서는 부득부득 길차비를 하시였다. 려비를 구할데가 없어 여기저기 친척을 찾아가는 한편 할머님께서는 지금 이 배추밭에 심은 열무를 뽑기 시작하시였다. 두광주리를 겹쳐이워 삼촌어머니를 성안장에 보내 얼마간의 돈을 사들고 돌아오시자

삼촌께서는 곧 서울로 떠나가게 되시였다. 아닌게아니라 막내삼촌은 감방에 누워 일지도 못하시였다. 누군지 알아볼수도 없이 뼈만 남았다. 모다구판에 굴리워 온몸에서는 진물이 흐르고 살썩는 내가 났다.

《네가 형권이 옳으냐?》

하고 팔을 붙잡고 우는데 막내삼촌은 온 얼굴이 이그러진채 울지도 못하더라는것이다. 우실 기운도 없고 눈물이 날만치 몸에 물기도 없었다. 사람이 설음과 슬픔을 보이자고 해도 기력이 있어야 하는줄 그때야 알았다고 하시였다.

《여보, 간수! 동생 대신 형이 징역사는 법은 없소?》

서울 갔다오신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할아버님, 할머님과 이집 식구 모두가 울지 못하시였다. 울음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였던것이다.

그후 얼마 안있어 또 전보가 왔다. …

《할머니, 이제는 주무십시다.》

그이께서는 세파에 부대끼우고 빈궁과 고통에 지지눌리워 작아진 할머님을 가슴에 꽉 다그어안으시였다. 더 이야기를 못하게 하시려는것이다.

할머님께서는 소리없이 울고계시였다. 열손가락 어느 마디를 깨물어보아도 아니 아픈것이 없다는 인생철리를 벌써부터 깨닫고계시는 녀사이시였다. 그토록 인간애와 모성애에 차넘친 십여명 대가정의 할머님께서는 어느해 빈 구멍이 없이 아드님과 며느님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시고 손자들까지 잃어 이제는 몇명 남지 않은 단출한 식솔을 끼고계시였다. 한데 문득 20년만에 이제는 까마득히 얼굴모습도 떠오르지 않게 되시였을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것처럼 손자가 나타나 지금 그이와 함께 누워계시는것이다. 나서 이날까지 너무 많이 우시여 눈물마저 진해버린 그 눈, 한생 슬프고 억울해서 울었던 그 눈에서 지금 처음으로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계시는것이다. 할머님께서는 손자의 팔목을 적시시였고 또 그이께서는 할머님의 볼을 적시고계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것을 참으시며 수수그루를 세관게 뽑아나가시였다.

해가 질녘에 그이께서는 할머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에 들리시였다. 마당에서 김장고추를 고르다가 《이게 어찌된 일이냐.》하며 손을 붙잡으시였다.

《할머님께서 무고하신가 해서 들렸습니다.》

《음 그래. 난 이렇게 잘 있다. 너를 보게 되니 30년은 젊어졌나보다. 네 어머니는 집걱정을 하면 큰 일을 못한다 하고 돌려세웠다지만 난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래두 네가 와야 보지 난 가기 힘들어.》

잡은 손을 놓지 않으며 기뻐서 어쩔바를 모르신다.

《증손이 소식이랑 아느냐?》

《지금 청진에 가있습니다.》

《무슨 집안이 이 꼴인지. 이젠 그만하면 한데 모여도 누가 탓하지 않으련만…》

그이께서는 더 대답할 말이 없어 고추가 잘 익었다고 하면서 할머님과 마주앉으시였다. 불이 달린 숯덩이처럼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어떤것은 끼뼘 한기장이나 되는것도 있었다. 아직 채 마르지 않아 눅진눅진한것도 있는데 손에 잡힐 때마다 말큰한 감촉이 오면서 맵싸한 향기가 풍기였다.

그이께서는 고추를 가리시면서 할머님의 얼굴을 쳐다보시였다. 얼굴모습은 스무해전 그대로인데 볼이며 인중이며 미간에는 깊은 이랑이 생기였다. 그렇지만 붉은 고추빛이 반사되여서인지 기쁨이 담긴 눈자위에는 혈기가 한벌 번져있었다. 친척네들이 그새 어떻게 지내고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남리, 칠골, 두루섬에 있는 친척집소식이 하나하나 소개되였다.

그러다가 문득 할머님께서 《내 이제 비지를 해주지. 콩이 잘 여물어 기름지다.》 하며 일어서시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급히 가야 할 일이 있는데 후날 다시 와 먹겠다고 하시며 할머님을 마루에 앉게 하시였다. 이때 그이께서는 박원식의 결혼식이 있다던 저녁시간 생각이 떠오르신것이다.

《할머니,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나같은것한테 의논할게 있겠니.》

《다른게 아니구 산에서 같이 싸우던 유격대원총각이 장가를 갑

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줄수 있겠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에구나, 이런 기쁜 일이 어데 있니. 그런 일엔 부모들이 제일 기쁜건데…》
《부모들은 왜놈들한테 다 희생됐습니다.》
《쯧쯧, 간데마다 왜놈들때문에…》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던 할머님의 얼굴이 금시 흐려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연한 말을 꺼내 할머님을 괴롭힌다고 후회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니.》 하고 팔을 잡아흔드시였다. 《무슨 옷감이라도 하나 보내줄가?》
《할머니, 그것이 좋기는 하겠는데 어디 마련이 있겠습니까.》
《어디 좀 보자.》
《밥그릇 같은것을 사주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그것도 좋겠지만 사주는것보다야 아무거나 집에것이 더 낫지.》
할머님께서는 방안에 들어가더니 농짝문을 열어제끼시였다. 정작 손을 대시기는 했지만 농안에는 어느것 하나 눈에 차는것이 없었다. 몇해를 두고 기워붙이고 빨고 하시여 물이 다 날은 옷가지들이였다. 무명잠뱅이가 있는가 하면 꽛꽛한 베치마도 있다. 벌써 겨울차비로 볼을 대서 기우신 버선들, 형체가 무엇인지 가리기 힘든 천쪼각들, 넝마들이 나왔다. 또 다른 농짝을 열어보시였지만 거기에도 신통한것이 보이지 않았다. 할머님께서는 어느곳에 무엇이 있다는것을 모르시지 않았다. 너무나 잘 알고계시는 가난이 스민 이 집 총재산의 주인이신것이다. 하지만 지금 경황없이 뒤지고계시는 그 마음의 갈피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하나의 애릿한 감정이 감돌고 있었다. 한동안 내놓기도 하고 또 들여놓기도 하면서 망설이던 할머님께서는 끝내 떨리는 입술새로 이런 말씀을 내놓으시였다.
《이걸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털썩 소리가 나게 내놓으시는것은 헌 뜯게를 무어서 만든 보자기에 정성들여 싼것이였다.
《이게 뭡니까, 할머니.》
《무명 한끝이다.》

《무명이요?》

감히 손댈념을 못하고계시는것을 보시자 할머님께서는 보자기를 펼치시였는데 아닌게아니라 그안에는 하얗게 볕에 바랜 무명이 포개져있었다. 별로 신기한것도 아니였다. 하지만 할머님께서는 그것을 펴놓고 구리가락지가 헐럭헐럭한 손으로 쓸어만지며 말씀하시였다.

《이걸 내가 몇해동안 간수해뒀구나. 행여나해서말이다. 이제 증손이 에미가 오면 내가 뭘로 체면을 차리겠니. 이거래두 그저 비단옷 못지 않게 입어달라고 사정을 하려고 했던거란다. 많지두 못해 치마저고리 한벌이 빳빳할것 같다.》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그 초점끝에서 마디가 굵은 손이 그칠새없이 떨고있다. 마치 가난하다는것이 그 무슨 큰 죄로 되기나 하는것처럼 의리와 세속 앞에서 용서를 빌고계시는것이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으신 손재주에 의해서 몸을 가리우기 위해 만들어진 무명 한필이다. 그것이 지금 할머님의 고된 로동과 이 집식구로 찾아드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려는 갸륵한 가풍을 안고 방바닥에 누워있는것이다.

《할머니! 이것을 우리 혁명군 총각한테 주면 정말 기뻐할것 같습니다.》

《그래?》

서글퍼보이던 할머님의 시선이 번쩍 빛을 뿌리였다.

《네가 좋다면 가져다주어라. 후에 일은 또 그때 가볼셈치자.》

이렇게 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자기에 싼것을 차에 얹어놓고 할머님과 헤여지시였다.

어느새 룡악산마루에 해가 걸리게 되여 유자빛 노을이 칠골우에 현란하게 드리워있었다.

7

김일성동지께서 집무실에 올라가신후 좌현이는 급히 합숙으로 달려왔다. 결혼식장으로 짐작했던 넓다란 식당칸에는 누구 하나 얼씬 하지

않았다. 부엌에 있는 안동무에게 물었더니 그런 말이 아침에 있긴 있었는데 딱히 어떻다는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슨 곡절이 있을것이였다. 날자를 물렸던가 아니면 어느 식당이나 료리집에 차리게 할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좌현이로서는 수긍이 가지 않았다. 날자로 말하면 사령관동지께 보고까지 된것이고 또 장소를 고려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실정과 어울리지 않는다. 합숙 찬거리도 그날그날 대는 형편인데 료리집을 차지할수는 없는것이다. 약간 기미가 이상한것은 안동무와 필남이가 국수를 누르는것인데 그것도 무슨 근거로 될수는 없고 태반이 모두 국수를 좋아하기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인것이다. 좌현이는 만경대에서 가져온 보자기를 자기 방에 가져다놓고 리발을 하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그럭저럭하다가 저녁때가 되여 합숙으로 돌아오니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아래웃방에 지휘성원들과 경위대원들이 하나 가득 모이였다.

한쪽구석에서 자리를 찾는데 거기에 앉았던 김책이 《좌현동무, 빨리 가서 사령관동지를 모셔오우.》 하고 지시하였다.

아무 생각도 할새 없었던 좌현이는 장군님 집무실로 달려갔다. 일본에서 학도병으로 끌려나갔다가 탈주해서 최근에야 돌아왔다는 어느 한 젊은 작가와 만나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래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자리를 뜨시였다.

《동무들이 다 모였소?》

《예! 저녁은 국수를 눌렀습니다.》

《박원식의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오?》

《전혀 그런 기미는 없고 모두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김책동무가 있소?》

《예, 있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 방안에 들어서시자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께 자리를 권하더니 선자리에서 《박원식동무 어데 갔나?》 하고 찾았다. 박원식은 대답이 없는데 옆의 동무들이 여기 와있다고 팔을 당겨 아래방으로 내리끌었다. 《이쪽으로 들어서라.》 하고 김책은 박원식을 자기옆에 세우더니 《안동무!》 하고 부엌에 대고 소리쳤다. 《거 처녀를 올려보내오. 아니, 데리고 같이 올라오오.》

어떻게 된 일인지 방안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쭉 흘렀고 김책이 지시하는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였다. 박원식이와 필남이를 나란히 세우더니 김책은 가뜩이나 긴 목을 좀더 뽑아올리고 말을 떼는것이였다.

《별것이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전우인 박원식동무와 한필남동무가 결혼을 한다는것을 동무들앞에 선포합니다. 때가 때니만치 아무것도 차린것이 없습니다. 광복이 됐지만 먹을것, 입을것이 넉넉치 못해서 이제부터 유격대풍습대로 국수를 한그릇씩 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 김책은 약간 어색해져서인지 방안을 둘러보고 량옆을 살피였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무감정한데 모두 질린듯하였다. 그러나 김책의 가슴속에서는 용암같은것이 소용돌고있었다.

《그러나! 신랑신부는 정말 행복하오!》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숨이 꺽 막히였다.

《여기에는 상다리가 휘도록 차린 음식도 없고 청실홍실 드리운 비단옷도 없고 술도 없소. 아무것도 없소. 그러나 박원식동무, 고개를 들고 이 방안에 누구들이 와있는가 둘러보오. 백두산에서 사선을 같이 넘던 전우들이 가득 와있소. 그리고 사령관동지를 이 자리에 모시였소. 조선인민혁명군에게 이것이면 됐지 무엇이 더 요구되겠는가. 동무들! 이자리에는 우리만 왔다고 볼수 없소. 광복된 조국을 못보고 먼저간 전우들도 와있소. 그 가운데는 장가도 못가고 처자가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종시 그는 끝을 맺지 못한채 목이 메여 끅끅 하더니 마침내 컬럭컬럭 기침을 터뜨리였다. 천식기가 있어서 숨을 제대로 톺지 못해 한동안 몸을 비틀다가 겨우 허리를 폈다. 그는 다시 정색해져서 방안을 둘러보는데 눈물속에 잠긴 그 시선은 번개불처럼 섬광을 내쏘았다.

《동무들!》 하고 그는 한호흡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계속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따라 천만리를 걸어 오늘 여기에 와닿았소. 그러나 우리는 **김일성**동지를 따라 또 그만한 길을 가야 하오. 박원식동무, 알겠지. 그것을 알았다면 둘이 손을 잡으라. 백년가약하는 날 혁명의 지조 변함이 없다는 표시다.》

처녀 총각이 금시 신랑, 신부로 되는 뜻있는 례식은 이것이 전

부였다. 김책은 바지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더니 한잔의 술을 가득 부어 둘이 마시게 한후 다 앉아 국수를 먹자고 하였다. 이런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방안사람들은 잘 알고있었다. 박수가 터지고 노래가 시작되였다.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혁명의 기세는 전세계를 덮었다

노래는 그칠새가 없었다. 그들은 평양 한복판, 그것도 크지 않은 방안에 앉아있으면서도 여기를 그대로 이깔나무 우거진 숲속 밀영지로 알고있는듯하였다. 끝없이 펼쳐진 밀림 어느때나 그칠줄 모르는 바람소리, 가도 가도 끝없이 뻗은 길 아닌 길, 거기에서 담을 키웠고 거기에서 투지를 닦고 생활의 의의를 체득한 그들은 전우에게 차례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값을 가지고있는가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다. 하기에 그들은 박수를 쳐도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어도 모두다 진심이였으며 참된 감정의 정수로 만들어내는것들이였다.

한창 흥이 났을 때 누군가가 《사령관동지 독창을 들읍시다.》 하였다.

《옳소!》 환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신랑신부가 있는쪽으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신랑신부가 일어나 그이께서 부어주시는 잔을 받았다. 몸이 좋고 얼굴이 검실검실한 억센 사나이와 왼가리마를 타서 곱게 빗어넘긴 머리에 항상 새별처럼 빛나고있는 눈을 가진 처녀, 이들을 잠시 보고계시는 사이에 그이께서는 많은것을 생각하게 되시였다. 김책이 목이 메여 말한것처럼 광복된 이날을 보지 못하고 또 아릿다운 처녀를 안해로 맞는 오늘과 같은 기쁨을 보지 못한 전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로 그들의 기쁨도 한데 담아안고 지금 박원식이 서있는것이다.

《행복하라구 박원식이!》

사령관동지의 다정한 시선이 온몸에 미쳐지고있다고 느낀 순

간 박원식은 술을 단숨에 쭉 마시였다.

그때 좌현이가 만경대에서 가져 온 보꾸레미를 들고 옆에 다가왔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거기에까지 관심이 미치지 못하신듯 자못 흡족한 얼굴로 방안을 쭉 둘러보더니 노래를 시작하시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것은 너무나 뜻밖이였다. 방안사람전부가 그이께서 좋아하시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가 아니면 《광막한 백두밀림의 밤에》가 나올줄 알았던것이다.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닥 높지 않으면서도 정서가 함뿍 어린 선률이 물뿌린듯 고요해진 방안에 천천히 흘렀다. 잔잔한 노래소리는 억세고 거칠게만 보이던 사나이들의 가슴속을 헤치고 각기 제나름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고향！ 고향！》

하고 모두 한마디씩 외워보는것이였다. 그렇게 불러만 보아도 정답고 기쁨이 솟아오르는것이 내 나라, 내 고향이건만 그들의 태반은 아직 그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노래가 끝난후에도 잠시 침묵했던 사람들이 일제히 손벽을 치며 재청을 요구하였다. 그렇게 되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동무가 도와주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기로 양보한다고 하고는 자리에 앉으시였다. 여직 한번도 노래를 불러본적이 없다는 김책이였는데 성큼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바람 첫마디를 뗴였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이것은 노래라기보다 통채로 가사를 줄줄 내리읽는것이다. 고개는 열어제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며 두손은 건사할데가 없

어서 앞으로 돌려잡기도 하고 뒤로 가져가기도 하였는데 그 동작이 매우 우습강스러웠다. 그러나 너무 진지하고 심각해서 누구도 웃지를 못했다. 듣는 사람이야 어쨌든 관계치 않고 2절이 나오고 또 3절이 나왔다. 자칭 음치라고 흉보던 사람에게서 어떻게 토 하나 틀리지 않는 가사가 술술 나오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끝내 젊은축에서 킥킥 웃는 소리가 났다. 그러거나말거나 그는 장대 같은 기세로 마지막 종결토까지 정확히 번지더니 제편에서 먼저 박수를 치는것이였다. 그때에야 숨막히게 참았던 웃음보가 폭발하였다. 천정이 들썩할만치 웃어제끼는데 김책은 마치 딴 사람이 웃긴것을 구경하는것처럼 같이 웃었다. 그것이 또 우스워 와하 웃어대였다. 그러다가 문득 김책이 《어? 어!》 하고 반벙어리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틈을 헤집고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이건 또 무슨 희극인가 해서 모두 그 뒤를 쳐다보는데 안마당으로 만경대할머님이 들어오시는것이였다. 이것은 참말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아래우 흰옷을 입고 귀잡이를 해서 흰 머리수건을 쓰신 할머님께서 김책의 부축을 받아 현관쪽으로 들어서시였다.

《만경대할머님이 오셨다!》

온 방안이 와작 끓어번지며 밖으로 달려나가기도 하고 창문으로 내다보기도 하였다. 김책은 방안에 들어와 신랑신부가 앉은 바로 옆에 할머님을 모신 다음 좌중에 대고 크게 알리였다.

《동무들,내 말을 들으시오.》 김책은 방안을 둘러보며 계속하였다. 《만경대할머님께서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켠에 장군님을 통해서 알게 되셨답니다. 장군님을 떠나보내신후에도 마음이 결려 속을 태우시다가 마침 여기 오는 차가 있어 앉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같으면 그렇지 않겠는데 에미애비 다 없는것이 잔치를 한다는데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친한 동무들이야 많겠지만 에미나 할미야 누가 대신할수 있겠나 해서 찾아오셨답니다.》

김책이 무엇이라고 하든 관계없이 할머님께서는 박원식의 얼굴을 두손으로 쓸어만지기 시작하시였다. 마디가 굵은 손가락이 진

한 눈섭과 관자노리를 더듬더니 그 다음에는 볼과 턱을 싸쥐였다. 할머님께서는 다시 민틋한 목줄기와 어깨를 붙잡더니 차츰 아래로 내려와 팔을 당겨 자신의 가슴에 안으시였다.

《섭섭해 말아라. 나를 고향의 어머니나 할머닌셈 쳐라, 응!》

다음에는 신부의 얼굴을 또 그런 식으로 어루만져주신다. 이렇게 되자 박원식은 처음부터 혀를 깨물며 참아왔던 감격을 끝내 터치고야말았다.

《할머니!》

목메인 그의 목소리가 단번에 온 방안사람들의 가슴을 후려갈기면서 신부를 울려놓았다. 옆에 서있던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그 짬에 좌현이는 만경대에서 가져 온 보꾸레미를 할머님 가슴에 안겨드리였다. 그것을 본 할머님께서는 이것이 왜 아직 여기에 있느냐고 하시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을 하더니 신부에게 넘겨주시였다.

《좋지는 못하다. 그러나 내 손끝에서 생겨난것이니 그리 알고 아무거나 해입어라. 어찌겠니, 이런것밖에 없는걸.》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올랐다. 팽팽히 켕기였던 감격적인 장면이 홀떡 번져져서 춤판으로 변하고말았다. 젊은축들이 마당에 나가서 발을 구르며 윽윽 소리를 질렀다. 팔과 허리를 꼬아올리기도 하고 발을 들었다놓으며 허공에 뛰여오르기도 하였다.

인민주권을 세우자 붉은 주권을 세우자

박수장단에 맞추어 합창이 터졌다. 다같이 손을 잡고 돌아가기도 하고 일제히 팔을 들어 흔들기도 한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춤판에 끼이시였다. 신통히도 일제를 소탕한 전승의 거리에서나 고난을 뚫고 밀영에 찾아온 전우들을 환영하던 때에 보던 그런 장면이며 그런 기분이였다. 그이께서는 박원식의 팔을 잡아돌리면서 《좋다!》 하고 흥을 돋구시였다. 만경대할머님께서도 젊은 시절의 기분이 되살아나 어깨를 추어올리고 팔을 흔들며 웃으시였다.

제 6 장

1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실에 계시였다. 사위는 고요에 잠기여 가뭇 그 어느 밀림속에서 숙영할 때처럼 깊은 감회에 잠겨들게 하였다.

그이께서는 지금 정세자료를 연구하고계시였다. 국제국내정세에 대한 단편자료들이 책상 한켠에 무둑히 쌓이였다.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시노라면 처음에는 대체적인 륜곽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는 차츰 본질이 명료하게 드러나면서 개개의 현상들의 호상 련관과 얽힘을 정확하게 리해할수 있게 된다.

새벽이 되자 방안공기가 쌀쌀해져서 그이께서는 상의단추를 꼼꼼히 채운후 의자를 바투 당겨놓으시였다.

벌써 두석달이 휘딱 지나갔다.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 자신께서도 놀랄지경이였다.

이해에 이르러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등 이를테면 전반적 생활분야에서 대전환을 일으키고있다는것은 이미 실제 사실로 되였다. 제2차대전은 그 영향에서 벗어날만한 어떤 공백지대도 남기지 않고 모두다 그 와중에 휘몰아넣었다. 그로 하여 지금 인류는 전쟁이라는 재난을 다시 맛보지 않기 위해 종전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을 내린것이다. 이 흐름을 인식했거나 또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이미 발길을 다른데로 돌리였거나 그 방향각을 대폭 수정하였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태반이 다 거꾸로 뒤집히고말았다. 도이췰란드의 히틀러는 모두 다 없애치우고 도이췰란드와 자기자신만이 살아남아있겠다고 호언하였지만 그자신이 자기를 없애치웠으며 동유럽에서는 전세기부터 그렇게도 저주하고 끔

찍스럽게 여기던 《공산주의유령》이 뽈스까, 체스꼬, 마쟈르, 로므니아, 벌가리아의 상공을 배회하다가 그것은 미구에 땅에 내려앉아 국가와 사회체제를 만들어놓으리라는 확신을 보이고있다. 쏘련사람들은 서쪽으로 한걸음 내디디기 위해 죽음을 무릅써야 했던 고난의 길로부터 동쪽으로 발걸음을 돌려 기분좋게 고향으로 돌아가고있다.

아시아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만세일계》로 우상화되였던 일본천황 히로히도가 창피를 무릅쓰고 만천하에 항복한다는것을 라지오로 방송하였으며 100만정예대군을 자랑하던 관동군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며칠어간에 물거품 사라지듯하였다. 동경 앞바다에 뜬 《미즈리》호 함상에서는 사상최대의 화려하고 장중한 항복서 조인식이 있었는데 이 치욕의 마당에서 일본황실이 보존될 가망이 있었다 하여 야마도민족은 감격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있다. 우리는 다 죽어도 황실을 보존하자. 이 천황신의 광신자들의 호소에 의해 전패한 황실의 《정조》 유린을 막기 위해 《정조부대》가 편성되여 점령군을 맞았다는 비극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자들은 패전의 근본요인이 천황신에 미친자들의 정신주의때문이라고 소리높이 론단하고있다.

조선에는 38도선이 생겨났다. 미주둔군은 입으로는 《해방》을 가져왔다고 말하고있는데 9월 8일 한낮 인천거리에서 상륙을 맞이하러 나간 한 조선의 녀인이 도로계선을 한걸음 넘어섰다 하여 그를 땅크로 깔아죽이였다. 인민의 의사에 의해 조직된 인민위원회를 일격에 해산시키면서 남조선전역에서 일제가 통치하던 식민지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미군이 선포하였다. 광주의 어느 한 로인이 총을 메고 서있는 미군병사에게 당신네는 남의 땅에 와서 왜 주인행세를 하려드는가 하자 즉석에서 총을 쏴서 가슴에 구멍을 내였다. 38도선에 카빙총을 메고 선 미국군대가 통행인을 향해 함부로 총질을 하고있다.

사정은 어떻든간에 40년동안 줄곧 조국을 떠나 해외로 흘러나가던 조선사람들이 홀연 발걸음을 돌려 제땅으로 물밀듯이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수십년동안 역홈에서, 부두에서, 동구길에서 눈

물을 뿌리며 리별에 리별을 거듭하던 마을과 거리에 상봉의 감격이 차넘치고있다. 돌아온다, 모두 돌아온다. 북간도에 갔던 사람들, 일본에 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 군대로 강제징집당했던 청년들, 《정신대》로 끌려갔던 처녀들, 《보국대》로 갔던 장정들이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정든 사람들을 만나고있다.

그런가운데 최근 평양역에는 놀라운 광고문이 한장 나붙었다. 11월 17일부터 려객렬차 하나를 정시운행한다는것인데 맨밑에 평양철도국장의 서명이 있었다. 사동탄광에서는 갱도에 찼던 물을 다 퍼내고 다시 정상조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원산, 신포의 가재미장사들이 화물차방통에 앉아 흥정을 벌리고있다. 청진, 신의주, 강계, 혜산, 맹산, 곡산 어데를 가나 군이나 면, 리에 인민위원회가 나와 일을 보고있다. 학교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뽈을 굴리고 장작이나 김장남새를 실은 달구지가 꼬리를 물고 거리로 들어오고있다.

이것이 이 나라 풍경이며 현 세계가 보여주고있는 양상이다. 얼핏 보건대는 모두 어슷비슷하게 들끓고만 있는것 같지만 약간이라도 정색해 들여다보면 그것들은 두가지 색갈을 띠고 날을 따라 그 선명도가 높아지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남쪽에는 운무가 질고 한소나기 퍼부을 음산한 기운이 덮여있으며 북쪽에는 찬란한 해빛아래 모든것을 활짝 드러내놓은 맑은 날씨이다. 습기를 한껏 머금은 구름이 남해로부터 거슬러 태백산쪽으로 한강을 낀 저지대쪽으로 쏠리고있다.

날이 밝았다.

사색에 잠겨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전화기를 당겨 김책을 부르시였다.

잠시후 김책과 마주앉은 그이께서는 밤사이에 생각한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자고 하시였다. 김책이도 밤을 새운 모양이여서 약간 지친듯한 기분이 얼굴에 나타나있었다. 언제나 한두마디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마련인 김책은 딴 의견은 없다고 하고 각 지방에 나가있는 파견원들의 사업정형을 보고하였다.

김책의 보고가 채 끝나기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몇가지 묻자고 하시였다. 신창탄광을 비롯한 안주, 덕천 등 평남지구와 고원탄광 등 동해의 탄광, 광산들에 보내는 식량이 별 사고없이 정

확하게 가닿았는가고 하시였다. 다음은 평양역 사정을 알아보시였다. 이미 귀띔한바 있었지만 로동자들속에서 철도국장 한명구에 대한 불만이 점차 커가고있다는데 거기에도 역시 나쁜놈들의 작간이 숨어있는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런데 장군님, 한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흥남비료공장에 내려간 강병철이 로폭발사고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강병철이가 무슨 로를 폭파시켰단말입니까?》

그이의 물음은 전혀 믿을수 없다는 의혹과 함께 너무나 뜻밖이라는 놀라움이 엇섞여있었다.

《제련소의 로를 복구해서 정머리에 끼우는 특수합금강을 만들자고 하다가 시험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닥 놀랄만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련소에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있다고 합니다. 대개 고의적인 작간으로 추측하고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보고가 파견원을 통해서 올라온것이 아니기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데서 올라온 보고입니까.》

《공장에서 온 사람이 최준결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약간 침울한 감정에 잠기시였다. 양춘만의 《배신》에 뒤이어 철도의 한명구도 말썽이 있는데다가 강병철이마저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한다면 간단히 보아넘길 개개의 현상이 아닌것이다.

《최준결동무가 지금 뭘하고있습니까? 그 동무를 보내서 알아보게 합시다. 혹시 기술적으로 해명해야 할것도 있을수 있잖겠습니까. 기왕 말이 난김에 말해둡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우리는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속에서 우리의 견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였던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련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 의견의 정당성을 립증이라도 하는것 같은 묘한 형태를 띠고있습니다.》

《예, 사태가 좀 이상하게 번져지고있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이릅니다. 우선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쥐여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시였지만 사실 내심에서는

강한 부정이 일어났었다.

강병철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거칠다고 할 정도로 과격한 기질이였지만 그에게서는 악의라든가 위선 같은것을 전혀 찾아볼수 없지 않았던가.

《그러면 최준걸동무를 래일 흥남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함흥지구에 나가 있는 오기섭동무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있습니까?》

《전화로 알아본데 의하면 대단히 격분하고있습니다. 이제 자세한것을 직접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하고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기대시면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김책동무,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더이상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토의하던 행정국들을 내옵시다. 그렇게 해서 북조선 전역을 하나로 통괄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의견을 내시오.》

그이께서는 책상서랍에서 문건 하나를 꺼내시였다. 거기에는 북조선 행정 10국에 대한 초안이 적혀있었다. 김책은 산업, 교통, 농림, 상업, 체신, 교육 이런 순서로 나간 10개의 행정국과 검찰, 재판에 대한 명단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김책이 돌아간후에도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방안을 계속 서성거리시였다. 양춘만의 도피, 한명구에 대한 비난, 강병철의 로폭과 그 현상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여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고있는것이다. 이 현상이 우연한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한 실책에 의한것이라면 그것은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것이겠는가.

2

강병철은 한동안 비료공장에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였다. 우선 급한것은 대형 압축기들을 복구하는것이며 그다음에는 전해직장을 정비하는것이였다. 합성탕크들을 보수해야 하였는데 그것은

작업규모가 크고 야외에서 한다는것뿐이지 기술적으로 복잡한것은 별로 없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는 장진수력발전소에서 받게 된 전기가 하루에도 몇번씩 오다마다하는것이였다. 그것때문에 사람을 띄우기도 하고 직접 자기가 배전계통에 찾아가기도 하였다. 이렇게 밤낮 뛰고있는데 린접공장에서는 또 거기대로 많은 난문제들이 제기되군하였다. 원시범이는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화학공장의 전기계통도 보아달라고 하였다. 그가운데도 제일 딱한것은 신창탄광의 박창술의 제기였다. 먼저번 찾아온것을 한달가량 기다려보라고 사정해서 돌려보냈는데 그후에도 연방 사람을 보내왔다. 며칠전에는 쪽지편지를 보내왔는데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똑똑히 대답하라, 나는 장군님께 올라가서 청을 드리겠다고 썼다. 하는수없이 강병철은 한 스무날만 더 기다려달라고 회답을 써보내고 평양에 전화를 했더니 최준걸은 로를 개조해 정머리에 끼울 특수합금강을 만들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는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강병철은 비료공장의 압축기고정자의 권선작업을 끝내고 절연물을 양생하는 기간 전적으로 합금로복구에 달라붙기로 하였다. 제련소에 넘어가니 공장장 리연수는 평양에 회의때문에 올라갔고 파견원 곽동화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지체하지 말고 곧 로복구에 착수하자고 하면서 19명으로 되는 작업조를 무어주었다.

강병철은 갈아입을 작업복도 변변한것이 없어서 제낀옷깃을 일궈세우고 그우에 수건으로 목을 동이고 로안을 들락날락하였다.

이날도 강병철은 로축조작업을 계속하고있었다.

《임동무! 저 규격이 작은거 몇장 올려보내오.》

발판우에 올라서서 벙어리장갑을 낀 손을 아래로 내밀었다.

《젠장, 어느거말이요? 2호? 3호?》

곱슬머리가 모자밑으로 삐여져나온 임형춘이 올려다보며 맞갖잖게 소리쳤다. 그는 이 공장에 채용되였다가 석달만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 죽을 고생을 하다가 전달에야 돌아왔다. 때문에 작은것 큰것 하지 않고도 각종 벽돌규격을 호수로 부를만한 수준에 있었다. 그렇지만 26살 나이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세파에 부대끼다보니 제꺽하면 주먹과 이마로 송사하는 버릇이 있었다. 강병철

은 될수 있는껏 그와 부드럽게 관계를 가지면서 어떻게 하든지 로를 이달안으로 복구할 예정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갔다. 그는 몰탈을 와락와락 이겨서 벽돌웃머리에 떠얹어들고 머리를 한껏 젖히며 빈구멍에 틀어막았다. 몰탈이 쏟아지면서 얼굴과 입에 그리고 목으로 해서 가슴으로 선뜩선뜩한 물이 흐른다. 퉤퉤 자꾸 내밸아도 입안에는 온통 모래가 씹힌다. 벙어리장갑안에는 손가락들이 피에 걸어붙어 아픈지 아린지 감각도 모르겠다. 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재장입때 손상을 많이 보게 되는 아구리쪽과 그에 잇달린 가장 곡선이 급한 대만부분이다. 그는 지금 그 대만부분을 꼼꼼히 쌓아올리느라고 애를 먹고있다. 이전에 그는 설계도면과 대비해가면서 축조작업을 감시한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손을 대고 쌓아본적은 없었던것이다. 설계와 시공간의 차이가 있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을줄은 미처 몰랐다. 언제나 보수는 신설보다 더 기능이 요구되고 작업공정이 구차스러운 법이다. 뚫어진 공간을 메꿔내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겨우 붙었는가 하면 차츰 땜때기한 부분이 젖혀져내리다가는 왈칵 무너져 며칠동안 공들인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안경알에 세멘트와 먼지가 뽀얗게 덮인것을 그대로 걸고 밤에 낮을 이어 내화벽돌과 씨름을 한다. 작업공정도 어려웠지만 우선 규격벽돌이 없어서 목욕탕이나 휴게실부엌을 들춰 모아들인것으로 사개를 맞추자니 그 고충이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하지만 강병철은 실망하지 않았고 그 조건을 타발하지 않았다. 이제 이 로에서 특수강이 나오게만 되면 그 모든것을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는것이다.

《임동무! 세멘을 한삽 올려보내오.》

대답이 없다.

《임동무, 어데 갔어?》

재차 불러서야 최한덕아바이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임동무 어데 갔어요, 일하다 말구.》

《내가 대신하면 안될가?》

《안될건 없지만 더디지요. 호수에 따라 벽돌을 섬겨야 하니까.》

그렇게 되자 최한덕아바이는 어데론가 씽 달려가더니 임형춘

의 덜미를 잡아 끌어왔다. 임형춘은 로안에 들어서면서 우에다 대고 걸찍한 욕설부터 퍼부었다.

《어！ 강기사나리, 당신이 아직 왜정때처럼 여기는게 아뇨. 누굴 오라가라하면서.》 아무 반응이 없자 되려 그는 왈칵 화를 내였다. 《당장 내려오라. 뼈대를 분질러놓고말겠다. 왜놈의 졸개같은자식, 제가 뭐게다 이래라저래라 지시를 해.》

《이자식, 다시한번 말해봐. 누가 무슨 졸개.》 뒤에 지켜섰던 최한덕아바이가 임형춘의 덜미를 잡아휘둘렀다. 《이 술망나니같은자식, 죽어봐라. 강기사는 특수강때문에 지금 몸을 부서뜨리고있다. 보자보자하니까！》

임형춘이도 가만있지 않았다. 아버지벌 되는 좌상한테 손찌검은 못하고 허리를 안아 허궁 들어 물이 반나마 차있는 도람통안에 던져넣었다.

《아이구, 허리야！》

소동이 벌어졌다. 스무명 가까운 작업조성원이 다 모여들어 왁작 고아대였다. 임형춘의 악담을 그대로 믿게 된 몇몇 젊은축들은 강기사의 버릇을 떼놓아야겠다고 떠들었다.

《지금이 어느때게 왜정때 감독행세를 하자고들어？》

《강을 못만들면 못만들었지 친일분자한테 구박을 받을순 없단말이다.》

《다꾸왕 먹고 자란 왜놈의 발바리야, 썩 사라져라.》

청년들은 당장 무슨 변을 낼것처럼 주먹을 흔들며 고아대였다. 그러나 또 그만 못지 않게 완강하게 저항하고있는것은 나이먹은축과 몇명의 젊은이들이였다.

《그래 강병철이 어쨌다는거냐. 우리 나라 금속을 만들어 건국을 하자는데 뭐가 나빠. 너자식들은 왜놈의 금속을 만들지 않았니. 같구같지. 중요한건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는거다. 강기사한테 손을 댔단봐라. 쇠장대루 가슴팍에 구멍을 뚫어놓겠다.》

《야 이 불한당같은자식들아, 너네 하는 수작이 뭐냐. 밤낮 술이나 퍼먹구 모이쪼해서 건국이 돼？ 밥통같은새끼들, 썩 물러가지 못하겠니.》

강병철은 넋없이 달려가서 최한덕아바이를 일으켜세우고 바지가랭이의 물을 짜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껏 조폭해져서 어쩔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있는지 그는 분간해낼만한 여유를 못가졌다. 오직 로동자들의 불화가 자기를 둘러싸고 일어났다는것과 바로 이 현상이 로복구사업에 큰 장애로 되고있다는것만을 통감하였다. 옷을 쥐여짜는동안 약간 기가 죽어졌던 최한덕아바이는 강병철을 떠박지르며 군중들앞으로 씽 달려나가더니 볼트대가리처럼 뭉툭한 손가락으로 임형춘이와 그밖의 네명의 청년들을 하나하나 찍어가며 소래기를 쳤다.

《당장 너희들 없어져라. 너희 술망나니패거리때메 로쌓는데 지장있다. 다 가라!》

그통에 다시 기세가 오른 로장패들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연방 고함들을 질렀다. 기세에 몰리게 된 임형춘이패들은 《가라면 가자! 우리 없이 얼마나 잘하나 두고보자.》 하면서 우실우실 휴계실쪽으로 내려간다. 이때 강병철이 그들앞으로 달려가 팔을 벌리고 막아섰다.

《못간다. 갈라면 같이 가자!》

술망나니라고 지명된 다섯명의 청년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추었다. 강병철은 장승처럼 서있는데 량쪽으로 벌린 두팔이 와들와들 떨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안경알밑굽에서 눈물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동무들! 갈라면 나를 때려없애치우고 가시오. 그렇게 하기전엔 못가.》 그의 목소리도 떨리였다. 울음섞인 그 말마디들은 목안을 사정없이 지지면서 불길처럼 내뿜었다. 《동무들, 용서해주오. 나는 인차 물러나겠소. 그러나 내 손으로 조선의 강을 다문 한차지라도 만들어보게 해주오. 부탁이요.》

《뭣들 이러고있소.》 강병철의 등뒤 나들문쪽에서 요란한 고함소리가 울리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란장판인가. 썩 제자리에들 돌아가지 못하겠소.》

이곳 파견원 곽동화였다. 아래우 보위색양복에 캡을 눌러쓴 30대의 그 사나이가 쇠란간에 올라서면서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강병철이와 마주섰던 청년들과 함께 웅기중기 모여섰던 작업반원들

이 각기 자기 위치로 흩어졌다. 곽동화보다 한걸음 뒤에 웬 사나이 하나가 또 나타났다.

강병철은 와들와들 떨리는 다리를 옮겨짚으며 로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강선생! 잠간 나 좀 만납시다.》 곽동화뒤에 어깨가 쩍 벌어진 장대한 사나이가 손짓을 하고있다. 한눈에 로동자풍이라는것이 알리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손을 내밀어 인사를 청한다.

《난 여기 공장장이요. 리연수라고 하오. 평양에 회의에 갔었소. 강선생의 말을 들었소. 우리 공장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다는데 감사하오.》

강병철은 휴계실에 안내되여들어가 공장장이 내놓는 《하도》를 피워물었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그동안 혼자서 수고했노라고 인사를 하더니 밑도끝도없이 《도대체 강선생은 어느 줄이요?》하고 문득 물었다.

강병철이 《어느 줄이라뇨?》 하고 놀랍게 입속으로 외우자 공장장은 인차 설명을 붙였다.

《내가 들으니까 서울에서 뻗는 줄도 있고 평양에서 뻗는 줄도 있다고 하오. 평양줄도 하나가 아닌데 공산당줄도 있고 민주당줄도 있으며 또 딴 줄도 있다는거요.》

공장장은 절구통처럼 굵은 다리를 포개였는데 번들번들 윤이 나는 장화목을 철썩철썩 두드리면서 여유있게 이쪽의 심리를 엿보고있다. 강병철은 담배를 몇모금 더 빨아 꽁초를 무쇠재털이에 끈다음 맞은켠을 쳐다보았다. 상대자의 형체는 알겠는데 얼굴인상을 가릴수 없어서 안경을 벗어 목에 감았던 타올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였다. 몇초 여유를 얻어서 잔뜩 신경을 긴장시킨후에 첫 대답을 하였다.

《나는 어느 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급히 필요한 금속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아! 그렇소. 그럴수도 있지. 평양에서는 누구를 만나지 못했는가요? 우리 서로 솔직하게 가슴을 열고 함께 일합시다.》

변죽을 울리는투가 벌써 심상치 않았다. 그러나 강병철이로서는 그 어느 하나 숨기거나 꺼려할것이 없었으므로 적당한 계기에

자기를 날날이 드러내놓을 결심을 하였다.

《평양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최준걸이라고 했던것 같습니다. 성대출신인데 백년광산에 있다가 현재는 5도행정사업을 통괄하는데서 일을 본다는것 같습니다.》

《아! 그렇소. 그럼 오기섭동지를 만난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궁에 온 화학기사한테서 한번 만났다는 말은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때 리연수는 며칠전에 만난 오기섭을 얼핏 머리속에 그려보았다.

《알겠소. 그만하면 알만하오.》

역시 공장장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장화를 툭툭 치면서 근시안경을 낀 강병철을 유심히 쳐다본다. 계속해서 고향이 어데고 아는 사람은 북에 누구인가 등 별로 중요한것 같지 않은것을 가지고 한동안 시간을 끌다가 그러면 현장을 같이 돌아보자고 하였다. 로복구도 알아보고 그밖의 전반적 기술상태도 물었다. 그 과정에 강병철은 공장장 리연수는 흥남비료공장 전기직장에서 전공로동을 하다가 《태평양로조사건》에 걸려 서대문에 있었고 9월에 고향인 신흥에 가서 얼마간 몸을 추세우고 공장장으로 되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달안으로 시험을 해볼수 있겠는가요?》

공장장은 정색해서 강병철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엉겁결에 강병철은 이렇게 대답해버렸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랭랭한 기운이 감돌면서 그 무엇에 의해 압착을 당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과연 이런 사람한테서 내가 어떤 호의를 바랄수 있을가. 설사 호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를 리해해줄만한 아량이 있을것인가?)

《꼭 성공하도록 하시오. 로와 함께 강병철을 시험하겠소.》

순간 강병철은 흠칫 몸을 떨었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싸늘한 기운이 번져가면서 의식이 몽롱해지기까지 하였다.

하루동안 뒤숭숭한가운데 날이 저물었다. 전등은 켰지만 전압이 낮아서 수수떡 달아맨것 같았다. 희미한 불빛속으로 강병철이

느릿느릿 로를 돌아보고있다. 방금전에 쿡 찔리운 그 상처로 여직까지 온몸에 소용돌고있던 열정이 죄다 빠져나간듯하였다. 다리가 떨리고 땅이 기울떡거리였다.

그런대로 로축조가 끝났다. 이제 양생기간을 거치는 동안 전기배선을 정리하고 실험을 해보아야 하였다.

휴계실로 돌아온 그는 수도에서 손을 씻고 화독에 올려놓은 군대밥통뚜껑을 열어보았다. 보글보글 물이 잦으며 매캐한 냄새가 풍기였다. 몇분 더 있으면 밥이라는것이 될것이였다. 밖에 나가 옷의 먼지를 턴 다음 모자를 벗고 머리를 흔들었다. 모래와 먼지가 와스스 흘어진다. 그는 고철무지짬에 밀어넣었던 단지를 들어다 뚜껑을 열었다. 시큼하게 김치가 익었다. 화독에서 밥통을 내려 김치단지와 나란히 놓고 저가락을 들었다. 먼저 김치를 떠넣고 김이 무엿무엿 나는 밥을 한저가락 떴다. 메주 뜬내가 코를 찌르더니 다음순간 배안의것이 일시에 목구멍으로 치밀어올라왔다. 김치국을 쭉 들이켰다. 그래서야 구토를 겨우 이겨내였다. 대두박,그것도 퍼렇게 곰팽이가 낀것을 삶으니 이모양이다. 굶주린 사람은 이런것도 달게 먹을수 있다는데 왜 넘어가지 않는지 모르겠다. 자산가의 위주머니는 다르게라도 생겨먹었단말인가. 자기자신이 야속하였다. 먹어야 기운을 내고 기운을 내야 로에 불을 넣어볼것이 아닌가. 또 한번 얼려보려고 했지만 역시 막무가내로 위는 대두박을 받아주지 않는다. 하는수없이 또 김치로 한끼 때기로 하였다. 우적우적 김치만 씹었다. 식후에 담배를 태우고나니 머리가 핑 돌면서 사지가 매시시해진다. 게다가 화독에 던져넣은 고열탄이 시뻘겋게 피여오르면서 엉성하게 판자로 벽을 붙인 휴계실안을 화끈화끈 달게 하였다. 강병철은 비스듬히 벽에 기대여 책을 뒤적이였다. 야하다시절에 구한 《철》인데 인류와 함께 철의 력사가 재미있게 서술된것이였다. 그는 이것을 벌써 여러번 읽었다. 영국의 필자가 통속적으로 서술하였는데 기술면에서는 참고할것이 별로 없었지만 태고적 인간이 우연히 철을 얻게 된 때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었기때문에 철의 세계에 잠겨드는데는 매우 좋은 책이였다. 또 하나 유익한것은 수면제 없이는 하루도 무사히 넘길수 없었던 그가

이 책을 뒤지면서부터 얼마간 잠을 잘수 있었다.

그때 밖에서 왝왝 웨치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였다. 거쉰 목소리가 나는것을 보면 한쪽은 최한덕이 분명한데 상대가 누구인지 알수 없었다. 귀를 강구니 그것은 공장장 리연수가 최한덕을 몰아주는것이 완연하였다.

《최령감, 그렇게 하면 장차 공장을 어데로 끌고가게 되는지 알기나 하고 그러우? 강병철은 왜놈들한테 붙어먹던 기사란말이요.》

《그래 공장장은 강기사를 왜 그렇게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오. 난 거기에 밸이 꼴려 그런단말이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있는지 당신이 알기나 하오?》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나쁜놈들은 열성이 있는척하면서 속으로 호박씨를 깐다는걸 모르오. 그러니 령감은 우리 지시대로 강가의 뒤를 밟으란말이요.》

《난 그따위짓을 할수 없다고 하잖소.》

《령감, 그래 공장장의 말을…》

그다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한동안 들을수 없더니 최한덕이 왝하고 고함을 쳤다.

《난 내가 본것외 말할수 없소. 내 보기에는 당신네가…》

계속 중얼중얼하는데 알아들을수 없었다. 자리에 누운채 강병철은 숨이 막히고 온몸이 바스라지는것 같아 옴짝할수 없었다.

한참후에 철판문이 삐익 열리더니 기침소리가 났다. 최한덕이 들어서며 《왜 아직 안자고있나, 밤에는 좀 쉬여야지 몸이 견디겠나.》 하고 책을 빼앗는다.

《아바이는 왜 쉬지 않습니까.》

흥분을 눌러내지 못한 강병철은 코멘 소리를 내였다.

《기사가 감기에 걸린거나 아닌가?》

《아니요. 전 감기를 모릅니다.》

주글주글한 최한덕의 얼굴이 성인처럼 고상하게 쳐다보이였다. 자기 편역을 들어준다고 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고결하고 참된것이 온몸에서 풍겨왔다.

강병철은 최한덕의 손을 움켜잡고 무턱대고 고개를 숙이였다.

《아바이, 감사합니다. 정말.》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아닌밤중에 홍두깨처럼.》
《왜 그런지 내 맘이 자꾸 그렇게 되는군요.》
최한덕은 책을 밥통이 놓인 선반에 훌쩍 던지더니 벽에 붙은 스위치를 끄면서 《푹 자라구.》 하고 나가버린다.
강병철은 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다. 밖에서 쇠붙이 다루는 소리가 나더니 잠잠해진다. 최한덕이 길가에 널린 파철을 치우는것 같았다. 잠들수 없다고 생각하니 손가락의 통세를 참아낼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불을 켜고 헝겊으로 처맨 손을 헤쳐보았다. 벽돌장에 갈퀴운 손에 피고름이 엉켜붙었다. 빨간약을 대강 찍어바르고 다시 싸매고 자리에 또 누웠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바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하고 그는 문득 자문하였다. 천금의 재산인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온 세계가 들썽할만한 명예인가? 그것이라고도 할수 없었다. 그것도 아니라면 무엇인가. 인간이란 목적이 있고 리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리성을 가진 동물이 아닌가. 그렇다. 목적이 있다. 자유? 그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다. 오직 순수하게 가식과 굴욕이 없이 살고싶다는 단순한 이 하나의 요구뿐이다.) 여직까지 언제한번 순수하게 살아보지 못했다. 철이 들어서 이날까지 그는 언제나 두개의 자아를 보며 살았다. 하나는 순종이요 하나는 반항이다. 권력은 순종을 요구하였으며 반항은 희생을 요구하였다. 천평에 올려놓인 이 두개의 인생은 언제나 수평점에 있었고 혹시 그렇지 않다가도 곧 그 점으로 돌아오려고 움직이였다. 어느것이 어느것을 잡아먹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맹수의 싸움이 계속되였다. 왜놈에게 순종하자 이것이 운명이니까 하고 머리를 숙이면 그만한 비례로 반항의식이 생겨나는것이다. 실로 이것은 피투성이싸움이였다. 불과 얼음이 한육체에 공존하는것이다. 그러나 광복은 이 두개를 동시에 완전히 취소해버리고말았다. 이제는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완전히 전기와 철의 세계에 자신을 묻으면 된다. 이제와보면 진작부터 이런것을 그가 바랐던것이다. 육신이 찢기고 뼈를 부서뜨려도 상관할것이 없다.

그런데 과연 이 소망이 이루어질수 있을가? 며칠전부터 싹트기 시작한 자그마한 의문이 이제는 차츰 커져서 이겨낼수 없는것으로 느껴지기까지 하였다. 리연수에 대한 일종의 공포가 생기였다. 리연수는 처음 만나는 날 거침없이 《잘하시오. 로와 함께 당신을 시험하게 되오.》라고 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벌써부터 딴눈으로 보고있다는것이 완연하지 않는가.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치였다.

강병철은 안깐힘을 쓰면서 자리에서 돌아누워 잠을 청하였다. 어차피 로의 시험은 있게 될것이며 그것으로 해서 강병철이 어떤 인간인가 하는것을 사람들앞에 공개하게 될것이다. 그러면 그에 따라 쓸사람으로 혹은 몹쓸놈으로 판정을 받게 될것이다. 문제가 신중한것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가. 그 안전장치란 사전에 시험을 해가면서 정식시험에 들어가는것이다. 그 일은 누구도 보지 않는데서 진행해야 한다. 강병철은 변전대에 올라가 전기를 투입하고 얼마간 시간을 기다렸다가 차츰차츰 전압을 올려보기로 하였다. 신호등에 불이 켜지자 계기를 보니 전류,전압 등등이 모두 정상이다. 로에서 불길이 일었다. 그는 재빨리 밑으로 내려와 첨가제를 던져넣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삽질을 하였다. 한차지의 용해는 어렵지 않게 진행할수 있었다. 그는 기중기에 올라가 바가지를 끌어다대였다. 기중기에서 내려와 출강구를 뚫었다. 쇠물이 흘렀다. 선홍색이 아니고 시꺼먼 쇠물이였다. 좀 수상스러웠지만 첫 쇠물이니 색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것이다. 어쨌든 성공인것은 틀림없다. 《성공이다!》 하고 고함치려 하였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팔을 들어 흔들었다. 그 순간 그는 뜻밖에도 천길만길 어둠속으로 떨어져내려가는 혼미한 기분에 사로잡혀 《아!》 하고 비명을 질렀다. 눈을 번쩍 떴지만 어데가 어덴지 알수 없었다.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여보게,놀랬나? 나야 나.》 최한덕아바이가 앞에 막아섰다.
《어떻게나 바람이 센지 자는줄 알면서두 문소리를 냈네.》

《아! 그렇군요.》

강병철은 얼굴을 싸쥐고 한숨을 후 내쉬였다. 그는 로보수하

는데를 한바퀴 돌고야 다시 휴게실로 돌아왔다.

《여보게, 이걸 자셔보게. 변변치 않지만 이거보다는 나을거야.》 최한덕아바이는 군대밥통을 들여다보면서 보자기에 쌌던 남비를 내놓았다. 《대두박을 갈아서 시래기를 넣고 비지를 끓였지.》 그러다가 실성한 사람처럼 제정신이 아닌 강병철을 보더니 《강기사! 꿈을 꾼게 아닌가?》 하고 물었다.

《옳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악몽에서 깨여난 후련한 기분이 그를 얼마간 들뜨게 하였다.

《무슨 꿈을 꾸었나?》

《무슨 꿈인가구요?》

강병철은 서글픈 웃음을 웃고나서 《천길 지옥에 갔다왔습니다.》 하고 실토를 하였다.

《에익, 사람두. 그걸 왜 진작 말하지 않나. 꿈과 생시는 딱 반대야. 로의 성공은 떼놓은 당상이네. 그러니 어서 이걸 들게.》

진정으로 기뻐해주었다.

강병철은 기지개를 켜면서 미친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웃다가 최한덕아바이를 와락 부둥켜안았다.

《고맙습니다. 아바이, 차후야 어떻든…》

그런후에 그는 눈물이 글썽해져서 비지남비를 당겨놓고 술을 들었다.

3

며칠후였다.

강병철은 로의 양생기간이 불안전하다면서 시험을 2일간 연기할것을 주장하였고 공장장 리연수는 불안전한것은 당신의 심리일뿐이지 여직까지의 공칭기간은 되고도 남는다고 우겨대였다. 리연수는 자기딴에 타산이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할수가 없었다. 평양에서 회의가 있은후 오기섭에게 개별적으로 불리워가 일제때지식인을

함부로 끌어들였다는 엄격한 책임추궁이 있을터이니 그리 알라는 경고를 받았던것이다. 그때 오기섭은 강병철이라고 지명은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를 념두에 두었던것만은 사실이다. 요새 오기섭이 함흥에 와있다는 소문도 있어서 리연수는 강병철의 처리가 매우 난처했던것이다. 《태평양로조사건》으로 함흥형무소에 미결로 있을 때 련루자들을 불지 않기 위해 그는 고추가루물을 두주전자나 마신적이 있었고 손톱눈에 참대송곳을 꽂고 몇번이나 기절한적도 있었다. 그후 그는 서대문형무소에 이감되여 8년을 복역하였다. 그동안에 받아안은 온갖 학대, 고문, 멸시 그것이 오늘에는 반일감정으로 온몸이 불타오르게 하였다. 때문에 강병철이에 대해서도 왜놈들에게 복무한 기사였다는 한가지 리유만 가지고도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이때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내리먹였다가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뜨물바가지》를 뒤집어쓸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2일간 연기하는데 마지못하여 동의하였다.

《그대신 2일후에는 점수를 빡빡하게 매길테니까 그건 각오해！》

리연수는 적의가 로골적으로 어린 얼굴로 안경알속에서 파르르 떨고있는 강병철의 눈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강병철은 정신없이 직장으로 돌아나왔다. 2일간 기일을 연기했다는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그 어떤 큰 불안과 압력을 느끼게 하였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최저계선이 2일이다뿐이지 그것이 안전수치는 아니였던것이다. 마음이 한껏 더 불안하였다. 불우한 한 인간의 운명이 합금로와 공장장 리연수 그 새짬에 끼워서 할딱거리고있다고 생각되였다. 때마침 작업반원들이 휴계실에서 더운물을 마시며 쉬고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임형춘이 쓰거운 낯으로 물었다.

《2일간 더 연기하기로 했소.》

《아니 안전하게 하자면 닷새는 더 있어야겠다고 하구선 왜 2일이요.》

《글쎄 그렇게 됐소. 그것도 겨우.》

강병철은 최한덕아바이한테서 쌈지를 달래서 마라초를 굵직하

게 말아물었다.

《내 당장 공장장과 뚜꾸고오겠수다. 제가 뭘 기술을 안다고 우릴 숙보는가.》

《형춘이!》 최한덕아바이는 문을 지끈지끈 후려닫고 나가는 임형춘을 불러세웠다. 《그런건 우리가 상관할게 못돼. 광복은 됐지만 집안에 애비에미가 있는것처럼 공장의 웃사람은 공장장이거던. 정 의견있으문 파견원동지를 만나!》

점검작업이 계속되고 기일을 놓고 계속 론의가 분분한 가운데 어느덧 48시간이 지나서 합금로시험을 하게 되였다. 그동안 설비가 적지 않게 복구되였다. 천정기중기 2대가 살아났고 용수뽐프도 돌아갔으며 그밖의 부대설비의 소소한것까지 다 갖추어졌다. 그중에서도 제일 난공사였던 로체보수도 손색없이 말끔히 끝났다. 강병철은 소재를 장입하기전에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벽체부분을 세세히 점검하였다. 상상했던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굳었다. 그는 작업반원들을 정렬시켜놓고 차례로 지시를 주었다. 그것으로 보수로부터 생산에로 작업공정이 넘어가게 되였다.

잠시후부터 기계와 설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가슴을 꿈틀할만치 충격을 일으키게 한것은 소재의 장입이였다.

원료덩어리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로안으로 설걷어내려간다. 그것이 몇번 거듭되여 로안에 소재가 무드기 쌓이게 되자 이번에는 시꺼멓고 견고하게 생긴 카봉이 쑥 내려가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불꽃이 일었다. 합금로와 함께 온 공장안이 부르르 떨면서 붕붕 소리를 내였다. 불꽃은 연방 튕기면서 사위를 눈부시게 비치였다.

강병철은 운전대를 지키고있었다. 전류, 전압, 용수, 가스 등의 바늘이 일시에 떨었다. 이때 그는 침착하게 계기판을 들여다보고있었지만 바늘이 지시하는 그 계선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흥분되여있었다. 담배를 붙여물기도 하고 상의를 벗어서 작업대우에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기도 하고 또는 탁자우에 놓인 사발시계를 이쪽저쪽으로 돌려놓기도 하였지만 바로 이 시각에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응당한 행동이였는지 어쩐지 알지 못하고있었

다. 그러다가 그는 홀연 랭랭한 기분에 잠겨 민감하게 하나의 초점에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전압!》 하고 약간 사이를 두었다가 배전공이 조절기쪽으로 손을 뻗쳤을 때 《2단투입!》 하고 구령을 주었다. 철커덕하고 조절기에서 용수철 튀는 소리가 나는것과 동시에 그 어떤 괴물이 용을 쓰는것과 같은 괴이한 소리가 나면서 모든것이 일시에 와르르 떨었다. 다음순간 《꽝!》 하고 폭음이 일면서 지진파가 울리듯 철골들이 후두두 떨었다. 로동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란간밑으로 뛰여내리기도 하고 철골뒤에 숨기도 하였다. 현장안은 온통 연기에 뒤덮이였다. 푸른 가스가 로두리를 천천히 감돌고있다. 모든것이 실로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강병철은 창문을 열어잡고 사고현장으로 뛰여내리려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벽에 의지한채 가까스로 몸을 지탱하였다.

《누가 다치지는 않았소?》

《여기로 다 모이시오!》

어데선가 멀리서 울리는것 같은 고함소리를 들으면서 몇초동안 서있던 강병철은 밑둥이 잘린 통나무처럼 철썩 땅바닥에 나가자빠졌다.

현장을 지키고있던 리연수가 작업반원들을 확인하였다. 임형춘이 다리에 화상을 입었고 리순만이 벽돌장에 맞아 머리가 터졌다. 그외는 별일 없었다.

《강병철이 어데 갔는가.》 리연수는 급히 소리쳤다. 《강병철을 붙잡으라! 부상자는 병원에 업고가라. 아니,의사를 오라고 하라. 보안서를 부르라!》

얼마후 배전실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강병철을 맞들어 내왔다. 휴계실에서 구급처치가 진행되였다. 의사가 없다보니 의학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약창고에서 알만한 약들을 들어내다가 처매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였다.

《인공호흡을 시키라!》 리연수가 사납게 호통을 쳤다. 《이대로 죽어버리면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단말이다.》 옆에서 지키고있던 리연수는 강병철이 숨이 돌아서는것을 보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해냈다. 《음식물을 다 토하게 하라! 혹시 약을 먹었을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리연수는 연방 새로운 추리를 해내였다. 그러나 그

의 음성이나 얼굴표정은 밝지 못하였으며 지어 진속을 알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고 얼룩진것이였다. 책임이 두려워서였다. 오기섭이 이 사건을 알기만 하면 직통으로 《상급의 지시를 묵살하고 파괴행위를 용납한자》라는 규탄을 받을것이며 《저놈이 친일분자보다 더 나쁜놈이다.》 하고 잡아넣을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병철이 의식이 회복되여 무어라고 변명할지, 무슨 소리를 쾌칠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하라는대로 해서 이렇게 됐소.》 할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고의적으로 그랬소.》 할수도 있는데 어느것이든지 공장장으로서는 받아안을수 없는 고통거리였다.

인공호흡과 연방 들이댄 강심제 주사의 덕에 강병철은 드디여 의식을 회복하였다. 휴계실 장의자에 쓰러졌던 그가 눈을 뜨자 벌떡 일어나면서 두리번두리번 좌우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옆에 앉은 최한덕아바이를 띠여보자 그는 와락 부둥켜잡으며 소리쳤다.

《아바이！ 카봉에 들어가는 전원예방기를 봐주시오.》

《흥？ 전원예방기！》 하고 리연수가 아니꼽게 낯을 돌리였다. 《여보, 시험은 끝이 났어. 락제요. 연극이 왜 그렇게 빤드름하오.》

그러거나말거나 강병철은 실성한 사람처럼 《예방기를 보라！》 또는 《카봉의 습도를 보라！》 하고 고함을 지르며 벌떡벌떡 일어나는것이였다.

리연수의 지시에 의하여 보안서장 박인국이와 최한덕아바이가 강병철을 지키였고 그외는 모두 사고현장을 수습하는데 착수하였다. 사방에 널린 쇠붙이들을 한데 모으고 로를 식히기 위해 랭각수를 쏘아넣었다. 앞을 가려볼수 없게 증기가 피여오르고 먼지가 떠돌았다. 리연수는 로앞에 발을 쩍 벌려디디고 서서 이것저것 지시도 하고 간간이 강병철에 대해서 된욕을 퍼부었다. 평양에서 돌아오는참 가차없이 내쫓아야 하는데 파견원의 권고에 못이겨 두고보자는 식으로 하였더니 결국은 이모양이 된것이다. 결국은 제손가락으로 제눈을 찌른 격으로 되였다. 그러나 종당의 책임소재는 어떻든간에 강병철의 교활하고 간악하며 지어 《살을 아끼지 않는 해독행위》는 이가 갈릴 지경으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 며칠후에 온 공장 종업원들을 다 모아놓고 경위를 알려준 다음 없애

치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직 눈뜨지 못한 프로레타리아의 각성을 높여야 할것이다.

석탄먼지가 뽀얗게 오른 장화를 뚜거덕거리며 리연수는 합금직장안을 돌고있었다. 떡판처럼 쩍 벌어진 등판은 맥없이 기우뚱거리였고 총이 센 머리카락은 꿋꿋이 일어났다. 서대문형무소에 10년가까이 있으면서도 언제한번 이렇게 녹초가 되게 맥빠진적이 없었는데 졸지에 딴 사람처럼 되였다. 그가 내화벽돌과 정광이 뒤섞인 원료작업장 철길을 걸어가고있을 때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공장장동지！》

고개를 돌리니 보안서장 박인국이 허리에 찬 일본도를 붙잡고 달려오고있었다.

《왜 그러오？》

《범인을 어떻게 할가요？》

《범인？》

리연수는 쓰거운 웃음을 띠고 반문하고나서 인차 《범인이야 당신네가 처리해야 하잖소.》 하고 화를 내였다.

4

징을 박은 가죽장화가 콩크리트바닥을 밟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렸다. 그것이 복도에서 층계쪽으로, 그다음에는 철문쪽으로 옮겨지더니 자물쇠 다루는 소리와 함께 거치른 고함소리로 되여 지하실을 울리였다.

《강병철선생, 그만큼 생각해봤으면 이젠 실토할 때가 되지 않았소？ 나오오.》

마루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누워있던 강병철이 머리를 쳐들고 올려다보았다. 이미 낯이 익은 공장보안서장 박인국이였다. 일본군대의 붉은 가죽장화에 국방색 모직장교복을 입어서 머리에 올려놓은 검은색 캡만 아니였다면 그냥 그대로 일본군장교라고 할수 있었

다. 그러나 징병 제1기에 끌려나가 만주 봉천에서 쏘련군대에 의해 풀려나온 그는 머리끝까지 반일사상이 꽉 차있었다.

《빨리 나오오. 솔직하니 자백하면 무사할테니까.》

박인국은 동정하는투로 말은 하였지만 그의 시선은 대단히 긴장돼있었다. 그것은 그의 체질로 된 일제에 대한 반감과 함께 어제 나타난 평양손님 오기섭의 엄포에 의해 한층 더 거칠어졌기때문이였다.

오기섭은 말하기를 《혁명적인 프로레타리아가 어째문 그 나약한 지식인의 입을 벌리게 하지 못하는가. 그놈은 명백히 친일분자요, 어느 모로 보나.》라고 했었다. 그래 그는 오늘 하루만 시간을 주면 솔직한 자백을 받아내겠다고 다짐한것이였다.

강병철은 오금이 저리고 쑤시여 인차 움직여낼수가 없어서 끙끙 신음소리를 해가며 처음에는 무릎을 펴고 또 그다음에는 목을 세우는 등으로 한참이나 모대기다가 겨우 일어났다. 일본에 있을 때 시작되였던 관절염이 습기찬 방에서 다시 도진 모양이다. 벽을 붙잡고 겨우 문칸까지 발을 내짚은 그는 박인국이 팔을 부축해서야 가까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장실 걸상에 걸터앉게 되였다.

《밤사이에 좀 생각해봤소?》 하고 박인국은 책상우에 놓았던 로이터안경을 코에 걸면서 위엄있게 물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할거 있는가. 왜놈들한테서 공장을 파괴할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한마디 하면 될게 아니요. 또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으로 이놈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면 그렇게 말하면 되오. 만약 강선생이 끝까지 뻔댄다고 하면 우리도 할수없이 신사식으로는 못하고 입을 열도록 하게 될테니까. 그럼 서로 재미없잖소. 우리도 노상 주먹치기가 아니라 근거를 쥐고있다는걸 알아야 돼. 알겠소?》

강병철은 머리가 멍해서 아무것도 알수 없었다. 우선 건강이 파괴되여 정상적인 사고를 할만한 기력이 없었고 또 박인국이 차츰 더 란폭해지고 불쑥불쑥 내대는것이 안정된 사색을 할수 없게 만들었다. 강선생이라고 매번 불러놓고는 반말이 아니면 해라투의 죄인 취급을 하고있다. 물론 죄라면 죄로 될수 있겠지만 결과만 보지 말고 의도도 참작해야 할것이 아닌가. 두석달 걸려서 복구할 전기

로를 불과 20여일 걸려 원상대로 만드노라고 강병철은 실로 모든 정력을 다 쏟아놓았다. 앉았다일어나면 하늘이 새노래지고 땅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나 이제 로에서 강철이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그 로고를 다 씻고 몸이 거뜬해질것으로 알았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머저리짓을 해. 응,그래 강병철이,계속 그렇게 입을 봉하고 뻗칠셈인가.》

그러거나말거나 강병철은 박인국이 받아적겠다고 내놓은 종이장우에 시선을 던진채 입을 열지 않는다. 박인국은 약이 올라 계속 다궂는다.

《우리는 처음에 당신이 말한대로 실수했는가 했댔소. 그러나 알고보니 당신은 고약한 친일분자요. 바른대로 말하오. 어째서 로를 폭파시켰는가?》

말투와 기분으로 보아 이제는 완전히 죄인취급을 하고있는것이다. 《고약한 친일분자》,그 표현이 어떻게나 랭랭했던지 예리한것으로 심장을 콱 찌르는것 같았다. 온몸에 찬기운이 찌르르 미쳐가면서 정신이 혼몽해지기까지 하였다. 이전생활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면 피를 씹으면서도 접수할수 있고 또 접수하는수밖에 없겠지만 8.15후를 놓고 특히는 이 흥남을 놓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 억울한 루명이였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자기딴에는 그렇게 하는것이 자신을 바로세우는 길이며 또 애국의 길에 통해있다고 여기였던것이다. 로의 폭발을 두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라는것을 인정할수 있다. 왜냐하면 로복구기일이 너무 짧았으며 그나마 내화물축조공이 없어서 강병철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쌓은것이였다.

《거듭 말하지만 난 로폭발을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소. 그것은 나혼자 한것이 아니니 작업반동무들에게 물어보면 확실한것을 알수있소. 난 어디까지나 량심적이요. 량심에 꺼리는 일은 할수 없었소.》

첫 대답이 뜻밖에 완강하고 전날과 추호의 차이도 없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어 박인국은 안경을 벗었다꼈다하면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그래? 량심에 꺼리는 일은 할수 없었다. 알만해. 이제 그 〈깨끗한 량심〉을 보여주지.》

확실히 그것은 위협이였다. 하지만 강병철은 겁을 먹지 않았다. 말그대로 그는 량심에 꺼리는것이 전혀 없었다. 광복이 되는 그날부터 다시는 두개의 자아를 안고 살지 않기로 결심한 그였던것이다.

8.15광복을 그는 수준이 높게 조국과 민족과 결부시키지는 못했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생각 안한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실상 아득히 먼데 놓여있는 하나의 관념이였다. 그러나 두개의 자아로부터 단 하나 자기 량심이라는것으로 지탱되는 《나》로 살수 있다는것을 그는 8.15로 보았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설사 그 어떤 최악의 경우에 림한다 해도 로폭파는 고의적이 아니라는 량심적인 대답을 변경시킬수 없었다. 그러나 운명은 얼마나 지꿎게 인간을 희롱하는가. 원인과 과정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로의 폭발은 1944년 야하다에서도 한번 있었다. 그때에도 공장적인 범위를 벗어나 경찰서구류장에 구금되였었다. 로가 폭파되고 3명의 조선인로동자가 화상을 입었다. 그것을 《야스가와사건》이라고 불렀다. (강병철은 그때 야스가와라고 창씨되여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슷비슷한 사고가 났다. 로는 폭발되고 일부 설비에 손상이 갔으며 로동자 한명이 화상을 입었다. 야하다에서는 일본경찰이였고 지금에는 자기 민족의 손에 의해 구금된것이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번져갈지 그것은 누구도 몰랐고 강병철이자신도 전혀 예측할수 없었다. 야하다에서는 고문을 당한끝에 병원으로 실려갔다가 다시 공장으로 나갈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떤것으로 될는지.

박인국은 한참동안이나 모멸에 찬 시선으로 쏘아보고있다가 낯색 하나 달리하지 않는 강병철을 향해 분격을 터뜨렸다.

《당신 같은 인간이 있었길래 우리 조선은 40년간 일제의 식민지로 되였던것이요. 친일분자 강병철!》

했으나 강병철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심리적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인국이 입가에 의미있는 미소를 지으면서 옆방에 대고 소리쳤다.

《여, 송동무! 거 그 동무 데리고 들어오우.》

옆방에서는 마치 기다리고있었다는듯이 의자 옮겨놓는 소리가 몇번 나더니 푸른 뺑끼도색을 한 문짝이 꺽 열리면서 량쪽겨드랑에

짝다리지팽이를 짚은 수척한 청년이 하나 나타났다. 그뒤에는 푸른색 군복을 입은 송동무라는 패기만만한 청년이 따라섰다.

《여기 앉소.》

박인국이 강병철이 앉은 맞은켠 의자에 짝지팽이청년을 앉히더니 《여보, 강선생! 이 청년을 한번 자세히 보우. 그런후에 우리 오손도손 이야기해보기요.》라고 하였다.

강병철은 아무런 충격도 느끼지 않으면서 고개를 들어 짝지팽이 청년을 쳐다보았다.

《알만한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박인국이 한걸음 다가섰다. 어데선가 본것 같기도 하고 또 생판 처음보는것 같기도 하였다.

《어떻소. 대답해보우. 그거야 어려울것이 있소.》

《잘 모르겠소. 어데서 본것 같기도 하고 전혀 본적이 없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면 최성우동무, 동무가 자세히 말해보우. 이 강선생이 알아듣게말이요.》

그들사이에는 이미 사전토론이 있었던 모양이다. 최성우는 강병철이 앞으로 얼굴을 내대면서 떨리는 목소리를 내였다.

《나를 모르겠소? 정말.》

그렇게 되자 강병철은 더욱더 얼떠름해졌다.

《당신은 야하다제철소 제3호로 제2교대 기사였지요? 야스가와상, 나는 그 로밑에서 슬라크를 쳐내고…》

침착하게 앉아있던 강병철은 와뜰 놀랐다.

최성우는 바로 최한덕의 맏아들이다. 얼마전 그는 집에서 멀거니 창밖을 내다보다가 우연히 사람들 틈에 끼여 걸어가는 강병철의 얼굴을 띠여본적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들어온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서 그 사람이 분명 일본서 본 야스가와라는놈같은데 어쨌으면 좋겠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최한덕은 벌컥 성부터 내면서 야스가와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냐, 설사 그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 일하는것을 보면 량심적으로 건국에 이바지하려는 각오가 대단한 사람이니 아무 말 말고 가만있으라고 욱질렀다. 아

버지가 하도 펄펄 뛰기에 최성우도 그럴만하고있었는데 아니나다를가 로가 폭파되였다는 소문이 짜하니 들려왔다. 그는 더이상 참을수가 없었다.

최성우가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것은 18살때부터였다. 2년째 되던 1943년 겨울 이 공장에도 전체 종업원들에게 징용령이 내렸다. 자의로 공장을 리탈할수가 없게 되였고 모든 면에서 군사규률이 적용되였다. 그이듬해 이 공장에서 최성우를 포함한 30명의 로동자가 야하다를 비롯한 일본 강철공장들에 끌려가게 되였다. 최성우는 야하다 제3호로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기 시작하였다. 조선로동자에게는 원시적인 집단기식과 살인적인 유해직종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외출이 금지되고 앓는다 해도 치료할수가 없었고 하루에 50개 질통분의 슬라크를 리유여하불문하고 져내야 하였다. 온몸에 슬라크가루가 게발리고 며칠에 한번씩은 손이나 발 그리고 목덜미에 화상을 입군하였다.…

박인국은 또 다그어댔다.

《그래 아직도 모르겠는가.》

강병철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이것은 신에 의해서만 꾸며질수 있는 운명의 교차이기때문에 이 앞에서 변명할수도 없는것이고 또 그 어떤 진실이라는것을 밝혀보았대야 아무 소용이 없을것이였다. 다만 그는 선량하면서도 절망적인 시선으로 짝지팽이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볼뿐이였다.

최성우는 일본에서 강요당한 인간이하의 멸시와 불이 펄펄 이는 뜨거운 슬라크질통 그런것이 단꺼번에 회상되여 목안이 마르고 입술이 타는듯하였다. 물론 앞에 앉아있는 안경쟁이 야스가와가 그가 당한 모든것의 책임을 다 질수는 없겠지만 그를 통해 환기된 감정은 뼈저린 원한과 복수심뿐이였다. 최성우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염낭에서 담배 한대를 꺼내들고 그것을 강병철이 앞에 불쑥 내대였다.

《엇소, 이번에는 내것을 한대 피워보우. 그때 당신은 조선로동자들에게 찍하면 담배를 권하면서 서로 고통을 참아내자고 했었지. 그래 한가지 물어보기요. 당신의 잔등에 큰 흠집이 있지?

3호로에 있던 로동자들이 일본놈 아오끼가 연구했다는 로에 불을 넣다가 폭발했었지. 난 거기에 없었지만 한짝패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되였던거요. 그때 당신은 잔등이 데서 흠집이 생겼소. 내가 알고있는 야스가와라면 그것이 있어야 한단말이요.》

최성우는 점점 더 굳어져가는 강병철에게 달려들어 줄무늬가 간 상의의 덜미를 잡고 쭉 내리그었다. 아닌게아니라 강병철의 잔등에는 험상하게 생긴 상처자국이 하나 있었다.

《보라! 이것이면 더 말할 필요 없을거요. 야스가와, 인정하는가. 당신은 왜놈의 개질을 하면서 우리 조선로동자들을 끌고갔던거야. 아오끼가 연구했으면 아오끼에게 해보라고 하면 될것인데 왜 당신은 그것을 말아나섰는가. 왜 그런 험한 판에 우리 조선로동자들을 내몰았는가. 당신은 왜놈의 졸개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강병철은 와들와들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는 모지름을 쓰면서 한마디 웨치였다.

《그때 나는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소.》

《무엇이 어째? 그때 야스가와, 넌 우리 로동자들이 위험해서 못하겠다고 뻗대니까 따귀를 치고 목덜미를 끌고 현장으로 갔지.》

《그렇소. 그것도 사실이요.》

《그럼 너는 뭐냐. 야스가와, 말하라!》

최성우는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지른다.

입을 딱 벌린 강병철은 신음소리를 내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따귀를 친것도 목덜미를 끌고간것도 다 사실이였다. 왜? 무엇때문에? 그것은 제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동포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해서였지.

강병철은 머리를 떨어뜨리였다.

눈에 달이 오른 최성우는 지팽이를 휘둘러 갈기려고 하였다.

《여! 여, 최성우 그럼 못써!》

박인국은 지팽이를 빼앗으면서 《이제 제입으로 다 자백하게 하고 인민재판을 할테니까 참소.》 하고 씹어밸는 소리를 하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최성우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펄펄 뛰였다.

《보안서장동무! 이자가 노는 꼴을 보니 안되겠습니다. 그때

부상당한 로동자가 겸이포제철소에 있다는데 거기에 련락해서 저자를 끌어다가 즉살탕을 먹이게 합시다.》

한참 왁짝 떠들고있을 때 최성우의 아버지 최한덕이 기침을 컬럭컬럭 깇으며 나타났다.

《야, 너 거 무슨 망동이냐. 썩 물러가지 못해!》

들어서자마자 대번에 호령부터 한다.

《아버진 왜 자꾸 그래요. 저런 반동을 그냥 두면 건국에 지장있어요.》

《어서 나가라! 내 알아서 처리할테니 넌 삐치지 말아!》

최성우는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마뜩지 않게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지팽이를 휘둘러 짚으며 밖으로 씽하니 나가버린다.

《서장동무!》 최한덕은 의젓한 목소리로 박인국을 부르며 한걸음 나섰다. 《미안하네만 잠간 자네도 나가주게. 내 단둘이서 한두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오랜 로공이고 밸머리가 보통이 아닌것을 안 박인국은 좋을대로 하라는 식으로 군말없이 나가버리였다. 최한덕은 강병철이 앞으로 의자를 당겨놓고 몇분동안 침묵을 지키였다.

숨막힐듯한 순간이 한초한초 지나갔다. 최한덕이 입을 열었다.

《암만 보아도 난 자네가 나쁜놈같지 않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강병철은 대답할수 없었다. 다년간 로동에 찌들고 인생고초를 맛볼대로 맛본 로공이 동정이 함뿍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고있는것이다. 사고를 쳐서 이 순간까지 그는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결심하고있었다. 로폭발은 고의적이 아니고 우연한 사고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술적 조건들을 얼마든지 들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더구나 야하다에서 저질렀던 쓰라린 상처마저 들추어내게 된 이 마당에 와서 우연하고 공교로우며 한생 후회하여도 모자랄 운명의 비꼬임을 구차하게 빌붙으면서 수습하고싶지 않았다. 일제때는 잘못 살았다. 그러나 지금은 량심적으로 살고싶고 또 그렇게 행동한것도 사실이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 보잘것없는 량심마저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기술적 조건도 그렇고 또 이 사건을 둘러싼 몇몇 인간들 그들모두가 한 지식인의 가냘픈 성의마저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태여 운명에 저항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렇게 했다고 한들 그것이 통할수가 있겠는가. 가령 오늘은 그럭저럭 무사히 넘길수 있다 치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오늘 이 정도가 아니라 보다 엄청난 사건이 생길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오늘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바이!》 하고 강병철은 뜨거운 입김을 후 내불고나서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명확하게 뒤말을 이었다. 《나는 나쁜놈입니다.》

《나쁜놈? 그건 거짓말이다. 난 그 눈을 보면 다 안다. 나쁜놈은 눈이 그렇게 맑지 못해. 똑똑히 말하라!》

《똑똑히 말해서 나는 나쁜놈입니다.》

《그래? 정 그렇다면 그럼 내 묻는 말에 대답하라!》

최한덕은 붉은실이 왔다갔다하는 눈을 부라리였다.

《대두박을 삶아먹고 손에 피가 나게 벽돌을 쌓은것이 가짠가?》

강병철은 대답할수 없었다.

《또 한가지, 빨리 특수합금강을 뽑아서 정머리를 만들어 탄광에 보내자고 하던것도 거짓말인가?》

역시 입이 열리지 않았다.

《또 한가지, 장군님 연설을 듣고 그길로 여기로 달려왔다는것도 가짜겠다?》

이때 왈카닥 가슴에 치받치는 분노, 모멸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강병철은 화를 내듯이 큰소리로 웨치였다.

《아바이! 나는 나쁜놈이라고 하잖소.》

《나쁜놈이라구? 정신을 차리게 해줄테다!》

무쇠덩이같이 억센 최한덕의 주먹이 강병철의 볼통으로 날아들었다. 눈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는 순간 강병철은 《아이구!》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의자에서 바닥에 떨어져내렸다.

《속일놈이 속인다면 우린 그렇겠거니 하겠다. 시라소니같은 자식!》

최한덕은 훌쩍 일어나 나가면서 무어라고 웅얼거리였지만 알

아들을수는 없었다. 강병철은 울음이 터져올랐으나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다. 너무나 참되고 선량한 존재앞에서 주눅이 든것이다. 바로 강병철이 자기자신이 최후에 내대며 변명하고싶었던 사실들이 아바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나왔던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이렇게 감격을 안고 조용히 물러나는것이 좋지 앞날에 이와 반대되는 경우에 직면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또하나의 강병철이 머리를 쳐드는것을 어쩌지 못하였다. 지금 이자리에서 그것을 내대고 동정을 사서 요행 모면했다고 하자. 그러나 야하다사건은 이제 무엇으로 변명해낼것인가.

야하다사건의 진상이란 이런것이였다. 태평양전쟁이 차츰 절정을 향해 치달아오르게 되자 강철수요는 그에 비례해서 급속히 뛰여올랐다. 거기에 응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이 진행되였는데 아오끼란놈이 속성제강법이라는것을 연구해서 실험을 하게 되였다. 실험은 위험을 동반하였기때문에 회사측에서는 조선로동자만을 쓰기로 내정하였다. 조선로동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해야 했던 아오끼는 반일감정을 운운하면서 자기 대신 조선사람인 강병철이 하는것이 좋겠다고 제기했다. 그통에 강병철은 놈들의 협박을 못이겨 실험작업을 하게 되였다. 시험을 거절하면 아무때고 흔적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해야 했고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큰 모험을 무릅써야 하였다. 이런 새짬에 끼운 그는 할수없이 실험에 응하게 되였는데 예견했던대로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다. 이 과정에 강병철은 여직까지 일생을 통해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뇌보다 더 큰 심적고통을 겪어야만 하였다. 로동자들은 죽음의 구뎅이에 제발로 걸어들어갈수 없다고 뻗대였다. 강병철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설복해야 하였다. 그 과정에 로골적으로 《왜놈의 졸개》라는 악담까지 듣게 되였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면 어느때 모두 바다에 싣고나가 물에 던져버리게 될는지 알수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조선로동자들을 위해서 또 자기자신을 위해서 혀를 씹으면서 모험을 하고 요행수를 바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였던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15명의 조선로동자들에게 따귀를 쳐가며 시험로에 불을 지필것을 강요하게 되였으며 마침내 로가 폭파되여 3명의 로동자와

함께 자기자신도 화상을 입게 되였었다. 당시 그는 병원에 누워서 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랭정하게 평가해보았는데 불행중 다행이라는 격언이 이런 경우에 적중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일이 이렇게 공교로울수가 있는가. 과거를 날날이 백지로 하고 량심을 안고 살아보자던것이 이토록 무자비하게 짓밟힐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그것도 몇해전에 바다건너 이국땅 어느 한 강철로앞에서 벌어졌던것이 이토록 현실적인 사건까지 껴묻어안고 나타나 바투 목을 조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너무나 야속한 운명앞에서 그는 전률하였으며 일체의 리성적인것을 죄다 포기해버리고말았다. 될대로 되라는것이 그가 도달한 총적 결론이였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그의 심정은 평온해지는것이였다.

5

《저는 여기 기사로 있는 원시범이라고 합니다.》

《오! 당신이였군그래.》 오기섭은 손을 잡아흔들며 원시범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평양서 잠간 만난적이 있었지. 거리바닥에서 탁상공론을 하는것보다 이렇게 기름내가 풍기는데서 만나니 얼마나 좋소. 하하하, 반갑소.》

오기섭은 십년가까이나 나이가 우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로동자풍으로 너나들이의 반말투가 더 친근감을 준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방 한복판에 놓인 작업대에는 각종 설계도면이 한벌 널려있었다. 도면이 널린 작업대 한쪽옆에는 밥먹던 그릇을 거두지 못하고 그대로 밀어놓았다.

방안을 두릿두릿 살피고있던 오기섭은 뒤짐을 진채 밥그릇 있는데로 다가가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고생하누만 기사선생! 당신네야 우리와 달라서 이렇게 현장에서 김치만 씹으면서 일을 해야 할 처지가 아닌데.》

그는 한쪽눈을 슬쩍 감으면서 능청스럽게 원시범을 쳐다보았다. 원시범이 게면쩍은 웃음을 짓는것을 보자 오기섭은 다시 《이런 생활에 익숙될수 있을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우리 프로레타리아는 굶지만 않으면 고작이라고 생각하는데말이요. 어쨌거나 감동이 되오. 참고 견딥시다. 우린 당신들을 믿소.》라고 하였다.

의자를 권했지만 거기에는 앉지 않고 오기섭은 창가로 다가가더니 《여보, 기사선생!》 하고 연기가 나지 않는 카바이드굴뚝을 가리키면서 롱담을 하였다. 《당신이 여기 있는데 왜 굴뚝에서는 연기 한고치 볼수 없소? 마치 어느 절당에라도 온것 같군그래.》

《지금 복구공사를 설계하는중입니다.》

원시범은 역시 어색하게 웃어보이며 현재 공장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한쪽 벽에 붙인 공장전경도로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오기섭은 그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 하던 말만 계속하였다.

《방금 우리는 도당에서 이곳 흥남지구 공장실태를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토의를 하고 내려오는중이요.》

《그러면 공장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오기섭은 손을 흔들어 원시범의 말을 중단시켰다.

《여보,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지 않소. 나갑시다.》

일행은 공장구내를 걷게 되였다. 원시범은 앞질러나가면서 생산공정을 하나하나 설명하였다. 그는 현대공업에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또는 여기에 어떤 설비와 공정들이 준비되여있어야 하는데 현 실태는 어떠하고 부족점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요령있고 간결하게 리해시키였다.

염산직장에 이르렀다. 탕크가 무너져 류산이 흘어지고 냄새가 코를 베가는것 같았다.

다음은 소다직장쪽으로 건너갔다. 오기섭은 뜻밖에도 소다생산공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었다. 같이 온 박동무의 귀띔에 의하면 원시범이라는 기사가 와서 다른것은 뒤로 미루고 가성소다만은 인차 생산에 들어갈수 있도록 힘을 넣고있다는것이다.

결국 그것을 통해 원시범은 자기 능력을 시위해볼 속심이 있

는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소다직장의 복구상태는 아직 말이 아니였다. 탕크들을 해체해놓고 부분품이 없어 조립하지 못한채 버려두었으며 여기저기 배관들도 한심하게 이그러진채로 있었다.

《음! 그렇소.》 오기섭은 원시범의 해설을 듣고나서 침울한 낯을 지었다. 《배관이 누더기라! 왜놈들이 만신창을 만들었다. 그럼직하오. 그럴수 있겠지.》

그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졌다. 억지로라도 호의를 가지고 대해보려던 최초의 의도는 자취없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쯤하면 언제 제품을 보게 되오.》

《3개월은 걸립니다. 그것도 련관된 공정들에서 특별한 사고가 없는 조건에서말입니다.》

《3개월! 그것도 조건부라.》

입에 수건을 댄채 말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밖으로 나온 오기섭은 두팔을 쩍 벌리며 원시범을 향해 소리쳤다.

《완전히 페허요. 수라장을 방불케 하오.》

수건으로 입을 막았지만 인차 재채기가 났다. 다음은 카바이드로쪽으로 발길을 돌리였다. 한참동안이나 기침을 하고난 오기섭은 제풀에 화를 내며 그만하자고 하였다.

《이러다간 심장이 멎겠소. 동무들, 보시오. 일제란 바로 이렇소. 자본주의는 이런데서 조선로동자를 부려먹었소. 말그대로 마소와 같이, 그런후에 이 모양으로 파괴하고 도망쳤소. 처참하오. 누가 이렇게 했는가. 어느놈이! 우리는 이 실태를 가지고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야 한단말이요. 다시는 제국주의노예가 되여서는 안된다고말이요. 바로 이렇기때문에 우리는 〈공장은 로동자에게로!〉라는 슬로간을 제기하는거요.》

오기섭은 눈물이 글썽해서 숨을 죽인 공장들을 이슥토록 바라보고있었다. 가슴을 움켜쥔 그는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일제에 대한 증오가 온몸에 굽이쳐흘렀던것이다.

원시범은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드는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누가 이렇게 했는가!》고 웨칠 때 오기섭은 원시범을 쳐다보았는데 그 비수같은 눈길에는 《당신도 여기에 가담했소!》

하는 기색이 력력했다.

《기사선생!》 하고 오기섭은 약간 음울한 시선으로 원시범을 쳐다보면서 물었다. 《언제면 이것을 다 복구해낼수 있소?》

《그건 해봐야 압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완전히 정상조업을 하자면 한 3년 걸릴수 있습니다.》

《뭐요, 3년?》 시선을 곤두세우면서 손을 내흔들었다. 《그건 칠성판에 오른 다음에 약을 주겠다는 소리와 같지 않소. 당신은 프로레타리아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배워야겠소. 고타강령비판에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오. 공산주의는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는 수요에 따라 소비하게 된다고 했소. 그러자면 공업이 고도로 발전해서 물질적부가 폭포처럼 쏟아져야 한다고 했소. 그런데 당신 말대로 하면 언제 머리를 들겠는가. 하늘을 봐야 별을 딸거 아니요.》

원시범은 대답이 없었다. 굳어진 원시범의 표정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랭랭한것이였다. 역시 오기섭은 감각이 예민했기때문에 원시범의 그런 속심을 능히 간파할수 있었다. 평양에서 첫 대면을 했을 때 한껏 비끄아붙였던 원시범의 대답이 얼핏 떠올랐다. 그렇게 되자 온몸에 사품치던 일제에 대한 반감이 원시범에게 쏠리게 되였다. 결국 이런자들이 흥남에서처럼 로를 폭파하는데로까지 미쳐갈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사선생! 잘 들으시오. 우리 프로레타리아는 그렇게 완만한것을 좋아하지 않을거요. 동시에 우리 당도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고. 언젠가 당신이 말한대로 우리는 위를 비워두고 살아가는 방식을 아직 습득하지 못했소.》

참을성을 가지고 온화하게 하는 말이였지만 원시범에게는 대단히 위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원시범은 침묵을 지킬뿐 말이 없었다. 공산당본부의 요직에 있다는 오기섭의 말이고보면 그 배경에는 어떤 보루가 준비되여있겠는가를 알기 어렵지 않은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줄이요?》

《네?》

원시범은 당황하였다. 기습해오는 시선에 질린것이다.

《평양에 있는 최준걸의 줄이 옳지?》

《최준걸의 줄이요?》

원시범은 얼떠름해졌다.

《모르는척하지 마오. 성대를 나온 최준걸을 당신네는 만나지 않았소. 여기 온것두 최준걸의 주선이 있은거구. 하긴 뭐 그자체야 나쁠것이 없지. 그러나 어째서 한결같이 당신네들은 우리 일을 망치려드는가말이요. 철도에 있다는 한 무엇인가 하는 사람두 쓸모가 없구 흥남에 간 강병철이는 더 한심하구. 강선의 양춘만은 오다가 도망치구. 이것들이 과연 우연한 일치겠는가. 가만 보면 원시범 선생두 우리를 곱게 보지 않거든. 당신이 여기 와서 해놓은게 도대체 뭐가 있소. 난 그래두 단 한개 공정이라도 돌아가는것을 보는가 했댔소. 그런데 가슴이 찢긴단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프로레타리아에게는 아직 순진성이 많소. 당신네들같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행수를 바라는것이 있거든. 그러나 일단 그것이 우롱당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면 분노한단말이요. 알겠소? 언제까지나 관용만 가지고 대하지 않아.》

고개를 떨군채 땅바닥만 들여다보고있던 원시범은 등골에서 랭수가 쭉 흐르는것을 감각하였다. 그와 함께 목구멍으로 올리뻗치는 몇마디 말이 있었다. 《정 그렇다면 그만둡시다. 우리는 먹을것이 없거나 누울 자리가 없어 직업을 구하자는것이 아니요. 결국 당신네는 우리를 친일분자의 딱지를 붙여 내몰자는거지요. 아니,내모는것이기는 한데 우리 스스로 물러가는것으로 하자는거지요.》

그러나 그는 혀를 깨물면서 참았다.

원시범이로서는 이때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험구도 견디여낼수 있었다. 그러나 《강병철은 더 한심하구.》라는 표현에 그는 커다란 충격을 일으켰던것이다. 그에게 과연 어떤 일이 생겼단말인가. 강병철은 자기 몸을 부서뜨려서라도 5대공장을 조업해보려고 뛰여다니고있지 않는가.

한편 오기섭은 맥이 빠졌다. 그쯤하면 원시범이 자기 속심을 드러내는 변명이나 반발이 있을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되고보니 인간으로서는 매우 선량해보이기까지 하였다.

《원시범선생！ 피차 정신을 차립시다. 가만보면 당신네는 참말 사람들은 좋은데…》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은 좋은데 그의 계급적 처지와 일제에게 복무한 죄악때문에 어차피 저쪽으로 따라가게 마련이요.》라는 말이 목구멍에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그것은 내뱉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개를 들어 연기가 나지 않는 카바이드로굴뚝을 막연하게 쳐다볼뿐이였다.

(현실은 이렇다. 우리가 지식인을 아무리 귀히 여기고 아량있게 포섭하자고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주는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반대로 그들은 우리 발판을 쏠면서 미소를 짓고 조롱하고있다. 3년… 그것은 우리더러 포기하라는 말이다. 강병철,그도 역시 리연수의 말이 옳을것이다. 여기를 놓고 미루어보건대…)

6

원시범은 백추화를 겨우 얼려내였다. 그리하여 낮차로 평양으로 올려보내고 잠간 공장에 들렀다가 인차 흥남쪽으로 나가는 차를 타기 위해 다시 역으로 나왔다. 백추화의 발걸음을 돌려세우기 위해 그간 원시범은 많은 속을 썩이였다.

백추화가 도착하는 날 원시범은 《왜 왔소？》 하고 물었다.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니 그다음번에는 《내가 곁에 있으면 안돼요？》 하고 반문하더니 후에는 《애정은 거리에 비례한다》고 어느 책에서 읽은것을 내대였다. 원시범은 백추화의 심정에 리해를 보내면서도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생활파도속에 그를 끌어들여 자기 무게를 배로 불구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더구나 오기섭을 만나고 나니 한시바삐 짐을 덜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대양을 건느려던 배는 뭍을 떠나자마자 폭풍우의 징조를 보게 된것이다. 서둘러서 짐을 덜어야 했다. 그는 지금 강병철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이였다. 제낀옷에 밤색잠바를 덧입은 그는 홈을 왔다갔다하면서 강병철이

행처를 여러모로 생각해보았다.

비료공장 기술연구과에 전화를 걸면 본궁화학이 아니면 제련소에 나가있을것이라고 하였고 제련소에 전화를 하면 무뚝뚝한 공장장이 그런 사람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쓰겁게 대답하였다. 틀림없이 무슨 연고가 있는것 같았다. 원시범은 층계에 올라 사람들 틈에 끼워섰다. 차창에 얼굴을 내대고 이제 만나게 될 강병철에 대해서 줄곧 생각하였다. 그가 알고있는 강병철은 전기와 강철에 미친 사람으로서 너무 고지식하고 림기응변이 없는 말그대로 《말뚝》같은 인간이였다. 때문에 그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서 키를 잡아주거나 간섭을 해서야 약간씩 좌우에 주의를 돌리게 되는 일면적인 결함을 갖고있었다. 원시범이 지금 가고있는 이 걸음도 《강병철은 더 한심하구》를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특히는 며칠사이에 본궁에서 자기가 체험하고있는 시답지 않은, 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현실을 놓고 의논도 해보아야 하였다.

돌이켜보면 얼마전에 강병철과 헤여진후 원시범은 동시에 두개의 고민거리를 안게 되였었다. 첫째는 공장의 설비상태가 한심하다 할 정도로 파괴되고 공칭수명이 초과된것이며 따라서 조업을 시작한다 해도 사고만 련발하고 생산을 정상적으로 해낼수 없는것이였다. 둘째로는 백추화가 나타나 이제는 운명을 같이하자고 떼를 쓰는것이였다. 그런대로 원시범은 이 두개의 골치거리를 부둥켜안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였다. 매일 공장에서 밥을 날라다먹으면서 설비복구사업에 열중하였다. 강병철이와 토론한것도 있어서 조업이 가능한 공정부터 먼저 돌려가면서 점차 전반적 공정이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공장의 기술상태는 예상했던것보다 더 막연하였다. 특히는 염산계통의 배관들이 거의나 성한데가 없이 구멍이 뚫어졌거나 이제 곧 뚫어질 상태에 있었다. 카바이드계통은 더 한심하였다. 전쟁기간에 한번도 보수작업을 하지 않은 후과였다. 이미 패망을 예견한 기업주는 일전 한푼 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만 강행적으로 내밀었던것이다. 원시범은 곧 기술조사대를 무어가지고 실태를 료해하는 한편 급한 공정부터 수리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럭

저럭 복구작업이 진척되고있는데 어제 문득 오기섭이 나타나 원시범의 가슴을 휘저어놓은것이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오기섭의 인상을 되새겨보았다. 매우 세련되고 원칙적이며 견결한것 같긴한데 총체적인 인상은 회의적인 느낌밖에 자아내는것이 없었다. 원시범은 목덜미에 달라붙은 징그러운것을 털어버리듯 몸서리를 치고나서 차창에서 고개를 돌리였다.

흥남지구인민공장 사무실에 찾아들어가니 강병철은 며칠째 특수합금강을 생산하는 제련소에 나가 붙어있다고 하였다.

그는 합금로직장으로 찾아들어갔다.

페허처럼 스산하고 고요하였다. 당직자령감의 불평조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무척 좋은것 같은데 그 속심이 고약해서 자기 신세를 제손으로 망치고있다고 하였다.

《귀통을 쳐도 정신이 들지 않는 바보요.》

하고 최한덕은 어느 하나도 불을 지피는데가 없는 로들을 서글픈 눈으로 쳐다보면서 정 만나고싶으면 공장울타리밖에 있는 보안서에 가보라고 하였다. 청천벽력이였다. 강병철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원시범은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짚어 마침내 보안서에 찾아들어갔다.

몇분후에 강병철이 보안서원의 안내로 원시범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강병철은 몰라보리만큼 수척해졌고 벽을 짚고야 겨우 발을 옮겨놓는 형편이였다. 서로 놀랍게 마주볼뿐 손도 마주잡지 못한다.

《서로 친한 사이같은데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시오.》 하고나서 보안서원은 방에서 나갔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원시범이 처량한 목소리로 첫마디를 떼였다.

《왜 뭐가 어쨌는가? 난 뭐 그저 그렇네. 보는바와 같이 운명은 정확하게 제 궤도를 굴러가고있는거니까.》

순간 원시범의 가슴속에서는 피가 뿌지지 끓어올랐다. 너무나 태연해하는것이 더 가슴을 죄였다. 이런 경우에는 땅이 꺼지게 한탄이나 후회를 하든지 그 누구를 저주하면서 눈물이라도 보여야 하

는것이 아닌가. 8.15후 이날까지 줄곧 내 나라의 공업을 일궈세우는데 한몫 끼워보았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던 불덩이같은 소망은 어데로 가고 지금 이런 못난 꼴이 되였단말인가.

《그래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네.》

《야하다에서 했다는것도 사실이구?》

《물론 사실이네.》

《그렇다면 자넨 어떤 인간인가?》

《어떤 인간인가구? 그거야 자네가 보고있는 바로 그런거지 다른것이 또 있는가?》

너무나 신중하고 운명적인것이 그렇게도 헐하게 사색을 거치지 않고 훌훌 던져지는데는 아연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당직령감이 말하던 바보가 아니면 극악한 반동일것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여직 어떤 강병철을 보아왔고 서로 친우로 사귀여왔는가. 38선,운명의 갈림길이라고 할수 있는 지점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북쪽으로 첫걸음을 내뗄 때 그것이 진심이 아니였단말인가. 순박하고 고집이 있고 한번 결심하면 그것을 꺾거나 휘여낼수 없던 그 지조,그것들은 모두 어떤 처세술에 의해 위장된것이였던가. 오만가지 의문이 원시범의 뇌리에 떠돌아치면서 사람을 미쳐나게 할 지경으로 휘둘러놓았다. 걸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강병철에게 묻고싶은것이 하도 많아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담배만 게걸스럽게 빨고있는 강병철은 그 모든것을 알려고 하지도 말며 알 필요도 없다는 기분으로 완전히 체념에 빠져있었다.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강병철은 과연 어떤 인간인가 생각해봤나?》

《생각? 강병철이 어떤 인간인가. 그건 알아 뭘하나. 모두다 운명의 섭리에 의해 처리될것인데.》

담배를 석대째 붙여물고 창밖을 망연하게 내다보고있던 강병철의 눈굽에서 송진같이 진득한 눈물이 솟아올랐다.

그는 이 보안서에 닷새동안 갇혀있으면서 자기 한생을 수십번 더듬어보았다. 죄악도 있었고 선한것도 있었다. 인간이 가질수

있는, 인간이 저지를수 있는 온갖것을 다 체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것이 허무하고 부질없는것이였다.

인간의 불행은 자기 앞날을 한치도 내다볼수 없는것이며 특히는 희망을 못가졌거나 잃어버린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처참하고 절망적인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기의 정신적 지탱점을 못가지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다. 이제 와보면 그는 여직 그것이 없었다. 지탱점이 없이 살려고 무모하게 허덕인 자기를 비로소 이때에 발견했던것이다. 이렇게 되자 마치 그는 줄이 끊어진 연처럼 허허공간에 떠서 너풀거리는 자기자신을 볼수 있었고 무엇으로써도 그 운명을 구원해낼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때문에 그는 사리를 캐고 진실을 밝히기전에 우선 이 리성의 공간을 메워낼 재간이 없었다. 그래 모든것을 포기하고 체념해버리고말았었다.

《시범이! 날 찾아준건 참말 감사하네. 매우 반갑네. 이런 때 만나다니. 그러나 후날에 가서 이 상봉이 더 추억에 남을수 있을지도 몰라. 부탁이 있네. 뭐냐하면 나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라는거네. 이제 모든것이 순조롭게 될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곳 일은 어떤가. 앞이 좀 내다보이나?》

이렇게 되자 원시범의 팽팽해졌던 감정도 어느 정도 누그러져서 천연히 대화를 하게 되였다.

《앞이 보이는가구? 바늘구멍만한것이 보인다고나 할가.》

강병철은 덕지가 앉은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면서 담배끝에서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있다. 그러다가 그는 고개를 들더니 우정 이마주름을 펴면서 쳐다본다.

《다행이구만. 그래도 앞이 보인다는것이 얼마나 좋은가. 든든히 붙잡게.》

《난 자네를 보면서 지금 나의 래일을 보는것 같네. 지내 비관한다고 할테지만 감정은 그렇게 호소하고있네. 자네가 평양본정에서 장군님을 만나뵙고 토론했다는 그 내용이 이러루한것이였다고 한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해명할 방도는 없겠는가.》

강병철은 흠칫 몸을 일으키며 낯을 다시 찡그리였다. 아픈데를 헤집는것 같은 고통이 있는 모양이다.

《자네 참 기억력도 좋구만.》 그러고는 어이없이 웃고있다. 그러나 원시범의 가슴에서는 성에가 녹을만한 온기마저 느낄수 없었다. 강병철은 안경을 벗어 탁자우에 놓고나서 침착하게 자기 론거를 세웠다.

《해명할수가 있네. 그때 내가 그에 대해서 물었댔으니까. 실컷 써먹다가 앞으로 무슨 언질을 걸어 지식인을 숙청하지 않겠는가고 말이지. 한데 시범이! 내 말 좀 들어보라구. 그때 그것은 옳은 것이였고 사실상 나는 거기서 힘을 얻었댔네. 내가 장군님한테 매혹되였고 힘을 얻어 여기로 뛰여온걸 자네도 알지 않나. 하지만 그것은 아득히 올려다보이는 리론이고 현실은 눈앞에서 벌어지네. 모든것을 건건마다 그렇게 송사하고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수가 있겠나. 솔직히 말하면 야하다에서 나의 행위는 권력앞에서 굴종한 것이였네. 그러면서도 나는 량심을 간직하고있었네. 조선사람이기때문에 그런 굴욕을 당해야 했단말일세. 그래 나는 죽으면 같이 죽자고 나섰던것이네. 내 이 잔등에 난 상처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네. 그러나 내가 왜 왜놈들에게 항거하고 목숨을 빼앗길지언정 거부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나의 죄악일세. 난 그렇게는 못했어. 난 혁명가가 아니였고 순전히 일본놈들이 써먹기에 안성맞춤한 기술자였으니까. 그런데 이것보라구.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네. 이번에는 권력에 순종한것이 아니라 나의 량심과 의무에 순종한 것이네. 그렇기때문에 눈물이 나는거야. 내 심정을 알만한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것 같아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뒤를 이어대지 않았다.

《그런걸 왜 기탄없이 말하지 않는가!》

원시범은 우들우들 몸을 떨며 항의해나선다.

《시범이, 그건 더 못할 일이야. 량심을 받아주지 않는 운명, 그것에 항의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또 오늘은 그렇게 해명을 한다쳐도 앞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과학은 단 한번밖에 로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담보하지 않는것이 아닌가. 때문에 나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 어떤 오해나 몰리해를 설명하고도싶지 않네. 오직 내가 갈 길은 운명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어. 나는 믿을데

가 없으니까. 생을 어디에 의존하는가말일세.》

원시범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마치 몽유병환자처럼 모든것이 불명료하고 환각속에 있는듯싶었다. 그러면서 가슴 한구석에 차디찬 얼음덩이가 자리잡는것을 의식하였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하였고 락관적으로 보았던것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이제 강병철은 부유한 가정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유한 가정 그것이 친일적 행동과 쉽사리 융합되고 련결시켜낼수 있을것이며 그로 해서 《오. 케. 에스》가 말한것처럼 프로레타리아의 무자비한 처리가 뒤따를것이다. 결국 강병철은 내앞에서마저 이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 지금 저렇게 운명에 대한 순종이요 뭐요 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자기자신과 나를 속이고있는것이다. 이렇게까지 사색이 뻗어나가자 원시범은 더욱더 절박하게 목전의 사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게 되였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실망하지 않았다. 이제 급히 평양에 올라가 최준걸을 만나 실태를 알려주고 또 그들을 통해서 김책을 만날것이다. 그러면 해결될 길이 전혀 없지는 않을것이다.

《걱정 말게. 우리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거듭 말하지만 우선 첫째로는 사건에 대한 기술적 해명을 하면 자네한테 그닥 큰 죄가 없다는것을 쉽게 알수 있단말일세. 야하다의 폭발도 그렇고 이번의 폭발도 큰 문제는 없을건 뻔하네. 그다음 또 하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구차하게 직업의 노예가 되지 않고도 살아갈만한 수단이 있다는거네. 무엇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강철이요 비료요 건국이요 하고 들떠 돌아가겠나. 백추화가 말한것처럼 일단 좀 물러나앉았다가 차츰 정세를 봐가며 행동할수도 있잖은가. 그리구 자네 거 내보기에는 지내 고민하는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겠네. 건강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여기 온것이 뭐 먹을것이 없거나 갈데가 없어 온게 아니지 않나. 무엇때문에 우리가 일변도로만 나가겠나. 지금은 〈말뚝〉이 아니라 바다에 뜬 배란말일세. 임의의 항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배말이네. 세상에야 목적에 도달하는 길이 하나뿐인가. 열갈래 백갈래 얼마든지 있지.》

태연하게 듣고만있던 강병철이 홱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눈에서는 푸른 불이 번쩍하였다. 이쪽에서는 운명을 걸고 심각해있는데 너무나 소홀하게 대하기때문에 분격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내 이제 끝까지 해명하겠네. 자네한테 죄가 없다는것을 반드시 증명하고야말겠네!》

《그만둬. 난 누구의 도움이 필요없어!》

원시범은 그 길로 합숙에서 가방을 가져다준 다음 공장자치위원회 사무실로 찾아갔다. 평양에서 왔다는 파견원을 만나자면 한참동안 기다려야 하였다. 그는 마당 한켠에 무져놓은 벽돌장을 깔고앉아 담배를 피웠다. 연기가 뿌옇게 떠가고있는 벗나무사이로 몇해전까지 희망에 한껏 부풀어 나들던 교또대학 정문이 우렷이 떠올랐다. 고색이 창연한 옛일본의 수도중심인데 왼쪽에 치우쳤다고 해서 좌경구라고 부르는 거리에 대학이 자리잡고있었다. 벗나무와 참대,소나무와 동백이 온 거리를 둘러싼 이 거리가 원시범의 희망을 끝없이 키워주었다. 여기서 세계최초의 합성섬유가 조선사람에 의해 발명되였다. 앞으로는 역시 화학의 시대가 도래할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는 전쟁이 아니였던들 하바트대학에 갔을것이였다. 거기서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고도도약을 할 결심이였다. 서울에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 포목상으로부터 염료염색계통으로 투자를 전환시켰으며 온 가문이 원시범을 지켜보게 되였을 때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졌다. 앞길에 장벽이 가로막히고 희망이 동강이 나자 그는 당분간 집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재출발을 하자던것인데 어느새 4～5년세월이 휘딱 지나가 광복이 되고 이제는 소다요 카바이드요 하는 화학제품을 내쏘는 배출구를 지켜보는 직업인이 되고만것이다. 그거나마 혼란된 정세속에서 주패장을 내대는것과 같은 운명 도박을 하게 된것이였다.

원시범은 이런 식으로 보라빛후광에 조명되였던 지난날과 파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물결을 타고 올라선 지금의 처지를 대조하면서 담배 한갑을 다 태웠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기섭이와 파견원이 흥분된 얼굴로 들어오는 앞길을 막아서며 겸손하게 우선 머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부터 하였다.

제 7 장

1

세면장에서 손수 면도를 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수건으로 턱과 볼을 문대시면서 집무실로 나오시였다. 전화기를 당겨놓고 두세번 송수화기를 들어올리시였지만 평양철도국장과 통화를 해내실수 없었다. 교환이 잘 나오지 않는데다가 어찌다 한번 걸린것마저 국장실이 비여있는것 같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김책은 어데로 갔는가?)

시간이 넘은지 오랜데 소식이 없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집무실에서 나오시여 좌현의 방문을 열어보시였다. 좌현이도 없었다. 책상우에 모자가 있는것을 보면 금방 자리를 비운것이 분명하였다.

그이께서는 아래층 식당칸으로 내려가시였다. 역시 식당도 텅 비여있었다. 그이께서는 현관을 거쳐서 마당으로 나오시였다. 그때마침 좌현이가 급히 대문안에 들어서는중인데 그의 손에는 물바께쯔가 들려있었다. 뒤이어 운전사 방동무도 량쪽에 하나씩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뽐프가 고장나서 자동차방열통에 넣을 물을 옆집에 가서 길어오는중이라고 하였다.

《역으로 갑시다.》

그이께서 서두르시자 좌현이 바께쯔를 놓고 돌아서며 물었다.

《김책동지를 만나자는것이 아니십니까?》

《그렇소.》

《저기 옵니다. 막 달리다싶이 급히 옵니다. 차가 고장난것 같습니다.》

그때 김책이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온 얼굴에 땀이 흠뻑 내배였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김책은 중절모를 벗어들며 《사정이 있어서.》 하고 뒤말을 이으려고 하였다.

《올라갑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을 앞세우고 현관안으로 들어가시였다. 집무실에 이르신 그이께서는 김책을 의자에 앉힌 다음 자신께서는 그옆 쪽걸상에 나란히 앉으시였다.

김책은 서둘러 평양철도공장에 나갔던 보고를 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자 그이께서는 담배갑을 밀어주시면서 박원식을 불러 함께 마주앉는것이 어떤가고 물으시였다. 처음에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인차 김책은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고 동의하였다.

그이께서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실태료해가 1시간이나 늦어졌다는 그자체가 벌써 사태의 복잡성과 긴장성을 말해주는것이기때문에 여러 단계를 걸칠 필요가 없이 박원식으로부터 직접 들어보아야겠다고 결심하신것이였다. 김책은 앞방으로 건너가 좌현에게 철도공장에 갔다오도록 지시를 주고 돌아들어왔다.

《그럼 먼저 김책동무가 료해한것부터 들읍시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약간 초조해하는듯한 김책의 얼굴을 쳐다보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니까 박원식동무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매우 어렵게 되였습니다. 시작은 철도공장이였는데 이제는 그 범위를 벗어나서 철도기관구에까지 파급되였고 그것이 이제는 보선구, 전기구, 역종업원에게까지 미쳐갔습니다.》

《역시 그렇구만.》

그이께서는 김책에게 나가보라고 하셨을 때 철도는 모든 공정이 련쇄되여있기때문에 사건이 인차 련관된 단위에 파급될것이며 동시에 산하 각 역들에까지 영향이 미쳐갈것이라고 예견하시였던것이다.

《사건은 점차 더 확대될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오전에 떠나야 했던 3개의 렬차가 다 떠나지 못했습니다.》

《3개의 렬차가 떠나지 못했다면 그건 철도에서 하나의 혼란입니다. 징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침울한 안색으로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진회색하늘이 낮게 드리워 당장 눈이라도 내릴것 같았다. 언제나 락관적이신 그이께서 이런 정도의 우려를 표시한다는것은 매우 드문 일이였다.

김책은 자기 판단으로도 사태의 진전이 매우 심상치 않다고 보았지만 그이께서 안색을 달리하시는것을 보게 되자 한결 더 신경이 팽팽해졌다. 철도사건 그자체도 그렇지만 며칠전에 흥남에서 로가 폭파되였고 뒤이어 련달아 그러루한 사건들이 일어나고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좋지 못하였다.

박원식에게서 전화를 받고 김책이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했던 평양철도공장사건이란 대체로 다음과 같은것이다.

이틀전 아침 박원식이 국장방에 찾아가 쌀방통을 시급히 빼낼 토론을 하고있는데 현관쪽에서 왁작 떠드는 소리가 났다. 박원식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수십명군중이 현관앞에서 왝왝 소리를 지르며 고아대였다.

《쌀을 내라!》

《철도국장 나오라!》

《왜놈의 앞잡이 한명구 나오라.》

얼핏 보건대 몰려온 군중은 태반이 철도공장 로동자들이였다.

그들은 현관안에 들어서지는 않고 밖에서 으르기만 하였다.

《한명구, 너 일은 시키고 왜 석달이 되도록 돈 한푼, 쌀 한되 안주니.》

중년나이가 된 로동자가 자기네들이 몰려온 까닭을 밝히려들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결패사납게 생긴 청년이 군중들의 기세를 압도하며 웨쳐대였다.

《너 철도관사에 있는 왜놈 피난민들한테는 배급을 줬다는데 우린 왜 안주니. 너 일본가서 공부할 때 그놈들의 개가 됐지. 당장 쌀을 내라.》

이렇게 한마디씩 하자 쌀을 타러 가자는바람에 자루를 들고 나섰던 군중들이 한층 더 기세를 올렸다. 서로 악다구니질을 하고 된욕을 퍼부었다. 오고가던 사람들이 모여들고 역대합실에서 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와야 몰려왔다. 박원식은 창문턱에 성큼 올라서서 군중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여러분! 흩어지시오. 공장에 돌아가시오. 거기 가서 이야기합시다.》
두주먹을 흔들며 애타게 부르짖건만 누구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국장을 내보내라!》
《쌀을 줘야 우리는 간다.》
《석달동안 쌀도 돈도 안주고 우릴 속였지. 쌀 안주면 일 안한다.》
우들우들 떨면서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한명구가 박원식에게 애원하듯 소리쳤다.
《박동무! 이러단 큰일나겠소. 뒤문으로 먼저 빠지오.》
《국장동문 여기 가만있으시오. 내가 저 사람들을 설복하겠소.》
문짝 부서지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이 쩍 열리며 네댓명의 청년이 욱 밀려들었다.
《여기 있었구나. 한명구! 어서 나와서 대답해라. 쌀을 주겠니 못주겠니.》
그들은 당장 무슨 일을 낼것처럼 을러메였다. 그러나 팔을 쩍 벌리고 막아선 박원식의 기세에 압도된 그자들은 감히 폭행은 못하고 악다구니질만 하였다.
《응! 너 공산당이지. 쌀 내놔라. 쌀을 내놓지 않으면 허리를 분질러놓겠다. 왜놈들도 쌀배급은 주고 우리를 부려먹었다. 렴치있니 이자식. 공산당 너희들이 지금 쌀장사를 하고있지. 가만 보문 뭐나 다 너희 공산당의 작간이란말이다.》
《여러분!》 박원식은 팔을 들어 흔들며 웨치였다. 《우리가 쌀이 있는것을 안주는것이 아니요. 그리구 쌀 못주는것이 철도국장이나 공산당에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요. 이것은 건국도상에 있을수 있는 난관이요. 우리는 이 난관을 이겨내야 하오.》
《야 야, 건국두 먹어야 할거 아니냐. 굶어죽는 건국 우리는 싫다. 그런 건국은 공산당 너희들이나 실컷 해라.》
단야공 송순호였다.
《돌아가오. 여기는 쌀이 없소!》
박원식이 단호하게 내대였다.

《그럼 무슨 렴치루 일은 시켜, 엉? 화차방통에 있는 쌀은 누구거지? 너희만 먹겠니.》

송순호가 박원식의 목덜미를 움켜잡으며 다과대였다. 저편의 팔을 물리치려는데 한쪽옆에 서있던자가 박원식의 가슴을 내질렀다. 불의에 타격을 받은 박원식은 앞으로 푹 고꾸라졌다.

그때 한명구가 소리쳤다.

《박동무! 권총은 뒀다 뭣에 쓰자는거요. 갈기오, 갈기라구.》

그자들은 권총이야기가 나오자 흠칫 뒤로 물러서서 감히 다시 덤벼들지 못하였다.

이 사건이 철도기관구에도 알려지게 되였다. 철도공장에서 쌀을 내라고 몰려갔는데 우리도 합세해서 들이대자고 하였다. 광복바람으로 언제나 흥분되기 쉬웠던 그들의 가슴에는 단번에 확 불이 달리였다. 한두명이 가자고 선동하자 온 기관구가 삽시간에 떨쳐나섰다. 기관차를 수리하던데서도 나왔고 탄수부들도 떨쳐나섰다. 기관차대가리에 가득 올라타고 역사앞까지 몰고와서는 기적을 빽빽 울리며 소란을 피웠다. 기관구패들은 새까만 작업복앞자락을 헤치고 철도국청사쪽으로 몰려갔다. 이미 있던 군중과 합세한 그들은 기세를 올리며 층계로 달려올라갔다. 그때 총소리가 몇방 울리였다. 보안서원들이 질서를 유지하러 나왔다가 철도공장 로동자들한테 붙잡혀 매를 맞게 되자 허공에 대고 공포를 쏜것이였다. 군중들이 와— 흩어져갔다. 그 광경을 창문으로 내다본 악당들이 밖으로 내뛰였다. 박원식은 그들을 불러세워 끝까지 설복하려고 하였지만 허사였다. 쌀사건은 이것으로 일단 또 한고비 넘기였다. 이제 일이 어떻게 번져지게 되겠는지는 두고 보아야 하였다.

2

민기환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예정했던대로 일이 척척 진척되여 가는것이다. 기분이 상쾌할 때면 늘 그런것처럼 피둥피둥하고

멀쑥한 목을 뒤로 젖히고 로이터안경을 거쳐 먼데를 바라보면서 제법 무릎에다 손가락장단까지 치고있었다. 황금정에 있는 고급려관 맨서쪽 으슥한 칸에 자리잡은 그는 벌써 며칠째 방안에 들어박혀 관계자들을 하나하나 불러들이고있었다. 서울에 있을 때면 종로 번화가의 이름있는 려관 고급방에 들어 이따금씩 룡산에 있는 철도공장에 나갔다오군하였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울과 달리 여기 평양에서는 괜히 밖으로 드나들다가 정체가 탄로날수도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벌써 석달어간에 서울과 평양을 네탕이나 오갔던것이다.

《흥! 조만식목사도 조련치는 않은걸…》 하고 그는 입가에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방금 평남도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이란 와드드한 직명을 가진 조만식을 복도에서 바래고 들어왔던것이다. 민기환이 학생시절에 정주오산중학에 입학하니 조만식이 그곳 교장직에 있었다. 계보를 따지면 깍듯이 스승으로 모셔야 할 대상이지만 때가 때니만치 그리고 관계가 관계니만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그였다. 조만식은 민기환을 만나기 위해 부러 남포에서 올라온 상공인대표를 여기에 숙박시키고 그를 방문한다는 구실을 대서 찾아왔었다. 술상을 마주하고 앉은 자리에서 조만식은 《민군!》 했다가 《아니 민선생!》 하고 고쳐 부르고나서 동방례의지국인 조선은 장성한 자식한테도 하대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달고 그간 서울소식을 듣자고 청하였다. 민기환은 될수록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치계, 실업계, 종교계의 동향을 자세히 설명하고나서 《그쪽에서는》 하는 식으로 미군의 모 계통을 분명히 념두에 두고 은어를 쓰면서 조만식에게 요구하는것을 전달하였다.

한마디로 집약하면 알맹이는 공산당세력을 압도하는것인데 목적을 달성하는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단호한 권고였다.

이러한 전제밑에 그 내용이 여러갈래로 뻗어있었다. 민기환이 직접 담당한것은 북조선에 있는 이름있는 지식인들을 남조선으로 끌어가는것이였다. 그의 첫째 대상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안동권이였다.

민기환이 안동권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매우 도고하고 내성적이여서 속심을 잘 알수 없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서울로 가

겠다는것을 보면 지향이 확고하여 별일없는것으로 보이였다. 서울에 가기만 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옴짝 못하게 묶어놓을 자신이 있었다. 다음에는 강선의 양춘만인데 그는 나이 젊다보니 행동반경이 크고 종잡을수 없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끌고나가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여기에 박아둘수도 있는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한명구는 없애치워야 할 대상이라는것이 명백하다. 공산당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있고 철도에 자리잡고있기때문에 영향력이 크다. 때문에 이번에 몇명 내세워 기회를 만들어 없애치우자는것이다.

한명구를 없애치우는 방법은 군중의 불만을 리용하는것이 제일 좋다. 현재 철도에서는 로임도 식량도 제대로 주지 못해 일부 로동자들이 직장에 나오지 않고있으며 불만을 터뜨리고있다. 이 기름가마에 성냥가치를 던지기만 하면 불이 확 달릴것이다. 그러면 한명구는 하는수 없이 제풀에 물러나게 된다. 그렇게만 되면 공산당에 대한 비난도 크게 퍼뜨릴수 있다. 공산당에서는 지식인을 리용하다가 수틀리면 제꺽 떼치운다고 여론을 돌리면 꿩먹고알먹는식으로 되는것이다. 때문에 철도에다가 판을 크게 벌려야 한다.

이밖에도 흥남에 가있는 강병철이와 원시범이 있고 원산에도 한두 대상이 있는데 그도 놓치지 말고 제때에 공작을 들이대야 한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현재 중요대상은 한명구를 꺾는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아직 평양시내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숨어있는 과학자들, 작가, 예술인들도 공산당을 반대해서 일어나게 하는것이다.

《이것이 곧 공산당을 누르는 방도의 하나올시다.》 하고 민기환의 설명이 끝나자 《알만하오.》 하고 조만식은 떨리는 손으로 토목조끼주머니에 내리드리운 회중시계줄을 만지면서 《하지만 나로서야 방법이 있나요. 민선생이 다 처리해야지. 그런데 하나 귀띔할것은 공산당에서는 지식인들을 세차게 끌어당기고있소. 알만해요. 난 오늘 저녁 해락관연회에 나가야 하니까.》 하였다.

《공산당에서 당긴다면 김책이나 오기섭이지요? 최준걸이같은건 우리가 한수 쓰기만 하면 자기네가 밀쳐버릴 대상이구.》

《그쯤 알구 선처하시오.》

민기환은 장대한 몸에 우정 무게를 싣기 위해 상체를 제끼면서

《이제 다 잘되겠지요.》 하고 더이상 묻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조만식이와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다. 다음은 서선전기회사체육단 《집게다리》를 만날 차례였다. 《집게다리》는 축구팀 주장으로서 완력에서는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는 장사이면서 맹목성에 있어서도 그는 야수적인 특이성을 가지고있었다. 마치 태엽장치를 한 인형처럼 무분별하였다. 그를 요행 철도공장에 박아넣을수 있었으니 이제는 결심을 가지고 내밀면 될것이였다.
민기환은 가슴속에 새겨둔 몇개의 안에 하나씩 점을 찍어가며 따져보았다.
《집게다리》를 리용해서 한명구를 없애든지 옴짝 못하게 눌러야 하였다.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순탄하게 사건이 번져가고있다. 철도공장에서 쌀소동을 일으켜 그 화가 한명구에게 그리고 그것을 거쳐서 공산당에 쏠리게 한것은 참말 천재적인 발견이라고 할수 있었다. 역시 미국인의 머리는 우리보다 머리 한기장만큼 크다는 말이 옳다. 《그쪽에서》는 쌀을 내라고 소동을 일으키는것은 마치 로씨야 프로레타리아가 동궁을 향해 몰려가면서 웨치던 구호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렇다 한들 상관이 무엇인가. 공산당을 골탕먹이는데 공산당의 방법도 필요하다면 써야 한다.
민기환은 옆방에 가서 수하인물 문가를 불러왔다. 키가 작고 오돌차게 생겼는데 민기환이 꼭지만 떼면 즉석에서 두수 세수 안을 써놓는 모사이다. 민기환은 무엇을 하든 세밀한 타산을 앞세우면서 동시에 자기 위신과 권위를 고려하였다. 미군정장관을 대상하는 그 격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고 보는것이다. 조만식은 인물이 크니까 직접 상대하지만 이제부터의 인물은 모두 문가가 대상하기로 하였다.
문기척소리도 없이 《집게다리》가 나타났다. 6척장신이 찌글써하고 문안에 들어선다. 그는 광복전에 류정에 있는 서선전기회사 축구팀 주장이였는데 요새는 철도공장 목공반에서 일하고있었다.
《앉으라!》
문가는 명령조였다. 진작부터 옴짝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어쩔 작정인가? 집게.》
흑안경을 낀 문가가 발은 목을 뽑아올려 위풍을 보이며 곱지 않

은 시선으로 노려본다.

《거사는 이제부터지요.》

《그렇기는 한데 그걸 어떻게 성취하자는가말이다.》

입을 싸쥐면서 민기환은 고개를 돌리였다. 모주냄새가 물컥물컥 풍겨서 코를 들수 없는것이다.

《멀쩡한 정신으로는 견디기 바쁘거던요.》

《심정은 알만해. 국장실 습격까지는 비슷하게 되였는데 이제 해락관연회에서 모두 삶은 호박처럼 되지 않을가?》

문가는 계속 곱지 않은 말로 위엄을 뽑고있다.

《웬걸요. 지금 눈이 똑바로 박힌 조선사람치고 공산당 좋다는게 있는줄 아시오. 공산당을 쳐라 하면 모두 들고일어날 판입죠.》

《경적필패란 말이 있어. 그래 집게, 이제 해락관에서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민기환은 상아물부리를 입귀에 거느즉이 걸어놓고 우정 지켜보고만 있다.

《어떻게 할기 있는가요. 먹을것은 실컷 먹고 제 볼장을 보는거지요. 한 50명 우리 패를 끌고갔다가 케를 보아 공산당에 대한 불만을 터치고 그다음에는 공산당본부에 몰려갑니다. 그래서는 쌀을 내라고 웨치지요. 나는 그런 정도밖에 모릅니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슬슬 번져지겠는지 그건 알수 없잖나.》

문가는 역시 용이주도하게 타진한다.

《리치야 뻔하지요. 슬슬 몰고나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면 냅다 달려 빽선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후에는 어느놈의 발에 맞던지 십중팔구는 꼴문에 들어가기마련입니다.》

《하하하.》

문가는 앙상한 어깨를 흔들며 웃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배포가 유한것이 마음에 걸려 좀 긴장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거사》를 시합에 비기는 그것이 좋지 않았던것이다.

《여! 집게, 상대가 다름아닌 공산당이라는걸 알아야 돼. 공산당은 세계 륙분의 일에 정권을 세우고 이제는 이분의 일을 차지할 심보란말야.》

《어쨌거나 길고짧은건 시합을 해봐야 압니다.》
《공산당 맨꼭대기에는 **김일성**장군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거짓말입니다.》《집게다리》는 취기가 차츰 더 번져 뻘겋게 된 얼굴을 흔들며 단호히 부정하였다. 《**김일성**장군은 나와 같은 평안도 태생입니다. 우리 평안도내기는 공산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절대루! 개선연설을 보시오.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 티끌만치나 있는가. 내 말이 안믿어지나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찌겠는가?》
문가는 민기환에게서 공산주의자가 틀림없다는 말을 들었기때문에 확신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고 《집게다리》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난 퇴장입니다. 부정선수니까요.》
《뭣이 어째?》
문가는 표독한 눈으로 쏘아보면서 겨드랑밑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 손이 나오기만 하면 가슴에 구멍을 내는것이 나온다는것을 《집게다리》는 잘 알고있었다.
《알겠수다, 알겠어요.》《집게다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 문가의 팔을 붙잡고 애원하였다. 《어찌는가 보느라고 한 소리인데 량해하라요.》
문가는 눈 한번 깜박 안하고 몇분동안 퍼렇게 이문것 같은 《집게다리》의 얼굴을 쳐다보고있다가 천천히 손을 뽑았다.
《똑똑》 문기척소리가 났다. 그때까지도 곁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부하들이 노는꼴만 말없이 지켜보고있던 민기환은 긴장한 빛을 띠우고 문쪽에 시선을 돌렸다.
《누구야?》 하고 문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접니다.》 하는 귀익은 목소리가 들리였다. 그는 다시 아래목에 급히 가앉으며 《문선이냐?》 하고 묻자 문밖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철도정모에 독구리샤쯔를 받쳐입은 방문선이 들어섰다. 스물

댓되나마나한 패기만만한 청년이다.

《앉으라.》

청년은 선생앞에 선 학생처럼 고분고분하였다. 무릎을 꿇고 정좌해 앉더니 량손을 각각 무릎우에 올려놓고 고개를 든다.

《네가 오늘 거사에서 뭣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문가는 우정 눈섭을 맞갖잖게 치켜올리면서 씹어밸듯이 한마디 던지였다.

《알고있습니다.》

《뭘 아는가? 안다는게 뭔가말이다.》

창문밖을 내다보면서 다궂는다. 얼혼이 나간 방문선은 목을 차츰 움츠리면서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있다가 겨우 대답을 하였다.

《해락관에서 술을 먹다가 소동이 벌어지게 되면 공산당우두머리를 쏘는것입니다. 거기 나타난 우두머리면 아무나 상관없지요?》

《그렇다. 미상불 김용범이가 틀림없을거다. 그게 아니면 오기섭이나 김책일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놓치지 말아야 할건 박원식이다. 강선이요 서울이요 또 어데요 하면서 우리 앞길을 간데마다 막아서는놈이 그놈이야. 그놈만 제끼면 한명구는 뿌리가 끊긴 나무와 같다. 집게, 알겠는가. 어데다 꿀을 넣어야 하겠는지.》

《똑똑히 알았습니다.》

《됐다!》

민기환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었다. 《집게다리》가 우정 중을 뜨기 위해 그랬는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실수를 한것인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매우 위태위태한 느낌을 주었다. 그래 그는 방문선에게 속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되였다.

《네가 혹시 공산당을 쏘라는 그걸로 이 민기환이라도 쏠 생각을 하고있는거 안야?》

《네?!》

방문선은 흠칫 놀라면서 좌우를 두릿두릿 살피였다. 말을 해놓고도 민기환은 곧 후회하였다. 그래 재빨리 기분을 돌리였다.

《그건 롱말이구.》

《아무리 룡이라도 그런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목이 조여드는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지 방문선은 독구리샤쯔 목깃을 잡아당겨놓고 고개를 외로 돌리며 말하였다.

《이번에 성공하면 나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낸다던거 약속 지켜야 합니다.》

《그래, 난 일구이언 없다.》

《감사합니다.》

3

옹근 2시간동안에 걸친 김책과 박원식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단 한마디의 의견도 말씀하지 않으시였다. 보고가 끝난후에도 몇분간 침묵하고계시다가 물으시였다.

《그래 김책동무는 어떻게 수습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까?》

김책은 이미 준비하고있었기때문에 지체없이 말씀드릴수 있었다.

《저의 의견은 철도공장이거나 아니면 기관구에 나쁜놈이 잠복해서 로동자들을 추동하고있다고 보아지기때문에 그놈들을 잡아내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나본 7명의 로동자들은 한결같이 〈공산당에서 있는 쌀을 안주는가, 없어서 못주는거지.〉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식동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이께서는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박원식을 쳐다보시면서 《총을 빼내들지 않은것은 참말 잘했소.》 하고 칭찬하려다가 그만두고 대답을 기다리시였다.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놈들은 깊숙이 숨어있기때문에 그걸 적발해낸다는것은 대단히 힘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지금 로동자들의 원한이 한결같이 철도국장 한명구에게 쏠려있습니다. 일제때 여기서 기사로 있었고 지금도 역시 웃자리에 앉아 로동자들을 못살게 만든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 국장을.》
《아무래도 그냥두기는 곤난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명구를 제껴놓는다면 그만한 사람도 들여앉힐수 없다는 사정입니다. 한명구는 꼭 왜정때 십장이나 감독처럼 사람들을 대하고있습니다. 열성은 대단한데 신망이 없습니다.》
《그 동무자신은 얼마전까지 국장사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처음에는 계속 못하겠다고 뻗대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연설하는데 참가한후에는 자기를 찾아오셨던분이 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알고 신임에 보답해야 인간의 도리라고 하면서 더욱 열성을 내고있습니다. 그가 로동자들에게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것도 일이 잘되도록 해야겠다는 주관적 욕망에 의한것입니다.》
《그렇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식인답지 않게 성격이 완강하고 개방적이였던 한명구를 상기하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였다. 더구나 웃음을 자아낸것은 언젠가 일본에 가서 신문배달을 하던 흉내를 내였는데 2층집 창문으로 신문이 날아들어가게 하는 동작을 직접 해보일만치 비위가 대판이였던것이다. 그런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왜정때 감독처럼 행동하거나 악당들 네댓명을 혼자서 제낄만한 담이 있다는것도 리해되시였다.
그러나 이때 **김일성**동지께서는 다른 경우도 생각하고계시였다.
며칠전에 오기섭이 찾아들어왔었다. 그는 거침없이 중요한 용건이라고 하면서 제기하였는데 평양철도국장 한명구를 현직에서 해임시켜야겠다고 하였다. 결국 그길외 철도를 수습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여느때없이 오기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였다.
《저 역시 우리들이 철도를 중시할데 대하여 세운 방침에 따라 심사숙고하게 되였습니다. 특히 **김일성**동지께서 최근에 철도에 좋지 못한 기운이 떠돌고있다고 경고하시였기때문에 제딴으로 깊이 연구해보았습니다.》
오기섭은 담배불을 끄고 이쪽을 정시하면서 정중히 말하였다.
《문제는 좋지 못한 기운을 발산시키고있는 근원이 한명구에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제시기 기사기때문에 로동자들의 반일 감정으로 해서 증오를 받는데다가 한명구자신이 일제시기 감독보다 더 가혹하게 로동자들을 다루고있습니다. 더이상 지속시키면 일이 재미없이 번질수 있으며 더구나 로동자들의 불만이 모두 우리 당에 쏠릴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명구를 떼자는 결론에 미치게 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쪽손으로 이마를 짚으시더니 잠간 사색에 잠기시였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에 그이께서는 《오기섭동무!》 하고 부르시였다.

오기섭이 물잔으로 가져가던 손을 멈추고 쳐다보자 그이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동무의 의견을 참고로 합시다. 한명구를 떼서 해결될수 있다면 아무때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만한 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책동무의 제기에 의하면 철도에 반혁명분자들이 잠입해서 쏠라닥거리는것 같다고 합니다. 나는 근본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선 김책동무의 제기를 먼저 풀어보고 그다음에 오기섭동무의 의견을 검토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한참동안 말이 없다가 오기섭은 축 처진 기분으로 그렇다면 반대없다고 하였다. 이때 그이의 가슴에는 《나는 반대합니다. 먼저 한명구를 떼고 그다음에 반혁명분자들도 들어냅시다.》 하는 오기섭의 속심이 강하게 울려왔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다시 강조하시였다.

《오기섭동무! 우리는 한걸음도 물러서지 맙시다. 잡귀신들이 떠든다고 해서 그것을 얼리기 위해 혁명동지를 제물로 바칠수야 없잖습니까. 설사 그 방법외 다른 길이 없다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오늘은 한명구를 내라고 하지만 래일은 오기섭이나 김책을 내라고 하며 그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을 내라고 할것입니다.》

잠간동안 사색에 잠기시였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와 박원식을 번갈아 쳐다보시면서 《한명구동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줍

시다.》 하고 분위기를 급변시킬만치 흥분되여 말씀하시였다.

전화종이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집어드시였다.

《네！ 철도대표들을 해락관에 모이게 하고 연회를 차린단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턱 잘 먹여서 가라앉힌다. 하하하. 하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쌀 달라는 요구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습니까. 벌써 다 모였다구요. 그렇다면 할수 없지요.》

송수화기를 움켜잡으신채 그이께서는 한참동안이나 웃으시다가 김책이앞으로 나서면서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 지금 평남도인민정치위원회에서는 철도에서 일으킨 소요를 화해하기 위해 해락관에서 연회를 크게 차린다고 합니다. 철도공장과 철도기관구를 중심해서 한 100여명 불러다가 한턱 잘 먹이고 위로하면 무사해질것 같다는것입니다. 저쪽 요구는 아무래도 대상이 로동자들인것만큼 공산당대표가 참가해줘야 원만해질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김책은 웬일인지 얼굴에 긴장된 빛을 띠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료해한데 의하면 지금 그 연회를 발기한 사람은 다름아닌 조만식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묘한것은 철도에서 말썽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은 조만식이 간판을 붙인 〈백선행기념관〉 출입이 잦다는 사실입니다. 조만식은 철도사건의 후처리에만 관계된것이 아니라 그 발단에도 어떤 그림자를 던지고있는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 연회에는 우리가 관계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숨어서 장난을 하는 암해분자들을 시급히 적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점이 예리하고 결심이 단호한 김책은 더 론의해볼 여지가 없다는 내심을 충분히 표현하고있다.

《물론 우리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조만식이 힘 있는껏 수습해보겠다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두고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현장인 철도공장에 나가 직접 로동자들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범을 잡자면 범의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도 있잖습니까.》
《그럼 사령관동지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시겠다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책의 아연해지고 지어 굳어지기까지 한 몸가짐은 말로보다 더 강한 반대표시를 하고있었다.
《왜, 반대입니까?》
그이께서는 눈섭을 치켜올리며 뜻밖이라는 표정을 지으시였다. 김책은 언제나 그이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었지 이렇게 놀라움을 보일 정도의 딴 의견을 가진적은 여직 한번도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긋이 웃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건자체는 크다고 볼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응당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것, 그것이 어느 하나의 공장이나 기업소가 아니라 철도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혁명의 근거지로 되여야 할 평양에서 더구나 로동계급이 일으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꽃잎같은 눈송이가 유리창에 붙었다가는 미끄러져내리군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시름도 없는것처럼 첫 눈이 내리는 창밖을 내다보고계셨고 김책은 그옆에 나란히 서서 어떻게 하면 철도공장에 나가보시겠다는 결심을 돌려세워볼가 생각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창문을 약간 틔워놓자 문짬으로 한껏 랭기를 머금은 찬바람이 훅 들이불었다. 창가림이 흔들리면서 옷자락을 다정하게 어루만진다. 그이께서는 손을 내뻗쳐 눈송이를 받아보시였다.
꽃잎같이 하얀 눈송이가 손끝을 산뜩산뜩하게 한다. 오랜기간 항상 산에서 한해를 보내면서 맞군하던 첫 눈인데 이제는 유리창가에서 그것을 보게 되시는것이다.
순간 그이께서는 단호하게 말을 떼시였다.
《지금 철도형편은 한시도 지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발생적인 어떤 현상으로 볼수 있다면 몰라도 그들 뒤에서 무엇이 조종하고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두고보면 알겠지만 해락관에서는 화해를 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더 큰 불집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박원식동무에게 오늘밤에 철도공장 전체 로동자들을 한데 모이게 하라고 하시오.》

그이의 확신에 넘친 웅글은 목소리가 방안에 물결치는것과 동시에 탁상에서 전화종이 또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집어드시였다. 유도음이 심한것으로 보아 장거리전화임에 틀림없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오기섭동무요. 흥남인민공장에 가있다. 김책동무를 통해서 로가 폭파되였다는 소식을 대충 들었습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

그이께서는 송수화기를 다른 손에 옮겨잡으시면서 연필로 받아적으시였다.

《이름이 강병철, 려순공대졸업, 일본 야하다제철소에서 복무.》

다음은 저쪽에서 약간 주저주저하다가 말하는데 광복이 되자 38선을 넘어 북에 왔다는것과 장군님을 만나 장시간 담화를 한적이 있다고 한다는것이다. 또한 오기섭은 자기가 직접 만나 알아본데 의하면 강병철은 고의적으로 로를 폭파시켰다고 자백했다는것이다. 강병철은 야하다에 있을 때도 조선인로동자들을 강제로 내몰아 그와 류사한 사건을 빚어낸 일이 있어서 로동자들속에서 친일암해분자가 잠입해서 파괴행동을 했다고 몹시 분개하고있다는것이다. 오기섭은 며칠후에 좀더 자세한것을 알아가지고 보고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전적으로 김책이 함부로 사람들을 믿고 배치하는 계급적으로 심히 무경각한데서 초래되는것으로서 최준걸이와 같은 친일적인 지식인을 옆에 끼고있으면서 종당에 우리의 경제를 어데로 끌고가자는것인지 의문스럽다고 하였다.

《철도형편은 요새 어떻습니까?》 오기섭은 지나가는 말처럼 별로 의의를 부여하지 않고 물었다. 《한마리의 종개가 강물을 흐려놓는다는 말이 있잖습니까. 하긴 한마리가 아니라 간데마다 있기는 합니다만.》

그이께서는 쓴웃음을 지으시였다.

《더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예정한 기일에 올라오시오. 그만합시다.》

송수화기를 놓은후에도 한참동안이나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연필끝으로 《강병철》이라고 적은데다 두번세번 거듭 밑줄을 그으시였다. 미루어보아 그이의 심정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나 요인은 어쨌든간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있는 사건들은 모두 색채가 있고 심상치 않은 것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참동안이나 수첩장우를 내려다보고계시다가 결연히 고개를 들고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합시다. 오늘 현장에 나갑시다.》

그이께서는 오기섭이 걸어온 전화도 결코 철도사건 못지 않은 심각성을 띠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미 의논하던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시금 확인하시였다.

날이 어두워지자 눈송이는 더 커졌다. 어데라없이 흰 장막을 뒤덮어놓은듯하였다. 앞에서 좌현이 길안내를 하고 그뒤에 **김일성**동지께서 서시고 맨뒤에 약간 간격을 두고 김책이 따라갔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일행은 평양역 대통로로 나가지 않고 약송정골목으로 빠져서 대동강 기슭을 따라 내려갔다. 대동강철교가 저쯤 바라보이는데서 철도공장구내에 들어섰다. 평양철도공장은 본부가 서울 룡산에 있었는데 부산에서 서울,신의주를 거쳐 만주철도와 직통된 간선중에서 여기가 중요지점으로 되여있었다. 때문에 공장규모가 컸고 종업원도 수백명이나 되였다.

김책이 주변을 예리한 눈길로 살피면서 그이를 모시고 철강재와 목재가 산만하게 널린 철도공장 야적장 앞을 지날 때였다.

눈이 내려 앞이 뽀얗게 흐려진 어둠속으로 검은 그림자가 급히 다가왔다.

《누구요?》 하고 소리치자 저쪽에서 《박원식입니다.》 하고 흥분된 대답이 날아왔다. 잠간사이에 다가왔는데 하나는 박원식이고 하나는 키가 큰 한명구였다.

그이께서 걸음을 멈추시자 한명구가 앞으로 나서며 처절한 목소리를 내였다.

《장군님! 돌아가주십시오.》 숨이 차서 잠간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여기는 장군님께서 오실데가 못됩니다.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한명구는 넙적한 어깨를 흔들면서 애원하였다.

《왜 그러오. 로동자들이 모였겠지.》

김일성동지께서는 태연하게 물으시였다.

《모였습니다. 기관구에서도 오고 보선구에서도 왔습니다. 해락관에 갔던 패들도 왔습니다. 복잡합니다. 가시면 안됩니다.》

김책이나 박원식이도 역시 같은 생각이라는듯이 아무말없이 지켜 보고만있었다.

《어째 그러는지 말을 해야 알것이 아니요. 뭐가 복잡하오? 복잡하니까 우리가 빨리 가야 하잖소.》

그이께서는 시간이 가는것이 안타까우시였다.

《장군님!》

한명구는 두손을 쳐들고 부르짖었다.

《여기 사건은 제가 다 무사히 수습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 거기 가시면 안됩니다. 놈들이 소란을 피우는 리유는 간단합니다. 이 한명구가 없어지면 됩니다. 국장자리를 내놓겠습니다. 저때문에… 부탁입니다. 돌아가주십시오.》

한명구는 며칠전부터 좋지 못한 징조를 느끼고있었다. 돌아가는 말을 들으면 서울 룡산에서 낯선 사람들이 몇명 왔는데 여기 철도사람들이 그들과 만나는것 같다고 하였다. 그무렵부터 몇몇 로동자들이 차츰 더 거칠어지고 욱욱 밀려다닌다고도 하였다. 깊은 밤이면 구내에서 총소리도 가끔 나는데 그 까닭을 캐낼수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이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것이다. 이런 복잡한 사연을 설명할수 없어서 한명구는 무턱대고 같은 말만 반복하고있었다.

그럴수록 **김일성**동지께서는 시급히 현장에 가닿아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한명구의 어깨를 떠밀며 그이께서는 《우선 가봅시다. 우리 생

각에는 별일이 없을것 같은데.》 하고 한걸음 내짚으시였다.

그러자 한명구는 앞을 다시 막아서며 팔을 벌리였다.

《장군님！ 위험합니다.》

한명구의 떨리는 목소리가 눈이 내리는 무거운 밤공기를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렇게 되자 집합장소로 몰려가고있던 대여섯명의 로동자들이 모여왔다.

장군님께서는 단호하게 한명구의 등을 떠미시였다.

《앞서시오. 빨리 갑시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철도공장 기능공양성소 강당으로 안내되시였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안에서 철도복차림을 한 청년 하나가 맞받아나오면서 《**김일성**장군님이 아니십니까？》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그것은 민기환을 만난 방문선이였다. 김책은 재빨리 그 청년을 가로막으면서 등을 돌려대였다. 그러는사이에 그이께서는 한명구의 안내를 받아 군중들이 가득 모인 강당에 들어서시였다. 한 50명이 앉을수 있는 걸상에 100여명이 앉다보니 자리는 매우 비좁았다. 교단이 있는쪽과 군중이 앉은 뒤켠에 갓이 없는 전등알이 몇개 달려있었지만 촉광이 낮아 방안의 어둠을 다 밀어내지 못하였다. 교단에 놓인 탁자한복판에 그이께서 앉으시고 그 오른쪽에 한명구가, 왼쪽에는 박원식이 앉았다.

김책은 밖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장내에는 귀가 저릴만치 정적이 깃들고 그와 함께 싸늘한 랭기가 흘렀다. 그것은 방안사람들의 각이한 심리에 의해 빚어진것이였다. 그들은 이미 각기 제나름으로 여기 모이게 된 까닭을 해석하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해서 례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였던것이다. 태반 사람들은 철도국장을 찾아가 행패질을 했었고 해락관에 가서 얼근하게 술을 마시였다. 그들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겨서 자기들이 피해를 보게 될것으로 알고있었기때문에 모두 공포에 질려있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별로 똑똑한 립장이 없이 이무렵에 흔히 있게 마련인 군중들의 모임에 그저 한축 끼운다는 립장이였다. 개중에 몇몇 사람들만이 빛나는 시선으로 방금 들어서신 장군님쪽을 바라보고있었는데 그들은 공산당에서 누가 나

온다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어떤 희망을 품고있는듯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 앉자 인차 방안을 둘러보시였다. 섬광을 내뿜는것 같은 시선이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다시 뒤에서부터 맨앞에까지 훑고지나갔다. 어디에도 이곳 로동자들을 선동해서 란동에로 이끌어갈만한 음모자는 끼워있는것 같지 않았다. 뭇별처럼 널린 눈동자들을 보고계시는 사이에 어느덧 그이의 얼굴에는 신심과 기대가 어울린 미소가 피여오르기 시작하였다.

군중들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이시다!》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였다. 뒤이어 **김일성**장군님이 옳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리를 쭉 펴신다음 영채가 어린 시선으로 장내를 다시한번 둘러보시였다.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저는 그 무슨 연설을 하러 나온것도 아니고 또 쌀자루를 메고 온것도 아닙니다. 듣자니 이곳 로동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있다기에 인사를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숨을 죽이고있던 장내에서 《**김일성**, **김일성**》 하는 소리가 울리고 맨앞줄에서 덜컥 하고 의자 드티는 소리가 나는것과 함께 《**김일성**장군 만세!》가 터졌다. 장내가 끓어번지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그칠줄 몰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손을 들어 답례하시였다. 이윽해서 그이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여 또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들가운데서 누가 여기 앉은 이 철도국장의 방에 찾아가 걸상을 둘러메치면서 쌀을 내놓든지 자리를 내놓든지 하라고 했습니까. 우선 그것이 사실입니까?》

방안에는 잠간동안 침울한 공기가 흘렀다. 이윽해서 거치른 숨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몸이 장대한 사나이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것은 맨 옆줄에 앉아 방금전까지 남조선에 온 미군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던 《집게다리》였다.

《내 오늘 해락관에 차린 연회에 나갔다가 조만식선생한테 불손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술로 얼릴 생각 말고 쌀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마디 더 하고는 뒤말을 잇지 않고 두릿두릿 좌우를 살피며 눈치를 보고있다. 그가 말한 해락관연회에는 민주당 당수인 조만식이 나왔었다. 조만식은 개회를 하면서 철도에서 수고가 많다는것을 모르지는 않았으나 시국이 시국이니만치 미처 관심을 돌릴새가 없었으니 나무라운대로 서로 참고 화해하는 의미에서 한잔씩 들자고 하였다. 한동안 화기가 애애하였는데 불시에 《집게다리》가 술이나 몇잔 얻어먹고 우리가 주저앉을줄 아는가고 만장에 대고 고함을 치는바람에 분위기가 돌변하였다. 거기에 박원식이 나타나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모두 철도공장 기능공양성소 강당에 모이라고 했던것이다.

약간 시간을 끌면서 기회를 보고있던 《집게다리》는 드디여 결심을 내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명구에게 손가락질을 하였다.

《왜놈의 졸개 한명구, 당신은 국장자격이 없소. 자리를 내놓구 내려오우. 무슨 렴치에 거기 앉아있는가. 장군님! 저 한명구는 나쁜놈입니다. 처벌해주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소를 띠고 열을 올리고있는 《집게다리》를 쳐다보시였다. 누구든지 또 의견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이번에는 선반작업반에 있는 최아바이가 일어났다. 최아바이는 소년공으로 들어와 20년가까이 여기서 일하고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쌀이요 돈이요 하는것은 국장 잘못만도 아니다, 그러나 국장이 나쁜것은 철도에 함북도 청진패를 끌어들인것인데 그의 사돈의 팔촌까지 한자리씩 시켰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옆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하고있는 한명구에게 그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시였다. 한명구는 사실이긴 한데 철도에는 너무 터세가 세서 누구도 책임적 직위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기때문에 친구들을 찾아가 같이 일하자고 사정해서 그렇게 되였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가 질려서 주저하던 사람들이 차츰 활기를 띠였다. 무장대를 시켜서 주모자와 누구누구를 체포하라고 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서로 터놓고 의논하자고 하시는것이다.

여기저기서 앞을 다투어 일어났다. 청년들이 위주이면서 개중

에는 중년 또는 로인들도 간혹 있었다. 각이한 억양과 생활세부들을 들어가며 자기들의 소요를 정당화하기도 하고 또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의 약점도 드러냈는데 대체로 그들의 요구는 일치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쌀을 내라》는것과 《국장을 떼라》는것이였다.

《그렇다면 한가지 물읍시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장내에 량해를 구하고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여러분이 말하는대로 한명구는 국장자격이 없으니 뗀다칩시다. 그러면 여기 앉은 여러분들가운데서 누가 국장이 되여야겠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말씀하시오. 당장 쌀도 주고 임금도 주고 고장난 기관차도 고치고 또 혼란된 철도의 질서를 곧 바로잡을 그런 사람을 하나 추천하시오.》

장내는 물뿌린듯 고요해졌다.

《말씀하시오.》

두세번 같은 말씀으로 독촉을 하시였지만 누구 하나 일어나 입을 열지 못하였다.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것은 들끓고 있는 평양한복판이 아니라 그 어떤 산악으로 둘러싸인 호수안에 들어앉은것 같이 바람도 물결도 느낄수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속에는 분명히 색갈이 다른 두개의 인간심리가 서로 싸우고있었다. 하나는 자기들의 행위가 당초의 의도와는 맞지 않게 엄청난 편차를 가져왔다는 선량한 로동계급의 량심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수로든지 당면한 곤난을 더 크게 만들고 그 누구도 걷잡지 못하게 하여 나중에는 공산당의 위신을 저락시켜야겠다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얼굴에 함뿍 웃음을 담으시고 장내를 향해 다시 손을 드시였다.

《아까 해락관연회에 가서 누구한테 쌀을 내라고 제기했다던 저 청년이 한번 대답해보시오.》

그이의 손길이 차츰 《집게다리》쪽으로 접근해가자 그는 순간 고개를 푹 떨구어버렸다. 뒤미처 군중들속에서 《와하》 웃음이 터졌다.

《저자가 국장이 되면 소가 웃다가 꾸레미를 터치겠수다.》

《개천에서 룡이 올랐단 말 못들었수다.》

일단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중구난방이다.

《집게다리》는 얼굴이 시꺼멓게 죽어서 몸둘바를 몰라한다. 주모자는 아니겠지만 소동을 일으키는데서 꽤 드세게 놀았던 첫 대상을 일단 이렇게 눌러놓으신 그이께서는 또다시 손길을 다른데로 옮기시였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자청해서 나서도 좋습니다. 누가 쌀을 주고 로임을 주고 기관차가 달려가게 하겠는가. 저 뒤쪽에 장정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누가 없습니까？》

또다시 장내에는 침묵이 깃들기 시작하였다.

《자, 보십시오.》 하고 그이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결국 국장사업을 맡을 사람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국장자리를 언제까지나 비우고 우리 철도를 혼란상태 그대로 두겠습니까. 철도는 우리 인체로 말하면 피줄과 같습니다. 피가 통해야 사지가 온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나 손이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 당이 철도를 중시하는것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동무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기왕 한명구동무를 국장으로 추천해서 일을 시킨것만큼 그냥 두고 도와줍시다. 처음 하는 일인데 어찌 결함과 과오가 없겠습니까. 관료주의를 쓴다는데 물론 그것은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못쓰고 저 사람은 저래서 쓸모가 없다고 한다면 건국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한명구동무는 돈이 없어서 일본에 가 신문배달을 하여 고학을 했습니다. 국장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는것을 우리가 설복하여 시켰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이 지식분자들과 손을 잡고 건국사업을 같이하자는것은 그 어떤 일시적인 술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인들과 영원히 같이 가자고 합니다. 철도를 움직이자면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욕심만 가지고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한명구동무를 떼자는것도 말이 안되며 그에게 쌀을 내라고 다긎는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쌀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도 조국을 찾기 위해 산에서 수십년간 싸우다나니 배낭밖에 메고 온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산에서 풀뿌리와 나무껍질

을 씹으면서 일제와 싸웠습니다. 때로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마저도 최후승리를 위해 쌀을 버리고 탄알을 배낭에 넣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쌀이 있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안타깝다는듯이 가슴을 만지시다가 단추를 하나 터놓으시고 장내를 둘러보시였다. 여기저기서 한둘씩 고개를 숙이더니 이윽해서 온 장내가 모두 머리를 숙이였다.

《그러면 쌀이 없으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굶고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수 없습니다. 굶고서는 철도를 운영할수 없고 따라서 나라를 세울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쌀은 어떻게 해야 생기겠습니까. 기관차,화차를 수리해서 쌀을 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반대로 일은 안하면서 쌀만 내라고 소동을 일으키고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나쁜놈들의 작간에 넘어간것입니다. 철도를 운영합시다. 그래서 쌀을 구해옵시다.》

박수가 터졌다.

《옳습니다!》

장내에는 흥분된 사람들의 힘찬 호흡으로 해서 해일을 일으킨 바다처럼 설레였다.

그때 맨앞줄에서 중년사나이가 손을 들고 벌떡 일어섰다.

《장군님! 제가 외람된 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그는 허리춤에 끼워넣었던 한쪽팔소매를 뽑아들고 말하였다.

《나는 팔 하나가 없어서 이 철도공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내게 팔이 왜 없는가. 이 공장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차바퀴에 끼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4월달에 해고됐습니다. 일할수 없었지요. 거리로 다니며 밥을 빌었습니다. 광복이 됐다기에 행여나 해서 팔을 하나 바친 이 공장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우린 나쁜 생각없이 쌀을 타러 가자고 해서 따라갔댔습니다. 가보니 그모양입니다. 이제는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장군님! 우리 이 미련한것들을 널리 용서하시고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장군님! 간절한 부탁입니다.》

눈물이 글썽해서 웨치고있는 그가 몸을 흔들 때마다 속대가 없

이 비여있는 팔소매가 함부로 흐느적거리였다. 무엇인가 더 긴요하고 절박한것을 말하려는것 같은데 입술과 턱이 너무 떨려 말을 만들지 못하고있다. 긍정과 부정의 명암이 차츰 뚜렷해지면서 장내 분위기가 자못 정중해지기 시작하였을 때 돌연 처절하고 솔직한 심정의 고백을 듣게 되였던것이다.

(바로 저것이 진실이다. 저것이 여기 앉은 절대다수 로동자들의 솔직한 감정이다.)

그이께서는 팔이 없는 사나이가 끝내 자기 속심을 쏟지 못한채 자리에 앉는것을 보시자 곧 자리에서 일어서시였다. 군중들틈을 가르며 나가신 그이께서는 팔이 없는 옷소매를 들어올리면서 사위를 둘러보시였다.

《동무들! 이것을 보시오.》

그이의 눈굽에서는 물기가 번쩍하였는데 그것을 장내 많은 사람들 모두가 볼수 있었다. 약간 갈린듯한 목소리가 장내를 울려놓았다.

《이 동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조선로동계급의 모습입니다. 일제는 우리 로동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무의 말은 참으로 진심입니다. 이 동무는 나쁜놈들한테 속았다고 합니다. 우리 혁명가들은 바로 동무들과 같은 로동계급과 토지 없어 고생한 농민대중을 비롯한 조선근로자들을 위해서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반동요언에 속지 마십시오. 국장을 떼치우라, 쌀을 내라, 공산당을 불러내라, 일을 하지 말자, 이런 속임수를 쓰는 반동분자들을 적발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날 길은 힘을 합쳐서 철도를 복구하고 기차가 달리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면서 〈언제부터 쌀과 로임을 주겠다는것을 찍어서 말하라.〉 하고 속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것 같은데 그 대답도 동무들자신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처럼 자기 목숨을 남에게 맡긴 노예가 아니라 내 나라와 나자신의 주인입니다.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옳습니다!》

장내가 떠나갈듯한 화답이 일어났다.

《우리는 속았다.》

《반동들을 잡아내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교단으로 올라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을 높이 쳐드시면서 《철도로동자동무들!》 하고 절절한 목소리로 다시 부르시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닥 높지는 않지만 확신에 넘친 어조로 그리고 정열로 달구어낸 불덩이같은 말마디들을 거침없이 잇대시였다.

《인류의 극악한 원쑤인 파쑈도이췰란드와 군국주의일본은 패망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주력량의 승리로 종결되였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약소민족들과 피착취인민들이 제국주의예속에서 광복되였으며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인민은 장기간에 걸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자유를 찾았으며 민주주의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습니다.》

장내를 둘러보시는 그이의 눈에서는 나라와 인민과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로동자모두를 끝없이 사랑하고있다는 절절한 감정이 흘러넘치고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가 광복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새 조선 건설의 길에 들어선 우리 인민앞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우리 조국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광복되였지만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남북으로 량단되였으며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합니다. 반동분자들은 오늘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새 조국 건설을 방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친일파,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들이 미군의 비호하에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저애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에까지 파괴암해분자들을 침투시켜 새 조선 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방해하려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건국사업에 큰 장애로 되지 않을수 없습니다.》

정열에 넘친 그이의 연설은 장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때로는 급격한 낭떠러지를 이루어 폭포처럼 쏟아져내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굽이굽이 골짜기를 에돌아 다정하게 감돌기도 한다. 도도한 흐름을 이루어 벌판을 장쾌하게 꿰지르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를 이루어 깊고 정서적인데로 사색을 끌

어가기도 한다.

《우리가 당면한 난관을 타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 조국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오늘의 이 곤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부닥칠수 있으며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무들은 식량난을 이기지 못하고 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

오늘 우리앞에 가로놓인 난관은 결코 한두사람의 힘으로 해결할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 철도로동자들은 식량과 로임을 잘 해결하여주지 않는다고 하여 관리국장을 철직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로동자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관료주의적으로 일하는 현상과는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식량사정과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어떤 간부를 하나 철직시킨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것은 아닙니다. …》

그이의 연설은 차츰 더 열기를 띠였다. 붉게 상기된 얼굴에는 대담하고 투철하며 신심이 넘치시였다. 잠간 숨을 돌리고나서 다시 계속하셨는데 이때는 자못 엄숙한 음조로 나직이 그러나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과거 우리 혁명가들은 형언할수 없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20년동안이나 일제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적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고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부닥치는 난관들을 용감하게 뚫고나갔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험산준령을 넘나들며 풍찬로숙하면서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도 난관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항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싸웠습니다. … 항일유격대원들은 낯선 이국땅의 험악한 산중에서 적들과 싸우다 쓰러지면서도 〈조선독립 만세!〉, 〈조선혁명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으며…》 그이의 가슴은 높이 오르내리였으며 목소리는 갈리고 말마디들이 자주 끊어졌다.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습니다.》

그이의 시야에는 지난날의 일들이 영화화면처럼 흘러갔다. 길림거리, 일화배척투쟁의 구호를 부르다가 적탄에 맞아 피가 콸콸 쏟

아지는 가슴을 부둥켜안고 쓰러진 공청원, 단두대앞에서 두주먹을 높이 쳐들고 《조선혁명 만세!》를 불러 군중들을 격동시킨 무송의 지하조직원, 적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광복된 조선이 보인다.》고 웨친 녀성유격대원…

그이께서는 뜨거운것이 눈굽을 지지고 코마루가 저려나는것을 겨우 참으시였다. 20성상 기나긴 세월 고이고고이였던 처절한 감정이 가슴을 헤치고 걷잡을수 없이 흘러넘치는것이다.

연설을 잠간 중단하시고 그이께서는 뿌옇게 흐려졌던 눈앞이 차츰 개이기를 기다리시였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라고 어찌 부모처자와 함께 뜨뜻한 방에서 편안히 살면 좋은줄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오직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웠던것입니다.

우리는 항일유격대원의 이러한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곤난을 이겨내고 새 민주조선 건설에 일떠섭시다. …》

연설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자리를 차고일어났다. 그중에서도 목소리가 가장 높은것은 선반공 최아바이였다.

《우리는 속았소. 반동놈을 잡아내자!》 그가 주먹을 내흔들며 목청껏 소리쳤다. 《우리도 공산당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을 따라가겠소!》

《옳소.》

군중들이 일제히 환호를 올리였다. 가운데 몰켜앉았던 청년 대여섯이 일어나 목소리를 합쳐 《**김일성**장군 만세!》를 불렀다. 온 장내가 목소리를 합치였다.

회의장이 떠나갈듯이 만세소리가 울리였다.

《반동을 잡아내자!》

《우리는 다시는 속지 않는다!》

《철도를 운영하자!》

여기저기서 웨쳐대였다.

연설이 끝나고 교무실로 쓰던 옆칸으로 그이께서 자리를 옮기시였을 때 벽시계가 12점을 쳤다. 강의실에서는 아직 군중들이

헤여지지 않고 떠들썩 고아대고있었다.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을 당장 적발해내야 한다고 청년들이 윽윽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놈들을 잡아내는것도 중요하지만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어떻게 하면 화차를 빨리 수리해서 철도운수를 제 궤도에 올리겠는가 그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한편 한명구에게 황해도에 가서 쌀을 빨리 끌어오도록 하라고 지시를 주시였다.

《이것을 한고뿌 드십시오.》

그이앞으로 중년로동자 하나가 양은쟁반에 물잔을 받쳐들고 허리를 굽히였다.

《장군님! 나라를 찾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대접할것은 더운물밖에 없습니다.》

뚜껑도 없는 푸른 사기잔을 정중히 들어 장군님앞에 내놓는 중년로동자의 손은 가늘게 떨리였다. 그 알릴가말가한 흔들림은 다름아닌 그의 심장의 파동이 손끝까지 미치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순간 그이께서는 가슴이 뭉클하시였다.

《이것으로라도 목을 추기십시오.》

눈물이 글썽해지신 그이께서는 물잔을 들어올리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였다. 아닌게아니라 목이 마르시였다. 실날같은 김이 몰몰 피여오르는 더운 물을 마시는데 가슴에서는 그 무슨 덩어리같은것이 스르르 녹아내리는것을 감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밀영에서 더운 물을 마시던 그 버릇대로 잠시동안에 잔을 말끔히 비워놓으시였다.

4

철도공장을 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로를 따라 기관구로 향하시였다. 금방 눈이 멎고 바람이 일기 시작하여 걸음을 옮기실

적마다 알알한 랭기가 발목에 감겨들었다. 해주에 가서 벼 10차량분을 끌어올데 대한 문제는 한명구가 어떤 일이 있어도 1주일안으로 꼭 집행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여 인차 결말을 볼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해서 모두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이를 모신 일행은 빨간 신호등이 가물거리는 기관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이께서 철길복판에 서시고 량쪽 침목끝에 하나씩 갈라서 박원식이와 김책이 따라갔다. 몇걸음 뒤늦어 작업복 목깃을 일궈세운 한명구가 따라가고있었다. 기관구에 가보았대야 야간작업을 하지 않기때문에 로동자들은 만나볼수 없겠는데 **김일성**동지께서 굳이 가보자고 하셔서 헛걸음이 될줄 알면서도 가고있는것이였다.

《뭐니뭐니 해도 철도는 기본이 기관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헛걸음으로 되면 뭐랍니까. 눈에 덮인 철길을 한밤중에 걸어본다는것도 후에 다 인상에 남을수 있잖습니까.》

하는수없이 김책은 거리로 에돌지 말고 환히 트인 철길로 걸어가자고 하였다. 길을 걸으면서 그이께서는 한명구에게 기관구 형편을 자세히 물으시였다. 1주일후에 몇개 려객렬차를 정시운행해보겠다던 계획은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담보되고있는가, 105명이 집결되였다던 로동자들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가, 그들의 정치적 동향은 어떤가, 철도공장보다 못한가 나은가, 그리고 기관차의 중소수리정도를 감당할만한 기능공들이 있는가, 겸해서 박원식동무가 강선에서 구해온 강재로 수리한것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겨우 6명으로 되였다는 공산당원들은 모두 무슨 분공들을 주었는가 등 그이께서는 한명구나 박원식이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파고드시였다. 철도공장로동자들을 설복했다고 해서 철도운수에 걸렸던것이 얼마간 해결되였다고 보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련쇄된 고리인 기관구나 전기구, 보선구들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배태되여있을수 있다고 보시였다. 철도공장사건이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적아는 언제나 호상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마련이기때문에 기관구도 무시할수 없는것이다. 인입선정지신호등이 켜져있는곳에 이르렀을 때 고철무지뒤켠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씬하는것 같더니 빨갛게 단 철선같은것

을 머리우에 날리면서 《빠방！》 하고 총소리를 울리였다. 그이와 함께 모두다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박원식은 번개치듯 달려나가면서 괴한에게 총질을 하였는데 그것은 이미 모든것을 어둠이 삼켜버린뒤여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뜻밖의 사건은 이것으로 끝났다.

김책은 앞길을 막아서며 돌아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가던쪽 방향으로 계속 걸음을 옮기시였다.

《우선 기관구까지 가고봅시다. 우리가 피해 달아나는 식으로 하면 놈들이 따라올수 있습니다. 그놈은 우리를 보고있을테지만 우리는 그놈을 볼수 없잖습니까. 박원식동무는 멀찍이서 우리를 따라오시오.》

한껏 걸음을 다그쳐서 인차 기관구 차고안에 들어서실수 있었다. 어디에도 인적을 느낄만한것이 없었다. 여느날에도 밤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철도공장사건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나와있을리 만무하였다. 하는수없이 빈 작업장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되시였다.

불이 꺼진 차대가리가 그 어떤 괴물처럼 보기 흉하게 두석대 서있고 그 두리에는 수라장을 련상할만큼 험상한 쇠붙이들이 널려있었다.

《최근에 작업하던데가 어데입니까？》

그이께서는 난처한 몸가짐을 하고있는 한명구에게 물으시였다.

《차고에 서있는 〈미가서 3〉을 어제까지 수리하고있었습니다.》

《그렇소. 그러면 동무나 나나 다 같이 남의 말만 듣지 말고 직접 제 눈으로 보기로 합시다.》

그이께서는 기관차가 주런이 서있는 예비인입선쪽으로 나가시여 한쪽끝에서부터 막 밀어나가며 살펴보기 시작하시였다. 한명구는 하나하나 고장난 부위를 짚어가며 설명을 하였다. 12대의 기관차를 다 돌아보시고나서 그이께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였다.

《나는 리해할수 없소. 알고보면 기관차가 노상 없는것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7대는 약간씩 손질하면 쓸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자,보시오.》 그이께서는 기름묻은 손을 닦던 종이를 집어던지고나서 땅바닥에다가 돌로 금을 그으시였다.

《자！ 여기 해주에서부터 5개의 역에 내온 벼가 수백톤이나 있습니다. 여기 평양에는 쌀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이 두사이를 나르

게 될 기관차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좀 낡았고 얼마간의 고장이 있을뿐입니다.》

땅바닥에 두 지점을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고 그것을 련결하는 직선을 힘있게 그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손에 잡으신 돌끝으로 땅을 내리찍으면서 마주선 세사람에게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우리는 말그대로 적수공권으로 일제와 싸워 조국을 찾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 아니요. 총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소. 초기 18명의 대원들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모아들였고 매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일본군대나 경찰한테서 총을 벗겨내였소. 그래서 우리는 라남사단과 맞섰고 관동군과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철도를 움직일 사람이 있고 기관차도 있소. 부족하긴 하지만 쌀도 얼마간 있소.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누구를 탓해야 하겠는가. 로동자들이 소동을 일으킨것도 잘못된것입니다. 그뒤에서 롱간질을 하는놈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 안됩니다. 언제까지나 배고픈 사람한테 계속 참기만 하라고 할수는 없잖습니까. 한명구동무! 어떻습니까. 동무의 어깨에 이토록 중대한 과업이 놓여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김책동무! 난 오늘 눈길을 걸으면서 이런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사태가 교훈적이 아니란말입니까. 기관차를 가지고 쌀을 나를줄 모르는자는 굶어죽어 마땅하다, 문제를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박원식동무, 동무도 의견을 말해보시오.》

김책이 자세를 바로하면서 갈린 목소리를 내였다.

《사령관동지! 제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그때 난데없는 인적기가 뒤에서 들리였다.

일제히 고개를 돌리였다. 외등이 희미하게 비치고있는 철뚝으로 대여섯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철길을 가로질러 이쪽 차고로 다가오고있었다. 박원식이 달려갔다오더니 기관차수리공들이 온다고 하였다.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 일곱명가운데는 3명의 공산당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철도공장에 나오셨던 장군님의 소식을 전해듣고 한시바삐 기관차를 수리

해야겠다고 나왔다는것이다. 공산당원들이 친구 한사람씩을 설복해서 데리고 나오는중이라고 하였다. 역시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인이며 나라의 주인이였다.

김일성동지와 함께 일행은 눈물이 날만치 고마운 로동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면서 진심이 어린 말로 인사를 하였다.

그중 나이많고 덧저고리를 꿰입은 로동자의 손을 잡아주시다가 그이께서 놀라시였다.

《아니, 이게 누구요. 내가 어데서 본것 같은데.》

《장군님, 저올시다. 학교마당에 철봉대를 같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오! 그렇지, 리윤봉! 그래,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까?》

《잘합니다. 장군님!》

《그거 참 기쁜 일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못하다보니 장군님께서 이 한밤중에 여기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힘자라는껏 기관차를 고칠터이니 어서 돌아들 가십시오.》

모자를 벗어든 리윤봉은 가슴이 저릴만큼 고마운 인사말을 하였다.

철길옆에 기름걸레와 나무쪼각을 주어다가 고깔불을 일구었다. 마치 행군도중 잠간 몸을 녹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다. 설레이는 숲도 아득히 뻗어간 령마루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 시각 이 령마루에 나타나게 될 통신원을 기다리는것도 아닌 철도기관구 한쪽 길바닥옆의 우등불가이다. 하건만 기름내와 콬스내가 풍기는 이 땅바닥의 냄새, 그것은 참으로 많은것을 가슴에 안겨주고있었다.

(참말 내가 오늘 여기에 오기를 잘했다.)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여기에 오지 않았다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 로동계급을 만나지 못했을수 있는것이다.

《우리 로동계급은 마치 혁명군중을 끌고나가는 기관차에 비길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붉게 물든 얼굴을 들고 두리에 앉은 로동자

들을 향해 기관차가 짐을 끄는 시늉을 해보이시였다.

우등불에 손을 내대고 장군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한명구가 슬그머니 모로 돌아앉더니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흔들면서 울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보선구쪽으로 달려나가 길을 막아설 때도 알지 못했고 로동자들앞에서 연설하실 때에도 미처 몰랐으며 방금전에 류탄이 귀전을 스치고지나갈 때에도 미처 그런 생각을 할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니 철도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례외없이 한명구 자기자신이 감당해냈어야 하는것이였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가슴으로 맞받아나가야 했었다.

《장군님!》 한명구는 자세를 바로하며 석쉼한 소리를 내였다. 《장군님! 철도문제때문에 걱정을 그만하십시오. 제가 로동자들과 힘을 합쳐서 다시는 오늘과 같은 밤길을 걷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동안 한명구를 쳐다보시다가 웃음을 터치시였다.

《그렇소,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 결의가 좋습니다.》

대지에 펼쳐진 흰 장막 그 한복판에 붉은점이 하나 살아 숨쉬는것처럼 우등불은 기세좋게 타오르고있었으며 그와 함께 열기를 띤 그이의 음성이 야음을 흔들며 멀리까지 물결쳐나갔다.

제 8 장

1

사흘만에 처음으로 떠나게 된 평양행 렬차는 비교적 순조롭게 달리고있었다. 양춘만은 렬차의 맨 마지막 방통 중간쯤의 창가에 앉았다.

몰골은 매우 초췌하였지만 그래도 기분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때문에 그는 비좁게 들어선 손님들속에서 로파 하나를 자기옆에 끌어다앉히고 그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데서 떠나서 어데로 가는가, 무엇하러 가는가고 하면서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의 속심에서는 로파와 대화를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과 자문자답하고 있었다. 평산역에서 한 5리 북쪽으로 가다가 쑥대가 우거진 언덕에서 뛰여내린 그는 외딴 마을에 들어가 사흘동안 숨어있으면서 줄곧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도 명백했던 자기의 갈 길에 대해서 인차 설명해낼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박원식에게 끌려가지 않고 제발로 제가 가고싶은 길을 갈수 있다는것만도 천만다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할것인가. 서울로 되돌아갈것인가.

그것은 지금까지의것을 다시 반복하는것으로 될것이다. 그렇다면 안해와 아이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또 이렇게 방황하다가 박원식이 또 나타나 앞에 문득 막아서면 그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풀기 위해 그는 여러개의 《방정식》을 만들어보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것이 은밀히 강선에 들어가서 안해와 아이의 행처를 알아보고 그 정황에 따라 행동하는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였다.

그는 차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다. 자기가 알

고있는 양춘만이와는 판판 다른 초라하고 겁에 질린 사나이가 음울하게 마주보고있었다. 사흘동안 묵은 집에서 그는 제낀깃옷과 와이샤쯔를 벗어버렸다. 그대신 주인한테서 허름한 덧저고리를 얻어입었다. 말로는 신세갚음이라고 하였지만 실은 지식인의 체취가 역겨웠고 또 그렇게 하는것이 박원식을 속이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었다. 그는 꺼슬꺼슬해진 턱을 썩썩 문지르면서 히죽이 웃었다. 너무나 달라지고 기가 꺾인 자신에 대한 체념이고 야유였다. 그러자 뒤이어 동작이 민첩하고 름름하게 생긴 박원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일단 그 완강해보이는 턱을 놀리기 시작하면 벽을 문이라고 냅다 미는 성격이였다. 《가지 말라! 돌아서라!》 등뒤에서 처절하게 웨치던 박원식의 목소리가 들리는듯하였다. 양춘만은 미간을 좁히면서 눈을 내리감았다. 그럴수록 그날밤의 광경이 더욱더 생동하게 떠올랐다. 분명히 그때 박원식은 발가운데를 질러오면서 손짓을 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피타는 목소리로 불렀다. 《돌아서라!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와 같이 가자.》 양춘만은 눈을 감은채 도리질을 몇번 하고나서 눈을 떴다. 차창에는 역시 앞서 보았던 초라한 사나이가 불안한 눈으로 쳐다보고있다. 기차는 내리막이라도 만났는지 궤도의 이음새를 세차게 울리면서 달리고있었다. 《다다닥 다다닥》 하는 소리가 마치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는양싶었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소리가 뇌리에 파고든다.

차칸은 차츰 더 혼잡을 이루었다. 사리원이 가까와올수록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급격히 많아지고 말썽도 그만큼 불었다. 사람들이 왁작 떠들어대였다. 렬차는 한걸음씩 평양을 향해 점차 접근해가고있다. 그럴수록 양춘만의 가슴속에서는 두개의 상반되는 감정이 피투성이싸움을 벌린다. 하나는 평양이나 강선이 종당에는 자신을 파멸에로 이끌어가게 되리라는 극단한 비관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 환상적인 요행수였다. 그러나 그 전자에는 민기환이가 목을 달아맨다든가 인질이 어떻다든가 하는 믿지 않을수 없는 가혹한것이 놓여있어서 아무리 요행수를 바란

다고 하여도 소용이 없을것이였다. 민기환의 말이 꾸며낸 거짓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의 천분의 1만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장 피가 끓어오른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공장을 폭파시켜버릴테다.)

양춘만은 벌써부터 땀이 질퍽해진 주먹을 부르쥐고 명상에 잠겨있었다. 예방기를 해체한채 전기를 투입함으로써 변압기가 폭파되는 장면을 상상해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해도 아들 일웅이를 되찾아낼 방도가 막연한것이다.

(몰인정한자들, 야만들! 자식을 인질로 잡아두고 애비에게 강철을 만들게 한다?)

양춘만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사상과 리념이 다르기때문에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하는것을 만들어낼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수 있는가. 설혹 그것이 죄인의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박원식은 강철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식인자체를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겠다고 한다.

민기환이네가 말한것처럼 일웅이가 인질로 잡혀있다면 현대 야만들에게 결사적으로 항거할것이며 그 마당에서 목을 졸리우거나 사지가 찢긴대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고 만약 강선어방에 숨이 붙어있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뽑아내서 서울로 되돌아갈것이다. 또 그것마저 불가능하면 내 손으로 내것들의 목숨을 끊고 자결할것이다.

양춘만은 가슴이 미여지는것 같아 자리에서 훌쩍 일어나 승강대 있는데로 나갔다. 렬차는 방금 사리원을 지나 황주벌을 달리고있었다. 그는 달아오른 얼굴을 바람결에 내대고 이제부터 걸어야할 로정을 하나하나 톺아보았다. 먼저 강선에 가지 말고 중화에 있는 삼촌네 집에 들려 안해와 아이의 행처를 알아볼것이다. 그렇게 하는것이 직발 강선에 들어서는것보다 불의의 정황에 부닥치는 일이 적을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해와 아이를 만나야 하며 그다음에는 그 어데든 안전한곳으로 찾아가야 한다. 설혹 그 길이 이역만리라도 좋고 한몸이 부서져도 관계할바가 아니다. 그 과정에 어느 모퉁이를 지키고있던 박원식이나 리만석을 만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서워 억지로 대반원을 그으면서

까지 운명을 피하지는 않을것이다. 나는 다만 포로로 되거나 강압에 못이겨 움직이는 그런 비굴한 행동을 용납할수 없을뿐이다.

양춘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중화역에서 내렸다. 자그마한 역사 하나에 철길과 평행으로 뻗어나간 신작로 한끝에 초라한 농가 몇채가 모여있을뿐인 한적한 역이였는데도 지금은 사람이 많았다. 내리는 사람도 많았고 또 타는 사람도 그만 못지 않았다. 후렁후렁한 바지저고리는 벌겋게 진흙물이 들었고 채양이 주글주글한 퇴색한 중절모는 그의 눈덕까지 가리워졌다. 다만 새것대로 있는것은 등산용 배낭뿐인데 그것은 이때 무엇이나 다 돌변하기마련인 시대풍조로 보면 그닥 어색한것은 아니였다. 주색에 빠져 가산을 다 털리고 겨우 밥술이나 먹을 정도의 과수업자인 삼촌네 집은 역에서 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되였다. 마당에 들어서자 사과움을 손질하고 있던 삼촌이 대뜸 알아보고 뒤를 흘깃흘깃 살피면서 조카를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어떻게 됐니?》

키가 자그마한 삼촌 수환이는 배낭을 받아놓으며 당황해한다.

《어떻게 될거나 있어요. 그저 그렇지요.》

묻는것도 막연하였지만 대답이 또한 허황한데 그 음색들은 하나같이 처량하게 울리였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담배를 태운 다음 양춘만은 랭수를 한사발 마시고나서 물었다.

《강선소식을 좀 모르나요? 삼촌.》

《모르긴 왜 몰라. 그러니 넌 서울서 지금 오는길인가보구나.》

《그래요. 서울서 떠났어요.》

양춘만은 빠끔히 열린 방문을 우쩍 당겨 문고리를 걸고나서 나직이 물었다.

《숨이나 붙어있던가요. 일웅이랑.》

음울하게 번뜩이는 양춘만의 시선에 질려 수환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한다.

《숨이야 붙어있지. 그런데 난 듣고도 알지 못할 소리를 해서 얼떨떨해졌다.》

《어떻게 됐길래요?》

《글쎄 이야기를 들어봐라. 벌써 한 보름 됐겠는가 한데 문득 아이에미가 나타나지 않았겠니.》

《그래요? 일웅이 에미가 여기를 왔댔어요? 그래 아이가 살아있었나요?》

《아이를 업고 왔더라니까.》

《숨만 할딱할딱하는걸 보고 떠났는데 하늘이 도왔구만요.》

《하늘 덕이면 좋기나 하게. 공산당 덕이라고 하잖겠니. 아이에미가 하는 말이 공산당에서 높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고쳐주었다고 하더라.》

《공산당에서요?》 그는 이때 인질로 잡아갔다는것을 상기하면서 도리머리를 저었다. 《꿈같은 소리를 하고있수다. 그래 정신이 똑똑해요? 머리가 돌지 않구서야 어떻게 그런 소릴 할수 있어요.》

《내 애길 더 들어봐라. 아이에미가 왔다간후 사흘만에 주소성명도 말하지 않고 얼굴이 시꺼먼 한 50살 가량 난 사나이가 나타났는데 자기는 뭐 서울서 민선생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양춘만이가 혹시 여기 들리거든 말하시오 하지 않겠니. 강선에 있는 양춘만의 아들을 공산당에서 잡아갔다가 내놓았는데 그것은 양춘만을 붙잡기 위한 술책이니까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더라. 그 사람은 이제 네가 혹시 여기 들릴수도 있으니 그렇게 알려주라고 하더라. 네가 여기 온걸 보니 서울서 왔다는 그 사람 말이 옳기는 옳은것 같다.》

《두고보자. 이 간악한 악귀같은 공산당.》

그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불이 꺼진 대통만 뻐끔뻐끔 빨고있는 삼촌을 한참이나 지켜보고있던 양춘만은 서울에 있는 민기환이로부터 자기가 앉아있는 이 중화땅까지 쭉 일직선으로 그어진 련관을 생각하면서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알겠습니다. 삼촌, 내가 직발 강선에 가지 않고 여기 들린게 참 다행입니다.》

《어쨌거나 이사람.》 수환이는 문턱에 대고 대통의 재를 털면서 두툼한 입술을 비죽이 내밀었다. 《후에는 어찌됐든지간에 좌우간 다 죽었던 아이를 살려줬으면야 그게 좋으면 좋았지 나쁠거야

없잖나.》

《나쁠것이 없다구요?》

《죽었대두 할수 없는노릇인데 죽어가는걸 살려냈으니 좋은거지 뭔가. 래일은 어찌되든 오늘은 살고봐야 하는것이 인생이야.》

《아! 정신을 차릴수 없군!》

양춘만은 머리를 싸쥐면서 눈을 질끈 내리감았다. 언뜻 나타났던 박원식의 얼굴,민기환의 얼굴들이 금시 지워지고말았다.

양춘만은 하루밤 자고 그 이튿날 다시 차를 타고 평양역에 내렸다. 곧추 질러가면 반나절이면 되였지만 우정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래야 그동안의 변화를 알수도 있을것이고 길목을 지키는따위의 수에 걸리지 않을것이였다.

그는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남포행 대도로로 걸어가고있었다. 몇달사이에 많이 달라졌다. 우선 눈에 띄는것은 사처에 나붙은 붉은물감으로 쓴 구호들이였다. 광고판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담장벽에,전보대에,대문짝에 각양각색의 필체가 나붙었다.

《민족의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부터 조선광복 만세!》

《모든 힘을 민주조선 건설을 위하여!》

이밖에도 《공산당주장》이요 《녀성해방 만세》요 하는 등 갖가지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조촌 대평을 지나자 차츰 더 마음이 조급해났다. 이제 한키로 되나마나한 사이를 둔 저쪽에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있을것인가. 공산주의자들의 조폭한 《대접》일수도 있고 땅에 딩굴며 통곡해야할 비운일수도 있다. 이밖에 어떤 요행수? 그것은 상상도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환상은 너그럽기 그지없다. 쌍까풀진 눈을 가지고 언제나 조심스럽기만 하던 개성고녀출신 문학소녀였던 안해가 《왜 왔어요?》 하고 악에 받쳐 묻는다. 그런가 하면 아버지하고 눕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고 밤낮 칭얼대고 세발자전거를 벌써부터 부러워하던 일웅이가 팔을 벌리고 달려온다. 아니,그럴수 없다. 걸음마다 눈에 밟히는 안해와 아들의 얼굴을 한사코 피하면서 자석

에 끌리는 쇠붙이모양으로 그는 강선으로 강선으로 가고있었다.

어느새 해는 지고 어두워졌다. 양춘만은 주택거리어구에서 걸음을 멈추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오른쪽은 집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공장으로 통하는 길이다. 별치 않은 갈림길이지만 거기에 어떤 운명의 계선이 그어진것처럼 이쪽저쪽을 몇번 넘겨짚다가 대동강가로 내려서서 공장에 먼저 들리기로 하였다. 이른봄부터 갈새가 요란스럽게 울어대던 강기슭이 나졌다. 낚시대를 들고 자주 거닐던 곳이다. 그는 배낭을 진채로 강철로가 바라보이는 강언덕에 올라서서 발돋움을 하였다. 어디서도 야간작업을 하는 기미는 볼수 없었다. 그러나 강철로있는데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있는것으로 보아 노상 숨을 죽이지는 않은것 같다. 귀를 기울이였지만 기중기소리도 변압기에 부하가 걸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짐작컨대 동결된 로를 까내고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숨을 죽인 로를 그대로 놔둔채 경비를 서고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구실을 댈만한것은 얼마든지 있다. 기회가 좋으면 안해와 아이를 데리고 남으로 내뺄것이며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머리를 숙이고 기여들어 강철로를 복구하자고 하면 된다. 저쪽에서 반대가 없다면 한동안 성실하게 일하는척하다가 또다시 기회를 보아 정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하면 된다.)

그의 가슴에는 어느덧 평온이 깃들면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겨났으며 민기환이가 이러저러한 경우를 타산해서 제2안,제3안 하는 식으로 앞날의 행동방식을 설명해주던것이 옳다고 생각되였다. 양춘만은 다시 걸음을 돌려 오던 길을 되짚어 사택거리로 나갔다. 일본인사택마을에 린접한 둔덕에 널바자를 두른 바로 그 집에는 불이 켜져있지 않았다. 이제 문고리를 잡아당기면 휘딱 책장을 번져놓는것처럼 한 인간의 운명의 갈피가 펼쳐질것이다. 아니,빈집같기도 하다. 그렇다면 남포친정에라도 갔단말인가. 그것도 바랄만한것이 못되였다. 그렇다면? 양춘만이 이마에 땀을 돋히면서 운명의 점을 치고있을 때 벌써 그의 손은 부엌문고리를 잡아당기고있었다. 덜컥하고 문이 열리는것과 동시에 컴컴한 부엌에서는 더운 공기가 확 내불리였다. 이것은 좋은 징조다.

《여보! 있소?》

온몸을 쥐여짜는듯한 목소리였다. 순간 방안에서는 분명히 인적기가 느껴지는데 문은 열리지 않는다.

《여보! 미숙이!》

재차 불러서야 방싯한 새문짬으로 신음소리비슷한 안해의 《누구요?》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안해 미숙이는 벌써부터 온 정신을 바짝 긴장시켜 발자국소리를 추적하고있었다. 처음에는 어떤 나쁜놈이 아닌가 짐작되였다. 얼마전에는 동네녀인이 찾아와서 아주 가버린 남편을 기다리지 말고 무던한 홀애비품에 안기라고 밤새 졸라댄 일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술이 거나한 중년이 나타나 고름끈을 뜯어헤치며 달려드는것을 후날 정신이 똑똑해서 말미를 짓자고 얼려보낸적도 있었다. 고르롭지 못한 발걸음, 조심스러운 문소리, 갈린듯한, 그러면서도 상냥한 음성 그것은 남편의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얼핏 대답이 나가지 않는것은 그 남편이 안고오는 그 무엇인가가 두려워서였다. 미숙은 사이문을 열어잡고 《당신이예요?》 하고 물었다.

《음, 나요. 살아있긴 있었구만.》

《불을 켤가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소.》

양춘만은 어깨박죽을 파고들어간 배낭끈을 겨우 벗겨서 부엌마루에 짐을 밀어놓은 다음 구두를 벗었다. 안해는 흩어진 옷자락을 수습하면서 가마목에서 세면물을 뜨려고 한다. 양춘만은 안해의 팔을 움켜잡고 마루에 앉힌 다음 여태 가슴에 서리서리 엉키였던 의문주머니부터 터치였다.

《그래 어떻게 살아남았소?》

안해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면서 옷을 벗고 세면을 하라고 하였다. 생판 딴사람처럼 달라졌다. 원래 처녀시절부터 다정다감해서 별치 않은 일에도 흥분하기 잘했고 문학을 좋아했던 덕분으로 자기체험을 감탄할만치 잘 형상해내던 안해였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찾으러 올 때까지 살아있으라.》

담보없는 무모한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정처없이 떠났던 남

편앞에서 그사이에 있었던 일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이 식었는가. 아니면 너무 억이 차서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는것인가. 어쨌든 현실에 별일없이 살아있다는것만으로도 양춘만은 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였다. 방안에 올라간 그는 아래목에 널린 잠자리를 허둥지둥 짚어가면서 손더듬을 하였다. 《억?》 그는 비명에 가까운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아들 일웅이가 없는 것이다. 재차 팔을 휘저어보았지만 역시 잡히지 않았다.

《일웅이 어쨌나?》

《일웅이요?》

안해가 부엌에서 올려다본다.

《그래 내다묻었나? 아니면 평양에 인질로 또 잡혀갔나?》

탕탕 내쏘는 말마디마다 하도 끔찍스럽고 놀라와 안해는 어안이 벙벙해 서있다.

《인질이라는건 뭐예요?》

양춘만이에게는 안해의 심상치 않은 반문이 너무나 응당한것을 몰라서 묻느냐고 하는 소리로 들리였다.

《에익, 끝내!》

방바닥에 널린 이불을 휘둘러 메치며 털썩 주저앉는다. 행여나했던 그의 기대는 완전히 허무한것으로 되여버렸다. 열이 39도나 되고 숨이 할딱거리는것을 보았는데 끝내 그길로 직발 저세상으로 가고말았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질로 잡혔다는 민기환의 말이 옳단말인가. 그러면 중화의 삼촌이 하던 말은 또 어떻게 된것인가. 생각할수록 머리가 휘휘 돌았다.

그는 혹시나 해서 허둥지둥 살피면서 웃방으로 통하는 사이문을 쩍 열어제끼였다. 거기에도 일웅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도 알뜰하게 꾸려놓았던 서재는 란장판이 되였다. 서가는 텅 비였고 방바닥에는 책들이 널리였다.

《여보! 여기 책을 다 어쨌소!》

매서운 눈길이 안해를 내쏘고있지만 이것도 저것도 모두 어리둥절해진 표정으로 대하던 안해는 문지방을 잡고서서 어쩔바를 몰라한다. 까닭없이 펄펄 뛰는 남편의 미친듯한 기상에 도무지 정

신을 차릴새가 없었다.

《여기 있던 책이 어떤것인지 당신이 모르지 않겠지. 내 한생 모으고모은거요. 그래 남편이 없다고 그것을 다 내던졌단말이요.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 어느놈이 다 털어갔소? 공산당이지. 에익, 무지한것들…》

드디여 놀라움이 고까움과 반발심으로 뒤집혀진 안해는 화가 나서 팩 내쏘았다.

《당신은 정말 실성했군요. 왜 애매한 공산당한테 욕을 해요.》

《아니 네가 공산당을 두둔해?》

《중화에 있는 삼촌네가 와서 달구지에 실어다가 평양장에 가서 파지로 팔았어요.》

《뭣이?》

양춘만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하였다.

《야만이다. 야만! 아이구, 파지로 팔아?》

양춘만은 머리를 붙잡고 모지름을 쓰면서 저주를 퍼붓고있다.

미숙은 부엌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더니 찰딱찰딱 신을 끌면서 옆집으로 달려간다. 귀를 바짝 도사리고있는데 이윽해서 《일웅아! 아버지.》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양춘만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도저히 믿을수 없는 환각같은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화닥닥 일어나며 방문을 열어제끼였다. 토방밑에는 에미의 등에 업힌 아들애가 눈을 비비며 멍청히 올려다보고있다.

《일웅아!》

맨발로 마당에 내려서며 등에 업힌 아이를 훌쩍 들어올리였다.

《살았구나, 살았어!》

이것은 참말 기상천외한 일이다. 죽은줄 알았던 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나타난것이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를 부둥켜안고 빙글빙글 돌다가 방안으로 뛰여들어갔다.

《어데 우리 일웅이 옳은가 보자!》

안해는 전등을 켰다. 백광밑에 나타난 아들은 흠뻑 몸이 실해졌다. 팔목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은 희멀쑥하다. 그는 볼을 만져

보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헤쳐보았다. 아이는 아버지가 불시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을 감정에 나타내기도전에 우선 몸이 간지러워 깔깔 웃기부터 하였다. 그럴수록 양춘만은 아이를 방바닥에 딩굴려놓기도 하고 허궁 들었다 이불우에 떨구기도 하였다. 안해는 눈물이 글썽해서 남편이 노는양을 말없이 지켜보고있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뒤에야 리치를 캐게 되였던 양춘만은 왜 아이를 감춰두고 사람의 간장을 말리웠는가고 하였다. 사실은 그런것이 아니라 옆집 할아버지가 매일밤 무서운 옛말을 해주어서 재미나게 듣다가는 그자리에 쓰러져 자군했다는것이다.

《아！ 난 그런걸 모르구 이 가슴에서 뚝 하고 심장이 멎는 소리가 나더란말이요！》

양춘만은 가슴을 툭툭 치면서 그제서야 긴 한숨을 내쉬였다. 얼마간 아이와 놀고있는데 저녁상이 올라와서 양춘만은 자기가 한술 떠먹고 아이에게 한술 떠넣고 하는 식으로 장난을 섞어가며 밥을 먹고있다가 문득 옆에 앉은 안해를 쳐다보았다. 쌍까풀지고 사색적인 눈, 아직도 젊음을 잃지 않은 오동통한 볼, 그런것을 마치 처음 보기라도 하는것처럼 유심히 쳐다보면서 또 말을 건늬였다.

《그래 어떻게 살아남았소, 응？ 실로 기적이구 불가사의한 일이요. 이 공산주의가 살판치는 마당에서도 숨을 내쉴 틈바구니가 있었단말이지. 난 내가 떠나던 날 밤에 무지막지한 무리들이 당신을 친일파의 녀편네라고 전보대에 달아맬줄 알았소.》

《차츰 내 이야기를 하지요. 그럼 알수 있을거야요. 하긴 불가사의가 아닌것도 아니예요. 그래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할거 있소. 당장 이제 떠나야 해. 놈들은 술책을 써서 나를 붙잡자고 하오.》

《그렇게 하면 안돼요. 당신은 왜 자꾸 아까부터…》

《무슨 소리요. 공산당에서는 덫을 놓고 기다리고있소.》

《그럴수 없어요. 절대루 그렇지 않아요.》

양춘만은 숭늉그릇을 덜컥 놓으며 팽팽해진 눈길로 안해를 쏘아보았다. 안해는 그새 너무나 헐하게 변해버려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 이건 뭐요？》
벽에 걸린 사진액틀에 시선이 가닿았다.
《모르세요？ **김일성**장군님 초상이야요.》
《**김일성**장군의 사진을？》
《말 조심하세요.》
《말을 조심하라？ 이 방에야 우리밖에 없잖소. 그러니 당신은 벌써…》
《왜 우리밖에 없어요. 일웅이가 있잖나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일웅이가？》
《얘야, 이분이 누구시지？》
미숙이가 부드럽게 아들애에게 묻는다. 그러자 엄마아빠가 노는양을 재미있게 쳐다보고있던 일웅이가 성큼 일어나 두손을 펴들고 《**김일성**장군님 고맙습니다.》고 절을 한다.
《아니 뭐？》
양춘만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어깨를 눌러앉히더니 그길로 안해의 목을 움켜잡았다.
《그래 어느새 네가 공산당물을 그렇게 받아마셨니？ 왜 이애가 이 모양이 됐느냐말이다. 똑똑히 말해라.》
안해는 놀라지도 않았고 남편의 조폭한 언행에 대해서 분격하지도 않았다. 그래 그저 조용히 남편의 손을 내리우면서 차츰 말을 들어보라고 하였다. 차라리 이때 안해가 고함을 쳐서 반항을 하고 어떤 말로 자기를 타당화하기에 급급했더면 이렇게 순순히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을수도 있었다. 너무나 급격한 극적 변화가 그를 얼마간 얼떨떨하게 만든것이였다.

2

《나는 그사이 있었던 일을 차츰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렇게 안되는군요. 몇마디 말로는 전하지 못할 벅차고 큰 이야기

거든요.》 안해 미숙은 치마자락을 무릎밑으로 당겨놓고나서 성급히 뒤말을 기다리는 남편을 잠간 쳐다보며 침착하게 계속하였다.

《당신이 강가에 숨던 날이 그게 아마 8월 17일이였지요. 광복됐다는 그날은 전기로가 폭발됐고 그다음날은 로동자들이 일본사람들 사택마을을 습격하구요. 그날 뒤산에 있던 신사당에 불도 질렀지요. 그날밤에 두명의 로동자가 〈양기사도 왜놈 앞잡인데 어데 갔느냐.〉고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었다는걸 내가 밥을 가지고 갈밭에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나요. 그때 생각이 나시죠? 그렇게 한 열흘 지나는데 일웅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설사를 하기 시작했지요. 당신은 그때 아이가 할딱거리며 죽어가는것을 보면서도 어쩌는수없어 〈내 이제 서울로 가는데 찾아올 때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라.〉 하고는 저쪽 대동강방천길로 사라졌지요.》

《어서 말하오. 다 생각나. 내가 왜 그걸 잊겠소.》

《그담엔 아이가 눈을 뒤솟구면서 자주 경풍을 일궜어요. 옆집할아버지가 숨구멍에 뜸을 떠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한 일주일 그러고있는데 아이는 맥이 없어 물도 못받아넘기는거죠. 이제는 글렀다 하고 아이를 부둥켜안고 누워있는데 밖에서 주인 찾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얼결에 당신이 어데서 붙잡힌것으로 알고 대답도 안하고 누워있었어요. 왜놈들한테 붙어서 밥술이나 먹던것이 죄로 된다면 그 밥을 먹은 녀편네나 그 자식이 모두가 다같이 죽는것이 뭐가 그리 원통하겠나요. 차라리 그대로 총으로 쏘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맘대로 하라고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찾더군요. 죽이러 온 사람이라면 벌써 무슨 요정을 냈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온화한 말로 〈아주머니, 일어나시오.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손님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린가 하고 이불짬으로 내다보았지요. 나는 놀랐어요. 온몸이 바스러지는것 같았어요. 마당에 선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있었어요. 난 또 이불을 가리며 〈맘대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일웅아, 우린 죽는다.〉 하고 소리를 쳤어요. 얼마동안 그러고있는데 또 밖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머니, 우린 조선군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해치려고

온것이 아니라 무얼 좀 물어보자고 그럽니다.〉 라고 하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나는 숨을 죽이고 바깥동정을 살피였어요. 마당 한가운데는 풍채가 좋고 얼굴이 환한분이 서있는데 그분이 제일 직급이 높은것 같더군요. 그분이 말하기를 〈절대로 놀래우지 마시오. 양춘만기사도 그렇고 저 애기어머니도 그렇고 저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상처를 만든것은 일제놈들입니다. 강철로가 폭파된것도 가슴이 아프고 강철이 못나오는것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는 양춘만기사나 그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보시오. 저 애기어머니는 지금 죽일라면 죽이라고 하며 울고있습니다. 양춘만기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놈들에게 멸시와 차별대우를 받으며 공장을 세우고 강철을 뽑았습니다. 양기사를 찾아오시오. 어데든지 가서 데려오시오. 그래서 강철을 뽑읍시다. 이제는 내 나라의 강철을 만듭시다.〉 이러지 않겠나요.》

안해는 잠간 말을 중단하였다. 입술이 마르고 가슴이 들먹이여 더 말을 해내지 못한다.

양춘만은 숨을 죽이고 듣고있다가 불길같이 뜨거운 숨을 내쉬였다. 그러고나서 의아한 눈길로 안해를 잠간동안 쳐다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그것은 거짓말이다. 누가 꾸민 소리다.》 라고 웨치면서 모지름을 썼다.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것이다. 왜놈한테 붙어먹던 지식인에게 죄가 없다고? 그건 말이 안된다. 그건 우리를 회유하자는 술책이며 그 사탕안에 독이 있을수 있다.

《거짓말이라구요?》

안해가 깔끔한 눈으로 반문하는데 양춘만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공산당은 지식인을 가만두지 않아. 모두다 청산해버려.》

《성급하게 그러지 말고 좀더 들어보세요.》 안해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마당에 서서 같이 온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있던 그분이 우리 이 토방에 올라서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주인님이 어데 갔는지 정말 모릅니까?〉 그래 나는 숨길것도 별로 없기에 서울에 가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고 했어요. 그러니 그분은 리만석아저씨에게 꼭 찾아오도록 하라고 이르더군요. 그다음 그분은 또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건강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별일없는데 아이가 앓는다고 하니 그분은 신을 벗고 방안에 들어서서 일웅이의 머리를 짚어보는 것이였어요. 〈아니 이거 머리가 불덩이같습니다.〉 하며 놀라는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자 나는 무서운것도 두려운것도 모르게 되여 약이 없으니 고칠 가망이 없다고 말했었지요. 〈아! 이거 안되겠소.〉 하더니 공장로동조합장으로 있던 최아바이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고치도록 하라고 몇번이나 당부를 하더니 자동차에 올라 평양가는쪽으로 멀어져 가더군요.》

《여보!》 양춘만이 안해의 팔을 와락 붙잡으며 말을 중단시켰다. 《내 말을 듣소. 당신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오. 난 암만 들어도 믿을수가 없소.》

《좀더 들어보세요. 그건 이제 일웅이가 다 말할거예요.》

미숙이는 적의에 차서 퍼렇게 멍이 들었던 남편의 안색이 차차 맑아지는것을 분명히 감촉할수 있었다. 그래 그는 어떻게 하든 자기가 체험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형상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그래 우리 일웅이가 당신 말을 증명할수 있단말이지. 참말 동화같은 소리.》

《그래요. 이제 갸가 말하지 않나 두고보세요. 나는 자동차가 사라진후에도 한동안 정신을 차릴수가 없었어요. 금방 함정에서 꺼내놓은 토끼새끼처럼 사리를 분간할수 없었거든요. 말은 고마운데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것이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나는 할딱거리는 아이만 지켜보고있었어요. 리만석아저씨와 로동조합장은 샘골에 가면 우황을 좀 구할수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까 떠난 그 자동차가 되돌아오는것이 아니겠어요. 얼마간 있노라니까 앞서 그 군대가 〈아주머니, 우리와 같이 평양으로 갑시다. 아이를 살려야겠습니다. 어서 여기 타시오.〉 하지 않겠어요. 또다시 나는 얼떨떨해졌어요. 그 군대는 내가 어쩔 사이도 없이 포대기에 싼 아이를 빼어안더니 차

에 오르더군요. 같이 온 운전사가 나를 도와 옷가지를 꾸리고 문짝에 못을 쳤어요. 나는 차에 앉아 〈과연 이렇게 고맙고 인정이 있는분이 과연 누구일가.〉 하고 생각했어요. 눈물에 가려 앞이 뽀얗게 흐려져 아무것도 분간할수 없는데 그저 당신의 얼굴만이 삼삼히 떠오르더군요. 〈어떻게 하든 살아있으라.〉 하고 갈숲으로 멀어지던 당신의 그 무정한 얼굴이말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소. 그다음엔?》

《그 길로 나는 평양역전에서 멀지 않은곳 2층집으로 갔어요. 거기는 모두 푸른 군복을 입은 군대들이 있었는데 일웅이를 받아안은 그분께 모두 경례를 하더군요. 그분이 아마 거기서 제일 높은분이였던것이 틀림없어요.》

《그래,그분이 도대체 이름이 뭐요? 그것부터 말하오.》

《말하겠어요. 그때는 모두 그분을 정치위원동지라고 부르더군요.》

《정치위원? 그래 아직 그 집에 있는지 모르겠소?》

《말씀드리겠어요. 이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분은 나한테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 그 집에 있는 목욕탕에서 대수간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와보니 그분은 아래목에 아이를 눕혀놓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넣어주고있는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울컥 설음이 북받쳐 방바닥에 엎드려 울음을 터치였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흐득흐득 느껴울었는지 지금도 알수 없어요. 고마움에 대한 감격같기도 하고 어느 누구에 대한 원망같은것이 가슴을 자꾸 때렸어요. 〈아주머니,이제는 병원으로 갑시다.〉 하고 들어일구더군요. 병원에 갔어요. 구급치료가 시작됐어요. 사흘만에는 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나앉았어요. 그날이 분명 10월 14일아침이였어요. 나는 매일아침마다 아이 병세가 어떻다는것을 그 2층집에 찾아가 박원식이라는 군대한테 알려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아시게 된다는거예요. 이날도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더니 글쎄 그분께서 군복을 벗으시고 넥타이를 매는 제낀 옷을 입고 마당에 나서시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나는 놀랍게 쳐다보기만 하고있는데 먼저 〈그래 일웅이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시더군요.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올리니 〈그러면 됐소. 이제는 마음이 놓이오.〉 하시며 무척 기뻐하시였어요. 〈참말 기쁩니다. 이제는 내가 일웅이 아버지를 만나도 체면이 서게 되였습니다.〉 참말! 육친인들 어떻게 이럴수가 있겠나요. 나는 손가락을 깨물면서 울지 말자, 울어서는 안된다고 다짐했지만 끝내 울고말았던거예요.》

《여보, 당신 말이 진정이겠지?》

《내 말보다는 일웅이 말을 들어보세요. 일웅아!》

미숙이는 아버지 가슴에 파묻혀있는 아이를 일궈세우고나서 물었다.

《일웅이 앓는거 누가 고쳐주었나요?》

이제 세살 잡히는 일웅이는 거침없이 《**김일성**장군님입니다.》 하며 벽에 모셔진 초상화를 가리키였다.

《**김일성**장군!》

양춘만의 굳어졌던 입에서 한껏 근엄한 감정이 담긴 외마디소리가 튀여나왔다. 뒤이어 그는 아무말없이 그이의 영상을 쳐다보았다.

《저 사진은 나를 만났던 그날 그길로 나가시여 개선연설을 하신 사진입니다. 바로 그분이 **김일성**장군님이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 말을 믿으시겠나요? 나는 옹근 보름만에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후에도 박원식이라는 그 군대가 며칠에 한번씩은 꼭 찾아와서 아이몸은 어떤가, 아버지소식은 없는가, 먹을것은 떨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문안을 합디다. 그때 나한테 장군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양춘만기사는 꼭 돌아옵니다. 여기는 처자가 있고 제가 땀흘려 만들어놓은 강철로가 있습니다. 꼭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거예요. 난 그 말씀을 믿고 오늘까지 기다렸어요. 당신이 석달이 아니라 3년, 30년을 지체한대도 나는 기다렸을겁니다.》

미숙이는 소매자락으로 눈굽을 찍어내였다. 여태 참고참았던 격정이 가슴을 채우고 넘쳐나는것이다. 비록 석달이긴 하지만 수십년에 맞먹는 곡절을 겪었고 너무나 극단한 감정체험을 하였기때문에 그것을 상기하는것만으로도 온몸이 통채로 흔들리였다. 한편 양

춘만은 빚어세운듯이 꼿꼿이 앉아서 장군님의 초상을 이윽토록 쳐다보고있다가 방바닥에 털썩 쓰러지였다. 그는 몸을 비틀어짜면서 머리를 방바닥에 사정없이 굴리였다.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이발을 굳게 다물었다.

무어라고 연방 중얼거렸지만 옆에서도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다만 이따금씩 《장군님!》 하기도 하고 《못난 지식인》 또는 《용서》 이런 토막난 말마디들이 방바닥에 흩어질뿐이였다. 양춘만은 자기가 지금 어떤 몸가짐을 하고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가 의식한것은 그의 시야를 꽉 채우는 장군님의 영상앞에 엎드려 사죄하고싶은 생각뿐이였다. 너무나도 갑자기 거꾸로 서는것이다. 모든 잠재의식이 졸지에 뒤집히고 만것이였다. 인생관이라고도 할수 있고 생존방식이라고도 할수 있으며 처세술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 분야에서 양춘만은 결코 미련하지 않았고 어리석지 않았으며 치졸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약점이라면 약점일수 있는 우유부단성과 타산의 다면성이 얼마간 있을뿐 그는 명석한 판단과 랭철한 리성을 가지고 결코 덤비는 일이 없이 침착하게 앞날을 내다보았으며 자기 방위를 항상 정확하게 판정하고 행동했었다. 때문에 그의 결심은 생의 단 한걸음을 내떼는 경우에 있어서도 언제나 면밀하게 타산된것이였기때문에 그 각도나 방법을 얼마만이라도 수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의 온 리성을 흔들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하물며 그것이 반대의 경우, 우가 아래로 되여야 하고 결합과 분리가 순서바꿈을 해야 하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참으로 생명을 내댈만한 용감성이 필요하였으며 그의 재생이거나 새 출발과 같은 과단성이 요구되였다. 이것은 한생이 걸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몇해는 걸리는 축적과정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론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저함이 없이, 계산도 필요없이, 체면과 처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장군님 앞에 머리를 숙이였다.

《아! 장군님!》

그는 고개를 번쩍 들고 다시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고있다.

《이 죄많은 인간을 용서해주십시오.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 박원식이 서울까지 찾아왔는데 저는 그를 속였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는 방바닥을 두드리며 이러루한 푸념을 거듭하였다.

날이 밝아 방안이 환해졌다.

장군님의 영상이 더욱더 뚜렷이 안겨왔다. 그이께서는 손을 높이 쳐드시고 《어서! 여기로 오라!》 하고 부르고계시는것 같았다.

3

박원식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그렇게도 걱정거리로 되였던 쌀은 예정했던대로 10개 차량에 그득그득 실어놓았다. 5개 차량은 정미한 쌀이여서 유개차에 실었고 그밖의 5개 차량은 벼이기때문에 무개차에 싣고 풍을 씌우고 단단히 졸라매였다. 박원식은 맨 꼬리에 달린 무개차꽁대기에 자리를 정하고 벼짚과 가마니로 푹신하게 자리도 만들어놓았다. 첫추위치고는 좀 늦은셈인데 그대신 날씨가 맵짜고 바람이 몹시 불었다. 그러나 박원식은 상의앞자락을 헤쳐놓고 신바람이 나서 왔다갔다하였다. 맨앞에 나가 기관사에게 기술상태가 어떤가 알아도 보고 맨뒤에 달린 차장칸에 가서 늦어서 래일 낮쯤해서는 꼭 평양에 들이대자고 약속도 하였다. 이제는 기적을 요란하게 울리고 해주역을 떠나면 모든 시름을 내던지고 여봐란듯이 평양에 들어서게 될것이였다. 아! 그렇게도 목마르게 기다리던 쌀이 이제 그들앞에 차례지게 된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쌀때문에 일어났던 가지가지 사건들, 그것을 둘러싸고 벌리였던 론쟁들, 그것때문에 악다구니질이 벌어지고 그것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성이 시험되였으며 그것때문에 정치사업에 큰 파문이 일어났던것을 회상하였다. 물론 이 한개 렬차의 식량은 필요한 량에 비하면 바다에 한바가지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눈석이물의 한바가지이다. 이제 쌀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는 차츰 가셔지게 될것이다. 박원식은 차방통에서 다시 뛰여내려 기관차

에서부터 4개 련결시킨 무개차량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가마니가 실려있었는데 그 꼭대기에 사람이 잔뜩 매달려있었다. 이제 차가 떠나기만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알수 없는것이다. 사람들이 차츰 쌀을 실은 유개차지붕에 옮겨올수도 있고 또 가마니에 불이 달려 난판을 벌릴수도 있다. 그는 철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절대로 뒤계선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특히 담배불을 조심해야 한다고 루루히 주의를 주었다. 그런 다음 평양에서 같이 온 호송원들을 한방통에 하나씩 배치하였다. 유개차는 방통안에서 지키고 무개차는 짐짝우에서 감시하기로 하였다.

《어！ 박원식동무！》

밑에서 고함소리가 날아올라왔다. 군복차림인 유격대 군의 리봉수아바이였다.

박원식이 내려갔을 때 리봉수는 어깨를 툭 치며 《그래,이만하면 되겠나？》 하고 물었다.

《만족입니다. 난 고작해서 한 댓개 가져가게 될것으로 짐작했었지요.》

《첫술에 배부를수야 없지. 이달안으루 몇탕 더 하세. 여기보다는 안악,재령이 기본이야. 거기서는 좀 넉넉히 나올것이 예상되네.》

리봉수는 자신만만해서 장담을 하였다.

리봉수가 장군님으로부터 식량문제에 대해서 전화지시를 받은것은 전달 10월중순경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평양시민들과 함경남북도,평안남북도 탄광,광산들에서 식량이 떨어져 큰 곤난을 겪고있다고 하시면서 농민들의 여유곡물을 수매해도 좋고 성출미로서 자원적으로 내게 해도 좋으니 정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들이대라고 하시였다.

해주시에 나가있던 첫 파견원인 리봉수는 별로 자신이 없는 목소리로 해보겠노라고 대답을 했었다. 유격대에서 계속 군의로 복무한 그는 그런 규모가 큰 정치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일단 농민들속에 들어가 첫 걸음을 떼니 상상외로 성과가 있어서 한 스무날사이에 수백톤의 성출미를 모을수 있었다. 바로 그

것을 장군님께서 절실히 필요한곳에 쓰시게 된다니 그는 더없이 기뻤다.

《우리가 부암동이나 요영구, 처창즈들에 식량을 보낼 때도 기분이 이랬었지.》

리봉수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여 못내 좋아하였다.

《그건 그렇구, 봉수아바이. 아무리 애착이 있어두 군복은 벗어야겠습니다. 우린 평양서 사령관동지께서 개선연설을 하실 때 사복을 갈아입으신것을 계기로 다 이렇게 입고있습니다. 한 10년이상 습관돼있어서 처음엔 좀 헐적한게 긴장이 풀리는것 같더란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것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군중성이 더 있구.》

《알만하네. 언제 또 오겠나? 그런데 다리치료를 잘해야겠소. 이제 가면 좀 쉬라구. 그러다가 통세를 내면 고생해.》

평산벌에서 부상당한 다리를 념두에 두고 하는 소리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봐가다 인차 또 오지요.》

그때 기적소리가 울리면서 덜커덕하고 차방통들이 자리드팀을 하였다. 박원식은 리봉수를 와락 그러안으며 볼을 문대였다. 눈물이 글썽해지기까지 한다. 날렵한 동작으로 벼가마니방통에 기여오른 박원식은 손을 흔들어 리봉수와 함께 해주를 작별하였다.

렬차는 기분좋게 해주벌을 빠져서 신원쪽으로 달리였다. 개인전호모양으로 움푹하니 자리를 만든데 들어앉은 그는 담배를 피울가 하다가 그만두고 웃설미를 한 가마니를 들썩해놓고 무개차를 감시하였다. 누구든 쌀방통에 얼씬만 하면 고함을 쳐서 물리쳐야 하는것이다. 한시간나마 내다보았지만 별일 없었다. 그렇게 되자 그는 전투가방에 넣어두었던 나무토막과 접이칼을 꺼내였다. 나무토막은 대체적인 륜곽이 잡혀있어서 이제 인차 권총으로 완성될것이 알리였다.

이제 태엽장치를 해서 치차가 돌아가면서 련발로 소리가 나게 할 작정인데 이것저것 부속이 맞갖잖아 여태 애를 먹고있었다. 그는 가방에 손을 넣어 물큰한 쵀기밥덩이를 한쪽에 내놓고 이번에는 곰을 하나 집어내였다. 아직 손댈 여지가 좀 있기는 하지만 입을 벌리고 앞발을 든 고놈은 참말 재미있게 생겨먹었다. 영이라는 네

살잡이 사내애가 이 곰새끼를 받아쥐면 입이 터진 팔자루가 될것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인동이만은 만나기만 하면 그저 《아저씨, 권총 달라.》인데 이번에도 퇴방을 맞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장군님께서도 《하나 만들어보지.》라고 말씀하시였기때문에 야단은 야단이다…

박원식은 나무를 깎았다. 하얀 칼밥이 튕겨나면서 볼과 코등을 다치고 어깨너머로 날아간다. 그러나 이 감미롭고 야릇한 동심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바로 이 길, 쌀로 인한 해주왕복에 대한 본래의 생각에로 인차 되돌아가고말았다.

김일성동지로부터 황해도에 가서 쌀을 가져오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은후 인차 한명구가 떠날 차비를 하였다. 한명구는 장군님의 지시를 자기가 직접 접수했기때문에 자기가 갔다와야겠다고 우기였다. 그때 박원식이 기관차수리를 다그쳐서 렬차운행을 정상화하라는 지시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자 입이 딱 막혀버렸다. 쌀수송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있지만 기관차수리는 그렇게 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였다. 이렇게 되여 박원식의 안대로 해주에는 자기가 가고 한명구는 시급히 기관차수리작업에 달라붙게 되였었다.

박원식은 지금 나무를 깎으면서도 자신이 제기한 안이 적절했다는것을 다시금 느끼고있었다. 그것으로 해서 그는 가슴이 부풀만치 흥분되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배려를 자신이 직접 집행하게 된다는 남다른 긍지가 가슴가득 차있었던것이다. 눈내리는 밤길, 그것도 적탄이 귀부리를 스치는 그 삼엄한 길을 걸으시여 기관구에까지 가셔서 친히 과업을 주신것이다.

이제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쌀을 실어왔습니다.》하고 보고드리면 《수고했소.》 그것으로 끝날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그 한마디 말씀속에 혁명가들의 사업과 생활의 빛나는 자취들이 하나하나 생겨나는것이다. 그것이 사슬처럼 련달려 일생을 이어놓게 되였을 때 혁명하는 사람들은 웃음을 짓고 최후를 맞을수 있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칼질을 하는데 넙적다리가 모질게 쿡쿡 쏴났다. 참아볼가 했지만 참을수 없이 통세가 났다. 해주에서 유격대

군의 봉수아바이가 자꾸 보자고 해서 처치를 받았는데 그 약독이 아닌지 모르겠다. 그는 칼이며 총가목이며 나무판대기들을 한쪽에 치워놓고 상처자리를 풀어헤치였다. 총탄 들어간 자리와 빠져나간 자리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솜으로 진물을 찍어내고 이번에는 좀 헐럭하게 붕대를 감았다.

렬차는 역시 자기 관습대로 매개 역을 하나씩 톺아나가면서 사람들이 내리고 또 타기도 하고 숱한 짐짝이 상하운동을 거듭한끝에 이미 한숨돌리기로 예정한 신원역 구내에 들어섰다. 여기서 기관차에 물을 넣고 석탄을 보충하며 차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겼다. 오늘아침에 급수뽐프가 완전히 소각되여 급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세상에 제일 흔한것이 물인데 물이 없어 차가 못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박원식은 기름이 게발린 모자를 삐딱하니 올려놓은 이 역의 어느 한 철도 종업원청년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러니까 화주인 당신 맘대로 하라잖소. 우리 철도에서는 뽐프가 있어야 급수를 하게 돼있소. 기관차가 뭐 당신네 놀음감인가 하오? 자그만치 초롱으로 천개를 길어와야 하오, 천개. 알겠소? 세상에 제일 흔한게 물이라고? 철딱서니없는 수작…》

박원식은 뽐프장에 들어가보았다. 거기서도 숱한 사람들이 왁작 떠들고있다. 어제밤까지 쓴 뽐프가 몇시간사이에 이렇게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것은 외부작간이다, 반동의 암해행동이다, 별의별 해석과 규명과 규탄이 쏟아져나왔지만 실태를 변경시키지는 못하였다. 결국 전동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예비가 어데 있으며 설사 있다 해도 두세시간으로는 안된다.

박원식은 자기 주위에 웅기중기 모여선 사람들을 한번 쭉 둘러보았다. 무슨 수가 나야지 이 복잡한 역구내에 쌀차량을 그대로 세워둔다는것은, 그것도 언제 떠나게 될지 기약할수 없이 세워둔다는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였다. 그는 자기옆에 선 청년에게 시선을 멈추었다. 하루 이틀에는 불가능하다는 한심한 결론을 하고있지만 그래도 그 청년이 아는 소리를 하는것 같고 또 그를 평양기관

구나 검차구에서 본것 같은 기억이 있기때문이였다.

《동무 생각엔 어떻게 하면 좋겠소?》

박원식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다른수는 없지요. 평양에 가서 예비모타를 가져오는수밖에요.》

《예비모타가 어데 있소?》

《가서 찾아봐야지요. 보선구나 전기구에 있을수 있지요.》

《동무는 평양철도에 있지 않소? 내 본것 같은데.》

《검차구에 있지요.》

《검차구? 여긴 왜 왔소?》

《두루두루 볼일이 있어서요. 난 차바퀴외는 상관없어요.》

모두다 쓴입을 다시며 헤여져간다. 역구내에서는 차가 못가게 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짐짝들을 들고 지고 사방으로 손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한때는 죽을 기를 써가며 매달리던 그들이 이제는 보따리를 이고지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걸직한 상욕을 퍼부으며 멀어져가고있다.

박원식은 전투가방을 쌀방통에 훌쩍 올려던지고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역장실로 달려갔다. 전화통에 매달려 평양철도국장을 찾았다. 선로상태가 불량했기때문에 혼선이 생기는가 하면 평양교환이 나오기는 했지만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한 15분 걸려서 겨우 한명구와 통화할수 있게 되였다.

《예! 열방통을 끌고 지금 신원역에 왔습니다.》 박원식은 온 방안이 즈릉즈릉 울릴만치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급수를 할수 없습니다.》

한명구는 이미 보고를 받았기때문에 앞질러 알려주었다.

《오늘밤에 뽐프모타를 보내니까 래일 올라오시오.》

《빨리 보내주어야지 차가 서있으면 도적놈들때문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할수 없지요. 뽐프모타는 그이상 빨리 못갑니다. 차가 없어요.》

박원식은 손맥이 풀리였다. 간데마다 다그쳐서 예정한 시간에 평양에 대리라던 계획은 파탄되고마는것이다.

《그런데요, 파견원동지! 여기 강선의 리만석동무가 지금 와 있습니다. 양춘만을 찾아다니던중인데 중화에 있는 삼촌네 집에 와 있다고 합니다.》

《뭐요, 양춘만이가?》

박원식은 눈이 커지며 다그쳐 물었다.

《중화에 있는 삼촌네 집인데 과수발주인이라고 합니다. 역에서 등성이를 하나 넘으면 양수환이라는 령감이 있답니다.》 말을 잠간 중단하고 뭐라뭐라 하는것을 보면 전화통옆에 리만석이 있는 모양이다. 한명구는 다시 계속하였다. 《분명히 그 집으로 들어가는걸 본 사람이 있다는데 그 길로 떠났다고 우기더랍니다. 그래 강선으로 가는 길목을 지켰는데 거기룬 가지 않았답니다. 그러니 그 집에 숨어있을수 있다는거지요. 혹시 평양에 들어왔을수도 있구 어찌다가 서울로 되돌아갈수도 있는거구 하여간 그리 아시오.》

한명구의 말로는 성차지 않아 그는 리만석을 바꾸어달래서 다시 설명을 들었다. 한명구가 전하는 말과 차이가 없었다.

《어쨌든 와서 의논합시다. 거기서는 어쩌는수가 없으니까 모터는 틀림없이 밤차에 보내겠습니다.》

박원식은 역장실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모터가 오기를 기다릴수도 없었다. 《양춘만이 중화에 왔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테다. 그러자면 한시바삐 가야 한다.》 그는 혼자말을 하면서 역구내로 달려나갔다. 아직도 역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있었다.

흑곤색작업복차림을 한 박원식이 사람들앞을 막아서며 《여기 좀 서시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하고 팔을 내흔들었다.

《이건 또 어데서 나타난 연설쟁이야?》

《여보! 우린 기차가 못가서 밸이 꼴렸단말이요. 당신이 무슨 수가 있소?》

《웅근 하루 굶어서 아무 생각 없다.》

중구난방으로 악담이 쏟아진다. 광복바람에 한껏 들뜬 기분이 나쁜것을 당할 때는 누구나 이렇게 영악해진다. 그러거나말거나 박원식은 모자를 벗어 휘두르며 모이라고 소리친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이제 알아보니까 급수모터가 타서 차에 물을 댈수 없습니다. 이대로 두면 차가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반동놈들은 우리의 철도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악착한짓을 했습니다.》

《여보! 여보! 알만한데 무슨 수가 있는가 그거요. 그걸 말하오.》

《옳소!》

모여선 사람들이 웨치였다. 영문을 모르고 모여온 백여명 사람들이 왁작 떠들어댔다.

박원식은 도람통꼭대기에 훌쩍 뛰여올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못가고 주저앉으면 좋아할건 반동놈들입니다. 기관차에 초롱으로 1,000개의 물을 넣으면 갈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저 앞개울에서 길어올리는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원으로 한명이 10개씩 길으면 됩니다. 물초롱은 우리가 이 거리에 들어가 하나씩 빌려옵시다. 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늦잡아도 2시간후면 떠나게 됩니다. 오시오.》

옳다느니 밸빠진놈의 수작이라느니 여하튼 입가진 사람들은 모두 한마디씩 씹어대면서 와야 박원식의 뒤를 따라나섰다. 그가운데서 누군가 한마디 하였다.

《물을 긷지 않는 사람은 태우지 않겠습니다. 차탈 사람만 따라오시오.》

그바람에 와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혼잡속에 또 하나의 혼잡이 겹쳐진것이다. 숱한 사람들이 벌떼 흩어지듯 인가에 찾아가 물초롱,물동이,어떤 사람은 세면대야 등을 얻어들고 개울에서 물을 길어올리였다. 박원식은 흘끔흘끔 쌀방통을 감시하면서 물지게를 지고 강언덕을 달려내려가고 달려올라왔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였다.

《자! 보시오. 하면 됩니다. 천개는 잠간에 됩니다.》

그는 바로 이런 방법을 사동탄광에 가서 써먹은적이 있었다.

갱도에 물이 차서 막연해있을 때 먼저 물탕에 들어서서 선소리를 치면서 석탄물을 퍼올렸다. 그래 갱도 하나를 살리는데 9일간

밤낮 초롱으로 물을 퍼내고 고열탄을 져내서 기관차연료로 쓰게 했었다.

물초롱을 들고 절뚝절뚝 다리를 절면서 둔덕을 톺아오른다. 온몸이 물에 젖었다. 아니 땀에 젖었다. 이마에서 땀이 흘러 턱밑에서 뚝뚝 떨어지고 눈앞에서 별찌가 날았다. 그러나 그는 입술을 짓씹으면서 참고 견딘다. 다리는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고 온몸으로 찌릇찌릇 아픔이 뻗어나간다. 물초롱을 든 팔이 떨리더니 그 다음에는 성한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하늘이 빙그르르 돌았다. 박원식은 통나무 자빠지듯 맨땅에 쓰러졌다. 얼굴을 땅에 박은채 인차 쳐들지 못하는데 물이 온몸을 적시였다. 어느 한 청년이 달려와 그를 부축해 일으켰다.

《동무는 힘이 진했소. 좀 쉬오.》

청년은 앞자락을 쥐여짜주면서 돌등에 앉아있으라고 하였다.

《아니, 힘이 진한것이 아니요. 돌에 발이 걸채였소. 에익.》

박원식은 고개를 흔들며 웃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웃음이 아니라 고통을 참는 모지름이 그려졌다.

《아니 이거, 바지에 피가, 이게 웬거요. 다쳤구만요.》

청년은 당황해하면서 가랭이를 걷어올리였다. 우에서부터 발뒤축까지 뻘겋게 되였다.

《일없소. 거기에 그러루한 구멍이 하나 있소. 동무, 날 버려두고 빨리 물을 길으시오. 자, 어서.》

박원식은 청년의 등을 떠밀었다. 사연을 알수 없었던 청년은 두세번 뒤를 돌아다보며 물초롱을 들고 철뚝으로 올라갔다. 박원식은 초롱을 집어들고 강가로 되돌아내려갔다. 한걸음 옮기재도 칼로 다리를 도려내는것 같은 통세가 났다. 그러나 자기가 주저앉고나면 군중들이 흩어질것 같아 그는 이를 사려물고 구령을 쳤다.

《앞으로! 하나, 둘.》 입술을 씹어 딸기즙같은것이 턱으로 흘러내리였다. 《또 하나, 둘.》 신바닥에 꿀쩍꿀쩍 피가 고여올랐다.

《여러분! 잠간이면 됩니다. 기운을 내시오.》

한쪽손을 머리우에 쳐들고 고함을 질렀다. 몸은 부서지는것 같

았다. 그러나 기차손님을 선동해서 반동들과 맞서 싸운다는것은 매우 통쾌한 일이였다.

《자! 벌써 절반 찼습니다. 제꺽 30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군중들도 기세가 올랐다. 참으로 막연하던것이 그래도 앞이 보이게 되니 통쾌하였다. 무작정 차가 못가고보면 사실 큰 고생을 살것이였는데 요행 패기있는 한 젊은이의 발기로 급한 목을 피하게 되였다.

《그 젊은이가 인재는 인재로다. 광복이 되니 여기저기서 제갈량이 뛰쳐나오는판이야.》

《그러기다 꿀벌들도 왕벌을 중심으로 뭉친다는거요.》

《알고보면 아무것도 아닌 수수께끼요. 천초롱의 물이니 백명이서 열초롱씩이라는 계산이지.》

탕크에 물이 차넘칠 때 사람들은 손을 들어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렬차는 이미 예정한것보다 약간 늦어서 낮 1시 30분에 기적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면서 구내를 벗어져나갔다. 손님대접을 받을수 없었던 승객들이 방통우에 아무렇게나 앉은채로 《광복덕에 별일을 다 당해본다.》 하며 아무데나 대고 모두 손을 흔들고있었다.

4

신원을 떠난 렬차는 차츰 기세가 죽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달팽이걸음을 하기 시작하였다. 석탄이 나빠서 김이 잘 오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렇게 되여 사리원까지 도착하는데 옹근 하루가 걸리였다. 이제 한고비만 잘 넘기면 황주, 중화 그다음에는 평양에 들어설것이였다. 한데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직 며칠이 걸릴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박원식은 별로 초조해하는 기색도 없이 참을성있게 수첩에 적어넣은 수십개의 역을 하나하나 찍어나가면서 쌀방통을 지키고있었다. 다만 걱정거리는 해주에서 꾸

려주던 쾌기밥을 다 먹어치웠기때문에 배를 채우는 문제였다. 원래 식성이 좋아 군대밥통 하나론 한끼에도 성차지 않은 그였는데 그것을 세번에 갈라먹고도 쌀이 다 떨어졌다. 그래 기차가 멎으면 수도칸에 달려가 랭수만 한배 채우군하였다.

《군대동무! 우리 떡을 한개씩 해보지 않겠어요?》

기름모자를 쓴 청년이 보자기를 헤치며 권하였다.

《난 떡을 먹지 않아.》

그것은 거짓말이였다. 그는 하도 떡을 좋아했기에 떡보라고까지 불리웠다.

《아니 그럼 빵도 안먹는대 떡도 안먹는대. 그럼 엿은 어때요?》

《엿? 엿도 좋아 안해.》

《그럼 옹근 하루 굶었는데 그 타고앉은걸 퍼내서 한통 끓이지요.》

《내 걱정은 마오.》

이런 식으로 청년의 유혹을 물리쳤다. 급수모터가 타는 아짜아짜한판인데 떡이나 엿에 독이 들지 않는다고 누가 담보하겠는가. 여태 쌀수송에서 사고없이 지낸적이 한번도 없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는터이였다.

《군대동무! 그럼 우리 흑교쯤 가서 국수 한그릇씩 제낍시다.》

청년은 주눅이 좋게 치근거린다. 그는 검차원이라고 하면서 역에 설 때마다 방통에 기여올라와 이런저런 수작을 늘어놓는것이였다.

《동문 내가 누군줄 알고 군대군대 하며 그래.》

《시치미를 떼지 말라요. 다 알아요. 군대동문 **김일성**장군님 부하지요.》

《하! 점점 한다는 소리가.》

이야기가 시작되였다. 청년은 어찌된 일인지 긴 한숨을 쉬고나서 불쑥 《저번날 보니까 **김일성**장군님은 정말 인정이 많으신분이던데요.》 하고 박원식을 쳐다보는것이였다. 그래 박원식은 《그렇소.》 하고 철도공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장군님께서는 14살에 압록강을 건느신 그때로부터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는데 사상과 리론이 명철할뿐만아니라 덕성이 또

한 높은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모신다고 하였다. 먼 실례를 들 필요가 없었다. 얼마전에 강선제강소에 가셨는데 양춘만이라는 기사가 왜놈들에게 복무한것이 가책이 되여 서울로 도망치고말았다. 집에는 세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급병에 걸려 다 죽어가는것을 장군님께서 평양에 실어다가 치료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그래요?》 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였다.

박원식의 말을 들으면서 청년은 앉은 자리가 불편한것처럼 여러번 자세를 바꾸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아！ 그렇군요.》

청년은 자리를 뜨면서 같은 말을 두번이나 반복하였다.

침울한것 같기도 하고 큰 의문에 질린것 같기도 한 청년의 심상치 않은 눈길을 보면서 박원식은 신경을 팽팽히 긴장시켰다.

어느 역엔가 기차가 또 멎어서자 청년은 괴상한 몸가짐을 해보이면서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한명구국장을 만날수 있고 또 허리가 잘룩하고 어여쁜 애인도 만나지요.》 하고 지나가는것이였다.

이것은 분명 어떤 징조이다. 징조가 아니라 로골적인 도전일수도 있다. 박원식은 한껏 긴장해져서 옆구리에 찬 권총을 다시 확인하였다. 또 날이 어두워졌다. 밤은 그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다. 아무데서나 차방통에 기여올라 벼가마니를 내리굴릴수 있기때문이다. 그는 벼가마니를 밟으며 5개 차량을 다 순회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렬차는 흑교역에 들어섰다. 이제 한고비만 넘기면 곧 중화벌이 나질것이였다. 흑교역을 떠나 한 5분 달리는데 철길 량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얼찐얼찐하였다. 그것이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내려다보는데 렬차는 차굴에 들어가고말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육감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있다는것을 감촉하였다. 차굴에서 빠져나온 렬차는 증기와 연기를 온통 뒤집어쓰고 헐떡헐떡 구배를 톺아오르고있었다. 그때 또다시 사람그림자가 얼씬하였다. 짐작컨대 철길옆에 숨었던 괴한들이 차가 굼뜨게 움직이는 길목에서 방통에 기여오르는것 같았다. 박원식은 벼가마니우를 벌벌 기여 앞으로앞으로 나갔다. 호송원들에게 알려 도

적을 물리쳐야 하였다. 첫번째 방통은 별일 없었다. 두번째도 무사하였다. 세번째도 역시 별일 없었다. 네번째 련결부에서 이상한것이 눈에 띄였다. 검은 형체들이 올라붙었는데 우로 기여오르지는 않고 련결부의 삥을 뽑고 압축공기호스를 떼려고 하고있다. 놈들은 한두개의 벼가마니를 노리는것이 아니라 몇개 방통을 떼내자는것이다. 박원식은 전지불을 비쳐대면서 고함을 질렀다.

《누구얏! 물러나라.》

아래놈들은 한번 피뜩 올려다보더니 더 극성스럽게 망치질을 하고있다. 삥이 뽑히지 않아 애를 먹는 모양이다.

《물러나지 않으면 쏘겠다.》

박원식은 겨드랑밑에 찼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때 유개차지붕우로 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두개의 그림자는 능숙한 동작으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있었다. 그들도 이쪽놈들과 한패인것 같았다. 우선 방통을 떼자는놈들을 제압해야 하였다.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으면 쏘겠다!》

두번 세번 네번 거듭하다가 끝내 박원식은 권총을 허공에 올려대고 공포를 놓았다.

급해맞은 괴한들은 철뚝으로 내리굴었다. 박원식은 방통우를 달려나가면서 또다시 공포를 놓았다.

《따당!》

야음을 째면서 총소리가 울리였다.

렬차는 별일없이 곧 중화역에 들어섰다. 박원식은 평양역사정때문에 렬차가 한시간가량 서게 된다는것을 알게 되자 곧 쌀을 호송하던 경비인원을 차장칸에 불러 다시 주의를 주었다. 그 누구도 쌀방통에 접근시켜서는 안된다는것과 이제 한시간후이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니 긴장해서 경비를 서라고 하였다. 뜻밖에 놀라운 사건에 부닥쳤던 박원식은 요행 그것을 무사히 넘길수 있어 얼마간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마의 땀을 훔치며 그런 정도로 수습되기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동켠이 희붐히 밝아오는것을 보면서 양춘만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 그가 물을 길으면서 시

간을 다그친것은 쌀을 빨리 운반하자는데도 있었지만 양춘만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는 역에서 나와 한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물어 양수환네 과수밭을 향해 올라갔다. 수수더미가 듬성듬성 서있는데를 지나는데 언덕밑에서 키가 껑두룩한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뒤미처 또 하나의 그림자가 얼씬하였다.

박원식이 흠칫 걸음을 멈추는데 저쪽에서 먼저 권총을 발사하였다. 두방의 총소리가 미명을 안은 하늘을 흔들었다. 그것은 철도공장에 있던 《집게다리》였다. 렬차방통을 떼서 혼란이 빚어지는 틈에 갈기려고 했던것인데 그것이 실패하자 양춘만을 만나러 가는 길목을 지켰던것이다.

박원식은 허공을 붙잡으려는것처럼 팔을 펴고 허우적거리다가 밭뚝에 털썩 쓰러졌다. 뒤미처 또 한방의 총소리가 울리였다. 이번에는 《집게다리》가 허리를 붙잡고 딩굴었다.

사고현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5

김책이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철도에 한명구 보고합니다. 해주에서 쌀이 도착했습니다.》

《아！ 쌀이요？ 얼마나？》

김책은 자리에서 펄쩍 일어나며 환성을 질렀다.

《10개 방통입니다. 5개는 정미한 쌀이고 5개는 벼입니다. 그런데 김책동지！ 사고가 났습니다.》

한명구의 음성은 부르르 떨었다.

《사고라는건 뭐요？ 쌀이 다 왔는데.》

《박원식동무가 총에 맞았습니다.》

《뭐, 박원식동무가？》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량쪽 수화기에서는 유도음이 얼음장처럼 굳어진 청각을 아프게 자극할뿐이였다. 이윽해서야 코멘

소리로 한명구가 자세한 정황을 보고하였다.

박원식은 의식을 잃은채 병원에 누워 구급처치를 받고있었다. 김책은 급히 **김일성**동지께 보고를 올리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뒤미처 **김일성**동지께서 병실안으로 들어서시였다. 환자는 수술을 끝내고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그이께서는 방안사람들, 의사들과 간호원 그리고 한명구와 김책의 표정을 쭉 일별하신후 박원식이 누운 침대가까이로 다가가시였다. 백포밑으로 손을 넣어 상처를 받았다는 가슴을 만져보시였다. 가슴에서 배로 그다음에는 허리로 옮겨갔다. 또 다음에는 오른쪽다리 다시 그다음에는 왼쪽다리를 쓸어만지시였다.

《김책동무! 상처는 가슴에만 있다고 했는데 이 넙적다리는 왜 처맸소?》

그이께서는 백포를 쳐들어보시였다.

《그건 서울에 갔다오다가 평산벌에서 총에 맞은것이라고 합니다.》

《평산벌에서, 그러니 양춘만을 따라가다가 그랬구만.》

《그렇습니다.》

《그런걸 내가 왜 다리를 저는가 하니까 길을 많이 걸어 발이 부르텄다고 했소.》

그이께서는 의자에 앉아 백포밑으로 다시 손을 넣어 박원식의 팔을 붙잡으시였다. 손에서는 따스한 온기가 미쳐왔다.

《박원식동무! 기운을 내오. 수고했소. 수고했단말이요.》

그이의 음성은 갈수록 차츰 더 갈리면서 나중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을수 없게 되였다. 잠든듯이 누워있는 박원식이 무엇이라고 했던들 들어낼수 없다는것을 모르지 않으시였지만 그이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북받치는 울분과 비애와 그 절통한 감정을 이겨내실수 없었던것이다. 그이께서는 벌써 방안에 꽉 찬 침울한 공기,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새겨진 불안과 초조, 그것으로써 박원식의 생명이 예민한 천평에 올라있다는것을 느끼시였다.

《동무는 참말 큰일을 했소. 지금형편에서 우리가 황금덩어리와도 바꿀수 없는 쌀을 그렇게 많이 구해왔거던. 김책동무, 안그렇소?》

그이께서는 한걸음 뒤에 서있는 김책을 향해 고개를 드시였다.

《그렇습니다, 사령관동지！》

김책은 진심이 어린 얼굴로 그이를 쳐다보았다. 이때 그는 눈굽이 젖어있는 그이를 볼수 있었다. 기쁠 때는 기뻐서, 이렇게 가슴을 저미는듯한 고통이 있을 때는 또 서로 돕고 고무하기 위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김책을 불러 말을 건늬고 정을 나누시는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김책은 김책이대로 또한 가슴속에 있는것, 지어 끝없이 모색하고있는 모든것을 남김없이 그대로 열어보이는것으로써 힘을 얻고 위안을 느끼군하였다.

《정말 모질기도 하잖소.》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굶고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실어다주는 사람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소. 글쎄 전투마당에서 적아로 나뉘여 판가름을 할 때면 무슨 일인들 없겠소. 한데 이것은 정말 리해하기도 어렵고 참기도 바쁘구만…》

그이께서는 이렇게 그 누가 들으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전혀 혼자소리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설음과 울분이 동시에 북받치는것을 참고계시였다.

《장군님！》 한쪽구석에 피해 서있던 한명구가 코에 대였던 수건을 떼면서 말씀을 올리였다. 《제 잘못으로 해서 박동무가 이렇게 되였습니다. 제가 해주에 갔더면 박동무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한명구는 사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결국 어슷비슷한 말을 거듭 반복하였다.

《이 박원식동무는 원래 이런 동무요. 어렵고 위험한 고리가 있으면 언제나 그가 먼저 가군했소. 장백에서 39년 겨울 우리가 포위에 들었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 오중흡동무가 전사한 륙과송에서도 단신으로 적진에 뛰여들었던 동무요. 그런데 이번엔 사정이 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단하시고 그이께서는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 한명구에게 의자를 권하며 앉으라고 하시였다. 《박동무는 이번에 적을 많이 잡고 부대의 진격로를 열기 위해 해주에 간것이 아닙니다. 물론 쌀을 가져오는것이 중요했습니다. 쌀이 없으면 로동자들이 굶게 되니까. 그

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것이 또 하나 있다는것을 그는 알고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였는가. 이제 박원식동무가 의식을 회복하면 물어봅시다. 그는 혹시 그에 대한 대답을 피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있어야 하며 또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그이께서는 잠간 말씀을 중단하시고 방울방울 떨어져내리는 수혈관과 약간 해쓱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평온해보이는 박원식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면서 말씀하시였다.

《우리 혁명앞에는 건느기 어려운 하나의 큰 심연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동자와 농민들, 근로지식인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을 이끌고 혁명이라는 저 대안까지 가는 과정에 있게 되는 난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밟고 건너올 징검돌을 피로써 빚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미 각오한것이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단말입니다. 더구나 광복된 오늘에 이르러서까지…》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시여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하늘은 별 하나 보이지 않게 흐려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한명구나 양춘만이 같은 지식인을 혁명의 편에 굳건히 세워놓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택한것이요.) 하는 말이 가슴에서 북받쳐올라왔지만 그이께서는 그것을 지그시 누르시였다. 하지만 한명구는 자기에게 쏠린 그 모든것을 충분히 리해하였음인지 아니면 그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신 가서 그렇게 되였다는 단순한 해석으로 해서 그런것인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온몸이 부서지는것 같은 절통한 감정과 또 그와 함께 숭고한 그 무엇이 자기를 온통 휘감고있는것을 느끼고있었다.

방안에서는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지키였다. 오직 움직이는것이 있다면 김책이와 담당의사가 간간이 시선을 엇바꾸어가며 심장의 박동이 어떠한가를 묻고 대답하는것뿐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밖을 계속 내다보시면서 방금 우연히 그리고 문득 표현하게 된 《피로써 만들게 되는 징검돌》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시였다.

30년대로부터 오늘까지, 아니 그에 앞서 20년대중엽에서부터,

그러니 연연 20여년 그동안 실로 숱한 징검돌을 놓아야 했다. 하여 이제는 우리가 와닿은 이 기슭에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확고하게 자기 진지를 지켜 서있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이 준엄한 행로에서 원예사가 하나하나의 가지와 잎과 줄거리를 다듬어나가듯이 그렇게 그 전우들을 보살피시고 또 그에 대하여 기억하고계시는 것이다. 가령 차광수를 놓고보더라도 그를 처음 만났던 송화강 기슭에서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고 손을 움켜잡던 그때로부터 32년 10월 그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띄워보내던 그때까지의 그 모든것을 날날이 기억하고계시였다. 하여 돈화의 수림속에서 시신을 놓지 못한 특이한 영결식을 가지게 되였을 때 대렬을 향하여 《차광수는 갔소. 그앞에 우리는 그가 바라던것을 내놓을 때까지 이 슬픔을 지워서는 안됩니다. 그는 무엇을 바라고 이 땅에 하나의 돌로 굳어졌습니까. 광복된 조국,이것을 우리는 통채로 그의 령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고 다짐하시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천야만야 밑이 보이지 않는 추억과 명상의 나락을 끝없이 들여다보시면서도 방안에서 움직이는 사소한것까지 모두 감각하고계시였다.

《누가 붙잡혔다는겁니까?》

그이께서 뒤로 돌아서며 물으시였다.

한명구가 자세를 바로 가지며 방금 김책에게 귀속말로 한것을 다시 반복하였다. 장군님께서 철도공장을 다녀가신 그날부터 그곳 로동자들은 자기들을 파업에로 부추기고 쌀을 내라는 소요에로 선동한 《나쁜놈》을 붙잡는데 달라붙었다. 차츰 줄을 캐다보니 빙빙 에돌다가 결국에는 단야공으로 있던 송순호라는 놈한테 화살이 쏠리였다.

로동자들은 송순호를 묶어놓고 심문을 들이대였다. 하루밤 다그었는데 오늘아침에 실토하기를 자기도 시켜서 한 노릇인데 사실은 《집게다리》가 두목이라고 하였다. 《집게다리》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하니 룡산본공장에서 내려온 민기환이란자가 뒤에서 조종했다고 하였다.

로동자들은 떨쳐나서 《집게다리》를 찾고있었는데 며칠전에 어

데 갔다온다고 하고는 행처를 감추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원식이와 함께 《집게다리》가 차에 실려 왔는데 뒤잔등으로 철알이 관통해서 이미 숨이 끊어져 사연을 알수 없게 되였다고 하였다.

한명구의 설명을 다 듣고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그런것이 있을수 있다고 보셨는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서 《놈들 호상간의 작간인것 같소.》 하고 침대에 다가가 박원식의 맥박을 또다시 짚어보시였다.

그이의 안색은 갑자기 흐려지시였다. 언제나 밝은빛을 보이고있던 시선은 금시 꺼지기 시작한 우등불처럼 기세를 잃었고 입술에는 경련이 일었다. 맥박이 차츰 떠지는것을 감각하신것이다. 그이께서는 맥박을 짚으신채 도리머리를 저으시였다.

(아니 그럴수 없어. 박원식의 심장은 멎지 않아.)

손끝에 미쳐오는 심장의 고동을 세고 또 세시면서 자신의 느낌을 한사코 부정하시는것이였다. 그렇게 하기를 5분 또다시 5분, 그사이에 그이께서는 숨을 몇번이나 죽여가며 박원식의 생명을 한초한초 짚어나가시였다. 그러시다가 그이께서는 문득 창문가에 놓인 탁자곁으로 다가가시였다. 탁자우에는 박원식이 언제나 메고다니던 전투가방이 있고 그옆에 담배갑이며 학습장같은 소지품이 쌓였는데 그 한쪽에는 나무로 깎은 싸창과 놀이감들이 놓여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싸창을 집어드시였다. 실물보다 크기가 절반이나 될가한데 신통히도 잘 만들었다. 양철로 약통실도 만들고 총신은 제법 철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 태엽을 달지 못한채 따로 있었고 방아쇠도 걸지 못했다. 그이께서는 싸창을 집어드시고 이모저모 뜯어보시였다. 태엽이나 방아쇠 같은것을 제자리에 대보기도 하시였다. 아쉽게도 이것은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눈동자가 오디알같은 인동의 성화에 절절매던 박원식의 얼굴이 총가목에 언뜻 나타났다 사라졌다. 다음에는 칼자국이 력력한 애기곰을 집어드시였다. 거기에도 또 박원식이 보이시였다. 그 순간 가슴을 예리한것으로 북 할퀴는것 같아 그이께서는 자리를 떠서 창가로 다가서시였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초겨울하늘이 희멀겋게 되였다가 그것이 차츰 보라빛으로 변하더니 한가닥 빛이 칼날처럼 좌우로 쭉 뻗어나가면서 려명이 짙은 하늘을 둘로 찢어놓았다. 그다음에는 그 붉은 띠 같은것이 차차 폭이 넓어지더니 바로 그 한복판에서 불쑥 불덩어리가 솟아올랐다. 순간 장밤 누리를 덮고있던 어둠이 황겁히 서쪽으로 퇴각하면서 금빛하늘을 활짝 펼치였다.

온 방안사람들이 침묵한채 밤을 보내고 새날을 맞았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가에 서신채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였으며 김책이도 환자의 머리말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만 한명구만이 의사들을 돕기도 하고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는 환자상태에 대해서 소곤소곤 묻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박원식의 애인을 딴방에 데리고 가서 위안하기도 하고 자기때문에 그렇게 되였노라고 설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장군님께서 시선을 보내고계시는 그 한끝에서 바야흐로 평양의 해돋이가 시작되는것을 보고 흠칫 몸을 으스러뜨리였다. 그의 온몸은 삽시간에 굳어지는듯하였다. 그가 눈을 떼지 못하는 동녘하늘 저끝에 붉은 구름덩어리가 하나 떠있었다. 그것이 바로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피로써 빚은 징검돌일수도 있다는 환각이 생긴것이다. 저것을 밟고 오늘은 내가 가고 또 래일은 다른 사람이 가고 그렇게 모든 겨레가 혁명이라는 대안에 이르게 되는것이 아닐가. 저 붉은것, 저기에 박원식의 선혈이 물들어있을것이다. 수십년동안에 천으로 만으로도 셀수 없다던 그 선렬들의 심장의 색갈이 지금 저렇게 비쳐지고있을것이다. 한명구는 뜨거운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것도 감각하지 못하고 아까 걸음을 멈춘 그자리, 장군님께서 서계시는 뒤자리에 선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6

김일성동지께서는 펜을 드시였지만 종시 글을 써낼수 없으셨다. 집행위원회에 제기할 토지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쓰시는데 썼다는

지우고 또 썼다는 지우군하시였다. 종이장우에도 박원식의 얼굴이 보이시고 참고자료나 서적을 번지여도 거기에 또 박원식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군하시였다. 무시로 문득문득 이렇게 나타나서는 사색을 헝클어놓는것이다. 박원식과 영결하신지도 벌써 한주일이 된다. 하지만 가슴에 패인 상처는 좀체로 아물지 않고 무시로 통세를 일으키는것이다.

모란봉 동쪽켠 릉라도가 내려다보이는 아늑한 기슭에 푸른색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겨울이건만 이제 새봄이 오리라는것을 믿고 감빛으로 물들어버린 떼장을 덮어 분묘를 지어주었다. 이제 봄이 오면 박원식이가 그렇게도 그리던 평양의 봄이 그의 분묘앞에 활짝 펼쳐질것이다. 꽃도 피고 새도 찾아올것이다.

그이께서는 책상두리를 몇바퀴 돌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 방안을 대각선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왔다 하시였다. 이것은 깊은 사색에 잠기실 때 흔히 하게 되는 하나의 습관이였지만 이번만은 사색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되도록 깊은 망각속에 잠기고 싶으시여 하는 몸가짐이시였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것을 그이께서도 모르지 않으시였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모든 전우들속에 박원식이 빠지지 않았는가 살피게 되였고 슬픈 일이 있을 때면 또 그를 끝까지 위로하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는 그이이시였던것이다. 철도가 걸리였을 때도 박원식이,양춘만을 데려오기 위해서도 박원식이였다. 때문에 십여년동안 생활과 정서의 관성을 띠고 거침없이 굴러 가던 바퀴를 순간에 멈춰세워낼수 없다는것을 잘 아시였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보시는것이였다. 방안을 거닐으시기를 벌써 30분이상인데 이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아실수 없었다.

문기척소리가 났다. 그렇지만 그이께서는 잠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얼마후에야 문을 열고 내다보시였다. 문밖에는 김책이 서있었다.

《들어오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되도록 내색을 보이지 않기 위해 김책의 팔을 붙잡고 들어와 안락의자에 앉게 한 다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으시며 바로 그옆 쪽걸상에 앉으시였다. 어느 하루 사업

토의를 건뉜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김책은 언제나 중하고 긴요한 것만을 가지고 찾아오군했던것이다. 김책은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 단정히 서더니 나직이 말을 떼였다.

《강선제강소의 양춘만이 나타났습니다.》

《양춘만이？》

그이께서는 반사적으로 받아 읽으시였다.

《그렇습니다. 박원식동무가 서울에 데리러 갔던 강철기사 그 사람입니다.》

그이께서 이미 알고도 남음이 있는 이름을 정확하게 확인하실수 있게 약간 설명을 첨부해서 시간을 끄는것이다.

《양춘만이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이께서는 흠칫 놀라는듯한 표정을 지으시였다가 인차 본래의 기분으로 돌아가며 매우 실무적으로 물으시였다.

《아침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한 둬시간동안 담화를 하였습니다. 혹시 직접 만나시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습니까.》

그이의 음성은 전에 없이 푹 가라앉았다. 그러나 김책은 다른때 흔히 그러한것처럼 《만납시다. 만나야지.》 한다든가 《어서 오라고 하시오.》 또는 《내가 가겠소.》 하는 등의 말씀이 있을것으로 알고 잠간 사이를 두어 기다리고있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김책을 등지고 잠간 서계시다가 다시 걸음을 떼여 방안을 거닐으시면서 한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그것은 참말 뜻밖이였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이를 모셔온 김책은 여직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더구나 그이께서 그렇게도 바라시던 양춘만이기때문에 그 놀라움이란 한층 더 컸던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더이상 물을수도 없어서 침묵을 지킨채 기다리였다.

몇분동안 시간이 흐른뒤에 김책이앞에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래 어떻게 되여 찾아왔다고 했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이렇게 되자 김책은 한층 더 정신을 긴장시켜 양춘만이 찾아온 전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였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김책이 자기 방에 앉아서 전화를 받고있는데 앞방에서 좌현이의 고함소리가 들리였다.

《당장 죽여놓고말테다. 너는 총살이야!》

뒤이어 권총소리가 《빠방!》 하고 귀청을 째였다.

송수화기를 책상우에 집어던지고 달려나가니 좌현이가 권총을 뽑아들고 공포를 쏘며 어느 한 사나이에게 달려들고있었다. 어간에서 말리는것은 얼굴색이 새까맣게 죽은 경위대원 최동무였다.

《저놈, 저 악독한놈, 너는 이 총에 죽어야 해. 양춘만이! 당장 박원식을 내놓으라. 네놈이 우리 박원식을 죽였지.》

넋을 잃어버린 좌현이는 기어코 쏴갈기겠다는 기세로 최동무를 떠밀면서 권총을 내두르고있다.

《좌현이! 이게 뭐요.》

김책은 엄하게 소리치며 좌현이앞에 막아섰다. 그렇게 되자 좌현은 마루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였다.

《원식아! 양춘만이 찾아왔다. 원식아! 으흐흐.》

비통한 울음소리가 방안을 울리였다. 그는 숨도 바로 내쉬지 못하고 끅끅 갑자르고있다.

처음에는 당황하였지만 좌현이의 한두마디의 웨침으로써 사연을 넉넉히 알게 된 김책은 방한복판에 떡 버티고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한편 방구석에 무릎을 꿇고앉았던 양춘만이 김책이 앞으로 나오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어라고 웅얼웅얼하였다.

《…저를, 저를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한참동안이나 뭐라뭐라 또 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박원식선생을 죽였습니다. 저때문에 박선생이 희생됐습니다. 저는 이 죄를 갚을길이 없습니다. 이자리에서 저는 총에 맞아 마땅합니다.》라고 하면서 양춘만은 이마를 방바닥에 굴리고있다.

누구만 못지 않게 적개심이 끓어오른 김책은 얼굴이 하얀 양춘만을 훌쩍 들어일구더니 의자에 앉아 자세한 사연을 말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되자 최동무는 좌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의자 한끝에 겨우 몸을 의지한 양춘만은 고개를 숙인채 말이 없었다.

《무엇때문에 여기 왔소. 어서 말하시오.》

양춘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또다시 《어서 말하시오. 왜 왔는가?》 하고 다그었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다.

이윽해서 양춘만은 고개를 들었다. 꼬리가 치켜올라간 그의 예민한 눈이 김책을 포착한채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김책은 발을 벌려디디고 서있고 양춘만은 그를 쳐다만 보고있을뿐이다. 양춘만은 진정 할 말이 없었다. 여기를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립장을 다 설명한것으로 되며 박원식이 자기때문에 희생되였다고 말한것으로써 자기의 각오가 완전히 표현된셈이였다.

양춘만은 강선에서 안해를 만난 다음날 중화에 있는 삼촌네 집에 건너갔었다. 그는 거기 있다가 서울에서 왔다는 사나이를 만나 민기환이와 영영 결별하고 그길로 박원식을 찾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소문을 들었다. 사경에 이른 박원식을 실어갔다고 하였다. 너무나 놀랍고 공교로와 박원식이 총에 맞았다는 그자리에 가보기까지 하였다. 풀섶이 이겨지고 피흘린 자리를 흙으로 묻어놓았다. 그는 그자리에 몇시간동안 앉아서 강선에서 서울로, 서울서 평산으로, 다시 중화를 거쳐 강선으로 돌아온 로정을 하나하나 회상하였다. 박원식을 처음 만났을 때 가슴이 떨리던것이며 술을 먼저 마셔보던 그 순박한 얼굴 그리고 뒤따라오며 소리치던 평산벌이 생동하게 떠올랐다. 양춘만이 분연히 고개를 들고 일어나 평양에 오니 박원식은 영원히 가고 스스로 발길이 여기에 와닿았던것이다. 그래 방문에 들어서자 그는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대상을 가릴새도 없이 문칸에 있는 좌현에게 《나는 양춘만입니다. 박원식선생을 희생시킨 죄인으로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었다. …

시간이 30분이상 흘렀지만 양춘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다가 이윽해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저의 죄가 너무 크기때문에 렴치없는 행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한껏 비약하고 함축된 그의 심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표현되였다.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는가요?》

김책이도 역시 복잡한 과정의 설명이 없이 상대방이 표현하려는 의사의 핵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양춘만은 이미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있었던 모양이여서 즉시에 얼굴을 들고 말하였다.

《대답하겠습니다. 첫째로, 저는 왜정때 일본놈들에게 충실히 복무한 기사입니다. 둘째로, 저는 자기 일터를 버리고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나자신이 자기가 지은 죄로 해서 일본놈의 편에 자기를 세운것입니다. 셋째로, 박원식선생이 저를 찾아왔을 때 평산까지 오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박원식선생의 말을 믿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이것이면 저는 어떤 극형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죄를 스스로 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박원식선생을 찾았는데 그 선생은 이미…》

마치 잘 다듬어진 어떤 법조문같은것을 한번도 더듬지 않고 줄줄 내리외우던 그가 갑자기 눈을 싸쥐며 흐느껴울기 시작하였다.

《무엇이 어째? 이 인간답지 않은것!》

김책의 고함소리가 방안공기를 또다시 왈카닥 흔들어놓았다. 참고참았던 울분이 가슴을 터치고 뿜어나온것이다. 하관이 빠르고 억세게 생긴 그의 턱이 후두두 떨었고 손은 권총이 달린 허리를 더듬고있었다.

《그래 당신도 사람이요? 말해보오. 당신도 지각이 있는 인간인가 말이요. 우리는 당신때문에 10여성상 피바다를 같이 헤여넘어온 전우를 잃었소. 이 상처가 언제 아물겠는지 모르겠단말이요. 하루에도 몇차례씩 전투를 할 때라면 몰라도 지금 광복된 이 땅인데 이건 너무하지 않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을 보고 격분하고 증오하는것은 그것만이 아니요.》

주먹을 우쩍 쳐들었다가 책상을 탕 내리치면서 김책은 고개를 숙이고있는 양춘만을 쏴본다. 언제나 소박한 기운이 어려있던 그의 눈에 물기가 어리더니 푸른빛이 번쩍하였다.

《당신은 혼자 살겠다고 처자를 버리고 도망쳤지. 고열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있는 자기 자식을 내버리고말이요. 양춘만이! 가시오. 당신이 갈데로 가란말이요. 우리는 인간이 하도 불쌍해서 당

신을 찾았댔소. 어린 아이와 그 어미가 불쌍해서 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팽개치고 간 당신의 아들을 누가 살려놨는지 알기나 하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일웅이 입에 죽물을 떠넣으시였소. 병원에서 아이를 안고 밤을 새시였소. 〈이 아이를 보오. 내가 안으니 이렇게 잠들지 않소. 아마 아버지품이 그리운것 같소.〉 하시며 아이를 얼리였고 그 이튿날에 박원식을 떠나보내시였소. 그런데 양춘만이 당신은 서울서 잠이 오던가? 찾으러 갔는데 오다가 왜 내빼는가, 응? 내 여직까지 별의별 인간을 다 보아왔지만 당신처럼 인정이 없고 악독하고 렴치없는 사람은 보다 처음이요. 박원식이 살아있더라면 좌현이처럼 공포를 놓지 않고 당신의 그 너절한 머리에 대고 쐈을거요. 우리는 당신네한테 빚진것이 없기때문에 이제 다시는 같이 가자고 구걸하지 않겠소.》

언제나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던 김책이건만 끝없이 규탄도 하고 설분도 터뜨리였다. 그럴수록 양춘만은 숨소리마저 죽이고 꼿꼿이 고개를 숙인채 앉아있었다. 이윽해서 김책은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계속되였다. 김책은 더이상 물을것도 없고 그에게 설유하거나 권고할것도 없었다. 다시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 당신이 우리한테서 바라는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바라는것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양춘만은 질문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뜻밖이였기때문이다. 양춘만은 자세를 바로 하더니 수건으로 눈굽을 닦은 다음 짓씹던 입술을 천천히 움직여 말을 떼였다. 《저에게 바라는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박원식선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양춘만에게 전하라는 말을 옮기겠습니다 하고 선생은 수첩에 적은것을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양춘만기사가 강선제강소에 하루빨리 돌아와 강철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춘만기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것은 강철이 필요한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일제에게 얽매인 한 지식인의 사상과 지식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외람된 소망은 이 양춘만이가 **김일성**장군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들었

다는것을 직접 장군님께 말씀드려달라는것뿐입니다. 이외에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춘만에 대해서 김책은 이외에도 많은것을 말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세부들이며 따라서 중요한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김책은 방금 전한 한 지식인의 진정한 뉘우침을 타고 흐르는 심각한 자기 변화 그리고 다시한번 가슴을 조이는 박원식에 대한 추억 그것만으로도 **김일성**동지의 심금을 크게 흔들어놓을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뜻밖에도 이미 가지시였던 그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유지하고계시였다. 다만 약간한 변화를 보였다면 설명을 다 들으신뒤에 《그러니 끝내 그는 우리한테 돌아온것이지요?》 하고 무등 기쁨을 가지고 하셔야 할 말씀을 서글픈 심정으로 말씀하시는것뿐이였다.

그이께서는 자리를 뜨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였다. 2～3초 밖을 내다보시다가 돌아서시여 김책이와 마주서시였다.

《그럴수 없소. 그럴수 없지.》 그이께서는 방한복판 탁자옆에 서서 김책을 쳐다보시였다. 《박원식동무가 양춘만을 만나기전에 내가 먼저 만날수는 없지. 안돼, 그건 안돼.》

그이의 눈에서는 번개불같은것이 번쩍하였다. 언제나 사색이 깃들고 온몸에서 끓어번지고있는 정열을 한껏 내비치고있던 억실억실한 눈에 처절한 빛이 언뜻 나타났다.

《그렇게 합시다,김책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붉게 충혈된 눈을 들어 쳐다보시였다. 《사죄할것이 있어도 강선의 로동자들한테 가서 하게 하고 어떤 소망이나 결의같은것을 표명할것이 있어도 그 로동자들앞에서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박원식동무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무척 기뻐도 했을것이고 그와 나누어야 할 이야기도 많았을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지금 없습니다. 박원식동무를 대신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단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이때 자신의 심장이 울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양춘만을 돌려보내시오. 나는 후날에 기회가 있을 때 만나보겠습니다. 장마당에서 사온 그의 책을 가져가라고 하시오.》 하고는 창문가에 또 다

가서시였다.

《알았습니다.》

김책은 문밖으로 나갔다.

그이께서는 이때 박원식이 양춘만을 따라가다가 총에 맞은 상처를 가리우기 위해 길을 많이 걸어 발이 부르텄다고 하던것을 상기하시였다. 그러고나서 태연하게 철도에 나갔고 철도에 가서는 한 명구가 갈길을 대신해 갔던것이다.

《박원식동무! 동무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모진가. 차라리 엄살도 있고 얼마간 미련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겠는데…》

그이께서는 기관구에 나가시였을 때 땅바닥에 금을 그으면서 박원식에게 쌀이 있고 기관차가 있는데 굶는다는것이 말이 되느냐고 단호히 말씀하신 그때의 기분이 좀 지나치지 않았는가 하고 후회도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시였다. 눈물이 끝없이 솟아올랐다. 병원에서 그가 숨을 거둘 때에도 그의 령구우에 흙을 뿌릴 때에도 그리고 그 미망인 필남이를 만나 위로할 때에도 그이께서는 혀를 깃씹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시였다. 그러나 그에게 응당 차례져야 할 기쁨이 다가온 지금에는 정녕 자신의 의지로써도 감당하실수 없는 슬픔이 북받치였다.

(우리들이 가장 기뻐했던것이 어떤 때였던가.)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해보시였다. 적을 종횡으로 무찌르고 도시나 마을을 해방하고 환호성이 터질 때 무척 기뻤다. 적의 포위속에 들었다가 과감하게 돌파구를 열고 전원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도 기뻤다. 그리고 영원히 다시 만날수 없으리라던 동지가 문득 찾아왔을 때 그때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것은 혁명진지안에서 생겨나는것이며 아무리 그 감정의 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박원식이가 양춘만을 데려왔다는것과 같은 이를테면 새 사람을 얻었다는것, 전우를 하나 얻게 되였다는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양춘만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은 한순간에 분노와 슬픔으로 바뀌여지고 말았던것이다. 그것은 취득과 상

실에 의한 차이에서 오는것도 아니며 더구나 인정이 불러오는 과민한 정서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혁명임무를 수행하지 못한것으로 해서 자기 입으로 《실패》했다고 말한채로, 그 《과오》라는것을 안은채 우리곁을 떠났기때문이였다. 림종에 이르렀을 때 혁명을 위해 한생을 바쳤다는 긍지와 보람을 안는것은 혁명가에게만 간직되는 가장 숭고한 감정이다. 한데 그 한 구석에 《과오》라는것을 남기고있다면, 그것이 또한 본의 아니게 크게 오해된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더구나 지금처럼 《과오》라는 자리에 큰 영예를 놓아줄수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게 된다면 얼마나 절통한 일인가.

그이께서 시선을 돌리였을 때 책장안 맨 밑칸에 놓인 놀이감 권총을 띠여보시였다. 박원식이 만들다가 채 완성하지 못한것이 거기에 있었다. 그이께서는 요새 하루에도 몇번씩 그것을 볼 때마다 박원식을 생각하군하시였다. 그럴 때면 그것을 보이지 않는데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종시 그렇게도 못하시였다.

《원식이! 양춘만이 찾아왔소. 양춘만이!》

그이께서는 수건으로 연방 눈굽을 훔치시였다. 그러나 끝없이 눈물이 흘렀다. 가슴은 벅찬데 무엇이라고 그에게 할 말을 찾으실수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화락하니 젖은 수건을 염낭에 쑤셔넣고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전화통을 더듬어잡더니 흥남비료공장을 찾으라고 지시하시였다.

제 9 장

1

안동권이와 함께 평양 종로소학교를 돌아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예정했던대로 종합대학창설을 위한 협의회를 가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가 시작되자 인차 만족해서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렇게 되자 탁자에 둘러앉았던 종합대학창설 기성회성원들의 얼굴에도 모두 기쁨이 어리였다. 그러나 안동권이만은 빗살주름이 선 입술을 굳게 다문채 꼿꼿이 앉아서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안동권은 순수 학자이다뿐이지 누구와 교섭을 한다든지 어떤 집단을 움직이는것과 같은 사회사업은 전혀 해본 일도 없고 그 자신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종합대학을 내올데 대한 구상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시여 이자리에 앉게 되였던것이다.

《선생님! 자세히 보면 기성회성원모두가 다 하나하나 뜻을 가지고있습니다.》 기성회명단을 들어보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정면에 앉아서 시종 정중성을 지키고있는 안동권을 향하여 말씀하시였다. 《교육자도 있고 사업가들도 있으며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만하면 각계각층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고 크게 힘을 쓸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이께서는 명단의 앞머리에서부터 차례로 다시한번 더듬어나가시였다. 최만식, 장성춘, 박창건, 리덕준 등 34명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시였다. 그 다음에는 대학에 두어야 할 학부와 학제 그리고 보장부서를 꾸릴데 대한 기구를 내놓으며 따라서 학교창설과 관련한 총예산안이 발표될 차례였다. 그러나 안동권은 처음에 앉았던

꼿꼿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만족해하시는 장군님의 얼굴만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안동권선생! 말씀해보십시오.》

김일성동지께서 권고하시자 그는 고개를 약간 숙여 무언의 인사를 차린 다음 전혀 발언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차츰 하얗게 되더니 나중에는 입술이 푸르러지며 턱이 알릴락말락 떨리였다. 방안의 시선이 모두 쏠리였는데도 그는 좀체로 움직일 엄두를 못내고있었다.

《아니 몸이 괴로운것이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당황한 빛을 보이면서 물으시였다.

《아닙니다! 아무일도 없습니다.》

안동권의 대답은 명확하고 또릿또릿하였다. 그러나 그 매 음절들은 마디마다 불안하게 떨었다. 다시 몇분동안 시간이 흐른 뒤에 안동권이 몹시 난처해하며 일어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떼였다.

《나는 오늘 이 기성회모임이 있기전에 장군님을 사전에 만나뵙고 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길가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여 종로소학교를 같이 다녀오는동안 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도 의욕에 차있고 열정이 끓고계시는 분에게 아무리 진실이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림으로써 실망하게 만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입을 다물기로 했었습니다. 긴 설명을 할것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평양에 종합대학을 내올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 리유는 자금원천이 보이지 않기때문입니다.》

방금전까지 웃음을 짓고계시던 장군님의 밝은 얼굴에 불안과 초조의 빛이 한순간에 어리였다.

《어서 생각한것을 죄다 공개하십시오. 가능성, 불가능성을 다 말씀하시오. 들어봅시다.》

잠시동안 생각해보던 안동권은 제낀옷 속주머니에서 서류묶음을 꺼내들더니 《첫째 학제편성》 하고나서 공학부, 생물학부, 의학부, 문학부 등등 10여개의 학부를 꼽았고 그에 뒤이어 둘째 셋

째하면서 무슨 학부에는 무슨 연구소, 무슨 학부에는 무슨 실험실습실 하며 렬거하였다. 나중에는 후방경리부서 구성안과 총예산안이 나왔다. 건물로는 신축하는 경우에 최저한으로 줄여서 5만평방은 당장 지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안동권은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던지 서류를 접어 탁자우에 놓고 조용한 목소리로 보태였다.

《장군님! 문제는 자금입니다. 자금에 대한 안이 서지 않으면 저의 안은 더 이상 론의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분산시켜 기존건물을 리용한다 쳐도 그것들을 보수하자면 헐잡아도 수만원은 당장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단 일전도 없는 형편입니다. 초보적으로 안을 잡아보았는데 시제 당장 교사가 열개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데 의하면 하바드, 옥스포드, 로모노쏘브, 도꾜, 캠브리치 등 대학창설기금이나 그 운영자금은 후진국가 하나의 년간예산만한것이 요구되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자는것은 아니지만 이 대학들은 교원이나 연구사만도 대체로 1,000명이 다 넘습니다.》

자기의 제기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안동권은 처음에 장군님을 그 다음에는 10여명으로 된 기성회 대표모두를, 다시 그다음에는 장군님의 왼쪽옆에 앉은 김책을 둘러보았다. 역시 그들모두가 자기가 제기한대로 자금이 걸린다는 한결같은 표정을 보이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명단뒤에 별지로 붙은 예산서를 보고계시다가 고개를 돌리며 《만약 교사를 전부 신축한다면 얼마나 돈이 들겠습니까? 그 계산서는 여기에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전부 신축한단말입니까?》 하고 안동권은 좌우를 다시 둘러보았다.

기성회대표들은 모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으로써 다시금 견해가 명확해진 안동권은 주저없이 자기 의견을 말씀드릴수 있었다.

《처음 모였을 때 우리는 가능성여부는 고려없이 신축안을 토

론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는것은 좋으나 현시점에서 불가능한것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리유는 무엇입니까?》

《자금을 누가 대는가 하는것입니다.》

《역시 자금입니까?》

《방도는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몇명의 자본가가 재산을 전부 털어내놓는 방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적산을 불하해서 자금을 조성하는것인데 현재로서는 어느것이나 다 믿음성이 덜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본가가 투자하는 대학을 세울수 없습니다. 또 일제가 내던지고 간것을 긁어모아 대학을 세울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명실공히 인민의 대학을 우리자신의 힘으로 세우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건물 리용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게도 할수 없습니다, 안선생!》

순간 안동권은 얼떠름해졌다. (이 이상 더 좋은 안을 생각해낼수 없습니다.)라는 그의 속마음이 온 얼굴에 력력히 내비치고 있었다.

미소를 띠신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성회대표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나서 힘을 주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평양에 인민의 대학을 내오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때문에 인민의 애국적 열의가 한데 집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향학열이 매우 높은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물지게를 지고 삯바느질을 해서 자녀를 공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인민에게 호소해서 한사람이 기와 한장, 벽돌 한장씩이라도 내게 한다면 안되겠습니까. 인민들은 자기들이 지은 학교에 자기 자녀들을 보내는것을 좋아하지 어느 자본가나 일제의 재산으로 짓는것을 좋아할것 같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아무리 형편이 곤난하다 해도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짜는 마당에서 첫걸음부터 구차하게 시작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무엇을 아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역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온 방안을 울리며 일시에 탄성이 터졌다.

《장군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안동권의 주름진 턱이 사정없이 떨었다. 문제제기도 놀랄만치 간단명료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도 독특하다. 돈이나 자금이라고 한다면 곧 국고나 자본가의 투자를 념두에 두기마련인데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열의와 그 힘을 보시고 그에 의거하시는것이다.

《다음은 교수진을 어떻게 꾸리자고 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안동권으로부터 시선을 평양제1중학교 교장선생에게 돌리시였다. 목이 기름하고 안경을 낀 교장은 사실은 그것이 자금보다 더 큰 난문제라고 하였다. 여기저기서 같은 의견이 터져나왔다. 십시일반으로 자금이나 자재를 내는것과도 다르고 힘으로 굼땔것도 못된다고 하였다. 그이께서는 교수진을 꾸릴안이 적힌 명단을 펼쳐보시면서 난처하고 서글픈 기분에 잠기시였다. 이 문제를 대할 때마다 체험하시는것인데 참으로 숨막힐 정도로 사정이 딱했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부문을 다 포괄하는 학부와 강좌를 짜놓았지만 그것을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안은 서있지 못한것이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는것으로 일단 침울한 분위기를 돌려놓으시였다.

《토론해봅시다. 교사도 있고 교원도 다 갖추어진것을 가지고 학교를 내오자고 한다면 그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기성회도 필요없는것이지요. 자! 의견을 내시오.》

같은 권고를 두세번 반복하였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들 호상간에는 지칠 정도로 론의된 문제이기때문에 더이상 론의를 거듭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것이였다. 시간을 끌게 되자 안동권이 그간 론의된 내용을 개략해서 말씀드리고나서 장군님께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제기하였다. 회의장 분위기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내 의견을 듣자고 그럽니까?》

하고 웃음 어린 어조로 반문하시였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교사도 그렇고 교원도 그러니 이 불기장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추자는 의견이 나왔던것입니다.》

《다른 문제면 몰라도 교원진을 꾸리는것이야 안동권선생이 누구보다 더 잘 알것이 아닙니까.》

《장군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원이다뿐이지 학교를 세우거나 선생을 데려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라구요?… 김책동무.》 하고 그이께서 고개를 돌리시였다. 김책이 수첩에 무엇을 적고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안선생이 우리더러 교원을 꾸릴 안을 내놓으라는데 동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립장이 바뀌였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립장이 바뀌였습니다. 안선생은 직접 생동한 체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보시오. 같은 의견입니다.》 그이께서는 담배갑을 앞으로 밀어주시면서 말씀을 이으시였다. 《문제는 어려울것이 없습니다. 안선생이 공업전문에 책을 보내고 오늘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방도가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가자 안동권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만치 도리머리를 저으면서 웃었다. 그렇게 되자 오히려 이야기는 더 활기를 띠게 되였다. 자리에서 일어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이 더워서 창문을 약간 틔워놓으시였다. 그런 다음 다시 자리에 돌아오셨지만 앉지는 않으시고 선채로 말씀하시였다.

《그간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로동자, 농민의 자제들이 공부할 종합대학이 환히 내다보입니다. 이제부터는 교원을 꾸리는데 모를 박고 사업을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원을 꾸리는 방도는 다른것이 없습니다. 교원을 할수 있는 대상자를 다 조사등록하고 하나하나 설복하면 됩니다. 현재는 그 길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것만큼 한 반년동안 기일을 더 가지고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에서 애로되는것이라든지 의문되는것이 있으면 말씀하시오.》

그이께서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여 좌우를 둘러보시였다. 그러자 오른쪽에 앉았던 제1중학교 교장이 일어섰다.

《좀 까다로운 문제지만 제기해보겠습니다. 수물과계통의 교원이 모자라는데 남조선에 가면 어렵지 않게 데려올 가망이 있습니다.》

《데려옵시다.》 하고 그이께서는 뒤벽에 걸린 조선지도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였다. 《지금은 38선으로 갈라졌지만 앞으로 통일되면 북이요 남이요 차별없이 평양의 종합대학은 우리 조선의 인재를 양성하게 될것입니다.》

즉석에서 동의를 받게 되자 모두 마음이 후련해지는데 교장은 《그런데 한가지 청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하기 힘든것이기때문에 말씀올립니다만.》 하고 주저주저하였다.

《어서 말씀하시오.》

《권총을 한 서너자루 주실수 없겠습니까?》

그이께서는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그건 뭣에 쓰자고 그럽니까?》

《다름이 아니라 38선을 넘나들자고 해도 그렇고 깡패가 득실거리는 서울에 들어가자면 보신용으로 필요해서 그럽니다.》

역시 교장은 진지한 얼굴을 들어보이면서 바로 그것이 절실하다는것을 강조해보이였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뜻밖에 통쾌한 웃음을 터치시였다.

《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안공기를 흔들어놓았다. 《난 총을 달라기에 어떤 나쁜놈들이 학자들을 한데 가두어넣은 수용소에라도 뛰여들려나 생각했었습니다. 하하하.》 **김일성**동지께서는 웃음어린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우리가 서로 마주앉아 의논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총보다 더 힘있고 믿음성 있는것을 드릴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이께서는 아직 선자리에서 어쩌지 못하고있는 교장에게 물으시였다.

교장은 면도자리가 푸릿푸릿한 턱을 만지면서 영문을 알수 없

다는듯이 좌우를 둘러보고나서 대답하였다.

《총보다 더 힘있고 믿음성 있다면… 우린 그저 권총이면 된다고 봤었습니다.》

《아니 꼭 필요할수 있습니다. 총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것은 이제라도 드릴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책상서랍에서 종이를 꺼내시더니 만년필로 그우에 글을 쓰시였다.

잠간사이에 글을 다 쓰신 그이께서는 도장에 인즙을 묻혀 종이장 한옆에 꾹 누르시였다.

《자! 이것입니다.》 하시며 종이장을 들어올리더니 《위촉장》하고 큰소리로 읽으시였다. 위촉장본문에는 새 나라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평양에 종합대학을 창설하게 된다는 취지가 밝혀져있었다. 계속해서 이 영예로운 사업에 귀하가 큰 기여를 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전체 애국적 인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이 위촉장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게 될터이니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좌우에 갈라앉았던 10여명의 기성회성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뻐한것은 권총을 달라던 교장이였다. 그는 위촉장을 받아들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를 한 다음 동료들을 향해 벌씬 웃었다. 역시 누구보다도 패기가 있고 담이 크다고 자부했던 그는 자기때문에 이런 혜택이 차례질수 있었다는 자랑을 은근히 내비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를 끝마치면서 몇가지 문제를 다시 강조하시였다. 먼저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있은 교육부문 일군들앞에서 종합대학을 창설할데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재삼 강조한 다음 기성회안에 몇개의 담당부서를 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 부서로서는 총무, 기획, 건설, 재무 등을 내오며 전국에 알리기 위해 신문에도 보도하자고 하시였다.

모임이 끝나고 모두 흩어지게 되였을 때 장군님께서는 문밖까지 따라나가 배웅하시였다. 그런데 안동권만은 장군님방으로 다시 따라들어왔다. 필경 무슨 긴요한 제기가 있거나 단독으로 만나야 할 일이 있을것 같아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를 권하시고

자신께서도 새로운 기분으로 대하시였다. 얼마간 침묵이 흐른 뒤에 그이께서는 되도록 공식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먼저 다정하게 첫마디를 떼시였다.

《선생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전에 선생님에게 서울로 가실 때는 가시더라도 종합대학을 내오는 안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결국 오늘로서 그 부탁이 완전히 실현되였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얗고 가느다란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장군님의 말씀을 주의깊이 듣고있던 안동권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진심이 느껴지고 아울러 동정의 빛이 함뿍 어린 장군님의 시선과 마주친 그는 금시 가슴이 찌르르 울리는것을 감각하였다. 동시에 눈굽이 뜨거워나면서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장군님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사실에 있어서 자기가 진작부터 하려던 말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하고싶던 중요한 문제의 발단을 자연스럽게 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 좀 돌연하게 느껴질수는 있으나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었던것을 직발 꺼내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그럴만치 그는 흥분되여있었다. 《저는 오늘 이 방에 들어설 때까지만 하여도 제 마음을 어데다 깃들일지 모르고있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아 그이께서는 안동권을 의아쩍은 시선으로 쳐다보시였다.

《이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얼음장처럼 랭랭한 가슴을 안고 이 방에 들어섰댔습니다. 종합대학 기성회나 기구안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리상적인 목표일뿐이고 실현성은 전혀 없는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평양에 종합대학을 내오겠다는 장군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크게 감동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도 그랬지만 후에 곰곰히 따져보니 그것은 안동권이라는 지식인 하나를 매혹시켜 여기에 눌러앉히기 위한 약속으로는 충분하지만 전혀 실현해낼 가망이 없는 공허한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물리를 하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격언을 인

정 안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전환되였습니다. 이것은 듣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제 건국도상에 부닥칠 모든 난관과 애로가 이렇게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니 이 늙은 가슴에서도 피가 끓습니다.》

안동권은 말을 중단하고 염낭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였다. 상대편의 일거일동을 주의깊이 지키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재털이를 집어 앞으로 내놓으시며 아직 밑을 들여다보기에는 까마득한 한 지식인을 친근하게 바라보시였다.

뜻밖에도 안동권은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나서 불을 끄더니 《장군님！》 하고 쳐다보면서 《제가 할 말은 다 했습니다.》 하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말씀하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저는 저에 대한 기대와 고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만면에 웃음을 띠우시였다. 그런데도 안동권은 긴장을 풀지 않은채 제낀옷 속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끄집어내였다.

《이것을 보십시오.》 안동권은 속지를 뽑아 장군님앞으로 돌려놓고 말하였다. 《미군정청에서 저를 서울대학 학장으로 부르는 초청장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속지를 밀어내놓으면서 약간 고개를 기울이시였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아무런 관계가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나의 인생행로에서 하나의 분기점을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안동권은 편지를 집어들면서 얼굴에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한것이 만족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좀 어색해서 그랬던지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평온한 기분에 잠겨 인사를 남기고 문을 나섰다.

안동권은 거리에 나서서 어둑어둑한 골목으로 들어갔다. 방금전에 내놓았던 편지와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서 하수도 도랑에다 뿌려던졌다.

때마침 불어온 한줄기 바람이 종이쪼박들을 허공으로 아득히 날려보내였다.

2

장군님께서 안동권을 바래우고 돌아서시자 인차 《똑 똑》 문기척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뒤미처 가볍게 문이 열리더니 안경을 낀 최준걸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얄팍한 수첩이 하나 들려있었는데 아마 거기에 강병철에 대해서 료해한 자료가 적혀있을것이였다.

정중히 인사차림을 한 최준걸은 **김일성**동지께서 권하시는대로 응접탁앞에 앉았다. 그이께서는 출장중에 고생이 있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건강이 어떤가부터 물으시였다. 최준걸은 무릎에 손을 얹었던것을 내리우면서 일어서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팔을 잡아눌러 앉으라고 하시였다. 이제는 한두번 만난 사이도 아닌것이고 또 나이로 봐도 한둘 차이가 있거나 말거나 한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였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딴데 신경이 가서 솔직하고 친근한 담화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나 최준걸은 근엄한 표정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끝내 일어나서 대답을 올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그를 정직형으로 보고계시였다. 그이께서 최준걸의 인격을 잘 료해할수 있었던것은 경제문제를 토론하는 몇번의 모임에서와 특히 강선제강소에 같이 갔던 그때였다.

그때 최준걸은 5년안으로 경제를 복구해야겠다는 이쪽의 욕망이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실태로 보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거듭 물었지만 역시 같은 대답을 하였다.

흔히 사람들은, 특히 그것이 나약한 지식인인 경우에는 자기의 대답을 항상 권위있는 상대자의 요구에 맞추기에 진력하는것이다. 그러나 최준걸은 그렇지 않았다.

《흥남에서 합금로 1호가 폭발한 실태는 이렇게 되여있습니다.》

하고 그는 수첩을 펼치였다.

그는 설명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공장전모를, 다음에는 합금로를, 그 다음에는 사고의 이러저러한 류형을 소개하고 나중에 강병철기사에 의해 야기된 사고를 분석하였다.

최준걸의 보고에서는 과연 기술자답게 공뜬 소리 한마디도 없이 날자, 시간, 몇분몇초가 나오고 위치와 거리 그리고 질량에 의한 단위가 정연하게 계산되였다. 문제시할수 있는 기술적 요소가 22가지라고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세밀한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단 지나자 누구에게나 쉽게 리해될수 있는 통속적인 표현으로 간명하게 사고원인을 해명하고 그의 책임소재와 복구대책까지 제기하였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로폭파는 어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생겨난 사건이다. 22개의 요소가운데서 21가지는 사고를 부정하고 한가지 요소만 사고요인으로 되고있는데 그 요소인즉 로에 전기가 투입되는 전도체가 불량했다는것이다. 전도체에는 허용수치보다 다섯배나 더 많은 수분이 함유되여있었는데 그 위치로 보나 기술상태로 보아 거기에는 물이 침습될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 어느 누가 고의적으로 물을 붓지 않고는 도저히 그런 결과가 생겨날수 없었다. 하다면 누가 그런 험한짓을 했겠는가? 그 하나는 일제가 도망치면서 그렇게 했을수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이후에 어느 암해분자가 그렇게 했을수 있다.

《고의적인것이 틀림없습니까?》

최준걸의 보고에 의해 거의나 확정적인 사실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이께서는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기를 기다리고계시였다. 혹시 어떤 기술적 부족 또는 과실이나 부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고되기만 한다면 이 사건은 이 시기에 흔히 있을수 있고 리해될만한것으로 된다. 그러나 최준걸의 대답은 너무나 확신적이였다.

《장군님, 틀림없습니다.》

《동무와 다르게, 말하자면 정반대로 볼수 있는 경우를 념두에 두었습니까?》

《물론 그것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경제나 기술은 말보다 물질적 근거들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현지에서 확인된것입니다.》
《다른 경우에도 역시 그런 정도의 담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있을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의 수준에서 이렇게 볼뿐이지 이것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절대화하지 않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옆방에 있는 좌현에게 오기섭을 부르라고 이르시고 최준걸이한테 돌아오시였다. 그이께서는 최준걸에게서 22가지 요소로 된 조사문건을 받아드시고 한장한장 펼치며 재차 설명을 요구하시였다. 설명을 듣고계시는 그이의 심정은 매우 복잡해지시였다. 그것은 한 지식인의 운명과 관련되여 있기때문이였다. 더구나 그 지식인은 비록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몇달전에 한번 만난적이 있었으며 그때 그이께서 내린 판단이 그이후에 엄청난 차이를 이루고있기때문이였다. 솔직히 말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를 믿으시였다. 하긴 지금도 그때처럼 그렇게 믿고싶으시였다.
잠시후 마루를 구르는 소리가 나더니 가죽장화를 신은 오기섭이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 흥남제련소 로폭파사건에 대해서 그간 료해한 내용을 들어보자고 하시자 그는 이미 그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있은듯 거침없이 자기 견해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오기섭은 원래 감각이 예민하긴 하지만 침착한편이 못되며 더구나 용의주도하게 짜고드는 편도 아니였다. 그대신 그는 추리가 고도로 발전되여있어서 어느 한 론리의 한끝을 붙잡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사색을 뻗치는데 그 결론은 가끔 큰 편차없이 과녁에 가닿군 하였다. 오기섭은 한단락씩 넘어갈 때마다 맞은켠에 앉은 최준걸을 쳐다보군하였다. 그것은 자기의 보고가 틀림없이 최준걸이 료해한것과 큰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는것 같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저는 합금로 폭파사건이 어떤 우발적인 자연재해이거나 뜻하지 않은 기술부족에 의한것이 아니라…》

오기섭은 말을 중단하고 최준걸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최준걸의 얼굴에서 아무러한 특이한것을 찾아볼수 없었다.

《결국 그곳에 들어간 기사 강병철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였습니다.》

그는 자기 견해가 결코 허황한것이 아니고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몇가지 더 설명을 보태였다.

그런후에 오기섭은 약간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결론에로 되돌아가서 《때문에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하고 일단 보고를 끝내였다.

총이 세서 꽛꽛하게 일어선 머리는 이전이나 다름없이 언제 빗을 대보았는가 싶게 헝클어져있었으며 그가 늘 애착을 가지고있는 가죽잠바는 유난히 번들거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수첩에 받아 적고계시던 만년필을 덜컥 소리가 나게 뗼구시였다. 이 한가닥 음향이 침묵에 잠기였던 방안공기를 모질게 자극하였다. 오기섭이와 최준걸의 시선이 일제히 그이께로 쏠리였다.

《최준걸동무! 하나 물읍시다. 그렇다면 동무는 아까 제기한 그 두가지 요인가운데서 어느것이라고 짐작합니까? 8.15당시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입니까?》

《장군님! 그 이후라는것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8.15당시라면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자연건조만으로도 습도가 그렇게 높지 못할것입니다.》

《그렇다?》

그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번에는 오기섭이쪽으로 상체를 기울이시였다.

《오기섭동무, 동무의 조사자료에 대해서 당사자인 강병철기사는 어떻게 생각하고있습니까?》

이때 최준걸이 고개를 번쩍 들었는데 안경알이 강한 반사광을 내뿜었다. 그것은 최준걸이 자기도 그것을 따지고싶었다는것을 열렬히 부르짖는듯싶었다.

《너무 야박해서 저는 그것을 우정 뒤에 돌려놓았었는데 하는

수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즉 강병철자신이 내앞에서 자기의 고의적 행동이라는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기섭은 그가 고의적일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기 위해 그의 가정출신과 본인의 성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행위의 구체적 동기 같은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가 강병철의 결정적인 약점으로 보는것은 그의 가정출신이 부유하다는 점이였다. 즉 중산층이상에 이르는 기업가의 아들인 강병철이 어떤 리유에 의해서도 계급적으로 적대되는 프로레타리아를 위해 복무할리는 없을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어떤 인간이든지 그의 현재를 리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이전이 어떠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데 강병철은 만주침략의 본거지이기도 한 려순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때문에 조선과 중국을 침략하는 독아를 가지게 된 그는 인차 일본 야하다에 건너가 충실한 일제의 앞잡이로 되였습니다. 그 과정에 어떻게 했는가는 흥남에 있는 한 절름발이청년이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 있을진대 오늘의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며 따라서 현실이 일목료연하게 그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기섭의 말투는 처음부터 자신만만하였다.

《알만합니다. 동무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3

두 보고자가 일제히 자리를 뜨려고 했을 때 좌현이가 나타나 흥남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였다.

《흥남에서? 누구한테서요?》

그이께서 물으시자 좌현이는

《탄광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긴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긴급한 일이면 이쪽으로 돌리시오.》

좌현이가 돌아나가는것과 함께 **김일성**동지께서는 송수화기를 집어드시였다. 두 보고자는 흥남이라는것에 한껏 호기심이 생겼지만 방을 비우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하였다. 그러자 그이께서 잠간 기다리라고 손짓을 하시고 전화를 받으시였다.

《네! 제가 **김일성**입니다. 네! 신창탄광의 누구?… 박…》

전화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바가지라는 박, 알겠소. 창끝이라는 창, 다음엔 음! 술술 넘어간다는 술, 박창술. 하하하. 알겠소, 박창술, 가만.》

그이께서는 최준걸에게 박창술이 누군가 기억이 나는가고 물으시였다. 최준걸은 신창탄광 자치회책임자가 박창술이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래 용무를 말하시오. 음! 음! 석탄을 캐야겠는데 정대가 없다. 그래서, 그래서 와보니 정대를 만들수 있는 기사는 붙잡아놓고 일을 안시킨다. 가만 좀 있소. 동무가 열쇠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던 동무가 아니요? 금고열쇠 말이요. 그렇다. 옳소. 알만하오, 알만해. 하하하, 그렇구만. 어서 말하시오. 그때 려관에 있다던 그 강철기사, 옳소, 그때 나도 만나보았소. 그 사람이 반동이라고 한다? 반동이든 뭐든지간에 강철을 뽑아 정대를 만들어야겠다. 승인해달라. 알겠소. 곧 대책을 세우겠소. 알만하오. 미안할것이 뭐가 있소. 우리는 그때 약속하지 않았소. 애로가 있으면 아무때나 전화를 해도 좋고 찾아와도 좋다고. 알겠소, 알겠소.》

그것으로 전화는 일단 끝났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앞서보다 완전히 기분을 달리하시였다.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제기되였습니다. 신창탄광 로동자는 반동이든 뭐든 그것은 후에 재판할셈치고 지금 당장은 특수강을 만들수 있는 사람은 강병철기사 한사람뿐이니 우선 그것을 만들고 보자고 합니다.》

그이께서 최준걸에게 시선을 보내시였을 때 그는 《그렇게도 할수 있을것입니다.》 하고 송구스러운 낯을 지으며 대답하였다. 그러나 오기섭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런 실패와 모험은 한번이면 충분한것이지 그것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 그런 로가 다섯손가락안에

드는데 그것을 아이들 놀이감 다루듯 할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역시 오기섭의 표정과 몸가짐도 최준걸이 못지 않게 근엄하였고 또 그것으로써 자기 견해에 대한 확신성을 충분히 나타내고있었다.
《좋습니다. 돌아들 가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현상을 놓고 립장이 두 극단으로 달아나고있어서 불쾌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그런 기색은 전혀 나타내지 않으시고 두 보고자를 자연스럽게 돌려보내시였다.
이때는 벌써 그이의 심중에 확고한 결심이 지어져있었다. 직접 가서 알아보자, 언제나 최상의 방법은 누구의 말을 따르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결심하는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일에 걸쳐 그이께 형성된 하나의 공고한 방식이였다. 이전에 군사행동을 위주로 할 때도 그러하였고 얼마전에 철도공장사건때도 또한 그런것을 느끼시였다. 그때도 김책을 대신 내보내서 사태를 수습하게 할수 있었는데 직접 나가보니 결국 누구를 대신하게 하지 않은것이 천만번 옳았다는 생각이 드시였던것이다. 방금 박창술이가 요구해온것만 해도 그렇다. 누가 옳고그른가는 차후에 판가름한다치고 당장 혁명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사심없는 정당한 목소리이며 요구이다.
밤은 벌써 깊었다. 좌현이는 벌써 두번이나 찾아들어와 식당의 안명숙이 아직 기다리고있다고 알리였다. 그러나 한 인간, 한 지식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을 저울질하는 이 마당에서 쉽게 물러서실수가 없었다. 한 지식인에 대한 운명이자 곧 우리 혁명에서 지식계층에 대한 태도로 될것이였다.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서서 거리를 내다보시였다. 들끓던 거리도 벌써 정적이 깃든지 오랜데 희미한 외등만이 그물그물 졸면서 텅빈 길바닥을 지키고있다. 사람이 생겨나서 수수만년 살아오는 동안 그들은 이른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애를 써왔던가. 하여 철학이라는 학문을 생각해내서 진리라는 기준을 발견했으며 또한 법률과 륜리를 동원해서 생활의 착오를 막고 균형을 유지하고있다. 자연을 향해서는 수많은 측정계기들과 도량형기들을 만들어 편향과 오차를 없애고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인간은 아

직도 시작한 그때와 별로 다름없이 공정성을 기하기가 그토록 어려운것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특유한 감정이라는것이 있어서 그것을 항상 어느 한쪽에 올려놓게 되기때문이 아닐가, 그렇다면 강병철에 대해서 나는 어느쪽에 더 치우치게 되는것일가. 처음 강병철을 만났을 때 그는 주저함이 없이 내 나라의 강철을 위해서 한몸바치고싶다고 하였다. 이때 그의 눈은 긍지에 넘쳐 빛나고있었으며 온몸은 걷잡을수 없이 흥분되여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는 그 무엇인가 의욕에 차있었으며 선량하고 정직한것이 비껴있었다. 또한 그의 표정에는 가식이 아니라 진정이 그리고 그 어떤 리기적인것이 아니라 정의로운것에 대한 희생의 각오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그 당시 나는 그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전에 감정은 벌써 그를 끝없이 믿고있었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던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식인을 대하였지만 언제나 그러하였으며 그 립장은 오늘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물론 개중에는 리종락이와 같은 배신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극히 보잘것 없는 부분적인 현상이고 그것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단시해야 한다는 근거를 이끌어낼수는 없다. 성공을 해도 사람을 믿다가 성공을 하고 설혹 실패를 한다 해도 사람을 믿다가 실패하면 여한이 없을것 같다. 그렇다면 강병철은 어째서 믿을수 없으며 믿었다 한들 무엇이 잘못으로 될수 있는가. 그런데 최준걸이나 오기섭이 제기한 그대로 《본인이 고의적》으로 한것이 틀림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일성동지께서는 얼마 넓지 않은 방안을 몇번이나 거듭 오가시였다.

4

박창술은 전화통에서 물러나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였다. 텅빈 공장자치회사무실 나무걸상에 앉은 그는 련달아 마라초를 석대나 피웠다. 어벌이 쑥 빠진 가슴은 텅 빈것 같고 후련하였다.

한데 아직도 귀전에는 웅글은 장군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열쇠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왔던 동무가 아니요?… 미안할것이 뭐가 있소. … 애로가 있으면 아무때나 전화를 해도 좋고 찾아와도 좋다고 하지 않았소.》

왜 그런지 가슴이 부그그 끓더니 뜨거운것이 목구멍으로 올라오면서 눈굽이 달아났다. 그는 눈물을 떨구고있었던것이다. 물론 기쁘고 감격해서 그렇겠는데 그는 기쁜줄도 자기가 흥분해있는줄도 의식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때 그의 온몸에 굽이쳐흐르는 감정은 그토록 바쁘신 장군님께 하찮은 일로 큰 걱정을 끼쳐드렸구나 하는 생각뿐이였다. 그렇게 될수록 떡떡거리고 요지부동인 공장장 리연수와 보안서장 박인국에 대한 불만이 불길처럼 솟아올랐다. 박창술은 꼬박 1주일동안 공장장 리연수를 찾아다니며 사정을 했었다. 특수강이 나와야 석탄을 캘수 있고 석탄이 나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주민들의 온돌을 덥힐것이 아닌가, 강병철이 나쁜짓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내가 담보한다, 나는 그 사람을 보증할수 있다, 만약 또 사고가 나면 그때는 내가 대신 법적 책임을 지겠다. 이밖에도 박창술은 별의별 수를 다 써보았지만 리연수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꼭같은 대답 《반동에게 합금로를 다시 맡기자는것은 반동과 같다. 또 내게는 석방할 권리도 없다.》 이것이였다.

박창술은 팔을 걷어붙이고 달라붙었다.

《뭐 반동? 누가 반동이야. 특수강을 내자는것이 반동이냐 그것을 못내게 하는것이 반동이냐?》

그는 공장장의 책상을 두드리며 들이대였다. 리연수 말처럼 박창술은 덮어놓고 벽을 문이라는 식의 억지가 있었다. 오직 그는 내가 본 강병철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가 특수강을 만들수 있다고 했을 때 그의 눈에는 거짓이 비껴있지 않았소 라고 할뿐이다. 그러나 리연수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난 평양에서 온 오. 케. 에스한테서 절대 내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시를 받았다.》

《뭐요, 평양에서 온 오가? 그게 도대체 누구인데?》

《누군가구? 공산당본부의 큰 인물을 몰라?》

《좋다. 그럼 난 **김일성**장군님께 보고해서 해결받겠다.》

《아니 뭐, 하하하. **김일성**장군님께 당신이 보고해? 저 사람 온기 있어? 이거 좀 돌지 않았어?》

리연수는 집게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키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시늉을 해보이였다. 박창술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 펄펄 뛰였다. 그러다가 그는 허리춤에서 금고쇠대를 꺼내 리연수가 앉은 책상우에 땅 하고 소리가 나게 메치였다.

《그래 내가 돌았다구. 이걸 보오. 이게 뭔지 아는가?》

《여보,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거요. 그거야 금고쇠대 아니요. 저 사람이 돌아도 이만저만 돌지 않았거든.》

《이건 장군님께서 나한테 주신 신임장이란말이요.》

박창술은 얼굴이 시퍼렇게 돼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럴수록 리연수는 한껏 더 야비한 웃음을 웃었다.

《그래 내가 보고하지 못할줄 알구.》

이렇게 승벽을 겨루다가 박창술은 벽걸이전화통에 매달려 평양을 부르라고 교환수에게 큰소리를 쳤던것이다. 전화를 거는것을 목격한 리연수는 눈이 퀭해지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박창술은 그에게 된방을 안길 생각도 못한채 공장구내길을 빠져서 보안서로 달려갔다.

박인국은 기세가 등등한 박창술을 보고 놀라서 일어났다.

《서장동무, 내 할말이 있는데 강병철의 방의 쇠대를 열어주오.》

《그래 당신이 정말 평양에 전화를 걸었단말이요?》

《그건 왜 묻소. 남이야 전화를 했든 말았든 당신이 관계할바가 아니란말이요.》

《여보! 동갑이친구. 그렇게 빽빽하니 그럴거 뭐 있소. 서로 의논해서 좋도록 하잔말이요.》

리연수에게서 평양에 전화건 소식을 들은 박인국은 태도를 홀연 바꾸어버렸다. 그가 동갑이친구라고 한것은 서로 징병1기에 걸려 만주 목단강에까지 끌려갔다가 줄 개고생을 하면서 돌아왔다는것을 안후부터 통하는 별호였다. 아직도 하이칼라가 채 자라지

앉아 수밤송이처럼 빳빳한 머리를 흔들면서 박창술이 또 다궂는다.
《그래 쇠대를 열겠소, 못열겠소?》
박인국은 하는수없이 강병철이 들어있는 지하실로 내려가 문을 쩍 열어주었다. 사실은 쇠대를 채운것도 아니였다.
강병철은 널마루에 앉아서 종이에 무엇을 쓰고있다가 흠칫 놀라며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강선생! 일어나오. 오늘부터 내가 대신 여기 갇혀있을테니까 빨리 나가 강을 뽑을 대책이나 세우시오.》
너무나 도고하고 기세가 등등한데 놀란 강병철은 순간 얼떠름해졌다.
《내가 대신 여기 갇혀있겠다?》
그는 문밖에 서서 역시 같은 본새로 놀라고있는 박인국을 쳐다보는데 박인국이자신도 무슨 영문인가고 묻고있는것 같았다.
박창술은 다짜고짜로 강병철의 등을 떠밀어 문밖으로 내보내더니 문을 절컥 닫고 널바닥에 올방자를 틀고 앉았다.
《서장동무!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아무 손해가 없잖소.》
《여! 이러면 안돼, 동갑이.》
박인국은 당황해나서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안에서 박창술이 마주 당기고있기때문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 서로 힘내기를 하다가 끝내 이기지 못하게 되자 박인국은 우로 올라가 두명의 대원을 데리고 내려왔다. 이렇게 되여 박창술을 끌어내기 위한 소동이 벌어졌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로를 폭파시킨 기사가 도망친것으로 알고 왁작 떠들었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신창탄광에서 왔다는 괴짜청년을 끌어내야 한다고 한다. 체격이 좋고 힘내기를 해서는 두셋을 능히 당할수 있던 박창술은 결사적으로 자기 결심을 관철하려고 뻗대였다. 성격이 직통배기였던 그는 바로 이렇게 해서라도 특수강을 뽑아 정머리를 만들어갈 작정이였다.
알고보면 그가 이토록 비정상적이라고 할수 있는 행동을 하게까지 된데는 그럴만한 딱한 사정이 있었다. 8.15광복! 이 력사적인 소식은 온 나라땅을 뒤흔들어놓으면서 끝없이 번져나가다가 랑림산줄기의 남쪽끝에 위치하여 외계와 격리되다싶이한 신창땅

에도 세차게 밀려들었다. 궁벽하기 이를데 없는 이곳 신창에 이른 세기적 파동은 맨 마지막 기슭에 이르러 마치 기슭을 차고 일어나는 파도처럼 키를 솟구며 뿜어올랐다. 며칠후에는 또 그만 못지 않은 또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에 개선하시였다는 놀라운 소문이였다. 산으로 둘러막힌 협착한 골짜기에 갇혀 살던 이곳 사람들은 옥문을 마스고 뛰쳐나오는 수인들처럼 구정역을 빠져 신성천으로 밀려나왔다. 그속에 패기만만한 한패거리의 청년들이 끼여있었는데 그 가운데 21살난 징병출신 박창술이도 있었다. 그의 허리춤에는 한근이나 될만치 무게가 나가는 탄광 금고열쇠가 달려있었으며 바로 그옆에서는 쥐기밥을 꾸린 보자기가 데룽거리였다. 일행 가운데서도 박창술의 기세는 단연 뛰여나는 축이였는데 그는 언제나 총구멍을 빠져나갈 탄알모양으로 오직 돌진하는것밖에 몰랐다. 때문에 평양으로 가자고 결심이 내리자 도보로 사흘에 와닿았고 온바에는 장군님을 만나뵈옵자고 하는 의욕이 북받치자 체면이나 후과 같은것을 가릴새없이 장애를 밀어제끼고 뚫고들어갔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역전려관에서 묵다가 끝내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되였으며 열쇠에 대한 일화도 남기게 되였다. 바로 그때 앞으로 강철을 뽑아 정대를 만들어주겠다던 강병철과도 인연이 맺어지게 되였다. 평양에서 며칠 더 묵고있다가 장군님의 개선연설을 들을 때 며칠전에 만나뵈온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는것을 더욱 똑똑히 알게 되였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것이 없어보이였지만 그의 정신적 변화는 참으로 놀랄만 하였다. 그는 도착하는 날밤으로 탄광주민 천여명을 한마당에 모이게 하고 일장연설을 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내가 만나뵈왔습니다. 내가 이 눈으로 보았지요.》 그는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툭툭 치기도 하고 인지로 눈섭이 시꺼먼 자기 눈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탄광의 주인이라고 했수다. 나도 주인이고 석원아바이도 주인이구요. 우리모두가 주인이야요.》

그는 또 자기와 자기앞에 앉아있는 중로배와 그 다음에는 두

손을 쩍 벌리고 광장에 가득 모인 군중전체를 향해 주인이라고 력설하였다. 처음시작은 그때 흔히 있었던 연설투로 꽉지를 떼였는데 중간쯤부터는 묻고 대답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통에 매우 무질서한 상태를 빚어내였다. 어쨌거나 격식없이 진행된 이 모임에서는 박창술 등의 평양행차에 대해서 보고 들은 모든 세부까지 동이 나게 다 받아내였으며 나중에는 《**김일성**장군 만세！》가 요란하게 터져서 신창골안이 떠나갈듯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을 맨처음으로 만나뵈온 영광이 컸던것만큼 그 다음날부터 그는 매우 난처한 립장에 처하게 되였다.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 별의별것을 다 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염낭에서 수첩을 꺼내서 해답을 찾군하였다. 그 수첩에는 장군님께서 하신 가르치심이 하나도 빠짐없이 적혀있었다.

맨처음에 《도대체 쌀은 언제 줄수 있는가.》 하고 물어왔다. 그는 제꺽 《인차 주게 된다.》고 제말로 대답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수첩갈피를 번져놓고 《자！ 들으시오.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수다.》 하고는 수첩에 적은 한구절을 읽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탄광에 쌀을 보내주자고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자！ 알아들었습니까？ 알았다면 돌아가 일이나 잘하시오.》 하고 돌려보내였다.

그다음에는 《조선이 언제 독립된다나, 그리구 공산주의가 되나 자본주의가 되나？》 하면 또 수첩을 펼치고 벌컥벌컥 뒤지다가 《자, 이렇게 적혀있수다. 〈우리는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 하나같이 단결해서 건국사업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언제 독립이 되는가 하는것은 우리가 건국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건국사업을 잘하면 한두해전에 될수 있고 단결되지 못하고 옥신각신하면 늦어질수 있습니다.〉 알만합니까？ 아바이, 나라를 세우는것도 남의 일이 아니라 제 일이란말입니다. 누가 독립을 선사하려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보게, 건국사업, 건국사업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 통 알수 없단말이야.》

석원아바이는 듣다가도 모르겠다는투로 불평을 하였다.

《그래요. 그것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는 수첩을 또 번지였다. 《여기 이렇게 적혀있수다. 물음 박창술 〈장군님！ 다른것은 다 할수 있는데 저는 건국사업은 못하겠습니다. 건국사업을 하자면 연설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알맞춤한 일을 시켜주실수 없겠습니까？〉 대답 **김일성**장군님 한참 웃으시고 나서 대답하시였다. 〈남들은 연설을 다 잘하는데 동무는 왜 연설을 배우지 못했소？〉 하고 또 웃으시더니 〈탄부들은 석탄을 많이 캐는것이 곧 건국사업입니다. 석탄이 있어야 공장과 발전소가 돌아갑니다. 공장이 돌아가야 먹을것, 입을것을 만들어내고 기차도 달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는것이기때문에 건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아바이, 알만하지요？》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사람마다 대답을 주고 해야 할 일에 대한 조언을 주었다. 그러나 어떤것은 전혀 대답이 불가능한것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참말 립장이 딱해졌다.

어떤 녀인은 《저 태평양쪽에 징병으로 끌려간 사람은 언제쯤 돌아올수 있답니까？ 살아있기나 한지 그건 모릅니까？》 또 어떤 청년은 《조선군대모집은 안하는가.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면 군대가 있어야 할거 아니요.》 또 어떤 할머니는 《빚값에 딸을 빼앗겼는데 당장 가서 찾아와도 법에 걸리지 않소다？》 하고 묻는다. 별의별 질문이 다 제기된다. 지어는 아이를 낳지 못해 후실을 삼았는데 그냥 있으라나, 돌려보내라나 하고 묻기도 하였다. 이런것들은 그의 머리로써는 도저히 대답을 만들어낼수 없어서 후에 다시 평양에 가서 알아올터이니 일이나 잘하라고 하여 돌려보내군하였다.

어쨌든 박창술은 대단한 인물로 되였다. 탄광운영에 대한 책임이 저절로 그한테 쏠리더니 《탄광장》이란 이름까지 붙었다. 박창술은 무섭게 일을 하였다. 여기저기 잘 보이는데다 평양에서 하는것처럼 우선 구호들을 써붙였다. 먼저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대문짝만큼씩 크게 사무실과 네거리와 갱구와 영화관에 써붙였다. 그다음에는 《탄부들이여！ 석탄을 많이 캐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자！》 하는것을 작업장마다에 써붙였다.

박창술이 평양 갔다온지 꼭 보름이 되는날에 평양서 어느 한 일군이 내려와서 순천으로 장군님께서 보내주시는 쌀을 가지러 가자고 하였다.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무것이나 곤난한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길래 스스럼없이 외람되게 말씀올렸던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장군님의 큰 은덕으로 되여 나타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다.

그는 한달음으로 순천으로 갔다. 거기에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일을 보는 박원식이라는 혁명군출신이 와있었다. 바로 그 박원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끝내 2층집 그 숙소로 찾아갈수 있었던것이다. 박창술은 이미 낯을 익히였던 박원식을 얼싸안고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순천역에는 여섯방통의 쌀이 준비되여있었다. 근방농민들이 건국사업에 바친 성출미라고 하였다. 이튿날 쌀방통은 신창탄광구내에 들어섰다.

탄광안의 전체 군중이 철도역에 모인 가운데 박창술은 쌀가마니 꼭대기에서 불을 토하는것 같은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신창탄광로동자들에게 쌀을 보내주시였습니다.》

그는 입이 얼어서 말을 하지 못하면서 쌀가마니를 부둥켜안고 우들우들 몸을 떨었다.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였다. 돈도 없고 쌀도 없던 그들이였다. 돈이 있대도 쌀을 구할수 없는 벽지였다. 박창술이 갔다온 말을 듣고 행여나 하고 막연하게 기대를 걸고있던 그들의 소망이 이렇게 실현되였다.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들어옮기며 감격에 눈물을 흘리였고 쌀자루를 채워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마다 《**김일성**장군 만세！》를 불렀다.

《아！ 이제는 우리도 살수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군님이 계신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온 탄광거리에 기쁨이 넘치였다. 진정 또 한번의 광복이 온것 같았다.

《여러분！ 그러니 장군님께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탄을 캐서 보냅시다.》

앞자락을 활짝 열어제끼고 사택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박창술은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이렇게 해설을 하였다.

전체 탄광이 생산을 위해 끓어번지였다.

그는 청년들을 휘몰아가지고 물이 찬 갱도에 들어가 물을 퍼올리였다. 뽐프가 있는데서는 뽐프를 돌리고 그런것이 없는데서는 초롱으로 드레질을 했다. 한달 실히 걸려 마구리들을 다 열게 되니 이제는 착암기와 정대가 필요하였고 화약이 있어야 하였다. 착암기를 수리하고 정대를 수집하였다. 그중에서도 정대가 제일 큰 문제였다. 왜놈들이 망할녘에 정대가 없어서 고생을 했는데 꽁다리까지 주어모아도 얼마 안되였다. 다른 탄광,광산에 사람들을 띄웠지만 어데나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지어 부뚜막을 쌓을 때 북거리로 썼던것까지 뽑아왔지만 수요를 채울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박창술은 평양역전려관에서 만났던 강병철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로자를 든든히 마련해가지고 길을 떠났다.

기차로 양덕고개를 넘어 고원,함흥을 거쳐 집떠난지 일주일만에 흥남에 가닿았다. 먹으며 굶으며 타며 걸으며 녹초가 된 그는 그래도 이제 강철이 나오면 한방통 싣고가서 큰소리를 치리라 생각했던것인데 그만 탕개가 툭하고 끊어지고말았다. 로가 폭파되고 강병철은 보안서에 갇혀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박창술은 문짝에 끼운 때처럼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맥을 놓고 주저앉을 그가 아니였다. 오히려 그 어떤 장애에 부닥치게 되면 더 완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그것을 끝까지 타고앉고싶어하는 박창술이였다. 그는 곧장 공장장 리연수를 찾아갔다. 기다란 장방형 방에 붉은천으로 책상보를 씌운 탁자앞에 키가 크고 얼굴이 부석부석한 40에 가까운 사나이가 틀지게 앉아있었다.

《당신이 여기 공장장이요?》

첫마디부터 전혀 세련이 없는 무드러진 말투였다. 리연수는 빼끄라이드갱내안전모를 쓰고 온통 석탄먼지투성인 박창술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그렇소. 내 여기 공장장이요. 그런데 동무는 도대체 누구요?》

《공장장이 옳다? 나는 신창탄광 로동자요. 그런데 왜 정머

리에 쓸 특수강을 만들지 않소. 공장장이 있으면서.》

《허허, 공장장이 있으면서 왜 강을 만들지 않는가. 그것 참 좋은 질문을 했소. 보아하니 당신이 탄광장같은데 오기섭동지가 지도한 평양협의회에선 당신을 본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로동자라고 하잖소.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강을 만들지 못하면야 쥐를 못잡는 고양이나 같지 않소. 도대체.》

《시비는 그만하고 어서 용무나 말하오.》

《용무는 특수강을 뽑아서 정머리를 만들어 가는건데 여기는 무인지경이란말이요. 당신이 지시해서 강병철기사를 보안서에 붙잡아넣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렇소.》

《당장 내놓소. 그 사람은 반동이 아니요. 특수강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반동일수는 없소. 그 사람이 특수강을 만들겠다고 한것은 순 나때문이요. 평양에서도 부탁했었구 또 먼저번 왔을 때 비료생산때문에 바쁘다는걸 내가 탄광에 또 물이 차면 되겠는가고 떼를 써서 정머리를 만들 특수강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던거요.》

《허허, 이거 뭐 담벽을 향해 할 소리가 있어야지. 여보, 강병철은 로를 폭파시켰단말이요.》

《그럼 공장장은 뭘하는 사람이요? 로에 불을 때지 않으면야 강병철이나 공장장이나 뭐가 다르오? 다같이 반동이지.》

그는 문을 후려닫고 보안서장을 찾아갔다.

《죄없는 사람이니 당장 내놓으라. 만약 내 말을 안듣고 석탄생산에 지장이 있게 하면 당신 모가지에 올가미를 걸겠소.》라고 을러메였다.

그러나 그런 정도로 홀가분하게 넘어갈 박인국이 아니였다. 힘내기를 하건 수놀음을 하건 결코 누구에게 짝지지 않는 징병출신인 그였기때문에 보안서장을 자진해서 말아나섰는지도 모른다.

박인국이 그렇게도 도고해진것은 그의 개성적 틀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얼마전에 여기 왔다간 북조선에서 손에 꼽히는 공산당의 《큰 인물》 오기섭의 담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던것이다. 박인국의 해석에 의하면 강철이 중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강병철이 중요

해서 그런지 명백히는 알수 없는데 로폭파사건을 둘러싸고 평양에까지 큰 파문이 미쳐간것만은 사실이다. 련이어 사람이 내려오고 전화도 온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굵직굵직하다. 함흥에서만도 공산당 도당, 도인민위원회에서 책임자급이 왔었고 그후에는 평양서 최준걸이라는 실력자가 왔다. 최준걸은 기술자이기때문에 그런지 조용조용히 기술적으로 감정을 하고 관계자들과 만나 전후사연을 캐고 어떤것은 직접 기계를 움직여도 보고 로안에 들어가보기도 한후에 아무런 파문이나 여운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올라갔다. 그러나 오기섭은 전자와 완전히 방법이 달랐다. 그의 움직임이 요란하였으며 판을 크게 벌리군하였다. 관계자들을 하루이틀 만나더니 강철직장에 전체 종업원을 다 모이게 하고 연설을 하였다.

합금로란간우에 번쩍 올라선 그는 가죽잠바앞자락을 쩍 가르고 오른쪽팔을 군중앞에 쭉 내뻗치였다. 2시간여에 걸친 오기섭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무렵에 이곳 합금로의 폭파사건이 언급되게 되였다. 그는 이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말하였는데 부유한 가정출신의 지식인인 강병철이라는 사람이 광복이라는것으로 해서 자기 처지가 달라지는데 겁을 먹고 고의적으로 해독행위를 하였다고 규정하였다. 그것은 야하다제철소에서 불구자가 되여 돌아온 최성우라는 청년의 말을 들어보면 잘 알수 있을것이라고 하고 범죄자는 앞으로 인민앞에 공개적으로 심판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렇듯 계급투쟁은 더욱더 치렬해진다고 경고하였다. 그다음 그는 인터나쇼날 노래가사를 류창하게 3절까지 외우더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얻을것은 전세계요 잃을것은 철쇄뿐이다.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전세계 프로레타리아는 단결하라!》 하고 끝을 맺었다.

류창하기 이를데 없는 연설을 끝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격동적으로 그러면서도 결코 화려하게만 보이지 않도록 당성을 부여하고나서 결구를 맺었다. 그날밤 작은 범위로 소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오기섭은 리연수와 박인국을 불러서 자기 승인이 없이는 강병철을 어데 옮기거나 석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된 박인국이기때문에 박창술이 아무리 드세게 들이댄

다 해도 추호의 동요도 일으킬수 없었다.

《박창술동무! 나오시오. 이렇게 하면 치안유지에 지장이 있소. 정 이러면 우리는 법으로 처리하겠소.》

가죽장화를 신은 발을 쩍 벌려디디고 박인국은 구류장뒤벽에 제 빠듬히 누워있는 버티기군에게 엄명을 내리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박창술은 강병철을 석방하기전에는 나갈수 없다고 뻗치고있다.

《당신이 너무 큰 대상과 맞다들었단말이요. 당신은 지금 귀뚜라미가 바위돌을 굴리겠다는거나 같은 소리를 하고있소.》

《뭣이? 귀뚜라미?》

박창술은 벌떡 일어나며 되묻는다.

《그렇소. 우린 지금 오기섭동지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것이기때문에 거기서 다른 지시가 없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단말이요.》

《오기섭이가 누구야! 난 그런거 몰라. 난 **김일성**장군밖에 모른다.》

《공산당에서 큰사람이라는데 그것도 모르면 당신은 형편없는 송사리가 분명한데 입만 살아서 큰소리야.》

《뭣이 어째?》

그는 벽력같이 고함을 지르며 지하족을 벗어서 서장의 면상을 향해 집어던지였다. 박인국이 홀쩍 피하는바람에 신짝은 뒤벽에 날아가 부딪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였다.

5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습관된대로 새벽 3시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침대에서 일어나신 그이께서는 창가에 다가서시였다. 창밖은 아직 캄캄하였다. 어제는 평양에서 떠나서 하루종일 차칸에 앉아 여기 흥남에 늦어 도착하셨고 눌러 공장자치위원회에서 새날이 잡히도록 협의회를 하시였다. 하지만 전혀 피로를 느끼실수 없었다. 그이께서는 창가림을 밀어제끼고 문을 열어놓

으시였다. 바다바람이 솔솔 불면서 미역내를 실어왔고 연두색 창가림은 가슴노리를 스적스적 건드린다. 두팔을 쩍 벌리고 심호흡을 하시였다. 싸늘한 공기가 온몸에 스미였다. 기분은 매우 상쾌하시였다. 그것은 아침서경도 좋았지만 아마 오래전부터 여기에 오시고싶었던 하나의 소망이 이룩된것으로 해서 오는 일종의 환희때문일수 있었다. 광복전에도 그이께서는 언제나 흥남 여기를 하나의 중요대상으로 지목하고계셨으며 광복후에도 역시 그러하시였다. 그것은 여기가 현대적인 대공업기지의 하나이며 따라서 산업로동자들이 집중된곳이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그이께서는 10월에 당창건을 선포하시고 인차 동해지구를 돌아보실 예정이였던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낼수 없어서 하루하루 미루신것이 어언 12월, 년말이 가까와와서야 길을 떠나실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가에 서시여 시간이 갈수록 차츰 웅장한 자태를 하나하나 드러내보이고있는 공장을 흐뭇한 기분으로 내려다보고계시였다. 눈이 모자라게 아득히 펼쳐졌고 그 기상이 장엄하며 울뚝불뚝 높이 솟아 힘을 느끼게 하는 대공장의 정경이였다. 군데군데 눈이 부시게 야외등이 켜있었으며 그 빛을 반사해서 규모있게 쭉쭉 뻗어간 철골들, 배관들, 그사이에 엄엄하게 머리를 쳐들고있는 탕크들, 합성탑들…

참으로 장관이다. 우리에게 이런 재부가 있다는것은 하나의 자랑이 아닐수 없다. 피폐하고 궁핍이 실실이 드리운 초가이영의 농촌마을, 길가에 다문다문 잇대선 읍거리들, 그것들과는 놀랄만한 대조를 이루며 장엄하게 산업도시가 여기에 펼쳐져있다. 말그대로 이 나라 민족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여기서 이제 인민의 복리를 위한 교향악이 울려나올것이다.

어느덧 날이 밝았다.

동켠하늘에서 희멀긴 안개와 같은것이 차츰 흘러퍼지는가 했더니 어느새 놋대야같은 아침해가 불쑥 바다에서 솟아올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을 더 활짝 열어제끼시였다. 바람이 불어 창가림이 세차게 흔들리였다.

그이께서는 세면장으로 들어가시였다. 전등불도 밝고 수도는 압

이 세게 내쏜다. 비누갑에는 진한 향기가 나는 연분홍색 비누가 들어있다.

《오! 〈흥남인민공장〉!》

그이께서는 크게 혼자소리를 내면서 비누를 집어드시였다. 글자획이 뚜렷한 우리 글이 비누에 찍혀있다. 신기한 물건을 처음 보시는것처럼 비누 한개를 이모저모로 뜯어보시였다. 부드럽고 매끈매끈한것이 손안에서 뱅글뱅글 돌아간다. 마치 살아있는 금붕어를 잡아쥐고계시는것 같은 감촉이다. 온 얼굴에 기쁨이 피여났다. 식사시간이 되였을 때 그이께서는 그 비누를 내다놓으시고 동석한 이곳 일군들과 수원들에게 흥분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이걸 보시오. 이것이 이 공장에서 만든 비누입니다. 여기에 〈흥남인민공장〉이라고 찍었습니다. 인민! 인민입니다. 참말 좋은 이름입니다. 이걸 누가 달았습니까?》

맞은켠에 앉았던 얼굴이 철색이고 이마가 벗어진 이곳 공장장 주정훈이 못내 황송해하면서 대답을 올리였다.

《저희들이 토론해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왜정때는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수 없어 우리 인민이 제일 좋아하는 문구를 따다보니까 그렇게 되였습니다.》

나이는 50줄인데도 아이들처럼 어깨를 흔들며 좋아하였다.

《잘했습니다. 일본놈들은 천황페하를 내세우지만 우리는 인민을 내세우는것이 기본입니다. 인민의 공장에서 인민을 위해 물건을 만들고 인민에게 복무한다는 뜻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쓰기도 좋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우리는 벌써 승리한것입니다. 일제는 공장을 파괴해놓고 다시는 여기서 비료가 나오지 못한다고 했다는데 그자들의 면상을 후려갈긴셈입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지난밤 늦게까지 협의회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였다. 흥남은 우리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비료가 있어야 쌀이 나오고 쌀이 있어야 정치를 할수 있다, 현재 우리는 큰 식량난을 겪고있다, 온 나라가 대기근의 찬바람속에서 떨고있다, 이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걸음도 전진 못한다, 나라를 세우자고 해도 쌀이 있어야 하고 경제를

복구하자고 해도 쌀이 있어야 한다, 그 명줄이 바로 이 공장에 달려있다, 그래서 벌써 와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쌀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평양철도공장사건을 상세히 말씀하시였다. 그 과정에 10여성상 같이 싸워온 항일유격대원 박원식이 희생되였다는데 대해 처절하게 말씀하시였으며 탄광,광산 로동자들이 굶주리면서 석탄이나 쇠돌을 캐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식사가 끝나고 공장시찰을 시작하려고 하시였을 때 언제나 침착하던 김좌현이 땀을 벌벌 흘리며 나타나 떠나는 시간을 좀 미루어야겠다고 말씀올리였다.

《왜 시간을 늦잡아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오늘일정이 긴장한데.》

거울앞에서 넥타이를 매시던 **김일성**동지께서 리해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였다. 김좌현은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었다. 김좌현이 공장으로 통하는 한길에 나갔을 때 거기에는 벌써 수천명 군중이 모여서 왁작 끓어번지고있었다. 경각성이 높은 김좌현은 군중속에 들어가 여론수집을 해보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김일성**장군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것을 알고 공장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이 떨쳐나 숙소길목을 지키였다. 여직 신문지상에서 사진을 보았을뿐 직접 만나뵈온적이 없는 그들은 《장군님을 뵈오러 가자!》 하고 이른새벽부터 떨쳐나섰다. 그들은 골목골목에 모였다가 날이 밝자 삽시간에 한길가로 밀려나왔다. 김좌현은 급히 이곳 일군들과 합의하여 군중들을 다 돌려보낸 다음에 장군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도록 하자고 하였다.

《사실이 그렇다면 나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웃으면서 말씀하시였다.

《그렇게 되면 호위사업이 더욱 곤난하게 됩니다.》

《호위사업? 호위사업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사령관동지께서도 아시다싶이 며칠전에는 여기 전해직장에서 고급기능공이 두명이나 암살되였습니다. 련속 인명사고가 일어납니다. 악당들이 공장에 매일이다싶이 나타나 불도 지르고 기계도 파

괴하고 도적질도 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김책동지가 저한테 엄격한 지시를 준것이 있습니다. 지난달 첫눈이 오는날 밤에 평양철도기관구로 가다가 악당들이 쏜 두발의 총탄이 머리우를 스쳤다고 하면서…》

말을 번지기조차 아슬한것이였다.

《그래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인민들을 피해달아나야 한단말입니까. 좌현동무, 별스럽게 생각할것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천보거리를 쳤을 때 숱한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았댔소. 연설두 했구. 항일무장투쟁시기 우리는 간데마다 허물없이 군중을 대하지 않았소. 간데마다! 15년동안이나… 그런데 광복된 제 땅에서는 그럴수 없단말입니까?》

넥타이를 바로잡고 상의를 입으신 그이께서는 서슴없이 현관을 나서시였다. 거리에서는 벌써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수천명 군중이 공장정문까지 잇닿은 대도로 량옆에 구름떼처럼 모여서 왁작 끓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번쩍 높이 들어 답례를 보내시면서 보도복판으로 천천히 걸어나가시였다. 환호성은 더욱더 높아져 온 거리와 공장을 들었다놓았다. 남녀로소가 모두다 발을 동동 구르며 두팔을 마음껏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잠간 걸음을 멈추시고 머리를 숙여보이기도 하고 그만 진정하라는 표시로 손을 저어보이기도 하시였다.

그럴수록 군중들은 더욱더 세차게 끓었다. 전설로나 듣던 백두산의 장군님, 꿈에서나 볼수 있었던 그 장군님께서 지금 손을 뻗치면 닿을수 있는 거리를 두고 앞을 지나가시는것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군중들의 웨침소리는 그이의 가슴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온몸에 용솟음치는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저 손을 들고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그럴수록 군중들은 더 세차게 설레였다. 그들은 해일처럼 밀려들어 장군님을 에워쌌다. 그

가운데서 김좌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어쨌든 공장쪽으로 길을 틔워 빠져야 하겠는데 그렇게 해낼수 없다. 그는 팔을 벌리고 《길을 내시오. 길을 내라요.》 했지만 그 인파를 막아내는수가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맨앞에 서서 가느다란 두팔을 들어올린 어느한 할머니앞으로 다가가시였다. 어데 사는가, 년세는 얼마인가 하는것으로 문안을 하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군중의 환호성때문에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경도식으로 머리수건을 쓴 할머니는 장군님의 웃으시는 얼굴과 덥석 자기를 안아주시는것을 통해서 말보다도 더 똑똑하게, 말보다도 더 뜨겁게 정을 느낄수 있어서 단번에 그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만경대할머니와 어쩌면 그리도 신통히 같은지 모르시였다. 깊이 패인 이마와 볼의 주름들, 무엇이나 직시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시선을 피하는 아늑하고 사려깊으며 언제나 젖어있는것 같은 눈길이 그러하였다. 청년들도 안기고 로인들도 안기였다. 김좌현은 들먹이는 가슴을 붙안고 한옆에 나서있었다.

《그렇다! 이들이 바로 인민이다. 그이께서 언제나 그토록 존중하고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믿고계시는 인민! 인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고 늘 가르치시던 그 인민과 장군님께서 지금 상봉하시는것이다. 로동계급! 그들의 열정이 작탄처럼 폭발한것이다. 아! 참으로 장쾌하다.》

숙소에서 공장까지 10분이면 넉넉한 사이인데 한시간이상 걸리시였다. 걷다가는 돌아서시고 또 걷다가는 돌아서시군하였다.

흥분을 안으신채 그이께서는 전해직장을 다 돌아본 다음 압축기 복구장을 거쳐 하조직장으로 나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장장 주정훈에게 물으시였다.

《그동안에 30프로에 해당한 생산공정이 복구되였다는데 그에 대한 기술지도는 누가 했습니까. 참말 성과가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군가의 큰 노력이 스며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여기 합성탑이 일부 파괴되고 대형압축기도 한두대 못쓰게 됐다는데 그것은 큰 피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끼친 파괴는 거기에 비할바가 아니라고 하시였다.

일제는 패망하면서 이제 공산당이 들어오면 기술자들의 목을 달아맬것이라고 악선전을 해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을 빨리 찾아와야 한다, 그 사업은 기계 몇대를 수리하는데 비길수 없이 중요한 사업이다, 파괴된 설비는 복구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자면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 김책동무가 와서 기술자들이 없어서 사립학교를 꾸려놓고 기능을 배워주던 교원을 공장장으로 임명했다기에 잘했다고 칭찬을 했다고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하루빨리 기술자들을 찾아올데 대해서 거듭 강조하시였다.

《현재 우리가 종합한 자료에 의하면 일제가 패망시에 파괴한 공장기업소가 85프로나 됩니다. 이안에는 흥남공장압축기장이나 합성탑에 폭발장치를 한것도 포함되여있습니다. 빨리 사람들을 집결하시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설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누가 기술지휘를 하고있습니까?》

《장군님! 여기에 강병철이라는 기술자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동무는 려순공대 출신으로서 유능한 기술자입니다. 그 동무가 주동이 돼서 복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합금로에 가있습니다. 특수합금강을 만들어 탄광, 광산에서 쓰는 정머리도 만들고 공작기계에 쓸 바이트도 만든다고 했습니다. 화학공장에도 가고 기계공장에도 가고 5개공장을 다 돌아가며 기술지도를 했었습니다.》

《합금로가 폭파되였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이께서는 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평양을 떠날 때부터 강병철에 대해서 생각하고계시였는데 정작 와보니 꼭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시였다.

6

박창술이 일으킨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해서 강병철은 지하실로부터 1층 구석방으로 옮기게 되였다. 책상 하나를 들여놓을만한

작은 방이였다. 이전에는 청소도구같은것을 넣어두던것 같았다. 지는 해가 잠간 비쳤다가 사라지는 뙤창이 한쪽에 있고 오래전부터 비였던 모양이여서 곰팡내가 꽉 차있었다. 널마루짬으로는 밤이고 낮이고 찬바람이 솔솔 올라와 뼈속까지 스미였고 키낮은 합판천정에서는 쥐새끼가 언제나 와락와락하기도 하고 찍찍거리기도 하였다.

보안서는 강병철이보다 박창술때문에 더 분주스럽게 지내고있었다. 그 누구도 박창술을 완력으로 눌러낼수 없었고 더구나 그를 리치를 캐서 진정시킬수도 없었다. 사실상 박창술의 립장이 되고보면 그것은 생사판가름을 해서라도 풀어야 할 절박한것임에 틀림없었다. 리치로 보아 정당한데다가 그의 과도한 열정에 의해 분출하는 행동, 얼마간 조폭하기까지 하면서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였다.

《나한테 정대를 달라. 그것을 못하겠으면 강병철을 내놓으라.》

박창술은 자기를 설복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이대군 하였다. 그러면 한번 상대해본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강병철은 빈방에 홀로 앉아서도 이것을 죄다 알고있었다. 누가 친절하게 귀띔해주지는 않았지만 토막토막 들려오는 말마디들과 보안서원들이 주고받는 짤막한 대화들을 통해서 이러한 표상이 생긴것이였다. 강병철이로서는 이것이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될수 있었으나 그는 그렇게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기 총화를 끝내였으며 확고한 결론에 도달하였기때문이였다. 때문에 그는 박창술에 대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사건에 말려들기도 하였지만 거기에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된것도 없었고 따라서 자기 생활궤도를 추호도 달리할만한 충격으로는 되지 못했다. 다만 그는 인정적으로 감사하다는것과 인간으로서 솔직하고 완강한 청년을 본것으로 해서 탄복해마지 않을뿐이였다. 하여 강병철은 방을 옮기기 위해 자기 소지품을 깐깐히 걷어가지고 일어나면서도 저쪽에 대고 그 어떤 뜻이 담긴 인사말 한마디 한것이 없었다.

강병철은 만년필을 탁자우에 덜컥 소리가 나게 던지면서 발부터 쭉 폈다. 오금이 끊어지는것 같이 저리고 머리가 휘휘 돌았다.

눈앞에 별찌가 날았다. 그는 한참동안 이마를 붙잡고있다가 안경을 벗었다. 수건으로 안경알을 꼼꼼히 닦았는데도 무엇이나 다 뿌옇게 허상이 져보인다. 얼굴은 홀쭉해지고 코마루가 더 날이 서보이였다. 그는 만년필을 다시 집어들었다.

방을 옮긴지 이틀만에 편3일간에 걸친 장문의 편지를 끝맺게 되였다. 그 편지는 네살짜리 아들 강영남에게 보내는것인데 그거나마 그렇게 긴요한것도 아니며 그렇게 힘들여 써야 할것도 아니였다.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이미 낯익은 젊은 보안서원이 나타나 본궁에 있는 원시범이 찾아왔는데 만나보겠는가고 하였다.

《만나?》 하고 그는 잠시 멍청히 상대방을 쳐다보기만 하였다. 불과 열흘전에 왔다갔는데 왜 또 왔는가 하는 위구가 앞서고 뒤이어 만나봤대야 별일이 없을것이라는 예측이 따라섰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만나지요.》 하는 대답이 나갔다.

한 일분되나마나했는데 문이 쩍 열리더니 키가 껑충한 원시범이 나타났다. 들가방을 들고 머리에는 공장에서처럼 기름에 전 작업모를 올려놓았다.

《그새 어떻게 지냈나? 방을 옮긴걸 보니 무슨 대우개선이라도 있은것 같군 그래.》 하며 원시범은 그간 있었던 일들은 완전히 모르는것처럼 하면서 롱을 걸었다.

《대우개선정도가 아니네. 이제 천당에 올라가는 문고리를 잡게 되였네.》 하며 웃자고 하는것 같은데 그의 얼굴은 정반대의 서글픈 표정을 보이고있었다.

《어허 이것봐라. 정말 달라지긴 달라졌구만. 언젠가는 하느님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한옛날로 되돌아간셈인가?》

그러면서 원시범은 쟈크가 달린 려행용 가방을 열고 과자와 통졸임통들을 집어내놓았다. 마지막에 탁자가 텅 울리게 내놓은것은 백지에 정성들여 싼 책이였다.

《뭔가?》

원시범은 책을 툭툭 쳐보이며 대답했다.

《자네 밥바가지야. 이전에 들렸을 때 잊은거네. 특수합금법!》

《이건 또 어데서 새로운 신창탄광이 또 하나 나타났어.》

이때만은 정말 두툼하고 푸른 강병철의 입술에 유모아적 웃음이 한껏 나타나있었다. 그들은 우정에 넘친 이전 본래의 생활정취를 그대로 풍기면서 은유적으로 또는 해학으로써 자기 감정들을 각각 표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몇개의 닭알빵과 함께 파일통졸임을 모조리 없애치웠다.

《그래 어째 또 왔나. 이런 식으로 사식을 계속 넣자는건 아니겠지.》

물을 마시고나서 입을 훔치며 강병철이 물었다.

《그렇네. 사식을 넣는것이 목적이네. 그래서 또 왔어.》

《그렇다. 사식이 푸짐해 좋군그래.》

《아직 난 그 사식보자기를 풀지도 않았는데.》

《오! 또 그걸 먹이려고. 하하하. 인생행로는 하나이거나 둘만이 아니라 무수하다. 유크리트에 대치시킨 반유크리트, 그래서 왔단말이지. 알겠네, 알겠어.》

이렇게 앞질러나가면서 강병철은 줄곧 명랑해지려고 하였지만 감정은 그의 의도를 따라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강하게 반발하여 더욱더 그의 행동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예민하게 감촉한 원시범은 그제서야 《사식보따리》를 펼치기 시작하였다. 그는 먼저 자기나름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과 그의 종착점으로서의 결속에 대하여 추리하였다. 로폭파는 그것이 고의적이 아니였다는것으로 끝까지 내뻗쳐야 한다. 그것은 사실과 부합되는것이며 또 다른 경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도 그 편이 유리하다. 다음은 이것으로 해서 이제 서게 되는 새 정부나 어떤 정권이 사형언도같은것을 내릴것인가. 그렇게는 될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된다. 그런데 어떤 공산분자가 적개심때문에 극단한 행동을 할수 있다. 그런 함정에 절대로 걸려들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지연전술을 써야 한다. 이제 내가 평양에 올라가서 맨먼저 최준걸을 만나겠다. 그한테는 어렵지 않게 우리 구상을 접수시킬수 있다. 그다음에는 김책을 만난다. 사실 알고보면 김책은 독한 술과 같아서 자극이 세기는 하지만 후환이 없는 사람이다. 그가 아직 여기에 손을 뻗치지 않는것을

보면 《땅!》 해치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해도 정 안되는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김일성**장군님께 상소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강병철 너자신이 본정 2층집에서 만났을 때 론의한것을 풀어서 편지를 한장 잘 쓰는것이 좋겠다. 그때 그 무슨 언약이 있었다니까 그것을 충분히 상기시키면 효과가 있을수 있다. 이것이 일단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첫 단계사업이다. 다음단계에는 말그대로 일변도로 나가지 말자. 외구멍으로만 나가려고 하지 말고 다각통로를 개척하자.

《솔직히 말하면》 하고 원시범은 음성을 탁 낮추어 마주 앉은 강병철도 겨우 들을 정도로 말하였다. 《우리 지식인들이 무엇때문에 공산주의자들과만 손을 잡아야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이 외통길밖에 길이 없는가. 인생철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목적을 향해가는 길은 무수하다는거네.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개체의 성공이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무수한 통로를 내다볼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한것을 선택할 권리가 지어져있단말일세. 내가 자네한테 넣어주는 〈사식보따리〉는 이것이 전부네. 우리가 서울 안국동 뒤골목 술집에 앉아 미국사람과 담판하던것을 상기해보라구. 이상이네. 난 할말 다 했네.》

고개를 떨구고 듣고만 있던 강병철이 안경을 벗어서 탁자우에 놓으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원시범을 한참이나 쳐다보았다. 강병철의 눈초리는 분명히 파르르 떨고있었다. 빛을 잃어버린 근시안은 한걸음 나앉아 아래우를 두세번 거듭 훑어보더니 이윽해서 주먹을 천천히 머리우까지 들어올리였다. 다음순간 실성한 사람처럼 와락 달려들면서 멱살을 움켜쥐더니 원시범의 따귀를 후려쳤다. 매를 맞은 원시범은 태연하게 앉아있는데 강병철은 마치 자기가 맞은것처럼 머리를 싸쥐고 마루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치였다. 몇분동안 서로 말이 없었고 엎드려 울고있는 강병철을 들어일구려고도 하지 않는다.

《난 가겠네. 알아두게. 난 한두번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기때문에 내 계획에는 변동이 없어.》

원시범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서며 단호하게 내뱉아버린다. 그

러자 강병철은 고개를 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주소를 적은 다음 탁자에 놓았던 편지를 조심스럽게 넣어 내밀었다.

《나도 내 계획을 조금도 바꿀수가 없네. 이걸 부탁하네.》

《영남? 응! 알겠네, 알겠어.》

이것으로 그들은 또 한번의 작별을 치르게 되였다. 원시범은 자꾸 멀어져 가는데 강병철은 창밖으로나마 내다보면서 그를 배웅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오직 그는 다시 침착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책가방을 천천히 당겨 무릎에 놓고 약봉지에서 약을 꺼내였다. 다음 그는 좌우를 살피며 물주전자를 찾았다. 물주전자는 탁자우 한쪽에 이전처럼 놓여있었는데 그는 마치 그것을 처음 발견하기나 하는것처럼 한참동안이나 유심히 보고있다가 물잔에 물을 따랐다. 《루미나르》라고 쓴 약봉투를 확인하고나서 그는 10회분인 열개의 봉지를 하나하나 풀어서 한군데 모았다. 약종이가 넘칠만치 분량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번에 넘길수는 있었다. 그는 음울한 시선을 물잔으로 가져가더니 그것을 들어서 한모금 마셔 우선 갈증이 난 목과 입안을 추기였다.

《안국동 뒤골목을 생각하라.》 그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도 오늘과 같은 하나의 인생희롱이였지.》

원시범이 안국동을 생각하라는것은 그에게 아무런 충격도 자극도 줄수 없었으며 오직 혐오와 허무감을 자아낼뿐이였다.

대구에 있던 강병철이 서울에 올라와보니 사정이 달라졌다. 안국동 뒤골목에서 햄스라는 미국신사가 만나자고 하였다. 어간에 나선것은 영어강습소를 금방 차린 민기환이라는 사람이였다.

햄스는 능숙한 조선말로 《강병철선생을 우리는 알고있은지 오래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미국과 조선의 영예를 위해서 새로운 강철을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선 몇달동안 미국에 려행을 하시는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바로 그 순간 강병철의 머리에는 려순공대를 졸업했을 때 일본인교수 오까모도가 한 바로 그와 똑같은 말이 떠올랐다.

《그래 당신은 결국 우리더러 스칼레트와 같은 인생관을 가지라는거지요. 치부를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데 신사나리는 무슨 말인지 잘 리해가 가지 않는 모양인지 《스칼레트, 스칼레트》 하고 반복하였다.

그래 강병철은 《아틀란타의 스칼레트를 모르면 당신은 우리 성춘향이가 그와 짝이 될수 없다는 말을 잘 리해할수 없겠는데요.》 하고 비꼬아붙이고나서 《나는 원시범이와 함께 북조선에 가보기로 결심하였소!》 하였다.

그때 그는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시 추억할것도 없고 그것을 상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원시범은 그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아니, 그 길이 제일 현명한 길이라고까지 한다. 구역질이 날만큼 협오스러웠다. 강병철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누가 자기의 심리를 엿보고있는것 같았다. 불안이 생긴것이다. 현기증을 일으켜 벽을 붙잡고 겨우 몸을 바로세우고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쭉 내돋았다.

(갈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천만에.)

그는 수건을 꺼내 이마와 목덜미를 훔치였다. 그런 다음 벽을 짚고 뙤창으로 다가갔다. 공연히 그쪽으로 자꾸 마음이 쏠리는것이였다. 책장 두너비만한곳으로 내다보이는 외계에 자기가 이제부터 가야 할 길이 있는것 같은 착각이 생기였다. 그는 수염이 꺼슬꺼슬하게 자란 턱을 이그러뜨리며 빙긋이 웃음을 지었다. 어리석은 자신을 보게 된것이다. 그는 손바닥으로 이마를 툭툭 치고나서 다시 벽을 등지고 마루에 앉았다. 그때 《스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그는 돌아다보지도 않았다. 환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무릎에 흰것이 툭 떨어지는것이다. 눈여겨보니 한장의 종이쪽지였다. 후두두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다.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탈주하라. 당신은 며칠안으로 총살된다. 서호에 있는 〈광복려인숙〉으로 오든지 평양의 〈3.1려관〉으로 오라. 서울에서 강병철을 기다리고있다. 민○○》

입가에 쓴웃음을 지은채 눈을 내리감았다. 공연히 가슴이 후두두 떨리였다. 《서울, 민》 등으로 미루어보아 미군정청에 드나들던 로이터안경쟁이의 작간이 아니면 안국동에서 만났던 그 줄이 보

냈을것으로 짐작되였다. 그는 쪽지를 꼬깃꼬깃 구겨서 툭 튕겨버렸다. 벽에 부딪칠 때 (이것도 또 하나의 길인가?)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렇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길이다. 원시범이 말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내가 이 길을 택하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갈수 있다. 변소에 간다고 하고 내뺄수도 있고 저 뙤창구멍으로도 능히 빠져나갈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찾아간 그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있을것인가. 그것은 형태와 장소를 달리한 이곳 흥남의 생활과 같을것이다. 그것도 잘되는 경우에 혹시 야하다의 미국판일수도 있다.)

그의 가슴은 텅 빈것 같았다. 한발이나 되는 막대기를 휘둘러도 아무 거칠것도 없는 공허뿐이다. 그는 10년전만 해도 순결하기 그지없는 순박한 청년이였다. 그때는 보통학교 교실 면판에 써붙인 《정직, 례절, 근면》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였었다. 한데 생활은 그것을 첫걸음부터 무자비하게 부정하였다. 사람들은 정치와 사회체제와 무관계한 자연과학은 해볼만한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려순에서와 야하다에서 본 전기나 강철은 정치와 권력이 가장 첨예하게 반영되는 요점에 있었다는것을 그는 통감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정직성에 의해서 지탱되여야 한다던 청소년시기 인생관을 집어던지고 량심이라는 하나의 안전하고 우아한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였다. 일본인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명령하고 강요할 때 량심은 그에게 항거하라고 하였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게 되면 벌써 개짐승이나 다름없다. 항거하라, 항거하라.》 하고 량심이 추기였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다. 량심이라는 지팽이의 다른 한끝은 순종하는것이 항거하는것보다 몇배나 더 헐하다고 하면서 배신의 길로 이끌어갔다. 그것이 바로 이곳 최성우라는 청년이 몽둥이를 들고 접어들만큼 적의를 불러일으켰던 야하다의 생활인것이다.

이북에 넘어와서 첫걸음은 매우 락천적으로 내뗄수 있었다. 이미부터 가지고있던 량심은 활개치고 창공을 날았다. 그렇다. 량심이 가리키는 그 길로 나가자. 《우리 조선의 공업을 일으켜 세우자!》 그것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나 다 기꺼이 바칠수 있다. 모두다 바치고싶었다. 지혜도 정열도 희망도, 지어 개인의 행복도

다 바칠 각오를 하였다.

(아, 그러나 이 량심을 받아주지 않는 마당인데 내가 무엇에 지탱해서 서있을것인가. 모든것이 허무한것으로 되였는데야. 나는 지금 반동분자로 인정되고있다. 로폭파는 고의적이 아니였는데 나는 그것을 고의적이였다고 량심을 배반하면서 그렇게 말했고 그것을 서면으로 적어내였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끝나지 못하는것이다. 이것은 객관이 이렇게 요구한것이며 또 나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에 그 유명한 마태복음 18장 21, 22를 상기해볼수 있는것이다. 《베뜨로가 예수에게 물었다. 〈주여! 형제가 나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몇번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예수 대답해가로되 〈나는 7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7번을 7번 곱할지어다.〉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5장 39 〈만약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댈것이다.〉, 〈적을 사랑하고 박해하는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얼뜨기같은 교리를 그대로 내 인생에 끌어들인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소망한 내 나라를 위한 내 량심은 어데로 가는가? 그러면 어데로 가야 하는가. 갈 길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탱점을 잃은 말뚝은 서있지 못한다는 물리학의 공리는 무조건 옳은것이다.

결국 나라는 인간은 지금 량심을 지탱할 그 어떤 믿음이 없는것이다. 신념이 없는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없다. 인류의 태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은 지금 중세기때처럼 죽어서 하늘에 있는 천당에 가겠다는 무지몽매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신을 믿고있다고 볼수는 없다. 그들도 이른바 과학의 빛발아래 《진보》한것이다. 그러나 신앙에 의해 생의 지탱점을 가지려는 욕망은 더욱 뚜렷해지고 그것이 생을 의의있게 하고 허무한 생에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충만시키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내가 이제 제3의 인생관으로서 신을 믿고 신을 위해서 내 나라 합금강을 만들며 그것을 기쁨으로 내 한생을 보람있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할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나의 량심이 모자라는것이다. 나는 여직 부유한 가정에서 나서자랐다. 때문에 의식주에 있어서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생의 의의를 헤아리는 정신적 재부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산자이며 거지였다. 무엇인가를 구걸해서 한끼한끼 연명해온것이다. 결국 일본사람들한테서 생을 비럭질한셈이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그와 똑같은 수로써 여기서 생을 구걸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뭘하는가. 때문에 나는 원시범의 충고에 따를수 없어 그것도 버리고 나자신도 버리자고 하는것이다.)

그의 눈앞에는 한길어름까지 따라나왔던 아들애의 얼굴이 나타났다.

(영남아! 잘 있거라. 부디 잘 있거라. 네가 커서 이제 인간이라는것을 리해하게 될 때면 이 못난 애비가 보낸 편지의 뜻을 알게 될것이다. 사탕을 사들고 너를 찾아가지 못하는 애비를 용서하여라. 어머니를 위로하면서 살아라.)

강병철은 눈물이 글썽한 눈을 들어 약봉지를 찾았다. 그런 다음 한쪽손에 물잔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것을 목구멍에 넘기면 30분안으로 모든것을 가볍게 망각에로 끌어갈것이다.

《탕탕!》 요란한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검은 그림자가 그의 시야를 꽉 채우는것이였다.

《나오시오. 어데 좀 가야겠습니다.》

강병철은 물을 마시면서 한쪽손에 들었던 약봉지를 꾸겨쥐였다.

《어데로 간다구요?》

그는 태연하게 물었다.

《공장사무실로 나갑시다. 옷을 단정히 하시오. 그렇지. 세면을 해야겠습니다.》

강병철은 수도칸으로 나가 물을 틀었다. 그런후에 하얗게 가루가 발린 손을 물에 슬며시 잠그었다.

7

계속 마루바닥에 올방자를 틀고있어서 무릎이 쑥 나간 바지는 뎅궁 들려 발목이 보이였고 세면을 하고 빗질을 했지만 꺼슬꺼슬한

머리는 그대로 일어나있었다. 강병철은 성큼 복도에 나섰다가 인차 벽을 짚고야 몸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방안에만 들어박혀있어 그런지 아래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였다. 하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상의 길을 걸었던가. 30여년간 걸은 전로정을 수십번 거슬러 오르내리였다. 그런데 평온해졌던 심리가 순간에 왈카닥 충격을 일으켰다. 누가 무엇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 처지에 있는 강병철을 만나자고 부르는것일가. 넉넉히 잡아서 30분, 바투 세면 3초동안이면 충분했는데 왜 운명이 또 이렇게 지꿎게 희롱을 하는지 몰랐다.

강병철은 보안서현관앞 세멘트계단 세개를 내려서서 땅을 밟는 순간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두쪼각이였다. 한쪽은 검은 구름이 덮이고 한쪽은 싸늘하게 개여있었다. 바람을 가리기 위해 앞섶을 여미면서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군데군데 눈이 무져있고 또 그만치 군데군데 눈이 녹은 땅이 시꺼멓게 드러나있었다. 그는 마른데를 골라디디면서 공장사무실쪽으로 걸어나갔다. 렬을 지어선 사택들, 길을 따라 뻗어간 전선줄, 거기에 걸려 펄럭이는 아이들의 가오리연, 골목들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하는 사람들, 어디선가 메질을 하는 쇠붙이들의 음향 등 그 모든것이 판판 낯설은 이방풍경같았다. 낯익고 정답게 보자고 해도 자꾸 간격이 생기였다. 그는 보안서장 박인국의 안내대로 비료공장사무실 2층에 있는 이미 알고있는 넓은 방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 순간 그는 눈앞이 아찔해져서 겨우 자빠지지 않고 견딜수 있었다.

차츰 안개가 걷히는것처럼 눈앞이 열리였을 때는 **김일성**동지께서 그의 팔을 부축해서 의자에 앉히신 뒤였다. 강병철은 의자에서 급히 일어서서 다시 인사를 차리였다. 당장 울음을 터치며 가슴에 안겨 만단사연을 하소하고싶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참았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수고스럽게 오셨습니다.》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자 **김일성**동지께서는 팔을 잡아 다시 자리에 앉게 한 다음 말씀하시였다.

《너무 이러지 맙시다. 우리는 평양에서 허물없이 사귀지 않았습니까. 론쟁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서로 언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담배를 피우게 되였다. 그이께서는 불을 켜대고 붙이라고 하시였다. 강병철은 사양하려고 뒤로 손을 당기다가 성냥불 꽁다리가 밭은것을 보고 하는수없이 담배끝을 내대였다. 강병철은 담배를 빨면서 좌석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장군님의 오른쪽에 공장장 리연수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고 그뒤에 보안서장 박인국이 차렷자세로 서있었다. 최한덕은 장군님 왼쪽켠에 앉았는데 무릎에 놓인 손 건사가 잘 되지 않아 쩔쩔매였다. 하지만 강병철은 자기자신이 어떻게 되여 이렇게 태연해질수 있었는지 알수 없었다. 그는 당황하거나 초조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가슴이 뻐근할만큼 행복감에 잠겨있었다. 전혀 상상할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기는 하지만 장군님을 다시 뵈올수 있다는 그자체만으로써도 참말 다행한 일이였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것을 왈카닥 밀어제끼고 슬픈 생각이 일어났다. 평양에서 만났던 때와는 너무나 판이한 정황에 놓여있다. 이제는 자기자신이 자기 운명을 결정한 뒤기때문에 모든것이 체념화된것이다.

때문에 그는 저번에 와서 장군님께 신소를 해서라도 해결받아야겠다던 원시범의 방안같은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운명의 흐름을 따라 조금도 거슬림이 없이 순탄하게 나가려고 할뿐이였다.

(바야흐로 때가 왔구나.) 하고 강병철은 오늘 이자리에서부터 생의 마지막 지점까지의 로정을 짐작해보았다. 이제 그이께서는 부드럽고 온화한 어조로 죄상을 물으실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미 여러번 거듭한 설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것이다. 그다음에는 응당한 정치적 사상적 규명이 있을것이며 로동계급의 리익, 인민의 리익이 침범되였다는것으로 해서 호된 규탄을 받게 될것이다. 그다음에는 박인국이 기세등등해서 나를 끌어다가 더 견고한 방에 가둬넣어둘것이며 그후 어느 달이 없고 흐린 음침한 날 밤 어데론가 끌어갈것이다. 그리하여 한줄기의 파문도 남기지 못하고 한 인생은 종말의 바다밑에 영원히 가라앉게 될것이다.

《그래 합금로가 어째서 폭발했습니까?》

저으기 신중한 안색으로 안락의자 팔걸이에 몸을 기울이신 **김일성**동지께서 고개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얹어놓고있는 강병철에

게 물으시였다.

《저의 잘못으로 해서 공장에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정확한 억양으로 대답하였다. 이때 강병철은 엄엄하고 위압적인 표정도 아니고 의아한것도 아닌 그저 평범한, 그러면서도 동정이 어린 그이의 시선을 확연히 알아볼수 있었다.

《강철로가 폭파되였다는것은 그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때문에 합금생산이 안되게 되였습니다. 탄광에서는 당장 특수강 정머리를 요구하고있는데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무자신이 그런것을 다 알고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떤 가혹한 심판이 내려져도 다 받아들일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이라?》

하고 그이께서는 되뇌이시였다.

강병철은 다시 고개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이의 시선이 와닿을적마다 마주보아낼수 없는 불안을 느끼게 되였다. 심리의 맨 안구석에서 가물거리는 세부까지 다 들여다보시면서 그이께서는 때로는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고 묻기도 하고 왜 동무는 거짓말 절반, 진실 절반인가 하고 따지기도 하실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강병철은 진심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이미 고안된 자기 심산을 드러내놓음으로써 해뜬 대낮에 자기 그림자를 피해보려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되고말았다. 잠간 침묵이 흐를 때 방안이 쩌렁 울리면서 그이의 높은 음성이 들리였다.

《동무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태는 매우 엄중합니다. 다른데서는 벌써 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두개의 려객렬차를 운영하게 되였고 따라서 우편통신도 상당히 민활해졌습니다. 사동, 안주, 고원 탄광들에서도 석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선제강소에서는 며칠후 첫 쇠물이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서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질이 좋은 금속이 나올수 있는 여기는 왜 이 모양입니까.》

그이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계시는데 강병철은 그것을 의식해내지 못할만치 온몸에 서리가 내돋았다. 처음에는 갑자기 오한기가 나는것 같더니 다음에는 온몸에 불이 달린것처럼 아프고 쓰리였다. 목에서는 단김이 치솟고 눈살이 꼿꼿해졌다. 드디여 그는 겨우 숨을 톺아올리면서 울음을 터뜨리였다.

《그런데 아까 저 최한덕로인의 설명을 들어봐도 그렇고 또 강동무의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또 한번의 실험을 해볼만한 시간이 흘렀는데 왜 초상집처럼 이렇게들 하고있습니까?》

그이의 음조에서는 분명히 그 어떤 오해나 또 어떤 알수 없는 리유로 해서 사태가 악화되고있는데 대해 분개하시는것이 알리였다.

《한가지 물읍시다. 그래 강병철기사가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것이 사실입니까?》

강병철은 본능적으로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그이를 올려다보았다. 이때 그의 눈에는 형용키 어려운 일종의 불안과 초조와 회의의 빛이 어려있었다.

자기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또 자기를 둘러싼 주위 환경에 대한 불신임에 완전히 포로된 그는 자기본연의 량심을 도저히 지켜낼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그 결론을 맨먼저 내대게 되였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로를 폭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소, 그것이 사실이요?》

그이께서는 차츰 더 의문에 잠기시며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사실이라?》

그때 의자를 덜컥 울리며 여직 아무 반응도 없이 줄곧 강병철을 지켜보고있던 최한덕이 일어났다.

《장군님! 제가 한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강병철이 저 사람은 기술은 있는데 인간으로 말하면 졸장부올시다. 지금 속에 없는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성급한 그는 벌써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주먹이 들먹들먹하였다. 언젠가 몇마디 말을 건네보고 따귀

를 친것처럼 그렇게 하고싶지만 정중한 좌석이여서 가까스로 분기를 참으며 뒤말을 떠듬떠듬 이어대였다. 《저 사람의 배속은 뻔합니다. 사고는 친것이니 그것은 엎지른 물처럼 주어담을수 없는 노릇이다, 내가 실수를 했다는 속마음을 버선목이라고 뒤집어보일수도 없다, 또 요번것은 그럭저럭 굼땐다쳐도 일본에서 저질렀다는 사고까지 피할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바에는 차라리 내 발로 일찌감치 불더미에 올라앉자, 이렇게 잔꾀를 부리는것입니다. 폐일언하고 저 강병철은 따귀를 쳐서 정신이 들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는 하루동안에 진속을 뽑아내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방안을 거닐으시면서 최한덕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계시였다. 그는 강병철을 믿고 사랑하기때문에 그만치 분격이 큰것이다.

《그러니까 고문을 들이대서 실토하게 하겠다는것입니까?》

만면에 웃음을 그리신 그이께서는 강병철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강동무! 우리 로동계급의 말을 들었습니까. 저 동무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지는데 동무의 말에는 어딘지 모르게 꾸민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물읍시다.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면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이들처럼 로를 가지고 유희를 한것은 아니겠는데.》

《심리과정은 복잡했지만 행동계기는 단순합니다. 난 공산주의를 위해서 강철을 만들고싶지 않았습니다. 야하다에서 권력에 굴종해서 만든 강철이나 이곳 강철이나 같은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경우에 나의 행동은 다 같았습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당신한테 어떤 피해나 손해를 준것이 있는가요?》

《그것은 나자신에게 직접 미친것은 없고 리념문제입니다. 내가 왜 리념문제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면》 하고 강병철은 침착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그 리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서에는 그 대답으로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살아갈수 있다고 하였

는데 그건 너무 어리석고 허황해서 저는 한때 예수에 미쳤던것만 못지 않게 맑스나 레닌도 신봉했었습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대단히 매력적이였습니다. 그러나 1925년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이 한짓을 보면 정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저를 매혹시킬 리념이 없었던것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래 저는 순결한 마음으로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힘자라는껏 무엇인가를 해보자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쪼각의 소망마저 이룩할수 없게 되였습니다. 저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나서 강병철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가슴에서 뜨거운것이 북받쳐올라왔다.

《리념문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말로 동무는 먼길을 에돌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전혀 무익한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불가피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갈 길을 찾는다는것이 그렇게 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우리는 이야기를 허공에 띄워놓지 말고 땅에 발을 붙이고 현실적인것을 론의해봅시다.》

그이께서는 의자를 당겨놓고 강병철과 마주앉으시였다.

《오전에 비료공장을 돌아보았는데 이곳 사람들이 공장복구안을 만드는데 강병철이 크게 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리념으로 해서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나서시여 강병철의 손을 잡아당기시였다. 양복앞섶에 숨기였던 붕대를 감은 손을 쳐들고 잠시동안 보고 계시던 그이께서는 《그래 이 손으로 어떻게 술질을 해서 군대밥통의것을 떠자셨는가요?》 하고 물으시였다.

영문을 알지 못한채 손을 내대고있던 강병철은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다 알고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되자 갑자기 코마루가 저려나더니 목구멍으로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어떤 보수도 명예도 필요없었다. 오직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명만 있다 해도 그는 자기의

모든것을 기꺼이 바칠 각오가 되여있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솔직한 자기 심정을 토로하지 않고 이를 사려물면서 참았다. 오열을 삼키고나서 그는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저는 밥만은 왼손으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독서를 하자면 그렇게 하는것이 편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저 최한덕로인의 말을 들으면 로를 쌓느라고 손이 이모양이 되였다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이였습니까？》 대답이 없었다. 강병철은 더욱더 랭철해지려고 애를 썼다. 《무연탄화덕에서 대두박을 끓이고 가마니우에서 쪽잠을 자면서 일했다는데 그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단순히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것이라면 이건 너무나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병철은 빚어세운듯이 앉아만 있다. 그로서는 그 모든것을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벅찼던것이다. 보안서 지하실에 웅크리고앉아 만 보름동안에 얽어놓은 그 실꾸리를 가려낼수도 없고 설사 그 한끝을 찾아냈다 해도 그것을 여기에 늘여놓을수 없는것이다.

《강병철동무！》 하고 그이께서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동무는 내 나라의 강철을 만들수만 있다면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부귀도 영화도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동무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건국도상에서 우리는 첫걸음을 내뗐을뿐입니다. 난 여직까지의 동무의 말을 전혀 리해할수도 없고 믿을수가 없습니다. 동무가 어떻게 합금로를 고의적으로 폭파할수 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두손으로 움켜쥐시였던 강병철의 손을 털썩 놓으면서 고개를 흔드시였다.

그 순간이였다. 강병철은 심장이 뚝 멎는것 같더니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들어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손을 맞잡았다. 여직까지 흘러왔던 그이의 체온을 간직하려는것이다. 하지만 어느덧 손끝까지 랭기가 미쳐왔다. 그렇게 되자 그는 와락 몸을 던져 장군님의 품에 안겨 실토정을 하고싶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불길처럼 솟아올라왔지만 시퍼렇게 멍이 진 그의 입술은 차츰 더 얼어들면서 끝내 속의것을 내뿜지 못하게 하였다.

옆에서 처음부터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던 리연수가 의자를 조심스럽게 뒤로 밀어놓더니 이미 책상우에 내놓았던 서류철을 펼쳐들었다.

《여기에 본인이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습니다.》

《진술서요?》

그이께서는 리연수가 내드린 서류를 받아 첫장을 펼쳐보시였다. 첫 가위에 《합금로 〈제1호〉 폭발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라고 씌여있고 그밑에 강병철의 지장이 시뻘겋게 찍혀있었다.

《요전에 왔던 오기섭동지도 이것을 보고는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리연수는 근엄한 얼굴로 한마디 하더니 강병철이와 최한덕을 피뜩 둘러보고나서 자리에 앉았다.

《여기에 동무가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 자백이 적혀있습니까?》

연덩이같은 말마디들이 강병철의 흉벽을 텅텅 울려놓는다.

《그렇습니다.》

강병철은 갈린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렇게 되자 방금전에 장군님께 기탄없이 말씀드리고싶었던 욕망은 자취없이 사라지고말았다.

(내 말은 어데까지나 공뜬 빈소리고 욕망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장장은 드놀지 않는 근거를 내대지 않는가. 그만두자. 그만두자. 얼마간 참고 견디면 모든것은 예상대로 될테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별로 놀라와하시는 기색도 없이 《진술서》를 책상 한쪽에 밀어놓으시더니 강병철을 향하여 미소를 띠고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강선제강소의 양춘만기사에 대해서 말

한 기억이 납니까?》

《양춘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사람이 있다는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강병철은 눈을 번쩍 뜨고 쳐다보면서 호기심이 어린 표정을 지었다.

《양춘만은 서울로 도망간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럴것입니다. 다른데는 갈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강병철은 역시 놀랄만한 일이 아니며 앞이 뻔하다는 기분을 보이면서 가볍게 질문을 하였다. 《누가 서울에서 만나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우정 찾아가 만났습니다. 강선에 다시 돌아가 강철을 만들자고 하니까 인차 동의하고 길을 같이 떠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강병철은 안미간을 좁히면서 머리를 약간 가로틀었다. 《그렇게 순순히 따라나섰다는것은 좀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위협을 느낀것이나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산까지 왔다가 도망쳤습니다.》

《옳습니다. 그럴겁니다.》 환성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나서 강병철은 활기를 띠고 보태였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그때 명확히 말씀을 올렸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만은 좀 특수합니다.》

《하긴 그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그가 제발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강철을 만들겠다는 맹세도 했습니다.》

《제발로 찾아왔단말입니까?》

그는 흠칫 몸을 솟구기까지 하면서 어리둥절해 좌우를 둘러보기까지 하였다.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알수 없었다. 순간순간에 운명이 책장번지듯하는것이다. 도망쳤다는것은 응당한 일로 되는데 제발로 찾아왔다는것은 믿을래야 믿을수 없었다. 그래 그는 생각던끝에 장군님께서 강병철을 설복하기 위해 극단한 실례를 하나 만드신것이나 아닌가 짐작해보았다. 그렇지만 미소를 띠

신 장군님의 얼굴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수 없고 다만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지한 기운만이 온몸에 풍기고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자.) 하고 강병철은 고개를 떨구고 생각해보았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어째서 양춘만의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말해주시는것일가. 처음에 대수간 비치시였던 이야기에 대한 후일담일수도 있겠지만 보다는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종착점에서는 달리 될수 없다는 하나의 불가피성을 납득시키시려는것이나 아닐가. 하지만 양춘만이도 이제 앞날에 있게 될 나같은 경우를 두고보아야 하는것이다. 그렇다. 두고보아야 안다.

《장군님!》 하고 강병철은 약간 떨리는듯한 음성으로 말을 떼였다. 《양춘만이 돌아왔다는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는것은 앞으로 나처럼 되지 말아달라는것입니다.》

신중성을 띠고 시작한 강병철의 말을 주의깊이 듣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그가 말을 끝내자 즉시에 물으시였다.

《나처럼 되지 말라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강병철은 대단한 용기를 내여 대답을 올리였다.

《양춘만에게는 나와 같은 경우가 앞날에 있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로를 고의적으로 폭파시켰다는것을 그대로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저 진술서에 쓴것이 모두 사실그대로입니다.》

《진술서? 저 문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저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문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오른손을 머리우까지 높이 쳐들었다가 힘있게 엇가로 내리그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나는 저런 문건놀음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요.》 자리를 뜨신 그이께서는 급히 맞은켠 벽에까지 걸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여 처음에는 리연수에게 다음에는 강병철에게 손짓을 하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나는 저 문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기섭동무도 동

무의 필적을 내보이면서 진술서에 적힌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나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산 사람을 믿지 않고 문건을 믿으면 사람이 제정신을 잃게 됩니다. 나는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번에 걸쳐 쓰라린 체험을 했습니다.》

그이께서는 잠간 중단하셨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무장투쟁초기에 반〈민생단〉투쟁이라는것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잘못되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에도 바로 저런 문서보따리를 메고다니면서 잘 싸우는 사람들을 모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본인을 만나서 한마디 물어보면 되는것인데 잔뜩 문건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민생단》문서보따리를 태워버리고 모두 단결해서 일제와 싸우던 이야기를 상세히 하시였다.

그이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별안간 뒤에서 문기척소리가 났다. 뒤이어 김좌현이 들어왔다. 좌현은 장군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몇마디 귀속말로 말씀드리였다.

《들어오라고 하시오. 지금 만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병철에게 잠간 좀 쉬였다가 다시 계속하자고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였다.

김좌현이 문을 열어잡은채 곤색작업복을 입은 중년사나이를 들여 놓으며 인사를 시키였다. 장군님께서는 다정히 인사를 나누신 후 의자를 권하시였다.

《좌현동무, 그걸 내놓으시오. 여기서 우리모두 같이 토론해봅시다.》

그렇게 되자 강병철은 금시 긴장을 풀면서 호기심이 어린 눈으로 공무과에 있는 선반공 한문호를 쳐다보았다. 한편 옆방에 나갔던 좌현이는 종이에 싼 꾸레미를 하나 들고 들어와 탁자에 펼치였다.

방안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가운데 나타난것은 나무로 깎고 양철을 오그려붙인 놀이감총이였다. 총과 함께 몇개의 쇠쪼각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괘종시계치차같은것도 있고 태엽 비슷한것도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싸창모양으로 만든 총가목을 집어들고 어리

둥절해있는 한문호에게 설명을 하시였다.

《이걸 가지고 련발사격을 할수 있도록 만들수 없겠습니까?》

한 마흔쯤 나보이는 지혜롭게 생긴 한문호는 총가목이며 총신이며 그에 따르는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나직이 말을 떼였다.

《실지 화약을 써서 총알이 나가야 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들 놀이감이니까 소리만 나면 됩니다. 조건부는 단방치기가 아니라 련발로 나가도록 자동장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흐름식으로 많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되겠습니까?》

《많이 만들어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놀이감전문공장을 하나 만들어도 반대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만들겠습니다.》

《수고해주시오.》

좌현이와 함께 한문호는 물러갔다. 리연수, 강병철 등 방안사람 모두가 어리둥절해졌다. 무슨 크고 요란한 일이 벌어질것으로 알았는데 아이들 놀이감을 부탁하시는것이다. 그러나 강병철이만은 그윽한 심정에 잠겨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저것은 단순한 놀이감이 아니라 무슨 큰 의의를 띠는것일수 있다. 혹시 그때 본 양춘만의 아들애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비범한 일인것만은 사실이다.

다시 본래의 화제로 돌아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0여년전 이야기를 눈에 보는것처럼 방불하게 형상하시고나서 강병철의 진술도 결국 《민생단》보따리와 갈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단호하게 론단하시였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평양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시였다.

《강병철동무!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인인 동무와 손을 잡고 같이 혁명을 하자고 한것은 그어떤 사탕발린 빈소리가 아니라 진정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렇고 래일도 그렇고 또 영원히 그럴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혼자 생각이 아니라 우리 당의 방침이며 의지입니다. 우리 혁명이 이

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또 동무들의 처지에서 볼 때도 이것은 근본문제이며 절실한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지식인앞에는 단 하나의 길이 있을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민과 더불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부강한 내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정로입니다. 이 길외에 절대로 다른 길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주의를 집중해서 듣고있는 동무들을 한번 빙 둘러보시고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여기서 한가지 동무에게 명백히 말해둘것이 있습니다. 아까 동무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강철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리념에서 온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말해봅시다. 여기 오기 며칠전에 우리는 신의주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악선전에 넘어간 학생들이 란동을 부리였습니다. 그 학생들은 공산당이라면 덮어놓고 반대하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가 연설을 하는데 〈**김일성**장군님은 공산주의자입니까?〉 하고 군중들가운데서 누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서슴없이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아연해졌습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공산주의자와 조선독립운동에 대하여 해설하시였고 적들에게 매수된 나쁜놈들이 공산주의탈을 쓰고 나쁜짓을 하는것이 있었다는데 대하여 례를 들어가며 말씀하시였다. 그런후에 강병철이 지금 처한것과 같은 구체적인 대상을 들어 분석하시였다. 《내가 보건대 강병철동무는 이러한것보다 더 심각한 인생문제를 생각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의 유명무명의 수많은 인사들이 인간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존재라고도 하고 반대로 인간은 선의 존재라고도 하며 인간은 령혼을 가진 동물외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있어 자연도 우주도 가치와 의의를 가지며 또 그 인간이 그 모든것을 개조하고 향유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을 믿고 사랑하는것으로써 혁명을 하고 나라도 찾으며 그 인간을 위해서 일생 자기를 바칠 각오로 살아가고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리념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적대되기때문에 자기 운명은 고사하고 털끝 한오리 바칠 생각이

없다면 섭섭하기는 하지만 강병철동무! 우리와 이자리에서 깨끗이 미련없이 헤여집시다. 당신은 여기 앉은 다른 동무들과 달리 이러저러한 인생관을 모두 알고있을것이기때문에 나는 이런 정도로 강병철의 립장을 묻습니다.》

강병철은 가슴이 섬찍해나서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런지 온 심장의것이 졸지에 쑥 뽑히는것 같은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쪽 기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것이 없는것처럼 자신의 감정만을 터치시는것 같았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모두 아무때나 아무런 대가도 치름이 없이 자기 길에 들어서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동무는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동무는 양춘만이 앞으로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처럼〉 이것을 동무는 명백하게 밝혀서 말해야 하는것입니다. 동무는 지금 지식인에 대한 자그마한 몰리해앞에서 우리들이 한사코 없애야겠다고 노력하고있는 부분적인 결함을 두고 투정을 부리고있는것입니다. 동무는 량심 그대로 내 나라의 철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손끝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벽돌을 축조했습니다. 그 손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손을 쳐든채 가마니우에서 딩굴며 밤을 새웠습니다. 동무는 대두박을 화덕에서 삶아먹으며 일했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저쪽에 있었다면 동무는 호의호식을 할수 있으며 아무리 나쁜 경우라 해도 대두박을 씹을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앉은 공장장은》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리연수를 쳐다보시는데 그는 벌써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공장장은 동무의 고충을 알아주고 도와줄 대신에 색안경을 끼고 감시만 하고있었습니다. 이전에 잘먹었으니 일없다, 아직 일본책만 보고있다 이런 식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공산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공장장은 동무에게 대단히 몰인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동무는 이런 사람들의 감시하에서 금속을 만드는것이나 일제때 야하다에서 강철을 만드는것이나 본질상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였던것입니다. 동무의 가슴속에는 지금 이런 엄중한것이 숨어있습니다. 하긴 여기만 그런것이 아니라

평양에도 여기 공장장과 같은 사람이 있을수 있고 또 한동안 우리 대렬속에 그런것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동무네가 우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는 길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강병철이앞에 손을 내대고 두세번 흔들어보이신 그이께서는 잠시 중단하시였다가 다시 계속하시였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당신들이 우리와 리념을 합치지 못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가야 할 그 어떤 다른 화려하고 휘황한 길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해둡니다만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우리는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은 우리를 믿고 같이 한길을 갑시다.》

강병철은 이때 온몸의 균형을 잃고 물에 뜬것처럼 기우뚱거림을 느끼였다. 그러자 그는 의자가름대를 붙잡고 자빠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아몽중에 빠진 그는 아무것도 식별해낼수 없었다. 오로지 그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려던 절절한 념원과 피타는 노력이 졸지에 허공으로 날아나는것 같아 그것을 한사코 붙잡으려고 팔을 들어올리며 모지름을 썼다.

《장군님！ 저는 변함없이 장군님만 믿습니다.》

그는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정확하게 속심을 터치였다.

장군님의 말씀은 투철하고 단호하였으며 그러면서도 사랑과 믿음의 숨결이 그토록 강렬하여 마지막까지 부둥키고있던 불신에 대한 종창을 그는 사정없이 북북 찢어놓았다. 그는 방바닥에 털썩 엎드려 어깨를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그이께 무한정 많은 말을 해야 하고 또 할수 있을것 같았는데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래 그는 넘쳐나는 오열을 삼키고 있을뿐이였다.

《강병철동무！ 일어서시오. 이 길로 합금로로 나가시오. 우리 인민이 당신을 지켜보고있습니다.》

방안에서는 더이상 아무런 음향도 울리지 않았다.

강병철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는 마치 구령을 받은 전사

처럼 조금도 곁눈을 팔지 않고 현관을 나서더니 합금로쪽으로 곧추 걸어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을 거쳐 한 지식인이 가고있는 걸음을 묵묵히 지키다가 흠칫 놀라시였다. 문앞에서 웬 청년이 강병철을 지켰다가 따라가는데 그 외모로 보아 신창의 박창술이 틀림없었다. 그때에야 그이께서는 박창술이 한 전화가 오늘 여기로 자신을 오게 하는데 큰 견인력이 되였다는것으로 해서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강병철이 로에 도착하니 해는 벌써 지고 밤이 되였다. 그는 합금로안에 들어가 다시 쌓기 위해 무둑히 무져놓은 내화벽돌무지에 털썩 엎드리였다. 그리고는 몸을 우들우들 떨면서 속으로 부르짖었다.

(이 믿음을 안고 나는 한생 살겠다. 이 지탱점이 있는 한 나는 다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서있으면 나도 서있고 이것이 넘어지면 나도 같이 땅에 꺼꾸러질것이다. 이것이 나의 모든것이다. 이 단 하나의 길로 드팀없이 한생을 걸어갈것이다.)

밤은 깊어가는데 숨을 죽인 로앞에서 단 한명의 기사가 내쉬는 가냘픈 입김이 가물가물 피여오르면서 로의 두리를 천천히 감돌고있었다.

제 10 장

1

최준걸은 썰렁한 자기 방에 앉아서 통계표를 들여다보고있었다. 안경을 끼고 시선을 집중하고있는데도 수자들은 명료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행정10국가운데서 산업국이 중요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좁다란 국장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장방형 기다란 칸에 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이 한 20명 비좁게 들어있었다. 한쪽에서는 벽걸이전화통에 대고 《여보시오. 여보시오.》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장거리통화를 하고있고 또 이쪽에서는 여러명의 상공인들이 책상 하나에 둘러앉아서 허가증 수속을 하고있다. 나들문쪽으로 청년 하나가 장작을 한아름 안고 들어와 화독에 불을 일굴 차비를 하고있다. 더워서 헐헐하던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화독에 장작을 때야 사무를 볼수 있을만큼 방안에 랭기가 스며들었다.

최준걸은 쪽걸상을 바투 당겨놓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채로 수자들의 호상 련관을 따져보고있었다. 품명과 수량,금액과 인원등이 각자 제나름의 의의를 띠고 사슬처럼 지면우에 련달려있었다. 그 하나하나의 명사나 수자들은 모두 북조선주민의 의식주상태를 표현하고있기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보아넘길것이 못되였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소.》

옆방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런두런 울리던 목소리가 갑자기 한음계 뛰여올랐다.

《이러다간 우리 공장,기업소들을 몽땅 〈조선족일본인〉에게 넘겨주게 될거요. 아니 뭐,현재로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건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요. 한동무,동무요 아니면 최준걸의 목소리요?》

순간 최준걸은 손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다음에도 계속 뭐라뭐라 하는데 알아들을수 없었다. 거치른 말투와 굴곡이 심한 억양으로 보아 오기섭이 틀림없었다. 며칠에 한번씩은 나타나 분위기를 뒤흔들어놓는 오기섭이였다. 어떤 때는 국제국내정세를 풀면서 열을 올리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맑스나 엥겔스의 공산주의리론이 어떤것이며 우리 조선은 력사발전에서 어느 단계에 놓여있는가를 늘어놓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제때 공부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을 함부로 우리 대오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것을 자주 력설하군하였다. 화제야 무엇이든간에 그 놀랄만한 기억력에 의해서 거침없이 인용되는 고전적 명제들, 적절한 비유 그리고 류창한 언어구사로 사람들의 정신을 뗑하게 만들었다.

손기척이 있어서 고개를 드니 문가에는 경공업을 담당한 한동무가 죽지가 처져서 《최준걸동지, 부릅니다.》 하였다.

《누군데？》

《누군 누구겠어요. 오씨지요.》

최준걸은 알겠노라고 하고 한동무를 돌려보낸 다음 잠간 마음의 준비를 하였다. 언제 한번 좋게 만났다가 좋게 헤여진적이 없었다. 오기섭은 언제나 고자세로써 위압하였으며 일단 머리를 숙이는 기미가 보이면 숨돌릴새없이 추격해오군 하였다. 더구나 흥남에 있는 강병철사건을 두고 완전히 서로 상극이라는것이 드러났다. 《친일적요소》, 《일제잔재》 또는 《프로레타리아의 혁명대상》 등등 그런 표현만 들어도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최준걸 자기자신을 지명해서 공격하는것 같고 그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군하였다. 그러나 최준걸은 이를 사려물고 참았다. 말그대로 일제에게 복무한 죄악에 대한 타매는 응당 감수되여야 할것으로 보기때문이다.

최준걸은 책상우에 놓였던 안경을 끼고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 오기섭이 있는 방에 들어섰다.

《요새 산업국사업이 어떻습니까？ 앉으시오. 왜 그렇게 낯선 집에 온것처럼 그럽니까.》

오기섭은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쪽걸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최준걸의 팔을 잡아 제가 앉았던 자리에 앉히였다.

《공장이 몇개나 더 돌아가게 되였습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돌아가는것은 돌아가고 서있는것은 서있고.》

최준걸은 정확한 사업실태를 요구하는것이 아니라고 보기때문에 건성으로 대답해 넘기였다.

《롱담이면 몰라라 사실이 그렇다면 그건 자연생장성이라는 난치의 병인데요. 산업은 그렇고 최동무 건강은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말을 들으면 전혀 식사를 못한다는데.》

《궤양이다보니 환절기에는 고통을 좀 겪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건강해야 하는데 그것 참 야단이군요. 그런데 최동무.》 하고나서 오기섭은 미소를 거두었다. 《난 오늘 외교를 하지 않고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자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친일적 요소가 우리 산업부문에 지나치게 류입되고있는데 그 책임이 바로 최동무에게 있다고 보게 됩니다. 철도의 한명구 문제도 그러했지만 그건 지난일로 칩시다. 그러나 강병철이 문제야 당신이 모른다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기에 파견했고 로복구도 당신이 승인했다는거요. 그러고도 본인에게는 별일 없을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로를 폭파한것은 강병철이 책임이지만 강병철을 그렇게 하도록 만든것은 동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을성도 한도가 있습니다. 더이상 모험을 한다는것은 혁명앞에 죄악입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오기섭은 숨돌릴새없이 연방 공격을 들이대였다.

철도에 있는 한명구는 생때같은 항일유격대원 한명을 희생시켰다, 또 강선에 있다는 양춘만이도 불발탄과 같은 존재이다, 이제 만났던 한동무도 평양곡산공장 화재사건과 관련이 있을수 있다, 이런 등등 사건을 두고 생각되는바가 없는가고 하였다.

고개를 숙인채 장시간의 설명을 듣고야 《이제는 그만합시다.》라는 오기섭의 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었다.

《이것은 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는것을 말해둡니다.》

오기섭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처음으로 최준걸을 찬찬히 쳐다보았다. 최준걸의 눈굽에는 피빛이 어리고 가뜩이나 창백한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였다. 그는 입술을 감씹으면서 북받치는 감정을 눌렀다. 강병철의 사건이든 그 누구의 문제든 그로서는 책임

질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그들을 동정하였다.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기때문에 그들을 사업에 인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였을뿐이지 개개의 사건은 자기와 별개의 문제였다. 하지만 그는 자기를 정당화할만한 용기가 없었다. 다만 그는 최준걸이 조선의 산업을 위해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것이 유일한 기준이였고 자기 무게를 가늠하는 저울이기도 하였다. 그것이 부정된다면 이여의 론리는 완전히 공담으로 될것이였다.

오래동안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윽해서 오기섭이 자리를 뜨면서 《최동무! 뭐 별로 심각해질건 없습니다.》 하고 옷걸개에서 캡을 벗겨들면서 뒤를 이었다. 《사업도 사업이지만 그런 몸으로는 복잡다단한 산업국사업을 감당해내지 못하지요. 잘 생각해보시오. 그리구 저 한가지 참고로 말해둘것이 있습니다. 며칠후에 우리 당보에 지식인문제에 대한 론설이 하나 나가게 될겁니다. 필명은 오. 케. 에스로 했습니다. 당신네한테 참고로 될수 있습니다.》

최준걸이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화독에서 타던 장작불은 다 스러지고 방안공기는 이마전이 선뜩할만치 식어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또다시 통계표를 들여다보았다. 공장, 기업소의 실태조사표였다. 전력, 채취, 금속, 화학 그런 순으로 일제가 경영하다가 버리고 간 기업소 실태가 적혀있었다. 눈은 수자들을 더듬고있었지만 그의 뇌리에는 오기섭이 남긴 말마디들이 계속 갈마들었다. 《이제는 그만합시다》, 《나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서로 다르면서도 뜻이 잘 통하는 두개의 표현이 꼬리잡이를 하며 뱅뱅 돌아갔다. 그럴수록 눈살이 꿋꿋해진 최준걸은 한참동안이나 통계표를 계속 들여다보고있다가 책상서랍을 당기였다. 백지를 한장 내놓고 펜을 집어든 그는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고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사직서》 하고 써놓고 다시 생각에 잠기였다. 그렇다. 합금로가 그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동에 의해 폭파되였다는것은 나자신이 인정하는것이다. 그렇다면 오기섭이 말하는것처럼 그 책임에서 강병철이 벗어날수 없다. 하지만 강병철은 장군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는 강병철에 대해

서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없지 않은가.

그는 자리를 떠서 복도까지 따라나갔다. 다시 오기섭을 만나서 진의도를 밝힐것이며 오해가 있다면 납득시켜야 할것이였다. 그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이르렀을 때 오기섭이 앉은 풍차는 벌써 저쯤으로 멀어져가고있었다.

자기 방으로 되돌아온 최준걸은 안절부절못하고 왔다갔다하였다. 창가에 다가섰다가는 출입문께로 나가고 그랬다가는 다시 의자에 앉아보기도 하였다.

(왜정때 기술자를 정도이상 내가 끌어들인다고? 천만에. 그것은 내가 끌어들인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정책이다. 또 그랬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죄로 되며 그것으로 해서 최준걸이 이렇게 배척을 당해야 할 리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강병철의 사건만은 변명할 길이 없지 않은가. 장군님께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자.)
최준걸은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언제나 만날적마다 웃으시며 손을 잡아주시던 인자한 장군님의 영상이 삼삼히 떠올랐다. 등나무덩굴밑 장의자에서 밤을 새며 말씀하실 때 건강을 물으시던 그 모습도 보이였다. 최준걸은 후두두 몸을 떨었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천만가지 시름을 안고계시는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리다니. 그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미친 그는 이를 사려물고 의자에 다시 앉았다. 펜을 집어들어 《신병상 관계로》라고 쓴데 잇대서 《사직을 청원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래 이렇게 하는것이 옳아. 오기섭은 자기 혼자의 생각만이 아니라고 했었지.)

《최준걸동지!》 손기척도 없이 키가 꺽두한 한동무가 들어섰다. 《오기섭동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뭐 별말이 없었소.》

《그래요. 나한테는 가슴이 섬찍섬찍한 소리를 하던데요. 그래 난 각오했습니다. 왜정때 괜치 않게 살았으면 공산치하에서야 고생을 좀 해야지요. 그래야 합해서 두등분하면 평균치라는것이 나오니까요.》

《여러 말 말고 강냉이에서 배아기름을 뽑는 기술공정이나 짜시오.》

단호한 말이였지만 어째 그런지 그의 음성에는 맥이 없었다.

2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큼직큼직한 눈송이들이 진회색장막을 내리드리우는것 같은 하늘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엇비슷이 날아내리고있다. 2층추녀우에 드리운 버드나무가지에 앉았다가 다시 미끄러져 하늘하늘 춤을 추면서 마당 맨땅에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것은 끝없이 재롱을 부리다가 자취없이 어데론가 사라지기도 하였다.

아늑한 정서에 취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함흥 지구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하시였다. 그러나 그것은 잠간동안의 일이고 당장에 겹겹이 쌓인 사업을 한눈으로 일별해보신 다음 개개의 문제들을 순차대로 하나하나 배렬해보시였다.

한동안 자리를 떴었는데 당분간 내부사업을 보셔야 하였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사업으로서는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를 소집하는것이였다. 내외정세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데 따라 당조직의 기능을 높이고 전투력을 일층 강화해야 하였다. 10월에 중앙조직위원회를 내왔고 그후 2개월간 사업하였다. 당세포가 급격히 확장되였으며 공장,기업소와 농촌에 세포가 조직되여 활동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일제잔재를 숙청하는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점차 질서가 잡혀가고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타성에 의하여 당내에는 깨끗치 못한 공기가 얼마간 감돌고 있었다. 그간 당안에서의 주되는 문제는 이른바 《서울중앙》을 쳐다보는것으로 해서 서로 다른 립장이 로출되였으며 얼마간의 론쟁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점차 리해가 깊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인식과 리해부족에서 오는 이러저러한 편향이 해소되게 되였다. 현재에 와서 문제로 되는것은 앞서것과 류

사하면서도 어느 정도 특색을 보이는 보다 은페된것이다. 이번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토의하자는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당내 사상적 조직적 순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기층조직의 경우에는 갑자기 불어난 당원들가운데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로동자, 농민, 사무원이 적지 않으며 개중에는 일부 기본성분으로 가장하고 《건달군》이 들어온것도 있다. 또 중앙과 도, 시, 군들의 지도기관에는 조직생활에 단련되지 못하고 자유주의적이고 지어 지방주의, 종파주의적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있는 일군들도 있었다. 때문에 당내 순결성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첨예화되는 계급투쟁을 옳게 령도할수 없는것이다. 이제 인차 모스크바의 련합국 외상회의에서 조선문제가 토의될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해서 부르죠아반동적 정권이 서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북과 남의 색조는 더욱더 판이해질것이며 38선은 더욱더 키높은 장벽으로 자라오를것이다.

끝없이 번져가는 내외정세분석에 한참동안 골몰하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자를 당겨놓고 확대집행위원회에 제기할 보고서집필에 착수하시였다.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적으신 다음 책상 오른쪽 손가까이에 내놓았던 《당의 성분구성표》를 펼치시였다. 《총 당원수 4,530명 그중 로동자… 30프로, 농민… 34프로, 지식인, 상인 기타… 36프로》

그이께서는 지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수자에서 표시된 내용과 그 호상련관에 대하여 잠간 생각해보시였다. 이러저러한 표상들이 련달아 떠올랐다. 평양에 돌아와서 수없이 대면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 상인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로동자들과 만난것이 매우 인상적이였다. 그이께서는 잠시 만년필을 놓고 한옆에 무져있는 신문과 통신자료들을 집어드시였다. 처음의것은 김책에게서 보고된것인데 방금 나온 공업전문학교 교육강령이였다. 다음에는 평양을 비롯한 각지의 시장물가시세표가 있었다. 그다음에 집어들게 된것이 오늘아침에 배포된 《정로》였다. 1면 웃단에는 사설이 났는데 《학생들은 민주조국건설에 적극 참가해야 한

다》라는 제목을 강조하고 내용도 풍부히 전개하였다. 사설은 **김일성**동지께서 12월 7일에 평양시안의 중학생들앞에서 하신 연설내용을 자세히 해설한것이였다. 시사문제로서는 모스크바외상회의에 참가할 미,영 대표들이 출발한 소식을 전하고 유럽 동남쪽에 위치한 유고슬라비아에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였다는것이 보도되였다. 2,3면을 펼치였을 때 2면 하단에 반면을 차지한 론설이 나있었다. 제자는 동판부식으로 강조되였고 필자는 《오. 케. 에스》라는 익명을 썼다. 대번에 시선이 끌린 그이께서는 《식민지조선에서의 지식인의 특성》이라는 제목을 읽으신후에 곧 본문으로 넘어갔다. 원래 그의 글에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수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랭철한 론리로 빈틈없이 째여있었다. 간단한 문제 제기가 있은 뒤에 첫째로,조선의 지식인은 일제의 우민화정책의 여독에 의해 그 량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매우 저급한 수준에 있다는것 따라서 둘째로,사회혁명과 사회적변혁이 전면에 나선 현단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간층으로서의 지식인문제가 계급적 문제와 동일시할수 없는 차요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것 셋째로,조선지식인은 공산주의운동권밖에 놓여있었기때문에 혁명적 영향이 심히 결여되여있으며 넷째로,특히 북조선지역에는 여러가지 현실적 조건에 의해서 남조선에 비해 지식인이 크게 문제시할만한 비중에 있지 못하다 등등이 제기되였다.

김일성동지의 얼굴에는 침울한 그늘이 순식간에 휙 번져갔다. 그러나 기분을 누르시고 다시한번 론설을 꼼꼼히 읽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손바닥으로 책상을 《텅!》 울리고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오기섭을 부르시였다. 오기섭은 10분도 못되여 나타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 한옆에 놓았던 신문을 집어드시면서 나직이 말씀을 시작하시였다.

《오기섭동무가 여기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하시자 벌써 온몸으로 긴장감을 느낀 오기섭은 《거 뭐 별로 볼만한것이 못되는것인데요.》 하고 꺼슬꺼슬한 턱을 만지면서 어색하게 웃어보이였다.

《이에 대한 독자들의 반영을 들은것이 있습니까?》

《아직 반영이라고 할만한것이…》 하고 약간 주저주저하다가 계속하였다. 《편집국동무들은 지식인문제에 대해서 단독론설이 필요하겠는가고 하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우겼습니다. 지도부에서는 이 문제를 중시하고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이께서는 신문을 다시 책상우에 밀어놓고 《그렇다면 내가 첫 독자의 반영으로 되겠습니다.》 하시였다.

오기섭은 언제나 편안히 자유로운 자세를 취하고 의자에 몸을 맡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몸을 꼿꼿이 일으켜세웠다.

《우선 나는 이 론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론설이 무엇을 제기하고 무엇을 해결하자는것인지 그 의도를 잘 알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첫머리에 상세히 제기했다고 봅니다.》

《첫머리에 제기한것이 있기는 합니다. 조선지식인 다시말해서 식민지였던 조선지식인문제를 한번 고찰해보자는 순수 객관적인 것이지 우리들이 무엇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지 그 립장과 관점이 밝혀져있지 않습니다. 그건 또 그렇다 칩시다. 이 글을 보면 지식인문제는 론의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빈약한 문제이고 차요적인것으로 되여있는데 실지 우리 생활이 그런가 하는것입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력량을 편성하는데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데 대해서 한두번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기회에 우리가 한두번만 의견일치를 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문제 제기자체가 무모한것이며 현실에 맞지도 않고 보잘것없다는 속심이 로골적으로 울려나오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고 황급히 오기섭은 우선 먼저 자기의 설명을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하고 말을 계속하였다. 《저는 어디까지나 객관적 현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호상리해를 깊이 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딴 의도는 없었습니다.》

《알만합니다. 오기섭동무에게 그 무슨 딴 의도가 있겠습니까. 나는 다만 이 글에 표현된것이 곧 오기섭동무의 견해라고 보기때문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알아보자고 합니다.》

오기섭은 미간을 좁히는데 입언저리가 파르르 떨었다. 어떤 좌

석에서나 그 누구와 대상해서나 항상 여유작작하게 리론이면 리론으로, 지식이면 지식으로 또는 기지나 정열이면 또 그것대로 상대를 하고 언제나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던 그였지만 왜그런지 **김일성**동지를 상대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번 별것이 아닌 문제인데도 주눅이 들고 어느덧 금선이 풀려서 제 음계를 똑똑히 짚지 못하게 되는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우정 태연해져서 본연의 자기자세에 서려고 애쓰면서 자기 의도를 설명하였다.

《저는 거기에 특별한 견해를 보이려고 한것도 없고 따라서 제가 보기에도 그 글이 신통한것 같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어떤 오유라든가 착오가 있다면 저의 본의가 아니라는것만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러나 이때 그이의 시선은 번개불같이 날이 서있었고 그 어떤 사물이라도 밑창까지 꿰뚫어볼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이께서는 천천히 그러면서도 무게있게 뒤를 이으시였다. 《그런데 오기섭동무, 동무도 오래동안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장기간 갇혀있었고 지하투쟁도 했습니다. 우리는 목적도 리념도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난것은 비록 두석달이지만 결국 한길을 여직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교를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말그대로 일심단결하자는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기섭동무는 지금 우리가 제기하는 정치로선이나 조직로선에서 의견을 달리하는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중앙위원회 결정에 찬성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도 알고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인 〈서울중앙〉에 대해서도 나는 그 어떤 의견이나 미련을 보인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견해이며 립장의 전부입니다.》

《알만합니다. 다음 하나는 지식인문제입니다. 경제기술일군에 대한 등용배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의견들은 정확여부에 관계없이 그때그때 표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더 계속합시다. 우리는 호상간 리해의 부족이 있기때문에 더 자주 접촉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기탄없이 말해서…》 하고 그이께서는 차잔과 담배갑이 놓인 탁자우에 손끝으로 동그라미를 두번세번 그리다가 동정과 련민의 정이 어린 얼굴을 들어 한껏 의혹에 잠겨있는 오기섭을 쳐다보시였다. 《오기섭동무는 지식인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있건대 오기섭동무는 일제시기 지식인을 아량있게 포섭하는데 대해 달가와하지 않고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대상에 따라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선제강소 양춘만은 어떻습니까?》

《반대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안동권은 어떻습니까?》

《말을 걸어볼수 없을만치 저쪽에서 우리를 배척했습니다.》

《흥남에 간 강병철은 어떻습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우리는 응당한 교훈을 받아안았습니다.》

《철도국장 한명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명구에 대한 몸값을 우리는 너무 과남하게 치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다 반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무엇이 남습니까. 지식인을 포섭한다는 결정서종이장뿐이 아닙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손을 쩍 벌리시며 오기섭이앞에 내보이시였다. 아무것도 없는 령이 아닌가라는 뜻이 온몸에서 풍기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분노하거나 혐오하는것이 아니라 다시한번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기섭동무, 이것이 우리 호상간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오기섭은 줄곧 그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책상을 치고 분격을 터뜨려야 할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온건하게 그러면서 가슴속을 갈피갈피 헤쳐보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신다.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한결 더 거칠어진 오기섭의 숨소리만

이 방안의 고요를 흔들고있다. 이윽해서 오기섭이 팔걸이에 손을 올려놓으며 그이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의 의견을 들어봐주십시오. 저도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자고 하고 또 그점에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에서 인용한 하나하나의 대상에게 우리는 너무나 의의를 크게 부여하고있고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우리 의도대로 순순히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명구나 양춘만을 위해서 우리는 박원식동무를 희생시켰습니다. 강병철을 위해서는 합금로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신기한 일도 아니며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씨야에서 누가 레닌을 사격했습니까? 짜리에 붙었던 지식인입니다. 의심할바없이 박원식동무도 지식인이 그렇게 했을것입니다. 오늘은 박원식이지만 래일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김일성**동지! 저는 진심입니다. 저의 의도를 리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발언을 중단한 오기섭은 **김일성**동지를 경건하게 쳐다보면서 자기 말이 틀리는가고 묻는듯한 표정을 지었다.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김일성**동지께서는 도리머리를 저으시였다.

《결국 희생을 피해서 우리 립장을 달리해야겠다는데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중들을 혁명의 편에 세우는데 있어서도 희생을 각오했고 사실에 있어서 큰 희생을 치르었습니다. 가슴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경우에도 그런 각오가 없이 스스로 그저 따라오라고만 생각할수 없습니다. 레닌을 해친것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레닌은 그전이나 그후나 지식인을 적대시한적이 없습니다. 박원식동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맙시다.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한명구나 양춘만이 말할 기회가 있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무엇인가? 희생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이 아니라 우리 호상간에 차이가 무엇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구경에는 희생의 정도도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내가 우려하고있는것은 사소한 견해상 차이가 차츰 자라서 서로 합치기 곤난한 간격을 형성할것 같은 느낌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전에 리종락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론도 좋

고 정열도 있었습니다. 고유수에서 지하공작을 할 때였는데 어느 한 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해 그를 파견하게 되였는데 적들의 경계가 심하기때문에 다른 한 동무와 같이 가서 서로 도우며 공작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리종락은 혼자 가면 갔지 둘이는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지를 믿지 못해 혼자 가겠다고 했던것입니다. 그 당시는 별일이 없었는데 그 후에 리종락은 적들에게 체포되여 변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우리가 밀영에 있을 때 찾아와 우리에게 투항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사태는 이 지경으로까지 되였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일본사람들이 귀순하면 표창으로 평안도를 하나 떼주겠다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가고 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평안도가 아니라 조선 13도를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조선사람이기때문에 거저 돌려보내라고 하였는데 너무 악질적으로 놀기때문에 우리 동무들이 처단해버렸습니다. 보시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약간한 차이도 결국 다시 합쳐낼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런것을 우려하고있습니다.》

오기섭은 단적으로 말해서 《변절할수 있다》는 극한점에까지 끌고가신 날카롭고 투철한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수 있었지만 전혀 그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우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이전에 얼마나 쓰라린 교훈을 남기였습니까. 1925년에 나온 당이 3년만에 해산되였습니다. 순전히 파쟁과 종파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례가 국제공산주의운동에서 어디에 또 있습니까. 때문에 나는 이번 3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문제시하려고 합니다. 대오의 순결성, 사상의지의 순결성을 첫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나는 바로 이런 견해에 서있기때문에 오기섭동무가 제기한 지식인에 대한 견해, 조선에서 지식인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것, 간층이기때문에 계급선권외에 있다는것, 남에 비해 북은 더 한심하다는것 등이 사상의지적 순결성에 맑지 못한 공기를 던져준다고 보았던것입니다. 오동무도 잘 생각해보시오. 동무가 말하는것처럼 지식인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든것은 일제통치

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에 추종할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보잘것이 있는 중요문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작고 보잘것 없는것이라면 바로 그런것을 집어들고 문제시해야 하는것입니다.》

시작한바에는 며칠을 두고라도 뿌리를 뽑을 결심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보잘것없는것 같은 사소한 차이가 전혀 합쳐낼수 없는 간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것을 거듭 강조하시고나서 뒤를 이으시였다.

《지금 우리는 총포탄이 작렬되지 않는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누가 군중을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 전쟁입니다. 38도선 이남에는 사상과 리념과 정치체제가 우리와 정반대되는 미국군대가 강점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네들과 꼭같은 체제를 남조선에 만들어놓고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서울에 〈군사영어학교〉라는것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미군의 통수에 드는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골간을 꾸린것입니다. 뒤이어 미군은 남조선정계에서 발의한 〈인민공화국〉을 강압적으로 해산시켰고 38도선이남지역에는 오직 미군정이 있을뿐이라고 성명하였습니다. 그들은 북조선지역에 파괴암해분자들을 침투시키고있습니다. 신의주학생사건도 그렇고 평양철도공장사건도 그렇고 모두 미군과 련계된 반동분자들의 책동이였습니다. 그들은 총포는 울리지 않으면서도 맹렬한 파괴공작을 하고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단 한명의 군중이라도 잃게 된다면 얼마나 큰 손실로 되겠습니까. 강선제강소에 있는 양춘만기사는 서울에 갔다 돌아와서 강철로를 복구했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강이 나올것이라고 합니다. 평양철도에 있는 한명구는 지난달 11월 17일부터 자기들이 결의한대로 몇개의 렬차를 정시운행하고있습니다. 흥남인민공장에서도 이제 곧 비료가 나올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복구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강병철이 로를 복구하여 특수합금강을 만들수 있습니다. 동무도 아다싶이 일제는 패망하면서 우리 산업의 거의 전부를 파괴하였습니다. 형편이 이런데 우리가 어떤 지식인은 이래서 나쁘오 어떤 지식인은 저래서 못쓰겠소 하면서 우경이요 뭐요 하고 공뜬 이야기판만 벌리면 되겠습니까. 가령 강병철을 놓

고 이야기해봅시다. 그는 손끝에서 피가 흐르는것을 참아가며 로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식량이 곤난해서 대두박을 군대밥통에다 끓여먹으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장장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로를 시험할 때 폭파됐다고 해서 그를 구금했습니다. 공장장은 오기섭동무의 지시를 받고 진작 로복구에서 제거해버릴가 하다가 어느 정도 양보해서 두고보자는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를 의심했습니다.

지식인도 인간입니다. 가장 정서가 예민하고 신경이 날카로운 인간입니다. 제도와 리념은 먼 뒤전에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멸시를 당하고 의심을 받으면 당장 그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강철을 만들겠다는것은 호의호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취급을 바래서 그러는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장은 로를 복구하는 강병철을 멸시했고 일제때의 흠집을 들추어 큰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식인이든 지식인이 아니든 그렇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면 누구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군중을 누가 더 많이 쟁취하는가 하는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하게 됩니다. 기왕 말이 난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인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을 혁명에 인입하는것이 그 어느누가 지식인에게 혜택을 베푸는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당당한 사회성원으로서 자기들의 임무가 있고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직 그들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는것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인을 멸시하는 것은 종파주의이며 곧 로동계급의 당을 반대하는것과 통합니다.》

그이께서는 일단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시였다. 잠시 침묵하고 있던 오기섭이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를 내였다.

《결국 반당이란말씀이지요? 이 오기섭이 변절자로 될 우려가 있다는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거침없이 단호하게 대답하시였다. 《오기섭동무가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랭정히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식인정책을 론의할 때 언제 한번 의견

차이가 있었거나 기탄없이 론쟁을 벌려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것이 곧 양봉음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는 항상 이런것이 문제로 되였으며 또 그때문에 쓰라린 교훈을 남기였습니다.》

오기섭은 신음소리를 내였다. 너무나 엄청난것이 자기를 압도하고있다고 느낀것이다. 정신을 차릴수 없게 자리가 기우뚱거리였다. 그런데도 그는 용케 정신을 가다듬고 자기 속심을 털어놓았다.

《**김일성**동지！ 잘못했습니다. 깊이 사과합니다.》

《잘못을 느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자체가 당정책에 대한것인것만큼 이제 열리게 되는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자기 검토를 잘하시오.》

이때 오기섭은 머리가 찡 울리는것을 느끼였다. 동시에 그는 자기 리성의 어느 한 균형이 몹시 흔들리는것을 의식하였다. 오기섭은 이때 한사코 그 흔들림을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 무릎을 짚고 모지름을 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저의 잘못을 두고두고 씹어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왜그런지 이 말이 끝나자 금시 온몸을 태울듯한 열감이 생기였다. 허약한 몸이여서 실지 체온이 오른것인지 아니면 환상에 의한것인지 그자신도 알수 없었다.

그로부터 이틀후에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진행되였는데 여기서 오기섭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저애하고 당정책집행에서 양봉음위한것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때문에 그를 제2비서의 직에서 해임하는 단호한 조치가 취해졌다.

3

양춘만은 대동강 기슭을 따라 모란봉으로 올라가고있었다. 옥류소나루터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교리쪽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얼음판우에 쭉 늘어섰다. 이곳 사람들이 전하는데 의하면 대

동강은 양력설을 열흘 앞두고 얼음이 건너간다고 하였는데 추위가 늦어진다던 이 겨울에도 역시 강은 제 습관대로 한주일전에 얼어붙었던것이다. 강기슭에는 얼음구멍을 까고 김장배추를 씻는 아낙네들이 쭉 늘어섰고 멀찍이 깊은곬으로는 낚시군들이 두간두간 앉아있었다.

그는 청류벽쪽으로 가지 않고 곧추 을밀대쪽 지름길에 들어섰다. 길가에는 살맹이나무가 우거졌고 몇걸음 숲으로 들어가면 소나무가 하늘이 보이지 않게 빽빽이 들어찼다. 그렇게도 흥성거리던 모란봉이건만 추위에 쫓겨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 간혹가다가 한둘 락엽이 깔린 오솔길을 걷는것이 눈에 띄였고 어데선가 꽥꽥 장끼 우는 소리가 나는데 신통히도 어느 심산속같은 정취를 자아내고있었다. 맑은 공기가 가슴에 스며들었고 추녀를 쳐든 을밀대가 그지없이 정다왔다. 양춘만은 검은색 외투에 중절모를 썼고 손에는 흰종이에 싼것을 하나 든채 줄곧 길바닥만 들여다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최승대를 왼쪽에 두고 대동강쪽으로 내려서니 민틋한 잔디판이 나졌다. 잔디우에는 눈이 한벌 덮여있었다. 양춘만은 눈에 덮인 분묘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비문을 쳐다보니 《항일렬사 박원식의 묘 1915년 12월 00일생》이라고 새겨져있었다. 그는 종이에 쌌던것을 조심스럽게 펼치였다. 그안에서는 역시 종이와 색갈이 같은 두송이의 국화꽃이 나타났다. 양춘만은 두손으로 꽃송이를 정중히 받들어올리더니 잠간 그것을 쳐다보고나서 대리석상석앞으로 다가갔다. 허리를 굽혀 상석우에 덮인 눈을 손으로 말끔히 밀어제낀 다음 그우에다 꽃을 올려놓았다. 손이 후드드 떨리였다. 그렇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꽃송이를 다시 우로 돌려놓고 뒤걸음질을 해서 물러났다. 얼마간 간격이 생겼다고 보았을 때 그는 눈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한번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 또 허리를 굽히려다가 양춘만은 그만 중심을 잃고 앞으로 푹 꼬꾸라지고말았다. 그는 땅에 엎드린채 끅끅 숨을 갑자르며 울기 시작하였다.

《박원식선생!》 그의 목소리는 설음에 지지눌려 겨우 후두를 빠져나왔다. 《양춘만이 찾아왔습니다. 뒤늦게나마 사죄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허두를 떼자 가슴이 떡 막혀 말을 더 계속할수 없었다. 고개를 들어 묘등을 여겨보려 했으나 물속에서 눈을 뜬것처럼 뿌옇게 흐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눈을 문지르고 또 쳐다보았다. 그렇게 하노라면 수첩장을 펴들고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박원식의 모습이 얼마간이라도 보일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앞에는 이음새를 아직 아물구지 못한 언틀먼틀한 떼장이 싸늘한 눈을 떠이고 누워있을뿐이다. 그는 눈을 내리감았다. 그러자 팔을 부둥켜잡고 《양춘만선생이 옳습니까.》 하고 너무 반가와 어쩔줄 모르던 박원식이 우렷이 떠올랐다. 그다음에는 경성역에서 차에 올라 굳이 앉을 자리를 내서 자기를 앉히고야말던 고집스러운 그 얼굴이 또 나타났다. (아! 나는 배신자올시다.) 하고 양춘만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천추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왜 진작 그를 찾아오지 못했는가. 다문 한마디라도 그가 살았을 때 진정을 털어놓았어야 하는것이다. 나를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것이다. 그 저주롭고 통분한 감정을 그대로 가진채 그는 갔을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석양이 비낀 공간에 은가루를 뿌려놓은것처럼 현란하게 눈가루가 날리였다. 바람결에 놀란 메새 한마리가 양춘만의 머리우를 날아 맞은켠 다박솔가지우에 앉아 울깃불깃한 목을 요리조리 휘두르고있다.

그때 언뜻 양춘만은 상석 옆자리에 눈길이 갔다. 별로 도두룩하게 눈이 쌓인 감을 주었기때문이다. 손으로 눈을 헤집어보니 뜻밖에도 그속에 어린애들 놀이감이 묻혀있었다. 하나는 나무로 깎아 먹칠을 한 곰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줄로 쏘게 만든 나무권총이였다. 눈을 모아서 덮어놓은것으로 보아 며칠전 눈이 온 다음에 가져다놓은것이 틀림없었다. 그러고보니 놀이감이 묻혔던 그앞으로는 끼뼘 하나 되나마나한 어린애들의 발자국이 몇쌍 뚜렷이 찍혀있었다. 양춘만은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았다.

그의 눈앞에는 흐릿한 달빛아래 팔을 내두르며 《우리와 같이 가자!》 하던 평산벌장면이 그대로 펼쳐져보이였다. 야음을 흔들며 처절하게 울리던 박원식의 고함소리가 그대로 귀를 울리는 것이다. 무아몽중에 빠진 양춘만은 박원식을 향해 가노라고 벌떡

일어나 잔디언덕에 뛰여올랐다. 소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서 더 나갈수 없게 되자 그는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지만 박원식의 웨침소리는 그냥 귀를 울리였다.

《가지 말라. 돌아서라.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와 같이 가자!》

이윽해서 환각에서 깨여난 양춘만은 몸을 부르르 떨면서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렇다! 같이 가겠다. 당신들이 가는 길을 이 한목숨이 진할때까지 따라가겠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길로 드팀없이 걸어가겠다. 그 길우에서 영광이 차례져도 좋고 또 어떤 경우에 불행에 빠져도 좋다. 그 길에서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다. 그 길에 어떤 리념이 놓여도 좋다. 공산주의라도 좋고 또 어떤 다른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그이의 령도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따르겠다. 참된 인간의 보람을 안고 사는데야 무슨 타산이 필요하며 무슨 주저가 있겠는가. 박원식선생! 당신이 내뻗친 그 손을 굳게굳게 붙잡고 가겠소. 영원히 변치 않고 가겠소. 같이 가겠소. 같이 가겠소!》

그는 두팔로 땅을 짚고 앉아서 분묘쪽을 지켜보고있었다. 온 얼굴에서 땀이 흘러 턱밑으로 방울져 떨어졌다.

그때 난데없는 사나이가 하나 나타났다. 그는 양춘만이쪽을 한동안 멀거니 바라보다가 그만 외면을 해버리고 분묘앞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양춘만은 정신을 가다듬고 지켜보았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사나이는 상석앞에 바투 다가서서 고개를 숙여 묵상을 하였다. 그런후에 사나이는 나무꼬챙이로 분묘 오른쪽 가장자리에 자그마한 구뎅이를 하나 파기 시작하였다. 그는 염낭에서 종이에 싼것을 꺼내더니 뭐라뭐라 하면서 하얀것을 주르르 구뎅이에 쏟아부었다.

양춘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발볌발볌 거기로 다가갔다.

사나이는 정성들여 구뎅이를 메웠다.

《박원식동지! 그때 그 쌀을 가져왔소. 해주의 쌀이요. 제밥을 해가지고와 술을 붓는것보다 이것이 날것 같아 그랬소. 량해하시오.》

사나이는 갈린 목소리로 한마디 하고나서 뒤로 물러선다.

잠시후 그들은 나란히 최승대로 통하는 언덕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참말, 저 박원식동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혁명투사의 전형

이구요.》
사나이는 걸음을 멈추고 분묘쪽을 다시한번 돌아다보면서 말하였다.
《저는 평양철도국에 있는 한명구라고 합니다. 피차 박원식동지를 잊지 못해 찾아온것 같은데요. 난 한생 처음으로 참되고 숭고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내가 갈 길에 그가 대신 갔다가 반동들에게 희생되였습니다. 순 나때문에 그렇게 된것이지요.》
말문이 막혀 더 이어대지 못하고 헐떡거리였다. 양춘만은 온몸이 굳어진채 한명구를 지켜보고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선제강소에 있는 양춘만이라고 합니다. 저의 사정은 선생님에게 비길바가 못됩니다. 나는 그를 배반했습니다. 고인의 가슴에는 내가 찢어놓은 상처가 그대로 있을것입니다.》
흥분을 이기지 못해 눈에 눈에 벌겋게 피가 진 그들은 새 생활에 들어선 자신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겠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펼치였다.
《그러니까 박원식선생이 지금 몇살입니까?》
《오늘이 생일이니까 만 30입니다.》
《30!》 하고 양춘만은 어깨를 들었다놓으며 긴 한숨을 쉬고나서 말하였다. 《나보다 나이는 두살 아래지만 200년은 앞선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지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질문에 아직 똑똑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한생을 괴롭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빈궁하게 사는것이 괴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굴종하며 사는것보다는 나을것입니다. 굴종,인간이 못할 짓이란 굴종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고 혹독한것이라 해도 후회를 남기는 일보다는 괴롭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나는 박원식선생의 묘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를 슬퍼해서가 아니라 나자신의 후회가 너무 크고 가련해져서 울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한명구의 팔을 붙잡았다. 혼자서는 몸을 지탱해내기 어려운 모양이였다. 《아!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김일성**장군님품에 안기

자고 내 손을 붙잡고 끌어당기던 박원식을 나는 배반하고 도망을 쳤단말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며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던 고함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합니다. 사람이 났다가 사람에게 덕은 주지 못할망정 원한을 끼쳤다면야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남의 희생우에 뿌리를 내린 인간을 인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개짐승만도 못하지요. 인간은 인간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데 나는 그것을 배반했습니다. 이 후회를 무엇으로 씻습니까. 무엇으로! 나의 마지막 소망은 박원식선생처럼 그렇게 림종을 겪어보고싶다는것뿐입니다. …》

그는 고개를 들었다. 오가는 사람들이 수건으로 눈물을 닦고있는 양춘만을 쳐다보군하였다. 가슴에서 부글부글 괴여오르는 설분을 끝없이 토로하고싶었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유감이였다. 쌀한줌, 곰, 권총들이 눈앞에 어른어른하여 끝내 그는 기침을 터뜨리게 되였다. 기침을 진정시키게 되자 그는 또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래 나는 강철을 만들겠습니다. 그속에 내 인생을 깡그리 녹여 넣겠단말입니다. 나에겐 이 길밖에 없지요. 피차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삽시다.》

키가 껑충한 한명구는 불을 토하는것 같은 양춘만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고개만 끄덕이고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서는 저편만 못지 않게 인생이라든지 후회라든지 하는것을 놓고 토로하고싶은 욕망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종시 그럴 틈을 얻어내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저편에서 눈물을 보일 때는 눈물로, 자기타매를 할때는 또 그대로 자기 가슴을 움켜잡고 몸부림치군하였다.

4

가죽가방을 손에 든 원시범은 평양역에서 전차를 타지 않고 걸었다. 사람래왕이 많은 거리에 나서자 그의 행색은 말이 아니게 초췌하였다. 줄무늬가 간 회색 제낀옷은 람루해졌고 머리에 올려놓인것은 공장에서 쓰던 기름때가 밴 캡이였다. 고개를 숙일써 하고 되

도록 사람들을 피해 차도의 한쪽 가녁을 밟으며 가고있다.
딱히 어데로 간다는 지향이 없이 모란봉쪽으로 올라가고있는것이다. 하나는 려관에 들 생각 또 하나는 백추화를 찾아갈 생각 그 두 갈래가 서로 똑같은 힘으로 그를 끌어당겨 이렇게 지향이 없이 만든것이다. 본정에서 황금정으로, 종로에서 경상으로 이리저리 발가는대로 방황하는데 어쩐지 몸은 저도 모르게 경상골로 접근해가고있었다.
한편 경상골 백추화네 집에서는 손님대접을 하노라고 안방에서 부엌사이를 녀인들이 바삐 드나들고있었다. 권태롭고 단조로운 나날을 보내던 이 집 외동딸 추화양은 신바람이 나서 부엌에 나가 간참도 하고 하녀대신 기름이 끓는 쟁철을 보는가 하면 또 방안으로 음식을 나르기도 하였다. 석고처럼 희고 말씬한 팔을 드러내놓고 문턱을 넘어설 때면 원피스자락이 보기좋게 물결치고 청신한 기운이 온 방안에 풍기였다. 방안에는 자개를 박은 두리반에 세사람이 둘러앉아있었다. 주인 백씨가 실내옷으로 만든 명주바지저고리를 입고 대머리를 이따금씩 쓸면서 술을 권하고있다. 그 맞은쪽에는 금테안경을 낀 중년사나이가 점잖게 앉아 대접을 받고있다. 그는 서울서 온 민기환이였다. 그옆에는 눈이 빛나는 청년이 앉았는데 말투부터 하대를 하는것을 보면 민기환의 동료이거나 그 배하인물같았다. 술상에는 리조자기를 본딴 사기술병에 자작만든 청주가 들어있고 그옆에는 양서로 꼬불꼬불하게 쓴 금박인쇄상표가 붙은 꼬냐크병이 놓여있었다.
《그러니까 원시범군과 이미부터 지면이 있었다는거지요?》
석잔안에 벌써 이마부터 붉어진 백씨는 갈비찜을 손님앞으로 밀어놓으며 묻는다. 이미 대강은 알고있었지만 사위감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기술자이고 또 대단한 실업가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되여 벌써 기분이 들떴다.
《저는 사업상 직접 관계는 안했습니다만 잘 압니다. 수일안으로 제가 직접 본궁에 찾아가 만나보겠습니다.》
민기환은 흘러내린 안경을 밀어올리고나서 꼬냐크잔을 단숨에 쭉 비웠다. 안주를 집다 말고 그는 《이 집 사위는 이런데 묻혀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교또대학에서도 이름난 수재올시다. 우리

는, 아니 저쪽에서는 쌘프랜시스코박사원에 넣었다가 필요한만큼 학위학직을 주어 건너보내겠다고 합니다. 백선생도 그쯤 알고 사위에게 잘 타일러주시오. 이 집에서는 사위자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하고 제가 먼저 만족해서 껄껄 웃었다.

백씨는 좋아서 고개만 연방 끄덕이고있다. 술이 몇잔 더 오고간 뒤에 민기환이 백씨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직이 말하였다.

《백선생은 경성제국대학 교수 안동권선생과 죽마지우라면서요？》

《죽마지우라고까지 할수는 없지만 나보다 3년 우인 평양고보동창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선생이 요새 모진 고민을 한다는것 같습니다. 몇번 만났는데 공산당에서 딱 붙잡고 어쩌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래 서울로 넘어가자던 당초의 계획도 실현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에 복무할수 없어 요새는 독한 마음까지 먹는다는것 같습니다.》

《허어！ 그래요. 그건 정말 뜻밖인데요. 나같은 실업쟁이면 몰라라 과학자들이야 밑천이 든든해서 불안이 없겠는데요. 과학을 빼앗거나 훔쳐가지야 못하지요. 한데 독한 마음이란건 뭡니까？》

백씨는 이마살을 찌프리면서 로이터안경을 번뜩이고있는 민기환을 쳐다본다.

《별것이 아니지요. 오도가도 못할 신세가 되였으니까 제손으로 제 목숨을 끊고 이 세상을 하직하자는거지요.》

《끔찍한 소리！ 세상만사는 다 살자는 놀음인데 그럴수가 있나 원. 그래 안선생이 실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우둔한것처럼 하면서 찔러본다.

《아니지요. 우리가 보건대 그렇다는겁니다. 이 추측은 틀림없습니다. 담보합니다.》

민기환은 잔을 부어주며 구도를 크게 잡은 연극의 수를 하나하나 꺼낼 차비를 하였다. 그는 지금 서울로 끌어낼수 없다고 본 안동권을 없애치울 작정을 하였고 그것을 안동권이 스스로 하게 된 자살극으로 연출할 작정이였다. 지금 여기서는 그 연극의 서막을 시작하는것이다.

《친구지간이라기에 귀띔해드립니다만 송죽같이 절개가 바른 안동권 선생이니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 살아날 구멍이 열릴수 있습니다. 수고스러운대로 한번 만나 이야기해보시오.》

《허어!》

백씨는 맥이 풀린 눈을 들어 쇠리쇠리한 말을, 그것도 전후좌우를 다 재서 빈틈없는것 같은 말을 하고있는 민기환을 쳐다보면서 허파가 빈 소리만 련발하고있다.

그때 《텅텅!》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지내 크고 거칠어서인지 백씨는 순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였다. 추화가 나가는것 같아 백씨가 문을 열고 내다보니 푸른 군복을 입고 총을 멘 보안서원 2명이 주인이 어데 있는가고 딸에게 묻고있다.

《왜 그러시우. 제가 이 집 주인이요.》

백씨는 태연하게 대답하면서 이마부터 찌프리였다. 보안서원 가운데서 나이 좀더 먹어보이고 키가 큰 사나이가 장총을 어깨에 멘채로 마당한가운데 서서 인사를 하더니 용건을 말하였다.

《이 집 창고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군수품을 뽑아낸 범인을 심문했는데 이 집에 그 물건의 일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 없겠는데요.》

백씨의 목소리는 부르르 떨리였다.

쇠대를 열게 한 다음 보안서원들은 창고안에 들어가 퉁구리를 지은 모포, 군복, 광목들을 연방 마당에 굴려내였다. 그러다가 바오리를 끊고 모포퉁구리를 하나 헤치니 그안에서는 38식보총 두자루가 나졌다.

보안서원은 온 가족을 옴짝 못하게 출입을 금지하더니 얼마후 화물자동차를 끌고와서 군수품을 죄다 실어갔다. 맨 나중에 보안서원은 백씨에게 확인증에 지장을 찍게 하더니 휘딱 사라지고말았다. 술상도 거두지 못한채 방안에 갇혀있던 민기환은 총총히 어데론가 사라지고 이 집 식구들만이 남았다.

보안서원들이 아직 마당에서 떠나지 않았을 때 원시범이 들어섰다. 도가집에서나 느낄수 있는 음울한 공기가 이마전을 휙 스치였다. 오지 말아야 할데로 왔다는 후회가 생기였다. 백씨일가는 순식간에 란장판이 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것이 균형을 잃고 정

상이 파괴된것이다. 그 어떤 세파에도 드놀지 않게 견고한 기초우에 완강하게 구축된 고풍의 이 기와집은 쉴사이없이 이 집 가장 백씨의 울분에 찬 웨침소리에 의해 들썽들썽하였고 피아노소리가 그윽하게 울리던 외동딸 추화양의 방에서는 끅끅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였다. 그런가 하면 눈부시게 흰 행주치마자락을 가볍게 날리며 양식 또는 중국식 료리를 번갈아 나르며 나비처럼 마당을 에돌던 하녀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어데로 사라졌는지 있고도 숨을 안쉬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이 마당안에는 화기란 전혀 찾아볼수 없고 하루에 한두번 끵장한 몸차림을 하고 례배당이나 유한부인모임에 나가던 이 집 안주인의 위풍당당한 행차도 볼수 없었다.

《아! 사람이 미치겠군.》

하루밤 자고나서 원시범은 악마의 소굴에 갇힌것처럼 머리를 싸쥐고 울부짖었다. 이 집이 란가로 된 그것이 원시범을 이렇듯 고통에로 몰아넣은것은 물론 아니다. 그보다는 강병철의 사건을 계기로 자기가 여직 새롭게 떼였다고 보았던 그 길이 뜻하지 않게 흔들레판에 깊숙이 빠져들었기때문이다. 언제나 심각해질줄을 몰랐으며 항상 명랑하게 살줄 알았던 그가 갑자기 말이 적어지고 사색 일면에만 치우쳐나가는것이다. 그는 훌쩍 일어나 청류벽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대동강은 얼어붙고 어데를 보나 우울을 가실만한 정취를 찾아볼수 없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와삭와삭 마른풀을 밟으며 을밀대쪽으로 올라가보았다. 담배를 찾아 손을 넣으니 담배대신에 강병철이 내주던 편지가 손에 잡히였다. 어떤 소중한것인줄 알고 받아넣었었는데 궁금해서 뜯어보니 그것은 매우 은유적으로 된 유서같은것이였다. 강병철의 비굴한데 화가 치민 그는 북북 찢어서 차창밖에 뿌릴가 하다가 아무데나 쑤셔넣었던것이다.

《강병철이 좀 참으라구. 죽을수 나면 살수도 난다는 허황한 격언도 때로는 믿을 필요가 있다네. 어쨌든 내가 살아날 구멍을 찾을테니까 기다리게. 이제 최준걸을 만나 상보를 제기하겠네. 그것이 안되면 다른 수를 쓰고, 이것이 하나의 안이고 다른 안은 다시 오던때처럼 고도도약을 해서 서울로 가는거네. 거기 가보고 수가 틀리면 안국동 뒤골목 그 줄을 쥐여도 되는것이고 그것도 맞갖잖으

면 나는 교또시절의 그 통로로 뻗는것이고 강병철이 자네는 자네대로 려순공대 그 줄을 쥐고 만주땅을 밟으면 되는거네.》

이렇게 혼자소리를 하며 환상의 줄을 늘이자 그의 눈앞에는 모란봉설경이 아니라 일본의 옛도읍 교또의 동북쪽 대숲이 우거진 아늑한 오솔길이 떠오른다. 그는 짬이 있으면 대숲사이로 열려진 푸른 하늘에 희망을 날려 미국 하바트대학 교정을 거닐고있는 자신을 그려보군했다. 때로는 노벨상수상식에 참가해서 검고 후렁후렁한 례복에 수실로 장식한 사각모를 쓴 자기를 보기도 하였다. (지금 여기 북조선에서는 차츰 남조선에 진주한 미국에 대해서 경각성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쏘련 등 반파쑈진영속에서 큰 몫을 담당한 문명국이 아닌가.) 원시범은 을밀대에 올라가서 성돌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그 어방에 자기가 걸어가야 할 어떤 길 안내도가 적혀있기라도 한것처럼 유심히 살피고있었다.

《여기에 있는걸 모르고… 왜 이렇게 혼자 나오셨어요.》

고개를 돌리니 진하게 화장을 하고 여우목도리를 두른 백추화가 한폭의 그림처럼 단풍나무언덕에 서있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나왔소?》

구슬픈 심정이 어린 원시범의 물음이다.

《내가 여기 오면 안돼요?》

그도 역시 이런 가시돋힌 감정을 보이고싶은것은 아니였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되여지는것을 어쩌는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사랑이란 이토록 합리적인것인지 알수없다고 원시범은 생각하였다. 그렇게도 우울하던 기분이 삽시간에 밝아져서 눈에 비쳐오는 모든것이 아름답고 정겨워보이였다. 을밀대 소나무들은 푸른 가지에 흰눈을 담뿍 이고서서 찬란한 저녁해빛을 받고있다. 하늘도 마냥 푸르다. 원색이 잘 어울린 모란봉의 경치는 참으로 류다른 느낌을 주는것이였다. 그보다 더 좋은것은 한껏 더 아름다와진 백추화의 모습이였다. 약간 순진할사한 웃음이 노상 감돌고있던 눈언저리에 지금은 사색이 깃들어 한층 더 인품을 돋구고있다. 바람이 불어올적마다 그에게서만 맡을수 있는 독특한 체취가 원시범을 취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되였소, 집이？》

원시범은 아픈데를 다치는것이 안됐지만 그래도 알아야 직성을 풀수 있어서 이렇게 직발 물었다.

백추화는 설음을 터칠데가 없어 애타하던 때라 곧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야 나도 숨을 쉴것 같아요.》 하고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며 말하였다. 《결국 돈때문이지요. 아다싶이 아버지의 인생판은 첫 페지에서부터 마지막장까지 수지타산으로 꽉 차있으니까요.》

백추화는 아무런 울분도 없이 마치 판판 무관계한 그 누구의 말을 하듯이 자기 가정사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목재상을 하면서 겸해 평양법교국(일제말기에 이름있던 큰 동약국)에 생약을 넘겨주는 중류자산가 백씨는 광복이 되면서 갑자기 영업궤도를 잃게 되였다. 양덕에서 탄광들에 넘겨주려던 동발목 수만립방은 한달어간에 어데론가 날아나버렸다. 한껏 구차해졌을 때 외사촌되는 수단군이 나타나 재산을 통털어 사동벌에 널린 군수품을 사자고 하였다. 품목은 광목, 모포가 위주이고 일부 쌀도 있으며 굉장한 량의 자동차다이야도 있다고 하였다. 그것을 슬쩍 사두었다가 다시 내놓아도 되고 한단계 가공을 거치면 그것은 그것대로 고부라진다고 하였다. 며칠사이에 백씨는 온 재산을 다 긁어모아 약차한 금액을 중개자에게 넘겨주었다. 투전목을 조이듯 시간을 재는데 약속한 기일을 세번이나 어기였는데도 당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알고보니 협잡군은 남조선으로 내뺐던것이다. 그런 정도로 기가 꺾일 백씨가 아니였다. 완력패 3명을 사서 서울에 보냈는데 보름만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거간군은 생판 허풍쟁이인데 군수품을 굉장히 샀다는것을 보이기 위해 몇달구지 실어다가 곡간에 가져다두었던것이다. 그것마저 싹 실어갔다는것이다. 이것이 백씨를 망하게 한 사건의 전모이다.

《돈을 벌게 해주는 조건하에서만 예수그리스도도 거룩한 존재로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앞에서는.》

백추화는 구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야유하면서 원씨가 이 집에 기둥이 되여 새롭게 살아나갈 길로 이끌어달라는 심정을 로골적으로 내비치였다.

《허허허.》

원시범은 처량한 소리를 내였다. 누가 난파선인지 누가 구조선인지 알수 없었다. 하여 원시범은 설상가상이 될가봐 강병철이와 자기자신에게 다닥친 복잡한 인생문제, 순수 추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는 자기 지향, 량심 이런것때문에 생사기로에 놓여있다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내비치지 않았다. 다만 그는 래일아침 행정10국가운데서 경제적 명맥을 장악한 산업국에 찾아가 최준걸이란 성대출신간부를 만나야겠다는것만을 말하고 만수대쪽으로 에돌아 내려왔다.

예정했던대로 그이튿날 원시범은 산업국에 찾아갔다. 대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네거리에 자리잡은 산업국은 려관으로 쓰던 2층집이였다. 마당에는 한대의 야전용 풍차가 서있고 눈을 무져놓은 마당가녁에는 한 댓대의 자전거를 세웠다. 현관에 들어서는데 《여기로 오시오.》 하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니 자그마한 접수구에서 중년사나이가 손짓을 하였다.

《어데로 가시오？》

《네！ 흥남인민공장에서 왔는데 책임자동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어느 책임자말인가요？》

《어느 책임자라니요. 여기에 책임자가 몇이나 되게요.》

《하하, 이 손님이,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보아하니 말이 좀 길어질것 같소.》 하고 접수구 사나이는 싱글벙글 웃었다.

《난 시간이 바쁜데요. 최준걸동지 있지 않소. 안경을 끼고 색시처럼 곱게 생긴…》

《알만해요. 그래 들어오라고 하잖소.》

원시범은 벌써부터 얼떠름해졌다. 그래 홀동광산인지 백년광산인지 어느 광산에 있다가 행정10국이 나오면서 여기서 일하게 된, 이런 등등을 섬겨댈수록 저쪽에서는 그거 다 알겠는데 조급해말고 들어오라고 하는것이였다. 원시범은 책상 하나에 의자 두개가 놓인 비좁은 방에 들어가 앉았다. 우선 어떤 장애가 가로막힌다 해도 필사적으로 뛰여넘을 심산으로 담배 한대를 태우며 마음의 신들메를 조이였다.

《최준걸동지와 어떤 사이인가요？》

중년사나이는 줄무늬가 뚜렷한 모직 제낀옷에 머리가 강굴강

굴하고 록록치 않은 예리한 눈을 가진 원시범을 쳐다보면서 침착하게 물었다. 《나는 본궁화학공장에서 일하는데 좀 토론할것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용무는 이것이 다지요. 이전에 한두번 공장에서 만나 사업토의가 있었구요.》

《아! 그렇습니까. 알만합니다. 그런데 동무가 만나자는 그 최준걸동지는 며칠전에 이렇게 돼서 성흥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라고 표현하는 그때 사나이는 손으로 목을 썩뚝 베는 시늉을 하며 웃어보이였다. 원시범은 마치 그 누구의 목이 아니라 자신의 목이 베여지기나 한것처럼 목을 뒤로 젖히며 낯을 찡그리였다. 잠시후 다시 정색해져서 그는 물었다.

《롱담은 그만하고 사실을 말해주시오. 어떻게 된겁니까 도대체.》

《예나 지금이나 관청에야 출세가 아니면 효수가 있는 법이 아닙니까. 그것이 없이야 무슨 권력이겠소.》

약간 이그러지기는 했지만 록록치 않은 지식분자가 틀림없었다. 얼마동안 롱담투로 주고받다가 실토하는데 최준걸은 지식분자들을 옹호하다가 오기섭이라는 공산당안의 큰 인물에게 걸려서 내몰리였다는것이다. 그래서 백년광산에 있던 처자를 데려왔다가 밥가마도 걸어 못보고 다시 금을 생산하는 성흥광산에 내려갔다고 하였다. 직접 들은것은 없고 돌아가는 말에 의하면 최준걸은 공업을 복구하는데서 왜정때 기술자들을 얼마간 인입하였는데 그것이 우리 공장, 광산을 다시 친일분자들의 손에 넘겨준 과오로 되였다는것이다.

《나도 당신네와 같은 족속인데 곡산공장에서 전분이나 기름을 뽑는 기술이 있어서 행여나 하고 찾아왔다가 벼락탕을 맞고 자리를 내놓았수다. 공교롭게 되였지요. 고장난 기계를 수리해서 금방 돌리자고 하는데 그날밤에 불이 났수다. 몽땅 탔지요. 알고보니 미국놈에게 붙어먹던 기술자 하나가 불을 지르고 내빼다가 체포되였습니다. 이런 판이니 공산당의 해석도 무리는 아니지요. 최준걸은 진짜 량심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첨예한 계급투쟁의 시대가 아닙니까. 이내몸도 오늘까지 여기 앉았다가 달구지를 하나 세내서 가마를 떠싣고 고향 황주로 가자는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며 그 사나이는 당직일지를 벌컥벌컥 뒤

지더니 물었다. 《선생님 성함이 무엇이요?》

《원시범입니다.》

《옳습니다. 여기 적혀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 적혀있다구요?》

《이거 보십시오. 원시범, 옳지요. 빨리 공장으로 돌아오라고 전화가 왔다는겁니다.》

원시범은 더 깊이 묻지 않고 되돌아섰다. 모든것이 예상했던대로이다.

산업국접수실에서 나온 그는 대동강가로 걸어 련광정쪽으로 올라갔다. 흥남에 가나 평양에 오나 지금 지식인이라는 그 무정형의 인간군에게는 진회색이거나 아니면 애매한 보라색으로 도색되여있는것이다. 이것이 그 산업국문칸을 지키고있던 사나이가 본 색채이자 우리모두가 접수해마지 않아야 할 색조인것이다. 그렇다면 강병철이 이미 체념해버린 그 결론이 옳은것이 아닌가. 그는 강바람이 스산해서 목깃을 세우고 량쪽 염낭에 손을 지른채 얼음이 건너간 강바닥에 들어섰다. 하얀 백지장같은 눈덮인 얼음판을 내려다보느라면 거기에는 진정 그 어떤 위선이나 불의에 의해 가공된 생활은 없고 오직 순결한것만 비쳐있는것 같았다. 그는 마치 깨끗한 리상세계에 이른것처럼 숙연한 감정에 사로잡혀 사색을 더듬어나갔다.

원시범은 결코 실망하거나 번민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모든 사물은 이런 양태도 있고 저런 현상도 있는 법이다. 여기서 지식인을 싫어한다면 여기를 버리고 다른데로 가면 될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에 의한 우리의 강요가 부당한것처럼 우리의 강요에 의해 그 누구의 견해나 립장을 바꾸는것도 옳은 처사가 못된다. 그러나 한가지 대전제와 모순되는 점이 있다. 대전제란 내가 직접 듣고 환성을 올린 10월 14일 **김일성**장군님의 개선연설이다. 연설에는 분명히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라는 표현이 있었다. 이것은 이 북조선지역, 나아가서는 3천만 일반에게 해당되는 론리의 대전제이다. 현실에서는 지금 이것과 상반되고 모순되는 점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제 그 전제를 근거로 강병철이 다시 구원될 가망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 내뗀 지향에서 키를 돌릴것인가, 다시 38선을 넘어 이

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나갈것인가. 주어진 두점사이를 련결하는 직선은 단 하나뿐이라는 공리는 옳기는 하지만 일면적인것이다. 강병철이 집착되여있는 그 일면적 해석에서 과감하게 빠져나와야 한다.

얼음구멍이 나졌다. 유리알처럼 투명한데를 들여다보니 강바닥이 환히 들여다보인다. 고기잡이군이 요행수를 견주는 구멍이다. 물밑에서 팔뚝같은 물고기가 느릿느릿 움직이고있다. 하기야 이 강바닥에서만도 요행수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 넓은 세상을 두고 그것을 전혀 무시하는것은 말이 안된다.

뒤에서 인적기가 나 돌아보니 백추화가 서있다. 그들은 얼음판에서 나와 대동문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였다.

《추화!》 하고 부르며 원시범이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 거기는 인적기가 드문 돌담안쪽구석이였다. 처녀는 대답 대신에 물기에 촉촉히 젖은 눈을 들고 쳐다보았다. 《사정에 의해서 내가 먼저 량해를 구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서울로 가겠소.》

《뭐라구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였다. 그 무엇인가 불안을 느끼기는 했어도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에 다닥칠줄은 정말 몰랐다.

《그건 어째서요?》

《그 리유에 대해서는 몇마디 말로 설명해낼수 없소. 저번날에도 말했지만 강병철씨도 그렇고 또 나도 그렇고 우선 우리는 운명의 기로에 놓여있는거요. 그래 첫 출발을 정확히 하기 위해 가는거요.》

《그러면 여기 온것은 그의 출발이 아니였는가요?》

백추화가 알기에도 서울에서 바로 그것을 위해 몇밤이나 론쟁을 한뒤에 38선을 넘어섰던것이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된 백추화는 로골적으로 《그것은 결국 나에 대한 혐오이거나 아니면 결별이지요?》 하고 절망적으로 물었다.

《아니요, 아니요.》 하고 원시범은 당황해서 웨치였다. 그러나 처녀는 너무나 첫 타격이 커서 리성을 가다듬을수가 없었다.

《알겠어요. 다 알겠어요.》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했던 처녀는 가정분위기로 보나 자기 처지로 보나 애오라지 한 사나이에게 의탁할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대

가 너무나 급격히 무너지게 되니 마음을 종잡을수가 없었다. 원시범은 자기의 차후행동은 어디까지나 직업과 관련된것이지 그것이 절대로 애정에 관계되는것이 아니라고 설복하였지만 그렇게 될수록 처녀는 더욱더 가슴을 박박 쥐여뜯었다.

원시범은 어떻게 해야 애정에 변화가 없다는것을 납득시킬지 알수 없었다. 그는 두손으로 추화의 볼을 싸쥐고 쌍까풀진 눈을 들여다보았다.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속삭여주던 검은 눈동자는 금시 불이 꺼진 숯덩이처럼 되고말았다.

원시범은 당황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웨치였다.

《나는 추화씨를 사랑하오. 나는 백추화를 피해가는것이 아니라 나와 백추화앞에 가로막아서는 불행을 피해가는것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살수 없게 되여있소. 우리가 38선을 넘어올 때 내다보던 유토피아는 다 무너져 황무지가 되였소. 자! 보오. 그렇게도 고지식하고 완강한 강병철이도 이렇게 자기 아들에게 유언같은것을 써보내고있소. 지금 흥남보안서에 감금되였소. 얼마간 기다려주오. 내 이제 갔다가 데리러 오겠소. 진정이요.》

이때 원시범은 여직까지의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설명해낼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하여 그는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를 강조하다나니 절대로 내놓아서는 안될 대구로 보내는 편지를 꺼내게 되였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원시범이 이것저것 설명을 하면 할수록 백추화에게는 그것이 더 큰 의혹으로 되였으며 《내가 싫어났지요. 결별이지요.》 하는 극단한 해석에로 이끌어가게 되는것이였다.

얼굴을 싸쥐고 울고있던 처녀는 두팔로 원시범의 가슴을 떠박지르며 몇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만하세요. 다 알겠어요. 저를 더 이상 설복할 필요는 없어요. 기억나세요. 흥남에서 나한테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북조선에는 공산주의정권이 설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용납할 각오가 되여있다, 왜 그런가, 세상에는 권력밖에 존재하는 인간이란 없기때문이라고 했었지요. 난 그것을 믿었댔어요. 그런데 그후 몇날이 지났는데 이렇게 종이장 번지듯하는가요. 맘대로 떠나가세요. 그러나 남자대장부가 그렇게 함부로 변해서는 어데 가도 성공 못해

요. 아! 결국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 집이 파산됐다고…》

백추화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그렇게도 부드럽고 온화하던 처녀의 눈에서 독기가 내뿜기였다. 사랑이 크고 절절했던 그만큼 그에게는 적개심과 반발이 크게 일어났다. 백추화는 꼿꼿이 선채로 몇초동안 쳐다보다가 홱 몸을 돌려 경상골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원시범은 넋없이 서서 보는데 처녀는 아무런 미련도 기대도 없이 한번 돌아다보지도 않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원시범은 오도가도 못하고 그자리에 서있었다. 머리우에서는 잎을 한장도 가지지 못한 느티나무가지가 바람에 몹시 흔들리였지만 거기서는 아무 소리도 들을수 없었고 오직 《그만하세요. 다 알았어요.》 하는 야멸찬 처녀의 목소리가 귀를 아프게 울릴뿐이였다. 대동문앞 돌층계에 앉아 한동안 마음을 진정시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플로렌쓰사람들에게 유명한 하나의 격언을 상기하였다. 《시비질을 할테면 하라. 나는 나대로 살아갈것이다.》 그는 이것을 두번거듭 외우고나서 평양역으로 나가는 전차길에 들어섰다.

5

김일성동지께서는 석양이 비낀 정원을 천천히 거닐고계시였다.

오늘 오전에 **김일성**동지께서는 불쾌한 보고를 두건이나 연거퍼 받으시였다. 그 하나는 오전에 본궁화학공장 기사 원시범을 찾아보았는데 종시 행방을 알수 없다는 공장에서의 전화보고였다. 보고에 의하면 공장에서 떠날 때 평양에 올라가 산업국에서 용무를 보겠다고 하였는데 산업국 접수구에 잠간 나타났다가 선자리에서 돌아간후 다시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흥남제련소에 다시 사람이 찾아가 보았는데 한 보름전에 왔다갔을뿐 그후 소식은 알수 없다고 하였다. 한동안 거처한 일이 있다는 경상골에도 가보았으나 원시범은 벌써 사흘전에 집을 나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도 어데로 간다는 말이 없이 훌쩍 떠났고 특히 이상한것은 어제 그 집 딸인 백

추화도 집을 나간후 여직 돌아오지 않았다는것이다.

다음 하나는 최준걸이 사퇴하고 성흥광산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였다. 사퇴의 리유로는 자기의 건강상태가 그런 중책을 감당할만한 형편이 못된다는것을 내대였다고 한다. 이것은 꼭 해명을 해야겠기에 급히 전보로 부르든지 사람이 가서 데려오도록 하라고 지시를 주시였다.

그러나 오후에는 흥남제련소에서 합금로시험이 성공하였으며 특수강생산의 돌파구가 열리였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공장장 리연수는 보고를 하면서 울음섞인 음성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였다.

강병철이와 같은 애국자를 의심했다는것과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것이 얼마나 엄중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것을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하였다. 그이께서 강병철의 건강이 어떤가 물으시자 공장장은 건강도 좋고 첫 출강을 할 때 그는 로앞에 엎드려 울었다고 하였다.

《그럴수도 있을것입니다. 그 동무는 여직까지 수없이 많은 출강을 했을테지만 이번 출강만은 류다른 감정이였을것입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나서 그의 건강을 잘 돌보아주라고 몇번이나 거듭 당부하시였다.

정문에 나갔던 김좌현이 급히 다가왔다. 《강선에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정원 서남쪽을 가리켰다. 아닌게아니라 보통문이 바라보이는 버드나무밑으로 분명히 일웅이같은 아이를 걸리고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오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마주 걸어나가시였다. 맨먼저 맞다든것이 세살짜리 일웅이였다.

《장군님！》

일웅이는 팔을 벌리고 달려들어 덥석 안기였다.

《오！ 일웅이 왔구나.》

그이께서는 아이를 높이 들어올리고 한바퀴 빙그르 도시였다. 일웅이는 너무 좋아 팔다리를 버둥거리였다.

《며칠동안 같이 있었는데 이애가 날 이렇게 알아보지 않소.》

김정숙동지를 향해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어떻게 된 아이기에 그렇게 낯을 익혔습니까?》

《글쎄 이애가 눈도 뜨지 못하고 겨우 숨만 할딱거리더란말이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몇달동안 함북 청진지구에 나가 공작하시다가 며칠전에 돌아오시였기때문에 그동안 일을 아실수 없었다.

장군님품에 안겨 좋아하는 아이를 본 양춘만은 코마루가 찡 울려와 고개를 떨구고있었다.

이윽고 양춘만이 장군님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장군님! 제가 강선제강소 양춘만입니다. 뵈올 면목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그는 목멘소리를 하며 말을 똑똑히 번지지 못한다. 뒤이어 양춘만의 안해가 장군님께 인사를 올리고 김정숙동지께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장군님께서, 장군님께서 저희 공장을 찾아주시였을 때 저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서울로 도망쳤댔습니다. 저는 천추에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짓고…》

《양동무!》 그이께서 말을 중단시키시였다. 《이 기쁜날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있소. 어서 우리가 만든 그 강철을 봅시다.》

더 이야기가 길어지면 양춘만의 서글픈 심정이 터져나올것 같아 재촉을 하시였다.

양춘만은 격정에 사무쳐 후들거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어 종이에 싼것을 꺼내였다. 흰종이를 세거풀 헤치자 그안에서는 번쩍하고 빛을 뿌리는 강철덩어리가 하나 나왔다.

장군님께서는 네모나게 연마한 강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허공에 들어올리시였다. 순간 바야흐로 룡악산마루에 걸리였던 저녁해가 그이의 손끝으로 날아와 번개같은 빛을 반사하였다.

《좋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철입니다.》 그이께서는 너무나 만족하시여 두팔을 허공에 들어올린채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강철! 우리의 강철입니다. 양동무는 큰일을 했습니다. 돌아가거든 이 강철을 만들어낸 전체 강선의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다시한번 나의 인사를 전해주시오. 정말 수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양춘만은 자기가 이제까지 품고있던 사연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였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이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분에 넘치는 치하의 말씀을 하시는데 압도되여 내심을 표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솔직하고 기탄없이 말씀드려야 량심앞에 떳떳할것 같아 온몸의 용기를 끌어 《장군님！ 저는 장군님앞에 떳떳이 설 인간이 못됩니다.》 하고 서두를 떼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이쪽 심정을 다 헤아리신듯 《아니요, 아니요！》 하고 부정하시였다. 《동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은 우리의 이 첫 강철이 말해주고있습니다. 이안에는 동무가 가진 모든것이 포함되여 있습니다. 사상도 인격도 감정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이께서는 푸른빛을 발산하고있는 강철덩어리를 양춘만앞에 추석여보이시면서 《내 말이 틀립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서 이날까지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말씀드려야…》

양춘만은 겨우 여기까지 말하고 숨을 돌리지 못하였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슴없이 이것을 받아들지 않습니까. 동무가 말해서 룡강에 있는 아버지가 열정보의 토지를 인민위원회에 내놓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로 변치말고 이 한길을 걸어가는것입니다.》

양춘만은 고개를 숙이고 서서 그이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였다. 이때 그의 온몸에 뜨거운것이 쭉 흘렀다.

8.15, 그날부터 광복의 감격이 3천만을 격동시키고 환희에 잠기게 하였지만 유독 그만은 그렇지 못하였다. 그의 가슴은 환희 절반 또 그 무슨 이름할수 없는 죄의식 절반으로 뒤섞이여서 차츰 온넋이 주접이 들고 쇠바줄에라도 칭칭 얽매이는것 같았다. 하던것이 이 순간에 하나의 보람으로 돌변한것이다. 그는 한생 뜨거운 열풍앞에서 순도가 높은 철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와 함께 조선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자기의 충성심에서 최상의 순도를 보장하기 위해, 일편단심 그것을 위해 애를 쓰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말로는 표현할수 없었다.

《양동무, 이렇게 서있지 말고 걸읍시다. 광복덕분에 우리는 일찌기 알게 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저 일웅이를 보시오.》

일웅이는 단풍잎이 널린 나무밑으로 달려가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정원을 거닐으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당창건을 선포하기 하루 앞두고 강선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였다. 그러나 박원식이 서울 갔다 허탕치고 돌아온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였다.

저녁식사를 끝내고 현관으로 나오신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지으시고 말씀하시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더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사소한것이라도 다 말씀하시오.》

《장군님!》 하고 양춘만은 눈을 빛내이며 대답을 올리였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없습니다. 오직, 오직 장군님의 신임 그것이면 됩니다.… 김책동지한테서 저의 책을 받았습니다. 장마당에서 파지로 팔리는것을 장군님께서 가져다 보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간이 지녀야 할 모든것을 다 가지고있습니다. 늦게나마 믿음을 잊지 않고 일생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영원히 말라없어지지 않으려면 바다속에 뛰여들어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동무는 강철덩어리를 안고 우리의 리념의 바다속에 뛰여들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양춘만의 어깨를 잡아 와락 가슴으로 당겨가시였다. 양춘만은 한가슴에 덤썩 안기여 몸을 떨었다. 《그만큼 바다물은 불었고 그만큼 그 흐름은 세차졌습니다. 그 무엇도 이 흐름을 멈추지 못합니다. 절대로 멈춰세우지 못합니다.》

아직 머리를 들지 못한 양춘만의 어깨너머로 그이의 웅글은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리였다.

양춘만네는 떠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 대동강가로 나가시였다. 신양리 댁에서 떠나 상수리고개를 넘어 옥류소 있는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그이의 오른쪽에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고 그옆에 필남이가 바

투 붙어갔다. 그이께서는 곤색 제낀옷을 입으시였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으시였고 구두도 장화가 아니라 간편하게 단화를 신으시였다.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데 소슬바람이 불어 이마의 머리카락을 자주 날리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주저고리에 깜장치마를 입으시였고 머리는 쪽지시였다. 어느때인가 장백 도천리에 지하공작을 떠나실 때 밀영에서 보았던 그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뒤떨어져 따라오는 필남을 자주 돌아다보시였다. 아직 22살 처녀티를 가시지 못한 미망인이다. 필남은 이때 젊은 녀자들에게 류행되였던 양복차림을 하였다. 진한 도라지색 스카트에 회색 홑섶제낀옷이다. 머리는 굽슬굽슬하게 파마를 하였다. 필남을 만나 위로를 하고 또 그가 살아나갈 방도를 의논하자고 언제부터 생각하시였는데 그럴 기회를 좀처럼 가지실수 없었다. 그래 김정숙동지에게 진작 말씀해두시였던것인데 오늘에야 이런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되시였다.

《필남동무!》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옆을 돌아보시였다. 고개를 푹 숙이고 뒤따라가고있었지만 신경은 고도로 긴장돼있어서 필남은 인차 그이옆으로 다가섰다.

《내가 언젠가 김책동무네 아이들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좀 알아보았습니까?》

필남이로서는 힘에 부치고 과남한 과제여서 도저히 감당해낼수 없는것이라고 보았기때문에 장본인인 김책과 한번 말을 건네보고 진작 단념해버리고말았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필남은 목안에 기여드는 소리를 내였다.

《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김책동무한테 물어보면 대강 어데쯤인지 짐작이 가겠는데.》

《김책동지한테 물으니까 동무가 그런 걱정 안해도 돼, 내 자식은 내가 찾을테니까, 동무는 지금 작식대원이니까 그거나 잘하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하하, 그래서 그만두고말았겠소. 원래 김책동무는 그런 사람이요. 하지만 그 무뚝뚝한 가슴에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오. 요새는 술이 한잔만 들어가도 박원식이, 박원식이 하고 상을 두드리며…》

김책을 두둔하다가 뜻하지 않게 필남이의 상처를 다쳐놓게 되여 인차 말머리를 돌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정숙동지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였다.

《그렇게 합시다. 필남동무와 함께 우리 유자녀들을 다 찾아 한데 모이게 합시다. 그래 그 부모들의 유언대로 아이들을 우리가 맡아 키웁시다. 유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한 학교도 내오고 살림도 할수 있게 만들어줍시다. 그러면 필남동무가 보람을 느끼며 우리곁에서 일할수 있을것입니다. 어떻소. 필남동무!》

박원식의 말이 나오자마자 참고참아오던 설음이 또 북받쳐 벌써부터 눈물을 흘리던 그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여보이였다.

《반대없으면 그렇게 합시다. 그쯤하고 오늘밤은 만시름을 놓고 우리 함께 강바람이나 쏘입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옥류소 둔덕을 지나 물길을 따라 련광정쪽으로 걸어가시였다. 강가에는 아낙네들이 얼음구멍에 대고 밤늦도록 빨래를 하는데도 있고 저쯤 아래에서는 나루배대신에 얼음우를 건너보겠다는 행인들이 몰켜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선창에는 장작더미,때를 놓친 김장독무지들이 듬성듬성 널려있고 그 두리에 짐을 지키는 사람들이 간혹 보이기도 하였다. 동뚝우에서는 무슨 흥정판이라도 벌리였는지 남정들이 몰켜서서 말씨름을 하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필남이를 위안하고 고무하실 생각으로 녀인들짬으로 자리를 옮기시였다. 필남은 이심전심으로 장군님의 뜻을 헤아리고 되도록이면 명랑해지려고 하였다.

《참말 밤에 보는 평양은 더 아름답습니다.》

필남은 이렇게 서투른 수로 자기 감정을 위장해보려고 하였다. 그럴수록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슴이 더 옥죄이는것 같으시였다. 그래 우정 사색을 다른데로 끌고가시였다.

그동안 가장 급선무로 되였던 당은 이미 창건한것만큼 이제는 정권기관을 빨리 내와야 한다. 북조선 전령역을 포괄하는 행정조직을 내와야 한다. 그것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라는 명칭을 띠게 될것이다. 그것에 의거하여 토지문제도 밭갈이전에 해결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되자면 북조선에 있는 각 정당 사회단체의 통

일전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이께서 이런것을 생각하고계실 때 옆에 따라섰던 김정숙동지께서 《대동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십시오. 산에 계실 때는 자주 대동강을 자랑하시더니.》 하고 함뿍 정서에 취한 말씀을 하시였다.

《그렇소. 너무 할말이 많아 지금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몰라 그러오. 나도 이렇게 대동강기슭을 걸어보는것이 오늘이 처음이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새삼스럽게 사위를 살펴보시였다. 강은 얼어붙어 번들거렸다. 음달진곳에는 눈이 있었지만 날씨가 따스한데다가 밀물이 올라오군해서 강바닥은 유리알같이 야경을 반사하였다. 그리하여 강바닥에 또하나의 평양이 찬란하게 펼쳐져있었다. 아직도 초저녁이다보니 저쪽 대동교밑에서 얼음지치는 아이들의 잴잴거리는 소리, 들들들들 썰매 끄는 소리가 손에 잡힐듯이 들려온다. 여기저기 불을 켜들고 얼음구멍을 지키는 낚시군들도 보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잠간 그윽한 눈길로 그이를 쳐다보다가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끝내 여기에 와닿았군요.》

장군님께서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그렇소.》 하고 대답하시였을 때 김정숙동지께서는 눈물이 글썽해서 고개를 떨구시였다. 짤막한 한마디 말씀과 고요한 그 눈빛은 참으로 많은것을 이야기하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잠간 사색에 잠기시였다.

소사하, 가둑나무가 우거진 골짜기에 홍안의 청년들이 렬을 지어 섰을 때 그들은 모두 광복된 조국땅에 발을 들여놓고 그 기쁨을 안은채 단 하루라도 살아보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바로 그것을 위해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선을 넘어왔던가.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놓은 그 목표를 향해 하루의 쉬임도 없이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왔던것이다. 그 과정에 골짜기를 메웠던 그 대렬은 하나둘 줄어들기도 하고 또 그만큼 보충되고 늘어나기도 하면서 오늘 이 평양에 와닿았다. 하여 종착점에 이른것은 당초에 시작했던 그들중 극히 적은 일부 사람들만이였다.

아득한 옛일을 추억하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꿈나라처럼 몽롱하게 비껴간 릉라도쪽으로 시선을 던지시였

다. 발을 한번 구르면 훌쩍 창공에 날아오를것만 같은 기분이였다. 하늘높이 날아올라 《오! 우리는 여기에 왔다.》 이렇게 웨치면 그 메아리는 스무해동안 점점이 찍으면서 오늘에 이르게 한 무수한 발자취들이 일제히 화답해나설것만 같다.

《자! 그만하고 또 걸읍시다. 저기 한끝까지 걸어갑시다.》

그제서야 김정숙동지께서도 명상에서 깨여나서 말씀하시였다.

《왜 그런지 우리 혼자만 온것 같지 않아요.》

《그렇소. 우리모두가 다 왔지. 같이 오구말구.》

《저는 지금 이런걸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동무들가운데 낯설은 이국땅에 떼장 하나 똑똑히 덮어주지 못한것이 있잖습니까. 그 동무들을 모두 여기 평양에 옮겨왔으면 합니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요.》 하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나서면서 말씀하시였다. 《나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댔소. 김책동무와도 의논해보았는데 역시 동감이요. 그들을 모두 여기에 옮겨옵시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평양을 한눈에 굽어볼수 있는 높은 언덕에 안장합시다. 그들은 명예도 훈장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광복된 조국땅을 한번만이라도 밟아보고싶다는 소망뿐이였습니다. 비석도 세워줍시다. 후손만대에 전해지도록 크게 세웁시다. 조국광복의 성전에 생을 바친 우리의 선렬들이 여기에 고이 잠들고있다고 쪼아박읍시다. 그리고 이 평양을 웅장하고 화려하게 일떠세웁시다. 그들이 항상 흡족한 마음으로 바라볼수 있도록 합시다. 필남동무 생각엔 어떻소? 그렇게 하는것이…》

《장군님! 제 마음에 꼭 듭니다. 그러면 저도 박원식동무를 생각해서 더는 울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나서 필남은 두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기 시작하였다.

《옳소, 그렇게 합시다.》

그이께서 손을 들었다가 쭉 밑으로 내리그을 때 달빛을 받아 눈굽이 번쩍 빛을 뿌리였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다.

옷섶이 열리는것을 바로잡으며 그이께서는 다시 강기슭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제 11 장

1

최준걸은 차창턱에 팔굽을 올려놓고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아득히 펼쳐진 벌판이 급히 뒤로 물러가고 멀리 바라보이는 높고낮은 산들이 천천히 지평선끝에로 잦아들고있다.

봄이 한창이다. 눈부신 봄볕을 인 사람들이 논밭에 한벌 널리였다. 함흥을 떠난 렬차는 북으로 북으로 달리고있다. 서호벌을 지나자 절승을 이룬 동해의 크고작은 물굽이들이 나졌다. 이제 단천, 길주를 지나 청진에 이르게 될것이다.

최준걸은 끝없이 정서를 끌어당기는 서경에서 눈을 떼여 앞상에 펼쳐놓은 사업수첩으로 시선을 가져갔다. 수첩에는 광복이 돼서 이날까지 꼼꼼히 모아둔 조선의 산업실태에 관한 자료가 적혀있었다.

최준걸은 이번 함경북도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보좌성원으로 참가하게 된것을 끝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이번에 함북도의 당,행정경제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실 예정이시였다. 그중에서도 경제사업이 큰 자리를 차지하였는데 이 도에는 무산지구의 채취공업,청진지구의 금속공업,화학공업 등 중공업이 집중되여있으며 수산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었다. 때문에 함북도의 당,정권기관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이다. 그중에서도 당면하게는 라남19사단을 격멸하는 격전장으로 되였던 청진지구의 기간공업을 추켜세우는것이 중요하였다. 때문에 최준걸은 **김일성**동지께서 물으시는 경우에 정확한 답변을 올려야 했기때문에 수자와 품명들 그리고 그 호상관계들을 충분히 익혀두려고 하였다.

그동안 시간이 흘렀다. 강선제강소에 갔다온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반년이 넘었다. 작년말에 떠나서 성흥광산에 내려갔다올라왔는데 그사이에 북조선전역을 총괄하는 정권인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나오고 그에 뒤이어 곧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단행되였다. 나라와 민족의 력사에는 이토록 위대한 변혁들이 일어났는데 최준걸 자기자신은 이 과정에 아무런 흔적도 남긴것이 없다. 다만 얼마전에 가족을 데리고 올라와서 사업실정을 료해하던중 함흥지구를 현지지도하고계시는 **김일성**동지께서 부르신다는 련락을 받고 달려왔던것이다. 그는 면구스럽기도 하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 이제 그이께 무엇이라고 인사말씀을 올릴가 생각하면서 차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때 나들문쪽에서 좌현이 나타나더니 장군님께서 부르신다고 알려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책이와 함께 객차칸복도를 거닐으시면서 청진제강소에 파견한 강병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계시였다.

《제강소복구사업이 많이 진척되였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데리러 갔던것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이의 물음에 김책은 오늘아침에 남조선에 파견한 공작원들의 사업정형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을뿐 강병철이나 그밖에 개별일군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것을 후회하면서 매우 어색해하며 대답을 올리였다.

《예정된 날자에 도착한다고 하였습니다. 약속한 날은 어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평양에 혹시 와있을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좌현의 안내로 최준걸이 그이앞에 나타났다. 경례를 올리자 그이께서는 최준걸의 손을 잡으신채 자신께서 앉으시였던 자리로 끌고가시였다. 최준걸은 김책이와 나란히 그이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 이제는 안착되였습니까?》 그이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최준걸에게 가까이 다가앉으라고 권하시고나서 뒤를 이으시

였다. 《최동무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은지가 얼마간 되지만 좀체로 시간을 낼수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왔습니까?》

《네! 올라와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최준걸은 고개를 들고 다시 경의를 표시하였다.

《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음을 푹 놓고 사업에 열중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로 되여있는 동무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혈색이랑 좋습니다.》

《장군님!》 최준걸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말씀올리였다. 《무엇이라고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체문제로 해서 여러가지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장군님께서 념려해주셔서 병원치료도 받았고 좋은 집에도 들었습니다. 다시는 저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겠습니다.》

최준걸은 이미부터 가슴에 사무쳤던 죄책에 대해서 흥분을 안고 말씀올리였다. 그런데 정작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서없이 어슷비슷한 말을 반복하게 되였다. 그가 가슴에 품고있었던것은 무엇보다도먼저 강병철이 일으킨 사고와 관련한것이였고 그다음에는 장군님께서 요구하고 바라시는대로 산업을 복구하고 정비해내지 못한것이였다. 그러다보니 그가 펼치고있는 사연들이란 대체로 나라의 경제형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 관련한 일군들과의 관계문제들이였다. 이윽토록 최준걸의 이야기를 듣고계시던 그이께서는 약간 고개를 기웃하시였다.

《그런데 최동무! 암만 들어봐도 나에게 생긴 하나의 의문만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하고 그이께서는 창가림을 한옆으로 밀어놓으시였다. 차창으로 해빛이 눈부시게 비쳐들었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한껏 근엄해진 최준걸을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뒤를 이으시였다. 《동무가 평양에서 떠나 광산으로 내려갈 때 어째서 우리를 직접 만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글쪽지라도 한장 남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나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순간 최준걸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눈

앞은 캄캄해지고 사지가 떨리였다. 그는 몇달동안 자기 과오와 자기 실책에 대해서 그토록 여러번 따지고 반성하고 뉘우치였지만 방금 장군님께서 의문을 표시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것이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했었습니다. 저지른 과오도 있고 또 저에게 쏠리는 기대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저는 군말없이 내려가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목이 꺽 막혀 더 이상 뒤를 이어대지 못하였다. 다만 이때 가슴속에서 소용돌고있는 그의 복잡한 심리의 한구석에 얼음장처럼 차거운것이 생겨났는데 결국 산업국의 책임적인 직책에서 물러난것이 장군님의 의사와는 아무러한 관계가 없었던것이며 지어는 그이의 의사에 배반되는것이였다는 생각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최준걸은 후두두 떨리는 가슴을 진정하려고 어깨를 높이 들었다놓으며 긴숨을 내쉬였다.

《이미 지나간 일을 두고 내가 왜 이런 구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그 의도를 동무가 똑똑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이때 너무나 지나친 긴장을 보이고있는 최준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였다. 《결국 그것은 동무가 우리를 믿지 못하기때문에 생겨난 하나의 비정상적인 사태인것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게 되는가. 아마 동무는 우리가 처음 만나던 때를 지금도 기억하고있을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뒤에 손을 맞잡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믿으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이렇게 첫 상봉의 결구가 지어졌던것을 동무는 기억하고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언약을 지켜서 우리는 좋은일, 궂은일 또는 기쁜일, 고통스러운 일 가릴것 없이 서로 나누어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는 일이 순조롭고 좋은일이 있을 때는 서로 알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자고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길로 나갔단말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그이께서는 입가에 웃음을 지으시면서 최준걸을 다시 쳐다보시였다. 최준걸은 자기도 모르는사이에 어느덧 긴장을 풀고 그이의 말씀에 심취되여있었다.

앞상 한쪽에 놓였던 물잔을 들어 한모금 마시고나서 그이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시였다.

《동무도 알겠지만 혁명이란 원래 간고하고 준엄하기마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수에서 시작되고 미약한것에서 출발해서 다수를 이기고 강대한것을 타승해야 하는것이 혁명이기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지적 의리가 그 관계의 밑바탕에 유쾌하고 성수가 나는 일만 놓아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벌써 혁명이 아니며 더구나 동지적 의리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앞길이 얼마나 험난한가. 3천리강토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계급적 원쑤들은 우리의 내부에서 또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인민정권을 내오고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것은 모두 대내,대외의 원쑤와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국을 통일해야 하고 이 땅에 인민의 락원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 피를 흘리는 국내전쟁도 있을수 있고 외래침략자와 판가리싸움을 할수도 있습니다. 자,보시오. 사태는 이런데 누가 무어라고 했다고 해서 또 무슨 과오가 있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짬이 있는곳에 쐐기가 들어오기마련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하자고 하는것은 그것이 어떤 치레거리인사이거나 외교적 언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리는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살아나가야 한다는 각오로 담보되여야 합니다.》

《장군님！》

눈물이 글썽해서 듣고있던 최준걸이 목메인 소리를 내면서 고개를 툭 떨구었다. 너무나도 날카롭고 준엄한 진리가 가슴속을 살살이 뒤져놓은것이다. 순간 눈앞이 뽀얗게 흐려지더니 하나의 환영이 앞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만주 장춘의 교외에 자리잡았던 광물연구소앞마당에서였다. 머리를 항상 빤빤히 깎고다니는 재향군인 오장 사까이라는자가 검도채로 최준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불의에 타격을 받은 최

준결은 땅바닥에 쓰러지고말았다. 사까이는 최준걸의 목을 지르밟고 항복하라고 다그었다. 무엇때문에 항복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항복한다는것이 어떻게 하는것인지도 몰랐다. 몇시간후에야 정신을 차렸는데 마당 한쪽 하수도도랑안에 던져져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대동아전쟁의 승리의 신심이 덜한 조선지식인은 매명당 이렇게 하나하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는것이다.…

최준걸은 몸을 떨었다. 환영에서 깨여나자 이마에서 땀이 쭉 흘렀다. 눈앞이 차차 개이자 장군님께서 의아한 시선으로 쳐다보고계신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러자 금시 코마루가 저려나며 눈물이 쏟아졌다. 어째서 그런 엉뚱한 환상이 떠올랐는지 알수 없었다. 더구나 왜 그렇게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때 그는 온몸에서 마지막 한쪼각의 혐오와 어리석음마저 다 빠져나가면서 이름할수 없는 긍지와 보람이 흘러들고있다는것을 느끼였을뿐이였다.

《장군님! 뜻을 알겠습니다. 뼈속깊이 뜻을 새겨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였다. 하지만 그 말마디들마다에는 그의 심혼이 알차게 박혀있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뜻하지 않게 이야기가 정도이상 심각하게 되였다고 보시였는지 《최동무!》 하고 부르시고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저기를 좀 보시오.》 그이께서는 차창밖을 가리키시였다. 《다른 때에도 이맘때면 저렇게 논밭에 사람이 많이 나왔습니까? 오늘이 4월 21일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열흘내지 보름은 더 일찍 들일이 시작된것 같습니다. 토지를 받은 농민들이 봄을 앞당겼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언젠가 시집을 보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고 눈물을 머금고 시인이 웨친것이 떠오릅니다. 인젠 우리 농민들이 빼앗겼던 봄을 되찾았습니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청진지구를 위시한 함북도의 산업형편을 물으시였다.

최준걸은 성의껏 준비한 실정보고를 올리였다. 한시간이상 보

고를 올리고나서 다시 자기자리로 돌아온 최준걸은 앞서처럼 창턱에 팔굽을 올려놓고 흘러가는 외경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그의 심정은 종창을 무자비하게 도려내는 대수술을 겪고난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였으며 어데선가 불러일으키는 활력에 의해 온몸이 꿈틀꿈틀 뛰는것 같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가느다란 바람결에도 함부로 흔들리던 단풍잎같은 불안과 공포가 가셔지고 안정되고 굳건한 자기자신을 볼수 있었다.

(그렇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것이다.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김일성**장군님 한분만을 믿고 따를것이다. 오직 그분 한분만을 믿고 따를것이다. 오직 그이 한분만을! 이 각오와 의지만이 어떠한 폭풍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자신이 나갈 길을 찾을수 있으며 처음 손을 맞잡고 언약한것을 지켜내게 될것이다.)

그는 이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있었다. 준엄한 진리를 처음 깨달은 기쁨과 그것을 지켜내야겠다는 엄숙한 감정이 가슴에서 넘쳐흐르고있었다.

2

아침식사를 끌내고나니 온몸이 나른해왔다. 가까스로 건조로어구까지 걸음을 옮겨짚은 강병철은 나무쪽걸상우에 펄썩 주저앉았다. 그는 꼬박 사흘동안 밤을 새며 허용수치보다 20프로나 높은 정광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애를 썼다. 건조로능력을 높여야 강철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따라서 장군님께서 돌려주신 신임에 대한 보답으로 될것이였다. 때문에 그는 결심을 품고 이 공정을 풀기 위해 달라붙었던것이다. 담배를 붙여문 그는 연기를 내부는것인지 한숨을 크게 쉬는것인지 알수 없게 어깨를 들었다놓았다. 전혀 불가능하다면 아예 단념해버리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수분을 타고 습새는 류전을 방지하는것만으로도 10프로는 더 능력을 높일수 있는것이다. 또 그 방도가 기술적으로 가망이 적을만치 복잡한것도

아니였다. 겸해서 이 며칠사이에 그가 현장에서 밤을 밝히게 된 것은 지배인이 출장갔다 돌아와서 귀띔해준 한마디 말때문이였다.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함남도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시다는거요. 비료공장,제련소 등 중요 공장기업소를 다 돌아보셨다는 말이 있소.》

침착하고 정확한 점에서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지배인의 말이고보면 그것을 십분 믿어야 할뿐만아니라 혹시 함북도에 오시게 되면 우리 제강소도 돌아보실수 있다는 암시가 충분히 납득되였던것이다. 그렇다면 한시바삐 서둘러야 하는것이다. 첫 출강준비도, 건조로의 확장도…

담배꽁초를 파철더미쪽으로 휘익 던지고나서 그는 자리에서 훌쩍 일어났다. 오금이 저려나는것을 참으면서 로두리를 또 돌아보는것이다. 로를 돌아보는 공정은 극히 단순한것이였다. 콘베아로 날라온 정광을 로판우에 골고루 펴는것이며 밑에서 가열하게 된 철판에 전기를 투입하고 그것을 다시 회전로공정으로 넘기면 된다. 그 과정에 류전을 감시하기 위해 강병철이 손수 만들어놓은 세군데의 전류계눈금을 살펴보면 되는것이다. 사실상 그는 석달째 이 공정때문에 애를 먹고있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산업국의 지시로 흥남비료공장에서 여기 제강소에 옮겨와서 인차 착수한것이 이 공정이다.

흥남제련소에서 실험생산한것을 다량생산으로 넘기기 위해서도 이것을 풀어야 하였다. 준비공정이 잘돼야 립철이 순조롭고 립철의 질이 높아야 전기로공정에서 예정지표를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수분이 허용수치를 초과하면서 전기가 로주변까지 흘러 며칠전에도 감전사고가 일어났던것이다. 물론 일제때처럼 인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는 아니였다. 강병철은 발걸음을 멈추고 제1번 계기를 올려다보았다. 이쯤이면 10프로능력제고는 능히 가능하였다. 한껏 만족해져 시꺼먼 눈이 근시안경안에서 웃고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급히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다.

《기사장동지！ 빨리 오시랍니다. 지배인실로！》

《뭐？！》

30이 되나마나한 계획과 지도원이 너무나 급히 서둘러 정신을 차릴수 없게 하였다.

《빨리요, 빨리！》

《무슨 일이요？》

팔을 잡아끄는대로 따라가며 묻는데 지도원은 숨이 차서 대답도 못한다.

강병철이 한달음으로 달려가는데 행정청사현관에서 여러명의 손님들이 걸어나오고있다.

길옆으로 비켜서서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기사장동무！ 잘 있었소？》 하는 목소리가 들리였다.

《아！ 장군님！》

너무나 놀라와 순간에 몸이 굳어진 강병철은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어느새 벌써 장군님께서는 몇걸음앞까지 다가오시였다. 그제서야 강병철은 급히 앞으로 나서면서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였다. 장군님께서는 강병철의 팔을 잡으시고 그간 잘 있었느냐고 물으시였다.

《장군님！ 저는 이렇게 건강합니다.》

강병철은 안경을 벗어들면서 고개를 들었다.

《좋습니다. 건강하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웅글은 그이의 음성이 공장소음을 압도하고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이때 강병철은 웃음이 함뿍 피여난 그이의 얼굴과 젊은 기운이 넘쳐흐르는 몸가짐을 볼수 있었다.

《공장구경을 하려고 왔습니다. 동무가 몇달동안이나 침식을 잊고 복구했다는 공장을 보여주시오. 쇠물이 나오는것을 봅시다. 어서 앞서시오.》

그이께서 손에 드시였던 모자를 쓰고나서 강병철의 등을 떠미시였다.

강병철은 너무나 뜻밖에 당하게 된 놀라움과 기쁨으로 해서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의 첫 공정에서부터 출강작업에 이르는 전공정을 보여드릴 생각을 하였다.

김일성동지를 모신 7～8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이 철도인입선을

가로질러 콘베아를 따라나가다가 건조로쪽으로 꺾어들었다. 장군님의 뒤에 따라선 최준걸은 이곳 제강소와 강선제강소를 대비해서 생산기술공정이 호상 다르다는것과 아울러 전국적 범위에서의 강재생산의 현실태를 보고드리였다.

《여기서 수분을 제거하고 다음 저쪽 립철로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강병철은 건조로가 들여다보이는 나들문앞에 멈춰서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자 작업중에 있던 로동자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손을 들어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였다. 모자를 벗어 흔들며 답례하신 그이께서는 수고한다는 인사를 하신후 어서 작업을 계속하라고 하시였다. 로동자들이 각기 자기 위치로 흩어지자 그이께서는 작업장안에 들어가 자세히 돌아보자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걸음을 건조로쪽으로 옮겨짚으시였다.

《장군님! 여기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강병철은 앞을 막아서며 애원하듯 말씀을 올리였다.

《로동자들이 일하는것을 보면 안됩니까?》

《이안에 들어서시면 안됩니다.》 강병철은 안경이 미끄러져내릴만치 고개를 흔들며 딱한 표정을 지었다.

《공기도 나쁜것 같지 않고 위험할 정도로 기계가 돌아가는것도 없잖습니까?》

《장군님! 위험합니다.》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이 발판으로는 전기가 흐르고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있는 이 땅바닥에 전기가 흐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동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있습니까?》

《그건 부득한 유해직종으로서…》

김일성동지의 얼굴에는 순간에 그늘이 어리였다. 처음에는 리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아한 표정이시더니 급기야 침울한 시선으로 뽀얗게 흐려진 작업장안을 들여다보시였다. 건조로우에는 물안개와 연기가 한데 섞인 매캐한 냄새가 떠돌고있었다. 한마디 말

씀도 없이 이윽토록 작업장안을 살피고계시던 그이께서는 몇걸음앞에서 삽질을 하고있는 로동자쪽으로 다가가시였다.

《동무! 수고합니다.》

그이께서는 삽을 든 팔목을 덥석 잡아흔드시였다.

계속해서 그이께서는 강병철에게 말씀하시였다.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이 수고하는 동무들의 손목이라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무들은 매일 만나서 서로 돕고 이끌며 일하고있지만 나야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동무들, 모두다 한번씩 손을 잡아봅시다. 쇠가루가 발린 그 손을 잡아보잔말입니다.》

그이께서는 장화등까지 정광이 푹푹 빠지는데를 걸으시여 10여명이나 되는 로동자를 다 만나시고 밖으로 나오시였다. 뒤에 바투 붙어서서 로동자들의 나이와 경력 같은것을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있던 강병철은 눈에 시뻘겋게 피가 져서 따라나왔다.

《최준걸동무! 여기 기사장이 말하고있는것이 사실입니까? 건조로에서 흐르는 전류때문에 인명에 해롭다는것이 사실인가말입니다.》

《장군님!》 최준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였다. 그보다 더 놀라운것은 어느때 어떤 문제에서나 즉석에서 대답을 올리기마련이였던 그가 한동안 말을 못하는것이였다. 이윽해서 그는 고개를 들고 나직이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떼였다.

《강병철기사장의 말이 옳습니다. 유해직종이며 동시에 위험직종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방식의 제철제강공업에서는 이 공정을 넘어뛰거나 무시할만한 기술을 아직 연구해내지 못했기때문에 부득이 이것이 현재까지 허용되고있습니다. 적어도 공장인명재해의 절반을 여기서 발생시키고있다는 통계가 국제적으로 보고되고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할것이 있는것 같은데 그이께서 너무나 놀라와하실것 같아서인지 끝내 보태지 않고말았다.

《그렇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허리에 손을 짚으시고 마당을 거닐기 시작

하시였다. 발걸음을 옮기실적마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였다. 맨앞에 김책이, 그다음에 최준걸의 순서로 수행원들이 둘레를 지어서서 그이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있었다. 건조로가 들여다보이는 나들문앞까지 가셨다가 다시 돌아서서 마당 저쪽 한구석에 자리잡은 수도가까지 그사이를 오가기를 무려 세번, 그동안 한마디의 말씀도 없으시다가 그이께서는 문득 강병철이앞에서 걸음을 멈춰서시였다.

《기사장동무!》 그이께서는 발을 모으고선 강병철을 직시하시면서 말씀하시였다. 《저 건조로에서 작업을 중지하시오.》

마디마디가 천근같은 무게를 가지고있는 그이의 말씀은 우선 먼저 강병철이, 그다음에는 수행원들의 가슴들을 세차게 울려놓았다.

《작업을 중지하다니!》, 《그러면 강철생산은 어떻게 되는가?》 등등의 의문이 일시에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떠올랐다.

숨을 죽이고서서 장군님의 다음말씀을 기다리고있던 강병철은 고개를 들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장군님! 여기서 작업을 중지하면 이 계통의 생산은 완전히 멎게 됩니다.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 로동자들이 몇달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기사장동무!》 하고 그이께서는 강병철의 말을 중단시키시였다. 《지금 우리에게는 강철이 천금같이 귀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로동계급의 생명보다 귀중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강철과 로동자의 생명을 바꿀수 없습니다. 작업장어방에 사람이 들어서기조차 무서운데 어떻게 여기서 일할것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강철생산에 지장이 있어도 중지하시오.》

그이께서는 근엄한 표정을 짓고 서있는 김책이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김책동무! 어떻습니까? 이 로를 그냥두겠습니까?》

《장군님!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기사장동무를 비롯한 이곳 기술자들의 지혜를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인명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연구할수 없겠습니까?》

강병철은 고개를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하였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이께서는 좌우에 둘러선 동무들에게 설명을 더 보태시였다.

《자본가들은 리윤을 위해서 인명을 희생시키지만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모든 재부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오래동안 총을 들고 싸운것도 우리 민족과 우리 사람들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병철의 고개는 점점 더 숙어졌다. 천근무게로 지지눌리우는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드리였다.

《장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강병철은 확신성있게 대답하면서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이때 그의 얼굴에는 신심과 긍지가 어려있었다. 그는 어떻게 되여 무엇을 담보로 하여 그런 대답을 올리게 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그이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름할수 없는 힘이 온몸에 굽이쳐흐르는것을 느끼였고 그로 하여 기술적 가능성이라든지 자기 능력에 대한 타산을 하기에 앞서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그대로 쏟았을뿐이였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뒤이어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웃음소리는 얼마동안 팽팽해졌던 분위기를 단번에 쓸어버리고 통쾌하고 명랑한 기분을 마당에 차넘치게 하였다.

다음은 전기로직장으로 넘어갔다. 강병철은 검고 누누한 땅에 발을 옮겨짚으며 생각에 잠기였다. 장군님의 뜻을 새길수록 온몸에 서리가 내돋을만치 죄책감이 번져나갔다.

돌이켜보면 왜정때의 자기 생활은 통털어서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겨레에게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는것으로 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고 몸서리칠만치 죄악으로 느껴지는것은 야하다에서의 강철생산이였다.

(이전에 나의 가책이란 기껏해서 일제에게 기술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정도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일제에게 민족적 차별과 멸시를 당했다는것으로 해서 그 비중은 어슷비슷하다고 저울질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보면 당시 내가 만들어낸 강철은 순수 철성분에 의한것이 아니라 로동자들의 피, 특히는 조선사람의 피가 섞여있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강철은 또다시 우리 인민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수단으로 되였던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그 죄악이란 극형에 처해 마땅한것이다.

그런데 오늘에도 그 거꾸로 섰던 사고방식에서 나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나는 인간을 위한 새 강철을 만들어야 한다. 여직까지 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품성과 인자함을 다만 나의 과거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합금로에서 저지른 과오를 아량있게 용서해주시는것으로만 알았다. 그러나 이제 와보면 만인에게 베풀어지는 그이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찬란한 해빛의 한줄기가 나에게도 와닿았던것이다.

그렇다! 나는 이때까지 일제에 의해서 또 나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캄캄한 지옥에 들어앉아있었다. 나는 단연 광명의 줄기를 붙잡고 밝은 세상으로 뛰쳐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인간을 위한 강철을 만들어야 하며 겨레를 위한 복무의 길에서 한치의 드팀도 없이 걸어가야 하는것이다.)

강철로앞에 이르렀다.

때마침 출강할수 있는 시간이 되였기때문에 그이께서 잘 보실수 있도록 철사다리를 타고 조괴장우에 안내해드리였다. 신호가 울리고 기중기가 움직이더니 전기로가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쇠물이 쏟아져내리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흑안경을 끼시고 장쾌한 장면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출강구에서 흘러내린 쇠물은 폭포처럼 수직으로 떨어져내리면서 불꽃을 사방에 튕기였다. 모든것이 섬광을 반사하여 눈에 부시였다. 붉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또한 푸르기도 한 현란한 광채가 온 공간을 꽉 채웠다.

강병철은 쇠물이 쏟아지는 장쾌한 장면과 그것을 지켜보고계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번갈아보고있었다. 그 위용, 그 빛발, 그 장엄함이 하나로 융합되였다.

그이께서는 통쾌하게 웃고계시였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환희롭고 긍지와 신심에 넘칠 때에만 가질수 있는 그런 모습이였다.

순간 강병철의 눈굽이 뜨거워나더니 눈물이 볼을 적시며 주르르 흘러내리였다.

아!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께서 지금 만족해서 웃고계신다. 저 웃음을 영원히 가슴속에 간직하고싶다. 저 웃음속에 나자신을 영원히 묻어두고싶다. 내가 한생 바라고 소망했던것이 무엇이였던가. 이런 보람, 이런 자부를 찾아 모대기고 헤매지 않았던가.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인간을 그토록 믿으시는 그분! 사랑이 있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 사랑이 값높은 그 숭고한 사상, 그것은 온 겨레를 하나의 초점에로 단합시키는 구심점이며 불가극복의 견인력이다. 그 기둥을 나는 붙잡았다. 그 정신적 지탱점에 의지해서 나는 동요와 불안을 모르고 한생을 살아갈것이다. 조난을 당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하던 《배》는 이 지탱점에 닻줄을 든든히 매놓고 향방을 가려볼것이다. 이것이 나의 목적, 나의 리상의 전부이며 최고, 최대의 행복이며 보람이 아니겠는가.

강병철은 구름처럼 피여오르는 환희와 랑만을 감당할길이 없어 그저 가슴만 움켜잡고있었다. 그의 볼로는 이랑을 지어 눈물이 흘렀다.

《장하오! 장해!》 **김일성**동지께서 강병철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큰소리로 웨치시였다. 《강병철동무! 수고했소. 수고했단말이요.》

강병철은 끝내 흥분을 이기지 못해 얼굴을 싸쥐면서 철근란간에 등을 기대였다. 그리고는 어깨를 들먹이였다. 그이께서는 더 많은 치하의 말씀을 하시려다가 그만두고 강병철이 진정하기를 기다리시였다. 그때 좌현이가 급히 장군님께로 다가와서 짤막하게 몇마디 보고를 올리였다.

《그렇소? 빨리 여기로 데려오오.》

좌현이는 방금 나타났던쪽으로 급히 되돌아나가더니 나들문밖으로 사라졌다.

《강병철동무！ 빨리 마당으로 내려갑시다. 기쁜 일이 있소.》

그이께서는 강병철의 팔을 잡고 철판층계를 급히 내려서시였다.

마당에 나섰을 때였다. 좌현이가 어떤 녀인을 안내해서 이쪽으로 데려오고있었다.

《강동무！ 저기 누가 오는가 보시오.》

강병철은 멍청히 서서 바라보고있었다. 흰적삼에 깜장치마를 입은 녀인이 허둥지둥 달려오고있다.

《왜 그러고있소. 대구에서 부인이 찾아왔소.》

《네？》

그는 한자리에 못박힌채 움직이지 못하였다. 마주오던 녀인도 몇걸음앞에 와서 멎어버리고말았다.

좌현이는 다시 돌아서서 승용차 있는데로 가더니 두 아이를 한아름에 안고 달려왔다. 하나는 네댓살났을 사내애고 다른 하나는 그 밑의 계집애였다.

좌현이의 품에서 빠져나온 사내애는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며 총알처럼 강병철의 가슴에 안기고 계집애는 걸음발이 떨어지지 않아 고사리같은 손을 뻗치고 《아빠！ 아빠！》 하고있다.

그들의 감격적인 상봉을 지켜보고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최준걸을 손짓해 불러 물으시였다.

《본궁화학에 있던 원무엇인가 하는 기사의 소식은 아직 모릅니까？》

《작년말에 서울로 나갔다고 합니다.》

3

원시범은 붕대를 감은 팔을 부자연스럽게 놀리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선풍기를 좀더 머리맡가까이로 끌어다놓고 다시 자리에 누

웠다. 한참동안 기염을 토한뒤라 온몸이 홧홧 달아올라 안절부절 못하고있다. 넓다란 마루방에는 일여덟명의 동료들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 찾아왔었다. 밤이고 낮이고 방문객이 그치지 않았다. 한동안 절당처럼 비여있었던것인데 지난해 설명절을 하루 앞두고 북에 갔던 원시범이 문득 나타난후로부터 이렇게 된것이다. 원시범은 자리가 또 편안치 않아 다시 일어나 등나무의자로 옮겨앉으며 좀전부터 하던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네들은 공산주의리념에 대해서 아니 당신네들이라는 복수에는 저 박선생만은 제외돼있습니다.》 그는 오른쪽벽에 기대 앉아 자기보다 나이들이 10년가까이 아래인 젊은이들의 노는양을 재미있게 쳐다보고있는 목이 기름한 력사학자 박문에게 량해를 구하였다. 《소인은 공산주의리념을 그 무슨 범접할수 없는 뻬스트균처럼 대해서는 안된다는거요. 왜 그런가. 그것은 이른바 지식을 가졌다는 우리들이 맹목성에 빠질 위험이 있기때문이요. 그건 그렇고 내가 목격한 북조선은 당장 공산주의를 하자는것도 아니드란말이요.》

《여보 여보, 원군, 그건 론리도 아니고 서정시도 아닌 궤변이고 자가당착이요. 군은 그렇게까지 저지능이 아니였는데 어떻게 되여 몇달어간에 그렇게 바보가 되였나. 북에서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 공산당은 도대체 무얼 하자는건가. 설사 각자의 기호에 따라 리념을 나누어주는 구락부도 아닐것이고 더구나 그리스 아테네에 있던 쏘피스트처럼 론리의 경연을 하자는데도 아닐텐데…》

원시범의 턱밑에 바투 들어앉아 흘러내린 안경을 손끝으로 밀어 올리며 달려드는것은 생물학박사 김원학이다. 그는 와세다대학출신으로서 30살을 갓 넘겨 학위를 받아 학계에서 수재로 이름을 떨쳤었다.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명한 제씨들, 그렇지 않소?》

김원학은 방금 원시범이 년장자인 박문을 존대한것처럼 엄연히 계칭을 갈라놓고 동료들에게 동의해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렇게 되자 원시범을 중심해서 쭉 둘러앉았던 친구들이 모두 고

개를 끄덕이거나 한마디씩의 대답으로써 김원학을 지지해나섰다. 사실 까놓고보면 올해초부터 지금까지 반년이 넘도록 이 집에 지식인들이 모여들고 왈시왈비 밤낮 론쟁을 벌리는것은 김원학의 입심좋은 론리와 그만 못지 않게 검질긴 원시범의 정열때문이라고 할수 있었다. 8.15광복이 되여 한돐이 되는 지금까지 그들모두는 할 일이 없게 되였다. 그들을 찾는데도 없거니와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학술연구요 실험이요 취재요 답사요 하는것은 전혀 불필요하게 되였고 그렇다고 해서 신바닥에서 불이 일만치 드바삐 뛰는 정치인이나 운동자들의 본을 딸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고급한 지식인인 그들은 정신생활의 공백을 채우는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론의하느라면 자연히 앞이 트일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들의 화제가 결코 따분하지 않을뿐더러 몇달이 계속되여도 끝을 볼수 없을만치 지속성을 가지는것은 그 무엇인가를 상대로 해서 규탄저주하는 반항의식이 깔려 있기때문이였다. 그중에서도 두개의 대상이 뚜렷한 선을 이루고있었는데 하나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과 그의 나라 미합중국에 대한 비난과 저주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북에 생겨났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규탄이였다. 량으로 보나 농도의 세기로 보나 월등 우위에 있는것은 양키들에 대한 악담이였다. 신문이나 방송 또는 연설들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주장들은 《미군은 해방군이다》, 《아메리카는 문명국이다》라는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이 방안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자기가 목격하고 체험한 생동한 생활세부들과 그것을 종합추리하고 지식으로 얻어낸 견해를 가지고 걸찍하게 욕설을 퍼붓고있다. 그중에는 아놀드군정장관이나 동경에 있다는 맥아더련합군총사령관 같은 거물들도 미친개 몰아주듯한다.

《콜롬브스의 공로가 대단하긴 한데 그대신 아메리카합중국과 같은 야만국가가 생겨날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놓았다는 점에서는 하느님앞에서 속죄해야지.》

《도대체 미군이 무슨 권리로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전패국취급을 하려드는가.》

《이런 식으로 10년만 더 끌면 조선에 혼혈종이 약차하게 생길수 있어. 신성한 조선의 피를 어지럽히려드는 야만들.》

이런 식으로 대상을 축구공굴리듯하고있지만 오직 하나 서글픈것은 그것이 단 한걸음도 행동에 옮겨지는것은 없고 빈입만 가동시키고있는 점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의 분노는 절정에 이르렀다.

원시범은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한겨울동안 줄곧 방안에 붙박혀있었다. 38선을 넘어 평양으로,평양에서 다시 흥남으로,거기서 또다시 평양,38선 이렇게 한바퀴 도는 어간에 매우 피로를 느끼였다. 무엇보다도 정신적 피로가 몸을 가눌수 없게 하였다. 환경에 쉽게 적응될수 있는 성격으로 보이였던 그였는데도 이질적인 환경과 사색때문에 지칠대로 지치였다. 그래 동료들에게 그가 말한것처럼 《동면》하기로 했던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노상 《공백》으로 있은것은 아니고 추억을 되살려 교또시절을 자주 그려보군하였다. 그러면 곧 하바트대학이 떠오르고 노벨상시상대에 오른 자기자신을 보게 되였다. 환상으로도 나타나고 꿈에도 자주 보이였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가만있을수 없게 되였다. 지난 5월초였다. 백추화의 성화에 못이겨 새로 지은 연회색춘추복으로 갈아입고 원시범은 경성제국대학공학부청사로 시적시적 걸어나갔다. 언제나 참새새끼처럼 불안해있기마련인 백추화가 뒤따랐다. 정문을 지나 맨뒤 자그마한 방에서 햄스를 만났다. 매부리코에 등이 구불써한 아리아족 햄스는 원시범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처음부터 의도를 로출시킬수 없었고 또 만약의 경우를 념두에 두고 건성 몇마디 말을 나누고 돌아왔었다. 대화가운데는 북조선에 갔다왔다는것과 둘중 어느 하나에도 마음을 질정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말해주었다. 며칠후에 다시 만나자고 하고 그날은 헤여졌다. 그로부터 사흘만에 까무러칠만한 사건이 생겼다. 원시범이 아직 자리에서 일지도 않았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였다. 동생이 나갔다 들어오는데 박문이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신문지장을 휘두르며 고아대였다. 잠옷바람으로 뛰쳐일어나 방바닥에 《동아일보》를 펼치니 제2면 상단에 《북조선에 갔다온 한 지성인 미국에 갈것을 청원,교또대학출신 원시범의 고백》이라는

표제를 달고 원시범이 기자와 한 인터뷰가 실렸다.

《이건 거짓말이요! 난 이런 일이 없소. 날조요 날조!》

원시범은 성이 나서 펄쩍 뛰였다. 《동아일보》 사회부에 전화를 거니 《당신이 만난 모계통에서 보내온 원고를 우리는 활자로 옮겼을뿐이요.》라고 하였다.

그길로 원시범은 햄스를 찾아갔다.

《내 이름을 기자로 고쳤을뿐 내용이야 사실 그대로가 아닌가요.》

《이 원시범이 언제 북조선은 붉은 지옥이라고 했소? 또 내가 언제 미국에 류학갈것을 청원했소? 이건 날조요, 거짓이요! 다른 신문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겠소.》

《원선생! 신문에 난 그대로 해서 나쁠것이 없겠는데요. 잘 생각해보시오.》

《아니요, 다 폭로하겠소.》

그는 문을 후려닫고 나와버렸다. 골목을 하나 돌아서는데 청년 둘이 나타나더니 원시범을 둘러메치고 《동아일보》에 난 기사가 사실이라는것을 인정하는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다.

《난 죽어도 그걸 인정 못한다!》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뒤에 붙어섰던 백추화도 째지는듯한 비명을 지르며 어데론가 끌려갔다. 그가 의식을 회복해서 자동차길까지 기여나간것은 그로부터 두시간후였다.

한달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창피해서 집에 나와 누워있는데 아직 그때에 받은 심신의 어혈이 풀리지 않았다.

《북의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조폭해도 양키들만행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원시범은 자주 이렇게 말하군하였다.

《북조선에도 악당들이 있기야 하지. 가령 내가 본 공산당본부에 있다는 오기섭이란 위인은 한심했네. 온몸에서 류행식 맑스주의자냄새가 물컥물컥 풍기였어. 인정미가 없고 정서는 목석이구. 그러나 그 모든것은 중요하지 않단말이요. 오직 우리는 **김일성**장군님만 알고있으면 되네. **김일성**장군님은 사상과 리론이 위대할뿐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위대하고 특출하시네. 우리들이 알고있는 야금기술

자 양춘만이라고 있잖나. 그건 친일분자지. 그런데 그의 아이를 급병에서 구원해주시였소. 그 집을 방문했다가 앓는 아이를 보고 데려다 고쳐주시였네. 그러니 지금 남북 3천만 겨레가 그이를 령도자로 모시는거야 응당한것이네.》

이 대목에서 박문이 끼여들었다. 그는 년장자라는 체면도 있었지만 력사학자로서 언제나 자기 립장을 투철하게 밝혀두는 대바른 점이 있었다.

《내 생각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인격이나 호상의리에 대해서는 론할 필요 없다고 보네. 왜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계보를 캐면 한세기가 넘지만 어쨌든 그어간의 대표인물로야 맑스나 엥겔스를 꼽아야 한다는것은 만인주지의 사실이 아니겠나. 그런데 맑스는 어떤 사람인가. 〈자본론〉이라는 그 희세의 대작을 써서 자기 친우인 월헬름 월프에게 드린다고 맨 첫장에 써넣었거든. 또 엥겔스는 어떤 사람인가. 맑스의 유고를 보충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으면서 자기 명예와는 전혀 관계시키지 않았단말일세. 이런것을 미루어보건대 공산주의라는 그 리념자체는 각자 자기의 리해관계나 세계관에 의해 자유롭게 대할수 있겠지만 그들의 인간됨됨이나 의리에서는 흠잡을데가 없지 않은가 하는거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수 있겠지. 원시범군이 목격했다는 오기섭이나 그와 류사한 인물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또 북조선이 아니라 여기 서울에도 눈꼴사납게 노는 공산주의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나. 그런건 나는 이 생물학 박사인 김원학선생이 대답할수 있을것이라 보네.》

《내가요? 하하하.》 김원학은 손을 내흔들며 한길이나 뛰였다 떨어진다. 《생물학은 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생물은 열과 빛과 수분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것을 아시면서도. 하하하.》

《아, 저런 억지가 어데 있나. 자기 론문에 유전학은 환경에서 오는 변이를 배제하지 않으며 기형도 인정한다고 하구선.》

방안이 들썽하게 웃음이 터졌다. 그통에 어깨를 싸매고 끙끙 신음하던 원시범이도 흐드러지게 웃었다.

그때 대문쪽에서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였다. 사랑방에서 누가 나가는것 같더니 어멈이 쪽지 한장을 들고 들어왔다. 쪽지를 받

아든 원시범이 《양춘만!》 하고 소리쳤다. 그통에 모두 눈이 둥그래져서 한마디씩 하였다.

《강선제강에 있던 야금기사가 아니요?》

《그 친구가 아인슈타인을 놀래웠다면서?》

《북에서 와서 붙잡아갔다고 했는데…》

원시범이 급히 마루로 나서는데 양춘만은 벌써 마당에 들어서서 맥고모를 벗어든다.

《아! 춘만군, 죽었는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도깨비처럼 나타났는가. 이게 정말 양춘만이 옳긴 옳은가?》

안경쟁이 김원학이 목을 그러안는다.

솜무명으로 풍더분하게 여름옷을 지어입은 양춘만이 깍듯이 인사를 차리고 자리에 앉자 방안시선은 일시에 그에게로 쏠리였다. 이미부터 알고있었던것은 김원학이뿐이였지만 원시범은 물론이고 박문이나 그밖의 학자들도 모두가 그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잘 알고있었다. 물리학자인 송상도도 그렇고 언어학자인 윤시홍도 그러하였다. 이 이야기판에 이미 양춘만이 화제로 된것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강선제강소에서 친일분자를 타도할 때 용케 몸을 피했다는 이야기, 서울 친척집에 붙박혀 두문불출하고 무슨 인생설계를 짰다는 이야기, 틀림없이 미국이나 영국으로 건너가 그의 재능이 꽃피게 될것이라는 예측… 그랬었는데 문득 북에서 험상스럽게 생긴 사나이 둘이 나타나 모가지에 권총을 들이대서 끌어갔다는 등등이 론의되면서 그의 뒤생활과 전후련결에 대해서는 환상과 허구가 가미되여 그럴듯한 하나의 비극적인 줄거리가 만들어져있었다. 양춘만이 상의를 벗어놓고 부채질을 하면서 광복이 된지도 벌써 한해가 되였는데 그새 어떻게들 지내고있는가고 물었다.

그러자 원시범은 얼음에 재웠던 수박접시를 밀어주면서 여기 이야기는 차츰 들을셈치고 북의 소식이나 빨리 펼쳐놓으라고 하였다.

《그래 흥남에 있는 강병철이 어떻게 되였나요. 사형했겠지요?》

원시범이 첫째 알고싶던것을 물었다. 로시험에서 실패한것을 고의적 암해행동이라고 보았으니까 살아남지 못했을것은 뻔한 일이다.

《사형?》

《그렇습니다.》
《지금 청진제강소 기사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며칠전에 특수강 생산에서 성공했단 말이 있었습니다.》
《기사장이요?》 원시범은 도저히 믿을수 없었다. 《기사장이라면 공장주 다음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강선에서 그러쯤되는 자리에 있습니다만.》
《허어? 그래 최준걸이라는 산업국에 있던 안경을 낀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최준걸? 알만합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나오면서 산업을 담당한것은 김책이구 그밑에서 책임적인 일을 보고있습니다.》
《광산에 목이 떨어져 내려가지 않구요?》
《그런 소린 듣지 못했습니다.》
《일제때 기술자를 다 없애치운다고 했는데 달라졌구만.》
《달라진게 없지요. 북조선에서 지식인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것은 이 양춘만을 보면 잘 알수 있습니다. 나는 며칠동안 여기서 일을 보고 다시 강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쯤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방안사람들은 모두 아연해졌다. 여태 원시범이 말하던것과는 정반대였다.

4

정작 이야기를 시작하고보니 끝이 없었다. 양춘만은 이마의 땀을 연방 훔쳐가며 8.15를 맞아 대동강갈숲에 몸을 숨긴 그때로부터 박원식의 분묘앞에 엎드려 울던 그때까지를 조리있게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그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이를 만나뵙던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양춘만은 약간 게면쩍은 낯을 지었다가 그것을 인차 지워버리더니 어느 정도 당돌하면서도 도고한 기색을 보이며 다시 입을 열

었다.

《기왕 말이 난김에 나자신에 대해서 똑똑히 말해두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지고있는 의문이 완전히 풀릴것 같습니다. 나 양춘만이로 말하면 아버지가 지주인데다가 남달리 일제에게 충실히 복무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나자신을 위한것이고 기술을 가진 내가 할 마땅한 행위로 보았던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내가 나자신을 잘 알고있기때문에 광복이 되자 나는 강선에서 이 서울로 도망쳐 왔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또 나자신이 공산주의와 융합될수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공산치하에 끌려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던것입니다. 처자까지 버리고말입니다.

그런데 박원식이라는 사람이 문득 나타나 북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목숨이 아까워 그를 따라섰던것입니다. 그때 내가 북으로 가기를 거절하면 군대출신이라고 자기를 서슴없이 밝힌 그가 단방에 내 머리에 권총을 들이댈것으로 짐작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끌려가다가 기차에서 뛰여내려 도망쳤던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손길이 미친 내 가정사정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직접 장군님을 만나뵈옵고 눈을 뜨게 되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 진실에 의해 나의 신념이 생겼고 튼튼히 굳어졌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내가 체험한것을 말하자면 며칠을 두고 말해도 다 말할수 없습니다. 요는 뭐냐하면 여러분들도 장군님을 한번 만나보라는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장군님께서 정사를 펴시는 북조선땅을 한번 밟아보시오. 그러면 다 알게 될것입니다.》

처음에는 몇마디로 속심을 다 털어놓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시작하니 그렇게 되지 않고 흥분이 앞섰다. 그래 그는 끝을 잘 맺지도 못하고말았다.

《장군님을 만나보십시오. 꼭 만나보십시오. 나는 이 이상 권고할것이 없습니다. 사상과 인품이 위대하고 숭고할뿐아니라 인간으로서도 최대의 매력을 지니신분입니다.》

방안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하나를 말하면 열,스물을 헤아릴수 있는 그들이였기에 양춘만의 과정이자 곧 자기들의 행로로 될수 있다고 보기때문에 어느 말 한마디,어느 세부 하나도 무심히 들어넘기지 못하였다. 건넌방 벽시계는 벌써 밤 2시를 알리였다.

원시범이 래일 다시 만나 이야기를 듣자고 해서야 모두 흩어지게 되였다.

양춘만은 원시범에게 량해를 구하고 박문이와 김원학을 불러세웠다.

《잠간 좀 실례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온 사람이 선생님들을 조용히 만나고싶다는데 그에 응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쾌히 승낙하였다. 양춘만은 밖으로 나가 얼마간 있다가 키가 크고 점잖게 생긴 중년사나이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는 소개를 하였다.

《이분은 이제 평양에 나오게 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일을 보는 리용한선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박문이 놀라움을 보이면서 손을 움켜잡으며 자기 소개를 하였다. 《저는 력사학을 전공하는 박문이올시다. 수고스럽게 오셨습니다. 신문에 난것을 보고 이미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장군님의 존함으로 불리는 대학 선생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서울에서는 대학교사에 미국군대가 들었는데 북에서는 없던 대학을 새로 내온다니 대조가 명백합니다.》

뒤이어 김원학이와 원시범이 인사를 하였다. 좌석은 정중하였다. 얼마간 인사말을 더 나눈후에 리용한은 들고온 가방을 열고 눈부시게 흰 종이봉투를 하나 꺼내였다. 그 봉투안에는 그보다 작은 봉투가 또 들어있었다. 여러장의 봉투가운데서 이름을 골라잡더니 먼저 박문앞으로 내밀었다. 두손으로 정중히 받쳐 내든 봉투를 박문이 받아 속지를 꺼내들었다. 속지에는 활달한 필체로 몇줄 적혀있었다. 박문은 읽어내려갔다.

《위촉장, 박문선생귀하,

귀하에게 평양에 창립되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을 위촉함.》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그는 큰소리로 웨치였다.

《아!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서명하시였군요!》

봉투와 속지를 겹쳐든 박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눈을 내리감으면서 위촉장을 가슴에다 꽉 눌러대였다.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장군님께서 친히 불러주십니까. 장군님!》 감격에 목이 메여 끅끅 숨을 몰아쉬며 옆에서도 알아들을수 없는 혼자소리로 뭐라고 부르짖고있다.

뒤이어 김원학이도 같은 위촉장을 받아들었다. 김원학은 박문이보다 나이도 젊었고 성미가 급한축이였다. 그는 위촉장을 받아쥐고 두번세번 거듭 읽고 나서 묵묵히 지켜보고있는 리용한을 와락 그러안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군님품에 빨리 안길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리용한은 만족한 웃음을 지으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하고 눈물이 글썽해서 대답하였다.

처음부터 줄곧 양춘만이와 금시 나타난 리용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던 원시범은 갑자기 머리를 푹 떨구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회오리바람이 일었다.

첫번째는 아니다 하더래도 두번째이거나 아니면 세번째쯤은 자기에게도 위촉장이 차례질것으로 믿고있었다. 그러나 약간 동안을 두었다가 《절커덕!》 소리가 나게 리용한은 가방을 접어 돌려놓는다. 기대를 가지고 그쪽의 손길을 뒤따르고있던 원시범은 가슴이 섬찍해났다. 물론 그는 북으로 가고싶은 마음으로 위촉장을 기다린것은 아니였다. 아직은 그쪽으로 인생의 발길을 다시 돌릴 결심은 서있지 않았다. 그러나 인젠 설사 북으로 가고싶어도 그렇게 할만한 자격마저 잃어버린 인간으로 되였다는 절망감이 온 넋을 사로잡았다. 그러자 부상당한 상처의 아픔이 되살아나면서 온몸을 쑤시였다. 그는 붕대를 동인 팔을 부둥키면서 신음소리를 내였다.

리용한은 실례했노라고 인사를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원시범

은 대문밖까지 따라나가 바래주면서 마지막순간에나마 자기에 대한 어떤 조언이 있을가 기대하였다. 그러나 리용한은 이쪽 마음을 전혀 아는것 같지 않게 무심히 떠나가버렸다. 원시범은 눈에 시뻘겋게 피가 져서 양춘만의 팔을 잡고 방안에 되돌아들어왔다. 박문이와 김원학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단둘이 마주앉았다.

《양춘만씨! 나는 어쩌랍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말입니다?》

원시범은 양춘만의 팔을 흔들며 부르짖고있다.

《어쩔것이 있습니까. 본궁화학에서 당신을 기다리고있는데.》

《기다리고있다?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아니,그럴수 없습니다. 당신은 내 일을 너무나 단순하게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나보다 더 복잡한가요? 아니면 지금 청진제강기사장으로 가있는 강병철이보다 더 복잡한가요? 친일한것으로 말하면 조선의 지식인중에서 내가 첫자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배반한것으로 말해도 최대의 죄악을 범했구요. 내가 자세히 말했지만 나때문에 항일투사 박원식동지가 희생되였어요.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무덤을 안고 울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생 씻을수 없는 후회를 남기였습니다. 원씨,당신도 더 큰 후회를 남기지 않겠거든 나와 함께 갑시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차로 경성역에서 떠나겠습니다.》

양춘만이도 떠나갔다. 원시범은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날이 샐 때까지 방안과 마당에서 서성거리였다.

어느덧 닷새가 지나 양춘만이 떠나간다는 시간이 왔다.

원시범은 택시에 앉아 경성역으로 가고있었다.

승용차는 번화한 거리를 빠져서 경쾌하게 달리고있다. 원시범은 망막에 비쳐오는 모든것이 자극으로 되여 눈을 감고앉았다.

(나와 강병철은 어떻게 되여 이렇게 먼거리에 놓이게 되였는가?)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작년 이맘때에는 이 거리를 같이 걸었

었다. 38선을 함께 넘었다. 평양역에서 떠나는 북행렬차에 같이 올랐다. 그런데 무슨 차이가 이토록 합치기 어려운 각도와 거리를 만들어놓았는가? 양춘만이 말한것처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같이 가자. 그렇다. 같이 갈수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어디에 깃들인단 말인가. 어디에… 어디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지탱해서…

《다 왔습니다, 손님!》

택시가 멎었는데도 잠자코있는 손님을 운전사는 깨우는것이다. 대합실에 들어가니 박문이와 김원학이 그밖의 한 10여명의 학자들, 기술자들이 나와있었다. 그들은 모두 먼길차비들을 하였다. 수수한 작업복에 가방을 들기도 하고 배낭을 메기도 하였다. 어데도 양춘만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부터 지면이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줄곧 사위를 살피였다. 확성기에서 북행렬차개찰이 시작된다고 알리였다. 기차손님들이 개찰구로 쏠리였다. 10여명 일행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각각 흩어져나갔다.

그때 양춘만이 나들문쪽에서 뛰여왔다.

《나는 혹시나 해서 집에 들렸댔습니다.》 하고 첫마디를 뗀 양춘만은 얼결에 《안가겠는가요?》 하고 물으려다 말았다. 그앞에 서있는 원시범은 와이샤쯔바람이였고 손에 든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길차비가 아니였다. 길떠날 사람이라면 백추화를 데리고 왔을텐데 홀몸으로 나온것이다. 양춘만은 서둘러서 개찰구로 빠지는 줄에 들어섰다. 그런후에 그는 처량한 눈길로 멍청히 서있는 원시범을 쳐다보고있었다. 말로는 데려가주었으면 하는 은근한 눈치를 보이고있었지만 실지행동에서는 반대라는것이 알리였다. 비교해보면 양춘만 자기자신이 어둠이 내려덮인 캄캄한 평산벌을 내닫던 때와 비슷한 처지라고 볼수 있었다. 아직도 더 뼈아픈 심리적모대김을 겪어야 하고 쓰라린 고초를 맛보아야 할 사람이다.

원시범은 이 순간 불이 이는 마음을 지그시 누르며 쓸쓸한 눈길로 동료들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렇게 다들 떠나버리면 이 험지에서 혼자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막막하였다.

그래도 이남땅에 와서 말동무라도 되여주던 사람들이란 이들뿐이였다. 이제 이들마저 훌쩍 떠나버리면 누구와 더불어 울적한 심정을 나누며 간단치 않은 인생의 앞날을 함께 론할것인가. 단 몇달을 체험한바이지만 남조선세상이란 인젠 불을 보듯 뻔하다. 바다물을 다 마셔야 바다물이 짜다는것을 알겠는가. 이제 이놈의 땅에선 일제시대의 현대판이 부활되여 일본놈 대신 햄스 같은 자들에게 굽신거리며 사는 굴종과 치욕의 길밖에 차례질것이 없을것이다. 그런데 그 굴욕마저 인젠 외롭게 홀로 남은 연약한 몸으로 지탱해야 한단말인가. 북에도 정신적으로 의탁할데가 없다면 과연 이곳에는 그러한 지탱점이 어데 있단말인가! 남북조선의 넓으나 넓은 땅에 이 자그마한 지식인의 넋이 깃들일 한쪼박의 보금자리조차 없단말인가. 북에도 못붙고 이남에도 못붙고 인젠 동료들과도 헤여져 고독하게 살아야 하니 왜 유독 나만이 이런 눈물겨운 운명의 희롱을 당해야 하며 유독 나만이 세상의 이런 쓰디쓴 배척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야, 이렇게는 못살아. 이제라도 같이 가자고 해본다? 아마 나만 결심하고 같이 가자고 말하면 양춘만이도 선뜻 동의해나설것이다. 그가 받은 임무가 그런것이 아닌가. 까짓거 강병철이도 최준걸이도 그리고 저 양춘만이도 다시 생각하고 택한 길인데 나라고 그렇게 못한단 법이야 없지 않는가…

《빽!》

기적소리가 울리자 홈은 갑자기 부산스럽게 설레이기 시작하였다. 호각소리, 고함소리, 울음소리… 양춘만이도 차에 오르려고 한다.

원시범의 가슴은 널뛰듯한다. 이 순간을 놓치면 모든것이 끝장이다. 그는 와락 달려들어 양춘만의 손목을 끌어당기였다.

《나는 나는 어떻게 하랍니까? 이렇게 다 데리고 가면 이 살판치는 남조선땅에서 어떻게 혼자 살랍니까!》

설음에 겨워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한다. 그는 양춘만의 손목을 놓칠가봐 으스러지게 거머쥐고 흔들었다. 이제 이 손목마저 놓치는 날에는 영영 모든것과 헤여져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질것 같았다.

《양춘만씨, 나도 데려가주시오. 나도!》

양춘만은 측은하고 동정이 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마음만은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육신은 끌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당신한테는 자기 몸을 옮겨놓을만한 의지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의지는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신념에서 생기는것이지요. 나도 한때 그것이 없었기때문에 육신은 끌려가면서도 마음만은 되돌아서서 배신과 치욕의 길로 줄달음쳤던것입니다. 늦어져도 좋으니 꼭 그 의지를 찾아가지고 우리에게로 다시 오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양춘만은 사람들틈에 끼워 객차칸으로 올라갔다.

기적소리가 다시 울리였다. 덜커덕 하고 차바퀴 드티는 소리가 나는가 했는데 어느새 렬차의 꼬리가 시야에서 사라지고말았다.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아 플래트홈의 기둥을 붙잡고 모지름을 쓰던 원시범은 아스레하게 들리던 기적소리가 저 멀리 공간에 잦아드는것과 함께 자기의식도 차차 그속에 묻히고만다는것을 깨달았다. 다음 순간 그는 맥없이 딱딱한 콩크리트바닥에 털썩 쓰러지고말았다.

종 장

1

김일성동지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현관으로 나오시였다. 이미 현관밖에는 김책이며 교육국 책임일군인 김시석이며 그외 대여섯명의 일군들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아침부터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에 그이를 모시기 위해 은근히 속을 태우고있었다. 며칠전부터 하루 한번씩 말씀올릴적마다 《나가보겠습니다.》라고 하시였지만 정작 당일인 오늘에 어떤 급한 일이 제기되겠는지 알수 없었던것이다. 오늘아침때까지만 해도 서기에게 장군님의 일과에 대해서 김시석이 물었을 때 선자리에서 네댓가지 급한 용무를 내놓았던것이다. 남조선에서 찾아온 어느 정당책임자와의 면담, 쏘미공동위원회사업과 관련한 대외인사와의 상면, 합당직후 평남도당단체의 사업정형에 대한 료해사업 등등이였다. 그렇기때문에 장군님께서 차에 오르시면서 《그러면 늦지 않게 가봅시다.》라고 하시였을 때 동행자들의 기쁨이란 대단한것이였다. 그중에서도 대학기성회를 조직하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전적으로 그 일에 붙어있은 김시석의 기쁨이란 이루 형용키 어려울 정도였다.

차에 앉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차창을 내다보고계시였다. 언뜩언뜩 지나가는 거리풍경을 보고계시노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시였다.

(그러니까 얼마만인가?) 하고 그이께서는 추억을 더듬으시였다. 차창에 흐르던 거리풍경은 언뜻언뜻 장면이 바뀌였다. 광복된 거리에서 처음으로 평양곡산공장으로 찾아가시였을 때 페허처럼 스산한 마당에 서시여 먼저 생각하신것이 《이것을 복구할 일군

이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것이였다. 그후 련이어 강선제강소, 평양철도공장, 평천병기공장, 신의주 비행장, 흥남비료공장, 해주, 청진 등 어데를 가나 표면에 나타난 《광복》이라는 환희밑에 음울하게 깔려있는것은 《인재부족》이라는 난관이였다. 그런데도 과감성을 발휘해서 정권기관을 내오시고 토지개혁을 단행하시였는데 그 결과가 가져온것 역시 비탈을 구으는 눈덩이처럼 날이 갈수록 덩지가 커지는 인재문제였다.

일제히 소학교를 개교하고 평양에 공업전문학교를 하나 내오고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첫 의정으로 연필생산을 토의해야 했던 그때로부터 오늘 대학을 개교하는 이날까지 그 과정은 이전에 하나의 큰 전역을 치르는것만 못지 않은 용감성과 지구성을 길러야만 하시였다.

연원을 향해 거슬러오르면 마당거우밀영의 동기학습, 그에 앞서 왕청유격근거지에서의 아동단학교나 오가자와 고유수에서의 군정교육을 합친 학교를 창설하던 그때부터라고 할수 있었다.…

한편 종합대학 각 학부들에서는 개교식을 맞기 위한 준비사업때문에 며칠전부터 들끓고있었다. 그중에서도 룡흥리에 있는 공학부교실이 특별하였다. 20세 전후의 청년들이 교실에 꽉 차서 떠들고있었다. 탄광, 광산에서도 오고 제철소, 제강소들에서도 왔다. 대부분 로동자출신인데 간혹 중학을 다닌 학생들도 있었다. 송림제철소에서 왔다는 키가 껑충한 학생은 돌이 된 아들이 있다고 하였고 문천제련소에서 왔다는 몸이 다부진 학생은 자기네 문중 50여호중에서 대학생이 처음 생겼노라고 으시대였다. 청진에서 왔다는 얼굴이 곱살하게 생긴 선반공출신학생은 벌써부터 공부할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중에서도 불만한것은 아침부터 꽃다발을 준비해놓고 기세등등해서 왔다갔다하는 신창탄광에서 왔다는 학생이였다. 그는 정성들여 만든 꽃다발을 세면대야에 불궈놓고 시들지 않게 돌보고 있었다.

《여, 신창탄광!》 하고 꽃을 만지고있는 박창술의 어깨를 건드렸다. 청진서 온 학생이다.

《난 이거 야단이야. 소학교를 겨우 나온 수준인데 대학공부를 해낼수 있을가?》

《허! 이거 정말 한심하군.》 첫날부터 웃음꽃이 피여있고 매사에 자신만만한 박창술이 손을 저으며 대답한다.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예과를 내오도록 하셨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래두…》

《여! 걱정말구 냅다밀고 들어가잔말이야. 우리가 무식해서 되는가.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로동계급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였는데.》

이렇게 서두를 떼놓고 벌써 며칠어간에 두번이나 펼친 금고열쇠 이야기를 또 꺼내였다. 그렇게 되자 학생들은 일제히 오늘 개교식에 장군님께서 나오실수 있겠는가 하는데 관심이 쏠리였다. 한반은 정사가 바쁘셔서 나오시지 못할수도 있다고 하였고 다른 절반은 만사를 미루시고라도 나오실거라고 주장하였다.

그중에서도 박창술은 《꼭 나오시네, 꼭!》 하고 단호하게 기정사실화해버리였다.

《그러면 장군님께서 박창술동무를 알아보시겠구만. 영광이야, 대영광!》

그러나 박창술은 손을 내저었다.

《여! 친구들, 그렇게는 안되네. 절대루! 광복이 돼서 수천수만의 사람을 만나보신 장군님께서 잠간 만나뵈온 저같은 탄부를 어떻게 기억하신다고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개교식장으로 떠나기 위해 마당앞에 모이라고 알리였다.

학생들은 4렬종대를 지어 보무당당히 한길에 나섰다.

꽃다발을 안은 박창술이 맨앞에서 활기있게 걸음을 내짚고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마당에 서서 기다리고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올리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그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손을 흔들어 답례를 하시

였다. 환호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합대학창립준비위원회를 책임진 김시석이 안내를 하였다. 그이를 모신 일행이 마당한쪽에 세워놓은 대학창립을 설명하는 직관물쪽으로 걸음을 옮기려고 할때 꽃다발을 든 남녀학생들이 나타났다. 장군님앞 몇걸음을 사이에 두고 키가 후리후리한 남학생 하나가 멎어섰다. 그는 학생모를 벗고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올리더니 꽃다발을 두손으로 받들어올리고 장군님앞으로 다가갔다. 한걸음앞까지 나선 그는 고개를 들고 큰소리를 내였다.

《장군님! 저희 **김일성**종합대학 첫 학생들은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나라의 첫 대학에서 행복하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였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충성으로 보답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장군님,축하를 받아주십시오.》

앞으로 다가오는 꽃다발을 받아드시는 순간 그이께서 《이게 누구요,신창탄광 박창술이 아니요?》 하고 놀라시는것이였다.

《장군님! 박창술입니다. 석탄을 캐던 탄부가 오늘은 대학생이 되였습니다.》

《오! 그렇군. 그렇단말이지.》

순간 그이께서는 팔을 벌리시였고 박창술은 그이의 가슴에 덥석 안기였다. 두팔에 힘을 주어 와락 탄부를 그러안으신 그이께서는 갑자기 가슴을 떠밀고 솟구쳐오르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눈을 지그시 내리감으시였다. 다음은 잔등을 두드려주시며 눈물이 쏟아져내리는 탄부의 볼을 싸쥐였다가 다시 와락 당겨 볼에 대고 문대시는것이였다. 이윽해서 그이께서는 박창술이 입은 대학교복의 목깃이며 앞섶을 만져보시고 모자도 돌려가며 살펴보시는것이였다. 이때 그이의 얼굴에는 내가 이날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는 심정이 력연히 나타나있었다.

그이께서 박창술의 허리를 가리키시였다.

《그래 금고열쇠를 가지고있소?》

《장군님! 튼튼히 보관하고있습니다.》

《그렇소. 하하하…》

군중들의 환호는 절정을 이루어 하늘땅을 흔들어놓았다.

이윽해서 그이께서는 박창술을 옆에 세워두신채로 교직원들, 준비위원들, 래빈들이 드리는 꽃다발을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박창술의 어깨에 다시 손을 얹으시고 물으시였다.

《그래 어떻게 돼서 대학생이 되였소?》

《장군님, 철장도 들어보고 정대도 만들어 재미나게 석탄을 캘만하니까 저 김책동지가 나를 불러 동무는 공부를 해야 되겠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 제가 공부는 차츰 하고 석탄을 캐야겠다고 하니까 장군님의 뜻이요, 잔말 말고 학교에 가오 해서…》

《하하하 그렇게 됐군. 이제는 우리 로동자, 농민이 직접 과학과 기술을 틀어쥐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장군님!》

김시석의 안내로 직관물을 보시게 되였다. 첫 머리에 교사략도가 있고 다음에는 학제도표가 있었으며 그다음에 창립준비위원회 사업을 물심으로 도운 명단이 게시되여있었다. 돈을 기부한 사람, 량곡과 물자를 보내온 사람, 교구비품과 실험기구들을 보내온 사람이 수백이나 되였다.

다음은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량쪽으로 갈라서서 박수로 환영하고있는 교직원들 앞으로 다가가시였다. 맨 첫머리에 양춘만이 섰다가 인사를 올리였다.

《아니, 강선의 양춘만이 여기 어떻게 나타났소?》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듯이 양춘만이 선뜻 한걸음 나섰다.

《장군님! 저희들이 이번에 위촉장을 가지고 남조선에 갔다왔습니다. 서울서 온 선생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소.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까지 세차례에 걸쳐 도착한것이 60명이나 됩니다. 저는 뒤늦게나마 박원식동지에게 사죄하기 위해 박원식동지처럼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렇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어디 만나봅시다. 불원천리 사선을 넘어온 귀한 인재들인데…》

양춘만은 뒤에 모여선 선생들을 소개하였다. 처음에 력사학자 박문이, 그 다음에는 생물학자 김원학, 그 다음에는 물리학자 로창묵

등 60여명 전부가 인사를 올리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첫 사람부터 마지막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고나서 옆에 서있는 키가 자그마하고 나이지숙한 선생에게 말씀을 건늬시였다.

《우선 선생님들이 먼길에 오시기 수고했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듣자니까 길이 순탄하지 않아 륙로로도 오고 배를 타고 바다로도 오고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의뿐이지 넉넉한 생활조건이나 융숭한 대우를 해드릴수 없습니다. 나라형편이 아직 그렇게 할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에게 여기 온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둘레를 지어 모여섰던 선생들이 모두 감탄을 하면서 경의를 표하기 위해 허리를 굽혀보이였다. 그중에도 박문의 대답이 인상적이였다.

《저희들은 여러가지 좋은것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모든것을 다 잃더라도 오직 하나 장군님의 위업에 자그마한 괴임돌이 되는 긍지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이께서는 경의를 표하고 방금 력사학자라고 소개한 키가 큰 선생에게 말씀하시였다.

《선생님은 력사학자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력사가는 언제나 과거에만 살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날에 살도록 해드릴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창조하는 력사를 같이 체험할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생물학자 김원학이 한걸음 나서며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저는 장군님께서 미흡한 저를 믿어주시고 여기에 불러주시였다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이 긍지를 안고 후대육성에 한몸바치겠습니다.》

바로 그때 《장군님!》 하고 큰 소리로 웨치면서 사람들틈을 헤가르고 달려나오는 청년들이 있었다. 청년들은 무턱대고 장군님두리를 에워쌌다.

《장군님! 저희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감격이 지나쳐서 말마디들을 잘 아물구지 못한다. 순식간에 오륙십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이앞에 정렬해섰다.

《그래, 다 왔소? 일행이 다 도착했단말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맨앞에 다가서서 보고하던 몸매가 날씬한 청년의 어깨를 그러안으시며 뒤를 이으시였다. 《먼저번에 대표로 왔던 그 학생은 왜 보이지 않소?》

《장군님, 그 학생은 서울서 경찰에 체포되였습니다.》

《체포되였다?!》

그이께서는 그이상 더 말씀하시지 않고 정렬해선 학생들을 자애에 넘친 시선으로 둘러보시였다.

학생대표들이 서있던곳에서 《남조선에서 온 학우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웨침소리가 터졌다. 전체 군중들이 박수로 환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에서 온 학생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고나서 그들이 목청껏 웨치는 만세의 환호성에 떠받들리여 개교식장으로 들어가시였다.

9월 15일 오후 1시,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모여온 학생들과 교원들, 준비위원회성원들, 수백명의 손님들이 참가한가운데 력사적인 **김일성**종합대학 개교식이 진행되였다.

2

개교식이 끝난 다음 각 학부들에서는 첫 기념강의들이 진행되였다. 한껏 흥분된 안동권은 개교식장에서 나와 서구 룡흥리에 있는 물리수학부교사로 가고있었다. 첫 강의를 담당했던것이다. 전차로 칠성문고개를 넘고 거기서부터는 걸었다. 귀에서는 아직 식장에서 터져오르던 환호성의 여운이 울리고 시선을 보내는곳마다에는 인상적인 장면들이 언뜩언뜩 나타났다. 그런데 문득 오늘아침에 있었던 불길한 사건이 뇌리를 치고 살아났다.

…아침일찍 가죽가방을 옆에 끼고 출근길에 나선 안동권은 젊은 사람모양으로 걸썽걸썽 걸음을 내떼였다. 아침부터 거리에는 사람래왕이 많았다. 광복이 돼서부터는 아침에 한두시간 일찌기,저녁에는 한두시간 더 늦게까지 사람이 끓었다. 그는 김책을 만나기 위해 여느때보다 한시간 앞서 집을 나섰는데 사람이 붐비여 빨리 갈수 없었다. 밤을 새워가며 첫 강의원고를 썼는데도 피곤한줄 몰랐다. 가방에는 한시간반분량의 강의안이 들어있을뿐인데도 연덩이라도 안은것처럼 묵직하게 느껴졌다. 룡흥리지경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뒤에서 《안선생！ 안녕하십니까？》 하는 소리가 들리였다. 뒤를 돌아다보니 검은 안경을 낀 사나이가 급히 따라오고있었다.

《안선생님！ 원기가 대단하십니다. 따라설수가 없군요. 며칠동안 계속 댁에 찾아갔는데 계시지 않는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더군요.》

그것은 민기환이였다. 왜 그런지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걸읍시다. 서서 그러면 남보기에 수상하니까.》

짐작컨대 민기환은 길목을 지켰거나 집에서부터 따라온듯하였다.

《안선생이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청사에 출입하는 정도를 보니까 가히 립장을 알만합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늦지 않다고 보기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온화한 말씨였지만 역시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한다. 김책을 만난 일을 아는것 같다. 그러나 안동권은 부러 태연한 기색을 띠고 옆에 바싹 붙어선 민기환에게 날카롭게 내쏘았다.

《당신은 무엇때문에 안동권이가 당신의 의사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라는가요？》

《선생님！ 어째서 이렇게 노하기부터 하십니까.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민기환은 안동권의 팔목을 붙잡으며 골목으로 들이끌었다. 《여기서 조용히 얘기합시다.》 사람래왕이 거의 없는 선술집모퉁이에 비켜서서 민기환은 애원하는투로 말을 계속하였다.

《안선생은 지금 인생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이제 한발 어떻게 내디디는가에 따라서 행복할수도 있고 크게 후회를 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권고합니다. 아니 강요합니다. 선생의 앞길을 위해서 그

렇게 해야겠습니다. 선생이 당초에 계획한대로 서울로 갑시다. 그러면 명예와 권위가 담보됩니다.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한다고 그럽니까. 교원이요? 극상해야 공산주의자들은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청산합니다. 보시오. 선생님, 강병철군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가 합금로를 복구해놓으니 벌써 감금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죄를 씌워서 총살할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교또대학 공과출신인 원시범이란 사람은 몸서리를 치고 행처를 감추고말았습니다. 강선제강소에 있는 양춘만이도 이제 기회를 봐가다가 로를 폭파해버리고 달아날 작정입니다. 우리는 선생도 강박에 못이겨 교원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조만간에 자기 지조를 지켜 서울대학으로 올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제국대학 교수를 한갖 평교원으로 떨구는 공산당이 얼마나 무지막지한가말입니다. 이것이 지성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만있을수 없어 이렇게 따라다니며 권고하는것입니다. 선생님! 마음을 돌리시오. 우리와 같이 갑시다.》

흥분되고 초조한 민기환은 등을 돌려대고있는 안동권의 어깨를 잡아 돌려놓고 《어쩔테냐 똑똑히 말하라!》 하는 눈길로 쳐다보고있다.

《그래 말을 다 했소?》

《아닙니다. 며칠을 두고 해도 못다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오시오. 나는 지금 출근시간을 지켜야 하니까.》

안동권은 별로 흥분되는 기색도 없이 가죽가방을 다른쪽에 옮겨끼더니 걸음을 내뗘였다.

《잠간만, 안선생!》

민기환은 음울한 눈을 번뜩이면서 앞을 막아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선생은 첫 교단에 서는 오늘이 생을 끝맺는 날로 될것입니다.》

《위협인가요?》

조소를 띤 안동권의 눈이 어딘지 모르게 공포에 질려있는 민

기환을 야멸차게 굽어본다.

《위협이 아니지요. 선생이 잘못 생각하시는걸 깨우쳐주는것이올시다.》

《감사하오！》

안동권은 고개를 약간 숙여보이며 걸음을 떼였다.

《며칠후 서울신문에 기사가 날것입니다. 공산주의자의 압력에 못이겨 서울대학 교수 안동권선생 자결, 이렇게말입니다.》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안동권은 피뜩 뒤를 돌아다보더니 내친 걸음으로 꿋꿋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이윽해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민기환이 뒤따르는것 같은 느낌이였다. 골목에는 사람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그는 어깨를 떨며 진저리를 쳤다. 압력이요 자결이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는 반발과 혐오가 끓어올라 별일없이 지나칠수 있었지만 결코 홀가분하다고 볼수 없는 민기환의 협박이고보면 필연코 무슨 일이 있을것만은 사실이다. 걸음을 멈추고 넋없이 서있는 그의 손이 후두두 떨리면서 가죽가방이 미끄러져 땅에 툭 떨어졌다. 그 소리에 그는 소스라쳐 놀랐다. 가방을 집어드는 그의 얼굴에는 구슬땀이 한벌 내돋았다. (어떻게 할것인가？) 하고 그는 자문하였다. 이제라도 돌따서서 민기환을 붙잡고 대결을 할것인가 아니면 운명의 흐름에 내맡긴채 두고볼것인가. 그러나 그는 가방에 발린 흙먼지를 툭툭 털고나서 가던쪽으로 걸음을 내떼였다.

《될대로 되여라. 이제 내가 무엇을 주저할것인가. 운명의 수레는 가속을 얻었은즉 돌부리가 있다해서 멈춰서지는 못한다.》

…

침울한 기분에 잠긴채 그는 어느새 대학정문에 들어섰다.

교무실에 이른 안동권은 가방을 열고 강의안을 꺼내놓더니 팔목시계를 보았다. 아직 5분이 남았다. 그는 세면장으로 들어가 랭수로 얼굴을 식히고 수건으로 꼼꼼히 훔치면서 거울앞에 다가섰다. 몇오리 남지 않은 머리카락에 조심히 빗을 댄후 넥타이를 바로잡고 돌아섰다.

김책이 교장과 함께 랑하에서 기다리고있었다. 김책은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축하의 말씀을 전달한 다음 첫 강의를 듣기 위해 중요 공장, 기업소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 여러명 참가하게 되였다는것을 알리였다. 그러나 안동권은 별로 감탄을 하거나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정색해서 인사를 차리고 교실쪽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안동권이 넓다란 종합강의실 교단에 올라서자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나 경의를 표하였다. 그가 답례를 하면서 손을 들었다내리우자 모두 자리에 앉았다. 뭇시선이 일제히 긴장된 안동권의 얼굴에 쏠리였다. 300여명 학생들과 함께 한 20명 정도로 짐작되는 손님들이 뒤에 앉았다. 그가운데는 김책이와 이곳 교원들도 여러명 끼여있었다.

안동권은 얇은 수첩을 하나 들고 교단에 나서더니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수십년동안 하루에도 몇번씩 거듭한 동작인것이다. 그는 물결무늬넥타이가 달린 헐럭한 목깃을 만져보더니 근시경을 교탁우에 벗어놓고 염낭에서 돋보기를 꺼내 낀 후에 나직이 말을 떼였다.

《강의본론에 들어가기전에 교단에 선 안동권의 소개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내는 고요하였다. 교정 한끝에 서있는 미루나무가지에서 새들의 우짖음소리마저 들려왔다. 안동권은 주름이 가고 푹 꺼져들어간 눈으로 장내를 한번 둘러보았다.

《학생들!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물리학교원입니다. 평양태생으로서 걸음마를 뗄 때부터 중학을 나올 때까지 대동강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후 서울로, 도꾜로 다음에는 미국 쌘프란시스코를 돌아서 다시 서울로 전전하였고 경성제국대학에서 청년기, 중년기를 보내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어째서 물리강의에 앞서서 이런 구구한 개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물질의 속성과 그 구조, 그것의 운동과 변화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 종당에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신성한 교단에서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장내를 다시한번 둘러보았는데 이때 김책이와 시선이 마주치자 침착하게 그러면서 의미있게 고개를 약간 숙여

보이였다. 다음순간 그는 완연히 알아볼수 있을 정도로 몸을 흠칫 솟구었다. 맨뒤 참관석에서 이쪽을 정시하고있는 강병철을 발견한것이다. 테가 굵은 안경에 머리가 유독 커보이는것이 집에 몇번 찾아왔던 강병철이 틀림없었다. 《강병철》 하는 소리가 무의식중에 입새를 터치고 나올번하였다. 까딱 움직이지 않고있는 강병철을 보노라니 방금 민기환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안동권은 미소를 머금고 《서울신문에서 안동권 자결 운운》도 상기하게 되였다. 교탁을 짚은 팔이 흔들렸던지 물을 떠다놓은 유리잔이 달각달각 소리를 내였다. 그는 찰랑찰랑한 물잔을 조심스럽게 한쪽옆으로 옮겨놓고 강의를 계속하였다.

《세상만물은 모두 제나름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있고 또 자기의 변화발전에 대한 드틸수 없는 법칙을 가지고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무시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물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파악할수 없을뿐더러 엄연히 존재하는 사물을 잃게 될것입니다. 례를 들면 고대 미개인들에게 있어서는 황금덩이가 막돌의 가치와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던져 로획물을 타격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는데 있어서는 두 사물의 의의가 동일하였기때문입니다. 그 두 사물의 오늘과 같은 차이는 인류가 장구한 기간 아마도 수만년에 걸친 물질적 정신적 축적과 지능을 발달시킨 결과에 점차 이루어질수 있었을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사물에 대한 관점이 진지하였는바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생각해내고 그로부터 물질의 공통성과 차이점,그의 변화발전의 리치를 연구하면서 점차 자기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거시세계에서 멀리 벗어나 미시세계에로 시야를 확대해나가면서 세계는 100개에 가까운 원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원소의 다양한 결합이 우주의 천태만상을 빚어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만물의 령장이라고까지 일컫게 된 인간 그자체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파악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불명확하게,더디게,미미하게밖에 진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은 인류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 두개골의 용적과 하악골의 길이 또는 손과 발의 차이 등을 세밀히 고찰하여 매우 놀랄

만치 변화되였다고 소리높이 웨치고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비교관찰이 빠른 사람이 다른 과학에 비해 인간 그자체에 대한 인식은 〈별로 달라진것이 없다.〉고 단마디로 결론해버린다면 그 론단을 뒤집어엎을만한 충분한 론거가 없는것만도 사실입니다. 인간의 기원문제를 놓고보더라도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되고 원숭이는 바다에서 생긴 미생물에서 진화되였다는데까지는 밝히였으나 생의 기원은 아직 설명을 끝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대기를 가진 우리 행성자체에서 생겨났다고도 하고 그 요소가 외부에서 흘러들어왔다고도 하면서 생명의 자생설과 외입설의 론쟁은 아직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는 도깨비같은 설도 정도이상 오래가는 모양입니다. 인간의 기원문제만이 아니라 본성에 대한 문제도 누구하나 정통을 찌르는 명철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인간은 악의 화신이라고도 하고 또 인간은 하나의 물질존재방식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별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게르만족은 자기들의 부모를 한때 기아를 면하기 위한 식품으로 대신한 일이 있고 유럽과 아메리카의 농장주들속에서는 부림소에 비해 사람이 훨씬 더 비능률적인 생산수단으로 인정되였었습니다. 또한 어느 한 통치자의 일시적 분노를 삭이기 위해 또는 그들의 사치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천수만의 인명이 전장에서 썩었다는데 대해서는 례를 들지 않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물리라는 과학은 연구되면 될수록 인간에게 보답하기를 한손에는 밥을 쥐여주고 다른 한손에는 인간자체를 살륙하는 칼을 쥐여주게 되였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미국의 〈맨하탄계획〉에 말려들었던 물리학자들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상을 보고 자결하기도 하고 정신착란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요는 무엇인가. 인간은 인간자체를 인식하며 통제하는 기능을 못가졌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종수가 없는 수레가 비탈을 굴러내려가는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교단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있는 소인도 얼마전까지 다른 학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인류의 재난을 보태는데 한몫 끼우게 되였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을 나온 과학자, 기술자들은 조선총독통치에 가담하였으며 거기서 연구된 공학에 의하여

성능높은 강철수레와 발동기가 만들어지고 폭발물이 생산되였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조선민족을 향해 육박해왔습니다. 이것을 비탄한 소인은 여기서 물리학에도 얼이 있어야 한다는 실로 얼빠진 소리를 하게 되였던것입니다.》

강의를 중단하고 안동권은 기침을 깆기 시작하였다. 천식기가 심한 그는 수건을 입에 대고 겨우 숨을 돌리고나서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얼결에 줴친 한마디 말때문에 서울종로경찰서에 끌려간 나는 뻘겋게 단 인두로 목덜미를 지지우게 되였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얼이란 무엇인가, 말하라.〉 하고 심문하는데 나는 한마디도 대답할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절개나 리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것입니다. 나는 끝내 대답을 못했으며 사죄문에 지장을 찍고 〈명치천황〉이 내렸다는 〈교육칙어〉를 진심으로 받들것을 맹세한후 교단으로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물리학은 명실공히 무기물을 대상하는 학문인데 어째서 첫 강의에서 인생학의 범주를 건드리는가 하겠지만 나는 기필코 모든 우리 학문의 출발점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겠는가를 말하기 위해 이 점에 류의해두는것입니다. 령토는 있으되 나라가 없고 민족은 있으되 얼이 없고 재능은 있으되 그것을 담을 그릇이 없는 이 땅이 다름아닌 얼마전의 조선이였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한것처럼 우리 겨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간접식품으로 되였으며 마소와 같은 생산수단으로 되였으며 침략전쟁의 소모품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조선사람의 지능 즉 기술이나 숙련은 이 처참한 살륙전에서 능률을 가하는 에네르기야의 역할을 하였던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선민족의 개개의 생명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푼의 가치도 의의도 없는 존재로 저락되였습니다. 이 암담한 땅에 태양이 솟았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개선연설에서는 물론 그밖의 여러 기회에 피력하신 연설들과 담화를 들어보면 인간을 존중히 해야 한다는 숭고한 사상이 맥맥히 굽이치고있는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되 우리 민족이 번영할수 있

는 나라를, 제도를 세우되 우리 개개 인간의 권리와 인격이 존중시되는 체제를, 경제를 부흥하되 우리 인민이 대대로 복락할수 있도록, 문화를 건설하되 우리 민족의 슬기를 한껏 꽃피울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계십니다. 과학과 기술도 우리들의것으로 만들며 우리자체를 문명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이께서는 모든 사업에 앞서 맨먼저 인재를 양성하는데 착수하시였습니다. 인재육성을 선결문제로 보신 이 견해에는 무엇보다도 인간을 기본으로 해야 하며 인간의 지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사상이 표현돼있는것입니다.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이 바로 내가 모대기며 찾던 조선의 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모든것을 우리 인민을 위하여 제기하시고 그것을 우리 인민의 힘에 의하여 해결해나가시는 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즉 사람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스스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자기 길을 개척해나가는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숭상이나 물질위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에덴동산의 질서를 침해한것으로 해서 인간은 생겨난 그자체부터 죄악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죄악은 한생 씻어도 다 씻어낼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여서 저세상으로 가서까지 회계해야 한다는 기존철학과 인생관에 대한 무자비한 반박으로 됩니다.

그이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데 대한 실례는 얼마든지 들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열네살때 압록강을 건너시였는데 인간에 대한 억압과 착취와 무권리를 참을수 없어 인간해방위업에 나섰다고 하시였습니다. 또 다른 례는 먼데서 찾을것 없이 내가 체험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보잘것 없는 나 같은 인간도 귀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였습니다.

강가를 걸어가던 광맥탐사자가 물살에 흘러내린 자그마한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약간한 유가성분을 발견한 그는 골짜기로, 골짜기로 톺아올라 마침내 한 바위끝에서 로두를 발견하였고 그 줄을 따라 수천척 지하갱도를 뚫고들어가 이제 대광맥을 찾아낼것입니다. 그 노력과 인내성은 참으로 놀라운것입니다. 길가던 사람들의 발길에 함부로 채이던 돌멩이가 보는바와 같이 이 교

단에 서있습니다. 오늘은 몇명 안되는 학도들이 모여앉았지만 이자리를 통해서 수천수백만의 과학자, 기술자 대군단이 서있게 될 희망찬 래일을 내다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소인은 감히 우리 장군님이 천리혜안을 가지고계시며 위대한분이라는것을 말하게 됩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인간이 있어야 세상만물이 모두 의의를 가진다고 가르치고계십니다. 바로 그 인간은 위대한 령도자의 향도에 의해서만 빛을 뿌릴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조선민족은 **김일성**장군님의 령도에 의해서만 참된 자기 가치를 가지는것입니다.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와서는 황금덩이가 막돌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막돌이 황금덩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자원을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이 땅에서 나서자란 인간들이 지니게 되는 무한한 긍지입니다. 3천리 금수강산은 어데가나 명승이며 보물이 가득합니다. 두만강지구에 무진장하게 매장된 철과 석탄, 개마고원지구의 연, 아연, 동, 마그네사이트, 강계지구의 흑연, 창성지구의 금, 안주와 사동 지구의 석탄, 재령지구의 갈철, 삼척지구의 석탄, 이런 식으로 남해안 마산까지, 한나산까지 펼쳐졌고 사시절 출렁이는 세면의 바다, 골짜기마다에 흐르는 수력자원, 이 모든것들이 우리 물리학도들이 눈을 돌려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이 무진장한 자원이 불행의 화근으로 되고 민족의 지혜와 재능이 무참히 짓밟히는 근원으로 되였던것입니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슬기롭고 재능이 있으며 자기 강토를 극진히 사랑하였습니다. 김정호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조선지도를 만들었고 신라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세계최초의 천문대를 만들어 우주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나 강도 일제는 우리 조국을 강점하고 자원을 략탈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고대로마노예나 아메리카 인디안의 처지보다 더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강요하였습니다. 그가운데서도 민족의 두뇌라고 할수 있는 지

성에 대한 억압과 말살은 형언할수 없을정도입니다. 그들에게는 조선사람의 지혜와 기개와 재능이 가장 큰 공포로 되였던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민화를 기도하는 한편 조선인에 대한 재능과 지혜를 무자비하게 말살하였습니다. 일제는 조선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거리나 마을에서 재능있는 사람을 탐문했습니다. 그리고는 1910년경부터 지질조사와 세부측량을 도우라고 하고 산비탈이나 절벽에서, 강에서 조선사람을 없애치웠습니다. 그것이 10년가까운 기간에 무려 60여명, 다른한편 놈들은 일본에 끌어가서 기술을 뽑은 다음 비참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도꾜한복판에 있는 궁성의 2중교를 석축한 조선인석공 6명을 공사가 끝나는 날 밤에 없애버렸고 닛꼬와 나라에 있는 대불당을 건축한 설계가와 목공 21명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938년 11월 룡산기관구에서는 탄수부인 조선사람이 수리중의 기관차에 올라가 차를 가게 하는 증기가감변을 만져보자 일본인기관사의 기술을 도적질한다는 구실을 대서 쇠망치로 머리를 쳐서 즉사시켰으며 1940년 4월 조선무연탄광주식회사산하 강서탄광에서는 일본감독놈이 갱도에 흘린 도면을 얻어본 탄부 2명을 비밀서류를 훔쳤다는 루명을 씌워 수직갱에 밀쳐넣고 버럭을 채웠습니다. 몇해전에 교또대학 화학실험실에서 조선인학자에 의하여 연구된 카바이드에 의한 합성섬유는 일본인으로 귀화할것을 거절했다 하여 발명권이 취소되였습니다.

학생들! 먼 실례를 들 필요없이 내가 교단에 섰던 경성제국대학에는 학생수의 30프로가 조선사람이였는데 그것은 모두 수재로 인정되는 우수한 학생들이였습니다. 그들은 례외없이 졸업한후 일본에 끌려가 저들의 조수노릇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 10년도 못가서 실험사고로 또는 질병으로, 불온사상으로 다 없어지군하였습니다. 근 20년동안에 내가 알게 된 공과생 총 192명중 지금 14명이 살아있을뿐입니다. 이상에 언급한것만으로도 우리 조선의 재능과 지혜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있었는가를 알수 있으며 우리가 어떤 각오로 과학을 대해야 하겠는가를 알수 있을것입니다.》

안동권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너무 흥분해서 어데다 시선을 보내야 할지,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지어

그는 이미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충분히 익혀두었던 강의안에서 어떻게 탈선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당초에 그는 기껏해서 한 5분동안 서론을 말하고 인차 기본내용으로 돌입하려고 하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는 잠간 숨을 돌리고 장내를 한번 훑어보고나서 물잔으로 손을 가져갔다. 목이 말랐지만 잔을 앞으로 당겨놓은채 얼마간 좀 참기로 하였다. 강의의 호흡이 흩어질것 같았던것이다.

그는 기운을 내서 다음단락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찬란한 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도탄에 빠진 우리 인민을 구원하시였으며 건국도상에 있는 우리 인민을 이끌고계십니다.

학생여러분!

다른 모든 사회적 현상이 다 그런것처럼 과학도 숭고한 목적과 리념에 의하여 령도되여야 합니다. 며칠전에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거리를 같이 걸어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적이 있습니다.

〈안동권선생도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이 지식인을 낡은 처지와 의식에서 해방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까?〉

나는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이께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은 마치 총과 같은것이여서 그것을 누가 쥐였는가에 관계없이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갑니다. 그 총을 강도가 쥘수도 있고 주인이 쥘수도 있습니다. 일제시기 과학은 강도가 쥐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인 인민에게 쥐여주자는것입니다.〉라고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것이나 만유인력을 알아낸것이 인류자체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은 오늘에 와서 인류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쳐다보라고 호소합니다. 과거에는 원시인 한사람이 던진 곤봉(부메랑)이 한마리의 산양을 꺼꾸러뜨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현대인 한사람이 누른 하나의 단추에 의해 수십수백만의 인간이 순간에 전멸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일반물리, 고전물리, 량자물리, 소립자물리

등 모든 물리 그리고 생물학, 천문학, 기계학, 지리학, 의학, 화학 등등 모든 과학은 오늘 례외없이 그것을 누가 쥐는가, 무엇에 의해 향도되는가 하는 날카롭고 근본적인 문제앞에 놓이게 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장군님께서 향도하시는 그 길에서 정신을 가다듬고 과학과 기술을 정열적으로 탐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지금 한키로의 쌀과 석탄이 귀중한 때에 우리를 무료로 공부시키기 위해 여기로 불러주었습니다. 잉크단지안에 있는 걸작이 아무 소용이 없는것처럼 우리는 물질의 변화발전에 대해서 기록이나 하거나 사진의 감광판처럼 되여서는 안됩니다. 김매던 사람이 문득 금강석덩어리나 황금을 얻어보던 횡재는 앞으로 영원히 없을것입니다. 오직 과학의 힘에 의해서만 우리가 유족하게 살수 있는 모든것을 찾아내게 될것입니다. 어서 빨리 배우고 공장으로, 광산으로 들어들갑시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3천만동포가 다 잘살수 있는 지상락원을 건설하기 위해 먼저 전민이 공부하는 배움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웁시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를 향도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건지시였을뿐만아니라 그 가치를 인간본연의 높이로 승화시킨 대사변이며 영광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인간으로, 조선민족으로 새로 태여났습니다. 해방이란 곧 인간의 넋의 해방입니다. 일제가 패망되였다는 그자체가 해방인것이 아니라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넋을 심어주었기때문에 해방입니다. …》

이때 교단이 놓인쪽 나들문이 덜컥 열리더니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였다. 강당안의 눈길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리였고 안동권이도 고개를 돌리게 되였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는것은 허름한 옷차림을 한 20대의 청년인데 《급한 일이 있습니다. 나오시오.》 하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였다. 강의도중에 무례하기도 하거니와 언제나 어떤 일로도 강의를 중단해본적이 없는 그였다. 순간 그의 뇌리에는 불길한 생각이 번개처럼 스치였다. 혹시 민기환이란자가 마수를 뻗쳤을수도 있는것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이

자리에 떳떳이 서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사시나무떨듯하였다. 교단을 짚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다. 공포에 질린 눈은 초점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였다. 장내가 술렁거리였다.

바로 그때 손님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자 드티는 소리가 났다.

안동권이 시선을 돌리자 그쪽에서 김책의 불타는듯한 눈길이 마주향해 날아왔다. 김책은 자리에서 일어선채 안동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길은 부실 정도로 빛났으나 얼굴에는 한가득 미소를 담고있었다. 김책은 무언의 암시로 오른손을 약간 쳐들어보이고는 옆에 앉았던 좌현이를 데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순간 안동권은 김책이 남기고간 그 눈길과 미소와 손짓이 무엇을 의미한것인지 똑똑히 깨달았다. 한동안 가랑잎같이 흔들리던 가슴 한가운데 무쇠기둥이 자리잡히는듯싶었다. 어떤 산같이 믿음직한 존재가 뒤에서 자기를 보호해주고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서는 억척같은 힘이 솟구쳐올랐다. 그는 곧 흩어진 자세를 바로잡고 강의를 계속하였다.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모든 과학과 기술은, 직접적으로는 내가 이제부터 강의하게 되는 물리학은 장군님의 향도에 의해 앞길이 밝혀지게 되였습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는 이 학교를 장군님의 존함을 모셔 **김일성**종합대학이라고 부르는것은 응당한것이며 우리의 최대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의의를 띠는가 하는것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뚜렷해지고 확대되게 될것입니다. 그러면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안동권은 칠판을 향해 돌아서더니 큼직큼직하게 《물리학의 정의》라고 판서를 하고 다시 교탁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들문이 가볍게 열리더니 좌현이가 물잔을 하나 들고들어왔다. 유리고뿌에는 물이 찰랑찰랑하였다. 좌현은 교탁 한켠에 고뿌를 놓고 이미 놓였던 고뿌를 들고나갔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있었던지라 안동권은 몇모금 물을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다.

3

안동권의 강의가 계속되고있을 때 옆방에서는 좌현이와 괴이한 청년이 마주앉았다.

《당신은 누구요?》

좌현은 푸른빛을 내뿜고있는 눈으로 수상쩍게 청년을 쳐다보고있었다. 하지만 이쪽 기분에는 관계없이 청년은 손바닥으로 이마의 땀을 문대면서 후후 큰숨을 내쉬고있다. 그는 괴이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후련한 기분에 잠겨있는것 같기도 하였다. 어깨를 들었다놓으며 다시한번 긴 한숨을 쉰 뒤에 그는 자세를 바로하면서 입을 열었다.

《저는 평양철도검차구에 있는 방문선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요?》

좌현은 상대자가 정신이 똑똑하다는것을 알게 되자 한층 더 긴장해졌다.

《사실입니다. 그 고뿌에는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비상을 탔습니다. 실험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탁자에 놓인 물고뿌를 보면서 좌현은 다시한번 몸을 떨었다.

《계속하시오. 누가 그랬는가? 목적이 뭔가?》

방문선이 그것을 알게 된것은 지금부터 약 30분전 3.1려관 2층 민기환의 방에서였다. 함흥,흥남 지방에 갔다온 민기환은 기분이 대단히 좋아서 이제 안동권이만 돌려세우면 《만사는 오케이》라고 하였다. 어제 경상골에 있는 백씨네 집에 갔다와서는 안동권을 없애치워야겠다고 하였다. 오늘아침 일찌기 오라고 해서 민기환의 방으로 찾아갔는데 어느 한 청년에게 요새 방문선이 좀 수상한데 뒤를 밟으라고 하면서 새로 세운 대학에 나가보라고 하는 말을 엿듣게 되였다. 민기환은 어떤 청년에게 유리고뿌에 약을 쳐서 교탁에 가져다놓으라고 하는것이였다.

《령감태기는 1시간수업에 두세번 목을 추기는 습관이 있어. 서울대학에 있을 때부터라는거다. 십중팔구는 성공한다. 그러면 공산당의 협박에 못이겨 교단에 서기는 했지만 절개를 지켜 자결했다고 소문을 퍼뜨리면 된다. 아니면 공산당작간이라고 해도 무방하구…》

방문선이 그길로 달려왔는데 그가 대학현관에 들어섰을 때는 안동권이 한창 강의를 하는 도중이였다. 그래 그는 엉겁결에 교실문을 열었던것이다.

《알만하오. 그런데…》

좌현은 방문선의 이야기를 다 듣고나서 한층 더 우울한 낯빛을 지었다.

《그게 다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방문선의 시선이 좌현의 가슴에서 의자로, 그다음에는 옆에 앉아있는 김책의 발등으로 옮겨지는데 그의 손은 겨드랑밑으로 천천히 기여들어가고있었다. 방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리는 가운데 그는 번쩍 빛을 뿌리며 오싹한 기분을 자아내는 검은 물체를 하나 꺼내 탁자우에 덜컥 소리나게 내놓았다. 그것은 권총이였다. 총구는 엇비슷이 창문쪽을 향해졌다. 좌현이 와락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그는 마루바닥에 털썩 쓰러지였다.

《선생님!》 그의 음성은 처절하게 방안을 울리였다. 《못난놈을 이 총으로 쏴주십시오. 개잡듯 쏴서 죽여주십시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좌현은 팔을 비틀어잡고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방문선은 마루바닥에 녹아붙은것처럼 엎드려 떨어지지 않았다.

《놔두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소.》

김책은 좌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청년이 내놓은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즉시에 알아차렸다.

《의자에 앉아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오. 울지만 말고.》

한참동안 울고나서 얼굴을 들고 방문선은 우선 자기 소개부터 하였다. 서울서 중학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여기저기 뜨내기생활

을 하던중 광복이 되였다고 하였다. 그가 듣기에는 남조선에는 아메리카식 정치제도가 서고 북조선에는 로씨야식 정치가 실시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몰락하였지만 몇해전까지 한 열흘갈이땅을 소작준것이 있었던 그는 광복이 되자 인차 서울에 올라가 살아갈길을 모색하였다. 그러다가 민기환의 줄에 걸려 평양역 검차구에 들어박히게 되였다.

어느정도 기분을 누잦힌 방문선은 조리있게 사연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집게다리〉는 말했습니다. 민기환의 지시다, 공산당을 녹이자면 철도를 녹여야 하고 철도를 옴짝 못하게 하자면 쌀공급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해주에 가서 쌀이 못오도록 해야 한다. 그래 나는 〈집게다리〉를 따라나섰습니다. 신원역 급수장의 뽐프를 파괴하라고 해서 제가 기름을 치고 불을 달았습니다. 흑교를 지나서 기차굴을 빠지니 이미 약속한대로 우리 패거리들이 기차방통을 떼기 위해 달라붙었습니다. 박원식선생이 우리 아이들하구 결사적으로 싸우는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 선생은 총을 가지고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자꾸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 위급하니까 공포를 놓으며 위협했습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우리는 중화에 와서 뒤를 따랐습니다. 과수원언덕에 올라섰을 때 〈집게다리〉란놈이 박원식선생을 먼저 쐈습니다. 박선생은 가슴을 움켜쥐고 도랑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이때 나는 머리속에서 번개가 번쩍하는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들었던 이 총으로 〈집게다리〉의 골통에 대고 한방 쏘고 그다음에는 잔등에 대고 또 쐈습니다. 그리고 나는 추격해온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방문선은 자기의 솔직한 자백이 상대편에 어떻게 리해되는가 알아보기 위해 두릿두릿 좌우를 살피고있다.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김책이 물었다.

《그러고보니 더 큰 의문이 생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돼서 마음을 돌려먹게 되였는가?》

유심히 듣고있던 방문선이 고개를 주억거리고 대답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해주에 떠나기전에 박원식선생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철도공장에 나오신 장군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가 장군님은 참말 인자하고 너그러운분이라고 하였습니다. 박원식선생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길래 나는 다른것은 모르겠다, 팔이 하나 없는 아바이가 있지 않는가, 그 아바이를 보신 장군님께서는 친히 그가 앉은 자리까지 찾아가시여 팔이 없는 소매를 만져보시였다, 그 한가지 사실을 보고 나는 눈물이 날만치 인정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박원식선생은 당신 말이 옳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얼마전에 강선제강소에 나가셨는데 양춘만이라는 기사가 가족을 버리고 어데론가 도망가고 없었다, 그 집에는 세살난 아이가 앓고있었는데 칠골고개까지 왔다가 되돌아가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해주시였다고 하였습니다. 박원식선생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길가에서 한 10분 가면 있는 고향집에는 들리지 않으시고 곧추 강선에 가셨다가 돌아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집을 떠난지 20년이나 되는 고향집이라고 했습니다. 박원식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차방통에 앉아 나더러 배가 고프겠는데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해주에서 가지고 떠난 줘기밥입니다. 박선생은 자기도 굶었는데 기어이 날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죽어서는 안되지요. 나는 박선생이 총에 맞아 쓰러질 때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일하는 사람을 해쳐서는 안된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초들초들 마른 입술을 감빨고나서 방문선은 고개를 들어 방안을 둘러보더니 성급하게 말을 계속하였다.

《빨리 민기환을 체포하시오. 그놈이 흥남제련소 로도 폭파시켰습니다. 자기 부하 문가를 보내서 카봉에 물을 치게 했습니다.》

《제련소 로를 그놈이 폭파했단말이요?》

김책이 너무나 놀라와 큰소리로 웨치였다.

《그렇습니다. 지금 황금정에 있는 3.1려관에 있습니다.》

《좌현동무! 시보안서에 전화를 하시오.》

4

저녁노을이 서쪽유리창문을 붉게 물들이게 되였을 때 그닥 넓지 않은 방안에 식탁이 차려지고 한 50여명의 인원이 둘러앉았다. 모인 사람들가운데는 김용범이와 김책이 그리고 도당비서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지도간부들, 종합대학창립 준비위원회성원들, 교직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 모범로동자와 애국농민들, 상공인, 종교인들과 대학 학생대표들도 참가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불러 환영하였다. 그이께서 손을 들어 답례를 하신 다음 환호를 그만하라고 손을 흔드시자 이마에 내리드리운 몇오리 머리카락이 같이 흔들리였다. 청춘의 기백이 온몸에서 풍기는데 그이의 얼굴에는 함뿍 웃음이 어려있었다. 자리에 앉으신 그이께서는 오른쪽에서부터 빙 둘러 하나하나 참가자들을 살펴보시였다. 옆에 앉은 교육국 책임일군이며 대학창립 준비위원회성원인 김시석이 그이께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부터 **김일성**장군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알리였다.

《동무들! 격식없이 모두 저녁식사를 같이 합시다. 우리 나라에 우리의 첫 대학이 나온것을 축하합시다. 개교식에서 다 말했기때문에 따로 더 언급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사에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인재양성의 큰걸음을 내띠였다는것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그러니까 한 보름전입니다. 우리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을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을 창립하였습니다.

우리는 로동당을 창립하면서 당기발과 당마크를 제정하였습니다. 로동자, 농민을 상징해서 마치와 낫을 엇가로 놓고 그 복판에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놓았습니다. 여기에 우리 당의 의지가 잘 나

타나있습니다. 바로 이 3대구성성원의 하나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게 되는 동무들을 축하해서 이 잔을 듭시다.》

그이께서는 식탁우에 간소하게 차린것을 둘러보시고나서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여기에는 밥과 국이 있고 고사리와 도라지, 콩나물 한접시가 차려있을뿐입니다.

그러나 동무들! 그것만을 보지 말고 동무들이 각각 한개씩 들고 이자리에 찾아온 저 장안의 물건들을 보십시오.》 그이께서는 손을 들어 방 한쪽벽에 세워놓은 책장을 가리키시였다. 《저기에는 흥남제련소에서 뽑은 특수강1호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흥남비료공장에서 뽑은 류안비료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는 신창탄광 광복갱에서 캐낸 석탄이 있습니다. 강선제강소에서 만든 강철도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삼천리〉표 연필도 있습니다. 총 200종이 넘습니다. 저것이 그래 이 료리상만 못하단말입니까. 이것은 광복된 조선의 첫 년륜입니다. 광복이라는 첫 씨앗이 떨어져 이 땅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가 내리였습니다. 자, 동무들!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시오.》

그이께서는 오른손을 힘있게 높이 드시여 안경을 낀 강병철을 쳐다보시였다.

《식탁도 좋고 광복된 우리의 첫 제품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수 없는 큰 위업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첫 성공을 보았습니다. 얼마전까지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의 의지로 단합되여 여기에 모이였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이 10여명이나 여기에 참가했다는것과 목숨을 걸고 38선을 넘어온 학자들이 수십명이나 있고 학생들도 있다는것을 동무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이것은 기쁜 일이고 잊을수 없는 인상을 남기는 하나의 사변인것입니다. 혁명가들이나 정치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나서자랐으며 높은 지식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온것은 넉넉한 생활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애국적인 감정과 량심의 지향에 의한것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한테 옴으로써 중산층이상의 생활을 버리고 한동안 허리띠를 졸

라맬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것 대신에 우리 인민과 우리 력사가 기억하게 된다는 긍지와 영예를 얻게 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의사, 작가, 예술인들인 동무들은 영원히 우리 당과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것입니다.

그런데 동무들!

우리는 어떻게 되여 지식인인 동무들과 결합되게 되였겠습니까! 우리들을 한덩어리로 이어붙인 그 접합점에는 선렬들의 피가 응결되여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동무들을 잊지 못하는것입니다.

동무들 하나하나는 또한 자기 생명을 내걸고 폭풍우와 싸워 인생의 대해를 건너 마침내 우리와 만난것입니다. 동무들가운데는 갈바를 모르고 헤매던 사람도 있었으며 조선사람으로 태여났고 더구나 기술과 지식을 가진것이 일종의 재난으로 되여 자기를 원망하며 생을 스스로 포기하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였습니까. 이에 대해서 나는 구구히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이께서는 말씀을 잠간 중단하시였다. 활달하고 패기있는 몸동작도 그러하였지만 장내를 둘러보고계시는 그이의 시선은 흔히 볼수 없는 류다른것이였다. 불을 뿜는것 같은 강렬한 빛과 모든것을 압도해버릴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었다. 그것은 가장 높은 긍지와 쾌감이 온몸을 채우고 남아서 바깥으로 분출하는 때에 이루어지는것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이의 시선은 좌우에 둘러선 개개의 인물들과 또 방금전에 둘러보게 되였던 개개의 제품과 련결시키면서 그 하나하나에 깃든 깊고도 복잡한 사연들, 피어린 로정을 거쳐 이자리에 이르게 된 운명들을 모두 꿰뚫어보는것 같았다. 잠간 사이를 두었다가 그이께서는 다시 계속하시였다.

《그러나 반드시 한가지만은 말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없는 전우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위업을 위해서 한몸을 바쳤습니다. 맨 첫번째로 표창과 축하를 받아야 할 그들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이의 목소리는 차츰 갈리더니 이 대목에 와서는 토막토막 끊기고말았다. 그이께서는 혁명이 주는 처절한 체험, 여직까지 가슴에

괴였던 그 모든것을 낱낱이 쏟고싶으시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정 평범한 표현을 쓰시여 감정을 누르시였다. 그 심정을 충분히 리해하고있는 장내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채 정숙을 지키고있었다. 뜨거운 그 무슨 덩어리가 올리솟는것을 애써 삼키시고 그이께서는 고개를 쳐드시였다.

《나는 지금 이자리에 박원식동무가 참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10년이상이나 산길을 걸었고 총칼의 숲을 헤치면서 여기 평양에 왔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싸울 때도 그랬고 지난해 여름에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광복이 되면 나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이룩하기 위해 나는 어떤 곤난도 이겨낼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 박원식동무는 이자리에 없습니다. 북조선각지에서, 남조선각지에서 수천명의 청년들이 공부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의 얼굴만은 볼수 없습니다.》

그이께서는 숨이 꺽 막혀 말씀을 더 이어대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잡으시더니 약간 모로 서며 고개를 숙이시였다.

장내 여기저기서 흑흑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였다.

잠시후에 그이께서는 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내고 거쉰 음성으로 말씀을 다시 계속하시였다.

《총포탄이 울부짖고 적아가 대치해서 공방을 겨룰 때 전우를 잃었다면 그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고 각오한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을 돌리고 농사를 지으며 학교문을 열고 학생을 맞는 때입니다. 이런 때마저도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 적과 싸워야 합니다. 어제는 박원식이 갔지만 오늘은 공부하기 위해 길을 떠난 서울법정학교 학생들이 체포되였습니다. 38선을 넘기 위해 선생들이 총탄을 피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때문에 인재를 길러내는 이 사업이 하나의 전투라고 할수 있는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여기 모인 동무들이 꼭 승리하리라는것을 나는 믿습니다.》

한껏 흥분된 그이의 음성이 장내를 울리였다.

《자! 동무들, 선렬들의 명복도 빌고 우리모두의 성과를 위해서 이 잔을 듭시다. 우리는 동무들을 믿고 또 동무들은 우리를 믿

고 모두 합심해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 건설에 매진합시다. 광복된 이 나라가 거목으로 자랄것을 축원해서 자, 동무들!》

장내가 떠나갈듯이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김용범이와 김책이 눈굽을 훔치였다. 이자리에 와서야 처음으로 서로 알게 된 강병철, 양춘만, 한명구들도 서로 마주보며 눈물이 글썽해서 잔을 들어올리였다. 잔을 비우고 다시 자리에 앉은 그들은 모두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김일성**동지께서는 잔을 들고 오른쪽 한끝에서부터 동지들을 하나하나 찾으시였다. 몇사람 건너 남조선에서 넘어온 학자들인 박문, 로창묵, 김원학 등과 마주서시였다.

《건강들은 어떻습니까?》

그이의 물음에 일제히 《건강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애로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올리였다.

《그렇다면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는 누가 무어라고 하든 선생들을 믿고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장군님!》 머리가 벌써 반백인 박문이 갈린 소리를 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였다.

그것을 보신 그이께서는 시선을 다음사람에게로 돌리시였는데 거기에는 서울법정학교에서 온 학생이 서있었다.

《공부를 잘하라구. 그래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해야지.》

《알았습니다. 장군님! 믿음에 보답하겠습니다.》

학생은 쓰러지듯이 장군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끅끅 울음을 삼키였다.

잔에서 술이 넘쳐날만치 고개를 끄덕이시는 그이의 눈굽에서 물기가 번쩍 빛을 뿌리였다.

그이께서 한명구앞으로 오시였다.

《한명구동무! 요새 어떻습니까?》

장군님께서 문안을 하셨을 때 그는 고개를 떨구고 다시 들지 못하였다.

《자! 잔을 듭시다.》

한명구는 고개를 들고 잔을 마주 쬥고 말씀을 올리였다.

《장군님! 이 한몸을 바쳐 선렬들의 뒤를 따라 드팀없이 걸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잔을 비우고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띠시며 다음자리로 옮겨가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강병철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술잔을 내드시였다. 그러자 강병철은 자기 잔을 들어 앞으로 내대며 약간 허리를 굽히는데 그이께서 소리가 나게 잔을 쫗으시였다. 그러시고는 방안이 울리게 말씀하시였다.

《강동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기가 흘러서 인명에 피해를 주던 로를 없애버렸다니 참 잘했습니다.》

그때 강병철은 《장군님!》 하고 친근하게 부른 다음 정중히 말씀을 올리였다.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마음을 쓰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한나라와 한민족의 불행은 먹고 입는것이 얼마나 조야한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어데로 가야 할지 갈바를 모르고 헤매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갈길을 명확히 찾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신적 지탱점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렇소.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걸음 옮기시여 옆에 서있던 박창술에게 잔을 내미시였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동무들은 이제 과학과 기술을 점령해야 합니다. 꼭 그 요새를 돌파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뜻대로 꼭 뚫고들어가겠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때 오른쪽옆에 서있는 안동권을 띠여보시였다.

《안선생, 요새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이께서는 한걸음 나서시여 안동권이쪽으로 다가가시였다. 《안선생, 말씀하시오. 우리 로동계급이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장군님! 우선 먼저 우리 겨레를 배움의 길로 인도하시는

장군님께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하고 안동권은 이미부터 흥분되였던 감정을 즉석에서 쏟는것이였다. 《우리 로동계급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과학과 기술을 제손에 틀어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망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오, 박창술동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환갑을 넘긴 안동권선생이 일생을 바쳐 체험한 교훈입니다.》 하고 그이께서는 안동권이앞으로 잔을 내대시며 말씀하시였다. 《안동권선생! 축하합니다. 우리는 배움의 첫 걸음을 잘 떼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을 많이 내옵시다. 그래서 무지와 몽매를 이 땅에서 깡그리 소탕해버립시다. 종합대학을 내오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군중들속에서 반영이 큽니다. 공장과 기업소들에서는 애국로동을 하겠다고 궐기하고있습니다. 애국미를 바치는 농민들이 있는가 하면 돈을 내는 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인민들은 꼭 그에 보답하게 됩니다. 이만하면 신심을 가질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배움의 나라 건설을 축하해서…》

《장군님!》 안동권은 다시금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나서 부르짖었다. 《우리는 벌써 승리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성에는 날개가 달리였습니다. 하늘높이 날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런데 듣자니까 첫 강의를 하다가 큰일날번했다면서요?》

《위태위태한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습니다만 별일없습니다. 장군님!》

《무사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융단을 펴놓고 꽃보라를 뿌려주는 길은 지금 우리가 갈 길이 아니지요.》

《내 한생의 경험은 무슨 일에서나 생명을 내걸고 하는 때에만 성공할수 있다는것이였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최준걸동무를 10년만에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뜻이 같으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옆에 지켜섰던 박창술이 장군님앞으로 썩 나서며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한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뭡니까？ 박창술동무의 요청이면 들어줘야지.》

박창술은 상우에 놓인 병을 기울여 큰 고뿌에 술을 하나가득 채워들고 앞으로 다가섰다.

《우리 로동계급과 **김일성**종합대학 전체 학생들의 요청입니다.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해서 들어주십시오.》

《하하하.》

그이께서 고개를 젖히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이 동무는 참말 걸작이거든. 누구든 자기 목적에 휘여들게 하니까.》 하며 좌우를 둘러보시고나서 《동무도 같이해야지.》 하고 그이께서 술병을 집어드시였다.

이때 문득 그이의 뇌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박원식이 서울에 갔다온 보고를 다 하고나서 마지막에 덧붙인 문제였다. 서울역에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의 광고가 나붙었는데 그 위원장 홍명희를 찾아가 만났더니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개선하시기를 기다린다는것이다. 두달도 좋고 석달도 좋다고 하였다. 지어 몇해가 가도 좋으니 기다린다는 말을 꼭 장군님께 전하라고 했다는것이다.

《동무들！》 하고 **김일성**동지께서 잔을 높이 드시면서 갈린 목소리를 내시였다. 《우리 조국이 통일되는 날을 위해서, 남조선 전체 인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잔을 다같이 듭시다.》

5

강병철은 대동강가를 걸어가고있었다. 가을바람이 선들선들 불어 옷자락을 날리였다. 원시범이와 함께 여기를 같이 걷던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되여온다. 원시범이 생각이 떠오르자 왈칵 가슴이 흔들리면서 온몸이 화끈 달아났다.

《시범이！》

대동문에 이른 강병철은 더 걸음을 내뗄수가 없었다. 숱한 사람들이 대동문루각과 련광정 그리고 평양인경 두리에 모여들어 구경을 하고있었다.

《원시범이! 너는 지금 어데 있느냐?》 하고 강병철은 또 부르짖었다.

(원시범이! 우리가 그토록 모대기며 찾던 조선의 지성인이 나가야 할 길은 드디여 열리였다. 자네가 항상 말하던것처럼 인생의 길은 여러 갈래도 아니며 또한 내가 말하던것처럼 두갈래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김일성**장군님을 따라가는 단 하나의 길뿐이다. 우리는 끝내 자기가 가야 할 정로를 찾은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청소년시절에 서로 저도 모르게 현혹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그 길도 아니였으며 더구나 알라신이나 석가모니도 아니였다. 우리가 쓰거운 낯을 짓고 넘겨다보던 명예와 향락과 치부를 위한 그것도 아니였더란말이다. 그래 우리는 끝내 그 가냘픈 인정의 끄트머리,우리의 량심이라는것에 매달렸었지. 그러나 그 량심이란 일제의 권력앞에서 무색한 낯을 짓고 염낭에 쑤셔넣지 않을수 없잖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재능도 금력도 량심도 믿을수 없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허탈상태에 빠지고말았었지. 그래 나도 허무한 이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 생각을 할만치 어리석어졌었다. 그러다가 나는 한줄기 빛을 붙잡을수 있었다. 그 빛이란 곧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신 믿음이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믿는 그이의 밝은 빛이 나의 령혼을 밝혀주었다. 아! 그이께서 우리 지식인에게 안겨주신 믿음,그것은 실로 놀라운것이다. 내가 오늘저녁에 보고 들은것만 해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만한것이다. 평양철도국장 한명구,그를 위해 한명의 유격대원이 자기몸을 바쳤다. 강선제강소 양춘만은 제도와 리념을 따지기전에 인간을 존중하고 인정의 리치에 서있는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가겠다고 땅과 재산을 내놓고 나섰다. 원시범이! 내 말을 듣는가. 우리 민족이 **김일성**장군님과 같은 그런분을 모시게 되였다는것은 전민족의 행복이고 영예이다. 무엇으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만약 우리에게 밤이 가고 낮이 온다는 그 단순한 하나의 자연현

상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모든것이 비정상적으로, 부조리로 얽히게 될것은 물론이고 물질진화의 최고성과인 리성이라는 그자체마저도 부정하게 될것이 아닌가. 그러나 다행히도 인류는 그에 대한 드놀지 않는 믿음에 기초하여 살아가고있는것이다. 이 리치와 마찬가지로 무궁무한한 우주공간에 떠있는 삼라만상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영원히 자기 존재를 유지하고있는 그 힘과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만유인력이라고 하지 않는가. 하다면 우리 민족, 우리 겨레가 바로 그렇게 각기 제나름의 생활 양태와 방식을 가지고 영원무궁할 번영의 길에 들어서게 된것은 무엇때문인가. 바로 그 《만유인력》은 **김일성**장군님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그 위대한 사상이다. 그것은 온 민족을 뗄래야 뗄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융합시키는 인력이며 그것을 통채로 번영에로 이끌어나가는 대견인력이다. 원시범이! 너도 이제 어데 가서 무엇을 하든 이 인력권외에 서있지 못할것이다. 같이 가자. 그래서 그이를 중심해서 돌고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행성으로 되자.)

강병철은 모지름을 쓰면서 껄껄한 대동문 돌벽에 볼을 비비였다. 눈물에 젖은 돌판은 달빛을 받아 거울처럼 푸른빛을 반사하였다. 고뇌에 젖어 늙어보이는 얼굴에 어린애와 같은 순결하고 평온한 기운이 물결치고있다. 마치 그는 너무나 큰 격동을 이기지 못하여 가뭇 잠든것처럼 보이였다.

6

집무실에 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석양이 비끼기 시작한 창문을 내다보시다가 문득 본래 계시던 외성리합숙으로 나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였다. 숙소를 옮기신후 한동안 나가보지 못하시였다.

마당에 들어서시니 물을 긷던 안명숙이 뛰여와 반갑게 맞아들

였다. 몇마디 합숙형편을 물으시고난 그이께서는 천천히 마당을 거닐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해 가을에 유자덩굴이 기여올랐던 바자턱에 아이들 가오리연이 걸린것을 보시고 그쪽으로 다가가시였다.

《그런데 안명숙동무！》 그이께서 댕기오리처럼 뱅뱅 탈린 연꼬리를 풀어내시면서 쳐다보시였다. 《왜 이렇게 빈집처럼 조용하오. 이 집이…》

《두루 일보러 제가끔 나가다보니 그렇습니다. 2층에 좌현동무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요샌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소. 이것도 쓸만한건데 내버려둔채로 있고.》

그이께서는 한쪽손에는 머리쪽을 다른쪽에는 꼬리끝을 드시고 신문지장으로 만든 연을 내보이시면서 마당한가운데로 나오시였다.

《혹시 동무들이 시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하는거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간 동안을 두었다가 듣게 된 안명숙의 대답에서는 웬일인지 처량한 음조를 느낄수 있었다.

《그렇지 않다？》

그이께서는 향나무우에다가 연을 조심스럽게 드리워놓고 고개를 돌리시였다. 그때 안명숙이 손등으로 눈을 가리우며 돌아서는것을 띠여보시였다.

《장군님！》 갑자기 코멘소리를 내고있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여기 오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다그치신다.

그러나 인차 대답이 없다가 가까스로 떨리는 소리를 냈다.

《박원식동무가 없은 담부터 딱 끊어졌습니다.》

《…》

가슴이 섬찍하는 순간 뒤에서 《스륵》 하는 소리가 났다. 향나무에서 연이 미끄러져떨어지는 소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으시고 안명숙이 앞으로 급히 다가서시였다.

이윽해서 김좌현이 나오자 **김일성**동지께서 물으시였다.

《좌현동무,그걸 어떻게 했소?》

얼떠름해서 대답을 못하고 쳐다만 본다.

《흥남에서 만들어온것이 있지 않소. 그걸 어쨌는가말이요.》

《박원식동무가 만들던 권총말입니까. 가지고있습니다. 저기 책장안에.》

《어서 가져오시오.》

잠간사이에 좌현은 2층에 올라갔다가 종이에 싼것을 들고 내려왔다.

마당을 거닐으시던 그이께서는 좌현에게 《옆집에 있는 인동이를 찾아보오.》 하시며 대문쪽으로 걸어나가시였다.

양철지붕이 이마에 닿을만치 키가 낮은 단칸집에는 40살 되나마나한 녀인이 풍구를 돌리며 밥을 짓고있었다. 아궁이 내서 부엌이며 방안이며 온통 연기가 뽀얗게 차있었다. 좌현이가 덤볐다치며 인동이를 찾는바람에 녀인은 어리둥절해서 풍구를 놓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 녀인은 입을 딱 벌리며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님께서!》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녀인은 방금 배고프다고 칭얼대던 애가 어데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안절부절 못하였다. 방문을 열자 내굴이 차서 안이 잘 보이지도 않는다. 한길을 건너 자전거방쪽에서 《인동아! 인동아!》 하고 부르는 좌현이의 고함소리가 들린다.

《어서 풍구를 돌리십시오. 벼겨를 때는것 같은데 불이 달렸을 때 와짝 돌려야 합니다.》

《아유 글쎄 앉으실 자리도 없어서. 모처럼 오셨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인동이가 보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영문을 몰라하는 녀인에게 사연을 이야기하고계실 때 좌현이가 인동이의 손목을 잡고 달려들어왔다.

《장군님,안녕하십니까?》

머리가 수밤송이처럼 빳빳이 일어난 인동이가 머리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하더니 어머니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두걸음이나 뒤로 물

러난다. 그런후에 어린 짐작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새까만 눈을 더부럭거리면서 이쪽저쪽을 쳐다본다.

그이께서는 아이를 덥석 안아서 높이 들어올리시였다.

《어데 갔댔나, 인동이!》

《뽈을 찼어요.》

주눅이 대판인 인동이는 장군님의 목을 힘껏 그러안고 좋아라 다리를 버둥거린다.

《왜 놀러 오지 않았나요, 인동이!》

《아저씨! 대장이 높나요, 장군님이 높나요? 우리 엄만 대장 아저씨라고 하지 말고 장군님이라고 하래요.》

《녀석두!》

인동이 어머니는 장군님 옷이 덺을가봐 절절매면서 내리라고 야단을 한다.

《인동아! 총을 만들어왔다.》

《총! 야! 좋다.》

땅에 내려선 인동이는 손벽을 짝짝 친다.

그이께서 포장한 종이를 헤치시고 총을 인동이에게 들려주시였다. 인동이는 총가목을 만져도 보고 총신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하더니 《이거 박원식아저씨가 만들던거 아니야요?》 하고 좌현이를 쳐다본다.

《그렇다, 쏴봐라!》

인동이는 격발기를 당기고 빨래장대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였다.

《따 따 따.》

련발로 소리가 났다. 인동이는 총을 머리우에 쳐들고 깡충깡충 뛰다가 끝내는 《만세!》 하고 고함을 질렀다. 어린 넋은 벌써 《적》을 족치고 승리한 통쾌한 기분에 사로잡힌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합숙마당으로 돌아오시였다. 인동이는 아무데나 대고 련발사격을 해댄다. 벽돌담장에다가도 쏘고 측백나무에다 대고도 쏘았다. 어느새 소문이 퍼졌는지 몇분후에는 고또래 아이들이 마당이 가득차게 모여들었다. 권총은 아

이들손에서 손으로 옮겨갔다. 그럴적마다 련발사격소리가 나고 뒤이어 《야! 멋있다.》 하는 탄성이 일어났다.

돌결상에 앉으시여 아이들 노는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계시던 그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함뿍 어리였다. 내 나라 특수강이 처음 나온것을 보실 때도 그랬고 오늘 안동권이 첫 강의를 무려 두시간에 걸쳐 했다는 말을 들으시였을 때도 그런 웃음을 지으시였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짧은 한순간이고 다음에는 인차 긴장한 빛을 보이시였다. 박원식의 얼굴이 우렷이 떠올랐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애써 아픈 추억을 밀어버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시였다. 그러다가 인동이를 불러세우시였다. 그이께서는 포동포동한 인동이의 두볼을 싸쥐고 눈을 들여다보시였다. 흑진주같이 검고 빛나는 눈동자가 빤히 올려다보고있다. 벌써 그 눈에는 때이르게 무엇인가 생각하는 빛이 어려있다. 남실남실 솟아오르는 샘물구멍을 들여다보시는 느낌이였다. 고요한것 같지만 안에서는 끝없이 설레고있다.

그이께서는 인동이를 와락 당겨 가슴에 안으시였다. 어린것은 무턱대고 좋기만 해서 그이의 턱에다 대고 머리를 자꾸 비비였다.

때마침 저녁노을이 한창 무르익었다. 황금빛장막이 온 누리를 덮은것 같았다.

맑은 새날이 올 징조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

제 3 판

저자 권 정 웅 편집 량성원, 조창근
표지 김광호, 김광석 교정 김동화, 안순영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문정실, 김숙경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1판발행 주체77(1988)년 9월 9일
2판발행 주체78(1989)년 2월 10일
3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25일
3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30일

ㄱ—86227